장편회상록

신념과 나의 한생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2(2003)년

차 례

머리말

내가 판문점을 넘어 북쪽땅에 들어 온지도 벌써 1년이 되였다.

1년전의 이날 나는 43년만에 만나는 안해의 손을 잡고 첫말로서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소.》라고 했었다. 사실 나는 그때 더 바랄것이 없었다. 또한 그때 나의 건강은 생의 여분이 한시간일지 두시간일지 알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다. 나는 《송환》이라는 《인도주의》보자기에 싸여 북쪽땅에 넘겨 진 시체나 다름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죽은 자》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1994년 3월 19일, 나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동에 있는 나의 집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43년만에 돌아 온 나의 집이다.

맞은편 벽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활달한 필체로 글 쓰고 계시는 사진을 모신 족자가 걸려 있다. 족자아래부분에는 그이께서 쓰시는 글이 자자구구 부각되여 내 가슴을 파고 든다.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를 우리 당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딸이 올린 편지를 보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내가 돌아 오기 한달전인 2월 24일에 보내주신 친필회답서한이다.

나는 북쪽땅에 와서야 나를 돌아 오게 하는 투쟁이 얼마나 간고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 리인모때문에 얼마나 깊이 심려하시며 치밀한 작전을 세우시고 불면불휴의 지휘를 주시였는지를 알게 되였다.

또한 내가 이미 남쪽에 있을 때 수여된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 내가 아직 남쪽에 있을 때 나의 사회주의조국에서는 이 리인모를 한 인생이 올라 설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세워 주었던것이다.

옛글에 《의리는 큰산 같고 죽음은 홍모 같다.》는 말이 있다. 나는 그 말을 남녘의 감옥에서도 생각했다. 지금은 그 말이 더욱 가슴에 사무쳐 오며 내 이제 죽은들 무슨 유한이 있으랴 하는 생각이 든다. 허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국로병대회때 나에게 앞으로 40년은 더 살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세상에 수호신이라는것이 있다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나의 생명, 나의 한생의 수호신이시다.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그 사랑과 믿음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가 하는 생각뿐이다. 허나 늙고 부서져 불구된 이 몸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가.

43년전에 나는 조선인민군 종군기자로 이 땅을 떠났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나는 다른 직업이라군 가져 보지 못했다.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인민군종군기자인셈이다.

남쪽땅에서 수기를 쓸 때 나는 종군기자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 땅에 와서 보니 종군기자로서의 임무는 끝난것이 아니였다. 건강도 좋아 지고 한가한 시간도 생겨 새해에 들어 서면서 나는 남쪽에서 출판했던 수기를 다시 읽어 보게 되였다.

독자들도 알고 있겠지만 나의 변변치 못한 수기는 이미 두번에 걸쳐 씌여 졌다. 처음 쓴것은 남조선잡지 《말》에 4회에 걸쳐 게재되였고 다음은 새로 기억에 떠오른것들, 탈락되였던것들을 쓴 원고를 《말》지 신준영기자가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글줄마다에서는 양로원에서 혼자 있는 짬시간을 타 인기척에 귀를 강구며 말마디보다 누가 갑자기 들어 오면 어디 감출가를 더 생각하며 급급히 썼던 흔적이 그대로 느껴 졌다.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이 막을수없이 커갔다. 하여 나는 이렇게 필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수기를 다시 쓰려는것이 아니다.

나는 글로 써서 남길만큼 해놓은 일이 없다.

1993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 평양으로 오는 길에 《나는 이렇게 환영 받을 사람이 못됩니다.》하고 말했던것은 겸손에서가 아니였다.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 준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였고 그리고 나를 환영해 주고 맞이해 준 그 사람들이였다.

남쪽땅에서 나는 《당신이 34년간 옥고를 치르면서도 전향하지 않은것은 무엇때문인가.》하는 물음을 만나는 사람마다에게서 받았다. 나는 그 물음에 응당 34년간, 아니 43년간 신념과 의지의 원천으로 되여 준 그것으로 대답했어야 했다.

그러나 남쪽땅에서는 그에 대하여 쓸수도 말할수도 없었다.

《말》지에 수기를 실으면서 편집부에서 첫 머리에 밝혔던것처럼 나는 《보안관찰법》에 의해 사소한 꼬투리로도 언제라도 징역형에 처해 질수 있는 처지》였다. 게다가 《주거제한》에 두발이 묶여 있었다. 감옥에서 나왔다고는 하나 작은 감옥에서 큰 감옥으로 《옮겨 진》것과 같았고 성문화되지 않은 《함구령》을 받은 말하는 벙어리였다.

그런 물음을 받을 때면 부지중 나의 머리속에는 8.15후 2.7구국투쟁때 함구령을 받고 시위대렬앞에서 침묵을 지켜야 했던 랑송시인 유진오의 불 같은 시가 떠오르기도 했다.

다시 또다시
톱날 같은 땅우에
한몸 하늘을 떠받들고
말해서는 아니될 말을 씹어 삼키며
우리처럼 울부짖으면
한초, 한초
숨결과 함께 넓어 져 가는
조국이여…

나는 그 입밖에 낼수도 글로 쓸수도 없었던것을 세상사람들에게 소리높이 말하고 싶다. 이것이 내가 수기를 다시 쓰려는 첫째 리유이다.

다음은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다 쓰러진 동지들에 대한 의무감때문이다.

소위 현대사의 묻혀 버린 부문을 파헤친다며 남쪽땅의 문사들이 그들을 두고 《력사의 수레바퀴에 무참히 깔려 사라진 인생》들이라고, 《반공》의 언덕에 서서 공정성의 연단에라도 선듯 《추도사》를 하는것을 듣고 읽을 때면 나의 가슴은 비분으로 끓어번졌다. 과연 나의 동지들이 그런 인생들이였던가.

지금 지리산이나 속리산, 태백산에서 동지들의 봉분조차 찾아 볼수 없고 취흥에 겨운 사대매국노들이 활보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허나 그것으로 쓰러진 나의 동지들을 허무와 회의의 무덤에 매장하려는것이 정당화될수는 없다.

먼 옛날 지각의 대변동으로 지구상에 밀생하던 동식물이 깊은 땅속에 묻혀 버릴 때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였을수도 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오늘은 인류에게 열을 주고 빛을 주는 석탄으로 되여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처럼 남녘의 산야에 뿌려 진 선혈과 죽음이 때가 되면 민중의 가슴속에서 불 붙는 석탄으로 되여 반미반괴뢰투쟁의 불길로 타오르게 될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민중은 그 시대의 《지층》에서 자주와 사대, 애국과 매국의 격렬한 투쟁사를 감득하며 《반공》의 너울속에 몸을 숨긴 사대매국의 정체를 발견하게 될것이다.

참으로 우리 동지들이 무엇을 바랐던가. 그들이 피 타게 부른것이 과연 《조국통일 만세!》뿐이였던가. 그들이 바란것이 어떤 통일된 조국이였던가. 친일파와 사대매국노가 없는 통일된 조국, 착취와 압박이 없는 조국… 그런 조국은 어디에 있었던가!… 력사는 공정하게 심판할것이다. 내 만일 남녘의 이름 없는 산야에 묻힌 그들의 유골이라도 안고 들어올수 있었더라면!

나는 먼저 떠나간 전우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투쟁의 길에서 이렇게 저렇게 헤여 진 동지들의 그후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유가족에 대하여 이곳에 와서 잘 알게 되였다.

나는 나의 수기를 읽은 북과 남 그리고 해외의 독자들에게 나의 동지들의 그후 운명에 대하여,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 알려 주어야 할 의무를 절감하게 된다.

또한 나는 이곳에 와서 감옥담벽과 간수들의 웨침소리의 강도에서 육감으로 느꼈던 그동안의 정치정세의 격변과정에 대하여 정확히 알게 되였다.

나는 43년간을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감방문틈으로 세상을 보아 왔다. 이제야 나는 비로소 눈과 귀가 열렸음을 느낀다. 43년간, 아니 근 80년간의 나의 한생을 력사의 글줄을 통하여 다시 돌이켜 볼 억누를수 없는 욕망을 느낀다.

이상이 내가 수기를 다시 쓰려는 리유이다.

그러나 남쪽에서 쓴 수기를 나는 귀중히 여긴다. 그 수기로써 나는 계속 살아야 한다는것, 살아 있는 한 투쟁할수 있다는 진리를 찾았으며 페인 리인모로

부터 적들이 여전히 증오하고 무서워 하는 혁명가 리인모로 남아 있을수 있었던것이다.

때문에 나는 남쪽에서 쓴 수기를 기본으로 하여 약간한 정정을 가하고 할수 없었던 말들, 동지들의 유언과 운명을 언급하는것으로 그치려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43년간 나의 직업은 조선인민군 종군기자였다. 당은 아직 나에게 다른 임무를 주지 않았다.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인민군종군기자로서 자기 사명을 수행하려고 한다. 우리 동지들이 걸어 온 영광의 투쟁행로에 대하여, 그들의 고결한 정신에 대하여, 통일된 행복한 조국을 위하여 바친 아름다운 생에 대하여 나는 후대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민족의 성업을 위한 전선에서 쓰러진 전사들이다. 나는 종군기자로서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마지막발자국에 이르기까지 써야 한다.

1994년 3월 19일

조선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

개마고원

내 고향 풍산땅

나는 1917년 8월 24일 안수면 미전리 적수부락(현재 김형권군 미 감리)에서 무녀독남 유복자로 이 세상에 태여났다.

풍산은 개마고원중에서도 가장 높은 화전지대로서 북청, 함흥 등지에서 살수 없게 된 사람들이 들어 와 화전을 일구어 귀밀과 감자농사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고장이였다.

풍산의 력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나는 먼저 우리 집안의 래력을 대충 더듬어 보련다. 그것은 우리 집안이 여기 화전지대에까지 와 살게 된 과정이 풍산의 과거와 비슷한데가 없지 않기때문이다.

원래 우리의 본촌은 함경남도 북청군 하거서면(현재 덕성군 임자동리)에 있는 여어골이라는 농촌이다. 이 마을은 타성이라고는 한사람도 없고 온통 리씨들만 사는 문중부락이였다.

젊은 시절 진사시험에서 합격했던 나의 증조부는 평생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북청읍어름에 첩살림까지 차려 놓고 술로 집의 재산을 탕진하다못해 말년에는 대대로 물려 받은 얼마간의 토지마저 팔아 없앴다고 한다. 결국 증조할아버지가 돌아 갈무렵에는 여어골에 전답 한뼘 남은게 없어 살아 갈길이 막막하게 된 나의 할아버지는 아들 넷을 데리고 여기 화전지대로 옮겨 앉았던것이다.

증조할아버지의 량반놀음으로 집안이 몰락한 다음에도 나의 할아버지는 진사집안이라는 자랑을 그치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 소문은 30리 떨어진 곳에 살던, 뒤날 나의 외할머니가 된분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일찍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기르며 물려 받은 전답으로 괜찮게 살아 가던 외할머니는 진사집안이라는데 혹해서 외동딸을 우리 집에 시집 보냈다.

그러나 외할머니가 딸을 진사댁 며느리로 보냈다고 이웃에 우쭐댄것도 잠시, 아버지는 혼인한지 1년도 못되여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의 병명이 무엇인지 모른다. 어려서 듣기로는 처음에 입술에, 배에 무엇인가 돋아 나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했으므로 의사에게 보일 엄두도 내지 못한채 그냥 앓아 누웠는데 2차감염이 되였던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여 숨을 거두었다는것이다.

나는 그로부터 7개월뒤, 열여덟살에 청상과부된 녀인의 설음 많은 인생에 덧시름을 얹으며 이 세상에 태여났다.

유복자라고 하여 인모라는 이름으로보다 《유복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웠다. 《정바위》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웠는데 그 연원은 나도 알수 없다.

내 나이 벌써 칠순을 넘겨 평양에 와보니 손자손녀들이 대학이요, 중학문을 넘나드는데 이르렀건만 어머니생각은 더욱 새로와 진다.

이 아들 하나를 위해 한평생을 고스란히 바쳐 왔으나 아들에 대한 기다림속에 한평생을 보내야 했던 어머니, 어머니의 젊은 시절은 너무도 기쁨 없고 부담과 설음만으로 가득찬 고통스런 시간의 련속이였다.

자신도 홀몸으로 늙어 오면서 유교도덕에 물 젖어 있던 외할머니는 불행해 진 딸의 신세를 고쳐 주려고 하기는커녕 어머니의 행동을 늘 지켜 보면서 잔소리로 어머니를 꼼짝 못하게 했다.

한번은 어머니가 장에 가느라고 옷을 갈아 입자 외할머니는 《이년, 과부가 장보러 가는데 새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입던 옷을 도로 입고 가거라!》하고 마구 야단을 쳤다. 그때 얼굴을 붉히며 《아이참.》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다시 방에 들어 가 헌옷을 입고 나서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하다. 아마 어린 내 마음에도 그러는 어머니의 정상이 못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에 새겨 진 모양이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그런 동정을 몰랐다. 도리여 어머니에게 《저녁이면 꼭꼭 칼을 갈아 베개밑에 넣고 자거라.》하고 거의 매일처럼 이르군 했는데 당시에는 어려서 그 리유를 몰랐으나 지금 생각해 보니 과부보쌈에 대한 경계였던듯 하다.

그런 형편이였는데 내가 태여난 몇해후 큰어머니 마저 앓다가 돌아 갔다. 우리 어머니는 궁벽한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여 가사를 도맡아 보는 한편 셋이나 되는 나의 사촌형제들까지 맡아 기르는 고된 시집살이를 해야 했다.

없는 살림에 조카 셋과 아들을 똑같이 키우느라 어머니는 궂은일, 진일 가리지 않았고 마음고생 또한 그만 못지 않았다. 복숭아꽃 피는 봄이면 나물을 캐다가 살짝 데쳐 밥상에 얹어 주며 고기보다 맛 있으니 어서들 먹으라고 하시던 어머니, 하지만 개구쟁이아들은 그 정성도 모르고 짜증만 냈으니 그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인들 오죽 아팠겠는가.

농사철이면 어머니는 어릴적부터 장난질이 심한 나를 화전머리에 앉히워 놓고 해종일 밭일을 했다. 품이 많이 들면서도 소출이 극히 적은것이 허드레화전농사이다. 등판에 불을 지르고 힘이 자라는껏 나무등걸과 잡관목뿌리들을 뽑아 던진 뒤 심어 가느라면 처음 한두해는 소출이 괜찮다가도 벌써 삼년이 지나서부터는 숨을 죽인 땅처럼 종자값도 내지 못하는것이 화전이다.

그런 숨 죽은 화전을 어머니는 눈물과 땀으로 적시며 가꾸었다. 새 화전을 일구기에는 힘이 없었고 왜놈들이 만들어 놓은 《산림법》이 무서웠다.

어머니는 밭일에 집안일, 하루종일 고되게 일하고도 밤이면 삼을 삼아 피나게 베를 짰다.

우리들을 《에미 없는 자식》, 《애비 없는 과부자식》이라는 뒤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 밤 새워 베를 짜다가는 베틀우에 그 흩어 진 머리를 그대로 고이고 잠드시군 했다.

그즈음에 어머니는 나를 외삼촌에게 보낼 생각을 한 모양이였다. 어머니의 이 결심이 나는 육체적인 고달픔때문만이 아니였으리라고 생각한다. 조카 셋과 아들을 똑같이 기르느라 다른 사람 눈치 보는것이 더 괴로왔을것이다. 게다가 외삼촌은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1920년무렵이였다.

성실한 안해였던 어머니는 몇해를 밤 새워 가며 피나게 베를 짜서 모은 돈으로 적수부락린근에 파묻었던 남편의 유해를 본촌인 북청군 하거서면 선산으로 옮기는 일을 벌려 놓았다. 적수에서 북청까지는 달구지로 밤낮없이 가도 이틀나마 걸리는 먼길이였다. 이때 내 나이 네살쯤 되였을가? 떠나기에 앞서 어머니는 나를 당시 파발리 소학교 교원으로 있던 풍산군 안산면 파발리 외삼촌(김응인)의 집에 맡기였다.

나의 어린시절에 대한 기억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머니가 떠나던 날 밤, 외삼촌과 외숙모는 잠자리에 들었건만 어린 조카놈은 마냥 앉아서 잠 잘 생각을 안한다. 외삼촌이 보기 민망했던지 어서 누우라고 잠자리로 끄당기나 아이는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왜 그러느냐, 응 바우야?》

외삼촌이 걱정스레 묻자 아이는 누웠다가 잠이 들면 큰일이라며 《잠만 들면 눈이 딱 들어 붙어 버리는데 붙은 눈을 떼줄 엄마가 없으니 잤다가 눈을 떼지 못하면 어쩌나.》하며 우는 소리다.

그때 나는 돌림눈병에 걸려 자고 일어 나기만 하면 눈에 눈곱이 끼여 두눈이 달라붙군 하였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더운물에 적신 솜으로 눈곱을 살살 녹여 떼여 주군 하였다. 물론 어린것의 걱정은 그것만이 아니였다.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와의 이번 작별이 그저 범상한 작별이 아니라고 느껴 졌던것 같다.

어린것의 산란한 심사를 환히 꿰뚫고 있었지만 외삼촌은 그제서야 알았다는듯 《야 이놈아, 네 엄마의 눈 떼는 재간은 내가 가르쳐 줬다. 네 엄마가 없어도 붙은 눈은 내가 더 잘 떼니 마음 놓고 자라.》고 달랜다.

아이는 긴가민가 머리를 갸웃갸웃하더니 《거짓말 아니지?》하며 솔깃해 하는 눈치다.

《이놈아,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외삼촌이 다시 타일러서야 아이는 《그럼 나 잔다.》하며 눕더니 곤히 잔다.

눈 떼는 재간도 재간이지만 외삼촌에게서 느낀 후더운 육친의 정이 어린 나의 마음을 달래주었을것이다.

내가 잠든후에야 외삼촌내외는 홀몸으로 집안살림을 도맡아 하느라 하나뿐인 제 아이조차 기르기 쉽지 않은 녀동생의 가련한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머금다가 조카를 자기들이 맡아 제 자식처럼 기르자는 의논을 했다고 한다.

아마 어머니도 역시 그날 밤 아버지의 유해를 실은 달구지를 끌고 북청까지 가면서 눈물을 흘렸을것이다.

나를 외가집에 보낸후에도 어머니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 때때로 어머니는 낳은 자식이 보고 싶어 시집에서 본가까지 60～70리 실히 되는 길을 찾아 오시군 하였다. 막상 와서도 슬하에 자녀가 없어 나를 친아들처럼 귀히 돌보는 외숙모앞에서 차마 제 아들이라고 마음대로 안아 줄수가 없어 나를 못 본척 하며 괴롭게 얼굴을 돌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어머님이 열여덟에 청상이 되여 일생을 혼자 산 리유가 단지 봉건유교관념이 심했던 외할머니의 끊임 없는 지청구때문만이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원래 말이 적은 어머니여서 평시에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번도 한적은 없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큰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형편이 몹시 어려웠던 시가의 며느리된 도리도 그렇고 더우기 유복자인 나를 재가하지 않고 제 힘으로 키우리라 결심을 굳게 했던것으로 믿어 진다. 뜻이 이러했던 어머니가 슬하에서 자식을 떼여 오빠한테 맡기기까지는 고충이 이만저만하지 않았을것이다.

외삼촌내외는 나를 친자식이라도 할수 없을만큼 잘 돌봐 주었다. 외가집은 원래 물려 받은 재산이 좀 있는데다가 외숙모가 시집 올 때 가지고 들어온 재산까지 해서 풍산골치고는 유족한 집안이라 할수 있었다. 그 덕에 외삼촌은 서울에 올라 가 공부를 좀 하다가 그 어떤 좌익사건에 관계했던탓으로 풍산에 내려 와 교편을 잡은터였다.

외삼촌은 성격이 온화하고 고지식한 사람이였다. 열혈의 젊은 시절엔 그도 독립군을 따라 가겠다고 발 벗고 나섰던적이 있으나 청상과부인 어머니를 홀

로 두고 발길이 떨어 지지 않아 그만 눌러 앉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외삼촌자신이 평생 후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그는 나를 자신의 온화하고 고루한 성격에 반대되게 키우려고 애 썼다. 퍽 후에 내가 혁명을 한답시고 정신없이 나다닐 때에도 전혀 탓함이 없이 뒤에서 소문없이 온갖 성의를 다해 도와 주었다. 자기가 못했던 일을 사랑하는 조카를 통해 실현해 보려는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면야 어린시절부터 나를 배심 있게 키워 주고 애국심을 심어 주고 여러가지 사회서적과 신문들도 구해다 보게 하였겠는가.

나를 이십여년동안 키워 준 외삼촌 김응인은 나에게 아버지에 가까운 육친으로뿐아니라 인생의 첫 시절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주고 꿋꿋이 살아 나가게 떠밀어 준 인생의 스승으로 내 가슴속에 고이 간직되여 있다.

어린 가슴에 항일의지 불 지른 백두산의 무장부대

외삼촌댁에서 떠받들리며 자라던 나는 학령이 되여 안산면의 파발소학교에 다니게 되였다.

이 소학교에는 함흥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온 선생이 있었는데 함경남도에서는 천도교를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안변(지금은 강원도)출신이였다. 그 역시 천도교신자였는데 학교에 부임한후 우리들에게 천도교교리를 재미 있게 가르쳐 주었고 그 영향으로 우리는 그 선생을 잘 따랐다.

1926년경부터 천도교신파의 최린은 조선의 독립을 포기하는 대가로 조선의회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일제의 《약속》을 받아 내고 《자치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이들은 30년대에 들어 서면서 천도교청년당을 조직하여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혁명적농민운동을 반대하고 청년운동이나 계몽운동 등 정치성을 배제한 운동을 경쟁적으로 벌리고 있었다.

당시 열살을 갓 지난 내가 이런 사정을 알턱이 없었다. 오로지 그 선생이 가르치는대로 우리 고향 농촌이 이렇게 못 사는것은 조선사람이 무지하고 라태하기때문이며 이런 민족성을 고쳐야 잘 살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을따름이였다.

이무렵 정운길이라는 청년이 고향에 돌아 와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북청농업학교에 다니다 그 학교에서 있은 동맹휴학의 주모자로 지목되여 퇴학을 당하였다고 한다. 그는 저녁이면 동네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 반일애국사상을 가르치군 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도교신자선생은 《동맹휴학으로 퇴학 당한 자는 일본천황에게 불순한 나쁜 사람》이라고 악평하며 우리들을 정운길의 곁에 못 가게 하였다. 철 없는 우리들은 선생의 말에 따라 그후론 정운길을 슬금슬금 피해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의 그 같은 언동이 일제를 옹호하고 애국자들을 비난하는 반역적인 행위라는것을 자각케 하는 뜻밖의 사건이 벌어 졌다.

1930년 8월 어느 날, 점심때인데 외숙모가 밥이 없다면서 오늘 점심은 국수를 사다먹자고 하며 나에게 양푼하고 구멍 뚫린 5전짜리 엽전을 한잎 내줬다. 그무렵 풍산에서는 귀리국수 한그릇에 1전이였으니 5전어치면 외할머니, 외삼촌, 외숙모, 나 이렇

게 네식구가 도저히 다 먹지 못할 정도의 많은 량이였다.

당시 파발리는 허천강 지류인 파발천을 끼고 북청과 풍산을 련결하는 도로상에 놓인 반농반상업적인 성격을 띤 비교적 번화한 고장이였다. 북청지대의 과일과 쌀, 물고기 같은것들이 후치령을 넘어 여기 파발리를 거쳐 풍산방향으로 들어 갔고 풍산이북지대에서 나는 감자, 녹말, 호프 같은것들이 여기를 거쳐 북청으로 나갔다. 그런 관계로 파발리는 화전농가들과 함께 가게방, 려인숙 같은 건물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너른 시장구역이 형성되여 있었다.

왜놈들은 이 번화한 곳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장마당 가까이에 주재소를 지어 놓고 마쯔야마라는 가장 악질적인 왜놈순사부장을 골라 여기에 파견하였다. 그놈이 우리 조선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지 이름대신 《오빠시》(따벌)라는 별명으로 통할 정도였다. 그놈이 얼마나 밉살스러웠던지 삼복더위때 장마당을 돌아 치던 놈이 파발천가에 나와 달아 오른 몸을 식히느라 흑흑거리며 찬물을 끼얹군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또래의 담찬 사내애들이 멀찍이서 눈 먼 돌팔매질로 저주를 표시하군 하였다.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자.

양푼과 돈을 쥐고 막 대문을 나서는데 열서너집 떨어 진 주재소쪽에서 《쾅!》하고 벼락치는 소리가 났다. 워낙 외진 두메산골이라 1년을 가도 총소리라고는 들을수 없는 곳이였으므로 불시에 울린 총소리는 어린 내 가슴을 뛰게 하기에 충분했다.

주재소쪽을 내려다보니(주재소는 우리 집에서 열서너집 떨어 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장마당의 사람들이 주재소쪽으로 몰려 들고 있고 집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문을 열고 내다보고 있었다. 한편 파발천 뒤산으로는 몇몇이 허둥지둥 도망치고 있었다. 도망치는 놈들인즉 평상시 순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이나 마시고 마을사람들이 한 말을 일러 바치군 해 손가락질 당하던 놈팽이들로서 제 발이 저렸던 모양 이다.

어린 소견에도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 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양푼이고 뭐고 집안에 던져 버리고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주재소쪽으로 쏜살같이 달려 갔다.

벌써 그앞에는 사람들이 30명가량 모여 있었다. 하나같이 가난에 쪼들리고 왜놈들에게 갖은 멸시와 고통을 받아 온 사람들이였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열기에 떠서 술렁거렸다.

총을 쏜 사람들이 자기들을 옹호해 주는 《자기편》이라고 믿고 있는 기색들이였다.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틈을 빠져 앞으로 나간 나는 주재소안을 들여다 보려고 했다. 그때 주재소안에 있던 얼굴이 준수하게 생기고 퍽 상냥해 보이는 분이 나를 보고 들어 오라고 손짓하는것이였다. 그러잖아도 호기심에 가득차 있던 나는 그분의 손짓에 끌려 얼른 안으로 들어 갔다. 들어 가보니 뜻밖에도 정운길이 와 있었는데 그분과 무슨 이야기인지 하고 있었다.

방안을 둘러 보니 굉장한 장면이 펼쳐 졌다. 순사부장 《오빠시》놈이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나뒹굴

고 있는것이 아닌가. 그 순간 나의 온몸은 부르르 떨렸다. 그놈의 주검을 보니 겁이 나면서도 시원하고 통쾌하기 그지없었다. 철 없던 내 심정이 이러했으니 《오빠시》놈의 시달림을 받을대로 받아 온 어른들의 마음이야 이루 말해 무엇하랴.

나를 들어 오라고 한분은 나에게 무섭지 않은가고 물었다. 내가 무섭지 않다고 대답하자 그분은 나의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저런 놈들을 다 없애 버려야 조선사람들이 잘 살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그분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밖으로 나가시였다. 방안을 다시 둘러 보다가 나는 그분들이 쏜 탄피 두개가 바닥에 떨어 져 있는것을 발견하고 주어 들었다.

밖에 나오니 사람들이 그분들을 둘러 싸고 있었다. 모두 세분이였는데 나를 불렀던분이 책임자인것 같았다. 머리들은 뒤로 넘겨 자르고(당시에는 그런 머리를 《주의자머리》라고들 했다.) 짚신에 베잠뱅이를 걸치였는데 모두 손에 싸창을 쥐고 있었다.

그분들의 모습은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품위 있고 름름해 보이는지 몰랐다.

그분들의 앞에서는 조선인순사가 꿇어 앉아 연신 엎드려 절하며 살려 달라고 두손을 싹싹 비비면서 애원하고 있었다. 늘쌍 거들먹거리며 큰소리만 쳐대던 그 위세는 다 어데로 갔는지…

순사놈을 내려다 보던 세분가운데서 내가 만났던분이 입을 열었다.

《조선사람이라면서 제 나라를 침략한 일제의 앞잡이질하는 당신 같은 사람은 당장 쏘아 죽이고 싶

소. 하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조금이라도 량심이 남아 있기를 믿어 살려 주니 그리 아오. 당장 순사질을 그만 두고 집에 돌아 가 농사 지으며 조선사람답게 사시오.》

《예예, 고맙습니다. 당장 그만 두고 집에 돌아가 깨끗이 살겠습니다.》하고 순사놈은 그분앞에 무릎걸음을 해가며 고개를 조아렸다.

바로 그때였다. 주재소옆에 붙어 있던 《오빠시》의 집에서 그의 녀편네가 머리칼과 왜옷자락을 펄럭거리면서 게다도 신지 못한채 맨발로 뒤둔덕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다. 제일먼저 본 한사람이 그쪽을 향해 권총을 들었다.

《잠간.》하고 책임자인듯 한분이 동료의 팔을 잡아 내리웠다.

《쏘지 마시오. 그까짓 녀자를 쏘아 무엇하겠소.》

솔직한 심정으로 왜년의 뒤통수에 총구가 겨눠 졌을 때 나는 긴장해서 발사의 순간을 기다렸다. 《오빠시》에 대한 원한이 그처럼 사무쳤던것이다. 허나 책임자인듯 한분이 그것을 저지시키자 멋 모르는 나의 작은 가슴속에서도 저분들이야말로 큰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의 눈길은 자연 그분한테로 쏠리였다. 그분은 고개를 들어 친근한 눈길로 군중들을 둘러 보더니 힘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우리는 왜놈들을 몰아 내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백두산의 혁명군부대입니다. 우리가 못 사는것도 불행을 겪는것도 모두 왜놈들때문입니다. 왜놈들을 쳐부

시지 않고는 우리가 잘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맨주먹으로 총칼든 왜놈들과 싸우며 피 흘리고 있는 단천농민들의 애국투쟁을 돕기 위해 가던 도중 여기 인민들의 피 맺힌 원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순사부장놈을 처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을 지켜 드릴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은 그만 돌아들 가십시오.》

연설을 마친후 그들은 주재소에서 몇집건너에 있는 과자점방에 가서 집주인을 찾았다. 주인이 나오자 그들은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정중하게 청하였다.

《예정보다 려비가 더 필요하게 되여 찾아 왔으니 려비를 좀 보태주실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돈궤를 열고 그속에 손을 넣어 1전짜리 동전 두잎을 《옛소.》하고 내놓는게 아닌가. 그들은 자기 손에 놓인 동전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더니 그것을 도로 과자매대우에 올려 놓으며 《가사에 보태 쓰십시오.》하고는 아무 말도 없이 돌아 섰다.

그 순간 나의 어린 소견에도 그 주인이 보기 싫어 졌다. 왜놈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찾기 위해 피흘려 싸우는 애국자들을 저렇게 박대하다니!… 그 과자점으로 말하면 풍산에서 알토란 같은 부자로 알려 진 집이 아닌가.

과자점주인의 행동을 본후 나는 《부자놈들이란 돈에만 눈이 어두워 민족을 위한 애국적인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 리속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하고 생각하게 되였다. 나 같으면 총으로 주인을 콱 혼뜨검 내주고 가겠는데 어째서 아무 말없이 그냥

들 갈가? 그런 자들이 미워 지던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야겠다는 생각이 어린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도 나는 주재소에서 주어 온 두개의 탄피를 손에 꼭 쥐고 그분들처럼 싸창을 들고 못되게 구는 왜놈들을 쏘아 눕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 주는 자기를 오래동안 그려 보았다. 그분들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엉뚱한 생각이 가슴에 자리 잡았다. 이것은 나의 가슴에 심어 진 첫 항일의지였다.

아득한 그 시절 내 고향 개마고원을 누볐던 항일혁명투사들, 궁벽한 산골, 개마고원에서 태여나 자란 열세살소년의 가슴에 항일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을 지폈던 투사들의 름름한 자태는 이제는 아슴푸레한 기억으로 떠오른다. 그분들이 아니였으면 나는 어떻게 되였을가.

그분들이 울린 파발리의 총소리는 가난과 무지속에 한생을 살거나 독실한 천도교신자로 되였을지도 몰랐던 나를 항일의 전선에 나서게 해준 운명의 총소리였다.

잊을수 없는 혁명선배

그 일이 있은후 나와 몇몇 동무들은 천도교신자선생때문에 피해 왔던 정운길선배를 찾아 갔다. 무장대를 책임졌던분의 연설은 단박에 천도교신자선생이 옳지 않다는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었다. 그분은 조선사람이 못 사는것은 왜놈들때문이라고 했는데 천도교신자선생은 조선사람들이 라태하고 게을러서 못 산다고 했으니 얼마나 엉터리인가. 우리 어머

니만 해도 너무 부지런해서 일밖에는 모르지만 얼마나 못 사는가.

우리가 찾아 가니 정선배는 무척 반가와 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알고 싶어 한것은 《오빠시》를 처단한 그분들에 대한것이였다. 정운길선배는 우리의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해 주었다.

《그분들은 백두산일대에서 활동하는 **김일성**무장부대의 김형권부대야.》

지금에 와서 그 말을 되새겨 보느라니 여러가지 추측이 떠오른다. 정운길동지가 어떻게 그들에 대하여 그렇게 잘 알며 이름까지 알수 있었을가. 소문에 의하면 그때 무장소부대를 안내해 온 밀짚모자를 쓴 사람이 한명 있었다고도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정운길동지가 아니였을가 싶어 진다.

더우기 정운길동지는 그분들과 함께 주재소안에 있지 않았던가. 호기심으로 들어 갔을수도 있으나 어떻든 정선배는 왜놈들과 싸우기를 결심하고 나선 사람이였고 나의 첫 걸음을 떼여 준 지도자였다. 그래서인지 그에 대한 어떤 추측이 떠올라도 사실로 믿고 싶어 진다.

정운길동지는 무장부대가 간다고 했던 단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왜놈앞잡이 산림간수가 무고한 농민을 가둬 놓고 개돼지처럼 두들겨 패니까 격분한 농민들이 몰려 가 군청과 경찰서를 까부셨는데 왜놈들이 총을 쏘아 많은 사람들을 죽였대. 지금 단천에서는 농민조합이 조직되고 있어. 김형권부대는 괭이로 왜놈의 총칼과 맞서고 있는 단천농민들을 지원하러 가던 길이였지.》

정선배는 작년(1929년)에 있었던 원산총파업과 광주학생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일본인 악질감독에게 동료가 두들겨 맞자 감독의 파면과 로동자들의 생활보장을 요구하면서 넉달동안이나 죽을 먹으면서 파업투쟁을 했다는 원산로동자들, 조선녀학생을 희롱하는 왜놈학생들과 용감히 싸운 광주고보학생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조그마한 주먹을 불끈 쥐였다.

《우리 조선민족은 죽지 않고 싸우고 있어. 산에서는 무장부대가, 공장에서는 망치를 든 직공들이,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괭이를 들고 왜놈과 싸우고 있어.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이 시위운동과 동맹휴학으로 맞서고 있잖아. 이렇게 계속 싸우면 우리 민족은 꼭 독립할수 있어.》

60년도 훨씬 더 지난 오늘까지도 그 이야기들은 기억에 생생히 살아 있다. 난생처음으로 들은 파발리총소리의 여운이 귀에 쟁쟁한 때에 들은 이야기여서였는지… 나는 그에게 주재소에서 탄피 두개를 주어 온 사실도 이야기했다.

정운길동지는 무척 기뻐 하며 그것을 잘 간직해두라고 당부하는것이였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탄피를 헝겊에 싸서 외삼촌내외도 모르게 농짝의 맨밑에 감추어 놓았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도 정선배의 목소리가 귀가에 쟁쟁해 잠 못들던 일이 기억에 새롭다.

《조선민족은 죽지 않았다. 살아서 싸우고 있다…》

싸창을 들고 서 있던 백두산무장부대의 름름한 모습도 눈앞에 떠올랐다.

《그래, 천도교신자선생의 말은 거짓말이야. 조선민족은 게으르고 우매한게 아니라 살아서 왜놈들과 싸우고 있어!》

그날 밤 말을 타고 백두산무장대가 되여 왜놈을 뒤쫓는 꿈을 밤새도록 꾸었던듯 싶다. 그 꿈은 나의 평생의 《꿈》으로 되였다. 그후에도 나와 동무들은 학교만 파하면 거의 매일 정운길선배를 찾아갔다. 그는 우리에게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맑스니, 엥겔스니, 레닌이니, 쓰딸린이니 하면서 사회주의사상을 주입시켰다.

열세살 먹은 소학생이 그 이야기를 잘 알아 들을리 만무했으나 몇번이고 되풀이해 듣는 과정에서 어렴풋이 《그 말이 옳구나.》하고 느끼게 되였다. 사회주의가 뭔지는 잘 몰라도 사회주의자, 농민조합, 로동조합, 무장부대들이 왜놈을 몰아 내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하므로 나도 왜놈과 싸우려면 사회주의자가 되여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하여간 정선배에게 다니며 배우는 동안 나는 무조건 그를 믿었고 어린 마음에도 그가 죽으라면 죽을수도 있다고 생각할만큼 그를 따르게 되였다. 이것이 단순히 한 인간에 대한 존경때문이였을가. 인적드문 개마고원의 광야에 태여나 자라난 티없이 맑은 열세살 어린 가슴에 새겨 진 약동하는 반일사상, 격동의 총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여 난 어린 심장… 지금 생각해 보면 드넓은 개마의 거치른 땅을 주름 잡으며 왜놈과 싸우려는 나래를 키워 준 인간과 사상에 대한 열렬한 애정이였던것 같다.

하기에 나는 한생이 저물어 가는 오늘도 그를 잊지 못하며 고마움으로 추억한다…

그 시절에 있었던 이런 일도 기억에 떠오른다.

우리 마을의 동구밖에는 비석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것은 왜놈순사부장 《오빠시》가 죽은후 마을의 친일앞잡이들이 그놈을 추모한다고 세운것이였다. 그 비석 바로 옆에 빈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오빠시귀신》이 나온다는 헛소문이 돌아 나 같은 아이들은 밤이면 그 근방에는 얼씬도 못하였다.

그날 저녁도 우리는 정운길선배집에 모였는데 정선배는 처음에는 《귀신이라는것은 없다.》는 유물론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슬며시 요즈음 《오빠시비돌》옆 빈집에 귀신이 나온다는 엉터리 없는 소문이 돈다는 얘기를 늘어 놨다. 우리들이 무서움증에 오싹오싹하는데 정선배는 갑자기 빨간 기발 한장을 우리앞에 내놓았다.

《인제부터 귀신이 있나없나 확인을 해보자. 이 기발을 한 아이가 그 집 부엌앞에 갖다 놓은 다음 다른 아이가 가서 그 기발을 가져 온다.》

정선배는 원망스럽게도 나더러 제일먼저 가라는것이다. 아무리 무서워도 못 가겠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다.

할수없이 기발을 들고 쭈뼛쭈뼛 빈집까지 가서 달달 떨며 부엌문을 들어 서려는데 그 집 안방에서 갑자기 《탁탁》하는 소리가 나는게 아닌가. 그 순간 전신이 오싹해 지고 겁이 덜컥 나 부엌이고 어디고 간에 가리지 않고 기발을 아무데고 던지고는 정신없이 집을 뛰쳐 나와 겨우 돌아 왔다.

내심으로는 기발을 아무데나 던진것이 걱정되였으나 차마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데 다음차례인 동무 하나가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안절

부절 못하며 일어 섰다. 그 아이가 출발한지 얼마나 지났을가. 선배들이 그 애를 떠메다싶이 하고 들어 오는게 아닌가. 나는 《내가 약속을 안 지키고 기발을 아무데나 던졌기때문에 저 애가 어둠속에서 기발을 찾다가 저렇게 되였구나.》하는 자책감에 도저히 고개를 들수가 없었다.

머리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려니 정선배가 말했다.

《너는 부엌안에 들어 가지도 않고 방에서 나는 소리에 놀라 기발을 아무데나 던지고 도망쳤고 저 애는 들어 가지도 못하고 방에서 나는 소리에 그냥 기절한것을 업어 왔다.》

아까 정선배와 다른 선배들은 우리에게 볼일이 있다며 나가더니 우리보다 먼저 그 집에 가서 숨어 있다가 우리가 갔을 때 안방에서 나무로 방바닥을 치면서 귀신인척 하였던것이다.

왜 우리를 그처럼 놀래우며 무서움과 싸우게 했던가. 지꿎은 장난으로 생각했던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를 투쟁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서 하나의 예비적인 훈련과도 같은 것이 아니였을가 싶다. 이 세상 혁명가들이 무신론자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신의 힘을 믿게 되려면 우선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비한것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것이 아닐가.

사실 그날 밤과 비슷한 밤을 여러차례 거듭 이겨냄에 따라 우리는 귀신이란 없다는것을 믿게 되였으며 어떤 《도깨비불》도 무서워 하지 않게 되여 스스로 《유물론자》로 자처하며 뽐내는데 이르렀다.

담도 어지간히 커졌다. 나와 내또래 소년들은 자주 주재소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도망치기도 하고 순사들이 앞잡이들과 술을 마신다는 소문만 들으면 달려 가 돌멩이를 던져 술판을 깨여 버리기도 하였다.

하루는 저녁에 집에 들어 가니 외숙모가 근심어린 얼굴로 캐물었다.

《네가 밤이면 돌을 던져 주재소유리문을 다 깨뜨리고 다닌다는데 사실이냐?》

내가 그저 웃으며 말을 안하니 외숙모는 안색이 변하며 꾸중을 하셨다.

《이놈, 사실이구나. 네가 어쩌자고 그러고 다닌단 말이냐?》 언성이 높아 지니 외삼촌이 내다보셨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외삼촌은 오히려 외숙모를 나무라는게 아닌가.

《당신은 그깐 왜놈앞잡이 과자점마누라 말을 듣고 애를 나무란단 말이요? 나 같으면 그놈의 과자점 유리창도 부셔 버리겠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너 요새 정운길의 곁에 놀러 가는 모양인데 더 자주 다니며 놀아라. 배울게 많은 사람이야.》

그 말씀을 들으니 《외삼촌은 정말 좋은분이구나.》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다른 애들 부모는 정선배에게 가지 말라고, 막 혼낸다고 하는데 외삼촌은 달랐다. 여느 때 같으면 그런짓을 말렸을 성격이 온화하고 선비 같은 외삼촌이 오히려 부추기고 격려한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아마 그것은 어린 나

의 가슴에 일제에 대한 타협 없는 투쟁심을 심어 주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였다.

외삼촌의 격려덕분에 나는 더욱더 신이 나 유리창을 깨고 다녔다. 물론 그 일도 정선배가 지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소극적이고 절반 장난이며 일종의 모험이였지만 일제에 대한 타협 없는 투쟁심을 길러 주는 좋은 훈련방법이였다고 생각된다.

요즈음 이따금 그때 일들을 생각하며 혼자 웃기도 한다.

그후 정운길선배의 지도밑에 우리 소년들의 활동도 점차 조직적인 성격을 띠여 갔다.

그 한 실례가 《지게군조합》이다. 《지게군조합》은 정운길선배곁에 모이던 아이들이 가난한 마을사람들을 돕기 위해 조직한 모임이다.

우리들은 한번에 20여명씩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가 나무를 해다 마을의 가난한 집 마당에 쌓아주었다. 아이들이 한 나무이긴 하지만 스물댓짐씩 쌓아 놓고 보면 상당한 량이 되였다. 화전을 부쳐 거둔 감자마저 일제와 땅주인에게 뜯기고 하루 한끼 감자죽으로 끼니를 잇던 가난한 사람들, 항상 멸시와 천대속에서만 살던 그 순박한 사람들이 우리가 나무를 해다 주면 어쩔줄 모르며 얼마나 고마와 했는지 모른다.

그 시절 나무하러 가자고 련락만 하면 조금도 싫은 기색이 없이 지게를 지고 나서던 동무들, 그 동무들이 바로 후일에는 나의 동지들로 되였고 한길을 걸었다. 김덕룡, 리석기, 리경모 등…

한편 우리들은 당시 발행되는 《소년전기》와 《우리 동무》를 비롯한 소년출판물을 주문하여 돌려 가며 읽었고 토론도 벌렸다.

우리 고향에는 밤이면 마을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며 노는 《도청》이라는 집이 있었다. 요즘말로 하면 마을회관쯤 되는셈이다. 정선배는 《도청》을 야학당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여러 출판물을 나눠 읽히며 사회주의교양사업을 벌렸다. 우리가 그 시절 하루중에 제일 기다려 진 시간이 야학당에 모이는 시간이였다. 날만 저물면 서로 찾고 부르며 《도청》으로 달려 가군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간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할수도 있었다.

그무렵 일어 났던 《만보산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중국침략을 쉽게 하고 앙양되고 있는 조중인민들의 반일투쟁을 압살하기 위해 조선사람과 중국사람들을 리간시킬 목적으로 《만보산사건》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중국인들이 중국의 만보산에서 조선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하였다고 선전하여 우리들의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제놈들의 앞잡이들을 동원하여 조선에 있는 중국인들을 테로하기도 했다. 일부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편애한 민족배타주의에 사로잡혀 그 리간책동에 동조해 나서기도 했다. 어느 날 우리는 마을의 일제앞잡이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을에서 몇집 살고 있던 중국인들을 테로하러 간다는 소문을 들었다.

정선배는 황급히 우리 소년들을 모이라고 했다. 우리가 모이자 그는 왜놈들의 간교한 리간책동을 설명해 주고 중국인들을 보호하러 가자고 하였다.

우리들은 서슴없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실 그때 우리들은 그 복잡했던 사건에 대한 일가견이 있어서 그 일에 발 벗고 나섰던것은 아니였다.

그저 정선배를 믿었고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옳다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에 와서는 정선배의 지도가 옳았다는것을 재삼 느끼게 된다. 《만보산사건》때 중국민족과 조선민족을 리간질친것이 왜놈들이라면 광복후 40여년이나 같은 민족을 북남으로 갈라 리간질하고 있는것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한마디로 력사에는 우리 민족의 분렬을 꾀한 외세가 있었지 민족의 단합을 도우려 한 외세는 없었다.

그런데도 아직 외세의 덕을 입어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대세력이 버젓이 머리를 들고 있다는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첫 시련

1930년대는 세계경제공황의 여파로 조선농민들의 절반이상이 봄이면 소나무껍질로 겨우 연명하던 시기였다. 여기에 공황으로 도시에서 실직한 로동자들이 고향농촌으로 밀려 드니 절량농민은 날로 늘어만 갔다.

게다가 왜놈들은 중국침략을 서두르느라 수탈을 여느 때없이 강화했었다. 우리 풍산사람들의 유일한 식량이고 소금과 성냥 같은것을 사는데 돈 대신으로 쓰이던 감자는 물론 아마며 호프 같은것들까지 모조리 긁어 갔다.

이처럼 절박한 생활고에 쫓긴 농민들이 소작료며 농산물 징수문제로 경찰과 목숨을 건 싸움을 벌리

는 일도 허다해 졌다. 그러나 이 같은 급변한 정세하에서도 조선공산당이나 조선농민총동맹과 같은 조직들은 일제의 극악한 탄압으로 해산되거나 무력화되여 농민투쟁을 거의 이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선진적인 청년들과 인민들은 투쟁을 보다 실속 있게 이끌어 줄 조직에 대한 기대가 커갔다.

내 고향 풍산땅에도 여러 갈래의 비밀조직들과 함께 그 외곽단체들인 청년조직, 소년조직, 부녀조직들이 생겨 났다.

나도 그 조직의 한 성원으로 되였다. 차례대로 이야기하면 1931년 3월 소학교를 졸업한 나는 외삼촌내외의 일손을 도우며 집에 있었는데 그런중에 천남면 와포에서 교원을 하던 리현욱과도 알게 되였다. 그때 리현욱은 마사원으로 말파리를 몰고 파발리에 수시로 드나들군 하여 나는 그를 통해 중학강의록과 함께 좌익서적들도 구입하여 읽을수 있었다. 리현욱은 정운길동지와 매우 가까왔다. 파발리로 자주 드나드는것도 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파발리사건이 있은지 1년이 된 31년 8월이였는데 점심녘에 한 친구가 집에 와 정운길동지가 찾는다고 하였다. 그를 따라 가보니 《오빠시》놈의 령혼비가 내려다 보이는 앞산 등성이였다. 거기에는 리현욱, 신재국과 함께 김덕룡을 비롯한 내또래들이 벌써 와 있었다.

정운길은 나에게 지난해 주재소에서 얻은 탄피를 어떻게 했는가고 묻더니 당장 가서 가져 오라는것이였다. 나는 집에 달려 가 농짝밑에서 꽁꽁 싸두었던 탄피 두개를 꺼내 가지고 돌아 왔다.

바로 그 탄피 두개를 앞에 놓고 우리는 정운길을 책임자로 하는 《적색독서회》(반일독서회)를 조직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왜놈들과 싸우자! 이것이 두개의 탄피앞에서 비밀조직을 뭇는 취지였다.

군책임자로는 정운길이 되고 천남면책임자로는 리현욱, 리인면과 능귀면책임자로는 신재국, 안수면책임자로는 전철식이 선정되였으며 우리 안산면책임자는 군책임자인 정운길동지가 겸하게 되였다.

나는 소년부책임자로 되였다.

그날 밤, 그 으슥한 곳에서 작은 주먹들을 부르쥐고 조직의 비밀과 큰뜻을 지킬것을 엄숙히 맹세하던 동무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다.

《적색독서회》는 밖으로 문맹퇴치와 계몽을 내세우면서 비밀리에 좌익서적들과 신문, 잡지들을 돌려 가면서 읽고는 토론들을 벌리군 하였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지주, 자본가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어떻게 악랄하게 착취하며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은 어떻게 벌려야 하는가 등 책에서 본 내용들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식의 론쟁들도 벌렸지만 그보다 우리 소년들의 흥미를 더 많이 끈것은 장백지구에서 벌어 지고 있는 반일투쟁소식들이였다. 앞에서 이야기한 《지게군조합》도 《적색독서회》의 소년부조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외곽단체였다.

《적색독서회》조직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도 풍산군의 여러면들과 하지경리, 내중리, 양평리등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리현욱은 천남면에서 《프로레타리아연구회》, 신재국은

풍산읍일대에서 《프로레타리아체육구락부》를 조직하였는데 그 조직들은 모두 《적색독서회》계통의 조직들이였고 이것들이 모두 장백에서 태동하고 있는 항일대전의 거세찬 숨결의 영향하에 발족된것들임은 말할것도 없다.

이에 당황망조한 일제는 1932년 여름에 들어 서면서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도현 소사하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으로 항일대전의 시작을 선포하신 직후였다.

우리 고향 파발리에도 검거선풍이 들이닥쳤다. 풍산군에서만도 200여명의 애국인사들이 체포되였다. 이 일은 우리 고향에서 포수 홍범도가 악질 친일면장을 총으로 쏴죽이고 의병투쟁을 시작했던 아득한 옛날이후 처음으로 일어 난 가장 큰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그때 내 나이 열여섯, 아직 각성이 무디였던 나는 그런 검거바람이 어른들만 대상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집에 있었다.

한밤중에 경찰 여섯놈이 외가집에 들이닥쳤다. 놈들은 다짜고짜로 나를 붙들어 놓고는 집안구석을 이 잡듯이 뒤졌다.

그런 경황중에서도 외삼촌이 나를 막아 나서며 형사들한테 따지고 들었다.

《이게 무슨 짓들이요? 철부지 어린것한테 무슨 죄될게 있다고 이러는거요?》

《흥, 철부지라구? 쪼꼬만게 속까지 물들은 빨갱이란 말야!》

놈들은 이렇게 줴치며 외삼촌을 밀어 던지고 수색을 계속했다.

《빨갱이.》

한평생을 감옥살이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들은 호칭은 《000번》하는 수번도 아니며 내 이름 석자는 더더욱 아니고 바로 이 《빨갱이》라는 외마디소리였다.

그때 만약 내가 부모들이 지어 준 이름 석자대신 처음으로 불리운 《빨갱이》란 호칭뒤에 얼마나 많은 인생고초가 기다리고 있는줄 미리 알았다면 그처럼 귀맛 좋게 들으며 우쭐해서 서 있을수 있었겠는가? 그때부터 1945년 8.15광복의 날까지, 1950년대에 들어 서면서부터 43년간을 나는 일제와 미제국주의, 친일친미 사대매국노들의 공포와 증오의 대상인 그 이름으로 살아 왔다. 내가 왜 이 나라의 평범한 아들로 태여나 거의 한생을 응당 차례진 이름대신 《빨갱이》로 불리우며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 했던가!

…열여섯소년은 가슴을 쭉 펴고 서서 놈들이 노는 꼴을 지켜 보고 있었다. 마침내 골방천정에 새로 바른 도배지를 유심히 쳐다보던 한놈이 긴칼로 거길 쿡 찔러 우벼 내니 사회과학서적이 우르르 쏟아 져 내렸다.

득의양양해 진 형사가 외삼촌에게 덤벼 들었다.

《이래도 코흘리개라고 큰소리칠테냐?》

그런데 외삼촌은 일전에 자신이 숨겨 놓은 《지게군조합》일지가 발각될가봐 더이상 큰소리를 못했다. 외삼촌은 활동일지가 경찰의 손에 들어 가면 모

든 아이들이 드리날가봐 변소입구에 땅을 파고 일지를 묻은후 그우에 빈 궤짝을 엎어 놓았던것이다.

사실 그때 득의양양해 진 심정으로 치면 그 형사놈보다 내가 더 했을것이다. 나 하나를 붙들려고 형사가 여섯놈씩이나 달려 들었겠다, 제목만 봐도 놀라운 책들이 천반에서 우르르 한무데기나 쏟아 져내렸겠다… 이쯤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 주고 남음이 있었다.

끌려 가는 나를 붙들고 외할머니와 외숙모는 울고불고 야단인데 정작 그 장본인은 인제야 진짜혁명가가 되는가보다 하는 우쭐렁한 기분에 잠겨 있었다. 당연히 어깨는 거만하게 올라 가고 얼굴에는 웃음이 마구 떠올랐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지만 그 철부지기분을 조금도 탓할 생각은 없다. 인생의 첫걸음처럼 혁명의 첫 걸음 역시 그 장한 마음이 다음걸음을 부추겨 주고 한평생을 그 길우에서 걸어 나가게끔 해주는게 아니겠는가.

그날 밤 놈들은 나를 주재소로 끌고 갔다. 한때 우리또래 아이들이 유리창깨나 부스러뜨렸던 그 주재소였다.

들어 가보니 정운길선배가 먼저 와 있었다.

《야, 너 겁나냐?》하고 그는 놈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싱긋 웃으며 물었다. 내가 웃어 보이니 그는 《이런 일쯤 겁내지 말고 태연한 마음으로 견디여 내야 한다.》하고 격려했다.

나는 고개를 힘 있게 끄덕였다.

면소재지에서 한 20명이 잡혔고 주변농촌들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붙잡혀 왔다. 이들은 적색농조성원들이였다.

정운길은 이들과도 횡적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의 지시로 자주 례포를 다니던 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낯이 익었다.

그다음날 아침, 놈들은 잡아 들인 사람들을 풍산경찰서로 이송하기 위해 트럭에 태웠다.

차가 외가집앞을 지날 때였다. 외할머니가 길복판에 드러누워 《우리 애를 내놓아라!》고 고함을 치고 있었다.

놈들은 결사적으로 막아 서는 외할머니와 싱갱이질을 하느라 30분나마 진땀을 뺐다.

12시경에 풍산경찰서에 도착하여 우리들을 류치장에 처넣었다. 류치장안은 높다란 세멘트벽으로 둘러 싸여 어둑컴컴했다. 자그마한 철창사이로 낮빛이 스며 들어 습기에 얼룩진 벽이며 한쪽 구석에 놓인 변기통을 비쳤다. 을씨년스럽기 그지없는 감방안이건만 내 마음은 공연히 우쭐해 져서 좋기만 했다.

이튿날부터 취조가 시작되였다. 이른바 《빨갱이》의 첫 수련이 시작된셈이다.

정운길선배는 얼굴도 볼수 없었는데 심한 고문으로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다고 하였다. 몰래 그 말을 전해 들으니 《혁명가는 이런 일쯤 겁내지 말아야 한다.》던 정선배의 말이 더욱 생각났다. 그래서 형사들이 나를 차고 때리고 해도 아픈줄 몰랐고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형사들은 어린애라고 봐줘서는 안되겠다 싶었던지 고함을 버럭 질렀다.

《이 빨갱이새끼, 너 고추가루물 좀 먹어 볼래?》

하지만 나는 인젠 혁명가다 싶은 자만심에 기가 오를대로 올라서 그야말로 겁없이 덤볐다.

《먹이려면 먹여요. 하나도 겁 안나!》

《지사이야쓰가!》(작은 놈이 못됐다.)

뺨에 솥뚜껑 같은 손바닥이 마구 날아 왔다. 그래도 눈을 치뜨고 노려 보니 기가 찼던지 도로 류치장에 처넣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내가 이겼다.》하고 얼마나 통쾌해 했는지 모른다.

허나 나는 내가 당하고 있는 취조가 얼마나 경한 것인가를 몰랐다. 다른 취조실에서는 정운길과 그의 동년배들이 나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을만큼 악착한 고문에 시달리고 있었다.

놈들은 《적색독서회》를 비롯한 여러 비밀조직들의 주모자를 알아 내기 위해 혈안이 되여 날뛰고 있었던것이다.

매질과 물먹이기 등 온갖 고문속에서 거의 한달반이 지났다.

《적색독서회》관련자로 정운길선배와 다른 동지들 넷 그리고 나, 이렇게 여섯명이 남았다.

경찰놈들이 작성한 조서에 의하면 정운길선배가 《적색독서회》비밀조직을 만들었고 나는 그 조직의 소년부책임자로 되여 있었다.

그 물질적증거로는 외가집 천정에서 사회과학서적들이 쏟아 져 나온것, 취조과정에 내가 맹랑하게 대들었기때문에 조서가 그렇게 꾸며 진것 같았다.

우리 사건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매듭 지어 졌을무렵 천남면에서 지하조직인 《프로레타리아연구회》가 발각되여 또 20여명이 체포되였다. 천남면은 우리 고향의 린접면이였다. 《프로레타리아연구회》지도자는 리현욱이였다.

뒤이어 풍산읍에서도 《프로레타리아체육구락부》조직이 탄로되여 신재국, 리시호를 비롯한 50여명이 더 잡혀 들어 왔다. 이렇게 되니 류치장이 모자라 이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 사무실에까지 걷어 넣을 형편이였다. 이 덕분에 조사를 마친 우리 관련자들은 모두 한류치장에 모일수 있었다.

능귀면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 왔다. 능귀면조직은 맨나중에 발각되는통에 일부 동지들은 검거망을 피해 몸을 숨길수 있었다. 그 피신한 동지들중에 후에 나의 가장 가까운 동지이며 친구로 되였던 주병포도 있었다. 후에 서로 알게 되였을 때 우리는 이때의 일도 회상하군 하였었다. 어떻든 나는 그립던 동지들과 한방에 있게 된것이 기쁘기 이를데 없었다. 더우기 정운길이와 함께 있게 되여 더욱 기뻤다.

그의 신상은 말이 아니였다. 얼굴엔 온통 피멍이 들고 뜯기운 사람처럼 조금도 성한데가 없었다. 하지만 나를 맞아 주는 눈만은 감옥에 처음 들어 왔을 때 《너 겁이 나냐?》하고 웃으며 묻던 그 눈길 그대로였다. 아니, 그때보다 더 정기가 돌고 빛났다.

제일 어린 나는 자청해서 변기통도 나르고 잔심부름을 해가며 정운길곁에 자리를 옮겼다. 그가 옆에 있어 이야기를 해주고 고무를 해주는것이 어린 나한테는 큰 힘으로 되였던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원통하기 그지없다.

12월 25일, 그날은 일본《천황》 대정의 생일이라 왜놈들이 쉬는 날이였고 그리스도교인들에겐 예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이기도 했다.

그래서 다른 형사들은 쉬고 당직인 미우라라는 형사만이 나와 있었다.

미우라놈은 류치장 앞복도에서 별스레 거들먹거리며 수인들에게 수작을 걸기도 하고 휘파람을 불고 하더니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내여 소제를 한답시고 걸레쪼각으로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는 철창안에 앉아 있는 수인들을 향해 이 사람, 저 사람 겨눠 보며 발사하는 시늉을 해보이였다.

그러다가 뜻밖에 《땅!》하고 감방을 들었다 놓는 총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놈의 장난이 끝내 일을 친것이다. 그 총소리와 함께 뜻밖에 나와 나란히 앉아 있던 정운길선배가 모로 쓰러지는것이 아닌가! 그는 그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한마디 말조차 남기지 못하고…

나에게 계급의 눈을 틔워 주고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 주어 투쟁의 길로 이끌어 준 귀중한 첫 혁명동지가 그렇게 죽다니!

나는 정운길동지의 시신을 안고 몸부림쳤다. 한감방에 있던 동지 들은 물론 다른 감방에 있던 동지들도 격분을 금치 못해 들고 일어 났다. 동지들은 정

운길살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경찰당국에 들이댔다.

놈들은 이 사건을 미우라순사의 부주의로 인한 《오발사고》로 락착 지으려고 했다.

동지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정운길동지로 말하면 풍산지구 비밀조직의 중요책임자였다. 놈들의 고문에도 시종일관하게 비밀을 고수하고 조금도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놈들은 그를 이런 비렬하고 악착한 방법으로 학살함으로써 비밀지하조직의 핵심들을 없애고 아직은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어 확대발전되여 가고 있는 청년들과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막아 보려 했던것이 아니였을가.

약은 꾀를 잘 쓰는 왜놈들로써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짓이였다.

우리들은 단식투쟁에로 들어 갔다. 그리고 살인진상규명을 위한 시체검안이 있을 때까지 시신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놈들은 풍산에 검찰소가 없기때문에 북청검찰소에서 검사가 올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우리는 시신을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서야 검사가 와서 시체검안을 했다. 우리들 다섯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사태를 설명하고 항의했으나 검사는 묵묵부답이였다.

그후 미우라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조차 우리는 알수 없다. 혹시 어떤 표창을 받았을는지 어찌 알랴. 경찰이 재판없이 생사람을 쏘아 죽여도 항의조

차 변변히 할수 없는것이 그때 조선민족의 처지였다.

1945년 8월 조국이 일제로부터 광복된 직후 소년투쟁을 함께 했던 우리 동지들은 풍산군당에서 함께 일하게 되였다.

우리는 정운길동지의 묘소에 자주 찾아 가 손질도 하고 꽃도 심고 하다가 묘지가 너무 외진 산골에 있는것이 마음에 걸려 읍 가까운 위치로 이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함께 있던 친구들인 김덕룡(풍산군당 조직부장), 김경문(풍산군민청위원장), 박홍윤, 나 이렇게 넷이서 정성껏 묘를 옮기고 그앞에 동지의 뜻을 기리는 추모의 묵상을 하였다.

얼마전에 나한테 찾아 온 30안팎의 한 녀동무가 자기를 정운길의 조카딸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 보느라니 자신도 모르게 눈앞이 흐려 왔다.

정운길동지한테도 아들딸이 있었다면 조카가 아니라 저만한 나이의 손자가 있을텐데…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몹시 아팠다. 이처럼 비명에 간 동지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운길의 시체를 검사한후 온 감방안이 끝 없는 비감에 잠겨 있는데 어느 하루 검사가 나를 불러 냈다.

《몇살이냐?》

웬일인지 그자는 나이부터 물었다.

《열여섯이요.》

《이놈, 젖 먹고 싶지 않느냐?》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릴 하자고 불러 냈소?》

정동지가 죽은후 슬픔에 빠져 있던 나는 어이가 없어서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다.

잠시 멈칫하던 검사가 다시 물었다.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느냐?》

《당연히 보고 싶소.》

《그럼 네 어머니곁으로 보내주겠다.》

허튼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튿날 나는 정말로 석방되였다. 어찌된 판인지 알수 없었다.

경찰서에서 외가집까지 90리나 되는 길을 걸어서 나는 한밤중에 도착했다.

외할머니와 외숙모는 집에 들어 서는 나를 울음으로 맞이했다. 하지만 외삼촌은 내 어깨를 두들기며 《용케 견디여 냈구나.》하고 오히려 격려해 주었다.

얼마후에야 나는 내가 그렇게 쉽사리 석방된 리유를 알게 되였다.

거기에는 비명에 간 정운길동지의 노력이 컸었다. 그는 모든 《죄상》을 자기가 쓰고 우리 어린것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힘 썼던것이다.

한편 밖에서 외삼촌도 힘을 썼다. 그는 원래 붓글을 잘 쓰기로 풍산적으로 이름이 있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면에서 그를 호적계 서기로 들어 오라고 청했었는데 그런 곳에 들어 가 일본놈앞잡이노릇을 하겠느냐고 거절해 왔었다.

허나 자기 조카와 동료들이 검거되자 생각을 달리 먹고 소학교교원에서 호적과로 옮겨 앉았다. 거

기서 외삼촌이 처음으로 한 일은 나의 나이를 열여섯살로부터 열네살로 고쳐 놓은 일이였다.

왜놈들의 법에도 열네살은 미성년이므로 재판에 넘기게끔 돼 있지 않았다.

나는 석방되여 나올 때 검사가 《네 나이 몇살이야.》고 묻던 리유를 그때에야 깨달았다.

30리 떨어 진 적수부락 시집에 계셨던 어머니는 내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밤길을 걸어 동창이 밝을 때에야 들어 섰다.

우리는 자지 않고 어머니를 기다렸다. 그동안 나는 어머니가 얼마나 속을 졸였는지를 들을수 있었다.

자식놈 얼굴이라도 보려고 경찰서로 떠나려는 어머니를 외삼촌이 《젊은 과부가 면회 가면 왜놈순사들이 너를 롱락하려고 들텐데 집에 가만 있거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테니.》하고 말리였다고 한다. 외삼촌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보다는 고문 받아 험하게 된 자식을 보면 마음이 더 괴로와 지리라고 생각한때문일것이다. 그래 어머니는 붙잡혀 간 아들을 얼굴 한번 못 보고 눈물만 흘려야 했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 외삼촌이 보다가 민망하였던지 재촉하셨다.

《계순아(어머니의 이름), 인모가 나왔는데 그렇게 서 있기만 하려냐?》

어머니는 그제야 《응.》하고 꿈에서 깨여 난 사람처럼 나를 와락 부둥켜 안고 우셨다.

외숙모의 말에 의하면 이 불효한 자식이 붙잡혀 가 있는 동안 어머니는 애간장을 태우던 나머지 이런 환각상태에 잠겨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고 한다.

귀리밭 가을걷이를 할 때라고 한다. 할아버지와 삼촌들모두가 낫을 들고 고랑을 잡고 썩썩 베여 나가는데 어머니가 혼자 낫을 쥔채 밭에 엎드려 있었다. 아들생각에 저러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여 뭐라고 말도 못하고 계속 베여 나가 그 고랑을 다 베고 돌아 왔을 때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러고 있었다.

삼촌이 하도 보기 딱해 말을 붙였다.

《아주머니, 뭘 그러시우?》

그 말에 화닥닥 놀라 어머니는 두리번거리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더듬더듬 헛소리를 하더라는것이다.

《애가 왔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꿈을 꾸었나? 애가 어디 갔지. 금방 여기 있었는데…》

이런 어머니였길래 나를 보고도 꿈인가 생시인가 믿어 지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던것이다.

석방후 나는 류치장생활의 여독으로 병을 만나 자리에 누웠다. 어머니며 외할머니, 외숙모가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 타게 돌아 치며 정성을 다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나는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 날수 없었다. 물론 감옥생활이며 그 후유증으로 생긴 병과의 투쟁이 어린 나에게 있어서 처음 겪어 보는 어려운 고비가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나를 자리에 눕힌것은 그것이 아니였으니 그처럼 믿던 정운길과 같은 선배가 비명에 나의

결을 떠나갔고 조직이 파괴된데서 오는 좌절감때문이였다.

철 없는 마음에 혁명투쟁의 길을 그 어떤 모험기 많은 단꿈처럼 생각하던 나에게 있어서 동지들의 죽음과 그뒤에 잇닿은 투쟁의 좌절은 그야말로 크나큰 시련이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에 정운길동지가 움직이던 조직을 되살리기 위해 조을록이라는 동지가 북청 대성중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 왔다. 그는 파발소학교를 나보다 먼저 졸업한 선배였다.

나는 외삼촌의 집에서 고문의 후과로 병치료를 하면서 그의 지도를 받았고 조직의 재건에 참가했다. 그런데 넉달가량 지났을 때 또 일제의 검거선풍이 일었다. 어떻게 단서가 잡혔는지는 지금도 알수 없다.

조을록동지는 급히 산으로 피신하였다. 당시 개마고원일대는 온통 화전으로 일군 감자밭들이였는데 그것을 메돼지들의 침습으로부터 막아 내기 위해 밭머리에 통나무로 뚝막 같은 집을 짓고 밤마다 거기서 양푼 같은것을 두들겨대군 하였다. 그 뚝막을 우리 고향에서는 《도떡》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경찰의 추격을 피해 산으로 올랐던 조을록동지가 그 《도떡》에 앉아 있다가 령하 30도의 추위에서 얼어 죽었다는것이 아닌가.

너무도 급히 피하던 몸이여서 미처 성냥이며 먹을것을 준비해 가지 못한때문이였던가…

사람들이 조을록동지를 발견했을 때 그는 한손에 칼을 움켜 쥐고 《도떡》의 문지방에 눈을 부릅뜨고 마치 산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 소식

을 나는 함흥형무소 미결감에서 전해 들었다. 우리는 풍산경찰서를 거쳐 함흥형무소로 이송되였던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 비분의 소식에도 소리내여 울수조차 없었다.

그때가 33년이였을것이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얼마전 당력사연구소 동지들에게 알아 보니 조을록동지는 1933년이 아니라 1937년에 결성된 조국광복회 북청지구위원회 성원으로 활동하다가 희생되였다는것이 아닌가.

하기는 나는 그의 죽음을 직접 본것이 아니고 함흥형무소에서 전해 들었을따름이다. 잘못된 소식이였을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체포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조을록동지자신이 꾸며 내여 사실처럼 퍼뜨린 가사가 아니였을가 싶어 진다.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밀라는 무언의 지시였다고 할가. 사실 우리는 조을록동지가 동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그에게 밀었다.

그 슬픔과 분노가 우리에게 놈들의 갖은 고문과 회유도 이겨 내게 하였고 비밀을 끝까지 고수하게 하였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다. 적지 않은 나날이 지났으나 우리들의 침묵과 항거로 왜놈들은 도저히 사건을 성립시킬수 없었다. 결국은 조을록동지의 《희생》이 더 큰 희생을 막아 우리들은 함흥형무소 미결감에서 3개월만에 기소유예로 나올수 있었다.

귀중한 동지를 잃은 나의 마음은 비분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 조직의 형편으로 말하면 또 한명의 사

공을 잃은셈이였고 나는 기슭에 닿는가 싶다가 다시 폭풍에 밀려 나 표류하는 배에서 망망한 바다를 둘러 보는 심정이였다. 투쟁의 길을 걸어 온 사람이라면 조직의 귀중함을 알것이며 그때 나의 심정을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나를 이끌어 주던 동지들은 다 가고 조직들도 파괴되였다. 크나큰 시련은 나의 가슴에 어두운 장막을 드리워 놓았다.

파발리의 총소리가 어린 가슴에 지펴 놓았던 그 불꽃, 정운길과 조직에 의해 활활 타오르는가 싶던 불길이 그물그물 꺼져 가고 있었으니 이제 그 광원을 되찾지 않고서는 숨 쉴수도, 살 재미도 없어 져버린 처지…

차라리 류치장생활이 그리웠다. 그때는 그래도 투쟁속에 사는 보람이 있었다.

나는 좌절되여 버린 기분속에서 청년시절로 들어섰다.

해빛을 따라

《떠도는 식민지청년》…

이것이 남쪽에서 출판한 나의 수기에 적어 놓았던 이 장의 원래 제목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보천보와 간삼봉의 총소리가 온 나라를 흔들어 놓은 때로부터 우리는 결코 각양각색 사상운동조류에 실려 떠다니는 부평초가 아니였다. 풍산, 북청땅을 메주 밟듯 하고 서울로, 도쿄로 오르내릴 때 우리의 가슴속에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이 들어 있었다.

투쟁의 대오를 찾아 ①

이미 말한바이지만 형무소생활을 면했으나 나는 별로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투쟁의 대오에서 떨어 져 나온듯 한 외로움이 점점 더 커가기만 했다.

나의 그런 정상이 보기 딱했던지 외삼촌은 나더러 장백현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현립중학교를 다니

는것이 어떤가고 물었다. 그곳에는 자기의 절친한 친구가 교사로 있으니 가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입학할수 있으리라는것이였다.

나는 망설였다. 지도자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없어 울분으로 세월을 보내느니보다는 공부를 하는것도 좋을것 같았다. 그러다가도 다시 생각해보면 편안히 공부나 하는것은 정운길동지나 조을록동지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 져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시찰명단》에 올려 놓고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경찰놈들을 생각하면 당장 어디로든 떠나버리고 싶기도 했다. 외삼촌도 아마 나를 공부시키기보다 피신시키려는 생각에서 장백행을 권고한듯 했다.

이럴가저럴가 망설이고 있을 때 국경일대에서의 항일무장투쟁소식이 들려 왔다. 무장부대들이 왜놈군경들을 통쾌하게 짓부시는 전투가 매일처럼 벌어진다는것이였다. 항일유격대에 대한 소식은 풍산땅으로 해일처럼 밀려 들기 시작했다. 그 소식들이 나의 장백행을 결정했다. 나는 지체않고 외삼촌에게 장백현 현립중학교에 가겠다고 했다.

《공부하겠소다.》

그러나 사실 조상엔 생각이 없고 제밥에만 생각이 가 있다는 식으로 나의 속심은 다른데 있었다.

장백땅으로 말하면 유격대가 맹렬히 활동한다는 지역이다. 더우기 일설에는 유격대들이 장백현소재지에 나타난적도 있었다고들 한다. 어데까지가 사실이고 어데까지가 소문인지 알수 없으나 어떻든 장백

땅으로 가기만 하면 항일유격대를 찾을수 있지 않겠는가…

외삼촌은 흔연히 떠나라고 했다. 그때 외삼촌이 나의 엉뚱한 속심을 알아 차렸는지는 알수 없다. 아마 십중팔구는 짐작했던것 같다. 하기에 별스레 무거운 음성으로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떠나거라.》하고 말씀했을것이다.

나는 장백으로 건너 갔고 외삼촌의 친구분을 만나 어렵지 않게 현립중학교에 입학했다. 한익이라는 중학교 교사였다.

한익선생은 나더러 자기 집에서 같이 있자고 했으나 나는 좀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고 중국말을 배워야겠다는 이런저런 리유를 들어 사양하고 중국사람의 집에서 하숙생활을 시작했다. 그것은 나로서의 생각이 있어서였다. 유격대를 찾으려면 여기저기 돌아 다녀야 할텐데 한익선생의 집에서 살면 여러가지로 관심을 돌려 마음대로 할수 없을것이 뻔했다. 그러나 하숙을 하면 어데 나가 며칠을 있든 어데로 가건 상관하지 않을것이다.

장백현에서도 왜놈들의 횡포는 조선에서와 다를바가 없었다. 왜놈들은 이곳에서도 좋은 땅은 물론 숲까지 차지하고서 가난한 중국사람과 우리 동포들을 착취하고 억압하였으며 약간한 항일의 싹만 보여도 사정없이 총칼을 휘둘러댔다.

어느 곳이나 《3광정책》으로 악명 떨친 왜놈들의 《토벌》을 겪지 않은 곳이 없었다. 원한과 비분의 노래 《피바다가》가 태여난 곳이 이 간도땅이라는것을 말한다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족할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온 간도땅은 항일투쟁의 도가니라고 할수 있었다.

그 모든것을 매일같이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다보니 왜놈들에 대한 증오는 더욱 커갔고 항일유격대에 들어 가 싸우고 싶은 마음은 불 같았다. 나는 소문이 들리는 곳이면 만사를 전폐하고 달려 가보았으나 매번 소득없이 돌아 오군 했다.

항일유격대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파다해 졌으나 나에게는 신기루로만 남아 있었다.

그러고 있던 1935년, 아마 1월이였을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동북인민혁명군이라고도 불렀다.)의 리홍광부대가 압록강을 건너 후창군(오늘의 김형직군) 동흥읍을 습격하여 일제경비대와 일대 시가전을 벌린 사건이 벌어 졌다. 습격전투의 승리에 대한 소식은 인민들속에서는 물론이고 당시 국내출판물들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였다.

나는 동흥읍에 가보기까지 했다. 그러나 유격대는 이미 바람처럼 사라진 뒤였다. 그 당시 우리 조선사람들을 제일 흥분케 한것은 조선인민혁명군 총사령관이신 **김일성**장군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였다. 그 어떤 재미있는 옛이야기도 장군님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만큼 흥미를 끌고 흥분시킬수가 없었다.

어떤 전설인들 없었으랴.

요즘 출판된 《백두산전설집》이라는 책을 보니 그 시절에 주고 받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되살아나며 감회가 새로와 진다. 그 시절에 우리 인민들속에서 이야기된 장군님에 대한 전설들을 모두 수집한다면 아마 수십권의 책을 이룰것이다.

김일성장군의 유격대에 들어 가 그이의 부하로 싸울수 있었으면! 이것은 나만이 아닌 반일투쟁에 나선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며 꿈이였다.

다시 옛날로 돌아 가보자.

한번은 현청소재지에서 120～130리쯤 오지로 들어 가면 얼뚜강(이도강)이라는 곳에 조선사람부락이 있는데 그곳에 유격부대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소문을 얻어 듣고 그곳으로 가본적도 있었다.

나는 내가 살던 적수부락이 제일 심심산골인줄 알았는데 그곳은 더한 산간오지였다. 생활은 말이 아니였고 옷차림도 우리 적수부락보다 더 람루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상적인것은 아이들이였다. 나의 고향 적수부락에서는 아이들이 낯선 사람을 만나면 말도 잘 못하고 슬슬 피하는데 그곳의 아이들은 헐어 빠진 누데기 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눈이 이만저만 아니게 또렷또렷했다.

그들 역시 살길이 없어 남부녀대하고 고향에서 만주로 떠나왔고 만주에 와서도 발 붙일 땅이 없어 오지중의 오지까지 밀려 간 막바지인생의 한쪼각이라는데는 여느 곳과 다름 없을것인데 아이들의 눈빛은 주접이 들어 하거나 암담해 보이는데가 없었다. 그 눈빛이 나에게는 장백땅에 타오르고 있는 거세찬 무장투쟁불길의 역광처럼 느껴 졌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서 바라는 말을 한마디도 얻어 들을수 없었다. 얼뚜강아이들은 좋은 학생복차림의 내앞에서 기가 죽기는커녕 나의 속심을 들여다보려는듯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며 묻는 말에 《몰라요.》라는 외마디말로만 대답했다. 나를 왜놈이 보낸 밀정이 아닌가 의심하는것이였다. 노엽기

도 했고 분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맥없이 돌아 서고 말았다.

그래도 다시 미련이 생겨 어느 일요일날 다시 얼뚜강으로 나갔다가 같은 풍산내기인 리창선을 만났다. 그는 천도교인들이 많이 사는 부락출신으로 《적색독서회》의 천남면조직성원이였었다. 그때 나와 그는 자주 만났기에 잘 아는 사이였다. 그는 왜놈들의 체포령을 피해 장백으로 도망쳐 왔는데 자기도 유격대를 찾는중이라고 하는것이였다. 무척 반갑기는 했으나 둘이 다 유격대에 대해서는 소문밖에 모르고 있는 처지라 서로 도움을 줄수도 없었다.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여 졌다. 내가 그를 다시 만난것은 몇년후 풍산으로 돌아 와서였다.

나는 장백현립중학교를 다니는 기간 종시 유격대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경찰의 등쌀은 점점 심해 졌다. 풍산에서 《요시찰명단》이 넘어 왔는지 아니면 유격대를 찾아 다닌다는것을 냄새 맡았는지 경찰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다. 장백으로 오면서는 딴 나라니까 좀 낫겠지 하였는데 그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였다. 경찰에서 부르거나 찾아 오거나 하는 일이 결코 고향에 있을 때보다 덜하지 않았다.

유격대를 찾지 못한 실망으로 맥 풀리고 경찰의 미행에 진저리가 났을 때 내 머리속에 떠오른것이 연길현 룡정이였다. 당시 룡정에는 조선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풍산내기들도 적지 않게 가 있었다. 특히 그곳에는 《적색독서회》때 안수면과 감토리책임자였던 전철식선생이 왜놈의 검거망을 피해 가 있으면서 동흥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곳으로 가면 왜놈경찰의 미행도 떼버릴수 있고 유격대로 가

는 선도 찾을수 있을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나는 룡정으로 갔다.

지금은 어떤지 알수 없지만 그 시절의 룡정은 해란강변에 위치한 무척 길다란 시가지였다. 말이 시가지였을뿐이지 온통 올망졸망한 초가집들이였고 한쪽에 몰켜 있는 양철지붕을 한 집들은 왜놈들이 살고 있었으며 높고 큰집이란 시내 어디서나 보이는 왜놈령사관뿐이였다. 바람만 불면 시가지는 황토먼지속에 묻혔고 하루에 두세번씩 왜놈령사관 경찰의 말발굽소리가 메마르게 울리군 했다.

한마디로 말하여 기름기 없는 도시였다. 그러나 어떻든 연길지방에서는 중심지여서 중학교만도 여러개가 있었다. 광명, 대성, 은진, 동흥 등 중학교들이 있었는데 동흥중학교는 제일 가난한 학생들이 모여 드는 학교였다. 나도 그곳으로 찾아 갔다. 전철식선생은 나를 반갑게 맞아 주고 동흥중학교에 다니라고 권고했다.

나는 그의 권고대로 마음 무던해 보이는 집에 하숙을 정하고 동흥중학교에 적을 붙였다.

그때 전철식선생은 동흥중학교 동창회책임자로 있었는데 나도 곧 그 성원으로 되였다. 동창회는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합법적인 친목단체였으나 내적으로는 학생들속에 반일의식과 계급의식, 사회주의사상을 보급하고 있었다.

전철식선생은 얼마전에 학교를 그만 두고 풍산으로 돌아 간 주병포라는 풍산 능귀면내기의 이야기를 하며 나와 성미가 걸맞았을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병포는 《적색독서회》사건때 검거망을 피해 룡정으로 왔고 아예 눌러 앉아 동흥중학교를 다녔던것이

다. 나도 아쉬운감이 적지 않았다. 이럭저럭 자리를 잡았으나 나는 시간과 함께 실망을 느꼈다. 룡정에서도 역시 항일유격대로 가는 선을 찾을수 없었던것이다. 게다가 룡정은 장백보다 안전지대가 아니였다. 어느 사이 련락이 닿았는지 나는 룡정에 발을 붙이기 바쁘게 일본령사관에 불려 가 왜 이곳으로 옮겨 왔는가, 무슨 목적으로 왔는가 하는 시끄러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철식선생은 몹시 근심스러운 기색이였다. 게다가 몇몇 동창회 친구들이 《령사관경찰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가 령사관에 불리워 갔댔는데 너에 대해 캐묻더라.》하면서 룡정에는 왜놈밀정들이 우글우글하고 자칫 잘못하다간 령사관에 불려 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 진다는 말을 귀띔해 주었다. 이야말로 승냥이를 피하니 이리를 만난 격이였다. 이미 실망을 느낀바였으므로 룡정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전철식선생은 떠날바에는 속히 떠나라고 했다. 령사관경찰들의 눈치가 심상치 않은데 지체하다가는 어떤 화를 입을지 모른다는것이였다. 그런데 며칠후 전철식선생이 령사관경찰에 체포되여 가는 사건이 일어 났다. 나는 떠나는것을 더는 망설이고 있을수 없었다. 너무 서두르다보니 그때 하숙비 두달치를 나중에 보내주기로 하고 그냥 고향으로 떠났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국 못 보내주고 말았다.

이제는 세상을 떠났을 그 마음 좋은 하숙집아주머니를 생각하면 미안하기 짝이 없다.

투쟁의 대오를 찾아 ②

룡정을 떠나 풍산 파발리에 돌아 온 나는 경찰의 눈을 피하려고 귀향소문을 내지 않고 이전에 《적색독서회》에서 같이 투쟁하던 동지들을 찾아 보았다.

신재국동지를 비롯한 여러 동지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수 있었는데 그들 역시 유격대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었다. 나는 삼화광산, 수상리 등지로 다니며 동지들을 만났고 유격대에 대한 소식을 알아 보았다.

물론 고향에 돌아 왔으나 마음은 그냥 장백땅에만 가 있었다. 어떻게 해야 유격대를 찾을것인가.

룡정에서 나온지 한달이 채 안된 어느 날 신재국동지가 자동차를 타고 장백땅으로 건너 가보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는 모두 찬성하였다.

당시 우리에게는 장백으로 드나들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신재국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이 함경도일대에서 《자동차왕》으로 불리우던 방의석이 경영하는 《북청공흥주식회사 풍산자동차출장소》에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기때문이다.

방의석은 장백현 지양개에 있는 지주 김정보와도 물물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풍산출장소의 자동차들이 그닥 드물지 않게 지양개를 비롯한 장백의 여러 지역에 드나들군 했다.

나는 동지들과 함께 신재국의 자동차를 타고 장백으로 건너 갔다. 이도강, 지양개, 관방자 등지를 다니며 유격대에 대하여 열심으로 탐문했다. 그러다가 풍산으로 들락날락하지 말고 아예 장백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유격대를 찾아 보기로 의논을 맞추었

다. 풍산으로 나간 사이 유격대가 왔다가 가기라도 하면 랑패가 아니냐는 안절부절 못하는 심정에서였다.

이렇게 되여 우리는 《장백농척조합》에 입직하였다. 지주 김정보의 알선으로 입직했는데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그의 소개를 받게 되였던지는 기억되지 않는다. 기억나는것은 김정보가 지주치고는 인심이 매우 후하다고 하던 꼬리 긴 노루도 있다는 식의 희한한 소문이다.

나는 자동차운전사 조수로 입직했다. 운전사는 물론 동지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그때의 심정으로 말하면 마치 날개라도 돋은듯 했다. 하루에도 수백리 지경을 오갈수 있으니 유격대를 찾는 걸음도 그만큼 빨라 질것으로 여겨 졌던것이다. 그러나 투쟁소식만 더 많이 들려 올뿐 유격대는 여전히 찾을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농척조합에서 일한지 한달이 되나마나한 때였다.) 불의의 사고가 일어 났다. 신재국동지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훌렁 뒤집어 놓았던것이다. 자동차가 대파된것도 된것이지만 문제는 승차시켰던 위만군들중 한명이 즉사하고 10여명이 중상 당했던것이다. 신재국동지는 운전상 실수라고만 했으나 나는 그것이 유격대 《토벌》을 떠들며 차를 잡아 타고 운행을 강요한 위만군들에 대한 증오로 우정 차를 엎어 놓은것이 아닐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가타부타 생각해 보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신재국동지와 또 한 동지는 헌병대에 끌려 갔고 우리에게는 농척조합에서 《추방령》을 내렸던것이다. 별수 없었다. 며칠후 헌병대에서 풀려

나온 신재국동지와 함께 우리는 유격대를 끝내 찾지 못하고 도로 풍산으로 돌아 오고 말았다. 이렇게 두차례의 장백행은 모두 허사로 끝나버렸다.

이것이 1935년 말께였을것이다.

보천보의 총소리

《여보 령감.》

옆에 앉아 있던 안해가 말을 건다. 처음은 《현옥 아버지》 또는 《승철이 할아버지》라고도 하더니 이제는 아예 《령감》이다. 그렇게 부를 때면 헤여 져 있는 긴긴 세월 우리 부부가 다같이 머리에 맞은 흰서리를 느끼게 되면서도 《내 집이구나.》하는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이 사진이 기억나요?》하고 안해가 내놓는 사진을 보자 나는 이만저만 놀랍지 않았다.

먼 옛날 1937년 가을 황수원언제공사장에서 인부로 같이 일하던 동무들과 찍은 사진이였던것이다.

앞줄의 오른쪽에서부터 첫번째는 동흥중학교에서 음악교원도 한적있는 김유진이였다. 그가 언제 어떻게 되여 풍산으로 나오게 되였는지는 딱히 기억나지 않는다. 전철식선생이 체포될 때 같이 체포되였는지, 아니면 체포령을 피해 풍산으로 나와 있은것인지, 하여튼 그와 황수원언제공사장에서 함께 일했다.

그옆에 내가 앉아 있었고 내옆에는 전철식선생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흥중학교에서 일본령사관 경찰에 체포되여 신의주감옥으로 이송되였는데 왜놈들의 그 어떤 고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나중에 왜

놈들은 8메터구간에 못 박은 판자를 늘여 놓고 그우를 걷게 하였으나 그의 입을 열수 없었다. 왜놈들은 종시 사건성립을 시킬수가 없어 기소유예로 석방하지 않을수 없었다. 고향에 돌아 온 그는 못에 채 구멍처럼 된 발을 치료하느라고 무척 고생했었다.

사진에는 동무인 리석기도 있었다. 그 사진은 1937년 가을에 언제공사장에서 믿음직한 동지들끼리 찍은것이였다. 모두가 보천보전투소식을 듣고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와 함께 싸우자고 맹약했던 동지들이였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안해가 사진에서 짚어 보이는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을 나는 첫눈에 알아 보았다.

《알지 않구! 〈김빠이〉지!》

그는 장백현 이도강에서 만났던 그 리창선이였다. 금이발이 유표하게 인상적이여서 우리는 그때 리창선이라는 이름보다도 《김빠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그런데 이 사진이 어떻게 당신한테 있소?》

당력사연구소에서 나온 사진이라는것이다. 안해는 그중의 세명을 짚어 보이며 그들이 **김일성**장군님의 지시를 받고 나온 조선인민혁명군 국내공작원이였다는것이다. 《김빠이》에 대해서는 그때 이미 국내공작원이라는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내가 이도강에서 그와 헤여 진후 다시 만났던 1937년에는 그가 벌써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이였던것이다.

(1937년!)

사진을 보느라니 감회가 더욱 깊어 졌다.

장백에서 쫓겨 나온후 나는 1936년 봄부터 황수원언제공사장에서 일했다. 황수원언제공사는 왜놈들이 조선을 완전한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전환시키려는 의도의 일환으로 벌려 놓은 허천강발전소공사의 일부였다. 그때는 수전공사라고 했다.

수전공사장에 발을 붙인 나는 김덕룡에게 양복점을 하나 차리게 했다. 그는 눈썰미가 있고 재간이 좋아 무슨 일이든 막히는데도 없었으며 어떤 일을 맡겨도 군소리없이 무조건 해내는 훌륭한 동지였다. 그는 《신광양복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양복점을 하나 꾸려 놓았다. 어느 겨를에 배웠는지 재단도 제 손으로 척척 해냈다.

나는 공사장에서 일공로동을 하면서 그의 양복점에서 양복주문도 맡아 보았다. 수전공사장에서 얼마간은 《데주라》(출면－아침출근시 일할 표딱지를 나누어 주는 일)로 일한적도 있었다. 막로동을 하고 《데주라》질도 하고 양복주문도 하다보니 동지들을 만나기도 좋았고 새로운 동지들을 찾는데도 매우 편리했다.

압록강건너 장백땅에서는 매일같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승전소식이 들려 왔고 국내에서는 파업과 쟁의가 그칠새없이 일어 났다. 이때를 력사에서는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기》라고 부르고 있다.

언제공사장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승전소식이 류달리 빨리 알려 지군 했다. 어데서 왜놈들을 통쾌하게 쳐부신 전투가 있었으면 이튿날에는 벌써 온 공사장에 알려 지군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수전공사장에 여러명의 장군님의 국내공작원들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때 김덕룡이 은근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한적도 있었다.

《인모, 저런 사람들이 유격대가 아닐가?》

당시 공사장에는 각지에서 모여 온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내남없이 살길 찾아 헤매다가 돈푼이나 좀 벌어 고향으로 돌아 갈가 하여 인부로 된 사람들이였다. 그들중에서 몇사람은 한숨이나 탄식을 모르고 락천적이였으며 세상일에 대해서도 아는것이 많은것으로 하여 특별히 주목되는 사람들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한테 왜놈들이 혼쌀난 이야기들로 흥을 돋구는가 하면 **김일성**장군님의 신출귀몰한다는 전술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로 얼을 뽑기도 했다. 그들이 바로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국내공작원들이였던것이다. 리창선도 그중의 한사람이였다.

나는 여기 와서 읽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그의 투쟁행적을 알수 있었다.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희생되였다는것이 끝없이 아쉽다.

보천보전투소식을 우리가 들은것은 전투가 있은 다음날인 1937년 6월 5일 아침이였다.

그날 따라 여느 날에는 기승을 부리며 돌아 치던 왜놈십장이며 경찰들이 웬일인지 얼씬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다 하는데 보천보전투소식이 날아 들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보천보를 치셨다! 보천보의 왜놈기관들은 모두 재더미로 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직접 연설하셨는데 왜놈들이 인차 망하고 조선이 독립된다고 하셨다!》

《장군님께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셨다!》

신문들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였고 어데 가나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그 이야기뿐이였다. 뒤이어 유격대를 추격하던 왜놈들이 또 무리죽음을 당했다는 통쾌한 소문이 들려 왔다.

《아무렴! 제놈들이 감히 어데라구?》하고 사람들은 말했다.

6월 30일에는 간삼봉전투가 있었고 일장기속에서 요란한 출정식을 하고 떠났던 함흥 74련대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패전을 당하고 《호박대가리》부대가 되여 돌아 왔다. 풍산도로로 숱한 왜놈군용차들이 함흥쪽으로 나갔는데 사람들은 그 차에 실린것이 모두 간삼봉에서 죽은 왜놈들의 대가리라고 수군거렸다.

보천보의 총소리, 그 총소리는 나의 운명을 결정했다.

1930년 8월 14일, 파발리의 총소리가 내 어린 가슴에 투쟁의 불씨를 심어 주었다면 1937년 6월 4일 보천보의 총소리는 청년이 된 내 가슴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투쟁의 불길을 일으켜 주었다.

그때를 돌이켜 보느라니 문득 남쪽땅에서 우리 민족의 반일투쟁에 대하여 이런저런 글을 쓰고 있는 사가들에게 묻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항일무장투쟁보다 더 자랑스러운 투쟁사가 무엇이 있는가. 정예를 자랑하는 수십만의 관동군이 뇌심초사하며 림해설원을 헤맨것이 《상해림정》의 몇몇 《대신》들을 잡기 위해서였던가, 아니면 외세의 힘을 빌어 보려고 동분서주하던 지사들을 잡기 위해서였

던가. 수십만 관동군의 이동은 단순한 《치안유지》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전쟁》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런데 남쪽땅의 사가들은 우리 민족의 반일투쟁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항일전쟁》을 외면하거나 언급할 가치도 별로 없다는듯 몇줄로 스치고 이런저런 소소한 반일행동에 대해서는 요란하게 떠들어 대는것으로써 교전쌍방이 아니라 단순한 종주국과 식민지였다는 일본의 뻔뻔스런 주장에 《물을 대주고》 있다.

왜놈들자신이 《**김일성**장군은 조선민족에게 구세주로 되고 있다.》고 비명을 질렀다는것을 그네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애써 모르는척 하고 있는지…

한 일본인교감은 자기의 글에서 광복전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쓴적이 있다. 조선의 어느 국민학교에 나가 학생들을 모아 놓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 놓고 무기명으로 써내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70%이상이 《**김일성**장군》이라고 썼더라는것이다.

허나 그것은 일본인의 견해이다.

그때를 회상해 보느라면 나에게는 이렇게 생각된다. 만일 그때 우리 조선민족에게 단 몇초간이라도 마음 놓고 말할 자유를 주었다면 온 이천만겨레가 한결같이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불렀을것이라고!

김일성장군, 그분은 우리 조선민족의 힘의 상징이였고 꺽이지 않는 넋의 상징이였으며 조선독립의 등대였으며 희망이였으며 태양이였다!

이것은 나의 믿음으로, 신념으로 되였다.

해발

1937년 7월은 풍산지구 반일조직들의 활동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룬다. 보천보전투와 간삼봉전투소식으로 하여 사람마다 가슴이 널뛰듯 할 때인데 **김일성**장군님께서 직접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 공작원이 풍산지구에 나왔던것이다. 참으로 그때의 기쁨이란! 천도교인들부락에서 나온 소식에 의하면 천도교종리원 원장 원충히는 그분을 천도교인들에게 《**김일성**장군님의 특사》로 정중히 소개했다는것이였다…

7월 중순의 어느 날 저녁 나는 수전공사장에서 돌아 와 외삼촌내외와 함께 저녁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저녁이였으나 장날이여서 길에서는 인적이 끊기지 않고 있었다.

파발리장마당은 한달 6장이였는데 장날이면 파발리주민들보다 몇배 더 많은 령남과 령북에서 모여온 장군들로 무섭게 붐비였다. 우리 집은 다행히도 리소재지의 맨끝에 있어서 소음이 덜한 축이였다.

인적이 좀 즘즉해 지는가 싶을 때였는데 밖에서 《주인 계시오?》하는 소리가 났다. 외삼촌이 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창선이 아니냐?》고 반가운 소리를 했다. 나도 일어 나 내다보니 정말로 《김빠이》리창선이였다.

웬일인지 그는 인사는 대충 나누고 나서 집주위를 살피며 귀중한 손님을 한분 모시고 왔는데 들렀다 가면 안되겠는가고 묻는것이였다. 물론 나와 외삼촌은 쾌히 응낙했다.

리창선은 좀 기다리라고 하더니 큰길쪽으로 나갔다가 한참만에 20대의 젊은 녀성을 한분 안내해 왔다. 보통 장군들이나 다름 없는 옷차림이였으나 어덴가 모르게 품위가 있어 보였고 류달리 영채가 도는 두눈이 인상적이였다. 맑고 또렷한 음성, 확신에 넘쳐 있는 표정, 몸가짐은 조용했으나 일어 서면 수백리라도 단숨에 내달을듯 힘에 넘쳐 있었다.

리창선과 무슨 이야기인지 나눈 외삼촌과 외숙모는 밖으로 나갔고 나는 리창선과 함께 뒤방에서 그분과 마주 앉았다.

그분은 리창선을 통하여 나와 외삼촌에 대해 알게 되였다고 하며 《적색독서회》사건과 우리의 투쟁정형에 대하여 물었다. 나는 그 녀성이 보통사람이 아니라는것을 느꼈다.

나는 독서회때부터 지금까지의 투쟁정형과 황수원언제공사장, 안산면, 안수면일대의 형편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분은 고생이 많았다고 하면서 지하공작이 무장을 들고 싸우는 유격투쟁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라는것, 독서회관계자들을 핵심으로 그 주위에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묶어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가장 격동적이였던것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소식과 장군님께서 친히 작성하시였다는 그분이 해설해 준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내용이였다.

근 6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을 다시 보느라니 그 내용을 해설해 주던 그분의 정열적인 음성이 귀가에 다시 울려 오는듯 싶다.

《…우리가 모든 차별을 론하지 않고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녀자 할것없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2천만 민중이 일심동체가 되여 반일조국광복전선에 총 동원된다면 왜놈들은 파멸될것이며 우리 민족의 독립은 이룩될것이다.》

시간이 지나 그분은 우리 집을 나섰고 큰길가에 대기하고 있었던듯한 화물자동차를 타고 떠났다. 《북청공흥주식회사》의 자동차 같았다.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듯 한 남자 1명과 녀자 1명이 차가 떠나자 적재함에 뛰여 올랐다. 자동차는 갑산방향으로 들어 갔다.

외삼촌은 그제야 돌아 왔다. 그는 리창선이와 토론하고 주재소에 가서 경관들과 바둑을 놀면서 적들의 동향을 살피였던것이다.

며칠이 지나 리창선을 만났을 때 나는 그 녀성이 누구인가고 물었다. 그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직접 파견하신 정치공작원이다.》고 단마디로 할뿐 더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때 나의 놀람과 흥분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다. 얼마 지나서야 그에게 왜 그때 말해 주지 않았는가고 분한 소리를 했더니 그는 《지하공작상 말해 주게 되여 있지 않다는걸 알지 않는가.》하면서 도리여 성을 냈다. 내가 두말 못하게 하려는것이였다. 나도 지하공작상 지켜야 할 점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쉬움은 너무도 컸다.

그래서 나는 그 녀성이 장군님께서 친히 파견하신 공작원이라는것을 알았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따라 갔을것인데 당신이 대주지 않아서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그에게 마구 들이댔다. 그러나 리창선

이 《공작원동지가 지하공작을 하는것도 유격대에 들어 가 총 잡고 싸우는것보다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대로만 해야 한다. 공작원동지가 말한것은 모두 장군님의 뜻 그대로다.》하고 조리 있게 말하며 나중에는 《그대로 못하는 사람은 조직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윽박지르기까지 하는 바람에 나는 그만 머쓱해 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기쁘고 격동되여 부려 본 투정질과 비슷한것이였다. 전설로만 들어 오던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정치공작원을 만나보았다는 기쁨은 한없이 컸다.

리창선은 나와 만날 때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내용을 조항별로 이야기해 주었고 유격대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 **김일성**장군님을 뵌적이 있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가 장군님을 뵌적이 있으리라고는 물론 그때 나는 생각도 할수 없었다. 나와 다름 없는 범인인 그가 어떻게 천출명장인 장군님을 감히 뵈올수 있을가 하는 감정이였다… 요즘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으면서야 나는 리창선이 수령님의 친솔부대성원이였음을 알게 되였다. 그때 그것을 알았더라면!

더우기 잊혀 지지 않는것은 그때로부터 한달가량 지난 9월경에 있은 일이다.

어느 하루 얼마간 보이지 않던 《김빠이》 리창선이 여러 낯 선 사람들과 함께 언제공사장에 나타났다. 낯 선 사람들중에는 키가 큰편인 젊은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 인부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에게 담배까지 권하면

서 생활형편과 공사장형편에 대하여 물으시였는데 허물 없고 소탈하셨다.

그분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였으며 함께 싸워 조국을 광복하고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특별히 인상적인것은 그분의 류다른 안광과 우렁우렁하신 음성, 볼우물이 패이는 인상적인 웃음이였다.

그때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수 없었다. 다만 리창선을 비롯한 류다르게 보이던 몇몇 인부들이 멀찌감치에서 주위를 살피고 있는것과 그분과 같이 온 여러 사람들도 긴장해 주위경계하는것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을뿐이였다.

광복후 신문에서 장군님의 사진을 처음 뵈왔을 때 나는 그 젊은분이 누구이시였는가를 깨달았다. 허나 너무도 놀라운 일이여서 나로서도 내 생각을 쉽사리 믿기 어려웠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국내깊이의 신흥지구 비밀근거지에 나가시였다가 조국광복회조직들과 천도교인들과의 사업을 위하여 리창선의 안내를 받으며 풍산지구에 들리셨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그 시절에 널리 떠돈 《**김일성**장군이 함흥에 나와 리발하고 려인숙에서 쉬고까지 갔다.》는 소문이 우연한것이 아니였던것이다.

그때로 말하면 참으로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기》였다. 유격대의 승전소식은 매일같이 들려 왔고 왜놈들은 불안과 공포에 싸여 있었다. 우리 활동도 더 본격화되여 갔다. 조직은 나날이 확대되였고 유격대원호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 졌다. 지하족과 광목천, 성냥, 소금 등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신파(오

늘의 김정숙군)쪽으로 들여 보냈는데 그곳에서 다시 압록강을 넘겨 유격대에 전해 진다고 했다. 원호물자 마련하는 사업을 생산유격대활동이라고 불렀다. 유격대의 승전소식을 들을 때면 우리의 힘도 보탬이 되였구나 싶어 힘든줄을 몰랐다.

유격대원호사업은 대체로 소규모로 진행되였으나 때로는 엄청날만큼 대규모로 진행되기도 했다. 한번은 북청쪽에서 원호물자를 화물자동차에 가득 싣고 올라 왔는데 요란스레 경적소리를 울리며 신파쪽으로 들어 갔다. 며칠후 자동차는 나무 몇대를 싣고 돌아 나와 북청으로 내려 갔다. 원호물자는 신파를 거쳐 무사히 강을 넘어 유격대에 전해 진것이였다.

이렇게 원호물자는 등짐으로도 달구지로도 떼목으로도 자동차로도 끊임없이 유격대로 흘러 들어 갔다.

한편 우리는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활발히 벌렸는데 그중의 하나가 녀성공작원이 다녀 간후 리창선의 주도하에 무어 진 《황수원언제공사장로동자친목회》였다. 친목회에는 전철식선생도 김유진선생도 들어 있었으며 김덕룡, 리석기, 리경모들도 들어 있었다. 나는 리창선의 주장으로 책임자가 되였는데 사실상은 리창선이 지도한것과 다름 없었다.

나는 그때 양복주문돌이도 하고 있어서 활동하기 편리했다. 먼곳으로 오가는 일은 대체로 김덕룡과 리경모가 담당했다. 김덕룡은 걸음도 잘 걷고 일도 제낄 손이 있어 나는 그를 나자신처럼 믿었다.

친목회조직을 확대해 나가며 조국광복회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던 때인 1937년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혜산사건》이 터졌다.

풍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였는데 대부분 천도교를 믿던 사람들이였다. 천도교 함남도 도정이였던 박인진선생도 체포되고 나의 선배였던 리현욱동지도 체포되였다.

로동자친목회는 합법적인 단체였으나 일제가 혈안이 되여 날뛰는 조건에서 당분간 활동을 중지하고 지하로 들어 갈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또 한차례의 좌절이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투쟁의 지침인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 있었고 장군님께서 계시는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주병포

1937년이 저물어 가던 12월경이라고 생각한다. 후리후리한 체격에 날파람 있어 보이는 한 청년이 나를 찾아 와 《리인모가 옳은가.》하고 묻는것이였다. 내가 그렇다고 하자 그는 신재국동지가 《파발리에 가면 너 같은 기질을 가진 리인모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를 찾아 가라.》고 하더라는것이였다. 좀 두드러질사한 두눈이 열기 있게 번쩍거렸고 말할 때마다 가쯘한 흰 이발이 눈을 끌었다. 첫눈에 나는 그가 마음에 들었다.

그가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동지이며 벗으로 된 주병포였다.

그는 그때 《조순사사건》이라고 부르는 일때문에 경찰을 피해 다니는 처지였다.

《조순사사건》이란 조태제라는 사법계 형사에게 주병포가 된주먹세례를 안긴 사건이였다.

조태제란 놈은 이만저만 못된 놈이 아닌데다 걸핏하면 사람들을 마구 두들겨 패는것이 여반장이여서 《조몽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유도까지 하는 놈이여서 《조몽둥이 온다.》하면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피해 달아 났다. 그놈이 풍산읍의 료리집인 《북일루》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것이 비위에 거슬려 한바탕 폭행을 하려고 날치는것을 주병포가 한주먹으로 쓰러눕혀 놓았다.

원래 아이때부터 권투를 한다고 좁쌀자루를 매달아 놓고 련습해 온 병포였으니 주먹이 보통 세지 않았다. 조순사는 대번에 한쪽눈이 개구리눈알처럼 부어 올랐고 먹단지를 엎어 놓은것처럼 멍이 들었다.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으니 조순사는 반죽음이 되였다고들 했으나 주병포는 그저 한대 먹였을뿐이라고만 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늪평주재소에 붙들려 가 며칠간 취조를 받다가 나왔다. 그러나 《혜산사건》의 여파로 걸핏하면 도로 잡혀 들어 갈 판이여서 피신하는겸 파발리 우리 집에 가 있으라고 신재국동지가 보낸것이였다.

사연을 알게 된 나의 어머니는 《성미가 똑 같은 것들이 만났다.》며 탄식을 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한것은 얼마전에 있었던 일때문이였다.

일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어느 하루 한 아이가 울면서 나에게 달려 왔는데 코피가 터지고 얼굴이 온통 부어 있었다. 조선말을 했다고 왜놈교원이 자기 방에 데려다 차고 때리고 했다는것이였다.

나는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아이가 조선말을 한다고 이렇게 때리다니, 나는 당장 조선바지저고리를 꺼내여 입고 학교로 달려 갔다. 마당에서 나는 《다니》라는 왜놈교사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쳤다. 《바가야로!》하며 그놈은 목검을 쥐고 달려 나와 다짜고짜 나를 후려 치려 들었다. 나는 내려 치는 목검을 받아 쥐고 빼앗아 냈다. 목검으로 되려 그놈을 후려 치기 시작했다. 그 목검이 우리 조선아이들을 무지하게 때렸으리라는 생각을 하니 분노는 점점 더 커갔다. 마침내 그놈이 잘못했노라고 두손을 싹싹 비빌 때까지 두들겨 팼다. 그 일때문에 경찰에 불려 가 되게 취조를 받은것은 물론이고 얼마동안은 피신해 다니기까지 했다…

병포는 그 이야기에 통쾌하게 웃었다. 나의 어머니의 말뿐아니라 《같은 기질》이라고 한 신재국의 말이 신통하다는것이였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와 나는 오래전 《적색독서회》때부터 한조직에서 싸워 온 동지였다. 이제 와서야 만나게 되고 알게 된것이 아쉬울 지경이였다. 우리는 이제는 서로 헤여 지는 일없이 함께 싸워 나가자고 굳게 약속하였다. 그것은 물론 순수한 우정의 약속이 아니라 혁명동지로서의 약속이였다.

며칠 우리 집에서 묵고 나서 그는 경찰의 눈을 피해 멀찌감치 가겠다며 서울로 떠나갔다.

얼마후 다시 왔을 때 그는 서울에서 법정전문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에는 적만 두었을뿐 한달이 멀다하게 풍산으로 오르내렸다. 편지도 자주 왔고 나도 또한 드문드문 서울로 올라 가 그를 만났다.

그는 서울로 오르내리는 과정에 국내의 여러 독립운동선각자들과 알게 되였는데 내 보기에는 그들과의 교제가 병포에게 그다지 기쁨을 주는것 같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풍산에서의 투쟁과 항일유격대에만 쏠려 있었다. 이제 유격대공작원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 유격대에 참군하겠다고 했다.

그 생각에서도 우리는 신통히 같았다.

그러다보니 그는 줄곧 서울에서 풍산으로, 풍산에서 서울로 오르내렸고 나도 서울을 여러번 다녀 왔다. 내가 서울로 가면 그의 하숙집에서 머물렀고 그가 풍산에 내려 오면 능귀면 문조리의 자기 집보다 우리 집에 머무르는 때가 더 많았다.

그럴 때면 우리는 《혜산사건》으로 파괴되였거나 지하에 들어 간 조직에 대한 이야기와 항일유격대에 대한 이야기를 밤 새우며 나누었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방바닥을 주먹으로 두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했으나 그 밤들은 모두 조직을 확대해 나가며 투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밤들이였다.

녀성공작원을 다시 만나다

1938년 7월 초, 신재국동지에게서 련락이 와서 나는 급히 그의 집으로 갔다. 신재국동지는 그때 풍산자동차출장소 리파리취급소에서 일하면서 리파리 후령동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신재국의 집에 가서 얼마 있느라니 리현욱동지가 왔다. 그는 혜산경찰서에서 6개월간 고생하다가 출옥되여 나오는 길로 우리를 찾은것이였다.

그는 파괴된 조직들을 빨리 복구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모든 책임을 맡아 나선 권영벽, 리제순 등 체

포된 여러 동지들의 희생적행동으로 출옥할수 있었다.

리현욱동지는 6개월간 받은 고문으로 형상이 말이 아니였으나 머지 않아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으로 진출할것이니 빨리 조직을 복구하고 장군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한조항한조항 해설해 주었다.

나는 이미 지난해에 만난 녀성공작원과 리창선에게서 그 내용을 상세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

리현욱동지는 조직을 어떻게 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묶어 세우겠는가를 차근차근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조리 있고 설득력 있는지 6개월간 류치장이 아니라 지하공작학교를 다녀 오기라도 한듯 했다.

그날 우리는 조직의 이름을 《풍산지구 혁명위원회》로 하였고 세개 지구로 나누어 활동지역을 분담했다. 동부는 신재국, 서부는 나, 남부는 리현욱동지가 맡았으며 그는 파괴된 풍산지하조직을 복구하는 사업도 맡았다.

저녁에는 리현욱동지가 나누어 주는 미농지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우리는 10대강령을 《우리슬로간》이라고 불렀다.)을 깨알 박듯 썼다.

그때부터 나는 조국이 광복되는 날까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서울에 갈 때도 도꾜에 갈 때도 그것을 가지고 갔었다.

내가 맡은 서부지역이란 안산면과 안수면이였는데 안산면은 지경리, 상시경리, 내중리, 양평리, 파

발리 등 다섯개 리였고 안수면은 미전리, 감토리, 수동리, 장평리, 평산리, 수상리 등 일곱개 리였다.

조직결성이 있은후 우리는 산하조직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벌렸다.

조직은 빨리 확대되여 나갔다. 내가 맡은 서부지구에서만도 그해 9월 조국광복회 파발분회가 조직되였으며 거의 같은 때 황수원언제공사장에서 《황수원언제로동자돌격대》가 조직되였다. 돌격대의 핵심으로 된것은 지난해 7월 녀성공작원이 다녀 간후 리창선의 주도하에 무어 졌던 로동자친목회의 성원들이였다. 조직결성모임은 김덕룡이 차려 놓은 《신광양복점》에서 진행하였는데 련락책임자로는 김덕룡과 리경모가 되였다. 돌격대는 주로 일제의 전시전력생산보장을 위한 황수원과 내중리의 수전공사를 지연시키고 파괴하는 여러가지 투쟁을 벌렸다. 그때 수전공사장에서는 작고 큰 사고들이 련달아 유발되여 왜놈들이 골치깨나 앓았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로동자돌격대의 공작때문이였다. 한편으로는 유격대원호물자도 마련하고 장군님께서 조국으로 진군할때 합세하기 위한 준비로 비밀리에 칼, 창을 만드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그무렵에 안산면 로은리 큰발골치기에서 《안산후치령 생산돌격대》도 조직하였는데 북청—혜산, 북청—삼수 등 군용 1등도로에 대한 적정장악과 후치령 수림지대에서 목탄, 신탄 판매금으로 유격대원호자금과 조직자금확보사업도 하였다.

동부와 남부지역에서도 조직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이제 뒤에 이야기할 1938년 9월 장군님께서 파견해 주신 정치공작원과의 상봉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 진 성과들이다.

조직들을 내오기 위해 분주히 뛰여 다니던 9월의 어느 날 집으로 돌아 오니 래일 저녁까지 리파리 후령동의 《양춘의원집》으로 오라는 련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혹시 주병포의 일때문이 아닐가 하고 생각했다.

며칠전 주병포가 서울에서 내려 왔었다. 나를 찾아 온 그는 더는 이러고 있지 못하겠다며 기어이 유격대에 참군하겠다는것이였다. 그가 자기 결심을 리현욱동지나 신재국동지에게 제기했으리라는것을 나는 짐작했다. 나와 만났을 때 그는 당장 유격대로 가는듯이 흥분해 있었던것이다. 그는 원래 마음 먹으면 기어코 그대로 하고야 마는 성미였다. 소학교때 한번은 곡마단이 풍산에 왔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경하고 사까스(교예)에 미쳐 버린 주병포는 사까스를 하겠다고 한달동안이나 곡마단을 따라 다닌 일까지 있었다.

지금도 그때 무릎을 흔들며 앉아 흥분하여 말하던 그의 얼굴이 눈앞에 선하다. 그는 앉으면 무릎을 흔드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그가 유격대에 가게 되면 어떻게 떼를 써서라도 나도 같이 가리라고 단단히 마음 먹었다.

그런데 집으로 갔던 주병포는 그만 경찰의 눈에 걸려 경찰서로 끌려 가고 말았다. 왜놈들이 그에게 또 무슨 죄를 들씌울지 알수 없었다.

나는 다음날 일찌기 집을 떠나 후령동 《양춘의원집》으로 갔다. 집주인인 김의원은 조국광복회 후령동 분회 회원이였고 그 집은 우리 혁명위원회의 비밀련락소였다.

련락소에 이르니 리현욱동지와 신재국동지가 먼저 와 있었다. 무슨 일인가를 말해 주지도 않고 잠자코 앉아 기다리라고만 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얼마후에야 그들은 이제 곧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유격대공작원이 온다고 알려 주는것이였다.

너무너무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였다. 공작원을 파견하시였다는것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풍산조직을 알고 계신다는것이 아닌가. 꿈 같기만 했다.

그런데 얼마후 2명의 유격대원(한명은 녀성유격대원이였다.)과 함께 들어 서는것은 천만뜻밖에도 지난해에 만났던 그 녀성공작원이 아닌가. 반가움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직의 사업에 대하여 료해하신후 앞으로 해야 할 활동방향을 가르쳐 주었다. 특히 그분께서는 준비된 성원들을 서울을 비롯한 남부조선일대에 파견하여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혁명가들을 묶어 세우려는 장군님의 구상에 대하여 강조했다.

그날 그분께서는 신재국동지를 따로 만났는데 내가 돌아 오면서 묻는 말에 신재국동지는 《주병포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며 공작원이 주병포를 풍산혁명위원회 성원으로 임명했다는것을 알려 주었다.

집으로 돌아 와 2～3일 지났을 때 주병포가 불쑥 나타났다. 경찰서에서 나온지는 벌써 며칠되였다고 하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 가겠다는것이였다. 유격대참군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전에처럼 자주 오르내릴수 없을것 같다며 편지로 련락을 가지자고 하는것이였다. 그제야 짐작되는

바가 있어 내가 《녀공작원의 지시를 받았지?》하고 직통으로 물었더니 그는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도 역시 내가 공작원을 만났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나는 녀성공작원이 지난해 8월에 풍산으로 나왔을 때 병포가 사는 문조리 양지마을에서 머물렀으며 이번에 나와서도 양지마을 그의 집에 찾아 오셨다는것, 그때 마침 병포가 경찰서에서 풀려 나온 바람에 공작원과의 상봉이 이루어 졌음을 알게 되였다. 이 상봉이 병포의 서울행을 결정했다. 유격대참군이 국내혁명가들을 **김일성**장군님 주위에 결속시키기 위한 지하정치공작원으로 바뀌였던것이다.

이것은 물론 그후 서울로 오르내리면서 똑똑히 알게 된것이다. 이제는 자주 못 내려 올 서울행이라는데에 나의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섭섭해 하였다. 붙임성이 있고 서글서글한 병포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쏙 들어서 노상 《병포는 내 아들》이라고 했었다.

혼자 있는 깊은 밤중에 인기척이 나며 문이 덜컹대면 어머니는 겁에 질려 소리친다.

《거 뉘기요?》

《아들이 왔소다.》하는 대답이 들리면 어머니는 대뜸 《병포 왔구나.》하고 반갑게 문을 열어 주군 했다.

병포가 떠날 때 어머니는 상심하는 얼굴로 그를 동구밖까지 바래워 주었다. 혹시 그때 어머니는 병포의 떠남에서 뒤이어 있게 될 이 아들의 떠남을 륙감으로 느끼고 더 상심한것이 아닌지 모른다.

두달인가 지났을 때 병포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이 무척 바쁜 모양이였다.

리현욱동지는 녀성공작원이 풍산조직에 준 임무중의 하나이니 빨리 서울에 가서 주병포를 만나 지시를 받으면서 도와 주라고 했다.

나는 1939년 설명절을 쇠고 인차 서울로 올라 갔다…

《령감, 그때 풍산에 나왔던 유격대녀공작원이 누구이신지 아시우?》

안해의 물음에 나는 어렵지 않게 대답했다.

《알지 않구! 장군님의 특사지!》

안해는 머리를 흔들었다.

《알긴 잘 압네다. 이걸 읽어 보시우.》

그는 내앞에 《로동신문》을 한장 내놓았다.

1991년 5월 29일부였는데 안해가 가리키는 2면에는 《동해안일대가 항일혁명의 보루로 다져 지던 나날을 더듬어》란 제목밑에 박정숙, 위인찬 두사람의 글이 전면기사로 실려 있었다.

《…

지금으로부터 55년전 5월에 백두산줄기의 대원시림속인 동강밀영에서 조국광복회운동을 국내깊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정치공작원들을 국경일대와 국내에로 수많이 파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드시고 1937년 7월과 8월에 국내깊이에 진출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나는 놀란 눈으로 안해를 보았다. 안해는 계속 읽어 보라고 재촉이였다.

《7월 초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일행을 이끄시고 압록강을 건느시였다… 풍산지방에 들어 서니 천도교인들중에서 첫 유격대원이 된 리창선동무가 김정숙동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먼저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와 동해안지대를 련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풍산군의 종교인들속에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시였다. …천도교 종리원 원장 원충히는 《**김일성**장군님의 특사》로 맞이…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날… 조국광복회 풍산지회 책임자를 비롯한 조직성원들을 만나시고…》

계속하여 필자들은 김정숙동지께서 단천에 가시여 단천농민폭동피검후과로 도덕산골안의 절간에서 병치료중이던 리주연을 만나시고 다음은 리원 차호바다가에서 일제경찰에게 《두문령》을 받고 있던 《헤그밀사》 리준의 아들 리용을, 북청에서는 조선공산당관계자인 리영을 만나신 사실과 리영이 그후 서울에 가서 《쓰딸리단》을 조직하고 관계자들에게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전달한 사실에 대하여 쓰고 있었다.

나는 주병포가 서울에 가서 김동지와 련계를 맺고 함께 일하는데 리영도 련결되여 있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였다. 김정숙동지께서 꾸려 놓으신 조직선을 타고 모든것이 진행되였던것이다.

회상기의 필자들은 그 나날에 대한 수령님의 다음과 같은 교시를 인용하고 있었다.

《김정숙동무도 1937년 여름과 1938년에 전령병이였던 김봉석동무를 데리고 풍산지구에 나와 혁명조직들을 지도하였습니다. 한번은 김정숙동무가 〈김빠이〉라는 별명을 가진 리창선의 안내를 받으며 풍산지구에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더는 의혹을 가질 여지가 없었다…

그때 주병포는 자기를 만나주고 과업을 준 녀성공작원이 전설 같은 이야기들로 하여 항간에 널리 알려 져 있었던 유격대의 녀장군이시라는것을 짐작이나 할수 있었을가. 그리고 자기의 모든 행로가 그이께서 꾸려 놓으신 조직선을 따라 진행되였다는것도… 아마 십중팔구는 그도 나처럼 짐작조차 할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병포나 나만이 아니라 우리 조직성원들모두가 같았다.

허나 우리는 그분께서 안겨 주신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가슴에 품고 있었고 그로 하여 언제 어디에 가서나 **김일성**장군님의 부하로 자부하였다.

우리는 삼천리전역으로 퍼져 가는 위대한 태양의 해발이였다.

서울에서 도꾜로

내가 서울에 올라 갔을 때 주병포는 경성법전에 적을 두고 동대문구 충신동에서 하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정전문학교에 적을 둔것은 명색뿐이였고 서울콩그룹의 김동지와 함께 서울일대 특히 영등포지구 로동자들속에 들어 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무렵 서울에서는 1930년 9월에 발표된 프로핀테른(국제적색로동조합)테제에 따라 혁명적로동조합운동을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었다.

소부르죠아지식인으로 구성되였던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탄압과 심한 파쟁으로 1928년에 해산되였기때문에 30년대의 혁명적로동조합운동은 여러 지하써클들의 지도로 다양하게 전개되였다. 그중 김동지의 그룹은 1933년 서울에 침투한 모스크바공산대학출신 권영태와 련결해 서울일원의 공장과 인천부두등에서 세포를 조직했다. 이것이 서울 콩그룹의 전신이였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들은 각 공장에 세포가 조직되자 이를 산업별 조직으로 체계화해 나갔다.

그런데 33년 가을 종연방직파업이 발단으로 되여 그룹이 로출되고 말았다.

이때 그 조직자인 김동지와 권영태 등 400여명이 검거되였다. 그후 조직을 수습해 다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935년 다시 검거선풍에 휘말리고 말았다.

1937년 출옥한 김동지는 그해 봄 국제공산당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태평양》에서 **김일성**장군의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에 대한 글을 읽었다.

그가 보천보전투소식을 들은것은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고향 충주에 내려 가 있을 때였다. 그때 마을 장터의 《변이복리발소》에서 몇사람이 모여 앉아 지금 조선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김동지는 서슴없이 《조선에서 제일 훌륭한분은 보천보를 들이친 **김일성**장군님이시다.》하고 말했다는것이였다.

주병포는 김동지의 동향인으로 청년운동을 하는 리기환에게서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며 그길로 서울로 올라 온 김동지가 《서울 콤뮤니스트그룹》(일명 콩그룹)을 조직하고 맹활동을 하고 있다고 흥분하여 알려 주었다.

김동지에 대한 이야기로 보아 병포의 일은 잘 진척되여 가는것 같았다. 알고 싶은것은 무척 많았으나 지하공작상 나는 더 알려고 할수 없었다. 하여튼 김동지의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생각을 알게 되니 나는 김동지에게 무척 존경이 갔다.

나는 당장 일에 착수하고 싶었다. 주병포는 나를 어떤 사람에게 련결시키면서 지하사업의 특성상 많은 설명을 할수 없으니 아무것도 알려 하지 말고 그 사람과 련락만 잘하라고 했다.

그런데 련결시켜 준 그 사람이 나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바로 나와 한고향사람으로 아버지가 그 린근에서 방의석과 나란히 자동차왕으로 알려 진 조재옥이였다.

그는 우리 동무들이 어린 나이에도 투쟁한다고 뛰여 다닐 때 함북의 북경성중학교에 다녔다.

자본가이며 일제와 늘 접촉하는 사람의 아들, 그에 대한 기억이란 여름방학때 고향에 오면 귀공자냄

새를 피우며 다녀서 밉게 보았던 좋지 않은것들뿐이였다. 게다가 그는 서울법전(경성법전)을 졸업하고 친일파 최린이 사장을 하고 있는 총독부기관지 《매일신문》사의 사회부 기자를 하고 있었다.

동지라기보다는 투쟁대상이라 할만 한 사람을 련결시키니 나는 마음속으로 불만이 가득했지만 내놓고 말은 못하고 속만 태웠다. 더우기 지하조직사업이라 그가 그동안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부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던 나로서는 뭐라 말할수 있는 형편도 못되였다. 속이 상한 나는 병포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이럴바에야 서울이 아니라 도꾜에 가서 공부나 하는게 낫겠다는 부르튼 소리도 했다.

그런데 병포는 의외에도 도꾜에 가서 풍산출신 고학생들과 련계를 가져 보는것이 좋겠다고 하는것이였다. 도꾜에는 어릴 때부터의 친구들 몇이 고학을 하려고 가 있었다.

나는 마침 잘되였다 싶어 우선 도꾜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내기로 했다.

내가 도꾜에 가자면 고향에 가서 수속하여 도항증을 받아 와야 했다. 하지만 나 같은 요주의인물에게 도항증이 나올리 만무한데다 고향을 떠날 때 형사들이 내 거처를 모르게 하고 떠났었기때문에 고향의 내 담당형사는 혈안이 돼서 나를 찾고 있는 형편이였다.

결국 도꾜에 가자면 밀항을 할수밖에 없었다. 마침 친구들에게서 회답이 왔다. 자기들이 직접 데리러 오겠다는것이였다.

한달쯤 후에 과연 한 친구가 서울로 왔다. 그는 내가 늘쌍 안경을 끼고 다니는 특징을 리용해서 다른 친구가 안경 끼고 찍은 사진을 붙인 도항증을 내가지고 왔다.

내가 도꾜상업학교 학생이라는 가짜 학생증까지 있었다. 병포와 여러가지로 의논하고 준비를 했다.

내가 도꾜에 가기로 한것은 우선 이미전부터 련계를 가지고 있던 풍산내기 고학생들로 일본땅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는것이였고 다음은 일제의 검거선풍에서 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서울콩그룹에 대한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되였던것이다.

나는 친구가 가지고 온 학생복을 입고 품속에는 미농지에 깨알같이 박아 쓴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간수했다.

집과의 련락은 병포에게 부탁하고 도꾜로 떠났다.

도꾜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슬아슬한 고비도 많이 넘겼다. 몹시 조마조마했는데 련락선에서는 정작 나는 아무 일 없었고 동행한 그 친구가 검문을 받았으며 시모노세끼에서 도꾜로 가는 기차에서도 역시 그 친구만 검문을 당했다. 왜경들에겐 가짜가 진짜보다 더 그럴듯했던 모양이다. 혼잡한 도꾜역에 내려서 정신이 빠져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나는 그만 순식간에 동행했던 친구와 마중 나온 친구들을 모두 잃어 버리고 말았다. 큰일났다 싶어 아무리 둘러 봐도 친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할수없이 품에서 주소가 적힌 편지봉투를 꺼내들고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전차를 타고 우에노역에서 내려 렬차를 갈아 타고 가메리아역에서 내려 겨우 친구들의 아빠트로 찾아 갔다.

초면의 집주인에게 사정얘기를 하니 방문을 따주어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한시간쯤이나 앉아 기다렸다. 그제서야 친구들이 들어 오는데 《촌놈이 혼났지?》하며 웃고 야단들이다.

알고보니 그들은 나를 혼자 역에 내버려 둔채 숨어서 내가 어쩌는지를 줄곧 지켜 보며 뒤따라 왔다는것이다.

내가 물어물어 집을 찾아 들어 가는것을 확인하고는 근처의 다방으로 몰려 가 일부러 시간을 보내다 왔다고 했다.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 덕분에 나는 도꾜거리에 금방 익숙해 졌다. 친구들은 그 아빠트에 6조방을 얻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 친구들이란 아마 박경섭, 리시호, 김영교였던것 같다. 나보다 8년아래인 김영교는 한두해사이에 얼마나 자랐는지 의젓한 어른으로 되여 있었다. 내가 거기에 끼여 드니 식구가 한명 더 불은셈이였다.

도꾜에서의 풍산사람들

그들이 도꾜에 와서 무은 조직은 《풍우도꾜고학생친목회》라는것이였는데 활동정형을 알아 보니 그저 공부를 하면서 때때로 모여 앉아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불평이나 하는것이 전부나 다름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공부나 하려고 조직을 무었는가, 아무리 일본에 와 있어도 자기 할바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고향에서는 동무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알고 있는가 하고 말해 주면서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10대강령을 꺼내 놓았다.

내가 말할 때는 머리를 숙이고 대답을 못 찾던 그들이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10대강령을 보더니 활기를 띠고 서로 먼저 보겠다고 야단이였다.

그날 밤 우리는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의논했다. 모두들 열성이 대단했다. 이 《조국광복회 슬로간》만 있으면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은 모두 하나로 될수 있다고 흥분되여 말했다. 그 밤에 친목회조직을 어떻게 조국광복회조직으로 확대해 나가겠는가 하는 륜곽이 그어 졌다. 그때부터 그들은 동지를 찾기 시작했고 《풍우도쿄고학생친목회》는 여러 조선고학생들속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것은 일본땅에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기 위한 진일보였다.

나는 도쿄공업고등학교에 적을 두었다. 내가 도쿄에 도착하였을 때 마침 그 학교입학시험이 한창이여서 응시했더니 떨어 질줄 알았는데 합격된것이였다. 도쿄공업고등학교 학생이라는 학생증을 얻게 되니 정체를 숨기기는 그저 그만이였다. 물론 학생증을 쥔후에는 학교에 더 가보지도 않았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정신을 파악했다 싶을 때 나는 동지들의 열렬한 찬동속에 친목회를 조국광복회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조직의 명칭은 그대로 《풍우도쿄고학생친목회》로 하기로 하였다.

조국광복회조직으로 개편된후 조직에서는 신쥬꾸구근방에서 고학하고 있는 학생그루빠와 련계를 가지고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을 하는 한편 우리 하숙생들의 동자질과 빨래 등을 맡아 해주던 리시호의 동생 리금단을 통해서는 녀학생들과도 련계를 가졌다.

나는 시간을 내여 센다이의 동북대학에서 의학부 연구생으로 있는 어린시절의 친구인 김시태를 찾아 갔다. 《적색독서회》, 《지게군조합》에서 함께 뛰여 다니던 친구였다. 그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받아 보고는 대단히 흥분되였다. 그 시절 장군님께서 친필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보고 흥분되지 않는 조선사람이란 없었다. 특별히 기억나는것은 김시태가 친구들에게서 들었다며 **김일성**장군님께서 파견하신 공작원이 일본땅에 들어 왔는데 하도 신비한 재간을 가지고 있어서 왜놈들도 어쩌지 못한다는 전설 같은 소문을 이야기하던것이다. 그때는 조선사람이 사는 곳이면 그 어데서나 장군님에 대한 전설을 들을수 있었다. 나는 김시태와 앞으로의 투쟁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고 도꾜로 돌아 왔다.

요즘 몇몇 자료를 보니 1940년 일본 제6고등학교에서 조국광복회 분회를 조직하였던 사실이 밝혀져 있었다. 그 조직의 활동목표에 대하여 일본 내무성 경무국 보안과에서 발행한 《특고월보》에는 《장차로 일본내의 혼란기에 일제히 봉기하여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는것…》이라고 썼다.

그러고 보면 그때 장군님께서 일본땅에 공작원을 파견하였는데 하도 《도술》에 능하여 왜놈들이 잡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데도 근거가 있었다. 그 시절에 조국광복의 빛발로 되여 일본에 파견된 사람이 어찌 한둘만이였으랴.

나는 나 역시 일을 해놓은것은 없지만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품고 일본에 갔던 일원이라는데에 긍지를 느낀다. 애석한것은 《풍우도꾜고학생친목회》가 조국광복회의 분회조직으로 크게 활동을 못해 보고 일제경찰에 검거된탓으로 친목회를 이루었

던 풍산청년들이 추방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 와야 했던것이다…

어데 가나 한고향사람이면 반갑고 만나고 싶어 지는것이 사람의 보편적인 성정인것 같다.

도꾜생활중 고향에서 독서회사건때 같이 붙들려 갔던 선배 한사람을 만난적이 있다. 그는 체포된후 고문에 못 이겨 다른 관련자들을 경찰에 넘겨 주고 그 대가로 자신은 처벌을 면하고 일제로부터 도항증까지 얻어 일본류학길에 오른 인물이였다. 그동안 그는 도꾜에서 중앙대학을 졸업하고 일본녀자와 살림을 하고 있었다. 무슨 마음에선지 나를 찾아 와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했으나 나는 물론 거절했다. 그뒤로 내가 일부러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소식은 별로 들은게 없는데 일면 궁금하기도 하다. 광복된 조국에 돌아 와 그는 과연 어떤 인생행로를 걸었을것인지… 나는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입에 담기도 싫었다.

…

《그게 ○○이란 사람이 아니우?》

원고를 정서해 주고 있던 안해의 묻는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굳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어떤 인생행로를 걸었든 그도 이제는 저세상사람이 되였을것인데 그 후대들에게까지 선대의 오점을 남겨 둘 필요가 있을가. 그런 식민지력사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는 다시 도꾜로 돌아 간다.

때마침 병포가 외삼촌에게 나의 행방에 대해 알려 주어 외삼촌에게서 편지와 함께 돈이 왔다. 그

돈으로 나는 친구들에게 도움도 줄수 있었고 경찰의 감시도 어지간히 경감할수 있었다.

경찰의 감시라는 면에서는 식민지백성에게 그 어느 곳도 자유의 땅은 아니였다. 도꾜에서도 조선사람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 경시청 내선과 형사들이 종종 우리 아빠트로 찾아 왔다.

나는 밀항한 형편이라 저녁이면 방에다 고급대화단이불(일부러 서울에 련락해 부쳐 오도록 한것이였다.)을 깔고 조선옷도 근사하게 맞춰 입고는 찾아온 형사들을 맞았다.

그들에게 내가 지위 높은 부호의 아들인듯이 보이게 해 그들이 나를 의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고향 풍산에서는 나를 맡았던 형사가 나의 행방을 놓쳤다고 감봉처분을 당하기도 했다는데 외삼촌이 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별탈없이 지나갈수 있었다.

그때 주병포로부터 급히 서울로 돌아 와 달라는 전달이 왔다.

나는 서둘러 친구들과 작별하고 도꾜를 떠났다.

경성콩그룹사건의 검거선풍속에서

1941년 설을 하루이틀 앞두고 서울에 도착한 나는 주병포에게 도꾜의 형편과 그곳에서 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는 그만하면 일이 잘된편이라면서 수고했다고 했다. 크게 한 일도 없이 칭찬을 받자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가책되였다. 병포는 곧 정

색하더니 《이제 일을 시작하면 또 불평을 하겠는가?》고 따져 물었다.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10대강령에 무엇이라고 했는가, 극소수 친일파를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할말이 없었다.

내가 꿀 먹은 벙어리꼴이자 병포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가?》고 다시 따져 물었다.

나는 그의 말을 솔직히 시인하고 협소했던 견해를 자기비판하면서 어떤 일을 시켜도 열심히 하겠노라고 맹세했다.

그제서야 얼굴이 좀 풀린 병포는 나에게 다시 일을 맡기겠다며 그대신 전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시켜도 그 일만 하고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말것을 잊지 말아.》하고 재삼 당부했다.

그 당시 서울에선 경성콩그룹사건이 터져 김동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였다.

경성콩그룹은 33년이래 계속된 서울일원의 혁명운동을 계승한 조직이라 할수 있다. 프로핀테른테제는 혁명적로동계급을 주력으로 하는 조선공산당을 재건할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30년대이후 계속된 혁명적로동조합운동은 당재건사업을 지향하고 있었다.

더우기 1938년경부터 백두산지구를 중심으로 한 **김일성**장군님의 항일무장투쟁에 고무되면서 서울콩그룹의 활동은 매우 격렬해 지고 있었다.

1939년 9월 첫 일요일에는 기관지 《공산주의자》 제1호가 발간되였으며(2호부터는 《콤뮤니스

트》) 같은 날에 비합법조직인 서울합동좌익로조가 결성되였다.

합동로조산하에는 서울시내 근 20개 중요공장들을 망라한 금속로조분회, 섬유로조분회, 출판로조분회 등이 조직되여 활동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서는 1939년 10월 태창직물주식회사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이였다.

주병포는 김동지와 함께 수리공으로 변장하기도 하며 태창직물주식회사에 들어 가 로동자들을 각성시키고 묶어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핵심들을 키워나갔다. 마침내 1,200명의 로동자들은 임금인상, 로동시간단축, 숙식조건개선 등 요구조건을 내걸고 5일간 파업을 벌려 승리를 거두었다.

이 파업투쟁을 나는 직접 목격하였기에 여기에 언급하는것이다. 파업투쟁이 승리한후에는 투쟁에서 검열된 녀성로동자들로써 공장로조분회를 조직하였다.

그중에는 김동지의 부인이 된 녀성도 있었다. 후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들의 결합은 태창직물주식회사의 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승리에로 이끄는 속에서 맺어 진 굳건한 사랑이였다.

그외에 유정염색공장 500여명 로동자들의 파업도 나는 목격할수 있었다. 그 나날에 파업투쟁의 배후인물이며 경성콩그룹의 지도적인물인 김동지도 만나보았었다.

그때로 말하면 **김일성**장군님의 친솔하에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산지구진출을 비롯한 국내작전으로 국내가 떠들썩하던 때였다. 《치안유지》와 《황민화》에 혈안이 되여 있던 일제는 경성콩그룹의 격

렬해 지는 투쟁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과의 그 어떤 련계를 직감했는지도 모른다.

일제는 신문들에 축소하고 왜소화하여 내던 장군님의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가혹한 보도관제까지 실시했다.

아마 《토벌의 왕자》라고 하던 마에다부대가 부대장이하 전몰한 홍기하전투에 대한 소식이 신문에서 읽었던 마지막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기사가 아니였던가 싶다.

그런만큼 경성콩그룹에 대한 왜놈들의 추적은 집요했고 드디여 태창직물회사에서 단서가 잡히여 경성콩그룹에 대한 일대 검거선풍이 휘몰아 쳤다.

검거선풍은 대체로 세차례에 걸쳐 휩쓸었다.

1차 검거선풍은 1940년 7~8월경부터 12월 말까지로 《서대문사건》이라고 불렀는데 병포가 나를 도꾜로 보낸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1차 검거때 파업투쟁의 배후인물이며 경성콩그룹의 지도적인물인 김동지가 체포되였다.

내가 서울로 돌아 온것은 1차 검거선풍이 휩쓸고 지나간 직후였다.

나는 체포령이 떨어 진 동지들을 숨겨 주고 서로간의 련락을 이어 주는 일을 맡게 되였다. 무척 바쁘고 초긴장을 요하는 일이였다. 그런데 그때 고향에서 어머니가 중병이라는 련락이 왔다.

어머니에게 다른 자식이나 며느리가 있는것도 아니고 온 식구가 달려 들어 화전감자농사짓기에 급급한 집안형편에 앓아 누운 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펴줄 사람이 달리 있을리 만무하였다.

어머니가 물 한그릇 제대로 받아 자시고 있을가 생각하니 마음은 점점 급해 지는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 간다면 무사히 어머니곁에 있을수 있을지 확신할수도 없는 형편이였다. 이도저도 못하고 고민하는 때에 도꾜에 있던 친구들이 《친목회》건으로 검거되였다가 추방령을 받고 고향으로 가던 길에 들렸다. 내 사정을 들은 리시호가 나를 대신하여 자기가 어머니를 돌볼테니 걱정 말라고 나섰다. 우리 집에 가서 내 형편애기를 하고 어머니를 간호하면 아들이 온것처럼 여기실테니 병도 금방 나으실것 아니냐는 애기였다.

끝내 그가 내대신 집으로 가게 되였다. 어머니의 병은 장질부사(장티브스)였는데 리시호의 극진한 간호로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으나 이번에는 간호하던 그가 전염되여 앓아 눕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너무나 송구한 마음으로 그가 쾌차하기를 빌었는데 그만 리시호는 어머니가 덮던 이불을 쓰고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결국 내가 그를 죽인거나 마찬가지였다. 《시호, 네몫까지 내 일하마.》 이 말밖에 더 할말이 없었다.

리시호는 당시 일제를 반대하고 동지들간의 생사를 초월하는 우정을 몸소 보여 주었다고 할수 있다. 그때 우리들은 힘든 일은 자기가 하고 손 쉬운 일은 동지에게 맡기는것을 당연시했다. 허나 그것이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니였다. 그의 죽음앞에서 했던 다짐을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것 같다…

서울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적을수는 없고, 동지들을 피신시키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만은 미리 이야기하고 넘어 가야 하겠다.

어느 하루 창경원앞을 지나다가 풍산에서 서울에 시집와 살고 있는 녀자를 만난적이 있었다. 그는 어려 보이는 한 처녀와 같이 있었다. 역시 풍산처녀로 서울에 의전을 다녀 볼가 해서 왔다는데 내 보기에는 의학보다 예능에 더 소질이 있을것 같아 보였다. 그런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처녀는 같은 고향사람이라는데서부터였는지 서울에 있을 생각이 없고 삼촌이 있는 원산에 가서 루씨녀고를 다닐 생각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했다.

정말로 그는 몇년후 내가 원산에 들렸을 때 그곳에서 루씨녀고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완연한 처녀로 되여 있었다. 내친김에 한마디 더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를 세번째로 만난것은 광복후 풍산에서였고 그가 바로 나의 안해로 된 김순임이였다.

43년간 남편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를 키우느라고 머리가 반백이 된 안해를 지금 옆에 앉혀 놓고도 그 시절의 애리애리하던 소녀의 인상이 자꾸만 밟혀 와 가슴을 아릿하게 한다…

이야기를 다시 서울로 돌려 가자.

피신시켜야 할 동지들은 적지 않았다. 그때 우선 급하게 숨겨 주어야 할 사람은 조재옥동지였는데 그가 바로 내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병포가 나에게 련결시켰으나 내가 친일파로 오해하던 그 사람이였다. 나는 그에게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했다. 그는 노여워 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이 잘 싸워 나가자고 나의 손을 굳게 잡아 주었다. 이렇게 리해가 되니 일심동체가 된것이나 다름 없었다.

조동지를 안전하게 피신시키려니 돈이 몹시 필요했다. 급히 풍산으로 밀행을 하여 외삼촌을 만나 현금 9,000원을 얻었다. 그리고 신재국동지를 찾아 갔는데 그는 그때 방공감시대 대장을 하고 있었다.

경찰에서 억지로 맡겨 시작했는데 일하는 과정에 그는 방공감시대를 자기네 조직원으로 꾸려 놓았다. 풍산군 방공감시대는 일제기관의 옷을 입었을뿐 무장한 반일조직이나 같았다. 그 무장대가 조국이 광복되였을 때 풍산군의 모든 일제친일기관을 무장해제하고 숙청하는데서 우리의 《주먹》으로 되였던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방공감시대 대장이라는것으로 하여 신재국동지는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 오해를 받고 있었다. 그로 하여 광복후에 《9.20폭동》을 겪어야 했으니 그것은 퍽 후의 이야기이다.

신재국동지는 서울소식과 돈이 필요하다는 나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구했는지 돈 1만원을 선뜻 마련해서 주었다. 나는 이 돈과 외삼촌이 준 돈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 와 조동지를 숨기는 비용으로 쓰면서 계속 련락을 맡아 했다.

련락은 주로 경성제대 의학부를 나오고 그 학교 약리학 조교로 있는 김영준동지에게 했고 더러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다. 후일에야 안 일인데 조재옥동지와 김영준동지는 조직의 학생책임자일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그무렵 나와 병포는 충신동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12시가 넘었는데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 서는것이였다. 놀라서 보니 병포와 같은 조직원인 조희연동지였다. 그는 서울 법전을 졸업한

인테리로 문학이 전공인데 《조선의 고리끼》로 될 것이라는 예평을 들을 정도였다. 경성콩그룹에서 조직원교양을 담당했는데 그날 낮 형사들이 그의 집에 들이닥쳤던 모양이였다. 그런데 조동지의 집이 너무 초라하고 당사자도 왜소한 체구인데다 아주 꾀죄죄한 행색이라 형사들이 그가 조희연인가 아닌가 하는 순간 신발도 꿰지 않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쳐 왔다는것이다.

이렇게 찾아 오는것은 지하사업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경찰의 손에서 간신히 빠져 나온 동지를 안전하게 숨겨 주는게 더 시급한 문제였다. 우선 하숙집에 누가 찾아 온 눈치를 모르게 하면서 그의 허기를 채워 주기 위해 전당포에 옷을 맡겨 돈을 만들었고 먹을것을 사들여 조동지를 2～3일간 하숙방에서 지내게 했다.

그즈음 조재옥동지가 다른 한 동지를 비밀리에 만날 일이 생겼다. 그래서 조재옥동지를 종로5가 조흥은행옆의 변소로 데려 가 기다리게 하고 나는 은행으로 오기로 한 다른 동지를 데리러 은행안으로 들어 갔다. 약속시간이 많이 넘었는데도 그 동지가 나타나질 않아 변소에 가보니 조동지도 없는게 아닌가. 아차, 체포되였구나 하고 급히 하숙방으로 돌아 와 조희연동지를 딴 곳으로 옮기게 했다. 그뒤로 조희연동지를 보지 못했는데 49년 평양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때 조동지는 중앙당 선전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때의 반가움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하랴. 하지만 그후 50년 전쟁의 와중에 서울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조동지와는 그때가 마지막상봉이였던셈이다.

조재옥동지는 종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였는데 그의 부친이 많은 돈을 내고 석방시켰으나 그때 얻은 병으로 광복의 날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 큰 자본가였던 그의 부친은 아들의 투쟁공로로 하여 광복후에도 친일파나 자본가로 규탄 받지 않고 인민정권하에서 편안히 여생을 마쳤다고 한다…

그때 병포에게도 체포령이 내렸다. 일명 《종로경찰서사건》이라고 부르는 제2차 검거선풍이 몰아 치기 시작했던것이다.

얼마후 그는 종로경찰서의 경찰들에게 잡혔고 서대문형무소로 넘어 가 감금되였다.

세번째 검거선풍은 1941년 말경이였다고 하는데 잘 알수 없다. 나는 두번째 검거선풍이 일었을 때 급히 서울을 떠나 풍산으로 내려 왔던것이다. 그때가 1941년 6월이였다.

어머니의 마음

나는 풍산으로 내려 와 동지들에게 병포의 체포소식을 알렸고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병이 나았다고는 하나 아직 겨우 자리보전이나 하는 형편이였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는 늦도록 등잔불을 밝히고 바느질을 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세차게 들려 왔다. 그 소리에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던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였다.

《좀 있으문 겨울인데 감옥이란기 춥겠지비. 병포가 감옥안에서 무릎을 떨며 앉아 있겠구나.》

어머니의 눈에는 맑은것이 어려 있었다. 늘쌍 《병포는 내 아들》이라고 하던 어머니였다. 앉으면 무릎을 떠는 병포의 버릇이 어머니의 눈앞에 밟혀 오는 모양이였다. 때로는 어머니가 보다못해 툭 치며 《무르팍은 어째 이리 떠니? 궁상스레.》하면 《예? 예—》하고 싱긋 웃으며 무릎을 세웠다가 잠시후면 다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무릎을 흔들기 시작하군 했다. 그런 버릇이 녀인들의 가슴에는 별로 아프게 새겨 지는 모양이다.

내가 이곳 평양에 와서 김동지의 부인을 만났을 때도 주병포의 말이 나오자 그는 그 버릇부터 회상하였다.

《내가 보다못해 툭 치며 〈또 그 버릇…〉하고 눈을 흘기면 〈아차, 또 욕 먹을짓 했군.〉하고는 조용히 있다가 얼마 지나면 또 흔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웃고 만적도 한두번이 아니예요.》

…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앓음소리를 하면서도 그냥 바느질을 했다. 나는 내 옷을 짓는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며칠후 어머니는 다 지은 명주바지 저고리를 내놓으며 《병포한테 갖다 줘라. 날씨가 추워 지면 어찌겠니?》하는것이 아닌가. 그것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아버지의 명주바지 저고리를 고쳐 지은것이였다.

나는 이 일을 남쪽땅에서 34년간 옥살이를 할 때 종종 생각하군 했다. 이 아들이 얼음장 같은 감방에서 옷도 못 입고 떨며 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씌우고 얼구는 고문속에 있다는것을 알면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하실가. 34년간을 무덤 같은 감방에서 떨며

굶으며 몸이 부서지며 살고 있었음을 알았더라면 어머니의 심장은 견디지 못했을것이다. 어머니는 종시 이 아들이 어떤 고통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가시였다. 허나 나의 고통이 아무리 컸다고 하여도 이 아들을 기다리며 림종때까지도 《우리 인모는 돌아 온다.》고 되뇌이였다는 어머니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것이다.

아, 어머니의 그 고통에 내 무엇으로 보답할수 있을가…

나는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옷을 가지고 김덕룡과 함께 서울로 갔다. 그때 마침 병포의 형 주병두도 함흥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을 마치고 나왔기에 동행했다. 주병두는 병포의 활동자금을 대주느라고 비밀리에 아편농사를 했기때문에 잡혀 들어 갔었다. 다행히 왜놈들은 주병두가 조국광복회 회원이라는 사실은 전혀 낌새를 채지 못했던것이다.

서울에 올라 갔으나 주병두는 갓 출옥한 몸이여서 마음대로 나다닐수 없었고 나는 더욱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여서 서대문감옥으로는 결국 김덕룡이 혼자 갔다. 김덕룡은 병포를 만나보고 옷을 전달하고 돌아 왔는데 고문과 옥고로 병포의 정상이 말이 아니라는것이였다.

우리는 급히 풍산으로 내려 가 병포의 석방운동을 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에서 변호사를 구하는 한편 병포의 형 주병두와 동지들은 보석금을 마련하려고 동분서주했다. 마땅한 변호사를 얻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런데 결국은 변호사가 아니라 돈이 힘을 냈다. 병포의 형 주병두와 동지들이 마련한 돈을 보석금으로 검사에게 주고 병포를

병보석으로 가석방시키는데 성공했다. 그것이 1943년 12월이였다.

병포는 2년 6개월을 감옥에서 시달린것이였다. 그는 나의 어머니가 지었던 바지저고리를 입고 감옥에서 나왔다. 나와 김덕룡은 양복을 가지고 북청에 나가 병포를 마중해 같이 풍산으로 올라 왔다. 병포는 문조리의 자기 집으로 갔다.

그때였던지, 그전이였던지 김영준동지가 당장 갈곳이 없어 김경문과 함께 서울을 떠나 풍산으로 왔었다. 소년투쟁할 때의 친구인 김경문은 북청에 떨어 지고 김영준동지는 우리 집으로 와서 얼마간 지냈다.

김영준동지는 우리 집에 한주일정도 있었는데 기척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집안사정을 대강 짐작한 모양이였다. 그때도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김동지는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까마귀를 잡아 드리라.》고 했다. 삼촌들은 경성제대를 나온 의사선생의 말이니 그게 특효약인가보다 해서 까마귀만 보이면 잡아다 어머니에게 드시게 했다. 과연 까마귀고기가 신통한 약이였던지 어머니는 원기를 회복하고 썩 건강해 지셨다. 하도 신기해 나중에 김동지에게 그 말을 했더니 그는 껄껄 웃었다.

《까마귀가 무슨 신통한 약이겠나. 까마귀나 소고기나 영양실조환자에겐 다 좋은 음식이 아니겠는가. 자네 집이 가난하고 식구도 많으니 맏며느리된 도리로 어쩌다 맛난것이 생겨도 식구들부터 먹이고 항상 배를 곯으시는데다 세간살이며 농사일 등 고된 일을 도맡아 하시니 병약해 지실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자네가 산해진미를 해드린다고 해도 어디 어머니마음에 드실수가 있겠나. 다행히 까마귀는 사람

들이 불길하다고 모두 싫어 해 아무도 먹을 생각 안하는데다 마침 자네 집주변에 많이 있기에 어머님영양식으로 권해 드린것뿐일세.》

그 말을 듣고 나는 김동지의 현명한 처방에 탄복을 했다. 조국을 되찾으면 민족을 구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거니 했는데 그는 그만 전쟁때 희생되고 말았다.

김동지덕분에 건강해 지신 어머니는 내가 십여년만에 자기곁에 와 있는게 무던히도 좋으신 모양이였다. 그래도 좋은걸 말로 표현하는 분은 아니였다. 외할머니가 젊은 시절 《과부가 말 많으면 안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교육을 해놓아 어머니는 늘 무뚝뚝하다는 평을 듣는 편이였다. 그러나 말씀은 안하셔도 아들생각을 끔찍이 하는 어머니는 이 아들이 일제경찰에게 쫓겨 다니는것이 늘 걱정이시였다.

어머니로서는 아들의 생각을 모두다 리해하시기는 힘드셨을게 당연하다. 자신이 좀더 부지런히 일해 집도 번듯하게 고치고 살림살이도 좀 풍족해 지면 내가 집에 붙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셨던듯 하다. 어머니는 살림하면서 감자 한쪽도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늘 나에게 주셨고 고된 생활중에서도 집을 새로 짓느라고 흙짐을 져나르셨다.

그러나 이 무심한 아들은 여전히 밥만 먹으면 나돌아 다니기에 바빴다.

리별과 상봉

주병포는 능귀면 문조리집에서 고등계형사들의 감시속에 병치료를 하였다. 항상 이렇게저렇게 깔짝거

려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것은 왜놈들의 잡스러운 본성인것 같다.

왜놈형사들은 병포가 하루도 마음 놓고 병치료를 할수 없게 수시로 찾아 오거나 불러 내거나 했다. 그것이 시끄러워 병포는 집에서 뚝 떨어 진 샘수천에 돌막을 지어 놓고 들어 배겼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주 만났다. 감옥생활도 그의 습관을 고쳐 주지는 못했다. 앉으면 무릎을 흔드는 버릇이나 두팔을 쩍 벌리고 두주먹을 불끈 쥐고 자는 버릇도 여전했다.

《자면서도 왜놈과 싸우는것 같다.》하고 나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한적도 있었다. 정열적인 성격도 여전했다. 오히려 더 정열적인것 같았다. 우리는 시간 가는줄 모르고 정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그는 장군님의 조국광복작전이 마감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조국광복의 날도 멀지 않았다고 희망에 넘쳐 있었다.

우리는 그의 몸만 건강해 지면 백두산으로 가 장군님의 조국광복작전에 참가하자고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다. 1944년 7월 그는 서울고등법원의 호출로 풍산경찰서 순사 2명의 호송하에 공판 받으러 가게 되였던것이다. 나는 그가 떠나는것을 보지 못했다.

다른 동지들과 만나고 돌아 오니 돌막은 텅텅 비여 있었고 집에서는 그의 식구들이 맥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우리 병포는 또 잡혀 갔다.》하며 우시던 그의 어머니는 병포가 떠나면서 놈들이 또 감옥에 넣을텐

데 기어이 도망치겠다고 하며 왜놈들이 망하면 돌아 오겠으니 보고 싶은 생각이 나거든 보라고 사진을 두고 갔다고 말했다.

그것이 병포와 나의 마지막리별이였다.

병포는 그때 서울에 이르러 탈출하는데 성공하여 지하로 들어 갔다고 한다. 그후에 병포에게서는 가명으로 쓴 편지를 한두차례 받았을뿐이다.

그때로부터 1년후 일제는 망해 버렸다.

그러나 그와 나와의 상봉은 영원히 이루어 지지 못했다.

마지막 1년

8.15광복까지의 마지막 1년에 대해서는 회상하기도 숨 가쁜 생각이 든다. 병포는 지하로 들어 갔고 적지 않은 동지들은 피신했으며 김영교를 비롯한 일부 동지들은 《징집》을 피하여 흥남으로 나갔다. 당시 흥남지구의 노구찌재벌산하의 공장들은 군수생산과 관련된다 하여 《징집》에서 면제되여 있었다. 《징용》을 피하려는것이기는 했으나 흥남에 나가 조국광복작전에 호응할 조직을 꾸릴 의도도 가지고 나갔던것은 물론이다.

그 세월 《공출》의 가혹성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 진것이니 이야기를 그만 두겠다. 신문출판물들에는 패전을 승전으로 전하는 《대동아전쟁》의 기사뿐이였고 조선글로 된 출판물은 모두 없어 져 버렸다. 조선글, 조선말, 조선사람의 이름까지 없애 버리던 때였다.

그때 외삼촌은 걱정스러운 기색으로 직업이 없으면 무조건 《징용》에 걸리는데 아무 일이든 해야겠다며 다시 동지들과 함께 양복점을 해보라고 했다. 전에도 해본 일이여서 별로 어렵지 않게 김덕룡, 리석기와 함께 양복점을 다시 시작했다.

양복점이라는것이 동지들과 련계를 가지는데는 그저그만이였다.

신재국동지도 방공감시대장의 정복차림으로 위엄있게 드나들었고 박흥윤, 리창황 등 동지들도 하루가 멀다하게 찾아 왔다. 찾아 오는 사람수로 말하면 벌이가 굉장할 양복점이였으나 사실은 그와 반대였다.

흥남에 나간 김영교는 뿌르르 달려 올라 와 하루이틀씩 묵어 가며 흥남소식, 서울소식을 전하군 했다. 그때 그가 입고 다니는 옷이 하도 한심하기에 동지들과 의논을 하고 괜찮아 보이는 천으로 그의 양복을 하나 지어 놓았다. 그러나 영교는 이 양복을 광복이 되고도 1년이 지난 1946년 8월에야 입을수 있었다. 격변하는 사태발전으로 하여 양복 같은 것은 누구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것이다.

김영교의 양복이야기를 하느라니 병포에게서 받았던 편지가 떠오른다. 그 양복을 지은 다음날인가 서울에 갔던 병포의 형 주병두가 《철이》라는 가명으로 된 병포의 편지를 가져 왔다. 왜놈들의 최후가 가까와 왔다는 정세보고와 함께 개마고원일대에서 유격활동을 조직하자는것이였다.

그때 내가 맡은 서부지구에서는 이미 조직된 조국광복회조직외에 새로 무은 조직으로는 1943년 3월에 무은 《안산반일청년단》과 1943년 여름 김덕룡

을 보내여 조직한 《풍우북청대용섬유(구라다)친목회》가 있었다. 조직들은 장군님의 조국광복로선을 대중속에 해설선전하면서 장군님의 국내진공작전에 합세하기 위한 준비로 창, 칼 등을 만들고 군사훈련도 드문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력량은 준비되여 있는것이나 같았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사실 유격활동경험은 전혀 없었기때문에 병포에게서 온다는 사람들이 모종의 준비속에 올것이라고 예견하고 긴장섞인 기대속에 기다렸다.

그런데 첫 접촉에서 암호가 서로 맞지 않았다. 나는 《무슨 사고가 났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바로 피신했는데 과연 이 만남이 일제경찰의 정보망에 로출되였던지 그중 한동지가 체포되고 다른 사람들도 피신하여 유격활동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나는 이 계획이 무산된게 두고두고 안타까왔다. 남에서 징역을 사는 동안 경기도 포천군 백운계곡에서도 《김종백부대》라는 유격부대가 활동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일제의 《징병》, 《징용》소동이 극에 달하고 있던 때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백운동, 요즘 남쪽의 유한계층들이 물놀이하러 잘 가는 백운계곡에 《징병》, 《징용》을 거부한 80여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전시체제로 돌입해 최후발악을 하고 있는 일제의 후방을 교란하는 유격활동을 펼치기 위해 부대를 조직했다. 책임자는 로동자출신의 김종백이였는데 이들은 철저한 소부대 편제로 나누어 낮에는 이들이 《공장》이라고 불렀던 아지트에 숨어 군사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지도아래 99식, 38식 총의 사용법을 배우고 다이나마이트로 폭탄을 만들었으며

밤에는 유격활동을 나가 순사, 형사들을 때려 눕히고 무장을 확보하였다.

어느 정도 무장이 확보된후 김종백부대는 중앙선 일부 구간을 완전히 탈선시켜 버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나는 그때 전국적범위에서 **김일성**장군님의 전민항쟁방침에 따라 그 준비가 얼마나 거창하게 벌어 졌는가를 알게 되였다. 조선에서만이 아니라 일본에 갔던 조선인학생들이 《김장군님의 부대가 본격적인 공세를 취할 때 호응하여 일어 서자!》는 구호밑에 항쟁태세를 갖추었고 니이가다에서는 《징용》에 끌려 갔던 조선인로동자들이 한꺼번에 수십명이 일제와 싸우기 위해 집단탈주한 사실도 있었다.

일본땅에서도 그러했으니 조선땅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북청에서만도 장군님의 조국광복작전이 시작되자 덕성, 장흥, 삼기의 왜놈주재소들을 습격하고 무장해제시킨 사실이 있었다.

나는 주로 피신해 있어야 했고 또 오래동안 남쪽에서 감옥생활을 하다보니 넓은 범위를 볼수 없었다.

여기서는 병포에게서 받은 마지막편지에 대한 이야기만 마저 하려고 한다.

45년 5월경에 지하에 들어 간 서울의 병포에게서 돈 2만원을 급히 보내라는 련락이 왔다. 당시 쌀 한 말에 2원 70전 할 때이니 2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또 렴치를 불구하고 외삼촌에게 부탁하니 현금은 7,000원밖에 없다 하여 급히 북청으로 가 김경문을 찾았다. 아버지가 큰 지주

로 마을유지였기때문에 경문은 그 덕분에 서울에서 내려 와 북청아마공장 회계로 취직해 있었다.

그는 그 공장에 조직되여 있는 《풍우북청대용섬유(구라다)친목회》 성원이였다. 내가 찾아 갔을 때 그는 마침 아마공동판매장에 지불할 공장 돈 2만원을 가지고 나가는 길이였다. 내가 돈 급한 사연을 얘기하자 경문은 서슴없이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서울로 가 병포를 만나겠다는것이였다. 너무나 고마와 뭐라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그때가 45년 6월, 일제가 최후를 앞두고 발악적인 탄압을 하던 시기였다.

그런 정황속에서 두말없이 용단을 내린 김경문의 희생적인 애국심에 무어라 치하의 말을 해야 할지 알수가 없었다.

김동지가 떠난후 나도 일단 산속으로 피하였다. 그가 행방불명이 되면 형사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게 뻔했다. 산속 바위틈에 마른 풀을 깔고 감자와 소금으로 연명하며 올빼미생활을 2개월쯤 했을 때 동지들이 달려 올라 왔다.

조국이 광복되였던것이다.

광복, 새 조국건설

1945년 8월 15일, 이날의 감격과 열광에 대해서는 겪어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수 없을것이다.

숨어 있던 《올빼미굴》에서 뛰쳐 나와 개마고원의 높고 낮은 산발을 달리며 쏟았던 눈물과 환희, 그것은 2개월이 아니라 태여나 거의 30년 살아 온 일제식민지라는 감옥에서의 해방이였다. 집으로 내려 오니 김덕룡과 리경모가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기뻐 붙어 잡고 야단이였다.

광복의 기쁨은 모든 사람들을 휩쓸어 진정할수 없게 했다. 공연히 웃고 떠들고 찾아 다니고 했다. 우리 동지들도 서로 찾아 가고 찾아 오며 기쁨을 나누었다.

흥남에서 달려 올라 온 김영교는 우리 집에서 자면서 나의 어머니를 못 살게 굴었다.

《광복이 됐는데 춤을 추오다.》

어머니는 이제는 마음 편히 아들과 함께 살게 된것을 제일 기뻐 했다. 왜놈들이 망했으니 아들이 숨어 다니거나 어데로 도망치지 않아도 되였고 붙잡혀 갈 걱정도 없어 진것이였다. 이렇게 어머니는 광복이라는 거창한 사변도 아들의 신변에서 일어 난 변화로 받아 들이였다.

그러나 이 아들은 그냥 집에 붙어 지낼수 없었다. 새로운 투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민의 힘

풍산읍을 비롯한 여러 면들에서는 일이 잘되여 가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벌써 우리 동지들, 조국광복회 회원들이 제때에 모든 기관을 손에 틀어 쥐였다. 일제하에서 지하에 있던 조국광복회조직을 비롯한 여러 반일조직들이 광복과 함께 정권기관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할수 있었다. 례를 들면 풍산읍에서 신재국동지는 자기가 꾸려 놓은 방공감시대의 지하조직으로 일제기관들을 점령해 버렸고 무장자위대를 무었다.

그러나 우리 면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나를 비롯한 동지들이 피신해 있다가 미처 돌아 오지 못한 공백상태를 리용하여 일제하에서 힘깨나 쓰던 부자와 건달패들이 일제앞잡이노릇하던 자들과 함께 모든것을 틀어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도쿄제대를 나온 마을유지의 아들이 일제앞잡이들을 지휘해 무장까지 하고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차지하고서 치안을 유지한다며 야단법석이였다. 권력에 붙어 살던 자들이여선지 권력을 차지하는데서는 매우 빨랐다.

항일운동을 했다는 우리들은 일제통치하에서 늘 쫓겨 다니며 천대 받는 처지였고, 특히 빈농출신들은 공부도 제대로 못해 군중들앞에서 말도 잘 못했으니 그들의 생각에는 광복되였다 해도 저런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했을것이 틀림 없었다.

우리들은 이런 환경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토의하였다. 그자들을 몰아 내야 한다는데는 모두 동의했는데 몰아 내는 방법이 문제였다. 어떤 동지들은 왜놈과도 싸웠는데 그까짓놈들이 무언가, 때려 부시자고도 했으나 얼마후에는 그자들을 우리 몇몇이서 몰아 낼것이 아니라 군중의 힘으로 몰아 내야 한다는데로 의견이 합치되였다. 그러자 그자들을 지지하는 소시민들도 있는데 그게 잘되겠느냐는 의견이 또 나왔다.

하지만 군중들에게 그자들의 정체를 잘 알게 하면 될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자 모두들 그 안대로 하자고 합의를 보았다. 즉 한달후쯤 면민대회를 열기로 하고 그동안 각 농촌에 지역별로 책임자를 파견해 농민들을 조직하는 한편 지금 앞에 나서서 설치는 자들이 일제때 저지른 죄과를 낱낱이 아는 사람들을 따로 선정해 면민대회에서 그들의 모든 죄상을 폭로한다는 계획이였다. 모두들 나서서 급히 조직사업을 전개하여 한달후쯤에 그 조직으로 면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일제와 지주, 앞잡이들은 제멋대로 날치며 기세가 등등했는데 우리들에게 자기들밑에 와서 일하라고 제의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앞잡이놈들을 무분별하게 포옹하면서 손을 잡는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였다.

우리는 예정대로 농민조직이 완료된 시점에서 면민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대회가 열리자 평소에는 그토록 순박하고 말이 없던 농민들이 연단에 나와 지주들과 친일앞잡이들의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는게 아닌가. 회의분위기는 시시각각으로 고조되여 기세등등해서 날치던 지주와 일제앞잡이들은 낯을 들지 못했다. 이어서 선거로 면의 일군들을 뽑자는 안이 통과되였다. 곧 선거가 진행되였는데 우리 면의 나이 많고 량심적인 인사가 지주와 친일앞잡이들을 물리치고 면인민위원장으로 선출되였다.

면민대회는 우리의 승리로 결속되였다.

그 승리로 나와 나의 동지들이 무엇을 얻었는가를 물을수 있는데 우리가 얻은것은 그 어떤 자리가 아니라 친일파와 그 앞잡이들을 얼마든지 이겨 낼수 있다는 자신심이였다.

이때에 얻은 자신심이 그후의 《9.20폭동》때에도, 민주개혁때에도, 첫 민주선거때에도 힘을 주었다. 또한 이 면민대회를 통해 우리는 대중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날카롭고 그 힘은 크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할수 있었다.

안수면에서의 면민대회 승리로 풍산군의 모든 기관들은 정리되였다고 할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진행된것은 아니다. 안수면 면민대회 승리후 얼마 지나 풍산군 반동들의 일대 공세가 있었던것이다.

풍산 《9.20폭동》과 나의 동지들

9월 20일 풍산군에서 일하고 있던 신재국동지가 갑자기 한밤중에 면으로 달려 왔는데 무척 당황한

기색이였다. 원래 장대한 체격에 담대한 성격이여서 일제통치하 지하공작때에도 어지간한 일에는 끄떡하지 않던 그였는데 이때는 이만 저만 당황해 있지 않았다.

신동지의 말이 그날 풍산읍에서 친일앞잡이들이 갑자기 무력으로 보안서로 밀고 들어 와 무기고를 점령하는 바람에 동지들과 함께 물러 나 쫓기다싶이 나를 찾아 왔다는것이였다. 총도 못 쏴보고 밀려 나다니 리해되지 않는 일이였다. 그러나 듣고보니 맞서지 못할만 한 리유가 있었다.

그자들이 내세운 《명분》인즉 신재국이는 일제하에서 방공감시대장을 하면서 경찰서를 드나든 자이니 쫓아 내야 한다는것이였기때문이였다.

실지 내막은 어떻든 현상적으로는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였다. 그렇게 담대하던 신재국동지도 《친일파》의 모자를 씌워 놓으니 일석에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것으로도 8.15직후의 민심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사태는 매우 엄중했다. 속히 수습하지 않으면 일이 어떻게 번져 갈지 몰랐다. 우리는 그날 밤으로 차를 몰아 북청으로 갔다. 북청에서는 사태의 설명을 듣고 급히 30여명의 자위대원을 준비시켰다. 막 떠나려 할 때 신재국동지가 북청에 떨어 지겠다고 했다. 새 조국건설과정에서 불의와는 티끌만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도 자기가 풍산에서 당분간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리고 자기의 집은 몰수하여 다른데 리용하라고 했다.

리해 불리해를 론할 여유도 없고 하여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30여명의 북청자위대원들을 차에 태우고 서둘러 떠났다. 풍산읍에 날샐 무렵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련락을 받은 면의 여러 청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피 흘릴것을 각오하였다. 일제히 보안서로 돌격해 들어 가니 그자들은 대항도 못하고 손을 들었다.

우리는 사건의 내막을 조사해 보았다. 일은 풍산경찰서 순사부장을 하던 오쓰가가 화근으로 된것이였다. 8.15직후 린근에 몸을 피해 있다가 도망치는것을 함흥으로 빠지는 길목에서 잡아 왔는데 오쓰가가 붙들렸다는 소문이 나버렸다. 그러자 오쓰가의 앞잡이노릇을 하던 자들이 그놈의 입에서 자기들의 행적이 다 나올것이라 생각해 전전긍긍하다가 작당을 해서 무기고를 점령하는 《9.20폭동》을 일으킨것이였다. 이것을 폭동이라는 어마어마한 말로 부르는것은 지나친 과장이겠지만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는 의미에서는 《폭동》이라고 부를만 한 사건이였다.

그자들을 전부 잡아 가두고 차후 처리방향을 토론하였다. 우선 신재국동지의 문제를 그의 의견대로 처리하는것이 옳다는데 다른 의견이 없었다.

우리가 일을 끝내고 보안서에서 나오니 군중들이 하얗게 모여 들어 우리들의 결단성 있는 행동을 찬양했다.

남은 문제는 가둬 놓은 폭동참가자들의 처리였다. 동지들은 이 일을 내게 맡기려 하였다. 나는 그

들을 석방하든지 처벌하든지간에 내게 일임한다는 조건으로 이 과제를 맡았다.

그날 밤 나는 갇힌 자들을 모두 불러 내 순사부장 오쓰가가 진술한 그들의 과거 잘못들을 낱낱이 밝히고 따져 물었다.

《과거의 잘못을 시인합니까?》

명백한 증거앞에서 모두들 변명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민족적인 량심으로 과오를 뉘우친다면 새 조국건설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소.》

이 말을 듣자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풀어 주었다.

그후에도 《반동》이라고 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일은 결코 없다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수 있다. 우리 동지들은 설사 죄 지은 자라 할지라도 덮어 놓고 그들을 백안시할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포용하면 그들도 뉘우치고 옳은 길에 들어 서게 된다는 사실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 배웠던것이다. 또한 열세살 소년시절 목격했던 백두산항일무장부대의 아량도 여전히 인상 깊은 교훈이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조선인순사를 살려 주고 악질순사부장의 안해일망정 비전투원은 쏘지 않았던 유격대의 포용심말이다.

나와 나의 동지들은 그렇게 일했다.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일신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했고 뒤로 미루었다.

신재국동지만 해도 자기의 청백함이나 투쟁업적을 증명하는것보다 사업을 바로 잡는것을 더 급하게 여겼다. 스스로 자기의 집을 내놓았고 사업장소를 옮기는것으로 우리의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여 나가게 했다. 이것은 우리가 일제와의 지하투쟁때부터 지켜 온 하나의 원칙과도 같았다.

이렇게 일함으로써 우리는 군중의 믿음을 받을수 있었고 그 믿음속에서 일을 해나갈수 있었다.

신재국동지는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사연을 알게 된 군중의 존경속에서 풍산군에 돌아 와 사업하게 되였고 10월 8일에는 우리 풍산군 첫 당세포의 당원으로 되였다.

환희의 나날

1945년 10월 8일 나는 김덕룡, 신재국, 김경문, 박흥윤, 김영교동지들과 모여 앉아 공산당에 입당하고 풍산군의 첫 공산당세포를 조직하였다.

우리는 입당보증을 김덕룡동지는 나를, 나는 김영교를 그리고 영교는 또 누구를 하는 륜환식으로 서야 했다.

모임장소는 소박하고 류다른 격식은 없었지만 우리모두의 가슴은 크나큰 흥분과 격정에 넘쳐 있었다. 우리들은 광복된 고향땅의 첫 당원들로서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어 전 조선적인 부강한 민주주의완전자주독립국가의 건설과 절대다수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한목숨 다 바쳐 투쟁할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그때의 맹세가 가장 어려웠던 생의 순간마다 되살아 나며 나자신을 지켜 보았다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수 있다. 그

맹세가 머리속에서, 심장속에서 사라지지 않는한 나는 언제나 로동당원이였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나의 입당보증은 김덕룡이 섰다.

판문점을 넘어 43년만에 북쪽땅에 들어 와 내가 맨 처음으로 찾은 사람은 바로 그였다. 그런데 나의 죽마고우였고 혁명동지였던 김덕룡동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는 소년시절부터 나의 동지였고 벗이였다. 《적색독서회》때부터 《지게군조합》, 류치장생활, 조국광복회 회원으로 투쟁하던 나날 그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다. 사람들은 리인모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김덕룡이 있다고 했고 리인모를 찾으려면 김덕룡을 찾으라고까지 하며 그를 나의 《그림자》라고도 했다. 그는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해 냈고 아무리 멀고 위험한 곳이라도 말만 떨어 지면 주저없이 떠나군 했다. 장백으로, 북청으로, 함흥으로, 서울로 그가 가지 않은 곳이 어데랴. 걸음이 빠르고 하도 믿음성이 있어서 우리는 그를 《천리배》라고 불렀다. 나는 그를 나자신처럼 믿었고 그 또한 나를 그렇게 믿고 따랐다. 내가 군당선전부장을 할 때 그는 군당조직부장이였다. 혁명동지이며 벗이며 입당보증인인 김덕룡, 함께 싸운 동지들이 모두 그리웠지만 가장 많이 생각했던것은 주병포와 김덕룡이였다. 주병포는 이미 오래전에 저세상에 간 몸이였고 나는 작년에 판문점을 넘어 오면서 김덕룡을 만나게 되리라는 생각부터 했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세상을 떠난것이다. 나는 그가 오래동안 당사업을 했고 나이 들어서는 고향인 풍산군 파발리 《김형권동지혁명사적관》 관장사업을 하다가 년로보장을 받았

으며 몇해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처럼 만나보고 싶던 그가 나보다 먼저 없고 보니 가슴이 아프다.

1990년 세상을 떠나기 얼마전에 남쪽에 있는 나의 소식을 알게 된 그는 나의 안해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아무렴 그렇지, 인모가 누구라구. 난 그가 끝까지 잘 싸워서 당의 품에 돌아 오리라고 굳게 믿소.》

김덕룡동지, 그는 이처럼 마지막까지 나의 당생활을 보증하였다. 나는 동지이며 벗인 나의 입당보증인을 영원히 잊을수 없을것이다.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의 창립과 함께 북조선공산당의 창건이 선포되였다.

우리 당의 창건과 기관지 《정로》의 창간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환희, 격동에 대하여는 무슨 말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부터 나의 당생활, 참인간으로서의 참생활이 시작되였다고 해야 할것이다.

내가 남쪽에서 쓴 수기를 읽은 독자들은 그 수기에서 10월 10일을 나의 생일이라고 했던것을 기억할것이다. 나는 근 40년의 감옥생활에서 자기 생일에 대하여 거의 잊어 버렸다. 그러나 나의 당생활이 시작되였던 10월 10일과 나의 당증번호인 306이라는 수자만은 한시도 잊은적이 없었다. 하여 나는 수기를 쓸 때 서슴없이 10월 10일에 내가 태여났다고 썼다.

사실 그날은 조선로동당원 리인모가 세상에 태여난 날이 아닌가…

북조선공산당의 창건이 선포된 직후 우리는 풍산군당 결성을 위하여 첫 당세포성원 6명이 모여 앉았다. 우리들중에는 6명외에 며칠전에 오기섭이 《풍산에는 지도자로 될만 한 사람이 없다.》면서 파견한 사람도 끼여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전력이 말썽이 되였다. 그는 일제때 사상범으로 함흥형무소에서 징역을 살고 나와 허천강발전소공사장에서 십장노릇을 하였는데 그때 공사주와 짜고 로동자들을 혹사한 사실을 우리 고향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터였다.

도저히 이런 사람을 군당의 지도일군으로 내세울수 없다고 판단한 우리들은 상급당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명백한 사실앞에서 어쩔수 없었던지 도당은 우리 의견을 받아 들여 조원식이라는 동지를 다시 파견했다. 이리하여 마침내 군당이 결성되였는데 그후 군민청위원장을 맡게 된 김경문동지가 곤욕을 치른 얘기를 빠뜨릴수 없겠다.

앞에서도 썼지만 광복직전 김경문은 아마공장 돈 2만원을 가지고 서울로 갔었는데 광복후 아마공장을 접수한 북청군당이 공장재산중 2만원이 없어 진 사실을 발견했다. 공장이 이제는 개인의것이 아니라 나라의것이였다. 결국 김경문은 국가재산을 떼여 먹은것으로 되였고 국가재산횡령죄로 잡혀 들어가지 않을수 없었다. 지하사업이라는것이 증거를 남기는것도 아니고 서울까지는 천리길이라 금방 련락이 닿는것도 아니여서 그 돈의 행방을 보증할수 없어 답답하기 짝이 없었는데 다행히 서울에서 김동지

가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 해명하는 편지를 보내와서 김경문은 석방되여 명예를 회복할수 있었다.

당이 창건된 며칠후에는 더 감격적인 소식이 전해 졌다. 10월 14일, 평양에서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연설이 있었던것이다. 장군님의 사진과 개선연설이 실린 신문을 보았을 때 나는 큰 놀라움에 휩싸였다. 우에서도 잠간 언급한바이지만 1937년 여름 황수원언제공사장에서 만나뵈왔던 젊은분과 몹시도 방불한 영상이였다. 그리고 개선연설의 구절구절에서는 언제공사장의 우리들에게 조선민족의 대단결로 일제를 쳐부시고 새 조선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던 그날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그대로 울리는듯 했다. 그러나 동지들은 누구도 나의 추측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도 장군님의 모습을 오늘 사진을 통해 처음으로 뵙게 되였지만 오래전부터 뵈와 왔던 모습처럼 느껴 진다고 하면서 나 역시 그런 감정때문에 그럴것이라고 하는것이였다. 37년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동지가 한사람이라도 있었어도…

그 밤 우리는 몇달전까지만 해도 숨겨 가며 말해야 했던 장군님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마음 놓고 펼쳐 놓으며 밤늦도록 군당을 떠나지 못했다. 그 밤에 주고 받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억해 낼수는 없지만 몇마디로 한다면 장군님께서 평양에 계시고 장군님께서 이끄시는한 우리의 일은 모두 잘되리라는 믿음이였다.

그 이후 공화국북반부 전 지역에서 실시된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법령, 남녀평등권법령 등 승리로 아로새겨 진 제반민주개혁성과들은 우리의 믿음을 굳은 신심으로 자리 잡게 해주었다.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1946년 8월에 김영교는 외국류학의 길에 올랐다. 나라가 독립한후 처음으로 떠나게 되는 류학생이였다. 풍산군에서는 떠들썩한 경사로 그 일을 맞이했다. 영교의 외국류학은 사람들에게 역시 광복이 좋구나 하는 희열을 안겨 주었다. 평양으로 올라 가는 영교에게 양복을 해입히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덤벼 치던 생각이 난다.

그때 마침 김덕룡이 광복직전 양복점간판을 내걸었을 때 김영교의 양복을 지어 놓았던 일을 기억해냈다. 모직천으로 무척 품을 넣어 만들었는데 광복후에는 사업때문에 하도 바삐 드달려다니다보니 피차에 잊고 있었던것이다.

그 양복을 찾아 내여 영교에게 입혀 놓으니 감회가 새로왔다. 광복전에 공부를 해보겠다고 도꾜바닥에서 신문배달을 하며 고학생노릇을 하던 김영교가 나라의 돈으로 당당한 외국류학을 떠나는것이다. 참으로 우리 세상이였다.

김영교가 떠나간 직후인 8월 28일 평양에서는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가 진행되였다.

나는 영광스럽게도 신재국동지와 함께 도대표로 선출되여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였다.

대회는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사이에 각도에서 선출된 818명의 대표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 100여명의 방청밑에 열리였다.

나는 여기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몸 가까이에서 뵈왔다. 그이께서 북조선로동당결성대회 개회를 선언하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이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부대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동북지방을 헤매며 다니던 일이 떠오르는가 하면 1937년 황수원언제공사장에서 있었던 일이 되새겨 지면서 그때 만나뵈온 그 젊은분이 **김일성**장군님이 틀림 없다는 확신으로 가슴은 터질듯 부풀어 올랐다.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로 한생을 보람차게 살리라는 결심은 그때 벌써 나의 신념으로 자리 잡았다. 로동당이 창립된후 나는 풍산군당 선전부장으로 사업하게 되였다.

그 시기는 참으로 벅찬 나날이였다. 일하고 또 일해도 일감은 산더미같이 계속 밀려 들었고 매일같이 새로운것, 새로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1946년 11월 3일 민주선거때에는 선거선전과 선거해설로 낮과 밤을 몰랐고 《선거가 너무 이르다》거니, 《선거표는 검은 함에 넣어야 한다》느니 하는 반동분자들의 요언과 투쟁했다.

한번은 천남면에 있는 한사람이 나를 찾아 와 은근히 묻기를 녀자들이 선거표를 함에 넣지 않고 삶아서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게 사실인가고 묻는것이였다. 나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떤 놈이 그런 허튼소리를 하던가고 따지며 선거표란 종이장일뿐인데 내가 종이를 한묶음 줄테니 다 가져다 삶아 먹여 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뒤미처 그 사람이 딸만 다섯이여서 아들보는것이 평생 소원이라는것을 알게 되였고 무작정 소리친것이 후회되여 그에게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인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선거가 그렇게 장군님을 받드는 일인줄 알았으문 내 그런 생각을 했겠소다? 못된 놈들이 또 왜놈세상처럼 만들려고 그따위 오새 없는 소릴 하는줄이야

몰랐지비. 내 딸만 열을 내리 거느려두 좋으니 그따위놈들 소리는 안 듣겠소다.》하고 단단히 결심하고 돌아 갔다.

그는 물론 처와 함께 선거에 착실히 참가하여 찬성투표를 했는데 그후에 아들을 보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력사상 처음으로 해보는 선거여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선거결과 1947년 2월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수위로 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이 발표되였을 때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만세를 불렀다. 마치 자신들이 《개국공신》이라도 된듯 한 기분이였다.

지금도 그 환희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며 가슴을 뛰놀게 한다. 내 만일 그날처럼 개마고원의 산발을 주름 잡으며 달려 다닐수 있다면!

결혼

이제부터 안해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48년 결혼해 겨우 두해 함께 살고 마흔세해를 떨어 져 살아온 안해, 하지만 지금 기적처럼 다시 만나 나의 곁에 있는 안해, 그 안해를 바라보느라면 이제는 사랑보다 앞서 고마운 감정이 치밀며 가슴이 뭉클해 진다. 아니, 그것으로 사랑이 더욱 강렬해 져서 이제 다시 헤여 지면 당장 죽을것만 같이 생각된다.

안해 역시 나와 같은 풍산사람으로 처가는 일제때 려관업을 해서 살림이 비교적 풍족한 편이였다. 안해의 외할아버지가 원산에서 양조장을 경영했는데 그래서 안해는 원산에 가서 루씨녀고를 다녔던것이다. 경성의전을 다녀 볼가 하여 서울에 갔던 때

가 나와의 첫 상봉이였고 두번째 상봉은 내가 서울 가던 길인가 서울에서 오던 길인가 평원선을 타려고 원산에 머물렀을 때 있었다.

광복이 되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 온 그는 우리 동지들이 하는 일을 지지하여 무척 사업에 열성을 보였다.

이무렵 안해가 입당신청을 했는데 우연히도 그 첫 심사를 내가 맡게 되였다. 그의 혁명적변화를 기뻐 하고 있던 나는 당연히 좋은 평을 주었다. 인생에나 사업에나 열심이였던 안해는 나머지 심사에도 무사히 통과되여 당원이 되였고 풍산군당에서 부녀부장으로 활동했다.

내가 그다지 다정다감한 사람도 못되는데 웬일인지 안해는 무척 나를 따랐다. 일욕심이 많아 밤이 이슥해서야 군당사무실을 나서는게 그무렵 내 일과였는데 안해는 어디에 숨어 있었던지 퇴근하는 내앞에 갑자기 나타나 《인모동지》하며 팔에 매달리군 했다. 처음은 옛날부터 아는 사이라 해서 그러려니 하고 범상하게 대했지만 이런 일이 거듭되자 내 마음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상대는 묘령의 처녀, 더구나 새 조국건설에 헌신하고저 하는 발랄한 녀성동지가 아닌가. 당시 내 나이 서른이라 며느리 보고픈 홀어머니에게 아침저녁으로 졸리던 처지였다. 처음 안해가 달려 와 팔을 낄 때면 누가 볼가 두려워 슬며시 팔을 빼군 하던 나였지만 혹 퇴근길에 안해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나 하여 다음날 사무실에서 얼굴을 볼 때까지 남몰래 속을 태우군 했다.

이처럼 가슴으로는 이미 안해를 받아 들이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결혼문제를 생각하면 결심이 쉽지 않았다. 나보다 열살이나 어린데다 고생을 모르고 자

란 안해, 당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안해가 좋은 선배동지와 훌륭한 남편감을 혼돈하고 있는것은 아닐가 싶기도 하였다. 갓 스무살의 그 녀자로서는 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보다 많은 경험을 쌓는 가운데 반려자를 얻는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였다. 게다가 그 녀자가 초근목피로 연명해 온 우리 집에 잘 적응할수 있을지도 념려되였다.

다시는 저만한 녀인을 만날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왔지만 고심끝에 나는 안해의 감정을 모른체 하기로 결심했다. 변함없이 퇴근길에 나를 기다리던 안해는 갑자기 엄격해 진 내 눈빛에 어쩔줄 몰라 했다. 전처럼 팔에 매여 달리지도 못하고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인모동지》하며 나를 따라 올뿐이였다. 게다가 안해가 나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안해의 어머니가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다. 안해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이였다.

하지만 장모님의 반대도 리유 없는것은 아니였다. 사위감이 유복자 하나 보고 평생을 수절한 자기 어머니도 돌보지 않고 항일운동한다며 혼자 나돌아 다닌 사람이니 앞으로 안해도 어머니처럼 팽개칠지 모른다는것이였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장모의 그 걱정이 맞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연이 어떻든 나라는 사람이 안해와 겨우 2년간을 같이 살고 40여년간이라는 세월을 떨어 져 있지 않았는가.

48년 나는 풍산군당에서 흥남시당으로 옮겨 일하게 되였다. 역시 선전부장일이였다. 처음 흥남에 가라는 지시를 들었을 때 나는 《촌놈이 그런데 못 간다.》고 버티였다. 흥남은 두메산골 풍산과는 비교가 안되는 큰 도시였기때문이다.

사실대로 말하면 고향이고 정든 동지들이 있는 곳을 선뜻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더 솔직히 말하면 순임이와 헤여 지는것이 아쉬워서이기도 했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나의 말을 그대로 받아 들여 공부를 시키기로 결정해 버렸다. 결국 나는 당학교에 가서 3개월 공부를 하고 돌아 와 8월 흥남으로 떠나게 되였다.

그때로 말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위한 북남 총 선거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였다. 1948년 4월 29일에 만장일치로 찬성한 공화국헌법초안을 1948년 7월의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실시하여 북과 남 전 조선에 걸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진행할것을 결정하였다. 그것은 남조선에서의《5.10단선》과 단독《정부》수립으로 하여 민족이 분렬될 위기에 처한 정세하에서 전 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큰 걸음이였다.

온 나라가 선거분위기로 들끓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흥남으로 나가게 되였다. 이사하는 날 흥남비료공장 지배인이 차를 보내주었다. 풍산의 집은 당일군들에게 내주고 짐을 챙겨 어머니를 모시고 차에 오르는데 갑자기 나타난 안해가 같이 가겠다고 떼를 쓰고 울면서 매달리는것이였다.

나는 정말 난처했지만 어머니는 또 생각이 다르셨던듯 하다. 안해를 차에 타라고 해 같이 흥남으로 내려 온것이였다.

흥남에 오니 더욱 난처하게 되였다. 남의 집 처녀를 집에 두고 다니는 꼴이였으니 말이다.

안해가 이렇게 완강하자 장모님은 반대를 거두셨고 나도 안해의 뜻을 받아 들였다. 막상 결혼을 결심하고보니 안해는 결코 어린 사람이 아니였다. 괴팍한 점도 없지 않은 내가 풍산시절 부녀부장일을 잘못한다고 심하게 질책하여 그만 펑펑 운 일도 있었는데 그 같은 3년간의 당생활이 그를 단련시켰던것일가!

나는 조국 북쪽땅에 안긴후 안해와 함께 그립던 그 시절을 추억하였다. 그런데 안해가 문득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남쪽에 있을 때 쓴 수기를 보니 참 엉터립데다. 내가 언제 령감을 그렇게 따라 다녔다고 그러우?》

나는 이미 남쪽에서 쓴 수기에서도 안해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우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실었었다. 그 수기를 본 안해는 좀 부끄러움을 느꼈던듯 하다.

비밀이라면 비밀이라 할수 있는 련애이야기를 그렇게 공개한 내가 야속했던것일가? 하지만 그때는 사랑하는 안해를 이렇게 다시 만날수 있으리라고 상상할수 없었고 따라서 나는 안해에 대한 글을 세상에 남기고 싶기도 했던것이다.

안해의 핀잔에 나는 그저 허허 하고 웃어 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일로부터 시작하여 둘사이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을 회고하였다. 그 과정에 나는 안해에게는 안해대로 자랑스럽게 그 시절이 간직되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안해는 자기가 나를 따라 다닌것이 아니라 내가 자기를 따라 다녔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자기

가 광복전 루씨녀고에 다닐 때 내가 찾아 왔던 일이며 자기가 부녀부장으로 일할 때 누가 볼세라 내가 풋강냉이를 사다 준것을 비롯하여 그러루한 여러가지 사실을 끄집어 내여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것이였다.

《풍산에서 달밤에 신원천기슭을 걷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안해의 말이였다. 안해는 그날 밤에 내가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하였으며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것이다.

내가 그때 사랑을 고백했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안해에게 조기천의 시 《백두산》과 《쏘련공산당(볼쉐비크)략사》를 보라고 주었던것은 생생히 되살아오른다. 아니 정말 사랑을 고백했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때 나한테 〈내겐 어머니가 한분 있는데 잘 모셔 줄수 있는가〉고 물었댔어요.》

이처럼 안해의 회상은 구체적이였다.

나는 안해의 주장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안해가 그 시절에 내가 자기를 그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하였다고 추억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안해가 나를 사랑한데 비해서는 너무도 그에게 보답이 적었다고 늘쌍 자책을 느끼고 있었기때문이다.

안해와 나는 결혼식사진을 몇번이나 들여다 보았다. 잊지 못할 그날이 눈앞에 떠올랐다.

사실 그것은 그저 평범한 결혼식이 아니였다. 그것이 평범치 않았던 리유는 첫째로 결혼식날이 바로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김일성**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선포하고

페막된 날이라는것이다. 둘째로 나와 안해는 이미 결혼식을 한번 한적이 있었기때문이였다.

8월 25일 북남조선 전 지역을 포괄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직후 우리는 흥남의 동지들이 자기 일처럼 덤벼 치며 뛰여 다니는통에 벼락같이 결혼식을 해치워 버렸던것이였다.

그런데 흥남에서의 이 결혼식이 고향 풍산에서 대단한 항의를 불러 일으킬줄이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투쟁한 동지들과 나의 친척들은 무조건 결혼식을 풍산에서 해야 한다는것이였다. 결혼식은 이미 했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 준비해 놓을테니 신랑신부만 오면 된다면서 결혼식 날자를 자기들이 정해 버렸던것이다. 결국 찬동할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결혼식이 다시 벌어 진것이였다.

우리의 결혼식이 풍산에 있는 나의 동지들에게는 공화국창건경축모임이기도 했다. 읍거리 어데서나 람홍색공화국기발이 날리고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서 돌아 가는 환경속에서 우리의 결혼식이 시작되였다.

동지들은 결혼식사진을 밝은 밖에서 찍어야 한다며 우리를 식장에서 끌어 냈다. 민청위원장 김경문은 식장에 달려 들어 가 신랑 누구, 신부 누구라고 쓴 족자를 들고 나와 세워 놓았다. 막 사진을 찍으려는데 김덕룡이 좀 기다리라고 소리치더니 나와 안해더러 옆으로 약간 옮겨 서라는것이였다. 영문을 몰라 조금 옮겨 서니 더 옮겨 서라고 야단이다. 다른 동지들도 어서 옮겨 서라고 떠들었다. 놀리려는게 아닌가 해서 주위를 둘러 보느라니 문득 머리우에 공화국기발이 있는것이 보였다. 처마끝에 걸어

놓은것인데 그 기발이 사진의 배경으로 되게 하려고 한것이였다.

《오늘이 어떤 날인가, 글쎄.》

공화국기발, 길에서는 아이들이 부르는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들려 오던것이 기억난다.

그날의 감격, 이것을 어찌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난들 잊을수 있겠는가. 나에게는 결혼의 기쁨보다 우리에게도 참다운 자기 조국이 생겼다는 기쁨과 자랑, 긍지가 더 컸다. 위대한 장군님을 나라의 수반으로 민족의 수위에 높이 받들어 모셨기에 마음은 든든하고 힘이 솟구쳤다.

결혼식날에 동지들이 나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부른 노래는 혁명가요 《적기가》였다.

…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밑에서 굳게 맹세해

지금 새 세대들은 결혼식날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노래라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나도 다른 노래들도 알고 있는것이 적지 않았는데 왜 그처럼 비장한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후렴부분에 가서 동지들이 모두 합창하여 우렁찬 《적기가》의 노래소리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다.

결혼후 안해는 함흥에서 예술대학의 전신인 문화학원에서 음악, 무용교사로 일했다. 함흥시당에서 일하는 내 생활비가 1,600원(지금의 16원)으로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안되였다. 예술적인 재능이 있었던 안해는 곧 능력을 인정 받아 나보다 월수입이 더 많아 졌고 그것으로 집안살림을 꾸려 나갔다.

한번은 안해가 극장에 가자고 지청구를 하여 《마을의 녀선생》이라는 쏘련영화를 보러 간적이 있다. 주인공은 사회주의혁명가였는데 조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다가 경찰의 기습을 당한다. 겨우 그 자리를 빠져 나온 주인공은 추격을 피해 한 귀족의 집 담을 넘는다. 그런데 귀족의 어린 딸이 그를 자기 방에 데려다 숨겨 주고 탈출을 돕는다.

가서 꼭 편지할것을 약속하고 떠난 주인공은 활동중 그만 죽고 마는데 유언에 따라 주인공의 동지들이 귀족의 딸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편지를 받은 귀족의 딸은 주인공의 무덤에 찾아 가 꽃을 바치고 그 마을에 머물며 일생동안 학교선생으로 봉사한다. 후날 혁명이 성공한후 그 학교는 대학으로 승격되고 마을의 녀선생은 그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한다. 대강 이상과 같은 내용이였던것 같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안해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춘향이가 리도령을 기다린것을 절개의 상징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절개라기보다 신분상승의 욕망 같은거 아닐가요. 량반아들 리도령이 아니라 빈농이나 소작인의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다면 지순한 사랑이라 하겠지만서도.》

이 말을 듣고 나는 안해를 한사람의 동지로서 굳게 믿게 되였다. 그날의 목소리나 표정조차 기억에 선연하다.

결혼은 하였지만 나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은 못되였다. 안해가 수고스럽게 밥상을 차려 오면 맛 있게 먹고도 별말이 없었고 어찌다 밥이 좀 되면 《밥

이 왜 이렇게 되오?》하고 질책을 하고 밥이 좀 질면 《이게 밥인가, 죽이지.》하고 신경질을 내기가 일쑤였다. 지금도 안해는 그때 내가 식성이 참 까다로왔다고 스스럼없이 말한다. 오죽하면 어머니와 안해가 나를 혼내우려는 《놀음》을 벌렸겠는가.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은 아마 내가 괜히 신경질을 낸 다음날에 있은 일일것이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방에 들어 가니 밥상이 나무랄데없이 차려 져 있었다. 그런데 안해와 어머니는 분명 웃방에 있는것 같은데 무엇이 불만스러운지 얼굴 한번 내밀지 않았다. 좀 이상하다 생각하며 혼자 식사를 다했으나 멋적은감이 들었다. 직장에 나갈 차비를 하는데 벌써 옷은 깨끗하게 손질해 놓았고 구두도 번쩍번쩍 닦아 놓았다. 트집 잡을만 한것은 하나도 없다. 그때야 나는 어머니와 안해가 내 성미를 《고쳐》주려고 짜고 들어 이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어머니와 안해사이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사이라기보다 어머니와 친딸사이처럼 다정스러웠다.

나는 은근히 가책이 되였다.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성격이 데퉁스러웠던것이다. 그래서 직장에 나가면서 한마디 하고야 말았다.

《여보, 오후에 거리에 나가다가 나에게 좀 들리오. 내가 당신 주려고 직장에 〈100곡집〉을 사다 놓았소.》

안해의 회상에 의하면 무뚝뚝한 나를 두고 동네의 어느 녀인이 《저렇게 뚝한 사람이 어떻게 고운 색시를 데리고 사는가.》고 말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적구에서 싸우면서 안해가 그리워 질 때면 늘 평시에 그를 살뜰히 대해 주지 못한것이 가슴을 허비군 했었다. 그런데 안해는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내가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였다고 결혼생활을 추억하고 있으니 참으로 고맙다고 할지, 눈물겹다고 할지…

1949년에 딸애가 태여났다. 그때는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두 뛰여 다니던 시기였다. 나는 이 공장, 저 공장으로 뛰여 다니느라고 딸애가 태여난지 20일가량 지났을 때까지도 집에 들어 가보지 못했다. 그러니 딸애의 이름도 못 지어주었던것은 물론이다.

하루는 강현철선전부부장이 우리 집에 들렸다가 애이름이 아직 없는것을 보고 자기 이름과 자기의 딸애이름에서 한자씩 따서 《현옥》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았다. 그 말을 듣고 나도 좋은 이름이라 기뻐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무 이름이나 내 손으로 지어 주었을걸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지리산유격대에서 그리고 형무소에서 다시는 가족들과 만날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나의 눈앞에는 두살잡이 어린 딸애의 모습이 떠오르군 했었다.

이름도 제때에 지어 주지 못한 자신이 후회되였고 아버지없이 자랄 딸애를 걱정하며 잠 못들 때도 많았다. 그 딸이 이제는 끌끌하게 자라 어른이 되였다. 함께 자식들을 거느린 의젓한 딸의 모습을 볼 때면 대견스럽기만 하다.

《황금시절》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수위에 모시고 나라까지 세우고 나니 그때 우리 백성들의 마음은 천만가지 소원이 다 풀린듯 한 심정들이였다.

인민생활이 펴그나 유족해 진데다가 인젠 일만 꽝꽝 해대면 생활은 더 몰라 보게 달라 질것이요, 나라도 남 부럽지 않게 부강해 지리라는 희망과 믿음으로 꽉 차 있었다.

내가 흥남시당에서 일하던 때는 우리 나라가 《황금시절》이라 일컫는 때였을뿐아니라 모두들 일에 성수가 나서 뛰여 다니던 시절이였다. 나는 사업상 관계로 흥남비료공장에 나가 로동자들과 같이 일도 하고 연설도 하고 침식도 같이 했는데 끼니를 몇끼 번져도 배 고픈줄 모르고 일했다.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고 나라의 주인이 된 로동자들의 모습도 몰라 보게 변모되여 갔다.

로동자들의 희열에 넘친 얼굴, 깨끗한 옷차림은 광복전에는 찾아 볼래야 찾아 볼수 없었던것이였다. 광복직후에 언젠가 한번 흥남에 와 봤을 때만해도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즈음에는 천은 비록 무명천이였지만 기운 옷을 입은 사람이 없었다. 확실히 로동자들의 생활이 향상되여 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내가 풍산에서 일할 때부터 느낀바였다. 풍산군당이 조직된 이듬해 봄, 내가 안산면당위원장으로 파견되여 토지개혁법령을 해설선전할 때 있은 일이다.

하루는 한 마을에서 사람들을 모여 놓고 선동연설을 하고 이웃마을로 옮겨 갔다. 그 마을에서 한창 연설을 하는데 더벅머리의 젊은 청년이 《이 집에서 연설하오?》하면서 들어 왔다. 어느 집에서 왔는가고 물어 보니 부끄러운듯 머뭇거리다가 말하는데 이미 들렸던 마을에서 왔다는것이였다.

《그 마을엔 방금전에 들렸댔는데… 어째 그때는 모이지 않았댔소?》

내가 이렇게 묻자 대답을 못한다. 후에 알고보니 입을 옷이 없어 모임장소에 오지 못했던것이였다. 그 집에서는 옷 한벌을 놓고 여러 식구가 어울러 입었다. 다른 식구가 그 단벌옷을 입고 나가는통에 그는 집에 박혀 있어야 했다. 그런데 먼저 선동연설을 듣고 온 사람이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화전민들에게도 땅을 주신대. 이젠 우리도 잘 살게 될거란다.》하는 희한한 소리를 하자 그런 연설을 직접 자기도 듣고 싶어 옷을 받아 입자 바람으로 헐레벌떡 달려 온것이였다.

나는 그때 내 고향 농민들의 빈궁을 통절하게 느꼈다. 나들이옷 하나 변변히 없는 집이 그 한집뿐이 아니였다. 집에 찾아 가 문을 두드리면 입을 옷이 없어 창피하다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집도 있었다. 더벅머리청년의 집에만 해도 옷으로 인한 기막힌 이야기가 있었다. 광복전에 제 아들 옷 한벌 입히지 못해 가슴 아파 하던 그의 아버지가 감자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장에 가서 옷을 사가지고 오다가 그만 겨울등판에서 얼어 죽었다는것이였다. 사오던 옷을 입었으면 일 없을것을 옷이 너무 귀하여 종시 입지 않고 그냥 꼭 안은채 죽은것이였다.

우리는 그후 이런 집들에 일제놈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생긴 옷가지들을 나누어 준적이 있다.

그런데 광복되여 1년이 되여서부터 벌써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라져 가기 시작했다. 나의 선동연설을 들으려 헐떡거리며 달려 왔던 그 더벅머리청년이 좋은 실례로 된다. 그의 이름은 전시호였는데 그 일이 있은후 우리와 아주 가깝게 되였다. 성인학교에도 다니고 입당도 하고 새 조국건설에 아주 열성적으로 참가했다. 내가 흥남으로 옮겨 앉을 때에는 풍산군당의 당원등록과에서 일했다. 흥남에 올라 올 때면 가끔 우리 집에도 들리군 했다. 한번은 도당에서 조직한 강습에 참가한다고 올라 왔던 길에 들렸는데 그 옷차림이 놀라왔다. 어디서 옷을 해입었는지 신식으로 양복을 해입었는데 머리도 번듯하게 깎고 머리기름을 진하게 발라 붙였다. 나는 그것이 못 마땅해서 툭 내쏘았다.

《그 머리가 무슨 꼴인가? 기름독에 빠졌다 나왔나?》

소박하지 못하고 지내 멋을 피운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흐뭇해했다. 우스운 일이지만 그는 그때 내가 꾸중을 하고 나가자 우리 어머니에게 물을 끓여 달래서 머리를 감고 갔다고 한다. 그와의 상면이 그때가 마지막이 될줄은 몰랐다. 그는 군당에 루차 제기를 해서 인차 군복을 입었고 전쟁시기에는 전선에서 잘 싸우다가 애석하게도 1953년 7월 27일 바로 정전이 되는 그날 아침에 놈들의 눈 먼 총탄에 희생됐다고 한다.

흥남에 오니 로동자들의 옷차림에서 이러한 사실이 새삼스럽게 상기되면서 장군님의 은덕이 가슴에 사무쳐 왔다. 그것은 로동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어

느 로동자들과 담화해 보아도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얘기하군 했다.

대부분의 로동자들이 1946년 4월 17일 흥남비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외우군 했다.

장군님께서는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끝내신 그길로 흥남비료공장을 찾으시여 로동자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 주시면서 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어 토지개혁의 승리를 공고히 하고 부강한 조국건설에 이바지하라는 연설을 하시였다는것이다.

나이 지숙한 어느 로동자는 나에게 《장군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셨다우.》하고 자랑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분은 참 젊었습디다. 우리 조선에 복이 내렸지요. 장군님께서 로동자들의 로동보호문제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우리 로동계급이 나라의 주인이 된 세상에서는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실 때 우린 모두 울었수다.》

나는 그 로동자의 손을 잡아 보면서 정말 우리 장군님 같으신분은 없다고 몇번이나 가슴속에 새겼다.

흥남에서 내가 맡은 일은 로동자들에 대한 교양선전사업이였다. 시당선전부는 중앙당에서 내려 온 자료를 교재로 해서 월요일마다 로동자들에게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그들의 수준에 따라 상, 하급반으로 나누어 학습을 시켰다.

장군님께서는 흥남비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벌써 로동자들은 학교에서 배울뿐아니라 일하면서도 꾸준히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던것이다. 학습수

준이 높은 당원들을 따로 선발해 《자습당원》이라 해서 개인별 학습목록을 짜주었고 선전부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 주어 혼자 공부하게 했다. 정해 진 시기가 되면 도서관책임자는 자습당원을 불러 학습 내용에 대한 문답을 하고 오유를 시정해 주기도 했다. 그들의 독서목록은 정치학, 철학이 중심이였는데 몇년씩 공부한 선진로동자들의 리론수준은 상당히 높았던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높은 간부라 해서 학습의 의무에서 제외되는것은 아니였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당시 흥남비료공장 지배인을 공부시키느라 애를 좀 먹었던것 같다. 비료공장 지배인이라면 흥남시당 부위원장과 같은 서렬의 위치인데 그가 《바쁜 사람 붙들고 자꾸 공부하라고 간섭하기냐.》하고 삐딱하게 나오니 우리 선전부의 도서관책임자가 무척이나 난처해 하는것이였다. 사실 공장지배인은 밤에도 집보다 사무실에서 잘 때가 더 많을만큼 바쁜 사람이였다. 그렇다고 선전부가 그를 포기해 버린것은 아니다. 기회를 노리던 도서관책임자가 비료공장에서 지배인과 로동자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자리에서 그에게 한가지 문제를 제시했고 대답을 못하자 우스개소리처럼 하면서도 따끔하게 말했다.

《지배인동지, 계속 그렇게 정치학습을 게을리하면 결국 소경처럼 될텐데 새 조국건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서관책임자가 쉽게 대답할수 없는 문제를 제시했던것은 물론이다. 하여튼 이 《면박주기》작전이 주효했던지 지배인은 그다음부터는 꼼짝 못하고 《학습프로그람》에 참여했다.

여하튼 더러 애 먹이는 사람도 없지 않았지만 모두들 배우겠다는 열성들이 대단했다. 지난 날 제 나라 글조차 쓰고 읽을줄 모르던 로동자들이 더했다. 그들의 경우에는 일은 일대로 하면서 성인학교의 우리 글 깨우치기로부터 시작해서 정치학습에 이르기까지 일괄하여 공부를 해야 했지만 마른 땅이 물을 빨아 들이듯이 공부를 했다. 이것이 바로 인젠 장군님께서 땅을 주고 공장을 주고 나라까지 세워 주셨으니 자연 주인된 자각이 무럭무럭 자랐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아직은 흥남비료공장이 설비도 그닥 좋지 못했고 기술도 딸렸지만 백옥같이 흰 비료가 폭포처럼 쏟아 져 내려 매일매일 렬차에 그득 실려 농촌으로 나갔다. 나서 처음 제 땅에서 비료까지 쳐가며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흥남부근에서는 물론 먼 벌방에서까지 성의껏 마련한 차떡이며 돼지와 소고기, 과일들을 달구지에 그득그득 싣고 공장을 찾아 왔었다.

그때 로동자들과 농민들이 함께 어울려 웃고 떠들던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처럼 증산이요, 학습이요 하고 우아래없이 뛰여 다니다가 어찌다 집에 돌아 오면 어머니는 《왜정때나 지금이나 늘 집을 비우니 매한가지로구나.》 하고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다. 집에 들려 밥을 한창 퍼먹고 있는데 예술학원에 다니는 안해가 문을 열고 들어 서다가 무춤 서서 문뒤로 몸을 피하는것이였다. 뭣때문에 저럴가 하고 찬찬히 보다가 나는 밥을 입에 문채 눈이 둥그래졌다.

안해가 파마를 하여 모양새가 퍽 달라 진것이였다. 옷차림까지 달리한탓인지 안해의 모습이 한편 세련돼도 보이고 한편 낯 선 녀자처럼 여겨 지기도 해서 나는 군침 넘기듯 밥을 꿀떡 넘기고는 대뜸 덜퉁스러운 소리로 넘어 갔다.

《어머니, 인두를 좀 달궈 주오다. 저 꼬불꼬불한 머리칼을 쭉 펴게 말이요.》

《아이참, 당신두…》하고 안해는 얼굴이 빨개 져서 어쩔줄 몰라 했다.

어머니는 인두대신 잘 밀봉한 편지 한장을 가져다 주었다. 2년전 풍산군당에서 일할 때 외국류학을 떠났던 김영교한테서 온 편지였다.

장군님의 배려로 지금 자기가 외국 어느 대학 지질학부에서 어떠어떠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고생대요 중생대요 화석이요 하는 전문술어들까지 잔뜩 섞어 써보낸 영교의 편지를 골살을 찌프리며 읽던 생각이 난다.

마음속으로는 기쁘고 대견한 생각 그리고 장군님께서는 건당, 건국, 건군의 그 바쁘신 나날에 벌써 나라를 세운 다음 문명부강한 조국건설의 기둥이 될 인재를 키우실 큰뜻을 품고 그런 조치까지 취해주셨다는 생각에 목이 메였다…

정말 좋은 세상이였다. 황금시절이였다! 그 시절의 이런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껏 떠 있던 추억들을 다 쓰려면 끝이 없다.

끝 없는 추억의 그 갈피갈피들을 34년간의 옥고를 치르는 어둠속에서 나는 쉬임없이 번졌었다.

슬픔과 분노

흥남시절은 신바람나게 새 조국건설에 나선 때이기도 했으나 1949년도에 들어 서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는 불안한 소식들도 끊기지 않고 들려 왔다.

그무렵 신문과 방송에서는 매일과 같이 적들의 무장도발행위에 대한 보도를 하였다.

특히 1949년 2월부터 10월사이에 감행된 강원도 양양군 고산봉 일대와 황해도 장풍군 송악산, 옹진반도의 국사봉 등 지역에 대한 적들의 대규모적인 무장공격은 온 공화국인민들의 격분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때인 1949년 9월, 38° 선일대의 인민경비대에서 복무하던 강현철선전부부장의 동생이 적들과의 조우전에서 전사하였다는 비보가 전해 왔다.

우리는 강현철동지의 집에 가서 고인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우리모두는 주먹을 틀어 쥐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 날뛰는 원쑤들을 저주하며 치를 떨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행복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과 그이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한목숨 바쳐서라도 지켜 갈것을 엄숙히 다짐하였다.

그무렵 나는 풍산으로 갔다가 리현욱동지가 심하게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보니 일제때 받은 여러차례 고문의 후과로 중태에 빠져 있었다.

나는 지체없이 그를 흥남의 우리 집으로 데려 내왔다. 그때는 김시태도 풍산군병원 원장을 하다가 흥남에 나와 시병원 원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완치시킬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어머니와 안해는 그

를 지성으로 간호했고 김시태는 하루에도 두세번씩 들려 치료를 했다. 그러나 리현욱동지의 병세는 너무도 중하였다. 때로는 좀 병세가 호전되는가 싶기도 하더니 새해에 들어 서면서는 걷잡을수없이 악화되여 1950년 1월에는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그의 침상을 지키고 있었던 나와 김시태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며 울었다. 이제는 그토록 바라던 우리 세상인데 왜 이렇게 빨리 가버리는것인가. 리현욱동지를 죽인것은 병이 아니라 왜놈들의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이였다.

일제가 망한지도 다섯해가 되여 오지만 그놈들이 남긴 상처는 가시지 않은것이였다.

이렇게 1950년의 첫달을 슬픔으로 맞이한 우리한테는 또 두번째 슬픔이 닥쳐 오고 있었다.

50년에 들어 서면서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38° 선일대에서 끊임없는 무장도발을 감행하는것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애국투쟁에 총칼로써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었다. 남쪽에서 사업하는 동지들의 고초는 이루 말로 다할수 없었다.

그러던 50년 3월 또다시 슬픈 소식이 들려 왔다. 친구 주병포가 서울에서 피살되였다는 소식이였다.

일제통치하에서도 그렇게 꿋꿋하게 버티던 사람을 광복된 조국에서 잃다니!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나보다도 어머니가 더 슬퍼 하셨던것 같다. 어머니는 슬픔을 못 이겨 며칠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통일조국에서 다시 만나 옛말을 하며 기쁨을 나누리라 가슴속으로 언제나 상봉을 그려 왔던 주병포였다.

광복전에 병포와 헤여 졌던 내가 그를 이름으로나마 다시 만났던것은 1949년 1월 9일부 《로동신문》에서였다. 1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처음으로 제정한 훈장을 혁명투사들에게 수여하였는데 그속에 주병포의 이름이 있었다.

병포는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사업하던중 1949년 8월 25일 부평방첩대에 체포되여 륙군형무소에 이송되였다. 적들은 군사재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고 1950년 3월 17일 새납화장터에서 학살한것이였다. 악에 받친 놈들이 그를 포로 쏘아 포살했다는 말도 있다.

사형장으로 나가면서 병포는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통일독립 만세!》를 계속 불러 적들을 어쩔줄 모르게 했다고 한다. 그의 최후에 대한 소식과 유서는 그의 동지들에 의하여 후에 전달되였는데 유서에는 《이 몸은 죽고 죽어도 혼이야 어데로 가겠는가. 조국을 위한 일편단심 변함 없다.》라고 씌여 있었다 한다.

이렇게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주병포, 정열가이며 락천가였던 주병포는 떠나갔다. 종시 고향에 와보지 못하고 갔다.

그도 고향으로 오고 싶었을것이다. 그러나 왜놈은 망했어도 여전히 친일사대매국노들이 활개치는것을 보고는 그 땅을 떠날수 없었을것이다. 그곳에서 통일독립된 조국을 위하여 싸우리라 맹세 다졌을것이다. 나는 고향과 부모처자들에게로 오지 못한 그의 심리를 1950년 가을 지리산으로의 길과 후퇴의 길, 두갈래 길앞에 섰을 때 체험으로 리해했다.

그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이번 평양에 와서야 구체적으로 알게 되였다.

얼마전에는 병포의 딸을 만나보았는데 아버지를 신통히 닮은 그는 유자녀학원을 거쳐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평양에서 일하고 있었다. 알고보니 집은 우리 집에서 100m도 안되는 같은 서장동에 있었다. 결국은 옛 시절 풍산과 서울에서 나와 병포가 가까이서 살았듯이 오늘은 우리의 후대들이 서로 이웃에서 살고 있는셈이다.

또한 병포의 아들도 만나보았는데 그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사회주의조국의 역군으로 충실히 일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우리 나라 첫 국기훈장수훈자이며 《조국통일상》 수상자의 자녀답게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이어 나가고 있는것이 한없이 기쁘다.

주병포가 놈들에게 학살된 소식을 들은후 정세는 날을 따라 더욱 긴장해 져 갔다.

이미 1950년 초부터 38° 선지역에서 리승만괴뢰군의 배비변경이 단행되여 10만의 대병력이 《북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놈들은 미친듯이 공격훈련을 벌리여 38° 선지역을 소란스럽게 했으며 적들의 정찰기와 간첩부대들이 빈번하게 공화국의 령토에 기여 들군 하였다.

아마도 그 시절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호소하는 최고인민회의 호소문을 지닌 몇몇 동지들이 38° 선을 넘어 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건이 있은지 며칠후에 6.25전쟁이 시작되였다.

이 땅과 이 하늘이 모두 나의것으로 되였던 5년! 거기에 담겨 진 하많은 기쁨과 환희의 이야기들을 나는 여기에 다 쓸수 없다.

하지만 그 생활이 없었다면 그 이후 43년동안의 나의 투쟁, 나의 생활도 없었을것이라고 나는 서슴없이 단언한다. 그 5년간은 지리산에서 그리고 형무소와 교도소에서 어렵고 간고했던 모든 시련을 이겨 낼수 있게 한 마음의 등불로 되였다. 그 등불은 총칼의 위협으로써도, 교형리들의 악형으로써도 결코 끌수 없었다.

한생에서 5년이란 너무도 짧지만 그 생활은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며 그 5년간의 기쁨과 환희가 북쪽만이 아니라 남쪽땅을 포함한 온 삼천리강토우에 영원히 정착되여야 한다는 신념을 나의 가슴에 굳건히 세워 주었던것이다.

실로 꿈속에서처럼 맛 보았고 즐겁게 흘러 갔던 광복후 5년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나는 용약 군복을 입고 종군기자가 되여 전선으로 달려 나갔다.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전쟁의 첫 나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다. 그날이 일요일이였다는것을 나는 44년이 지난 오늘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남쪽땅에 있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잃어 버린 일요일》이니, 《비극의 일요일》이니 하는 6.25전쟁에 대한 낱말들때문이 아니다.

전쟁 전날인 24일과 전쟁 당일인 25일이 나에게서는 그후의 43년간생활에서 마지막토요일, 마지막일요일이였기때문이다. 형무소에서의 긴긴 나날 피고름으로 얼룩진 담벽을 마주하고 있을 때면 그날의 일들을 꿈처럼 되살려 보군 했었다.

1950년 6월 24일, 나는 무척 늦은 밤 새벽이 거의 되여서야 호남동의 집으로 돌아 왔었다. 시당에서 다음해부터 진행할 1951～1953년 3개년인민경제계획에 대한 내각결정침투와 련이어 시당사업에서

주류를 이루는 흥남비료공장의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에 대한 청취와 협의가 있어서였다.

흥남비료공장에서는 년초에 전국의 로동자들에게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4개월 앞당겨 8.15기념일까지 완수할것을 호소했었고 단연 나라의 선두에서 나가고 있었다. 공장은 7월이면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할 전망이였다. 앞으로의 선전사업방향과 모범로동자들속에서 입당시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토의하다보니 회의는 밤이 무척 깊어서야 끝났다. 래일은 일요일이니 해가 지붕우에 오를 때까지 마음 놓고 실컷 자자는 말들을 하며 헤여졌다.

집에서는 그때껏 자지 않고 있었다. 매일같이 늦게 들어 오는데 이미 습관된 어머니와 안해였으나 이날은 너무 늦어서 좀 불안했던 모양이였다. 내 이야기를 듣고서야 안심하는 기색들을 지었다. 안해는 아래목에서 자고 있는 현옥을 다독거리며 《3개년계획이 끝날 땐 현옥이가 다섯살이 되겠구만요.》하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때면 현옥이가 막 뛰여 다닐것이라며 세발자전거를 사주어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적수부락에서 화전을 부쳐 근근히 살다보니 이 아들이 어릴 때 잘 사는 집 애들처럼 세발자전거를 타보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리였던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심정이 짐작되여 《아, 자동차라도 사줍시다.》하고 흔연히 말했고 안해는 《그때는 아무거든 마음만 먹으면 다 해줄수 있을겁니다.》라고 말을 받았다. 그 밤 세상 모르고 잔것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두살배기 현옥이뿐이였다.

그날 우리 식구가 잠자리에 누운것은 날 밝을무렵이였다.

아마 그때 벌써 38° 선에서는 전쟁의 총포성이 터졌을것이나 우리 가정은 일요일을 앞둔 토요일의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모름지기 그 시간에는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마찬가지였을것이다.

얼마 잔것 같지도 않은데 《인모야, 인모야.》하는 어머니의 다급한 부름이 나를 깨웠다. 여느 때에는 《현옥애비》라고 부르며 반말을 하지 않으시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보며 《저 소릴 들어 봐라. 전쟁이라는구나.》하고 허둥거렸다. 방송에서는 남조선괴뢰군이 38° 선을 넘어 북쪽 우리 땅으로 침공을 개시했다는 내무성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을 후들후들 떨며 어쩔바를 모르고 서 있었고 안해는 질린 얼굴로 현옥이를 꼭 부둥켜 안고 나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나는 부랴부랴 옷을 주어 입고는 어머니와 안해에게 준비하고 있으라 이르고 집을 뛰쳐 나왔다.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는지는 나도 알수 없었다.

시당에는 벌써 다들 나와 있었는데 내가 들어 섰을 때는 내무성보도가 다시 방송에서 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눈으로만 인사를 주고 받으며 긴장하여 방송을 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무성 보도

금 6월 25일 이른새벽에 남조선괴뢰정부의 소위 국방군들은 38° 선 전역에 걸쳐 38° 선이북지역으로 불의의 진공을 개시하였다. 불의의 진공을 개시한 적들은 해주방향 서쪽에서와 철원방향에서 38° 선이북지역으로 1km 내지 2km 침입하였다… 지금

공화국경비대는 진공하는 적들을 항거하여 가혹한 방어전을 전개하고 있다…》

너무도 엄청난 사태여서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은 《끝내 일어 나고야 말았구나.》하는것이였다.

남조선에서 미국에 의해 1946년에 만들어 졌던 《국방경비대》와 《해상경비대》가 정규군인 《국방군》으로 개편되면서 38° 연선지대에서의 무장도발이 격심해 졌다는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1948년을 거쳐 1949년에 들어 서면서 무장도발은 무장침입으로 번져 졌고 송악산전투, 은파산전투와 같은 어마어마한 국부적인 전쟁행위들도 빚어 졌다. 그 무장침입의 규모는 나날이 커졌고 리승만의 《북진통일》소리도 더 높아 졌으며 1950년에 들어 서면서는 절정을 이루었다.

그런 속에서 1950년 6월 11일, 평화적조국통일추진제의 호소문을 남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3명의 조국전선파견원동지들이 38° 선의 려현역으로 나갔는데 남측은 그들을 체포하여 《월경죄》를 들씌웠으며 군사재판에 넘기겠다는 폭언까지 했다. 돌이켜 보면 예로부터 아무리 적국들사이라도 사신만은 체포하거나 손 대는 일이 없었다. 남측이 평화제의를 갖고 간 한겨레의 사절들을 처형하겠다는데는 격분에 앞서 아연함을 금할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벌써 6.25전쟁의 선전포고였다.

그러나 그때껏 나와 나의 동지들은 순진하게도 남측에서 우리 사절들의 진의도를 알면 다르게 나올수 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6월 19일에는 우리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를 단일한 전 조선립법기관

으로 련합하자는 제의를 담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서가 방송으로 알려 졌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대답으로 리승만괴뢰도당은 전쟁의 총포성을 터뜨린것이였다.

그날 저녁에 인민군부대들과 경비대가 38° 선이북지역에 침입한 적들을 완전히 격퇴하고 반공격전으로 넘어 갔다는 내무성보도가 알려 졌다.

《금 6월 25일현재 공화국 인민군대와 경비부대들은 많은 지역들에서 38° 선이남지역으로 5km～10km 전진하였다.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불안한 하루밤이 지난 다음날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김일성**장군님의 방송연설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확성기앞에 모여 들었다. 이미 귀익어 진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태연하고 침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리승만역도들이 일제시대와 같은 통치제도를 공화국북반부에까지 실시하고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에게서 땅을 빼앗아 다시 지주들에게 돌려 주며 조선인민을 미제의 노예로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시였다.

나는 당일군으로서 장군님의 연설을 가지고 다니며 선전사업을 하였기때문에 그날의 방송연설을 거의 뜬금으로 외우다싶이 했다. 특히 다음의 말씀은 이후 수십년동안 두고 두고 잊혀 진적이 없었다.

《리승만매국역도가 일으킨 내란을 반대하여 우리가 진행하는 전쟁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통일위업을 위한 정의의 전쟁이라는 장군님의 말씀은 전쟁시기는 물론 한평생을 두고 나의 믿음으로 되였으며 신조로 되였다.

그때로부터 40여년이 흘러 간 1990년대, 형무소에서 나온 나에게 남조선의 한 신문기자가 《당신은 지금도 6.25전쟁이 통일위업을 위한 전쟁이였다고 생각하는가?》하고 물었을 때 나는 주저없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실로 1950년 전쟁은 미국 그리고 친미파로 둔갑한 친일파들, 사대매국세력과 자주와 애국, 민주세력간의 전쟁이였다. 리승만《정부》의 사대매국적체질은 리승만재임기간 8명의 륙군참모총장이 전부 일본군과 괴뢰만주국군출신이였다는것만으로도 알수 있다. 리승만부터가 일찌기 상해림정때에 벌써 조선은 후견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하여 《리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라고 단재 신채호가 락인한 인물이다.

나는 남쪽땅에서 《6.25전쟁은 북이 일으킨 동란》이라고 떠드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야 했다. 지어 《북의 〈빨갱이〉들이 쓰딸린의 지령으로 온 조선땅을 크레믈리에 갖다 바치려고 일으킨 전쟁》이라고 하는데는 아연함을 금할수 없었다. 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이라고 하겠다. 더욱 기가 막히는것은 이것이 당시 미국의 거수기로 다수를 이루고 있던 유엔의 개입으로 하여 기정사실화되여 버린것이다.

전쟁 3일만인 6월 28일의 서울해방, 다음의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남반부 거의 전역을 해방시킨 인민군대의 파죽지세 같은 공격, 이 류례 없는 전승을 남에서는 6.25전쟁을 북이 일으켰다는 가장 유력

한 증거로 삼고 있다. 먼저 일으켰기때문에 단숨에 락동강까지 밀고 나갈수 있었다는것이다.

그들은 6.25당시 남쪽에는 전쟁에 준비된 군대가 없었다고 말한다. 대포도 한문 없었고 나중에는 군대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까지 한다.

이상한것은 그들이 6.25당시 《국군》은 계획보다 5만을 초과한 15만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15만여정의 보총과 탄약, 수천문의 각이한 구경의 대포와 근 80만발의 포탄, 수천대의 군용차량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된 력사적사실도, 1950년에 이르러서는 구축함을 비롯한 99척의 함정과 미국제 비행기로 무장된 해공군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두 잊어 버리고 있는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6.25전야에 38° 선을 시찰한 덜레스가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당신들을 대항하지는 못할것이다.》라고 연설한것은 양복을 입은 사민들앞에서였는가. 또한 송악산, 은파산으로 총포성을 울리며 진입해 들어 왔던 수천명의 인원은 군대가 아니였고 포성을 울린것 역시 대포가 아니였단 말인가. 력사에는 침략자가 첫 반타격에 토붕와해되듯 해버린 사실이 한두번만 아니게 있다.

나는 1959년 1차 출옥되여(이렇게 말할수밖에 없다.) 부산에 있을 때 《아리랑》이라는 잡지를 뒤적거려 본적이 있었다. 몇장 들치니 미국제 땅크에 올라 선 녀군땅크병의 사진이 있었는데 간지럼이라도 타는듯 한 표정으로 《이대로 평양까지 쭉— 밀고 올라 갔으면 좋겠어.》하고 말하는것이 씌여 있었다. 그 글을 읽었을 때 내 머리속에 떠올랐던것은 6.25전야에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하고 떠들었던 리승만, 김석원

의 말들이였다. 미국제 무기를 쥐고 보면 그런 현훈증에 걸리기마련인지도 모르겠다.

허나 6.25때 미국제 무기에 현혹되였던 괴뢰군은 첫 반타격에 물 먹은 흙담처럼 무너져 버렸다. 그 원인을 그들은 오늘도 여전히 《북의 불의공격》이라는 거짓말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은 6.25전쟁이 미국과 친일친미세력 즉 외세, 사대매국세력과 자주, 애국세력간의 전쟁이였다는데서 찾아야 한다.

북에서는 리승만역도의 정체를 어떤 선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38° 선이북을 수시로 침입한 괴뢰군의 침략행위를 통하여 잘 알게 되였다. 1949년 1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만도 38° 선이북지역에 432회에 걸쳐 5만여명의 괴뢰군이 침입해 왔으며 13개 군 45개 면 136개 리에 피해를 입혔다. 비행기와 함선의 침입도 100여회를 넘었다. 그때마다 공화국경비대의 반격이 없었더라면 괴뢰군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 갔으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쟁은 이미 1949년에 시작된것이나 다름 없었다.

현대적무기로 장비한 수만명 군대의 때 없는 침입, 수천평방키로메터땅의 전장화와 수많은 인명피해… 그것은 단순한 무장충돌이 아니라 전쟁이였다. 되풀이하지만 전쟁은 이미 1949년에 시작되였던것이며 6.25는 다만 인민군대와 경비대의 반공격에서 계기점으로 되였을뿐이라고 말할수 있다. 전쟁의 도발자는 이런 시점에서 찾아야 한다.

6.25의 총포성은 쌓이고 쌓여 오던 우리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일제때 같은 암흑의 시대를 몰아 오려는 자들, 내 땅, 내 공장, 내 나라를 빼앗으려는

자들, 행복한 《황금시절》을 노예생활로 바꾸어 놓으려는 자들에 대한 미증유의 분노였다. 바로 이 분노가 무서운 힘으로 되여 2개월 남짓한 기간 남조선 거의 전역을 해방시키는 전광석화 같은 류례 없는 진공속도를 출현케 했다.

나는 그 나날 선전사업을 하느라고 특별히 애 먹었던 일이 없다.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이 말 한마디와 장군님의 방송연설이면 다른 말이 더 필요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평범한 몇마디로써 전쟁의 본질에 대하여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신것이였다. 방송연설은 온 나라를 불러 일으켰다.

앞을 다투어 전선으로 탄원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느라고 나는 애를 먹었다. 그들의 뜻대로 그냥 방임해 두었더라면 흥남시안의 모든 공장들이 며칠사이에 텅텅 비고 말았을것이다. 미제와 리승만이 일제때 같은 세상을 도로 만들자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일이나 하겠는가면서 쌈 싸우듯 대드는 사람들도 많았다. 나는 그들에게 일을 잘하여 전선원호를 잘하는것도 전선에서 싸우는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루루이 타이르군 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나부터가 전선으로 나가고 싶었다. 시당위원장에게 제기했다가 욕 먹은것만도 수차례, 선전부장부터가 그러니 무슨 선전사업을 제대로 하겠는가면서 역습을 하는데는 할말이 없었다.

그런 나날속에 선전부부장 강현철동지가 전선으로 소환되여 떠났다. 강현철동지는 그동안 38경비대에서 희생된 동생의 원한으로 여윌지경이였다. 그를 바래우는 동지들은 모두 나처럼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의 건투를 빌었다. 《승리의 날 다시 만납시다.》하는 우리의 말에 강현철동지는 씩씩

하게 꼭 같은 말로 대답하며 떠나갔다. 그때 떠나는 사람이나 바래우는 사람이나 《승리의 날 다시 만납시다.》가 인사로 되여 있었으니 승리의 날이란 통일의 날이였다. 통일의 날은 확실히 멀지 않은 앞날이라고 우리는 믿었다. 사실 미국만 아니였으면 그 믿음이 현실로 되였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7월에 들어 서면서 미군폭격기들이 수십대씩 달려 들어 흥남지구에 대한 맹폭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주민지구고 공장이고 가림없이 폭탄과 기총탄을 퍼부어댔다.

폭격현장에 나갔다 온 어머니는 《그놈들은 사람이 아니다.》하시면서 가슴 아프게 우셨다. 녀인들과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평화적주민들이 살상되였고 수많은 주민가옥들이 파괴되였다.

미군비행기들의 맹폭격이 있은 다음날 방송은 인민군어뢰정대가 주문진해전에서 네척의 어뢰정으로 미군의 중순양함 한척을 격침시키고 경순양함 한척을 격상시켰다는 보도를 전했다.

《이 사람 현옥애비, 순양함이라는게 큰가?》하는 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순양함이 《떠다니는 섬》이라 부를만큼 큰 배라는것과 왜놈들은 그렇게 떠들던 태평양전쟁때 숱한 어뢰정으로도 순양함을 격침시킨 일이 없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어머니는 《그놈들은 왜 우리 나라에 와서 그런다더냐. 바다건너 제 나라에서 살지 않구.》하고 저주를 퍼부으시다가 문득 현옥을 가슴에 안으시였다. 그때 그놈들의 폭격을 막아 나서시듯 어린 현옥을 떨리는 손으로 부둥켜 안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어느 날 풍산에서 같이 일하던 송중명이 찾아 왔다. 전선으로 소환되여 가던 길에 들렸다는것이다. 체소한 몸에 누가 말을 시키지 않으면 먼저 입을 여는적이 없어 그가 있다는것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조용한 사람이였다. 무척 반가왔으나 옛날의 회상도 나눌 사이가 없었다. 헤여 지면서 우리는 《승리의 날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굳게 손을 잡았다.

그때 우리의 상봉이 승리의 날이 아니라 준엄한 시련이 기다리는 지리산에서 이루어 지리라고야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전쟁은 점점 더 치렬해 졌다. 전선에서는 미지상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었고 미군비행기들의 폭격과 미군함들의 함포사격이 흥남지구를 부단히 파괴했다. 그러나 전선에서의 줄기찬 승전소식은 이런저런 희생에 대한 가슴아픔을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다져 지게 했다.

떠나간 사람들의 몫까지 하느라고 밤낮을 모르고 뛰여 다니던중 미24사를 띤사단장이하 완전히 전몰케 한 대전해방전투소식을 들었다. 그 통쾌한 승리의 소식을 들은 다음날 나는 당중앙위원회의 소환명령을 받았다.

마침내 나도 전선으로 나가게 된것이였다.

어머니와 안해

1950년 7월 23일, 내가 평양으로 떠나던 날 아침, 현관에서 신들메를 졸라 맬 때까지도 안해는 두살배기 현옥을 안고 문설주에 붙어 서서 내내 눈물만 흘렸다. 아이어머니가 되였다고는 하나 아직 나

이가 어렸고 또 이런 리별은 처음이였다. 지난 밤에는 떠날 때 울지 않겠다고 부디부디 맹세하더니 내가 방문을 열고 나설 때는 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것이였다.

나는 위로할 말을 찾을수 없어 신발끈만 조여 매는데 굳어 진 얼굴로 나를 보고 계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 순임아, 울지 말아라. 내가 열여덟에 저 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후 일곱달만에 유복자로 낳아 오늘까지 저 애만 바라보고 수절하였는데 하늘이 무심찮아 꼭 이기고 살아 돌아 올게다.》

43년만에 돌아 온 나의 오늘이야말로 그날 어머니의 축복이 그대로 살아 있어 이렇게 차례진것이나 아닌지…

안해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대문간까지 따라 나왔다. 나는 대문간에서 낮은 소리로 안해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못 돌아 와도 마음을 굳게 가져야 하오. 어머니처럼 혼자 늙지 말고 좋은데로 시집 가오.》

이 말은 나의 진심이였다. 청상으로 수절해 온 어머니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순간에 안해한테 나와 같은 말을 했으리라고 믿는다.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안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 지기 시작했다.

《당신은 어딜 가도 날 잊을 사람이 아니니 나도 결코 당신을 잊지 않겠어요.》

나는 안해를 진정시키려고 《걱정 마오. 승리하고 돌아 올테니. 현옥이 다음 돌잔치는 통일된 땅에서 하게 될거요.》하고 말해 주었다. 사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한나산까지 나갔다가 돌아 와서 몇달후엔 다시 이 대문으로 들어 서게 되리라고 생각했던것이다.

하기에 나는 현관에 서계신 어머님께 마지막목례를 드릴 때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눈물없이 서 있었으나 그 얼굴에는 울듯웃을듯 향방 없는 표정이 굳어 져 있었고 떨리는 입술을 감추시려는듯 입을 꽉 다물고 계셨다. 두눈은 나의 얼굴에서 못 박혀 떨어 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와 눈길이 부딪치자 어서 떠나라는듯 머리를 끄덕여 보이셨다.

그때의 어머니모습, 웃음으로 바래주려면 도리여 울음이 나올가 굳어 졌던 그 얼굴, 눈물없이 지켜보던 처절한 그 눈빛… 눈물을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굳센 그 모습이 나의 떠나는 걸음을 한결 쉽게 해주었다. 어머님께서 눈물을 보이셨더라면 걸음걸음이 천근같이 무거웠을것이다.

《당신은 모르실거예요. 그때 어머님께선 당신이 보이지 않게 되자 돌아 서시며 그냥 우시였어요.》

이것은 내가 집으로 돌아 와 며칠 지났을 때 안해에게서 들은 말이다.

그때가 어머니와의 마지막리별이였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울듯말듯 굳어 져 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삼삼히 떠오르며 가슴을 허빈다. 그때 만일 그것이 마흔세해동안을 기약하는 걸음이며 영원한 리별인줄 알았더라면…

허나 그것을 알았어도 나는 결연히 떠났을것이며 어머니는 눈물을 참고 이 아들을 굳세게 바래주었을 것이다. 통일독립된 조국을 위하여 이 땅의 아들들이 걸어야 할 길이였고 이 땅의 어머니들이 감수해야 할 고통이였기때문이다. 그 나날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떠나는 자식들의 발밑에 눈물 아닌 굳은 마음을 깔아 주며 아픈 가슴을 달래였던가.

나는 추억속에 살아 있는 그날의 어머니모습에서 이 땅의 수많은 영웅들을 키워 낸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는듯 하다. 어머니라는 이름부터가 영웅이라는 부름과 대등한것인데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해 바친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어떻게 불러야 마땅할가.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소식을 마지막까지도 아시지 못한채 떠나가신것이 더 가슴 아프다. 림종의 시각까지 《우리 인모는 꼭 돌아 온다.》고 하셨다는 어머니…

말년에는 인민반장을 하며 유감 없는 여생을 보내셨다는것이 자그마한 위안을 줄뿐이다. 새벽이면 벌써 인민반을 한바퀴 돌아 보며 진일, 궂은일 가리지 않고 도맡아 했다고 한다. 량주가 다 직장출근하는 집에는 부식물을 사다 주고, 탁아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찾아다 씻어 주고, 먹여 주기도 하고… 소식 모르는 이 아들의 몫까지 하려고 그리도 극성이시였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딸 삼아 며느리 삼아 집안의 기둥으로 의지하면서 살아 온 나의 안해, 그 역시 어머니를 고이 모시면서 43년을 하루같이 이 남편을 기다려 주었다.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 못하는 딸 하나를 키우며 43년간을 수절해 온 안해의 주름 잡힌

얼굴과 흰머리칼을 보느라면 실로 감회가 끝이 없다. 안해를 볼 때면 저절로 남쪽땅에 있을 때 형무소, 교도소의 간수, 교도관들이 《빨갱이들의 안해들은 어쩌면 하나같이 렬녀들이냐.》하고 악에 받쳐 떠들던 소리가 생각난다.

어머니, 안해의 믿음과 기다림을 생각할 때면 나는 부지중 벽에 걸린 족자에서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를 우리 당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친필을 보게 된다. 리인모는 반드시 우리 당의 품에 안겨야 한다고 하셨다는 **김정일**동지, 43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으시고 믿어 주고 기다려 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 하해 같은 믿음과 기다림이 나의 어머니를 말년까지 절망 않게 했고 나의 안해를 렬녀로 만들지 않았겠는가. 바로 조선의 혁명가들은 모두 그런 믿음과 기다림을 지니신 장군님과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자라났기에 혁명가들의 안해들도 하나같이 렬녀들인것이 아닌가. 이 말로써 나는 남쪽땅의 형무소, 교도소의 간수, 교도관들에게 대답을 주고 싶다.

이 땅에 고유한 그런 특이한 믿음과 기다림을 나는 이미 고인이 된 나의 외삼촌에게서도 찾아 보게 된다. 안해의 말에 의하면 외삼촌은 내 소식을 바이 알수 없었던 때에도 《인모는 죽지 않아, 꼭 살아서 돌아 온다.》고 어머니와 안해를 위로하며 믿음을 허물지 않았다고 한다. 나를 아들처럼 사랑해주었고 투쟁의 길로 떠밀어 준 외삼촌의 그 믿음은 지금도 나를 가슴 뜨겁게 만든다.

안해는 지금도 내옆에 앉아 있다. 한시도 옆에서 떠나지 않으며 내가 몇줄씩 쓰는 수기를 넘겨다 보

기도 하고 내가 불러 주는것을 받아 쓰기도 한다. 때로는 낡은 투의 말이 많고 옛날의 글 같다고 유감을 나타낸다. 나는 안해의 말대로 《오늘의 글》로 가까이 가려고 애 쓰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수기라기보다 나의 동지들의 수기이며 믿음과 기다림의 수기이기때문이다.

한창 옛 추억을 더듬으며 펜을 놀리다가 머리를 들면 방안에 있는 어느 쏘파에는 어머님도 앉아 계시고 《그래, 난 믿었다. 네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줄 믿었다.》하고 머리를 끄덕이시는듯 한 느낌을 금할수 없다.

전선으로!

평양에 도착한것은 다음날이였다. 첫눈에도 평양은 흥남지구보다 더 맹폭격을 당한것이 알렸다. 합당대회때와 중앙당학교 다닐 때 낯 익혔던 여러 거리들이 페허로 변해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도 공습경보가 울렸고 나는 방공호로 쓰는 지하실에부터 들어 가야 했다. 폭격이 끝나고 나와 보니 또 하나의 거리가 페허로 되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활기에 넘쳐 있었고 아이들은 《나가자 인민군대》라는 노래를 신이 나서 부르며 다녔다. 가는 곳마다에 남조선해방지역들을 붉은 기발로 표식한 지도가 붙어 있었다.

지체없이 중앙당에 찾아 들어 가니 급히 인민군 문화부로 가라고 했다. 문화부로 갔더니 《중앙통신》소속 문화부 종군기자로 임명되였다고 알려 주었다. 그때 인민군 문화부에서는 풍산내기의 한 동무가 신문사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는 내가 풍산에

서 소학교를 다닐 때 동요를 써서 《아동동아》에 냈던 일을 기억해 내고 종군기자로 추천한 모양이였다. 《좋은 기사를 많이 써보내주시오.》하고 그는 나의 손을 굳게 잡아 주었다.

이렇게 나는 인민군종군기자가 되여 전선으로 떠나게 되였다. 내가 자랑거리가 될것도 없는 어느 고망년적 《아동동아》에 실린 동요이야기까지 끌어내는것은 남조선에서 43년간 너무도 많았던 종군기자가 아니라느니, 뭐라느니 하는 의심 많은 론의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서이다.

전선은 그때 바야흐로 락동강지역으로 좁혀 들어가고 있었다. 트럭을 타고 막 떠나려는데 따발탄을 몇궤짝만이라도 싣고 가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길에 나서자 온통 전선으로 군수물자를 싣고 가는 자동차와 달구지대렬이였다. 길좌우의 마을들은 대개 폭격에 폐허로 되였으나 그 폐허속에서도 군수물자를 실은 달구지들이 줄 지어 나오고 있었고 아이들의 힘찬 노래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진짜 전 인민적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 도착하니 내가 찾아 가야 할 인민군 6사는 이미 진주방향으로 나갔다고 알려 주었다. 6.28해방을 맞은 서울은 활기에 넘쳐 있었다. 거리들에 나붙어 있는 조선인민군협주단의 부민관공연광고들이 인상적이였다. 거리로는 수십명씩 때로는 수백명씩의 청년대렬이 노래를 부르며 행진해 가고 있었는데 전선으로 탄원한 의용군대렬이였다. 어느 사이 배웠는지 그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나가자 인민군대》를 목청껏 부르며 연도에서 바래주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날 만납시다!》하고 손을 저었

다. 그 나날의 인사는 북과 남이 꼭 같았다. 그때는 북과 남이 하나로 된 통일시간이였다.

왜놈들과 친일파들이 활개치던 옛 서울과는 딴판이였다. 여러 상점과 가게방에서는 영어간판들을 조선말로 쓴 간판으로 바꾸느라 분주했다. 창업이래 처음으로 리조도읍이 덕지 껴온 봉건의 때와 일제식민지때를 벗고 있는셈이였다.

해방된 서울을 돌아 보니 주병포의 생각이 더 간절해 졌다. 그가 살아 있었더라면 우리 상봉은 얼마나 감개무량하였을것인가!

전쟁터에서 종군기자가 서야 할 곳은 항상 제1선이다. 나는 더 지체 않고 남쪽으로 떠났다.

그때는 벌써 미군비행기들의 폭격때문에 낮에는 차가 갈수 없어서 밤에만 달렸다. 낮에는 차를 대피시키고 주변의 마을을 다니며 취재도 했다. 길가의 전화가 휩쓸어 간 논밭들에는 어데를 물론하고 미군이나 괴뢰군이 패주하면서 버리고 간 불 탄 군용트럭들과 못 쓰게 된 대포들이 너저분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후일 남조선출판물들에서 6.25당시 《국군》에게는 대포도 없었다는 글을 읽었을 때 이때에 본 광경들이 회상되여 실소를 금할수 없었다. 맥아더의 후임으로 유엔군사령관을 지낸 릿치웨이도 자기 글에 그렇게 썼었다. 그때 나는 가슴에 수류탄을 매달아 인디안추장처럼 차린 그의 사진을 보며 《그 량반 참 거짓말에 재간 있군.》하고 부지중 생각했다. 들으니 후에 나토군사령관까지 지냈다는데 그러루한 거짓말을 얼마나 더 했는지는 모르겠다.

평택쯤에 이르렀을 때 한 농민이 도랑에 거꾸로 박혀 있는 대포에서 바퀴를 떼내느라고 땀 흘리고 있었다. 왜 뜯어 내는가고 물었더니 달구지바퀴로 쓰려고 뗀다면서 《달구지바퀴로야 그저그만이예요. 양코들이 바퀴 하난 잘 만들어요.》했다. 자기들이 만든 대포에 대한 조선농민의 이 평가를 들었으면 아메리카 칼 앤드파운드리회사가 만족을 느꼈을지… 농민은 달구지바퀴가 든든해야 전선원호도 잘할수 있다며 《양코놈들을 다 내쫓고 내 땅에서 실컷 농사를 지어 봐야겠어요.》했다. 내가 땅을 받았는가고 하니 그는 대답대신 토지분여증서를 꺼내 보이며 한푼의 부채도 없이 내것으로 된 땅이라고 했다. 리승만의 농지개혁때는 빚더미에 올라 앉았는데 이번에는 맨주먹으로 부자가 되였다는것이였다.

다른 한 마을에서는 여러명의 농민들이 잘 깎은 말뚝을 들고 모여서 있는것을 보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그들 복판에서 식자나 있어 보이는 로인이 말뚝에다 이름과 밭 몇천평, 논 몇천평이라는 글을 붓으로 써주고 있었다. 분여 받은 논밭머리에 박을 말뚝이였다. 길에는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들이 붙어 있었다. 마치 4년전의 나의 고향마을에 간 기분이였다. 그들은 나에게 《이게 진짜 토지개혁이예요. 로승만의 농지개혁은 가난만 더하게 했어요.》하고 말했다. 늙다리 리승만이라는 의미에서 로승만이라고 불렀다. 이것만으로도 리승만이 인민들에게서 얼마나 증오 받았는가를 알수 있다.

나는 가는 곳마다에서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이 실시된 남쪽땅의 새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런데 하마트면 나는 전선에도 미처 못 가보고 황천객이 될번 했다. 평택을 지나 대전을 향해 달리고 있을 때였다. 미군비행기의 폭격때문에 불도 못 켜고 달리던 차가 갑자기 요동을 쳤다. 대전에서 공주로 가는 갈림길에 다리 하나가 있었는데 미군비행기가 그 다리를 끊으려고 폭격을 한것이 빗나가 한t 짜리 폭탄이 대전 가는 길에 떨어 져 큰 구뎅이가 생겼던 모양이다. 그걸 모르고 어둠속에서 내달리던 우리 트럭이 그만 그 구뎅이에 빠져 뒤집히고 만 것이였다. 맨밑에 깔린 내우에 따발탄궤짝이 덮이고 그우에 다시 차무게가 내리 눌러 정신이 희미해져 갔다. 눈앞에는 집 떠날 때 바래주던 어머니의 얼굴과 울던 안해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린 안해를 두고 어머니도 모르게 여기서 죽는구나.》하는 생각도 스쳐 갔다. 다행히 우리 뒤에서 오던 트럭이 곧바로 멈춰 서 뒤집힌 차를 끌어낸 덕분에 무사할수 있었다. 내가 얼얼한 몸을 움직여 보며 앉아 있느라니 차를 끌어 내준 인민군전사가 《남해바다가 지척인데 여기서 죽으면 되겠시꺄?》하며 롱을 했다. 또 한 전사는 한번 죽을번 했으니 이제는 오래오래 살거라고 했다. 아마도 그의 예언이 옳았던것 같다…

얼마후 나는 다시 차에 올라 당시의 최전선인 경남 진주까지 내려 갔다.

진주에서는 각 농촌마다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농촌위원회의 주도로 토지개혁이 한창 진행중이였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은 해방지역에서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였는데 나에게는 주요한 취재거리이기도 했다. 진주의 린근 각 농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열성적인 농민들을 보니 4년전

고향 풍산에서 토지개혁이 진행될 때 그렇게도 기뻐하던 순박한 고향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으로 밤낮을 모르고 함께 뛰여 다녔던 동지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지내는지, 나처럼 전선으로 나온 축들이 많을것이라고 생각하니 승리의 날에는 남해바다가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 믿어 졌다.

진주에서 있은 한가지 우스운 일이 생각난다. 마을에 나가 취재하는데 박령감이라고 불리우는 농민이 억지로 집으로 끌고 가 식사를 차려 놓았다. 먹음직스러운 국수였다. 고향에서부터 국수라면 사족을 못 쓰던 나는 대뜸 저가락을 들고 국수를 한입 듬뿍 떠넣었다. 그 순간 어찌 뜨거운지 나는 와뜰하고 놀랐다. 펄펄 끓는 고기국에 국수를 말았는데 기름이 많이 덮여 김이 오르지 못하니 뜨겁지 않게 보였던것이다. 알고 본즉 진주국수란 원래 이렇게 뜨거운 고기국에 마는데 뜨거울수록 잘 대접하는것이라고 한다. 추운 고장인 풍산에서는 찬국수를 즐기는데 더운 고장인 여기 진주에서는 뜨거운 국수를 좋아 한다는것이 억지스럽게 들리지만 그것은 사실이였다.

지금도 진주국수를 생각하면 불을 삼키는듯 하던 느낌이 되살아 나며 실소를 금할수 없다. 또한 그것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고 환영해 주던 진주사람들의 뜨거운 정으로 안겨 오며 가슴을 젖어 들게도 한다.

전쟁은 점점 더 가렬해 지고 있었다.

전선이 이동되여 제6사단이 경남 사천에 주둔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나는 취재관계일로 6사단 문화부에 갔다가 진주로 돌아 오느라 남강다리로 향하고 있었다. 막 다리를 건느려는 순간 굉음과 함께 미군비행기편대가 몰려 오는것이 아닌가. 갑자기 몸을 숨길 곳이 없어 뛰다보니 다리옆 폭격에 타버린 빈터에 가마솥이 하나 굴러 있는게 눈에 들어 왔다. 이미 남강다리는 폭격을 당하고 있었다. 하도 급해서 나는 그만 가마솥을 둘러 쓰고 웅크렸다. 폭격이 끝난 다음 가마솥을 벗고 일어 서니 가마솥검댕이로 온몸이 새까맣게 되여 버렸다.

옷을 벗어서 남강물에 씻어 풀덩굴에 널어 놓고 앉아 나는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에 대해 생각했다. 파괴된 다리와 여기저기 마을에서 타오르는 연기기둥을 보느라니 불현듯 미국놈들에 대한 증오로 치가 떨렸다. 미국과의 전쟁, 우리는 《세계최강대국》 미국에 맞서 조그만 내 조국을 지켜야 하는것이다. 허나 나는 그때 미구에 미국만이 아닌 15개국 군대가 밀려 들고 전쟁이 3년을 끌게 되리라는것도 그리고 40여년의 긴긴 세월이 흘러서야 다시 안해와 친지들을 만나게 되리라는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비명에 간 김동지

찌는듯 한 무더위와 적기의 맹폭격속에 우리 인민군대가 전선을 동남으로 밀고 나가던 어느 날, 나는 숱한 경난을 겪느라고 한주일나마 늦어 도착한 《로동신문》을 펼치다가 검은테를 두른 기사를 보았다. 당중앙위원회에서 낸 부고였는데 뜻밖에도 일

제때부터 활동을 해온 오랜 혁명가 김동지가 리승만역도들에게 학살되였다는 부고였다.

그때 나의 심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일제식민지하에서도 쓰러지지 않았던 김동지가 일제가 망한 오늘에 와서 학살 당하다니… 나의 눈앞에는 김동지와 함께 주병포의 얼굴이 얼른거렸다. 일제의 총칼앞에서도 죽지 않은 그들이 왜 오늘에 죽어야 했는가. 그들을 죽인 총탄은 리승만역도의 손에서 발사되였으나 그들을 학살한것은 미국이였다. 나는 기어이 미제를 내쫓고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내가 김동지를 알게 된것은 광복전 주병포를 통해서였고 서울지구 그룹의 주요관계자로서였다.

김동지는 땅 한뙈기 없는 충청북도 충주군 극빈농가에서 태여났으며 자기의 생활체험으로부터 사회주의사상에 공명하게 되였고 투쟁대렬에 들어 선 동지였다. 그는 리승만역도에게 체포되여 갖은 악형을 당하던 끝에 서울로 인민군대의 포성이 가까와 지던 6월 27일 새벽에 학살 당하였다. 하루만 더 살았어도 그는 6.28서울해방의 기쁨을 맛 볼수 있었을것이다.

나는 그를 해방전 서울에서 주병포와 함께 있던 충신동하숙집에서 두번 만나보았다. 그는 풍산에서의 우리의 투쟁에 대하여 무척 알고 싶어했다. 나는 풍산에 대한 그의 관심이 **김일성**장군님의 항일유격대에 대한 관심, 조국광복회조직에 대한 관심이였으리라고 생각한다. 광복후에도 그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워 왔다.

그의 최후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는 이렇게 썼었다.

《륙군특무대장 김창룡과 그 휘하 헌병들은 남산 헌병사령부 대문으로부터 150m 상거한 개천근방 소나무에 그를 결박하였다.

결박된 그는 북향으로 몸을 돌리고 수갑을 채운 손을 세번 높이 들었다 내렸다.

수갑을 채운 손을 세번 높이 든 이 무언의 동작이 그의 최후의 모습이였다.》

헌병들이 감방에서 끌어 낼 때 총탁으로 입을 때려 복도나 도중에서 말할수 없게 된 선생이 왜 최후의 순간에 북녘하늘을 우러러 수갑찬 손을 세번 연거퍼 쳐들었는지를 남조선출판물들에서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 뜻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나로 말하면 감옥과 형무소에서 그런 동지들의 무언의 동작을 한두번만 본것이 아니다. 가고 싶고 보고 싶은 평양하늘, 통일연에서 목청껏 부르고 싶었던 《**김일성**장군 만세!》…

나는 북쪽에 와서야 김동지의 최후와 유언에 대하여 알게 되였고 그의 부인과 딸들의 행방을 알게 되였다.

김동지는 적들의 고등군법회의법정에서

《어제는 일제에게, 오늘은 미제에게 나라를 팔아 먹고 있는 매국역적의 무리들인 네놈들이 감히 애국자들을 어찌 재판할수 있단 말이냐.》하고 통쾌하게 공박했다고 한다.

김동지가 사형전날에 남긴 유언은 옆감방에 있던 동지들에 의해 전달되였는데 그는 유언에서 마음에

걸리는것은 통일연에 장군님을 모시지 못하고 가는 것, 장군님을 인생이 다할 때까지 모시지 못하는 것, 장군님의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것이라고 했다는것이다.

그는 최후를 각오했을 때 안해에게 《당신이라도 살아서 감옥문을 나서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가오.》라는 유언을 전했다고 한다.

부인은 6.28서울해방후 만삭이 된 몸이였으나 북행길에 올랐다.

그때부터 김동지의 부인과 딸들은 장군님의 배려와 관심속에 살았다. 장군님께서는 그를 병원에 입원시켜 감옥에서 받은 고문의 후과를 가시게 했고 전략적일시적후퇴의 길을 걸을 때는 운반수단과 함께 이불까지도 보내주시였다.

전후에는 모란봉아래에 처음 세운 다층문화주택에 들었고 지금은 중구역 류성동의 고층주택에서 살고 있다. 장군님께서는 벌써 한두번만 아니게 부인을 만나주시여 김선생은 남조선에서 잘 싸운 애국자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또한 김동지의 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배려속에서 남산중학교를 다녔고 각각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대학을 다녔으며 지금은 당과 국가기관의 여러 직무에서 자기 사업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김동지는 오늘 형제산구역 신미리에 있는 애국렬사릉에 안장되여 있다. 그의 흰 화강석비에는 《남조선혁명가》라고 붉은 글자로 새겨 져 있다.

사대매국노들과 반공광신자들은 그의 분묘마저 없애 버렸으나 선생은 여기 평양의 애국렬사릉에서 영생하고 있다.

혁명가들이 영생하는 땅, 영생을 안겨 주는 땅 내 조국, 나는 내 조국의 남쪽땅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생을 바친 나의 동지들이 영생하는 참된 조국이 되기를 바란다.

운명의 갈림길에서

1950년 8월 중순 인민군부대들은 락동강도하를 개시했다. 내가 나가 있던 6사는 8월 7일에 2만 4천여명의 미군과 수백대의 땅크, 대포가 동원된 《킨작전》을 짓부셔 버렸다. 그중의 족제비고지라고 부르던 342고지전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족제비고지는 미군 5련대가 지키고 있었는데 인민군대의 세찬 공격에 지탱하기 어렵게 되여 미해병려단의 대대들이 급파되여 왔다. 그런데 미해병려단이 고지아래에 도착했을 때 미5련대가 차지한 산중턱에서 총탄이 마구 쏟아 졌다. 해병려단의 대대들은 총도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소멸되고 말았다.

인민군부대는 낮에 적들을 극도로 피로케 한 다음 대번에 총 한방 쏘지 않고 고지를 포위하는데 성공하였고 날이 밝으면서 적들을 고지꼭대기로 올리몰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증파된 미해병대를 접근시킨 다음 몰사격을 퍼부은것이였다.

고지우에 포위된 미군은 공중으로부터 물과 탄약을 공급 받는다는것이 3분의 2는 인민군진지에 떨어 졌다. 아군전사들은 적기들을 보고 《공급소》라고 불렀다.

그와 함께 미야포대대들을 소멸한 봉암리도로전투, 미림시해병대대를 전몰시킨 시천전투 등은 참으로 대승한 전투들이였다.

락동강이 돌파되자 미군은 자기들도 제2차대전시기 노르망디상륙작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한 대폭격을 매일같이 들이댔다. 락동강의 좁은 지역은 미군을 비롯한 15개국 군대, 패주해 간 괴뢰군들로 문자그대로 가득찼다.

너무도 현저한 력량차이가 생겼다.

그런 속에서 1950년 9월 15일 미군은 3일간의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보면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적아간의 너무나 현격한 력량차이로 인민군련합부대들은 전략적일시적후퇴의 길에 올랐다.

나는 6사단 병사들과 행동을 함께 하고 있었다. 적아간의 포탄들이 포물선을 그리는 가운데 낮에는 미군비행기의 폭격때문에 잠복해 있다가 밤이면 은폐해 둔 무기들을 옮기면서 후퇴해야 했다.

남해바다를 지척에 두고 북으로 다시 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던지. 어떤 전사들은 차라리 여기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죽겠다고 버티기도 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며 죽음을 묻으며 여기까지 달려 온 통일의 길이였던가. 전사들은 누구나 피눈물을 흘렸다.

때때로 길에서 유격전을 하러 산으로 들어 간다는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경남도당을 비롯한 각 기관들이 산으로 들어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런 정황에서 내앞에는 두갈래 길이 놓여 있었다. 태백산줄기를 넘어 북으로 갈것인가, 남쪽에 남아 유격전을 할것인가. 사실 북으로 가고 싶었다.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안해도 그리웠다. 그러나 갈수가 없었다. 지금 《세계최대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내 조국땅의 허리를 끊어 놓은것이다. 일제와 싸웠던 15년이 새삼 떠올랐다. 일제가 물러 간지 겨우 5년, 그런데 이제 또다시 미국과 싸워야 하는것이다. 어머니와 안해 그리고 동지들과 헤여 져 떠나올 때 《승리의 날 만납시다!》하던 약속도 떠올랐다. 중앙당에서 과업을 받을 때도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했었다. 승리란 통일이다. 그런데 외세를 몰아 내지 못하는한 자주독립도 조국통일도 무망한 일이다. 내 승리하기전에 무슨 낯으로 어머니와 안해를, 동지들을, 평양하늘을 떳떳이 보랴. 조국통일을 이룩하기전에 내 어찌 떠나온 고향땅을 다시 밟으랴.

이때 나에게 생각 키웠던것은 주병포였다. 그가 왜 왜놈이 망한후에도 고향으로 돌아 오지 않고 서울에서 싸우다 생명을 바쳤던가. 그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그 두갈래 길앞에 서서 나는 34년간 걸어 온 생을 돌이켜 보았고 나보다 먼저 떠나간 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풍산에서 장백으로, 룡정으로 떠돌아 다니던 때도 회상했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품고 오르내린 세월, 도꾜시절에 대해서도 회상했다.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하루처럼 흘러 가 버린 광복후 5년간의 생활, 그 생활을 깨뜨린 전쟁의 포성, 남해바다가 지척에 있고 통일이 눈앞에 있을 때 막아 나선 미국과 사대매국노들… 나는 결심했다.

《내 나이 이제 겨우 서른넷. 이제는 펜대신 총을 들어야겠다.》

파발리의 총소리를 들은 때부터 이 가슴에 품어 오던 유격전사의 꿈은 이렇게 실현되였다고 할가.

나는 6사단 후퇴대렬과 헤여 져 혼자서 지리산으로 들어 갔다.

지리산

나는 88년 말 석방된후 《지리산》, 《남부군》 등 지리산유격대의 활동을 소개한 몇권의 책에 접할 수 있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지들도 대부분 그 책들을 일부러 찾아 읽었던것으로 알고 있다. 지리산에서 붙잡혀 30년이상이나 담안에 갇혀 있다 나온 사람들이 그날의 력사가 담밖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것은 당연한 일일것이다. 그런데 앞서의 책들을 읽은 동지들은 하나같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왜 분노하는가.

《남부군》이란 책이 영화로까지 만들어 져 관객을 동원하고 있을 때였다. 서울에서 어떤 로동조합의 간부를 맡고 있다는 청년 두사람이 한 아무개라는 우리 동지를 찾아 왔다. 한동지는 경남부대에서 최후까지 유격대대원으로서 전투를 했던 사람이다. 그는 50년 입산때부터 54년 체포될 때까지 하루도 총을 손에서 놓아 본적이 없었다.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더라고 한다.

《〈남부군〉이란 영화를 보았는데 끝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영화는 추위와 굶주림속에서 온산을 쫓겨 다니다 죽어 가는 비참한 모습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렇게 죽어 간것입니까?》

매일같이 사선을 넘으면서도 끝까지 지리산전선을 떠나지 않았던 유격대전사인 그 동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 책이나 영화에는 그 질문에 대한 옳바른 대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운명의 장난에 빠진 사람들〉, 〈력사의 수레바퀴에 깔린 사람들〉이라는 식의 문학적인 수사들이 나오고 그것은 독자를 허무주의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 책이 출판된 목적이기도 할겁니다. 지리산에서 내가 총을 들고 싸울 때 나는 바로 당신들과 같은 20대 청년이였습니다. 내가 총을 든 리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라의 주인, 즉 인민이 주인되는 정부를 세워 보려고 나선것입니다. 지금 남쪽에서는 인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당시에는 인민이라 하면 친일파, 민족반역자, 매판자본가, 악질지주, 악질종교인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였습니다. 일제에게 40여년을 뜯기다 광복을 맞았는데 광복조국에서도 친일파들이 되살아 나 미국을 등에 업고 날치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백성이 주인노릇하는 정부아래서 한번 살아 보겠다는 열망이 목숨보다 강했던것이 그렇게 리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리산에 뼈를 묻은 조국의 아들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이 웨침은 나의 웨침이기도 하다. 그것은 낮으나 피 타는 웨침이였다.

인민이 주인된 세상, 외세가 없고 사대매국노가 없는 세상을 위해 멀리 북쪽하늘아래의 땅을 리상향으로 그리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를 웨치며 쓰러져 간 나의 동지들, 그들은 조국을 위하여, 통일독립된 인민의 조선을 위하여 싸웠다.

그것은 사대매국과 자주애국간의 전쟁이였다.

그날에 군경의 총탄은 이 땅에서 푸르러 가고 있던 민족의 얼을, 자주와 애국의 얼을 쏜것이다. 나와 나의 동지들은 《운명의 장난에 빠진 사람들》도 아니며 《력사의 수레바퀴에 깔린 사람들》도 아니다. 우리는 당당히 자기의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력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싸웠고, 피를 흘렸고 죽었다. 성스러운 위업에 바친 피와 죽음은 헛된것일수 없다.

내가 남에서 수기를 쓰려고 생각했던것은 지리산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는 참을수 없었기때문이다. 나는 지리산유격대의 진실에 대하여, 나의 동지들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지리산유격대의 연혁이나 력사에 대하여 쓰려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력사가들이 할것이다. 나는 다만 지리산에서 만났고 알게 되였고 함께 싸웠던 동지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할뿐이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였으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싸웠으며 꽃다운 청춘을 바쳤는가 하는것을 세상에 알리는것이 산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내가 두려워 하는것은 이 글이 나의 동지들에 대한 추도사로 되지나 않을가 하는것이다. 그들에 대

하여는 추도사가 아니라 찬가를, 송가를 불러야 마땅할것이다. 나의 동지들에 대한 추도사는 북과 남이 하나로, 인민의 세상으로 되는 통일의 날을 위하여 아직은 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조국의 푸른 하늘이 비끼기전에는 그들의 눈이 감겨 지지 않을것이다…

입산

당시 지리산에는 경남도당을 비롯해 하동, 산청, 진양군당과 각 지역 인민위원회, 녀맹, 농맹, 민청등의 외곽조직 등 7～9월동안 여러 지역에서 공개활동을 벌렸던 모든 기관들이 전략적일시적후퇴시기를 맞아 온통 올라 와 있었다. 그들이 바로 수년간 삼남지역을 들썩하게 한 지리산유격대의 전신이였다. 산에 들어 가 풀뿌리를 먹으며 싸울지언정 다시는 미국과 사대매국노들의 통치하에서는 살지 않으리라는것이 그들의 결심이였다. 인민의 세상이 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다시 진공해 나올 인민군대와 함께 싸울 각오를 다진 사람들이 바로 지리산유격대 대원으로 되였다. 지리산의 높고 낮은 산발마다가 반미반괴뢰투쟁의 결심으로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도 내가 서야 할 대오를 찾아 가야 했다. 나는 우선 경남도당이 터를 잡고 있는 함양군 마천면 세동부락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마침 도당일군들이 유격대원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이와 난 곳, 전직에 대한 물음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왜 유격대에 입대하려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다. 내앞에서 여러명의 심사가 진행되였는데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미제와 리승만매국역도를 내몰고 온 조선땅이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를 받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것이였다.

스무살 남짓한 한 동지는 《우리 집안에서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맏형은 리승만의 〈5.10 단선〉을 반대하여 투쟁하다가 희생되고 어머니와 둘째 형은 8월총선거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찬성투표한때문에 학살 당했습니다. 난 죽어도 공화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습니다.》하고 울면서 말했다. 그때 나는 그를 보면서 전쟁전 8월총선거에 남조선유권자의 77.62%가 비밀리에 참가하여 찬성투표했다는 보도를 듣던 생각이 났다. 바로 그 77.62%라는 수자가 수백만 유권자들의 붉은 피로 새겨 진것이였다. 지리산으로 들어 온 사람들은 너나 없이 8월총선거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찬성투표한 사람들로서 그들에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단순히 38° 선이북에 세워 진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 고향땅에 세운 나라이기도 했다. 다시말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들모두의 참된 조국이였다.

그 동지는 물론 합격되였는데 심사하던 안동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아 주며 《**김일성**장군님과 우리 공화국을 위하여 잘 싸워 봅시다.》하고 고무의 말을 했다. 나도 그런 동지와 같이 싸울 생각을 하니 무척 기뻤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섰던 나는 몸이 약하다고 심사에서 떨어 지고 말았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정해 보았으나 막무가내였다. 입산이 거절되는 바람에 나는 그 젊은 동지의 이름도 알 사이없이 헤여 지고 말았는데 그후로는 더 만나보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잘 싸웠으리라고 믿어 마지 않는다.

불합격을 맞은 나는 다급한 마음에 심사를 책임진 안동지(나는 전부터 그와 안면이 있었다.)를 붙잡고 합격시켜 달라고 애원했으나 안동지는 역시 안된다고 머리를 흔드는것이였다.

《유격투쟁이라는것은 건강이 좋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거요.》

하고 그는 안경 낀 나의 얼굴을 동정하듯이 바라보았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안경이 나를 나약한 사람으로 인식케 한것 같았다. 안동지는 동정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심사에서는 한발자국도 양보하려하지 않았다. 나는 물러 설수밖에 없었다. 안동지는 나중에 체포돼 감옥살이를 오래 했는데 나는 60년대 대전형무소에서 그를 만난적이 있다. 그때도 나는 옛날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지리산에서 있은 인물심사에서 떨어뜨렸다고 원망을 하였는데 안동지가 정말 미안하게 되였다고 사과하던 기억이 난다. 안동지는 오랜 옥고끝에 지난 87년 대전교도소에서 간경화증으로 죽었다.

심사에서 떨어 지고보니 차라리 북으로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바위에 기대앉아 조국의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날이 밝으면 군당으로 찾아 가 보기로 마음 먹었다. 그때는 각 군당들에서도 유격대를 조직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던것이다. 다음날 진양군당이 대원사골에 터를 잡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혼자서 산길을 타기 시작했다.

마천면부근을 거의 벗어 났을 때 뜻밖에 6사단 문화부사단장인 김영준동지일행을 만났다. 일제때 영양실조에 걸린 우리 어머니에게 까마귀고기를 처방하여 어머니를 쾌차케 했던 바로 그 김동지였다. 정

말 반가왔다. 그들은 내가 떠나온 세동부락으로 가는 길이였다. 나는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 같아 심사에 떨어 진 이야기를 비쳤다. 김영준동지는 그런데 어데로 가는가고 물었다. 내가 대원사골로 가고 있는 사연을 얘기했더니 김동지는 근심스런 얼굴로 말했다.

《중앙에서 후퇴하라니 후퇴하는게 좋지 않겠소?》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말을 듣지 않자니 민망했는데 기왕에 결심한바가 있었기에 나는 대답했다.

《이왕 뜻을 세우고 산에 들어 왔으니 산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때 김동지옆에 있던 사람 하나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후퇴하라면 하는거지 왜 건방지게 말을 듣지 않는건가.》

그는 중앙당 농민부장 리구훈이란 사람이였다. 전에도 자기 직위를 믿고 권위적으로 행동한적이 더러 있었다. 이 혼란시기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처럼 잘 알아 보지도 않고 기분주의적으로 행동하는게 안타까와 나는 다시 한마디 했다.

《저는 산에 남겠습니다. 저도 이 시기에 질서 있게 후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꽤나 궁리하여 결정한 일입니다. 중앙을 빙자해 동지가 자기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는것은 관료주의적태도가 아닙니까?》

김동지가 나더러 그만 두라고 했다. 리구훈은 입이 쓰거운듯 외면하고 있었다.

결국 리구훈과 별로 좋지 않은 낯으로 헤여 졌는데 김동지 보기가 미안했다. 나는 마천에서 깊은 골짜기를 타고 산청군 삼장면으로 넘는 길인 쑥밭재를 향해 출발했다.

이것이 김영준동지와의 마지막상면이였다. 나중에 들은데 의하면 김영준동지의 일행은 경북도당거점에 들렸다가 포위공격해 오는 괴뢰군들과 접전하게 되였다고 한다. 그 전투에서 김영준동지와 일행은 희생적으로 싸웠으나 중과부적인 력량차이로 종시 포위를 벗어 나지 못하고 모두 전사하였다는것이였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김영준동지를 생각하니 우리 민족의 명의를 한사람 잃었구나 싶어 가슴 아팠다. 또한 나와 사이가 나빴을뿐 리구훈동지 역시 우리 당의 일군이라는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팠다. 그들의 생명은 우리 당의 조국통일위업을 위해 바쳐 진것이 아니겠는가…

쑥밭재로 올라 가다가 해가 떨어 졌기에 한 외딴 농가에 몰래 들어 가니 낯 선 사람이 하나 있었다. 함경남도 농민동맹에서 공작대로 나왔다가 후퇴하는 길이라 했다. 그와 저녁 내내 이야기하다가 아침에 일어 나니 옆자리가 비여 있었다. 말도 없이 혼자 가버린것이다. 내가 유격대에 남겠다니까 굳이 같이 가자고 권하지 않고 떠나간것 같았다. 리해는 되면서도 혼자 골을 오르느라니 쓸쓸한 마음을 지울수가 없었다.

온종일 골을 올라 쑥밭재에 다달으니 전쟁전 경찰들이 구유격대 《토벌》을 위해 설치한 화점이 보였다.

지리산이 처음으로 유격활동의 거점으로 된것은 아마 《국군》 14련대가 폭동을 일으켰던 려수인민항쟁세력이 입산하면서부터였을것이다. 그때로부터 수년간 지리산유격대는 군경의 《토벌》에 맞서 싸우며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지만 굴하지 않았다. 나는 전쟁전 49년 3월에 《로동신문》에서 《동기토벌》을 분쇄한 지리산유격대에 대한 기사를 읽은적이 있었다. 그 기사는 김선생이 남에서 써보낸것이여서 더 기억에 남았던것 같다.

지리산유격대는 인민군대의 진공과 함께 이 지역이 해방되자 산을 내려 민주개혁을 비롯한 새로 선 인민정권기관 사업에 투신하였었다.

그런데 한달 남짓한 기간이 지난 오늘 또다시 유격투쟁을 위하여 입산하게 된것이였다. 조국통일이 참으로 간고한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미국만 아니였다면 하는 생각에 주먹을 떨었던것도 물론이다.

쑥밭재를 넘어 대원사방향으로 내려 가니 소가 한 20마리 널려 있고 웬 젊은이들이 그 소를 지키고 있었다. 물어 보니 진양군당소속이라 했다. 그들의 말인즉 전략적일시적후퇴시 인민군군인들이 사천, 고성방면에서 들판에 널려 있는 소를 붙잡아 탄약을 싣고 왔는데 험한 바위길로는 더 이상 소들이 들어 갈수 없어서 자기들에게 주인을 찾아 주라는 부탁을 하고 떠났다는것이였다.

그 말을 듣느라니 문득 대전에서 목격한 일이 생각났다.

그것은 대전부근의 어느 도로에서 있은 일인데 적기의 맹폭격에 어쩔바를 모르고 허둥거리는 한 아이

를 구원하다가 새파랗게 젊은 인민군중위가 희생되였다. 아이를 안고 쓰러졌던 젊은 중위의 가슴에 붉은 피가 번져 가는데 철 없는 아이도 사태가 짐작되는지 《아저씨》하고 목 메여 부르고 있었다. 그때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 대한 기사를 썼었다.

주인이 어디론가 피난 가면서 버리고 간 소들, 걸음걸음 식량부족에 맞다들리는 후퇴의 길에 그 소들을 잡아 식량을 보충한들 누가 뭐라겠는가. 하지만 주인이 있을것이니 돌려 주어야 한다는것이 인민군대의 도덕이였다. 그때 나는 인민의 군대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였다.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군대, 그들의 면모는 진격의 길에서도, 어려운 후퇴의 길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때의 일을 기억에 더듬느라면 요즘 신문과 텔레비죤에서 매일 같이 보게 되는 공화국 방방곡곡에서 일어 나는 군민일치의 미풍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 학교―우리 초소》, 《우리 초소―우리 농장》 또는 《우리 공장―우리 초소》 등의 관계를 맺고 군대와 인민이 서로 돕고 위하는 사실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후에는 더욱 거세찬 사회적 흐름으로 확대되고 있는것이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43년전에 있었던 군민일치의 작은 일화나마 더듬어 보게 되니 참으로 감회 깊고 긍지가 새삼스럽다.

소를 지키는 젊은이들이 군당은 대원사에서 한 20리정도 더 이동했다고 나에게 말하였다.

결국 20리를 더 걸어 진양군당터에 도착하였다. 위원장을 만나 심사에 떨어 진 이야기를 하고 군당유격대원으로 써달라고 사정한즉 취사장에 가서 밥

부터 어서 먹으라고 했다. 식사후 부르기에 입대승인인가 하고 가보니 위원장이 말했다.

《우리는 평촌마을로 옮기니 여기서 소를 지키고 있으시오.》

소주인들이 있는 사천, 고성방면으로 갈수가 없어서 이곳 농민들중 소 없는 농민들을 조사하여 나눠줄 예정인데 그때까지만 지키라는것이였다. 이것을 첫 임무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입대시키기 곤난하다는 의미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군당은 마을로 내려 가고 나를 포함하여 북에서 온 세사람과 그 지방사람 둘이 산에 남았다. 산에 있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외로운 산생활에서 사람 사는 마을에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한결 같다. 더우기 그리운 가족을 멀리하고 조국통일투쟁에 보탬이 되겠다고 남은 나에게 소나 지키고 있으라니… 쓸쓸한 마음을 《조국이여》를 되뇌이며 달래면서 이틀을 보냈는데 같이 남아 있던 북쪽출신중의 하나가 떠나겠다고 나서는것이였다.(그는 진양군내무서장의 책임을 맡고 남으로 내려 왔었다.)

《군당위원장이 소를 지키라 했으니 이는 당의 과업이요. 이 일을 수행하지 않고 가겠다는거요?》

《군내무서장으로 파견되여 온 나를 산에 남겨 놓고 자기들만 부락으로 내려 간 처사는 리해할수 없소. 길이 막혔다 해도 산으로 가다 보면 후퇴할수 있는 길이 있을것이요. 나는 가겠으니 식량을 내주시오.》

이바람에 북쪽출신 또 하나가 같이 가겠다고 나섰다. 그는 군당선전부부장으로 파견돼 온 동무였다. 할수없이 가지고 있던 밀가루를 내여 주었다. 그들

은 한되가량 덜어 떡을 쩌가지고 떠났다. 이런 판에 내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묵묵히 소결을 떠나지 않는 그 지방출신들을 보기가 민망해 나만이라도 여기에 있어야겠다 하고 있던중 진양군당 선전부장 정영섭동지가 부락에서 올라 왔다. 그는 이번 서울해방때 형무소에서 나온 진실한 사람이였다.

《이렇게 남아 있으라 해서 미안하오. 위원장동지의 지시이니 내려 갑시다.》

이렇게 해서 소 지키는 일은 끝이 났다.

소를 몰고 평촌부락으로 내려 가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게 촌놈이 큰 도시에 처음 온것처럼 얼떨떨했는데 어쨌든 살것만 같았다. 그러나 진격당시 우리 인민군을 대하던 친절한 태도와는 달리 은근히 경계하는듯 한 그곳 사람들의 기색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다가 다시금 생각해 보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제 다시 미군과 괴뢰군이 들어 오면 무슨 만행을 할지 알수 없으니 그들의 마음이 편안할리 없었다. 이제 우리가 잘 싸워 승리의 신심을 준다면 그들도 반갑게 맞아 주리라고 생각하니 힘이 났다. 길은 하나였다.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전쟁승리를 위하여 힘껏 싸우는 오직 한길뿐이였다.

다음날 진양군당이 산청군 단성면 울리로 떠난다기에 따라 나섰다.

진양군당에서도 유격대원 시켜 준다는 말이 없어서 이제나저제나 하며 며칠을 보냈다. 하루는 위원장이 부른다기에 가보니 잘 모르는 사람이 와 있었다.

《저는 도당에서 왔는데 그간 동지가 어디 있는지 각 군당에 련락해 보는 과정에 어제야 비로소 확인되여 즉시 데리러 왔습니다.》

그동안 받아 주는데없이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했던 노여움이 한꺼번에 솟아 올라 볼 부은 소리가 나왔다.

《심사에도 떨어 진 나를 데려다 어디다 쓰려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니 리해하시오.》

어쨌든 더없이 반가와 그를 따라 나섰다.

지리산 외곽릉선인 달뜨기재를 넘어 삼장골을 가로 질러서 대원사골에 올랐다. 새재를 넘어 반곡부락에서 자고 이튿날 음천골을 올라 세동부락에 닿았다. 도당일군들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남경우도당위원장이 《미안하게 되였다》며 반가이 맞아 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허동욱부위원장이 《미안하니 어쩌느니 하는것은 부르죠아형식에 지나지 않으니 다 그만 두고 일이나 하자》며 다음과 같이 힘 주어 말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반공〉을 내세워 조선침략전쟁을 하고 있는것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저 히틀러, 무쏠리니,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을 〈반공〉으로 은페하려다 멸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또다시 그런 방식으로 력사를 후퇴시키려는 미제가 그들과 무엇이 다른것입니까? 그러니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우리모두 목숨을 걸고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퇴기에 대렬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범한 과오를 랭정히 반성하면서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는 지리산유격대 대원이 되였다. 그때의 흥분되던 감정이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다.

《경남도당신문》

도당에 돌아 와서 보니 하동, 산청, 진양군당산하에 유격대들이 착착 꾸려 지고 있었고 이 유격대들을 경남통합부대로 만든다고 하였다. 사령관으로는 유능한 군사간부 리영희동지가 거론되고 있었는데 그는 려순사건의 주역인 려수 14련대출신이였다.

한편 지리산유격대를 《토벌》한다고 괴뢰군 5사단이 남원에 주둔하고 있기는 했지만 51년 2~3월까지 지리산린근은 완전한 해방구였다. 도당, 군당을 비롯한 각 기관들은 부락에 터를 잡고 숙식을 하였으며 유격대들도 주로 괴뢰군이 해방구안의 부락으로 들어 오지 못하게 방위하는 정도의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이때문에 당시 지리산내에는 전투원보다는 비전투원이 더 많았는데 나는 결국 유격대원으로는 못 가고 경남도당 선전부에서 도당신문을 발행하는 일을 맡게 되였다. 종군기자라는 직무를 띠고 전선으로 나왔던 나였으니 이렇다 저렇다 타발을 할수도 없었다. 동지들은 나더러 도당신문을 내야 할줄 미리 알고 입산한것 같다고 롱을 했다. 이리하여 나는 인민군종군기자로부터 유격대종군기자로 되였다. 신문발행준비를 하기 위해 산속에 있는 무전기반에 가서 2~3일 있다가 부락에 내려 오니 허동욱부위원장이 전북에 급히 좀 갔다 오라고 하였다. 용무는 전북도당과 경남도당의 련락선을 맺고 오는것이였다.

전쟁전부터 산생활을 해서 지리를 잘 아는 사람 하나, 조직부 통신과장 그리고 나 셋이서 남원군당

선을 타고 급히 출발했다. 6일만에 전북거점인 회문산에 닿아 전북도당위원장 방준표와 련락선을 맺었다. 3일간 머물던중 괴뢰군의 공세가 있어 급히 경남으로 돌아 왔는데 그길로 덕유산으로 떠나라는것이였다. 쉬지도 못하고 무전반과 함께 떡갈산에서 하루밤을 자고 함양군 숙망령을 넘어 농골이라는 마을에 가니 허동욱부위원장이 와 있었다. 신문발행을 급히 하라는것이였다.

사흘후 남경우위원장이 도착했고 도당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직위원회는 경남도당의 주요간부로 구성되였는데 당의 로선을 토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도당의 최고기구였다. 이후 조직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신문발행을 시작했다. 신문이래야 기계로 인쇄하는것이 아니라 원지를 긁어 등사기로 밀어 발행했지만 산에서 하자니 말할수없이 힘들었다. 우여곡절끝에 원지는 일본 아세다제의 고급원지를 2,000매이상 확보하였고 백지도 상당량 장만하였다. 소식란에는 무전기로 받은 《중앙통신》과 각시, 군당에서 매일 올라 오는 투쟁보고를 싣기도 하고 사설, 론설은 편집계획에 따라 각 부문 책임자들에게 과업을 제시하여 쓰도록 했다. 이리하여 신문은 매주 한번씩 발행되였다.

크지도 못하고 부수도 많지 못한 신문이였으나 신문은 유격대원들속에 널리 애독되였다. 배포가 늦어 지면 사람을 보내여 독촉하기까지 했다. 특히 **김일성**장군님의 1950년 10월 11일 방송연설을 실었을때는 신문부수가 모자라 상당히 애 먹었다. 누구나 한부씩 건사하려고 했기때문이다. 만나는 사람들의 인사가 《신문을 읽었소?》하는것이였고 《읽었소.》하고 가슴을 툭툭 치는것이 대답이였다. 안주머니

에 한부 넣었다는 뜻이였다. 인민군의 재진공이 시작되여 청천강이북과 장진호반에서의 대포위전소식을 실었을 때는 정말 대단했다. 평양해방, 함흥해방, 2차 서울해방… 그 나날에는 북쪽에서 포성이 울리면 인민군대의 포성처럼 들린다고 유격대원들은 말했었다.

지리산에서 발간한 《경남도당신문》은 8절지의 크기를 넘지 못했으나 유격전사들에게 당의 목소리를,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알려 주는 선전자였으며 전사들을 위훈에로 추동한 고무자였다.

지금은 한장의 신문도 나의 앞에 없으나 눈을 감으면 검은 잉크로, 때로는 보라색잉크로, 지어는 빨간색으로까지 찍혀 있던 신문, 유격전사들의 품에 안겨 지리산의 깊고 험한 계곡을 옮겨 가던 신문이 삼삼히 떠오른다.

그 나날에 한밤중 지리산 안장바위릉선에서, 남해 와룡산에서, 또 오부면 떡갈산에서 타오르는 봉화를 보며 가슴에 떠오르는 감회를 시로 지어 신문에 실었던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여기에 적어 본다.

저기 높은 산너머 해는 기울고
바삭바삭 가랑잎 불어 날리는
소름 돋는 찬바람 얼굴 시린데
적의 시선 피하며 혁명길손이

깔려 덮인 어두움 눈앞 가리여
분간 못할 오솔길 돌뿌리 차며
저기 높은 외딴집 등잔불빛이
반짝이는 방향을 목표 삼아서

저기 멀리 마을서 개 짖는 소리
원쑤들의 기척에 놀래 짖는가
발 멈추고 촘촘히 박힌 화점의
적의 동태 살피며 다시 앞으로

침략 위해 원쑤가 덮어 쓴 가면
《자유반공》 탈 쓰고 총칼 휘둘러
피내 맡고 미치인 살인귀들을
애국투쟁 불길로 쓸어 버리리

원쑤들의 발톱에 짓밟히는 땅
새 력사의 새 기발 휘날리려고
혁명의 길 떠날 때 이겨 오라던
미소 짓던 그 얼굴 언제 만나리

이 산 저 산 봉마다 솟는 불길은
원쑤들의 가슴에다 칼을 박는 불
백전백승 통일의 기치 드높인
타오르는 불길인 저기 봉화여

비장한 죽음

그때 남해려단장 리청송동지가 후퇴로가 막혀 덕유산 구천동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 왔다. 도당은 사람을 보내 리청송남해려단장을 데려 왔다. 이후 경남도당 조직위원회는 리청송부대와 경남부대와의 합동투쟁을 벌리기로 결심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전개된 투쟁이 《안의전투》였다.

안의는 함양군에 있는 면소재지이다. 이 전투에서 리청송부대는 거창으로 통하는 기동로를 장악매복하기로 하고 경남부대는 안의공격을 위한 돌격대의 임무를 맡았다. 이를 위해 그 방향의 고지에 중화기소대를 배치하여 엄페해 둔 중화기거점을 책임

지게 하고 전투 총 지휘는 항일유격투쟁에도 참가한 적 있는 우수한 군사간부 ○○동지(필자가 그만 이름을 잊어 버렸다.)가 맡았다.

전투가 시작되고 경남부대가 돌격하여 안의전투가 거의 승리할무렵이였다. 련락이 잘못되였는지 기동로를 장악하고 있던 리청송부대가 갑자기 철수하는것이 아닌가. 기다렸다는듯이 경찰부대가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쳐들어 왔다. 돌격부대가 전멸할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였다. 총지휘관 ○○동지는 돌격부대에 후퇴를 명하고 자신은 중화기가 배치된 고지에 직접 올라 가 엄호사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떻게 탐지해 냈는지 중화기고지를 족집게처럼 집어 낸 경찰의 박격포사격에 ○○동지는 희생되고 말았다. 그는 돌격부대가 완전히 퇴각했다는것을 확인하고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평양의 최고사령부에 자신의 최후에 대하여 전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스스로 죽음을 택한 헌신적인 동지의 투쟁으로 돌격부대는 무사히 퇴각할수 있었으나 계획했던 전투는 실패하고 말았다.

손실은 컸다. 중요한 군사간부 ○○동지를 잃고 정예유격전사 몇명이 희생됐다. 중화기고지를 지키던 소대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일급비밀에 속하는 중화기고지의 위치가 사전에 루설된것이 더 큰 문제였다. 우리속에 경찰의 정보원이 잠복하고 있는게 분명했다.

경찰놈들의 추격은 끈질겼다. 결국 정보원의 적발은 후일로 미루고 남해려단에 사전퇴각의 책임을 물어 그 부문 군사간부들을 책벌하고 희생된 군사간부들과 전사들의 주검앞에 추도의 눈물을 흘리며 거점을 다시 지리산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곧 조직부장 강명석의 지휘하에 나를 포함한 비무장 50여명이 떠났다. 산청군 오부면 떡갈산에 도착했을 때 돌연 경찰의 포위공격이 시작되였다.

떡갈령 중간련락소의 책임자는 홍팔십이라는 젊은이였다. 그의 아버지가 여든살에야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팔십》이라 이름 지었는데 기구한 운명사가 담겨 있을 팔십생남의 전후사를 들을 사이도 없었다. 촉박한 정황에서 그는 우리 비무장들이 빠질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돌격대원들은 날 따라 앞으로!》라고 웨치며 경찰놈들을 맞받아 나갔던것이다.

그들이 열어 놓은 돌파구로 우리 비무장들은 무사히 경찰의 포위를 빠져 나왔으나 홍팔십과 돌격대원들은 희생되고 말았다…

용감하게 싸우다 쓰러지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웨치던 그들의 최후를 마음속에 그려 보라. 외아들 홍팔십이 로부모의 지극한 사랑도 초월하고 통일된 내 나라, 내 세상을 위해 지리산에 젊은 청춘을 뜨겁게 묻은 그날의 치렬함을, 그들은 내 나라, 내 세상 통일독립된 조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때문에 젊은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것이다.

우리들은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한 그날, 비무장 50여명을 살리려고 웃으며 숨진 홍팔십의 모습, 그의 마지막 만세의 웨침은 칼로 새긴 도장자국같이 가슴에 선연하다. 이렇게 살아 있는 내가 부끄러울뿐이다. 지리산에서 싸운 수백수천 홍팔십들의 조국애가 바로 흰옷 입은 사람들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바라는 마음인데 누가 우리 조국을 오늘까지 두동강내고 절반땅에 외세와 사대매국노를 부식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산을 타고 골을 내려 와 음천강에 닿았다.

이 강을 건너 반곡부락(이 부락은 그해가 저물무렵 김종원이라는 경찰놈이 진두지휘하여 어린애와 로인까지 모두 학살한 곳이다.)에서 날을 새고 새재를 넘어 대원사골을 지나 평촌부락에 닿았다. 그런데 이 부락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날 경찰의 총 공격을 받아 어수선한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게다가 경찰부대가 다시 쳐들어 온다는 정보가 들어 왔기에 무전반을 데리고 시천장터를 거쳐 거르미골을 올라 동당부락에서 하루밤을 잤다. 그 이튿날 중산마을에 가니 집은 모두 불 타버리고 마을사람들은 타버린 집터에 짚더미를 쌓아 놓고 그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우리들이 마을에서 감을 사서 허기를 채우고 조복애도녀맹위원장이 비상식량으로 지니고 온 쌀과 소금으로 죽을 끓이고 있을 때 하동군당위원장 심상태동지가 왔다. 그날 밤 적세에 대한 토의를 한 결과 하동쪽보다 산청군 삼장면쪽으로 가는것이 낫겠다고 하여 배고픔을 참으며 장고봉을 넘어 삼장면 장대골에 닿았다.

그동안 그 처절한 싸움속에서도 신문을 3호까지 발간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우리가 장대골에 있을 때 인민군 6사단이 북으로 후퇴한 뒤 최후로 남은 인민군으로 조직한 부대가 있었는데 105부대라 불렀다. 조직한 날이 10월 5일이였기때문이다. 105부대 병사들은 전투경험이 많고 병기도 정규군수준의 무장을 갖춘 강한 부대였다. 부대장은 정용세라는 대위였는데 그는 일제하

중국 연안에서 김두봉의 련락병으로 있었던 인물이였다. 그리고 105부대 정치위원은 남해 어느 군인가의 검사로 임명 받았던 자였다.

105부대는 안장바위릉선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무렵엔 후퇴기간이 많이 지났음으로 해서 후퇴로가 막혀 있었다. 즉 추풍령에서 태백산줄기로 가는 길목이 막혀 전투를 하며 넘어 가야 했다. 이때문에 전투를 기피하고 지리산으로 돌아 와서 유격부대와 합류한 뒤 싸우지도 않고 건달치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적발하는 사상투쟁이 벌어 지게 되였는데 이 참에 경찰에 투항하는 자들도 생겨 났다.

그런 자들은 우리 유격전사들을 엉터리 없는 거짓말로 악평하면서 자기는 이제 잘 살게 되였으니 자기를 따르라는 내용의 전단(삐라)을 비행기로 뿌리고 확성기로 《자수하라》고 웨치며 날아 다녔다. 이럴 때마다 전사들은 코웃음을 쳤다.

《휴지 없는데 휴지공급하러 왔다네.》

한 전사의 말에 웃음판이 벌어 지기도 했다.

그런데 날조된 악선전을 리용해 105부대를 당에서 리탈시키려 기도한 사건이 일어 났다. 즉 살포된 삐라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던것이다.

《도당위원장 남경우는 박문규라는 처녀를 비서라고 자기옆에 두고서 105부대를 자기가 머무는 거점호위에 배치하고는 군주 같은 향락을 누리고 있다.》

105부대 간부들은 이런 악선전을 구실로 부대를 끌고 북으로 후퇴하겠다고 나섰다. 자기들은 인민의 군대이므로 거점호위만 시키는 도당의 지도밑에 있을수 없다는것이였다.

당시 도당은 실패로 끝난 리청송부대와의 합동투쟁을 재평가하면서 다음투쟁을 계획하고 있는중이였다. 그 계획이 완성되면 105부대는 전투에 나가야했다. 이런 정황에서 105부대 지휘부의 후퇴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당면한 전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수 없었다.

후에 도당조직위원회가 조사한데 의하면 남경우위원장이 도당거점인 장대골을 지키게 할 목적으로 105부대를 안장바위릉선에 배치한것은 사실이였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부대를 이끌고 당에서 리탈하는것이 옳았는가, 아니다. 이것은 남경우위원장을 트집 잡아 큰 전투를 우정 기피하고 《살길》을 찾아가려던 105부대 일부 간부들의 도발행위였다. 참된 당원이라면 도당위원장에게 원칙적인 비판을 하고 시정하도록 하는것이 마땅할것이다.

당의 지도를 받지 않는 유격부대란 지북침 없는 배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05부대 간부들은 끝내 부대를 끌고 떠나버렸다. 이는 105부대 전사들에 대한 기만이였다.

도당은 즉각 회의를 열고 적에게 다시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 도당호위중대를 17명으로 조직하고 유격부대는 일체 거점주위에 배치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위원장비서 박문규는 산청군녀맹지도원으로 내려 보냈다. 그 어떤 정황에서도 당의 권위나 명예에 관계되는 일에서는 추호의 양보도 없었다는것을 지금도 나는 긍지로 여긴다.

105부대는 당에서 리탈한후 적정을 전혀 알수 없어 투쟁하려 해도 할수 없게 되였다. 자연히 전사들은 일부 간부들의 옳지 못한 처사에 대하여 알게 되였고 격렬하게 반발해 나섰다. 결국 105부대는 추풍령부근까지 갔다가 되돌아 왔다.

105부대가 돌아 오자 도당은 전사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당적립장에서 우선 105부대장과 정치위원의 평상시 계급적립장을 재검토했다. 부대를 이끌고 당에서 리탈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그들의 직위를 떨구어 다른 부문에 배치하였고 사상사업을 강화할것이 결정되였다. 저지른 과오를 솔직한 자기비판으로 시정하고 차후 전투의 선봉에 서도록 하는 사상사업이 진행되였던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기들의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비판을 기피하였을뿐아니라 직위가 떨어 진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변절하였다. 두사람은 한밤중에 경남도인민위원장 배명훈의 터(귀틀집형식으로 지은 유격대거처)에 련발총을 란사하고 그 밤으로 산을 빠져 나가 삼장지서에 투항하였다. 이들의 총질로 인민위원장의 련락병이 희생되고 배명훈위원장도 부상을 당하였다. 배위원장은 로동자출신으로 일제때부터 함북에서 일했다. 광복후 당의 파견으로 외국류학을 마치고 전쟁이 시작되자 소환돼 남으로 내려 온 사람이다.

이들의 변절행위를 놓고 나는 많은것을 생각했다. 그래 지금까지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단 말인가. 자기 개인의 영달과 안락을 바라고 총을 쥐고 전쟁마당에 뛰여 들었단 말인가. 그들에게는 애초에 애국심도 없었고 당의 위업에 대한 신념도 없었다. 승승장구할 때에는 누구보다 높은 소리로 조국

을 위해 한목숨 바쳐 싸우자고 부르짖었으련만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전략적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벌써 동요하기 시작했던것이다. 그러던차에 직위가 떨어 지고 비판을 받게 되자 즉각 변절했다. 그것도 적들에게 변절을 담보 받기 위해 도인민위원장터에 사격을 가해 인명을 상하게 하고 도주하는 악착한 행위를 한것이다. 한마디로 이자들은 우연분자들이였다. 105부대 부대장 정용세나 정치위원을 하던자는 신념을 지니기전에 먼저 간직해야 할 인간의 초보적인 의리도 량심도 없었다. 이런 자들은 우화에 나오는 박쥐처럼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짐승으로도 되고 새로도 될수 있는것이다. 결국 이자들은 변절하자 바람으로 이번에는 이전의 동지들이였던 유격대《토벌》에 솔선 참가하였다.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자들은 력사의 수레바퀴를 멈춰세워 보려고 헛된 망상을 품은 한마리의 버마재비로 전락한것이다.

남쪽에 있을 때 나는 변절자인 이전 105부대 정치위원이 지리산부근 지방에서 경찰관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희비극이라 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고작 경찰관노릇이나 하려고 동지들을 배반하고 혁명적원칙을 저버리다니. 한마디 더 부언한다면 이런 자들이 경찰관이 되여 활개치는 사회에 그 무슨 정의와 진리가 존재할것인가.

이 사건이 있은 뒤 도당은 대오를 정리하기 위해 군사간부회의를 열었다. 당지도부가 단 하나의 조국에 단 하나뿐인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된 전사들이 호위하는 거점에 들어 앉아 안일한 생활을 하는 일이 없었던가를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것이다. 이 자리에서 도당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변절자들은 투항후 자기 신분을 보장 받으려고 있는 사실, 없는 사실 할것없이 허위날조해 유격투쟁과 군중들을 리간시키려고 하니 일군들은 티끌만 한 결함도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생활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

둘째, 간부들은 하부전사들의 순결한 희생정신을 본 받으려는 사상적준비가 되여 있는가를 자기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하부전사들의 학습을 강화하고 적개심을 제고시키는 사상사업을 전개하여 내부에 더욱 튼튼한 단결을 가져 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조직위원회에서는 의도야 어떠했든 105부대를 안장바위릉선에 배치하여 혼란을 초래한 남경우위원장에게 견책처분을 내리고 중앙에 보고하기로 했다.

그후 105부대 전사들은 잘 싸웠다. 군대란 기계와 같아 지휘관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한다지만 인민의 군대전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부대장과 정치위원은 변절자였지만 전사들을 변절의 길로 이끌어 갈수 없었다. 그것은 전사들이 자기들이 싸우는 목적, **김일성**장군님을 모신 통일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키기 위하여 싸운다는것을 잘 알고 있은때문이였다.

이것이 105부대사건의 전말이다. 나는 자랑으로 될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하여 남쪽에서도 숨기지 않고 썼다. 몇몇 변절자들의 잘못된 지휘로 전투는 실패한적도 없지 않았으나 그 전투마다에서 우리의 전사들은 자기의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바친 영웅들이였다.

전투와 《가갸거겨》, 지리산에서의 송중명

이후 도당이 지휘한 유격투쟁중 우선 이야기하여야 할것이 51년 초봄에 있었던 시천장터전투이다.

산청군 시천면 소재지에 있는 시천장터는 세석평지로 올라 가는 거르미골 입구인데 지리산을 끼고 있음으로 해서 적아간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주요한 요지라 할수 있다. 이때문에 유격대의 기습에 대비하여 세워 진 견고한 화점에는 총구가 입을 벌리고 전사들을 노리고 있었다. 이러니 시천장터전투는 아주 힘든 싸움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이 전투에 가장 강력한 전사들로 구성된 부대를 투입하기로 결정되였다. 선발된 부대는 《호각부대》라 불리우는 부대였다. 그런 이름이 붙은것은 그 부대의 부대장이 아무리 비발치듯 하는 탄우속에서도 선두에 서서 호각을 불며 지휘를 했기때문이였다. 경찰들은 호각소리만 울리면 도망부터 치려 들군 했다. 그 호칭이 하도 유명하여 이름을 미처 알아 두지 못한것이 더없이 아쉽다.

시천장터전투에서도 가장 힘들고 많은 희생이 예견된것은 화점을 파괴하는 전투였다. 이를 위해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이중에는 길택이라는 소년과 원산교원대학 로어과 재학중 전쟁을 맞아 정치공작대로 내려 온 최정옥이란 처녀가 한조가 되여 대기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기들스스로 자진하여 결사대에 망라되였지 결코 명령에 의한 복종이 아니였다.

어린 소년과 처녀가 결사대에 참가하겠다고 나섰을 때 지휘관은 《동무들이 할 일은 따로 있으니 물러 서오.》하고 그들을 제외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가슴에 품은 뜻이 굳세고 숭고하거늘 누가 그들을 어리다고 투쟁의 뒤전에 세울수 있겠는가.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여 결사대에 망라된것이다.

여기서 길택이 이야기를 잠간 해야겠다. 길택이는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사오촌까지 학살 당한 고아였다. 집도 불 타버린 와중에서 겨우 학살을 면한 길택이는 삼촌집에 가 있다가 전쟁을 맞았고 후퇴시에 사촌형과 함께 입산했다. 그러나 사촌형은 고생을 못 이겨 내려가고 길택이는 홀로 산에 남아 전투때마다 자진해서 결사대에 참가하군 했다.

그날 밤 사전배치되여 있던 박격포부대의 공격을 신호로 전투가 시작되였다. 결사대원들은 옆에서 쓰러지는 전우를 돌보지 못한채 화점을 향해 비발치듯 하는 탄환속을 기여 올랐다. 갑자기 길택이가 《아이쿠.》하면서 쓰러졌다. 정옥이가 얼른 끌어안고 만져 보니 옆구리에서 피가 마구 흘렀다. 정옥이는 옷을 찢어 신음하는 길택이의 피나는데를 싸매주고 《가만히 있어라. 화점을 까부시고 올터이니.》하는 말을 남기고 계속 기여 올라 갔다.

결사적으로 한치한치 톺아 올라 화점에 거의 닿았을 때 정옥이는 수류탄핀을 뽑아 쥐고 바싹 다가가 화구에 던져 넣었다.

《꽝!》

순간 화점은 불을 멈추었다. 《돌격 앞으로!》 대기하고 있던 돌격부대가 만세함성을 울리며 지서쪽으로 내달았다. 정옥이가 쓰러져 있는 길택이곁으로 달려 가니 길택이는 출혈이 심해서인지 말도 못했다. 바로 그때 전사한 동지들을 옮기는 부대가 왔

기에 정옥이는 길택이를 의무부대에 옮겨 줄것을 당부하고 집결장소로 급히 갔다.

지서순경들은 도망쳤고 총성이 멎은 시천장터에는 아직도 화약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이곳저곳에서 무장선전대가 군중들을 모아 놓고 목이 터지게 웨쳤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침략한 미제원쑤들과 그 앞잡이 리승만역도를 쳐부시기 위해 싸우는 유격전사입니다. 인민들모두가 잘 사는 북조선과 같은 인민의 세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전투와 군중사업의 열기속에서 나는 문득 호각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깨달았다. 비발치는 총탄속에서도 계속 호각을 불며 전투를 지휘하던 호각부대장이 전사한것이다.

나는 그가 전투를 결속 짓는 마지막 어느 순간에 쓰러졌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의 유언은 부대가 울리던 승리의 만세소리였다고 할가.

한편 의무부대로 실려 간 길택이는 적탄이 옆구리를 스치면서 갈비뼈 한대만 상해 두어달 있으면 나을것이라는 소식이였다. 시천면에서의 전투가 일단락된후 시천장터에 계속 부대를 배치할수 없는 형편이라 우리는 일단 철수했다. 유격투쟁이란 이런것이였다.

그런데 유격부대라고 해서 매일 전투만 벌리는것은 아니였다. 부대가 전투를 나가지 않고 안전지대에 거점을 잡고 있을 때는 조직적으로 학습을 하였다. 학습시간에는 부대자체가 하나의 학교로 변했

다. 반이 편성되고 과목과 강사가 지정되고 교재와 학습장도 지급되였다.

반은 대원들의 학습능력에 따라 상, 하급반, 국문해득반으로 나뉘였다. 상, 하급반에서는 정치경제학, 철학, 항일혁명투쟁사 등의 강의가 진행되였고 정세평가를 위한 신문독보회도 이루어 졌다. 글을 모르는 동지들은 국문해득반에서 가갸거겨부터 배웠다.

전사들의 학습열은 대단했다. 포탄이 비발치는 전투정황에서도 자기 학습장과 연필을 잃지 않으려고 꼭 모자속에 단단히 넣고 다녔다. 전투를 마치고 돌아 와 땀에 젖은 학습장을 소중히 펴서 말리군 하던 전사들의 진지한 표정은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다.

과연 이들을 《극한 상황속에 하는수 없어 입산한 사람》들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이들을 어찌 타의에 의한 《력사의 희생자》들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것은 유격전사들에게 가장 가증스러운 모욕으로 될것이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사명과 임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더욱 깊이 체득하기 위해 언제나 배우려 했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려 했던것이다.

그무렵 지리산유격대를 섬멸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첩자들이 파견되군 했다. 그중 한 경우를 이야기해 보겠다.

시천장터전투를 마치고 도당이 지리산안의 조개골에 주둔하고 있을 때였다. 자칭 관상쟁이라고 하는 자가 어린 소년 하나를 데리고 올라 오다가 보초선에 걸리였다. 그 근방에 림시터를 마련하고 두사람

을 수용하여 조사해 보니 관상쟁이라는 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이북출신으로 관상공부를 수십년 하였는데 유격대전사들의 관상을 보아 주려고 왔다는것이다.

그러나 소년의 말을 따로 들어 보니 그는 해군정보부에서 파견한 자임이 분명했다. 그는 오는 도중 구장집에 들려 대접도 받고 구장과 무슨 약속인지 했다는것이다. 뒤에 판명된바이지만 그자는 자기가 관상 보아 준다고 유격대의 거점까지 찾아 들어 간 뒤 소년을 구장에게 내려 보내면 구장이 《토벌》부대에 련락해서 《토벌》부대가 소년을 앞세우고 거점까지 쳐올라 올 속셈이였던것이다. 구장이 사는 부락의 지역조직에서도 그런 사실이 보고되여 왔다. 관상쟁이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자 밤에 도망쳤는데 아주 빠져 나가지 못하고 숲에 숨었다가 우리 유격대원의 손에 붙잡혔다. 그런데 그 대원이 바로 같은 풍산내기로 전쟁 초에 흥남에서 헤여 졌던 송중명이였다.

조국이 통일된 승리의 날에 만나자던 우리의 상봉은 이렇게 이루어 졌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향에 돌아 갈 날이 미구에 오리라는 확신을 나누고 헤여 졌다. 그때 풍산소식에 대하여 묻던것이 기억된다. 후퇴의 혼잡속에 내 안해가 어떻게 되였는지 몰라 무척 걱정스러웠던 모양이였다. 이렇게 그는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유격대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오히려 걱정하는 성미였다. 하긴 나의 동지들은 누구나 그랬었다…

관상쟁이를 심문하였고 그자의 정체를 폭로했다. 그자와 같이 왔던 소년은 자기가 리용되였다는것을 그제야 알고 너무 분해서 막 울면서 그놈에게 달려

들었다. 그자는 소년을 유격대에 데려다 준다고 속여서 함께 왔던것이다. 그 소년도 적들에게 부모를 잃은 고아였다. 결국 관상쟁이는 처단되였고 소년은 자기의 소원대로 부대에 배치되였다. 그러고 보면 관상쟁이는 우리에게 한 유격대원을 더 보태주려고 온셈으로 되였다.

지리산의 처녀전사들

복잡한 정세들이 뒤엉키는 가운데 도당은 새로운 투쟁계획을 세워 나갔다. 그 일환인 마천전투 역시 51년경이였던것으로 기억된다. 마천은 함양군에 있는 면소재지인데 전북과 경남의 도경계이자 남원군과 함양군사이의 군경계를 이루고 있다. 산우에서 보면 저쪽이 남원군 산내면이고 이쪽이 함양군 마천면임이 빤히 보일 정도로 두 면간의 거리는 지척이였다. 마천에서 밥을 먹으면 텁텁하고 산내에 가 먹어 보면 그 맛이 깔끔하다. 음식맛이 이렇게 다른것처럼 경상도사람들은 겉보기엔 무뚝뚝한것 같지만 무뚝뚝함 속에 진실이 있고 전라도사람들은 겉보기엔 세밀하면서도 그속의 참됨이 느껴 졌던것으로 기억된다.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내면깊이 진실성과 순결성이 깃들어 있다고 할가.

여기서 마천의 지형지세를 잠간 설명해 보겠다. 마천면 앞쪽으로는 음천강이 흐르고 아래쪽에는 문정부락이 있다. 그 건너편이 세동부락인데 여기에는 남원과 함양으로 가는 기동로가 있고 요즘 남쪽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뱀사골로 가는 골짜기가 있으며 아울러 산청군 삼장면으로 넘어 가는 길목인 쑥발재로 오르는 긴 골짜기가 있다.

이처럼 마천은 지리산중심으로 통하는 골짜기들의 입구로서 전략적요지이기때문에 마천지서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화점들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마천전투에서 승리하자면 그 견고한 화점을 격파하는 전투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어린 희생을 각오해야 했다.

이 전투의 화점폭파결사대에 정옥이는 길택이와 함께 또 자진하여 나섰다. 보통키에 몸매가 호리호리하여 어찌 보면 소녀 같기도 한 21살의 처녀, 가무스레한 살결에 반짝거리는 까만 눈을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정옥이의 장하고 용감한 기개에는 남자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번은 내가 정옥이에게 무섭지 않느냐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웃으며 말했었다.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면 나는 저놈들이 나를 죽이고 동지들을 죽이고 우리 인민들을 또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발악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증오와 격분이 솟아 올라 이를 악물고 화점을 향해 기여 가지요. 그리고 전 임무를 받고 나온 정치공작대원이 아니나요.》

그의 품속에는 공화국 국장이 찍혀 진 파견장이 간직되여 있었다.

사실은 그 파견장이 길택이를 완전히 반하게 했다. 그는 정옥에게서 그 파견장을 본 다음부터는 **김일성**장군님께서 파견해 주신 누나라고 하면서 거의 숭배하다싶이 따랐다. 정옥이가 하는대로 따라 하려고 애 썼으며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파견장을 보여 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길택이와 정옥이의 친남매 같은 정을 맺게 해준것은 바로 공화국 국장이 찍혀 진 파견장이였다.

길택은 이제 미제와 리승만역도를 몰아 내고 온 나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면 정옥이처럼 교원대학에 가 교원이 되겠다고 결심했을 정도였다. 정옥은 그처럼 거치른 산생활에서도 길택이의 살뜰한 누나였고 친절한 선생이였다. 이러한 그들이 같이 결사대에 나선것은 이상할것이 조금도 없었다.

계획대로 경찰이 쳐올 가능성이 있는 기동로에 부대의 매복이 끝나고 화점을 맡은 결사대는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전투시작신호가 울렸다.

우리 박격포부대의 선공에 맞서 화점에선 중화기가 미친듯이 불을 뿜었다. 비발치듯 하는 탄우속을 결사적으로 기여 오른 전사들이 화구들을 하나하나 까부신 결과 중화기가 내뿜던 불이 차례로 멎었다.

이처럼 중화기, 경화기들이 미친듯이 불을 뿜고 탄환이 비발치는 속에서 쓰러진 전우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화점을 향해 기여 오를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것일가. 나는 감히 말할수 있다. 그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이미 죽음을 각오하였던것이다.

마지막화구가 뿜던 불을 멈추자 돌격대는 지서로 내달렸다. 이 전투에서 정옥이는 다리에 적탄을 맞아 뼈가 부서졌다. 의무부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기우뚱거리며 걸어야 하는 불구자가 되고 말았다.

유격대생활에서 불구자란 참으로 결정적인 타격이다. 유격대원에게는 발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정옥은 절대로 산에서 내려 가려 하지 않았다. 어떤 동지들은 자기들의 친척집에 가 있으라, 그러

면 친부모처럼 돌봐 줄것이라고 했으나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전 죽어도 산에서 싸우다 인민군대를 맞이하겠어요. 정 내려 보내려면 수류탄을 주세요. 자폭하고 말겠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바람에 더 권고하지 못했다.

결국 정옥이는 무전반에 소속되여 신문원고를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되였다. 그후 정옥이는 한때 무척 우울하게 지냈던적이 있었다. 나는 그 사연이 짐작될듯도 해서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위안 삼아 정옥이답지 않게 왜 그렇게 우울하냐고 물었더니 엉뚱하게도 애인이 있는데 자기를 싫어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였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였다. 자기와 같이 대학에 다니다가 전쟁이 일어 나자 인민군대에 나간 총각이 있는데 자기를 끔찍이 사랑했다고 하였다. 자기도 그를 사랑하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서 만난다면 자기 같은 다리병신이 어떻게 그의 짝이 되겠느냐는것이였다. 용감한 정옥에게서 이처럼 락망적인 근심을 발견한것이 우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더욱 정옥이에게 사랑이 갔다. 그래서 내가 정옥이에게 그 동무는 틀림없이 정옥이를 더욱 사랑하게 될것이라는것, 그가 다리병신이라고 정옥이를 버린다면 그는 정옥이의 사랑을 받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는것, 이러루하게 위안의 말을 하자 정옥이의 얼굴은 밝아 졌다.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처럼 정옥이는 순진한데도 있었다. 그가 우리에게 온 때부터 길택은 짬만 있으면 찾아 왔다. 내가 길택에 대하여 잘 알게 된것은 이로 해서였다.

마천전투에서 숨진 전사들중 신순월이라는 처녀가 있다. 신순월은 전쟁전 함경남도 리원군녀성동맹(이하 녀맹)에서 함흥시녀맹으로 옮겨 일하다가 전쟁과 함께 정치공작대로 남으로 내려 왔었다. 진주까지 나갔다가 입산하여 도녀맹 문교부장으로 있던중 마천전투에 결사대로 참가했다. 순월이는 다른 전우들과 함께 불을 뿜는 화구로 기여 오르다 적탄에 맞아 쓰러졌다. 급박한 전투의 정황에서 동료들은 그 녀자를 내버려 두고 화구를 향해 기여 오를수밖에 없었다. 최후의 화점을 까부시고 결사대원들이 순월이곁으로 달려 왔을 때 순월이는 음성은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런 몸으로 일도 못하고 동지들에게 부담만 될것 같아요. 차라리 자폭하겠어요. 승리한 날 저의 고향에 제 소식을 전해 주세요.》

순월이의 손에는 핀을 뺀 수류탄이 들려 있었다.

신순월은 이렇게 갔다. 그의 고향에 부모가 있었는지 형제자매가 있었는지 애인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의 비장한 최후를 전해야 할 나는 그때부터 43년이 지난 오늘에야 그에 대하여 알리게 된다. 이때문에 가슴은 더 아프다. 43년간을 기다려 왔을 그의 부모형제들에게 내 무슨 말을 더하랴. 다만 그의 품속에 정치공작대의 파견장, 공화국 국장이 찍혀 져 있는 파견장이 간직되여 있었다는것밖에는…

그 녀성의 찢겨 진 시신을 거두어 묻으며 나는 북에 두고 온 안해를 생각했다. 나보다 열살이나 어린 안해, 고향 풍산에서 함께 자랄 땐 철 없는 누이로만 생각했었는데…

안해의 소식을 최후로 들은것은 50년이 저물어 갈 무렵 남으로 내려 온 처삼촌으로부터였다. 안해는 북으로 후퇴하여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다.

유격대심사에 떨어 지고도 안해가 있는 북으로 후퇴하지 않고 산에 남은 나의 처사를 보면 《그 사람은 제 안해도 어머니처럼 내팽개칠지 모른다.》며 혼인을 반대한 장모님이 옳았는지도 모른다.

비록 비전투원이라 할지라도 도처에서 죽음이 입을 벌리고 있는 산생활이 아닌가. 사실 나는 공연히 어린 사람과 결혼해 감당 못할 아픔을 안겨 주는구나 하는 자책감을 늘 안고 있었다. 하지만 정옥이나 신순월과 같은 처녀를 통해 나는 녀성들의 맑은 령혼속에 깃들어 있는 강인함을 보았다. 안해 역시 민족의 고난기를 건전하게 헤쳐 나가고 있으리라는 믿음, 어떤 순간에도 그것을 놓친적은 없었다.

우리를 옳바로 인식하라

지리산에서의 유격투쟁을 회고할 때 가장 곤혹스러웠던것이 날자를 기억해 내는 일이다. 산사이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는가 하면 삼라만상에 흰 눈이 덮여 내리던 자연의 변화만이 뇌리에 남아 있을뿐 어떤 사건이 일어 난것이 몇월 며칠이였는지는 물론 심지어 그때가 서기

몇년이였는지조차 기억해 내기 어려운 때도 종종 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추풍령전투 역시 정확한 날자를 기억하기 힘들다. 51년 가을무렵으로 짐작할 뿐이다.

당시 경상남도조직위원회는 장거리기동전투를 계획하였다. 지리산에서 가야산, 덕유산을 거쳐 추풍령까지 이동해 그곳을 관통하는 기차굴을 파괴하여 적들의 군수물자조달을 어렵게 한다는 내용이였다.

51년 가을경 경남도당산하 유격부대는 2,000여명에 이르렀던것으로 기억된다. 활동범위 또한 남으로 지리산에서 동으로 가야산, 서로 덕유산을 넘나들었으니 각 도당산하 부대중 가장 활동범위가 넓지 않았을가 싶다.

도당은 추풍령전투계획에 따라 부대를 파견했는데 이 부대는 기동투쟁중 가야지서 등 3개 지서를 한꺼번에 점령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되자 경찰대신 괴뢰군백골부대가 유격대《토벌》을 위해 투입되였다. 추격해 온 백골부대와 유격대는 가야산에서 조우하여 적아간에 밀고 밀리는 전투가 사흘 밤낮으로 계속되였다.

나는 이 전투에서 체포될 위기에 몰린 한 괴뢰군사병이 자살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매주 한번씩 신문에 정황보도를 해왔지만 그런 소식은 처음이였다. 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여 현장에 있었던 전사를 만나보았다.

유격대가 가야산어름을 이동하고 있을 때의 일이였다고 한다. 척후가 백골부대소속 소규모병력이 릉선을 가로 막고 있는걸 발견하였다. 유격부대는 즉

시 산개하여 그들을 포위한후 기습으로 제압해 버리고 수색에 들어 갔다.

《벼가 익어 누런 논다랑이에 분명히 두명이 숨어 들어 가는것을 봤는데 아무리 앞엣총을 하고 〈손들고 나왓〉 해도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겁니다.》

현장에 있었던 유격전사의 설명이였다. 그가 논다랑이 웃쪽으로 가서 내려다 보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뒤쪽에서 총소리가 났다. 즉시 공포를 쏘면서 달려 가 보니 논다랑이옆 바위틈에 괴뢰군사병이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더라고 한다. 배우에는 엠—1총이 놓여 있었고…

그런 일을 처음 당한 그 유격대원이 당황하여 포로로 잡은 괴뢰군사병에게 리유를 캐물었다고 한다. 대답인즉 이러하였다.

《포로로 잡히면 죽는것보다 더한 온갖 고통을 다 준후에야 죽이니 차라리 잡히기전에 자살하라고 교육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백골부대가 참으로 지독한 교육을 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사실 유격대가 전투를 벌리는 목적은 적을 사살하는것이 아니다. 최악의 정황 즉 적을 죽이지 않으면 이쪽이 살아 날수 없는 형편이라면 할수 없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유격대는 기동성을 생명으로 매복하고 적을 포위하여 기습으로 대렬을 흐트러 버린후 되도록 많은 수를 사로 잡는것을 전투의 목표로 하게마련이다.

살륙은 제국주의군대의 고유한 본성으로서 우리들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지난 조선전쟁의 전 행정이 이에 대한 명백한 증언으로 된다.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이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감행한 살륙전들을 돌이켜 보라. 그들은 군인뿐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닥치는대로 살해하였던것이다.

인민군의 기습에 죽은 미8군사령관 워커부터가 《설사 그대들앞에 나타나는것이 로인이나 어린이라 할지라도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고 떠들었다.

미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력임했던 릿치웨이는 51년 2월 패전을 만회하려는 공격작전을 꾸미면서 그 암호명을 《살인》작전이라 명명하였고 그에대한 변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전쟁이 곧 살인을 의미함을 국민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은 미제살인장군들의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라.》의 전쟁관점의 부드러운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 났으니 포로문제를 살펴 보자.

우리는 포로로 잡은 자들을 무장해제시킨후 사상교육을 실시했는데 간혹 우리의 뜻에 공감하고 생사를 함께 하기를 자원하는 경우 일정한 훈련기간을 거쳐 유격대원으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대부분은 이후 유격대를 적대시하지 않도록 교양을 주어 내려보내게 된다. 그렇지 않고 유격부대가 포로들을 잡는족족 죽인다면 경찰이나 괴뢰군사병들은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격대와의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것이 아닌가. 유격부대가 되도록 살상을 피하려는것은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적들은 《포로되면 죽는것보다 더한 온갖 고통을 다 준후에야 죽인다.》고 떠벌인다. 이것은

적들이 지리산유격대에 한해서만 하는 말이 아니다. 《공산군은 악착하게 포로를 살해한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함으로써 자기들 사병들에게 《공산군》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 주고 자기들의 포로학대를 감추려고 애 썼던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자총한 괴뢰군사병이 그 선전의 희생자였다.

그러면 그들은 과연 우리 포로들을 어떻게 취급하였던가.

얼마전의 남조선의 《한겨레신문》 1992년 12월 19일부에서도 그 일단을 찾아 볼수 있다.

그것은 거제도의 옛 포로수용소터전에서 인민군포로들을 총기성능시험과 세균무기실험대상으로 삼은 미제의 죄행을 폭로한 문건들을 발견한 내용의 기사였다.

그 기사에 의하면 포로병들은 속옷을 찢어 만든 가로 80센치, 세로 120센치 크기의 광목에 미제흡혈귀들이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포로들을 악착하게 학살하고 세균무기, 화학무기, 원자무기 생체실험대상으로 삼은 사실들을 기록하였고 자기들을 이 인간생지옥에서 구원해 줄것을 조국에 절절히 호소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히틀러의 포로수용소 《마이다네크》나 《오스벤찜》이 얼굴을 붉히고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악명 높은 살인집단인 《731부대》가 중국대륙에서 포로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생체실험을 무색케 하는 만행이였다.

나는 부지중 내가 포로로 되였을 때 인민군포로병들이 있는 거제도로 보내라고 놈들에게 요구했던 일을 상기했다. 그때 거제도로 보내졌다면 놈들의 세

균무기실험대상이든지 그 어떤 시험대상이 되여 그 죽음의 섬에 묻혔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그때 괴뢰군사병으로서는 자총할수밖에 없었다. 후에 말하겠지만 《거창량민학살》이나 《함평량민학살》을 자행한 그들로서는 그 어떤 자비심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었다.

살인자에게는 살인자로서의 척도가 있을것이니 그들의 척도에 의하면 공산군은 그 잔인무도한 학살사건들에 대한 대가를 오직 죽음으로만 받아 낼것이였다. 그러나 우리 유격대는 포로들을 죽이지 않았다. 적들로서는 리해불가능일수도 있다. 그 리해를 위해서는 《반공》의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

다시 지리산으로 돌아 가자.

한편 치렬한 전투끝에 유격부대가 가야산 해인사를 점령하였기에 도당은 터를 옮기는 길에 해인사에 들렸다. 사흘동안 낮에는 괴뢰군이 들어 오고 밤에는 유격부대가 들어 오는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던 직후라 그런지 아니면 백골부대사병처럼 유격대 하면 덮어 놓고 사람을 죽이는 패거리라고 알고 있었던지 사람들은 눈치만 보며 슬슬 피하고 아이들도 《빨갱이다.》 소리치며 도망치는것이였다. 심지어 해인사주지까지 숨어 버렸다.

할수없이 선전대가 먼저 나가 사람들과 부드럽게 접촉하면서 《우리는 오로지 인민들이 다같이 잘 사는 통일조국을 위해 미제와 그 앞잡이들과만 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선전대의 역할이 제대로 되였던지 사람들이 무서움증이 가셔 져 서로 만나 이야기도 할수 있었고 절의 주지도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왔다.

우리가 마을사람들을 모아 놓고 교양을 하고 있는데 주지가 와서 부대의 책임자를 찾았다. 그를 도당간부들에게 안내하니 품에서 금으로 만든 술잔을 꺼내 건네준다. 모두들 놀라 물었다.

《왜 이러십니까?》

《이 잔은 해인사의 보물로서 부처님께 술을 부어 올릴 때 쓰는것인데 유격대 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유격대를 산적떼로 알았던것일가, 아니면 침략자를 물리치고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는 유격전사들에게 무엇인가 성의를 표하고 싶었던것일가. 어느 편으로 보든 어이 없는 일이였다.

《해인사의 보물은 국가의 보물인데 이런 귀중한 물건을 잘 지키지 않고 무슨짓입니까? 우리 유격대는 이런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한 동지가 이렇게 말하며 술잔 받기를 거절했다. 그 꾸짖음이 오히려 주지를 감심케 했는지 그는 《역시 당신들은…》하면서 연신 머리를 끄덕이는것이였다.

이윽하여 주지는 우리에게 예로부터 산속깊이 있는 절간들은 의병들의 활동거점으로 된적이 많았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 역시 중으로 있으면서 의병투쟁을 적극 돕다가 왜놈들에게 학살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알수 없지만 후에 지리산의 연곡사에 있으면서 고광순의병부대의 활동을 적극 돕다가 왜놈들에게 학살된 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혹시 그의 부친이 아니였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말을 통하고보니 승복을 입고 있었으나 통일독립된 조국을 바라는 심정은 우리와 다름 없었다. 그후 다시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정말 애국적인 주지였다고 생각된다.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수도하는 중이라도 그렇듯 바라는것이 통일조국인데 지금 남쪽땅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분렬을 꾀하고 있으니 기막힌 일이 아닐수 없다.

어쨌든 우리가 해인사의 금잔을 거절한 사실이 한입두입 전해 져서인지 린근에서 유격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달라 졌다.

유격부대는 계획대로 추풍령으로 향하고 도당과 비전투원들은 지리산으로 돌아 와 터를 잡았다. 이때 입산 초기에 변절투항한 전 105부대장 정용세가 경찰부대를 데리고 와 우리 있는 곳을 2중3중으로 포위공격하는 급박한 사태가 벌어 졌다. 정용세와 같은 변절자는 우리가 터를 잡을만 한 곳을 잘 알고 있는데다가 유격부대가 장거리기동투쟁을 나갔다는 정보까지 입수한듯 경찰부대의 공세는 동원병력 규모로 보나 기간으로 보나 류례없이 강력했다.

도당터에 있던 사람들은 소수 호위중대원들을 빼면 모두 비전투원들이였으므로 우리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포위된채 식량이 떨어 져 일주일이상을 굶어야 했다. 밤이면 경찰의 눈을 피해 감나무(전쟁전부터 지리산에 살던 주민들은 괴뢰군의 소개령으로 모두 쫓겨 났는데 그들이 살던 곳 주변에는 깊은 산중이라도 감나무가 많았다.)를 찾아 가 풋감을 따 모닥불에 구워 먹었다. 가을이 깊었지만 높은 산이라 감들은 여전히 익지 않은채였다. 덕분에 심한 변비로 고통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같은 악조건속에서도 누구 한사람 대오를 떠나지 않았다.

경찰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투항하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지리산에 자기의 뼈를 묻을지언정 다시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감수하지 않으며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을 자기의 조국으로 여기고 입산한 사람들이였다.

굶어 죽을지언정 투항이나 변절을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열흘나마 지나자 경찰부대는 제풀에 맥이 빠져 물러 가 버렸다. 그 고난의 열흘간이 경찰부대에 우리 유격대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약간은 인식케 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추풍령전투와 악양전투 그리고 정옥이의 최후

한편 추풍령에 도착한 부대는 차굴파괴전투를 계획대로 전개했다.

전쟁전부터 산에서 투쟁하던 구호택부대장이 굴속에 들어 가 폭파장치를 설치했다. 그리고 나서 미제군수물자를 실은 기차가 올 때까지 잠복해 기다리다가 기차가 굴에 들어 가자마자 폭약을 터뜨렸다. 후일 들어 온 정보에 의하면 미제군수물자를 실은 차가 완전히 파괴되였고 굴속을 정리하는데만 15일이상 걸려 그동안 군수물자수송이 완전히 두절되였다고 했다.

계획된 전투를 승리로 마치고 유격부대가 지리산으로 돌아 온후 도당은 하동군 악양지서 기습계획을 세웠다. 부대가 나가 있는 동안 당기관이 당했던 경찰의 공세를 맞받아 치는 동시에 월동준비를 해야 했기때문이였다. 악양면은 마치 소쿠리모양으

로 생겼는데 기름진 평야로 가득찬 하동군 제1의 부면이였다.

당시 경남부대산하에는 4개 련대가 있었는데 하동군당유격대가 1련대, 산천군당유격대가 3련대, 진양군당유격대가 5련대였고 각 부대에서 뽑은 인원으로 새로 조직된 덕유산부대가 7련대였다. 각 련대는 3개 중대로 구성되였는데 애초에는 대대라 불리던 명칭이 51년 중순경 련대로 바뀌였다. 51년 11월경에는 총 병력이 2,000여명 가까왔던것으로 기억된다. 정규군기준으로 본다면 결코 련대라 부를만 한 규모는 못되지만 유격부대로서는 막강한 전력이였다.

악양지서기습계획에는 구례에서 동원된 괴뢰군부대를 전남부대가 차단하고 하동에서 올 부대는 3련대가 차단하기로 하고 1련대가 지서점령을 맡았다.

여기서 리해를 돕기 위해 당시 지리산린근의 지서의 모습을 잠시 설명해 본다. 우선 지서는 주변을 대울타리로 이중으로 쌓고 그안에 중화기를 배치한 화점이 있었다.

계획대로 1련대가 악양지서를 포위하고 외부와의 련락선을 끊어 버린 뒤에도 유격대는 지서안의 경찰들과 장시간 대치전을 벌려야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지서후문을 맡았던 1련대 2중대가 지서안에서 굴을 파고 나와 도망하려는 경찰들에게 사격을 퍼부어 퇴로를 막아 버린 결과 오도가도 못하게 된 경찰들이 최후까지 결사적으로 저항했기때문이였다. 정문쪽을 맡았던 1중대가 돌격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당시 유격부대가 사용했던 지뢰는 괴뢰군에게서 빼앗은 60kg짜리 포탄에서 뢰관을 빼버리고 화약을 꺼내 만든것이였다. 그런데 이 지뢰가 말썽이였다. 경찰의 결사적인 방어사격때문에 1중대원들은 지서담까지 도저히 접근하지 못하고 15m 전방에서 지뢰를 터뜨렸다.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한아름이나 되는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지뢰가 너무 셌던것이다. 이 불기둥이 악양면전체를 대낮같이 밝히는 바람에 적아간 모두 돌격은커녕 모습을 드러내고 사격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잠시후 하늘높이 올라 갔던 불기둥이 부서져 내리면서 초가집지붕에 떨어 져 온 동네에 불이 나는 바람에 유격대는 전투보다 불 끄기에 더 진력했다. 인민의 재산이 타는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수 없었던것이다.

혹시 전투의 승패가 더 중요치 않은가 누가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수가 없다.

다만 그때 명심했던것은 유격대는 어떤 정황에서건 인민의 생명재산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괴뢰군《토벌대》가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왔고 악양지서를 포위했던 유격부대는 별 성과없이 물러 나야 했다.

악양전투에서의 괴뢰군《토벌대》투입은 51년 말부터 52년 초에 걸친 적들의 대공세의 서막이기도 했다.

악양전투후 부대를 정비하고 있을 때였다.

삼장면 대포리에서 열세살 먹은 소년이 경찰 한명을 사살하고 산으로 유격대를 찾아 올라 온 놀라운 사건이 일어 났다.

취재차 소년을 만나보니 사연은 이러했다.

소년이 살고 있는 대포리는 지리산을 등지고 있는 마을이기때문에 마을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수시로 경찰이 와서 산사람과 련락했다면서 애, 어른 할것없이 때리고 차고 하는 바람에 산에 올라 간 사람들의 가족들은 숨도 크게 못 쉬는 형편이라 했다. 그러니 경찰이 오면 울며겨자먹기로 닭 잡고 돼지 잡아 술을 대접해야 했고 돈이 없으면 빚을 내다가라도 잔치를 베풀어 줘야 했다는것이다.

게다가 산에 올라 간 사람이 있는 집에서는 얼굴이 반반하면 색시고 처녀고 할것없이 유린 당해도 아무 대항도 못하고 눈물만 흘린다는것이였다.

이것은 그무렵 유격대지역 주민들이라면 례외없이 당해 온 고초였다. 그날도 경찰들이 왔기에 마을사람들은 억지춘향으로 잔치를 차렸다고 한다. 경찰들은 총을 한쪽에 모아 세워 놓고 술에 취해 떠들어 댔다.

소년은 지난번에 자기 아버지가 아무 죄도 없이 경찰에게 즉살하게 맞던것을 생각하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구장과 반장이 자기 아버지를 때리던 자에게 슬슬 기며 아첨하는 꼴을 보니 분이 벌컥 치밀어 한쪽에 세워 놓은 총을 집어 들고 냅다 쏘았는데 그놈이 푹 쓰러지기에 총을 쥔채 산으로 도망쳐 올라 왔다는것이다. 도당은 어린 가슴에 총을 지니게 한채 부대에 배치했다.

한편 장대골 산죽밭근처에 거점을 잡고 있을 때 가슴 아픈 일이 일어 났다.

악양전투이후 점점 심해 지는 경찰《토벌대》의 포위공격으로 가지고 있던 식량이 모두 떨어 져 버

렸다. 그러나 전사들은 굶으면서도 자기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악전고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토벌대》의 포위공격이 급박해 져 신속하게 이동해야만 할 정황이 벌어 졌다. 공교롭게도 이때 정옥이는 심한 열병에 걸려 운신을 못하고 누워 있었다. 위독한 상태의 정옥이를 옮겨 갈수가 없어서 산죽밭에 은폐시키고 당부했다.

《토벌대가 접근해도 절대 인기척을 내지 말고 있어라. 밤에 와서 데려 가겠다.》

그러자 열이 심해 혼수상태에 있던 정옥은 나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절 죽이고 가세요. 그리고 이 파견장을 중앙당에 바쳐 주세요.》

그는 파견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가만 숨어 있거라. 살아서 끝까지 싸워야지.》

돌아서 떠나는 나에게 정옥은 소리치는것이였다.

《선생님,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왜 나를 돌아가신 어머니곁에 못 보냅니까.》

그 말은 나의 가슴을 에이는듯 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말로 될줄이야.

그날 밤 한밤중에 다시 산죽밭을 찾아 갔다. 그런데 《토벌대》들이 불을 질러 온통 불 타버린 산죽밭에는 정옥이의 앙상한 해골만이 남아 있었다. 슬프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 광경이였다. 용감하고 다감하기도 했던 정옥이는 이렇게 우리곁을 떠나갔다. 정옥이의 유해를 땅에 묻으며 나는 그에게서 애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 두지 못한것을 후회했다.

이 모든 고난의 시기가 끝나면 정옥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을 찾아 내여 눈물을 흘리며 정옥이의 사랑과 견결한 투쟁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고 싶었다. 그러나 나보다 거의 15년이나 나어린 그가 먼저 갈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어릴적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는 정옥이, 대학생이 되였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할 때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통일조국에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것을 보면 아버지가 또 우실거예요.》하고 말하던 처녀였다.

나는 그의 무덤앞에서 부르짖었다.

《지리산을 잊지 말라. 그 산의 줄기줄기에 조국과 민족에 대한 순결한 사랑을 안고 숨져 간 이 나라의 장한 딸들이 잠들어 있다.》고.

불속에서 떠나간 정옥이의 마지막모습은 지금도 내 눈앞에 선연하다.

리현상부대

정옥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 않고 있을 때 리현상부대가 온다는 련락이 왔다. 유격대생활에서 새로 부대가 온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중에서도 기쁜 소식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나는 별로 큰 기쁨으로 리현상부대를 맞이하지 못했다. 정옥이를 잃은 슬픔때문이였을것이다.

리현상부대가 온 날밤 차후투쟁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경남도당의 군사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나는 신문편집을 하고 있는 까닭에 그 자리의 말석에 끼워 앉았다.

토의의 주제는 경남도당산하의 유격부대와 리현상부대가 합동투쟁을 할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진지한 토론이 전개되였다. 우선 전쟁전부터 지리산에서 싸워 온 구유격대동지들과 남경우 경남도당위원장은 합동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리현상의 혁혁한 전과들때문인것 같았다. 사실 리현상은 해방전부터 서울에서 잘 싸운 사람이였다.

서울콩크룹사건으로 동지들과 함께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1차 남진때는 거창, 함양, 합천 등지에서 적군의 렬차와 경찰서를 습격하여 놈들의 퇴로를 차단하는 혁혁한 전과도 거두었다. 대구근방의 미군무선전신대 기습, 창녕군에 있던 미군사령부습격, 전주시의 씨아이씨본부와 형무소습격사건 등으로 지리산유격대원들속에서는 물론 이 지대 인민들속에서 《유격대영웅》으로 불리워 온 동지였다.

그의 부대는 적후전선부대와 함께 북상하다가 다시 소백산줄기를 타고 남하하여 대오를 확산하고 미국제무기며 복장이며를 원만히 갖추고 있어 부대의 전투력이며 사기가 높아 있었다.

구유격대동지들과 남경우위원장을 비롯한 적지 않은 동지들이 이들과의 합동투쟁을 추구한 원인이 여기 있었다고 보아 진다.

이에 대해 허동욱경남도당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리유로 합동투쟁을 강력히 반대했다.

첫째, 사회주의국가에서 군대는 당의 지도하에 있는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각 도당산하에 있는 유격대들을 당에서 떼여 내여 리현상동지의 남부군이라는 순수 군사조직에 모두 소속되게 하는것은 당과

유격대를 분리시키는 결과가 되며 원칙적으로 옳바르지 않은 일이다.

둘째, 유격대는 불리한 정세속에서도 지형지물을 리용해 소부대활동을 함으로써 정규군에 대항하는 부대이다. 남부군이 각 도당산하 유격대를 흡수해 합동작전을 하겠다는것은 소부대투쟁대신 정규군과 같은 대부대투쟁 즉 진지전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러한 무모한 시도는 유격대에 엄청난 희생을 가져 올것이다.

경남도당의 나머지 군사간부들과 나는 이 견해를 지지하여 나섰는데 남경우위원장이 끝내 자기 의견을 고집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회의를 마치게 되였다.

아마 경남도당 군사간부들의 회의내용이 리현상동지에게도 전달된 모양이였다. 얼마후 그 부대 정치부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 와 《내용을 검토하겠으니 〈경남도당신문〉의 편집내용과 자료를 보여 주시오.》라고 하였던것이다. 나는 선뜻 응할수 없었다.

《그런 일은 관례에 없는 일임을 동지도 알지 않습니까?》

《이건 총사령관의 지시요.》

《당중앙의 지시라면 몰라도 다른 사람에겐 절대로 보여 줄수 없소.》

《아니, 이 동무가?》

《내가 산에 들어 온것은 언쟁하러 온것이 아니니 그만 둡시다.》

그가 이 과정을 그대로 전했던지 리현상은 나에 대한 인상이 좋지 못했던것 같다. 그후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6개 도당 경험교환회가 있었는데 그때 리현상이 나에 대한 말을 하더라는것이였다.

《경남도당에서 신문편집하는 리 아무개는 왜 그리 태도가 불손하오?》

허나 이것은 그와 나사이의 개인감정일뿐이다.

나의 감정이 어떠했든 나에 대한 그의 감정이 어떠했든지 그는 열혈의 투사, 혁명에 철저한 동지였다.

그후에도 동지는 지리산과 소백산줄기의 험한 산발을 넘나들며 적들을 유인, 매복, 기습, 소탕하는 유격투쟁을 힘 있게 벌려 조국해방전쟁승리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1953년 9월 정전이 된지 달포가 지난 어느 날 동지는 지리산 빗짐골에서 불의에 맞다들린 적《토벌대》와의 힘겨운 전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였다.

이때 그의 나이 48살이였다.

수만금의 현상금까지 걸고 날뛰던 《토벌대》는 동지의 시신에서 목을 잘라 내여 그의 고향마을에 매달아 놓고 그가 전사한 곳에는 《공산비적 리현상이 죽은 곳》이라는 말뚝까지 박았다고 한다.

나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때 일을 생각하며 가슴이 몹시 아파옴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비록 전사했으나 리현상동지와 그의 부대 전사들은 통일성업과 혁명위업에 몸을 바친 우리 당의 일원으로 력사에 솟아 오르고 있다.

나는 이곳에 들어 와 전 지리산유격대 대장이였던 리현상동지와 그 유가족에게 베푸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신임과 배려에 대하여 듣고 감격의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우선 그의 아들딸 4남매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아버지의 뒤를 잇는 훌륭한 인재들로 자라났다는 소식이 나를 무척 기쁘게 하였다.

그의 자녀들은 당의 배려로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외국류학을 갔다 오기도 했고 중앙당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나와 중앙의 여러 기관에서 일하였거나 일하고 있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1년에 벌써 리현상동지에게 국기훈장 제 1급을, 1952년에는 자유독립훈장 제 2급을, 1953년 2월에는 공민의 최고영예인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시고 적구에 있는 그에게 훈장의 략장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1990년 8월에 그에게 또다시 《조국통일상》을 수여하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10년전에 세상을 떠난 그의 안해 리문기녀성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된 남편의 묘에 합장하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그 뉘가 지리산에 묻힌 우리 동지들을 두고 《력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무참히 흩어 져 버린 불쌍한 령혼들》이라고 하고 있는가.

지리산의 영웅들과 함께 한나산과 태백산, 오대산과 덕유산의 유격전구와 항쟁의 거리에 붉은 피 뿌리며 장렬하게 희생된 유명무명의 용사들, 감옥과 단두대에서 굴할줄 모르고 싸워 온 동지들의 넋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넓은 품속에서 영생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산 사람들로 간직되여 있다.

남녘동지들의 마음

51년도 겨울로 접어 들어서였다. 겨울은 유격대에게 가장 괴로운 계절이다. 보급도 보급이려니와 울창한 수목들이 잎을 떨구고 나면 엄폐물들이 사라져 《토벌대》의 공세가 시작되군 하기때문이다. 그런데 그해 겨울은 유난히 심상치가 않았다.

각 릉선마다 전화줄이 거미줄처럼 늘여 지는 등 괴뢰군의 공세준비가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을 때 지방조직에서 정보가 들어 왔다. 전선이 고착상태에 있는 틈을 타서 일선의 괴뢰군부대들이 유격대 《토벌》을 위해 투입될 징조가 뚜렷하다는것이였다.

게다가 갑자기 열병환자가 늘어 나기 시작했다. 환자들은 대성골에 있는 환자터로 옮겨 져 치료를 받았다. 환자터란 땅을 가지런히 고른 다음 가운데에 뻬치까를 놓고 그우에 산죽이나 싸리, 억새풀 등을 깔고 천막을 덮은것으로 옆으로는 나무를 삼각형모양으로 기대여 놓아 눈비를 피하는 동시에 시설자체를 은폐하였다.

환자들의 병세는 심각했는데 진주출신의 의사로 당시 경남도의 의무과장이였던 양기출은 그 병이 재귀열이라고 하였다.

미군이 대공세를 앞두고 세균탄을 써서 유격부대에 재귀열이 급속도로 퍼졌다는것이다.

얼마후 예상했던대로 괴뢰군의 공세가 시작되였다. 놈들은 대병력을 동원하여 지리산전체를 포위하다싶이 하면서 올라 왔다. 골짜기의 큰 바위틈에 싸리나 산죽을 펼쳐 놓은데를 집 삼아 살고 있던 입산주민(전쟁을 피해 산에 올라 온 피난민)들은 아침밥을 지어 먹다가 연기를 겨냥한 전투기들로부터 기총소사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도당의 거점은 칼바위골이였는데 낮이면 괴뢰군이 골짜기를 이 잡듯이 뒤지기때문에 모두 중턱 바위틈에 박히거나 숲속으로 피하였다.

나는 그때 몇몇 동지들과 함께 산중턱바위틈에 생겨 난 동굴속에 피해 있었다. 밖에서 보면 동굴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분간할수가 없는 점은 좋았으나 말이 동굴이지 앉으면 천정까지 높이가 30cm정도나 남을가.

게다가 먹을 식량까지 떨어 져 우리들의 처지는 한심했다. 눈이 내리기전까지는 그래도 도토리나 산열매 같은것을 주어서 쪼르륵거리는 배를 잠시나마 달랠수 있었지만 괴뢰군의 공세가 강화되고 눈이 내려서 그것마저도 얻을수 없는 형편이였다.

밤이 되자 함께 피신해 있던 조영래동지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른 동지들에게 호주머니를 뒤집어 비상식량을 모아 보라고 했다. 모두들 호주머니를 터니 쌀도 아닌 겉보리가 두어줌 나왔다. 다들 굶고 있는 형편이니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였다. 조동무는 그 겉보리를 모두 나의 호주머니에 넣어 주며 이렇게 말했다.

《북쪽출신이라 부락에 아는이도 없고 말씨도 다르니 앞으로 제일 곤난할거요. 급할 때 그거라도 씹으시오.》

내가 선택한 삶의 현장, 지리산에서 남쪽출신의 동지로부터 전해 받은 그 진실한 마음을 내가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후 캄캄한 독방에 갇혀 한두해도 아닌 수십년, 가족이 없으니 편지가 없고 편지가 없으니 회답도 할수 없는, 그야말로 꼼짝 못하고 당국에서 주는 밥덩이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고통스러운 지옥살이동안 나는 간간이 조영래동지의 진실이 깃든 곁보리를 생각했다. 비록 그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따뜻한 동지애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차거운 감방에 불을 지펴 주는듯 하였다.

동굴속에서 열흘은 버텼을가. 괴뢰군의 인기척이 들리지 않기에 살금살금 기여 나가보니 릉선우에는 괴뢰군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함정이 아닐가 의심하며 기여 올라 가 보니 멀리 바위우에 젊은 녀인이 하나 오도카니 앉아 있는것이 아닌가. 자세히 보니 배숙환이였다.

그 역시 전쟁이 일어 났을 때 의용군으로 지원한 처녀였다. 그는 남해려단에 배치되여 남해전선에서 처녀의 몸으로 잘 싸웠다. 9.18미군인천상륙이후 인민군대의 전략적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남해려단장과 함께 부주 구현동까지 후퇴했다가 51년 봄 다시 경남도당산하의 유격부대로 돌아 왔다.

자기 고향땅을 미국놈들의 손에서 해방하자는 뜻을 품고 무용가이자 가수인 최순이라는 처녀와 함께 왔는데 그들 둘은 똑같이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하고 발랄한 처녀들이였다.

여기서 배숙환의 사람됨을 알수 있는 일화를 하나 이야기하자.

유격대의 한 지휘관이 허동욱부위원장을 찾아 와 배숙환과 결혼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허동욱은 아무리 산생활이라도 사랑을 배제할수는 없는것이고 이모저모로 다루기 곤난한 문제이기도 해서 그에게 《본인과 직접 이야기해 보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이에 그 지휘관은 배숙환을 불러 직접 사랑을 고백했다는것이다.

배숙환은 그의 고백에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잘라 말했다고 한다.

《제가 입산한것은 미국놈과 리승만역도와 싸우기 위해서지 결혼하러 온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사들은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동지는 어찌 결혼할 생각이나 하고 계십니까?》

배숙환의 이 말에 그 지휘관은 다시 그런 문제를 입에 담지 못했다는것이다.

유격대에서 높든 낮든 지휘일군이라고 하면 처녀들이 존경하며 바라보는 대상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그앞에서도 주저없이 자기 의사를 똑똑히 밝힌 배숙환이야말로 기개 있는 조선녀성의 표본이 아닐가.

나는 대중들이 권력을 가진이들앞에서도 거리낌없이 자기 주장을 펼수 있는 사회야말로 건전한 사회일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사회일수록 대중의식은 더욱 높아 져서 개인주의나 리기주의, 특히 권위주의는 결코 발 붙이기 어려울것이다.

남조선땅의 작은 한 구석이였으나 지리산의 유격대지역은 바로 그런 사회였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 무지와 유혹, 강요의 희생물일수 있겠는가…

배숙환이 그 지휘관을 사랑하면서도 투쟁을 위하여 멀리했던것일지도 모른다. 그때 우리에게는 자기 개인의 생활보다 조국의 운명이 더 귀중하였다. 조국의 운명, 전쟁승리밖에는 더 생각지 않았다.

얼마후 괴뢰군이 포위를 푼것으로 판단한 우리들은 저장해 둔 비상미중 마지막 남은것을 운반해 오기로 했다. 그때 우리 동지들은 각자 은신한 곳에서 가지고 있던 겉보리를 씹다가 그것마저 떨어져 며칠째 굶고 있는 형편이였다. 그런데 비상미운반조에 자진해서 나선 배숙환이 비상미를 숨겨 둔 곳 부근에 매복해 있던 괴뢰군의 탄환에 복부관통상을 입고 쓰러지고 말았다.

《저는 이제 죽지만 조국의 흙이 되여 영원히 조국과 함께 있을것입니다.》

숨지기전 배숙환의 마지막말이였다.

지리산에 묻힌 이런 마음들을 허무와 회의의 무덤에 몰아 넣는것은 변절자들만이 할수 있는것이 아닐가. 나는 그 마음들을 대신하여 웨치고 싶다.

이 땅의 아름다운 넋의 한 부분을 더는 모욕하지 말라고…

전률의 기록들

1951년 2월 어느 날 나는 신문편집을 위해 식량을 구하러 나선 몇몇 동지들과 함께 하동으로 가고 있었다.

산청군 시천면 거르미골 막바지에서 다시 대성골을 넘는 산비탈을 오를 때였다. 숲속 바위사이에 시체가 하나 있었다. 무명홑바지저고리에 짚신을 신은 농군이였다. 쓰러진 가슴팍에는 피가 엉켜 붙어있고 꺼멓게 색이 변해 있어 죽은지 꽤 시간이 흘렀음을 알수 있었다.

해볕에 그을러 검게 탄 농군의 얼굴을 침통한 표정으로 내려다 보던 함경도출신 안용춘동지가 그를 묻을 준비를 했다. 우선 눈을 치웠다. 땅을 팔 연장이 없어 움푹한데서 돌을 뽑아 주어 내고 시체를 옮겨 뉘였다.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 때까지 누구 하나 말이 없었다. 이름 없는 농군의 무덤앞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오래 머리를 숙이고 서 있었던지.

바로 이런 잔인한 살륙을 례상사로 감행한 괴뢰군들이였기에 가야산어름에서의 《백골부대》사병처럼 자총하는것과 같은 기이도 빚어 낸것이 아니겠는가.

무엇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자신도 모르며 동족의 손에 무주고혼이 되였을 그 농군의 무덤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뒤따라 올라 온 한 동지가 그 농민이 혹시 거창에서 괴뢰군들의 대학살에서 빠져 나온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전 거창에서의 잔인한 학살만행을 목격한 동지였다. 너무도 비인간적이고 무도하여 믿어 지지 않을 지경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였다.

거창에서의 대규모학살사건은 바로 우리가 이름없는 농군의 무덤앞에 서 있던 때로부터 며칠전인 2월 10일에 감행되였던것이다.

당시 산청군 오부면에 있던 산청군당유격대가 지맥을 타고 신원면에 들어 와 경찰들을 습격하여 일부는 소탕하고 일부는 거창으로 쫓아 버렸다. 신원면일대는 일시적으로 유격대세력권내에 있었다. 소위 《화랑사단》으로 불리우던 괴뢰군 제11사단 9련대 3대대가 신원면 과정리에 밀려 든것은 1951년 2월 8일이였다. 유격대전법이 그러하듯이 그때 우리 동지들은 벌써 대부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였다. 전투라면 퇴각도중 산청에서 접전이 좀 있었을뿐이다.

놈들은 유격대《토벌》로부터 량민《토벌》로 이전했다.

2월 10일, 괴뢰군 3대대는 이 지대의 6개 부락이 유격대와 내통하였다는 당치 않은 리유를 걸어 청장년 136명을 붙들어서 린근의 박산골로 끌고 가 기총사격으로 사살하였다.

그 다음날인 2월 11일에는 이 지대에 남아 있던 주민 거의 모두를 피난시킨다는 명목으로 신원국민학교 마당에 모여 놓고 그중 괴뢰군, 경찰, 공무원 가족들만 가려 내고 그 나머지를 모두 깊은 산골짜기로 끌고 가 사살해 치웠다. 이날에 죽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늙은이들과 녀자, 어린이들이였다.

후에 알려 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 량일간에 사살한 수가 무려 719명에 달한다고 한다. 놈들은 700구가 넘는 시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았고 그 옆 산비탈을 폭파하여 그 흔적을 메워 보려 하였다.

이것은 그 어느 민족의 전쟁사에도 찾아 보기 힘든 가장 잔인하고 비렬한 학살행위였다. 분명 이 사건은 미국이나 그를 추종하는 리승만괴뢰《정권》

이 우리 민족전체를 전쟁의 대방이나 적으로 삼았다는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놈들은 이 비렬한 사건을 흑막속에 덮어 버리려고 무진 애를 썼다.

이 사건이 문제시되자 당시 《국방부》장관이였던 신성모란 자는 량민학살이 아니라 《공비토벌》이였다고 진상을 외곡하고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의 묵살을 지시하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11사 사단장이란 자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명령을 내릴탓이 있는가.》라는 한마디말로 그 책임에서 발뺌을 했고 진상해명이 국내외적으로 더욱 여론화되고 조사단이 무어 져 현지조사가 진행되자 놈들은 유격대로 가장한 군대를 매복시켜 사격을 가함으로써 조사단입산을 파탄시키는 비렬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비등되는 반《정부》기운에 바빠난 당국자들은 그해에 다시 대구에서 재판놀음을 벌려 놓고 련대장과 대대장은 사형, 누구누구는 10년, 7년 등의 징역형을 언도하였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은 피고인들 전원이 1년 남짓해서 석방되였고 그중 김종원이란 자는 전북경찰청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직책에까지 승진했다는것이다.

류혈참극, 719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간 살인자들중 처형된 자는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들이 합법화된 명령에 의해서 행동했다는것을 의미한다. 살인명령은 누가 떨궜는가. 다름아닌 미국이였다. 재판과정에 한 피고가 《작전수행중 미수복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은 적으로 간주총살하라.》

는 명령 5호에 따라 집행했을따름이라고 증언한데서 그 흑막의 리면을 여실히 볼수 있다.

전쟁 초입부터 미주둔군사령관이 괴뢰군통수권을 쥐고 있었다는건 기정사실이고 명령서의 취지, 성격이 신통히도 력대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들과 꼭 같다는 점이다.

1948년도 제주도에서 4.3사건이 터졌을 때 그 지역 미군사령관 브라운대령은 《원인은 흥미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라고 하며 《해안선으로부터 4km 떨어 진 지점부터 적지로 간주하라.》는 명령서를 떨구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해안선에서 4km 떨어 진 곳에서 발견된 사람은 로인, 아이, 녀인을 가림없이 적으로 간주하고 사격을 하라는 소리인데 《작전수행중 미수복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은 적으로 간주총살하라.》는 명령서와 일맥상통한데가 있다.

남조선의 군복 입은 무리야말로 미국의 의지, 미국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철저한 꼭두각시였다. 그들은 미국제무기의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에 불과했다. 그자들에게는 괴뢰군이라는 이름이외에는 다른 이름이 있을수 없다. 이것은 가증스럽기보다 슬픈 일이며 조선민족의 수치이다.

제2의 거창사건으로 알려 진 《함평량민학살사건》은 그 진상이 더욱 처참했다. 놈들은 수백명의 주민들을 한곳에 운집해 놓고 기관총으로 사격한 다음 《너희들중 살아 남은 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니 돌려 보내겠다.》라고 해서 일궈 세워 놓고는 또다시 사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몇번 반복하여 《씨를 말리운것》이 함평사건이다. 그뿐이 아니다.

괴뢰군 11사단 9련대 3대대는 거창으로 들어 가기 전인 2월 8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로인, 부녀자, 미성년자 183명을 학살한데 이어 다시 가현, 접천 등 8개 마을 주민 380여명을 금서면 방곡리의 논으로 끌고 가 살해하였으며 린접한 함양군 류림면 서주, 손곡, 지곡 등 3개 마을에서도 370여명을 학살했다고 한다.

당시 놈들의 학살만행이 어떤 극점에 닿았던가는 그때로부터 4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지리산린근마을들에서는 한날한시에 제상을 지어 놓고 곡성을 터뜨리군 하는 집들이 100, 200세대정도가 아니라는것으로도 짐작할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자식들, 남편을 잃은 녀인들, 자식들을 잃은 로인들… 지리산기행을 마친 한 문사는 《나로서는 이곳 지리산이 울음주머니인것처럼만 느껴 진다.》라고 쓰기까지 했다.

세상을 경악케 할 이 사건들은 사건의 당사자들이 거의 생존해 있지 못한데다가 그의 유가족들조차 사대매국세력의 《반공》력으로 말 한마디 할수 없어 지금까지 과거의 어둠속에 파묻혀 왔다. 이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용공》분자로 몰려 감옥에 갇혔다. 무고한 죽음을 당한 자가 죄인으로 되고 살인자가 《정의》로 되는것이 오늘의 남조선사회이다.

그러나 력사는 공정한것이다. 그 전률의 기록들은 무척 더디게나마 한페지 두페지 들추어 지며 사건의 진면모를 드러내주고 있다. 이 사건들의 진상에 대해서는 이미 남쪽의 여러 출판물들에도 적으나

마 실렸으며 《무지와 권력의 야수화》라고까지 특징 지었다. 내외에 이미 알려 진 사실이기에 나는 남에서 쓴 수기에서는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 수기를 다시 쓰면서 학살만행에 대하여 언급하는것은 요즘 남조선당국자들의 너무도 파렴치한 랑설때문이다.

나의 동지들인 김인서, 함세환에 대한 송환요구에 《량민을 학살한 범법자》들이기에 돌려 보낼수 없다는 이남당국자들의 궤변에는 의분을 참을수 없다. 문자 그대로 적반하장격이다. 거창사건이나 함평사건을 《빨갱이의 소행》으로 꾸며대려다가 들장난것이 언제인데 또 이런 장난을 하는것인가. 그자들의 파렴치에는 한계가 없다. 언제인가 가서는 수천의 애국적시민들을 학살하여 도시전체를 《피의 목욕탕》으로 화하게 한 광주학살만행도 《북의 소행》으로 날조하지 않겠는가. 너무하다. 실로 너무하다.

바로 그런 거짓을 위하여 그자들은 남녘의 천하에 《반공》의 독초를 심어 놓았다. 무지와 편견이 만들어 냈고 미국산, 일본산 비료로 키워 낸 《반공》의 독초, 나와 나의 동지들은 바로 그 독초를 뿌리뽑으려고 싸웠고 피를 흘렸다…

남녘의 동지들이 즐겨 청한 이북이야기

이름 없는 농군의 시체를 묻고 우리일행은 다시 높은 령 숲속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전날 저녁 모두 굶고 있을 때 권영태동지가 공작갈 때 쓰려던 최후의 비상미를 탈탈 털어 내놓았

다. 그것으로 죽을 끓여 저녁을 때우고 아침에는 무전반에서 무전기를 돌리는 동지들에게 남은 쌀을 모두 넘겨 주고 떠나온 우리들이기에 배에서는 계속 쪼륵쪼륵 소리가 나고 있었다.

허덕허덕 산길을 오르다 숲속에 앉아 쉬는데 난데없이 콩볶듯 한 총성이 요란하다. 모두 신경을 곤두 세워 여기저기를 살필 때 정영섭동지가 살살 기여 오고 있는것이 보였다. 그는 하동군에 파견되여 악양면당에서 사업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총화를 위하여 산으로 돌아 오는 길에 괴뢰군잔여부대의 매복에 걸려 죽을번 한 고비를 용케 넘기고 빠져 나오는 길이였다.

권영태동지가 쫓아 나가 그를 와락 껴안았다. 거기 있지 말고 숲속으로 빨리 들어 오라고 소리치자 그제야 그들은 부둥켜 안은채 기여 들어 왔다.

정영섭동지가 묻는다.

《이번 놈들의 공세로 하동군당은 분산되고 련락선에도 나오지 않아 군당에도 못 들리고 오는데 동지들은 어디로 가오?》

취재를 위해 하동에 가는중이라고 했더니 선이 끊어 져 찾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걱정한다.

《점심들은 먹었소?》하고 정영섭동지가 또 묻는다.

《점심이 다 뭔가. 아침도 못 먹었는데 점심 같은 소리하네.》

배 고픈중에서도 그 대답에 박장대소하는 우리들 앞에 정동지는 배낭을 끌러 인절미 세개를 내놓는

다. 면당에서 사업하는 동지가 할아버지 제사날 집에 가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을 가져 왔다는것이다.

조금씩 쪼개여 똑같이 한쪽씩 입에 넣으니 그 쫄깃쫄깃한 맛이란!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던가 싶다. 작은 떡쪼각을 씹어 넘기니 렴치도 없이 더 먹고 싶던 그때의 심정을 무어라 표현할수 있을것인가.

《그게 다요. 적기는 했지만 값은 내셔야 하오.》

정동지가 나를 쳐다보며 하는 말이다.

정영섭동지는 항상 위험하고 힘든 일은 제가 다 도맡고 헐한 일은 다른 동지들이 하게 하는 말 없고 부지런하며 희생적인 동지였다.

지난 여름 식량이 떨어 져 며칠을 굶다가 할수없이 증산뒤로에서 입산주민들을 교양하고 있던 그를 찾아 갔던 일이 있다. 우리가 굶고 있으니 방법이 없겠는가 했더니 그는 입산주민들에게 《나의 집은 하동인데 소 한마리를 우선 주면 꼭 갚겠다.》고 채용증서를 써주고 소를 얻어 주었다. 내가 펄쩍 놀라며 당신 혼자서 그걸 어떻게 물어 주겠느냐고 했더니 그는 웃으며 그런 걱정은 말고 그 대신 자기와 입산주민들한테 이북이야기나 해달라고 했다.

덕분에 우리는 산나물을 캐여 넣고 고기국을 끓여 먹으며 위기를 면할수 있었고 밤늦도록 북쪽땅에서의 평화적건설시기의 광복후 5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었다.

지금 그가 미리 빗 지우는 《값》인즉 또 이북이야기를 해달라는 소리다. 그만이 아니라 남쪽출신 동지들은 이북땅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 하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그 생활이 바로 그들이 목숨 바

쳐 얻으려는 생활이고 그들이 통일조국에 세우려고 결심한 인민의 세상인데야. 그때마다 나는 사양하지 않고 이야기를 펼쳐 놓군 했었다.

《암, 물론 값을 내야지.》하고 대답해 주는데 하동군당위원장 목영일동지가 련락원을 데리고 우리쪽으로 오고 있는것이 보였다. 우리가 인기척을 내자 련락원은 금방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태세이고 목영일동지는 우뚝 서버리는데 돌로 굳어 진 사람 같았다. 정영섭동지가 얼굴을 내보이며 손짓하니 목동지는 삽시간에 긴장이 풀려 싱긋 웃는다.

그는 자폭하기 위하여 손에 쥐고 있던 수류탄을 도로 넣고 뛰여 와 정동지를 덥석 껴안았다. 목영일동지는 놈들의 대공세에 피해를 입은 다음 대성골의 험한 산죽밭에 군당거점을 옮기고 끊어 진 련락선을 잇기 위해 최후비상련락거점으로 가는 길이였다.

정동지는 이 정황을 알리려 다시 도거점으로 떠나가고 우리는 목동지를 따라 대성골로 떠났다. 험한 산발을 타고 눈속을 헤치고 그들이 옮긴 거점에 도착하니 전사들이 큰 바위에 의지하여 모닥불을 지펴 놓고 무기소제들을 하며 코노래에 맞추어 발장단을 밟고 있었다. 기세들이 죽지 않은 전사들을 감동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섰는데 목영일동지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끼니를 번졌을거라고 하니 전사들은 거침없이 배낭을 헤쳐 겉보리 몇줌을 내여 준다. 그것을 정신없이 입에 넣어 맛 있게 씹으며 허기를 면하고 나서야 나는 그 겉보리가 그들의 저녁거리임을 깨달았다.

자기 배 곯을 일은 생각도 않고 굶고 있는 동지를 우선 먹인 그 아름다운 인정앞에 새삼 머리가 숙

어 졌다. 때투성이의 떨어 진 옷, 숯검댕이에 그슬린 얼굴들이지만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죽음도 각오한 유격전사들이구나 하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이들이 무엇때문에 산중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북과 같은 정치, 북과 같은 세상을 그리며 자신들은 싸우다가 죽어도 자식들이라도 그런 세상에 살게 하려는 념원에서 비롯한 각오가 있기때문일것이다.

나는 이들과 함께 모닥불을 쪼이며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화제로 된것은 이번 괴뢰군의 공세에 대한것과 전쟁정세 그리고 나의 북도말씨를 알아 듣고 청한 북에서의 5년간 생활이야기였다.

나는 그때 아마 흥남비료공장 지배인 공부시키던 이야기를 했었던것 같다.

한 동지가 《남의 일 같지 않소. 나도 공부는 잘하는 축이 못되는데.》하여서 모두 웃었던것이 기억난다.

나는 토지개혁때의 이야기도 했다. 그러자 다른 한 동지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소. 짧긴 하지만.》하고 싱그레 웃었다.

남녀동지들이 자주 청하고 즐겨 듣던 이북이야기, 그 이야기를 꿈 꾸듯이 미소를 지으며 듣던 그들의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선연하다.

아, 그들중 한 동지만이라도 이 북쪽땅에 나와 같이 올수 있었더라면!…

지리산의 밤

《남부군》과 《지리산》의 필자들과 지리산유격대에 대한 텔레비죤극을 만든 사람은 지리산유격대의 력사를 《굶고 얼고 쫓겨 다니다 죽은》것으로 그렸으며 절망과 탄식, 후회로 일관된 행로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포위속에 있다고 하여 절망하지도 않았고 락심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유격전에 대한 무식에 기인되는 견해이다. 유격전이란 원래 포위속에서 진행되는 투쟁방법이 아닌가. 적을 불의에 기습하고는 그 장소를 빨리 리탈하며 정면충돌을 될수록 피해야 한다. 유격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적의 추격과의 투쟁이다.

유격전의 상식이 없는 사람만이 지리산유격대원들을 굶고 얼고 쫓겨 다니다가 절망과 탄식, 후회속에서 죽은 사람들로 볼것이다. 하기는 그들에게서 군사란 미국의 하이칼라식전술교범에서 얻은것이 전부일테니 더 말할 필요도 없을것 같다.

우리에게는 웃음도 있었고 노래도 있었다. 대성골 산죽밭에서 전사들과 함께 오락회도 하며 지낸 그날 밤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다.

밤이 얼마간 깊었을 때 그들은 오락회를 벌려 놓았다. 돌아 가며 지명하는 식으로 노래 불렀는데 대체는 북쪽노래를 많이 불렀던것으로 기억된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른 전사도 있었고 한 전사는 서울부민관에서 인민군협주단의 공연때 배웠다면서 《전진이다 전진이다》를 불렀다.

나에게도 차례가 왔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던지 모르겠다. 결혼식때처럼 《적기가》를 부른것이나 아니였는지…

다음차례는 김동무라는 전사였는데 이름은 똑똑히 기억나지 않는다. 김 무슨 룡이던가 김덕뭐였던것 같다. 내 입당보증인 김덕룡동지와 비슷한 이름이구나 하고 생각했던것만 뚜렷하다.

김전사는 노래대신 시를 읊었다. 그중의 몇구절을 여기에 옮겨 본다.

무너진 옛것을 다시 쌓아 보려는
림종이 가까운 늙은 추물의
망녕든 잠꼬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우리의 젊음이냐
…
새로운 제국주의자와
망녕된 늙은 강아지에게
저승길로 가는 로자를 주어
지옥으로 내여 쫓자

시는 무척 마음에 들었다. 랑송이 끝난후 나는 그에게 말했다.

《김동문 시인이구만.》

그는 웃으며 자기는 시라는 글자도 잘 모르고 그 시는 유진오라는 시인의 시라고 말했다.

알고보니 그 시인은 전쟁전 이 지리산유격대에서 투쟁하다가 체포되여 학살 당했는데 그 시는 1946년 서울에서 국제청년절행사때 랑송한 시라는것이였다.

시인은 체포되여 서대문형무소에서 10개월 복역하는 기간 미군정이 전향공작의 일환으로 벌린 《성탄

절오락회》에 나가서 《적기가》를 부름으로써 그것이 선창으로 되여 온 인왕산을 《적기가》로 진감시킨 일도 있었다.

그가 얼마나 대중을 틀어 잡았던지 출옥후 문화공작대로 경남 진영에 갔을 때는 농민들이 수십리밖에까지 나와 환영했고 《함구령》을 받은 시인이 시랑송을 할수 없음을 알리자 《그럼 얼굴만이라도 보자!》고 부르짖었다고 한다. 쏟아 지는 폭우속에서 시인은 군중앞에 나섰고 틀어 쥔 주먹을 머리우에 높이 쳐들어 시랑송을 대신했다. 그때 마음속으로 읊은것이

다시 또다시
톱날 같은 땅우에
한몸 하늘을 떠받들고
말해서는 아니될 말을 씹어 삼키며

라는 시였다고 한다.

그후 시인은 1948년 말에 지리산으로 들어 왔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처녀와 결혼한 며칠후였다는것이다. 젊은 부부는 폭력단의 습격으로 결혼 첫날 밤을 뒤산에 올라 찬이슬을 맞으며 보냈다고 한다. 지리산에서 싸우던중 1949년에 체포되였으나 어떤 고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고 학살되고 말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군사재판정에서 그는 《피고는 형무소에서 불온시를 써서 〈란동자〉들을 선동한적이 있는가?》하고 검사가 물었을 때 《나는 시인이다. 이것이 왜 불온시란 말이냐?》하고는 《아 보고 싶은 북쪽하늘이여!》라는 시를 랑송하여 법정을 찌렁찌렁 흔들어 놓았다고 한다.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묻는다. 피고는 남한을 지지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을 지지하는가?》하고 묻자 그는 《너희들은 그만한것도 판단할 능력이 없느냐?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다!》라고 소리높이 대답했다는것이다. 그때 그의 나이는 스물여덟살이였다.

나는 그후 그에 대하여 자주 생각했다. 형무소에 앉아 있느라면 《아 보고 싶은 북쪽하늘이여!》라는 시구절이 저절로 떠올랐고 4.19때에는 《누구를 위한 우리의 젊음이냐》를 생각했고 출옥후에는 《조국과 함께》를 자주 생각했다.

그는 긴긴 옥고에서 여러 동지들과 나란히 나와 함께 있은것과 다름 없었다.

안해는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며칠후에 그에 대해 쓴 책을 한권 가져다 주었다. 그 책을 보니 시인의 부인 김금남(시인은 남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한다.)은 1950년 늦은 가을 부상 당한 몸으로 갓돌 지난 딸을 안고 북으로 들어 왔다는 내용이 있었다. 부인은 그후 재령식료공장 공장당위원으로, 작업반장으로 사업하고 딸 유향순은 학교를 최우등으로 다니고 있다고 씌여 있었다.

그들은 1949년에 세상을 떠난 유진오선생이 어떻게 이 리인모의 동지로 될수 있었는지를 모를것이다. 혁명가는 신념과 의지로 동지를 갖게 되는것이다…

이왕 시인에 대한 말을 시작한김에 몇마디 더 쓰고 싶은것이 있다.

내가 지리산에서 싸울 때도 지리산유격대에는 종군작가가 한 동지 있었다. 길택이에게서도 들은적

이 있는데 직접 만나본 기억은 없다. 아마 신문에도 그의 원고를 많이 편집하였을것인데 전투원으로 싸웠던것 같다. 하기야 수백수천의 지리산 갈피마다에서 싸우고 있었을 전사들을 어찌 다 알수 있으랴.

이곳에 와서야 나는 그 작가가 광복전에는 《카프》문학에도 참가했고 광복후에는 서울에서의 문필활동에 이어 평양에 들어 와 사범대학 강좌장을 력임하면서 다수의 소설을 창작한 리동규선생임을 알게 되였다.

그는 종군작가로 남진대오를 따라 나갔다가 전략적일시적후퇴시기에 지리산으로 들어 갔던것이다. 시천장터전투, 마천전투를 비롯한 수다한 전투들의 참가자였던 선생은 1952년 3월 15일 변절자의 밀고로 적들의 포위속에 들자 《**김일성**장군 만세!》를 웨치며 자폭했다고 한다.

그의 영웅적최후를 목격한 괴뢰《특공대》 장교는 후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리동규라고 하면 남조선에도 널리 알려 진 작가여서 손들고 나와 글만 몇편 잘 써내도 처지를 얼마든지 고칠수 있었는데 그렇게 죽음으로 길을 택한것은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선생의 배낭에는 《지리산빨찌산의 노래》 미완성 유고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 구절구절이 너무도 가슴을 두드려 여기에 그대로 인용해 본다.

지리산 첩첩산악 손아귀에 거머잡고
험악한 큰 산준령 평지같이 넘나드네
지동치듯 부는 바람 우리 호통 웨치고
넓은 들에 흐르는 물 승리를 노래한다
…

그뿐이 아니다.

형무소에 있을 때 태백산유격대출신의 한 동지를 만난적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네 부대에도 작가가 한 명 있었다고 했다. 후퇴를 미처 못해 유격대에 합류한 북에서 종군나온 작가였는데 원주지방에서 괴뢰군에 포위되자 《**김일성**장군 만세!》를 웨치며 자폭했다고 그 동지는 감동에 겨워 말했다.

북쪽에 와서 알아 보니 그 작가는 바로 김사량선생이라고 한다.

일제때 벌써 대단한 문필력으로 《아꾸다가와상》에 론의되여 들썩하게 했고 일본의 나프문학건설에도 참가했다는것은 그때 벌써 널리 알려 져 있었다. 중국 연안에 가서 지낸적이 있어 《노마만리》라는 장편종군기를 썼고 광복후 평양에서는 《뢰성》이라는 장군님에 대한 장막극을 써서 공연했다. 그런분이였으니 적들의 손에 붙잡히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한것이다.

참된 문필가는 신념과 량심, 지조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남부군》이나 《지리산》의 필자들도 과연 문필가라고 할수 있을가.

지리산의 그날 밤, 찬바람이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몸을 얼구었으나 그 밤에 우리 전사들은 통일조국을 그려 보았고 그 조국을 위하여 쓰러진 동지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언땅에 뜨거운 노래를 묻으며 지새운 밤이였다.

산생활을 못해 본 사람들은 언땅과 마른 나무잎을 깔고 자는 밤의 뜨거움과 랑만을 알수 없을것이다. 그 밤들에 나무가지사이로 비껴 드는 하늘에서 북두칠성을 찾아 보군 하던것이 기억에 새롭다.

한 녀맹위원장의 최후

이튿날 전사들과 헤여 져 눈길을 헤치며 령을 오르고 내려 청대골을 지나 장고봉에 오르니 벌써 해는 떨어 지고 땅거미가 밟힌다. 어디로 가서 잘것인가 생각하다가 상봉쪽 굴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진주시당 거점을 알기에 거기에서 자려고 찾아 가보니 많은 동지들이 열병에 걸려 누워 있는데 조직부장이 반가이 맞아 주었다.

좀 앉아 있으려니 조강지처형으로 순하디순한 모습의 한 녀성이 조용히 들어 섰다. 조직부장은 깜짝 놀라는 표정이였다. 진주군에 사업을 나갔으므로 좀더 있어야 돌아 올터인데 무슨 사고가 났기에 이렇게 빨리 왔을가 해서였다.

알고보니 그 녀자는 진주군녀맹위원장이였다.

…그가 진주에 도착하여 녀동무의 집에 가니 마침 일전에 산에서 내려 가 경찰에 자수한 자가 와 있었다. 모른체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자의 눈치가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그곳을 빠져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녀맹위원장은 녀동무에게 변소가 어디냐고 물었다.

그자가 눈치를 못 채도록 태연히 저고리를 벗어 홰대에 걸어 놓고 방을 나온후 변소뒤창으로 빠져 나와 산으로 오다가 중간에서 다른 저고리를 얻어 입고 왔다는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조직부장이 당신의 친구라는 녀인도 의심스럽다고 했더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그 녀인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전에 마산에서 한 십리가량 떨어 진 농촌에서 살 때예요. 그 녀자는 바로 이웃에서 살았지요. 남새가 날 때면 남새를 그 동무와 함께 마산에 이고 가 팔기도 하고 형이야 동생이야 하며 지내던 극진한 사이였답니다. 그는 마음이 곱고 인정이 많은 사람일뿐만아니라 시부모공대는 물론 남편도 잘 섬기는 알뜰한 세간살이군이예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착실한 아낙네였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가정에 날벼락이 떨어 질줄이야… 그것은 광복후 미군이 진주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구들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미군 네놈이 들이닥쳐 식구들을 총으로 몰아 내고 한놈이 내 친구를 딴방에 끌어다가 옷을 벗기고 짐승 같은짓을 저질렀답니다. 한놈은 문앞에 총을 들고 서 있고 또 한놈은 사립문앞에서 지켜 서서 교대로 드나들며 덤벼 들자 내 친구는 기절했대요. 짐승 같은 놈들에게 그 일을 당한후 그 집안은 남 부끄럽다고 몰래 마을을 떠나버렸구요.

그 일이 있은지 몇년후에 진주에서 그 녀인을 다시 만났는데 미군에 대한 적개심은 말할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죽지 못해 당한 그 분함을 어찌 잊겠어요. 비록 총을 쥐고 싸우지는 못하고 있으나 절대로 변할수는 없어요. 내 남편이 놈들한테 학살 당했을 때 함께 땅을 치며 통곡하던 그가 밀고자들과 련결되다니요. 말도 안되는 애깁니다.》

녀맹위원장의 이야기가 끝나자 갑자기 숙연해 진 분위기가 되였다. 나는 《현모량처》로 불리우던 우리 녀성들이 어떤 곡절들을 거쳐 저렇게 강해 졌는가를 생각했다.

지리산유격대에는 녀인들도 많았다. 여느 때는 양처럼 순해만 보이는 그들이 싸움에 들어 서서는 남자들 못지 않게 희생적이였다. 곤난을 이겨 내는데는 남자들보다 더 이악하면서도 참을성이 강했다.

조직부장이 침묵을 털어 내려는듯 말했다.

《자아, 녀맹위원장동무도 무사히 돌아 왔으니 우리 꿀이나 따다가 맛을 봅시다.》

산생활에서 단맛을 본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이고 그래서 제일 먹고 싶은것이 당분이므로 그 말에 모두 귀가 솔깃하였다. 알고보니 한 200년도 넘었을 아름드리 상수리나무가 하도 오래되여 그속에 구멍이 났는데 거기다 벌들이 집을 지었다는것이다.

한시간쯤 지나 꿀벌집이 그냥 섞인 꿀을 대야에 수북이 담아 가지고 돌아 왔다. 우선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들도 숟가락으로 꿀을 먹기 시작했다. 좀 먹다보니 느끼하였는데 《이 꿀은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깊은 산속의 산꿀이기때문에 보약이 된다.》는 말에 유혹되여 억지로 더 먹었더니 술도 아닌 꿀에 취한듯 하였다.

취한 잠에서 깨여 나니 몸이 끈적끈적하고 좋은 보약을 먹은 기분이였다.

그때 보초선에서 괴뢰군이 포위공격해 온다는 련락이 왔다. 급히 열병환자들을 옮기고 서류를 감추고 나서 나머지사람들도 피신할 곳을 찾는데 누군가 《이 굴 바로 우에 또 굴이 있는데 견고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다.

녀맹위원장은 《제가 여기 있을터이니 빨리 올라들 가세요.》하고 나섰다. 밑에 있는 이 굴을 누가 지키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놈들이 이 근방을

샅샅이 뒤질것이니 환자들이 문제라는것이였다. 동지들이 딱해 하자 그는 입산주민으로 가장할테니 자기 걱정은 말라며 우리들을 안심시켰다. 사실 급할때 더러 입산주민으로 가장하여 위기를 모면한 일이 드문히 있기도 했다.

웃굴에 올라 간 우리들은 만약 그가 위협에 못 이겨 우리가 숨은 곳을 알려 주면 어쩌나 하는 한가닥 위구심때문에 수류탄들을 뽑아 들고 아래굴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괴뢰군놈들이 올라 오는 소리가 났다. 그중 상관인듯 한 자의 윽박지르는 소리가 들려 왔다.

《넌 뭐냐?》

《저는 중산부락에 사는데 농사때문에 시천에는 못 나가고 여기 피난 와 있어요.》

녀맹위원장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전에 다시 그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거짓말 말아. 네가 다른 놈들 있는데를 알려 주면 살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일테다. 이 갈보년아!》

《갈보년이라고? 네놈들은 부모도 없는 놈들이냐. 녀인들을 욕되게 하는것이 네놈들의 업이니 그런 말밖에 모르누나?》

한편 피할수 없는 위험을 감지한데도 있지만 놈들의 행위에 더욱 칼날 같아 진 그 녀인의 목소리.

《이년 죽고 싶으냐?》

《그래 죽고 싶다. 너 죽고 나 죽자.》

순간 밑굴에서는 소요가 뚝 끊어 졌다. 녀맹위원장이 수류탄을 빼들었음이 분명했다.

이윽고 그 녀자의 쟁쟁한 목소리가 우리들의 심장을 때렸다.

《**김일성**장군 만세!》

굉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아비규환의 소리.

다시 깃든 정적속에서 우리들은 말들이 없었다. 하지만 그 녀인의 최후의 순간에 부르고 간 웨침소리는 모두의 가슴속에 계속 울리고 있었다.

밑에서 폭음을 듣고 올라 온 놈들이 시체들을 거두느라고 야단법석들이였다.

누군가 구석에서 흑 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났다.

한참 지난후 우리들은 모두 그곳에 내려 갔다.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흥건히 고인 피가 동굴을 온통 시뻘겋게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는 녀맹위원장이 앉아 있던 자리를 향하여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한결같이 눈물을 머금고 그 녀성이 무엇을 기원하며 갔던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기였다.

비판과 동지애

한 녀성의 영웅적희생으로 우리 비무장들은 위기를 면할수 있었다. 그곳을 떠난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폭포수골 릉선 바로 밑에 거점을 잡았다. 그런데 이때는 괴뢰군이 총 공세를 취하던 때여서 안전한 곳이란 없었다. 겨우 자리를 잡을가 하는 때에 갑자기 괴뢰군무리가 까맣게 몰려 올라왔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발견하고 밀려 온것이

아니였다. 우리도 이제는 계속되는 공세에 익숙해져서 별로 당황함도 없이 짐을 챙겼다. 한두명씩 흩어 져 바위틈에 숨어 수색망을 피하며 다음 집결장소로 찾아 가기로 했다. 중봉에서 뻗어 내리다 갈라 져 쑥밭재엮으로 뻗은 릉선끌밑에 다달았을 때 릉선에서 《누구야!》하는 소리와 함께 격발기를 찰칵 당기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숲속에 엎드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적인지, 아군인지…

그때 옆에 같이 있던 강명석동지가 나를 쿡쿡 치며 나가보라고 했다. 그는 전쟁전에도 유격대에 참가하여 싸웠던 경험이 풍부한 도당간부이다. 나는 유격전의 경험이 없기에 그의 말을 존중하여 지시대로 앞으로 나가 소리쳤다.

《누구요? 나는 무전반에서 신문편집하는 아무개요.》

그러자 상대는 주춤하더니 모습을 드러냈다. 도당 호위중대장이였다.

《그 골짜기로 올라 가시오. 경리부가 저녁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소.》

함경도억양이 별로 반가왔다.

그런데 그는 왜서인지 성이 난 표정이였다. 그는 함경북도출신으로 목포지역에 정치공작대로 나갔다가 후퇴시 지리산유격대에 입대했다.

나는 숲속에 들어 와 강명석동지를 데리고 함께 골짜기를 올라 가 주먹밥을 한덩이씩 얻어 먹었다. 무전반이 어떻게 되였는지 궁금해 곧 일어 서려는데 호위중대장이 내게로 다가왔다.

《땅거미가 덮여서 적들이 일단 철수하였다고는 하나 만일을 알수 없는데 내가 만일 방아쇠를 당기면 어쩌려고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단 말이요?》

나는 머쓱하여 정황을 설명하였다. 그는 혀를 차더니 내게 침을 놓았다.

《경험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건 엄격히 말하면 모험주의라는것을 알아야 하오.》

그때야 나는 그가 왜 처음 만났을 때 성난 얼굴이였는지를 알았다.

《그렇게 값없이 죽어서야 되겠소? 우리는 조국을 통일하고 돌아 오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온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값 있게 살고 죽어도 값 있게 죽읍시다.》

그때의 찡— 해오던 마음을 어떻게 말할지, 그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그 동지는 그후 중상을 입어 적들에게 체포되였고 1953년 광주형무소에서 최후를 마쳤다. 참으로 아쉽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후 그는 그 사실을 도당조직위원회에 제기하여 다시 그 문제가 취급되였다.

조직위원회는 강명석동지가 해가 비록 떨어 졌다고는 하지만 적이 완전히 철수하였는지도 잘 모르는 위험한 조건속에서 자기 대신 동지를 내보낸것은 자본주의적리기심을 청산하지 못한 옳지 못한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책벌을 주었다. 강명석동지는 비판을 허심히 접수했고 나를 찾아 와 다시 자기비판을 했다. 그후 그와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되였다.

참으로 훌륭한 동지들이였다. 그런데 강명석동지 역시 오늘을 보지 못하고 1952년 1월 괴뢰군들의 공세때 대성골전투에서 조영래동지와 함께 전사하였다…

다른 하나의 일도 생각나는것이 있다. 바로 그날에 있었던것 같다. 흩어 졌던 무전반동지들을 수습하여 간단한 터를 만들고 모닥불가에 앉아 동지들을 무비판적으로 대한 일이 없었던가를 돌이켜 보고 있을 때 무전반원들의 한사람인 오철남동지가 돌아 왔다. 뒤늦게 돌아 온 그의 얼굴에는 무척 당황한 기색이 력력했다.

《저우에 아름드리 자작나무가 있는데 그 주변에 각 뜬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급히 가보자고 서두르는 그를 좀 있으면 새벽인데 그때 올라 가 보자고 말한후 동이 트자마자 그를 앞세우고 올라 갔다.

한참 올라 가니 얼마나 묵었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운 자작나무가 한그루 서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 보아도 사람의 시체는 눈에 띄지 않았다. 울툭불툭한 뿌리들이 땅우로 여기저기서 드러나며 사방으로 뻗어 있을뿐이였다. 얼마후에야 우리는 그 드러난 뿌리들이 어둠속에서 사람의 팔다리처럼 보였음을 깨달았다. 처음은 웃었으나 다음은 생각 많게 하는 실수였다. 지리산의 곳곳에 괴뢰군과 경찰이 학살한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그자들은 전쟁을 피해 산에 피난해 올라 와 있는 주민들을 만나기만 하면 유격대라고 학살했고 《토벌전과》에 포함시켰다. 그들이 발표한 《소멸》된 유격대수자들중에 유격대라는 말조차 몰랐던 입산주민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여 있을것은 의심할바 없다. 거창이나 함평에서 학

살한 주민들도 《공산비적》이라고 주장한 그자들이였으니 말이다.

오죽했으면 별로 당황함이나 겁을 모르던 오철남동지가 나무뿌리를 각 뜬 사람의 시체로 오인했으랴.

이야기가 지내 다른 갈래로 흐르는것 같다.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라고 중얼거리며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오동지를 달래여 데리고 내려 오는데 숲속에 웬 자그마한 사람 하나가 오도카니 앉아 있는게 보였다. 아이 같았다. 이 무시무시한 산중에 웬 아이가 혼자 앉아 있을가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가 《누구요?》하고 내가 조심히 물었더니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생긴 소녀의 얼굴이 나를 향해 반기는것이 아닌가.

《신문반동지시죠? 전 동지를 압니다. 저는 산청군녀맹 문교부장인데 부락에 사업 갔다 돌아 오는 길입니다.》

그는 밤이 되자 길도 찾을수 없고 또 가는 곳마다 괴뢰군천지여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였다.

어린 처녀로 숲속에서 혼자서 밤을 새우려니 얼마나 무서웠고 힘겨웠으랴. 게다가 지칠대로 지쳤고 이틀째나 식사도 못한 상태였다.

우리는 배 고파 잘 걷지도 못하는 소녀를 부축하여 돌아 와서는 밥을 먹이고 선을 태워 산청군으로 보냈다.

우리 동지들은 그를 친누이동생처럼 대해 주었고 바래주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여 소녀와는 아주 친

숙해 지게 되였다. 전라남도 구례가 고향인 그 처녀는 구례녀고재학중 의용군에 자원하여 락동강전선에서 싸우다 지리산에 오게 되였다고 했다. 고향으로 보내주려 해도 안 간다며 지리산에 남아 녀맹에 소속되여 싸우는 처녀였다.

한번은 련락선을 통하여 그 처녀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만년필이 필요하니 여유가 있으면 보내줄수 없겠느냐는것이였다. 당시는 원주필도 없는 때고 만년필은 산생활에선 구경조차 할수 없는 귀한것이였다. 그러나 누구나 소녀의 첫 부탁인데 꼭 구해 주자고 하였고 그래서 여러 군에 부탁했는데 마침 구하게 되였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흐뭇해 했던가. 온 종일 기분 좋았던것이 기억된다. 만년필을 보내준 뒤에는 소녀가 만년필을 받아 들고 기뻐 할것을 생각하며 오래동안 마음 흐뭇함을 느꼈다…

이렇게 우리는 지리산의 언땅을 뜨거운 우애로 덥히며 싸웠다.

동지를 기쁘게 해주었을 때가 제일 기뻤다.

이런 동지애가 없이는 산생활, 유격투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잊지 못할 지리산의 애어린 꽃망울들 ①

51년 12월, 전선에 있던 괴뢰군 《수도사단》이 지리산주변으로 집결하여 유격대《토벌》을 위한 1차 대공세를 감행했다. 겨울에 접어 들면서 괴뢰군의 공세는 끊임없이 계속되였으나 12월 대공세의 규모는 그야말로 사상 최대였다.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속에서 괴뢰군경들은 서로 손을 잡으면 잡을수 있는 간격으로 서서 산을 포위

하면서 수색해 올라 왔다. 항일유격대를 《토벌》하던 왜놈들의 《참빗전술》 그대로였다. 하기는 괴뢰군장교들의 대부분이 왜군이나 위만군출신이였으니 응당하다고 해야겠다.

괴뢰군의 포위공격을 피해서 굶주림에 허덕이며 산중턱을 끼고 돌다가 우리는 하동쪽에서 산청군 삼장면쪽으로 빠지기로 하였다. 온밤 눈속을 헤쳐 날샐녘에는 싸리봉에 올라 섰다.

진양군녀맹에서 일하는 녀성이 보따리에서 쌀을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물이 없어 씻지도 못하고 그냥 솥에 넣고 그우에 눈 녹인 물을 부어 끓이는것이다. 그래도 솥에서 죽이 끓으며 피여 나는 고소한 냄새는 배 고픈 우리를 못 견디게 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향생각을 불러 일으킬 때였다. 남경우위원장이 벌떡 일어 서며 《적이다!》하고 웨쳤다. 뒤이어 총탄이 날아 온다. 죽이고 남비고 모두 팽개치고 릉선을 향해 뛰는데 총알이 비발친다. 바위옆을 지날 때면 총탄이 바위에 맞아 돌쪼각과 탄환파편들이 날아 와 몸에 박힌다. 그래도 계속 뛰여 가고 있을 때 내앞에 가던 허동욱부위원장이 외투를 벗어 던지는것이였다. 경황 없는중에서도 나는 외투를 주어 들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에는 호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또 집어 던지는것이 아닌가.

그것마저 주어 들고 정신없이 릉선을 넘으니 총성이 멎고 따라 오던 괴뢰군들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들 눈속에 앉아 가쁜숨을 돌렸다. 내가 허동욱부위원장에게 외투를 주면서 롱담으로 주어 온 값을 내라고 했더니 하도 몸이 무겁고 숨이 차서 벗어 던졌단다. 호주머니에서 꺼내던진것은 양말이였다. 얼마

나 숨이 찼으면 양말까지 내던졌을가. 나이가 50이 넘은분이니 더 힘들었을것이다. 그러면서도 앞길에 대한 정찰을 조직하고 누가 뒤떨어 진 사람이 없는가부터 알아 보려고 남경우위원장과 함께 다시 일어 난다. 나도 그들을 도와 나섰다.

빤히 마주 보이는 장고봉에서는 괴뢰군들이 불을 피워 놓고 떠들고 야단이다. 그런데 점검해 보니 길택이와 송중명이 보이지 않았다.

떠나온 자리에는 이미 적들이 욱실거리고 있어서 다시 가볼수도 없었다. 걱정하고 있을 때 정찰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 왔다. 그들이 안장바위릉선에는 괴뢰군이 없는듯 하다기에 모두 일어 나 안장바위로 출발했다.

실종된 송중명과 길택이는 밤에 다시 찾아 볼수밖에 없었다. 도중에 비상집결장소인 조개골에 들려 신호를 하니 대답신호가 온다.

그런데 대답신호의 주인은 뜻밖에도 길택이였다. 조금후에 길택이가 달려 왔다. 그때의 반가움이란! 내 가슴팍에 매달려 울기에 끌어 안아 주니 더욱 심하게 흐느끼는것이였다. 달래여 사연을 물었다. 그런데 길택이의 대답을 듣고보니 그는 너무나 기적같이 살아 난것이였다.

괴뢰군 탄환이 날아 올 때 우리와 함께 뛰다가 무엇엔지 걸려 넘어 지는 바람에 괴뢰군에게 붙잡혔다는것이였다. 적들은 아직 어린 소년이라고 해서인지 《너희 간부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면 살려 준다.》고 달래더라고 한다. 길택이가 그러겠다고 했더니 그 애가 메고 있던 카빈총에서 탄창을 빼고는 빈 총을 되돌려 주면서 앞장 서라고 하더란다. 그래

서 길택이는 앞장서 걸으며 달아 날 궁리를 했다는 것이다. 마침내 릉선에 좁은 바위가 마주선데까지 왔을 때 험한 바위사이의 좁은 곳을 빠져 나오느라 뒤에서 주춤거리는 사이에 바위밑의 벼랑으로 내리 굴러서 빠져 나왔다고 한다. 어린것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적들을 속이고 빠져 나온것에 탄복하면서 안장바위방향인 장대골로 갔다. 모두들 여러 날 굶어 배 고프기가 이루 말할수가 없었다. 허동욱부위원장은 나의 눈치만 부지런히 살핀다. 일전에 내가 비상미를 련락병에게만 맡기지 말고 스스로들 챙기자고 력설한 일이 있었기때문이다. 아울러 그 방법까지 설명했던것이다. 광목으로 개의 창자같이 가늘고 긴 자루를 기워서 그속에 쌀을 넣어 맨등에 감고 다니라고.

그 말을 듣고도 자기들은 실천을 안했지만 처음 말을 꺼냈던 나는 비상미를 챙겨 두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내 눈치를 살피는것이다. 내가 저고리를 벗고 등에 감은것을 내놓자 모두들 살았다고 환호한다. 자루를 쏟으니 한되가량 되기에 삼등분하여 죽을 끓이기로 했다. 그러나 끓여 놓으니 죽이 아니라 미음이였다. 누군가 배낭에서 소금을 꺼내놓아 미음에 넣어 마시고 있을 때였다.

보초선에서 안장바위방향에 적들이 나타났다고 알려 왔다. 급히 짐을 챙겨 숲속에 숨으려 할 때 안장바위릉선에서 괴뢰군 7～8명이 골짜기로 내려 오는 것이 보였다.

《저놈들이야요.》 길택이가 눈을 부릅뜨고 내려다 봤다.

그놈들은 골짜기를 내려 오더니 대오를 짓는다. 여기로 옮겨 앉기전 우리가 거점으로 있던 곳에 가

고 있는것이 분명했다. 거점위치를 잘 알고 있는 변절자의 말을 듣고 온 모양이였다. 그곳에는 신문발행용비품들과 자료들이 보관되여 있었다. 금싸래기처럼 아끼는 원지와 백지들을 옮겨 오지 못한채 숨겨 놓았던것이다. 놈들이 과거 거점으로 들어 간지 한시간쯤 후에 불길이 치솟았다. 원지와 선화지를 찾아 태우는것이 틀림 없었다. 당장 쫓아 가 불을 끄고 싶은 충동이 미칠듯이 치솟는것을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데 길택이가 그들이 돌아 올 길목에 매복을 나가겠다고 나섰다.

《저놈들과 회계를 좀 해야겠어요.》

길택이외에 몇명이 더 나서기에 전투에 대한 주의를 시켜 내보냈다. 잠시후 그들이 간쪽에서 련발총소리가 요란하였다. 놈들이 매복조에 걸린 모양이다.

매복 나갔던 동지들이 돌아 와 하는 말이 세놈이 도망치고 네놈이 쓰러졌다는것이다.

이만하면 아저씨의 분한 마음도 풀고 자기 원도 풀지 않았느냐는듯 길택은 나를 향해 씽긋 웃었다.

그후 인차 괴뢰군의 대공세가 시작되고 대성골전장에서 부상으로 의식을 잃고 체포되는 바람에 나는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길택이와 얼마 같이 있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학살 당한 불쌍한 아이였기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 역시 그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데리고 다녔다. 길택이는 참으로 침착하고 속이 깊은 아이였다. 나는 길택이에게 어디에 작전을 나가든간에 과자니 떡이니 하는것들을 배낭에 주어 담아 오지 말

라고 단단히 타일렀는데 길택이는 이 약속을 꼭 지켰다.

양양전투때의 일이다. 길택이는 이때 신문제작을 위해 취재하러 가는 동지를 따라 갔는데 그 동지가 거기서 꿀 한병을 얻게 되자 그것을 먼저 돌아 오는 길택이에게 가져 가라고 주었던 모양이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 온 동지가 나에게 꿀을 받았는가 하고 묻다가 안 받았다는 대답에 길택이에게 확인하니 아이의 대답은 이러했다.

《작전 나가서 절대 먹을것을 주어 오지 않겠다고 아저씨와 약속했기때문에 차마 가져 올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버릴수도 없어서 바위틈에 숨겨 놓고 왔어요.》

이렇게 순박한 길택이였다.

그의 이야기가 나온김에 감옥에 들어 가서 다른 동지들한테 들은 길택이의 최후이야기를 마저 하련다.

내가 체포된후 그는 련락병으로 일했다고 한다. 어느 날 그가 진주에 공작 갔다 오는 사람을 맞아들이기 위해 약속장소에 나갔는데 그곳은 달뜨기재였다고 한다. 길택이가 온밤을 걸어 약속장소에 나가 도착신호를 하니 그자는 도착신호대신 라이타를 켜더라는것이다. 불빛에 얼른 보니 괴뢰군복을 입었고 약속에도 없는 라이타를 켜는것을 보고 길택이는 이자가 변절하여 괴뢰군을 데리고 와 포위하고 있구나 하고 판단했던것 같다. 아니나다를가 《찰칵》하는 격발기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총탄이 날아오기 시작하자 길택이도 마주 총을 쏘았다. 그때 그자가 소리쳤다.

《길택아, 엎드려라. 너는 내가 꼭 살릴테니.》

《아저씨가 이럴줄은 몰랐어요.》

최후의 한방까지 쏜 길택이는 그만 쓰러졌다는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나는 제 자식을 잃은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온밤 눈을 붙이지 못했었다.

길택이처럼 순진한 어린 나이에 총을 들고 싸우다 숨진 생명이 어찌 하나뿐이랴.

여기에 또 다른 한 어린 전사의 최후에 대한 얘기가 있다.

월성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덕유사부대라고도 부른 305부대의 진종수부대장에게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강병구, 13살난 소년련락병이 있었다.

그는 과수원을 하는 아버지곁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반미투쟁을 하다가 입산하자 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아버지를 데려 오라고 울며 떼 쓰는데도 소문난 아이였다. 전쟁이 터져 고향이 해방되여 아버지가 집에 와 있게 되자 병구는 너무 좋아 하며 자나깨나 아버지곁에 붙어 다녔다.

후퇴시기 아버지가 다시 입산하게 되니 이번엔 꼭 따라 가겠다고 나섰는데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다. 아버지의 친구가 산에는 당원들만 가는데 너는 당원이 아니니 못 간다고 타이르자 나는 당원이 아니지만 아버지는 당원인데 당원의 아들이 산에 못 간다면 말이 안된다고 우기며 끝내 따라 왔다고 한다.

아이가 똑똑하고 재빠르기로 유명하기에 나는 305부대에 갔을 때 일부러 그를 찾아 가보았다. 그날 마침 안의면에서 입산한 자가 경찰의 앞잡이란 보고가 있어 조사하여 자백을 받는 참이였다. 자백을 듣자 병구는 그를 쏘아 죽인다고 야단이다. 모두들 말리여도 듣지 않기에 나까지 나서서 어른들의 말을 들으라고 권하니 병구 말이 《미제앞잡이를 용서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다.》는것이다.

한편 지리산에도 유명한 소년중대장이 있어 작전에 유능하고 자기 중대를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 나이 많은 어른들도 못 따라간다고들 했는데 후에 알고보니 19살 먹은 강병구의 사촌형이였다. 그 집안은 모두 혁명적인 가정이였던것이다.

한번은 내가 거창군당거점이 있는 월성부락 뒤산을 넘어 산태동에서 며칠 지내고 산을 타고 돌아 오는데 북산방향에서 전투가 벌어 지고 있었다. 월성부락에서 중기, 경기탄이 날아 오고 산길에도 파편이 튀여 조심스럽게 갔는데 북산방향에서 한 소년이 탄우속을 뛰여 오고 있었다. 만나보니 병구였다. 하도 신기해 나는 소년에게 물었다.

《총알이 무섭지 않느냐?》

《내가 꿩이예요?》

《꿩은 겁이 많냐?》

《꿩이야 총소리가 나면 숲속에 냉큼 숨어 버리지만 나는 꿩이 아니기때문에 총알을 무서워 하지 않아요.》

말을 마친 병구는 전투지휘본부로 달려 갔다.

그후 전투기사자료가 올 때마다 병구의 투쟁과정과 용감한 사연들을 자주 접하게 되였다.

거창군 고제전투때 고제면당위원장이 양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심히 보아 넘긴 그 점을 병구는 례사로이 보지 않았던듯 하다. 병구는 면당위원장이 양담배를 피우는것은 지서장과 어떤 관계가 있기때문일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 작전비밀은 경찰에 루설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말이라 귀 담아 들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고제작전은 결국 실패하였고 고제면당위원장이 지서장의 앞잡이였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처럼 병구는 남달리 적개심이 강하고 눈치가 빠른 소년이였다. 함정부락에 경찰이 들어 와 마을을 수색한 끝에 부락민중 괴뢰군작업복을 입은 사람 셋이 붙잡혔다. 경찰은 그 옷이 어디서 났느냐며 시장에서 사왔다는 부락민들의 말을 곧이 듣지 않고 세 사람을 죽이려 했다. 셋을 세워 놓고 총살하려는 순간 병구가 먼발치에서 보고 있다가 경찰들에게 사격을 퍼부으니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이리하여 죄없이 죽을번 한 부락민 셋을 살린 일도 있었다.

전투때도 비발치는 적탄속을 겁없이 뛰여 다니는 용감한 소년이였으므로 험한 전투때면 그 련락을 병구가 도맡아 하였다. 한번은 병구가 련락을 왔기에 특별히 대우하였더니 싫다고 하며 사양했다. 그가 돌아 갈 때 아껴 두었던 곶감과 엿을 꾸려 주었으나 끝내 사양하던 청백한 아이였다. 어린 소년이 산생활에서 먹고 싶은것이 없을리 없겠건만 다른 아이들을 주라며 끝내 사양하였던것이다. 용감한 소년

은 힘든 전투때마다 부대간의 련락을 도맡아 비발치는 총탄속을 겁없이 뛰여 다녔다.

52년 겨울 가혹한 대공세때에도 위축되지 않고 자기 임무를 굳건히 수행하던 병구는 거창전투에서 다리에 심한 부상을 당해 환자터에 있게 되였다고 한다. 그때 자수한 변절자가 경찰을 데리고 와 환자들을 여럿 죽이고 나머지는 모두 북상지서에 잡아 갔다. 승리감에 도취한 놈들은 모두들 한잔씩 들며 밤을 샌 뒤 이튿날 아침 취조를 시작했다.

《우선 부대장련락병놈을 구슬려 보자. 함양군당거점을 파악해야 하니 그놈한테 주게 과자를 좀 사와.》

지서장놈이 책상앞에 마주 앉아 지시하니 순경이 나가 강병구를 데리고 왔다. 어린 병구가 다친 다리를 잘 쓰지 못하여 절룩거리며 들어 오자 지서장놈은 《날씨가 추우니 여기 가까이 앉아 불을 쪼이라.》며 난로앞 의자를 가리켰다.

병구가 시키는대로 앉아 불을 쪼이는데 지서장이 과자를 내주며 먹으라고 다정하게 권했다. 병구는 설사를 하는중이여서 지금은 못 먹으니 나중에 먹겠다고 하고는 추위에 떠는 시늉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날카롭게 훔쳐 보았다. 지서장책상에 수류탄 세개가 있는게 눈에 들어 왔다.

병구는 《이놈들, 내 손에 죽을것이다.》하고 마음을 굳히고 수류탄을 못 본척하며 천연스럽게 앉아 있었다. 지서장놈이 곧 엄마에게 보내줄테니 마음 놓고 있으라며 부대장의 지시와 함양군당의 거점을 묻자 병구는 환자터에 있었기때문에 잘 모른다며 능청스럽게 잡아 뗐다.

병구는 계속 추위에 떠는 시늉을 하며 수류탄에만 온통 신경을 쏟아 붓는데 적들은 병구가 너무 어린 까닭에 별로 경계를 하지 않았다. 그때 변절자가 들어 오더니 병구에게 마음 놓으라고 등을 어루만져 주었다. 병구는 속으로 증오심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있다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 때 얼른 책상우에 있던 수류탄을 집어 들어 고리를 뽑으며 웨쳤다.

《이놈들아, 손들어라!》

지서장과 변절자는 병구의 서슬에 질겁하여 손을 들고 부들부들 떨었고 주변의 순경놈들도 살려 달라고 애원을 했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통일 만세!》

수류탄이 터짐과 동시에 소년의 웨침소리는 파편과 더불어 날아 올랐다. 병구의 최후를 전해 듣고 하도 가슴 아파 뒤에 시를 지어 보았다.

그대들 가슴에
깊이 기억하라
지리산 덕유산에
피지 못한 이름 없는 꽃봉오리로
조국의 흙이 된
한 소년을
조국통일을 위해 숨진
소년유격전사를

《안해에게 전해 주시오. 부끄럽지 않게 죽었다고.》

우리는 실종된 송중명동지를 찾으려 싸리봉쪽으로 사람을 띄워 보냈다. 그런데 그는 찾으라는 송중명동지는 못 찾고 무전반에서 발전기를 돌리던 동지를 부축해 왔다.

그는 덕유산밑 함정부락에서 머슴살이하다가 유격대를 따라 온 사람이다. 그가 전하는 말이 또 기가 막혔다.

싸리봉에서 무전반일군들이 적들의 포위공격에 모두 희생되거나 체포되였다는것이다. 붙잡힌 동지들은 중산마을아래 동당마을까지 끌려 갔는데 가보니 잡힌 사람들은 50～60명 되더라는것이다. 놈들은 그들에게 구뎅이를 파게 했는데 언땅을 파다 생각해보니 자기들을 죽여서 파묻을 구뎅이임이 틀림없더라는것이였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죽을바에는 도망치다 죽는게 낫겠다고 작정하고 셋이서 뛰여 달아 나다가 둘은 총에 맞고 자기는 겨우 숲속에 피해서 숨어 있다가 밤이 되자 비상집결장소 몇곳을 거쳐 다니던중 우리 동지들과 만났다는것이다.

우리는 그날 밤 청내골로 이동하기로 했다.

그곳에 적정이 없기에 여러 동지들이 그곳에서 거점을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은 때문이였다. 우리는 곧 청내골로 향해 출발하였다. 괴뢰군의 공세는 잠시 중지되고 일시적정적이 깃든 상태였다. 공세와의 싸움에서 분산된 동지들을 수습하기 위해 도당은 싸리봉에 련락병 셋을 보냈다. 싸리봉까지는 하루종일 가야 도착할수 있는 거리이기때

문에 련락병을 왕복 사흘계획으로 보냈는데 이튿날 련락병 소년 하나가 급히 되돌아 왔다. 실종된 송중명동지를 발견했던것이다.

련락병들이 싸리봉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어느 바위틈에선지 신음소리가 나더라는것이다. 가보니 송중명이가 얼마나 굶었던지 거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더라고 했다. 굶주림으로 움직일 기력이 없는데다가 엎친데덮친 격으로 두발까지 얼어 버린것 같았다. 부축해도 일어 서지를 못해 련락병으로 간 소년들의 힘으로는 업고 올수가 없어 급히 되돌아 온 것이였다.

송중명이 괴뢰군의 추격을 피할 때 발목까지 빠지는 눈이 신발에 잔뜩 달라붙었는데 바위틈에 숨어 있는 동안 체온으로 눈이 녹아 신고 있던 롱구화가 푹 젖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밤이 되여 기온이 쑥 내려 가 신발이 다시 얼면서 발목까지 완전히 동상에 걸려 버린것이다. 급히 두사람에게 지게를 지워 보냈더니 송중명을 지고 왔다. 그는 극도의 굶주림과 동상으로 이미 반실신상태였다. 하면서도 그는 장고봉숲속과 싸리봉골짜기가 온통 괴뢰군천지인데 며칠안으로 또 적들의 대공세가 있을것이 틀림 없다는 정황을 지휘부에 보고해 달라는 말부터 하는것이였다.

앞에서도 말한바 있지만 송중명동지는 평시에 별로 말이 없고 이런저런 론쟁에도 좀체로 끼여 들지 않는 과묵한 성미였다. 지내보면 행동보다 말로써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송중명동지는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사람이였다.

그때도 그는 자기의 아픔보다 부대의 안전부터 생각했다. 굶주림과 피로, 동상으로 눈앞이 핑핑 도는 것을 참으며 그는 적들속을 기여서 빠져 나왔다.

한번은 비탈길에서 내리 굴어 정신을 잃고 누워 있다가 깨여 났는데 발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바위우에 얹혀 져 있던 두발이 얼마나 얼었는지 바위등에서 떨어 지지 않더란다.

그때부터 그는 기기도 하고 무릎걸음도 하며 한시간에 겨우 백보가량씩 한치한치 움직여 왔다 한다. 깜박깜박 정신도 잃고 기운도 빠질대로 빠졌지만 그는 자기 일신보다 부대와 동지들을 더 생각했을것이다.

그는 련락병들을 만나기전에는 그런대로 정신을 유지했는데 그들을 보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였다. 롱구화를 벗기고보니 두발은 얼어 온통 새까맣게 죽어서 롱구화자리만큼 피부가 벗겨 졌다. 살가죽이 벗겨 져 빨간 속살뿐인 두발이 오죽 아프랴만 그는 이를 악물고 땀을 뚝뚝 흘리며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당장 약은 없고 민간료법에 따라 대야에 콩과 물을 붓고 두발을 담그느라 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에 닿으랴.

의무대 의사가 얼굴을 찌프리고 말했다.

《두발을 발목까지 잘라 내야 하겠는데 마취제없이는 수술을 할수 없소.》

발목을 잘라 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들어 가 죽고 말것이다. 갑자기 이 깊은 산중에서 마취제를 어디 가 구하랴는 생각에 우리들은 난처했다. 그런데 송중명이 조용히 말했다.

《마취제없이 자르시우. 내 참아 낼테니…》

우리는 우선 그의 생명을 살려야겠기에 본인의 의사대로 마취제없이 수술하기로 결심했다. 네댓사람이 송중명이를 붙잡고 의사가 그의 발목을 나무 썰듯 자를 때 그 아픔을 참느라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것이 유격대생활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를 보고 죽기보다 더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참고 견디여야 하는가를 배웠다.

기나긴 옥중생활에 별의별 고문을 다 겪을 때마다 번번이 나의 눈앞에 송동지의 모습이 떠올라 고통을 이겨 내려는 나의 노력에 크나큰 보탬을 주군 하였다.

발목절단이 끝난후 송중명을 환자터에 운반해 놓고 돌아 오는데 그가 우려했던바대로 52년 정월달의 대공세가 시작되였다. 릉선마다 까맣게 놈들이 덮여 오니 모두들 급히 떠나야 했다. 산과 산, 골짜기마다 온통 놈들의 풀빛철갑모로 덮여 있어 환자터를 다른 곳으로 옮길데도 없었다. 각자는 자기 위치에서 목숨이 진할 때까지 싸울 각오밖에 달리는 어쩔수 없었다. 놈들이 환자터를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랄뿐이였다.

하지만 송중명을 보지 않고 떠날수는 없었다. 나는 환자터에 가서 친구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수류탄 하나를 쥐여 주었다. 최후의 순간에 쓰라고 쥐여 주는 수류탄, 죽을수 있는 수단을 주는것,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줄수 있는 유일한 배려였다.

그러나 송동지는 히죽이 웃으며 자기 자리밑에서 수류탄 한알을 삐죽이 내보인다. 쓰라린 마음으로 떠나는 나에게 그가 남긴 최후의 말—놈들이 오면

자폭할테니 그리 알라며 고향의 안해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었다고 전해 달라던 그 마지막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내가 화가라면 그때 그 얼굴을 그대로 그려 남겼을텐데…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상봉에 올랐다.

환자터에서는 벌써 총소리와 함께 수류탄폭음이 터지고 있었고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그 폭음속에는 송중명동지의 자폭하는 폭음도 있었으리라. 이렇게 일찌기 풍산땅에서 함께 투쟁의 한길에 나섰던 송중명과 나는 영원히 헤여 졌다.

눈물속에서 새삼스레 둘러 보던 지리산의 첩첩한 산발, 백두의 지맥이 흘러 내리다 이 땅 한끝에서 멈추어 불끈 솟구쳐 올랐다 하여 두류산이라고도 불리우며 80여리를 휘감아 삼남땅에 좌정한 지리산! 남녘땅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피를 머금고 웨치고 있는듯 싶은 메부리들, 그때 지리산은 무엇을 웨치고 있었는가. 백두의 참된 아들딸들의 비장한 죽음을 길이길이 잊지 말라고 웨친것이 아니였을가.

마지막전투

상봉에 이르니 로영호부대와 리영희부대가 와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로영호대장은 서울공대 건축과출신으로 경남도당의 이름 있는 군사간부였다. 경남부대 사령관직을 맡은 리영희대장은 려수 14련대출신으로 자신이 항상 선두에 서서 싸우는것으로 유명했다. 이들은 도당의 지시로 여기로 왔다.

도당군사간부들의 회의에서 남경우위원장의 강경한 주장에 의해 리현상부대를 찾아 가기로 결정되였던것이다.

《적들이 대공세를 들이대고 있는 때 뿔뿔이 흩어 져서 무슨 맥을 쓰는가.》

이것이 그 주장의 론거였다. 허동욱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사람들이 그것은 유격전의 원칙에 어긋나며 더 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반대했으나 남경우위원장의 주장을 꺾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여러 부대들은 리현상부대와의 합동투쟁을 위하여 대성골로 향해 떠났던것이다. 이때 군사에 밝고 경험 있는 리영희부대장과 같은 동지들도 우의 지시라니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던것 같다. 부대는 눈을 헤치며 세석평지를 가로 질러 대성골로 내려 갔다. 경남 하동군 하계면에 있는 대성골은 지리산계곡중에서도 특히 넓고 깊은 골짜기이다. 쌍계사에서부터 세석평지에 이르는 골짜기의 길이가 40리나 넘는데다 릉선이 부채살처럼 퍼져 다른 곳과 달리 매우 광활한 지대였다. 괴뢰군의 공세와 맞서 싸우던 유격부대들은 모두 대성골로 모여 드는듯 했다.

나는 그때 열병에 걸려 있어 조영래동지의 부축을 받으며 대렬뒤를 가까스로 따라 가고 있었다. 조동지가 약을 먹고 가자며 나를 앉히워 놓고 주머니속의 약을 꺼낼 때였다.

대성골이 터져 나갈듯 한 포격소리가 산지사방에서 연기를 뿜어 올리며 들려 왔다. 포탄 터지는 소리, 기관총소리, 수류탄 튀는 소리…

부대가 놈들이 쳐놓은 큰 포위환에 든것이 분명했다. 가렬처절한 전투가 벌어 졌다. 우리 동지들은 참으로 영웅적으로 싸웠다. 총성과 수류탄폭음, 적들의 포위를 벗어 나기 위한 치렬한 접전을 벌렸다. 적지 않은 동지들이 이미 희생되였다. 남경우위원장도 이 전투에서 희생되였다. 그는 마지막순간까지 부대를 포위에서 끌어 내기 위하여 분투하였다.

골안이 무너지는듯 한 포탄세례속에서 나는 조영래동지가 부축여 주어 겨우 바위틈에 들어 가 숨었다.

밤이 깊었을 때 경리부에서 준비한 주먹밥을 나누어 먹었는데 참말로 꿀맛이였다. 밤 12시에 어둠을 틈타 릉선에 올랐다. 올라 가 보니 허규활이란 자가 중산이(소년병의 이름)를 데리고 서 있었다.

《여기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

《모두다 릉선을 넘어 갔으니 얼른 따라 넘으시오.》

그자는 린근부락에서 살아 지리산지대에 밝은 중산이를 길잡이로 어디론가 혼자 빠져 나가려는것 같았다. 여느 때 그는 남달리 좋은 언변으로 정치적인 술어만 써가면서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 하던 자였다. 별치 않은 일을 가지고도 다른 동지들을 충고하고 비판하며 자기의 《신념》을 뽐내던 자가 죽음의 위기가 직면하자 자기 혼자 살아 보겠다는 더러운 속심을 품은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런 옳지 않은 행동을 비판할 여유마저 없는 정황이라 할수없이 릉선을 넘었다. 괴뢰군의 야간사격이 계속되고 있었던것이다.

마천으로 넘어 가는 릉선을 절반이상 올라 갔을 때 심상태동지가 눈우를 벌겋게 물들이며 굴러 내려 오다가 나를 보고 소리쳤다.

《올라 가지 말라!》

쫓아 가서 끌어 안아 보니 피가 걷잡을수없이 흐르고 있었다. 허동욱부위원장과 함께 놈들의 중화기가 배치된줄 모르고 릉선에 올라 갔다가 중화기부대와 정면으로 마주쳤던것이다. 허동욱부위원장은 《빨리 뒤에 알리라!》하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자기도 파편을 복부에 맞았다고 하였다. 이제 자기도 죽을것이라며 권총을 내게 준다.

그 추운 겨울, 파편을 배에 맞은채 동지를 살리겠다고 눈우를 굴러 내려 온 동지가 죽어 가는 모습을 이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그를 두고 나는 살겠다고 피신할 때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이튿날 새벽에 로영호부대가 선두에 서고 나를 비롯한 비무장들이 뒤따르면서 다시 릉선을 타기 시작했다. 날이 훤히 밝을무렵 다시 괴뢰군의 사격이 시작됐다. 뭔가 무릎을 탁 치는듯 한 느낌과 함께 나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내앞에 섰던 산청군 신안면 녀맹위원장일을 보던 녀성은 다리뼈가 부서졌다. 나는 뼈를 다치지는 않았으나 탄환이 근육을 뚫고 지나가는 바람에 무릎뼈가 환히 드러나고 피가 주체하지 못할 지경으로 쏟아 졌다. 조영래동지가 옷을 찢어 싸매주고는 출혈로 정신이 가물가물한 나를 바위틈에 은폐시켜 놓았다. 나중에 들으니 조영래동지를 비롯한 그들 비무장들은 50m쯤 내려 가다가 수색대들과 맞다들어 싸우던 끝에 모두 희생되였다고 한다.

조영래동지는 참된 동지였고 벗이였다. 지리산의 갈피에는 우리사이에 오간 뜨거운 정과 이야기들이 스며 있다. 그는 주병포도 알고 있었고 김동지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자주 주병포와 김동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는 전쟁이 끝나면 나의 고향 풍산군에 꼭 가보고 주병포의 집에도 가보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그는 지리산의 언땅에 청춘을 묻고 가버렸다…

반가운것은 조영래동지의 친지들이 북에 살고 있을뿐아니라 평성 과학원에서 박사로 일하고 있는 친척이 있다는 소식이다. 이제 틈을 내서 꼭 만나볼 작정이다…

그때 나는 바위틈에 정신을 잃은채 누워 있었던 모양이다. 누군가가 《꼼짝 말라!》고 소리치며 총끝으로 가슴을 쿡쿡 찌르기에 눈을 떠보니 괴뢰군사병이였다. 이렇게 해서 나는 포로가 되였다. 나는 들것에 담긴채 구례, 순천, 남원경찰서를 거쳐 광주포로수용소에 수용되였다.

잊지 못할 지리산의 애어린 꽃망울들 ②

나에게서 마지막전투였던 52년 정월의 대성골전투이후부터는 전술기조가 변화되였다고 한다. 지서나 화점 등 경찰이 굳게 지키고 있어 아군의 손실이 클수밖에 없는 곳을 점령하려는 식의 무모한 전투는 피하고 치밀한 정보입수아래 기습전을 벌리거나 의외의 지역에 들어 가 타격을 입히는 전술을 썼다. 물론 내가 그들의 투쟁소식에 접할수 있었던것은 수십년이나 지난 후날의 일이다. 당시 주역들중 생존자도 많이 없고 기억도 희미해 져 내가 들은것은 전황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겠지만 결코 빠뜨릴수 없

는 동지들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여기에 적어 보자 한다.

정세에 따르는 전술기조의 변화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입수를 요구했다. 그를 위해 많은 동지들이 헌신적인 활동을 벌린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그런데 52년 이후 경남부대에서 활동했던 전사들중 현재 생존해 있는 몇 안되는 동지들은 자신들이나 동료들의 활동보다는 어린 소년들의 활약상을 즐겨 입에 올린다.

험난한 산중투쟁에서 아무래도 성인들보다는 소년들의 활동이 인상적이였던 모양이다. 그들은 길택이, 병구에 이어 박생이라는 소년의 활약을 잊지 못해 했다.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되던 52년 여름 경남부대는 괴뢰군 한개 대대를 유인해 대원사골에 몰아 넣고 포위공격해 엄청난 수의 포로를 잡는 전과를 올렸다고 한다. 이때 박생이소년은 부대장의 련락병이였는데 얼마나 어렸던지 앞이가 빠져 있었다는게 한 전사의 증언이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대원사골전투에서 괴뢰군소위를 포로로 잡았다는것이다.

그 괴뢰군소위로서도 유격대의 포위공격에 쫓기던중 누군가가 등에 총구를 대고 《손들엇!》하고 웨치니 손을 들수밖에. 결국 박생이는 손을 번쩍 든 소위를 앞장 세워 부대거점까지 데리고 왔는데 부대에 와서 무장해제를 당한 그 소위는 박생이를 보고 어이가 없어 어쩔줄을 몰라 하더라고 한다.

이 전투에서 체포한 괴뢰군들은 무장과 군복을 빼앗은후 교양사업을 해 내려 보냈는데 이때 빼앗은

군복으로 경남부대는 전투에서 때때로 괴뢰군소대로 둔갑하기도 하는 등 조화를 부렸다고 한다.

52년 겨울로 접어 들면서 놈들의 《토벌》작전도 훨씬 강도가 높아 졌다. 시천면과 삼장면사이에 있는 덕산뒤고지에 유격대《토벌》을 위해 보름이나 올라 가 있던 괴뢰군 60여명이 모두 동상에 걸려 공포 한방에 모조리 포로가 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자는 불을 피우면 유격대에게 기습 당한다고 불도 피우지 못하게 했는데 폭설로 물자마저 공급이 안돼 병사들은 눈구뎅이에서 굶주리며 동상으로 죽어 가고 있었던것이다. 결국 경남부대는 이들에게 밥을 먹인후 다른 유격부대의 기습을 막기 위해 호위까지 해서 내려 보냈다고 한다.

인상 깊었던 산청군 문교부장소녀의 최후도 나는 이후 다른 동지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 들었다. 이중삼중의 포위공격속에서 동지들이 식량이 떨어 져 굶주리고 있을 때 소녀는 식량을 구하러 문정부락으로 내려 갔다고 한다. 당시는 유격대에 식량을 준 사실이 발각되면 부락민들도 학살을 당하고 마는 때였기에 보급투쟁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였다. 다른 동지들이 로장대에 피신해 있었기때문에 소녀는 일부러 로장대에서 멀리 내려 가 세동부락근처 음천골 강을 건너 가까스로 보초선을 뚫고 문정부락에 숨어 들었다고 한다.

그가 늘 다니던 할머니네 집에 들어 서자 로인은 《〈국군〉들이 꽉 찬 이곳에 대체 어떻게 왔느냐.》며 놀랐다. 할머니에게 그동안의 경과를 이야기하고 식량이 떨어 져 굶고 있는 사정을 말하니 불빛때문에 밥을 지을수 없다며 남은 찬밥을 내여 주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보리와 쌀을 몇되박 꾸려 주

고 조심조심 가라며 빨리 떠나기를 재촉했다. 식량을 준 사실이 발각되면 학살 당할것이 뻔한 일이라 소녀는 할머니의 뒤일을 걱정하며 동행한 민청 젊은 남자동지와 그곳을 떠났다고 한다.

그러나 돌아 오는 길에 보초선에 걸린 소녀는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소녀는 괴뢰군 7～8명에게 붙잡히고 민청동지는 가까스로 피했는데 동지를 두고 혼자 갈수 없어 가까운 숲속에 숨어 동정을 살폈다.

놈들이 소녀에게 몰려 들어 귀찮은데 쏘아 죽여버리자고 하자 그중 한놈이 《죽이지 마! 이건 내거야.》하고 웨치며 소녀를 업으려고 하였다. 소녀는 업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래도 그자가 억지로 업고 가려고 하자 못된짓을 하려는 속심을 알아 챈 소녀는 두주먹으로 그자의 등을 치고 머리를 잡아 끌며 안깐힘을 썼다. 그 순간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소녀가 그자의 뒤목을 입으로 깊이 물었던것이다.

《아이쿠, 요 계집애가 사람을 막 무네. 이 피를 어쩌나.》

고함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소녀를 문교부장소녀로 부르다나니 이름도 미처 알아 두지 못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죄스러운 생각이 적지 않다.

사람이 곰을 잡고 곰이 사람을 잡다

다음은 곰이야기다. 유격전이 벌어 지고 있던 당시의 지리산에는 지금은 자취를 감춘 반달곰들이 살

고 있었다. 그러므로 밤낮으로 산속을 움직이는 유격대전사들이 이 반달곰과 마주치는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52년 11월 경남부대가 청내골에 주둔하고 있을 때 대원들이 곰을 한마리 잡았는데 이 곰이 다시 사람을 잡은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전날 전투를 치른터라 부대원들은 아침식사후 이동초(주위를 돌아 다니면서 경계하는 보초)를 세워놓고 휴식에 들어 갔다. 그런데 취사반에서 아침밥을 지은 모닥불이 채 꺼지지도 않았을무렵 보초선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렸다. 막 선잠이 들려던 부대원들은 비상사태가 발생한줄 알고 전부 일어 나 총을 들고 몰려 나왔다.

총을 쏜 보초는 괴뢰군사병출신으로 포로가 되여 유격대가 된 전사였다.

《〈손들엇〉 소리에도 무엇이 계속 뽀스락뽀스락 소리를 내면서 이쪽으로 올라 오다가 방향을 바꾸기에 그 순간 쏘았습니다.》

대원들이 풀숲의 아침이슬을 털며 수색을 나가보니 1m나 되는 산죽사이에 한발이나 되는 짐승이 누워 있더라는것이다.

《돼지다.》, 《아니, 곰이다.》, 《가까이 가지 말라. 죽은척 한다.》, 《아니, 진짜 죽었다.》는 등 한바탕 소동이 났는데 짐승은 반달곰이였다. 곧 의무과장이 군용밥통을 들고 나왔다. 빨리 배를 따서 피를 받자는것이였다. 대원들이 엠1소총에 꽂고 다니는 날 선 칼로 곰의 배를 찔렀다. 그런데 소나 돼지 같으면 날이 쭉 나갈텐데 그놈의 반달곰은 배에 칼이 들어 가지도 않더라는것이다. 몇사람이 달려 들어 겨우 배를 땄는데 앞가슴을 헤쳐 곰열을 꺼

내는것이 더 큰일이였다고 한다. 갈비뼈를 도끼로 패니 도끼날이 먹지 않더라는것, 끝내는 큰 바위돌을 들어다 던져 겨우 갈비뼈를 부셨다고 한다. 가죽밑으로는 비게가 한뽐이나 되였는데 얇게 썰어 가을남새를 넣어 국을 끓여 먹었고 곰열을 채 말리지도 못한채 지휘부에 보냈다고 하였다.

도당에서는 자금을 만들기 위해 이 곰열을 지하조직을 통해 남해에서 팔았는데 제대로 값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곰열의 경우 진짜임을 보증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 어느 포수가 잡은 곰의것이라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유격대가 잡은 곰은 역시 익명일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얼마후 그 일에 관계했던 황성현이라는 자가 경찰에 자수해서 동지들을 밀고하면서 죽은 곰이 산 사람을 잡게 되였다. 즉 곰열 파는 일을 맡았던 함양에서 약국을 하던 세포령감님이 잡혀 들어간것이다. 후에 전주교도소에서 그 령감님을 보았다는 동지가 있었는데 더 이상의 소식은 알길이 없다.

출옥후 만난 동지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놈의 곰 크기도 하더니 사람도 잡았다.》고 하였다.

《경각성이 없어서, 그때는》라고도 말했다.

나는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도 그 시절의 일들을 돌이켜 보며 생각하군 한다. 경각성은 혁명가가 한시도 몸에서 떼놓아서는 안되는 무기라고… 이 고담 같은 이야기를 굳이 다시 쓰는것은(남쪽에서 쓴 수기에도 나는 이 이야기를 썼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그들은 조국을 위하여 끝까지 싸웠다

53년에 접어 들면서 유격부대는 더욱 곤난한 형편에 처했다. 적들의 《토벌》은 더욱 악랄해 졌고 매일, 매 시각 전투를 벌리느라 휴식은커녕 밥을 해먹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조인과 함께 적들의 공세는 더욱 맹렬해 졌다. 산에서 내려 와 자수하라는 귀순공작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유격전사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부대를 리영희부대와 로영호부대로 분산시켜 활동지역을 넓히는 한편 괴뢰군들의 공세를 분산시키기 위한 소조활동을 맹렬히 벌렸다.

그 시기의 투쟁중에서 내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들은것은 1953년 11월에 있었던 의령전투이다. 이 투쟁에 참여했던 동지들중 현재까지 살아 있는 이는 몇명 되지 않는다.

53년 11월 지리산 상봉골에 터를 잡고 있던 리영희부대는 4개의 소부대로 구성되여 있었다. 한개 소부대의 인원은 12～13명, 소부대는 부대장의 성을 따 《박소부대》니, 《안소부대》니 하고 불렀다.

의령전투에 나서던 날 리영희부대장은 두개 소부대는 지리산에 남겨 두고 박소부대와 안소부대 그리고 리춘봉참모장, 박생이련락병, 의무과장 양기출 등 모두 28～29명을 이끌고 지리산을 출발했다.

출발하기전에 리대장은 전원에게 일전에 로획한 괴뢰군 군복과 신발, 무기를 지급하고 계급장까지 달아 주었다. 오랜만에 새옷과 새 무기로 단장한 부대원들은 사흘분 밥을 해서 짊어 지고 지휘에 따라

낮에는 잠복하고 밤에는 행군하며 동쪽방향으로 사흘을 갔다. 부대원들은 이때까지도 목적지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사흘째 되던 날 의령군으로 들어 가는 고개에 이르러서야 리영희부대장은 분대장급이상을 모아 투쟁지역과 전술을 설명했다. 괴뢰군으로 가장해 의령읍까지 들어 가서 안소부대는 경찰서를 맡고 박소부대는 《한국청년단》본부를 맡는데 안소부대가 경찰서를 점령해 싸이렌을 5분간 계속 틀면 읍을 해방시킨것으로 알고 읍인민들을 운동장으로 집결시켜 해방대회를 연다는것이였다. 전투후 의무과장 등 3인의 소조는 약품로획을, 다른 소조는 은행 등에서 보급투쟁을 하도록 되였다.

부대원들은 잠복해 있던 야산에서 기동로까지 포복해서 나온후 우선 장군들을 싣고 의령으로 들어가던 트럭을 세웠다. 장군들을 모두 하차시켰을 때 다시 보급품을 싣고 가던 괴뢰군 트럭이 나타났다. 이 트럭까지 붙잡아 타고 있던 헌병대위를 포로로 해 앞트럭 운전사옆에 앉힌 덕분에 부대원들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검문소에서 경례까지 받아 가며 의령경찰서앞까지 들어 갔다. 차가 멈추는 순간 리영희부대장이 뛰여 내리며 소리쳤다.

《부대 하차, 5분간 휴식!》

이를 신호로 부대원 전원이 뛰여 내렸다.

경찰서정문앞에는 망대가 서 있고 그우에는 순경이 카빙총을 들고 서 있었다. 례의 소년련락병 박생이가 미리 지시 받은대로 불시에 순경의 카빙총을 잡아 챘다. 그러자 경찰서정문옆에 물러 서 있던 한떼의 상이군인들이 몰려 와 순경을 마구 때리는것이

였다. 이 순간 전투경험 없는 대원 하나가 이외의 사태진전에 놀란 나머지 그만 방아쇠를 당겨 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리영희부대장이 순간적으로 전술을 바꾸어 돌격명령을 내렸고 부대원들은 일제히 경찰서안으로 몰려 들어 갔다. 정전후 4개월이나 지난 때였고 늘 몰려 오던 상이군인들이 또 와서 소란을 피우는것쯤으로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던지 기습을 당한 경찰들은 전혀 대항을 못했고 경찰서는 순식간에 점령되였다.

부대원들은 싸이렌을 울려 읍민들과 장군들을 모두 학교운동장에 집결시켜 놓고 선전교양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소조들은 무기, 약품, 식량 등 담당한 물품들을 챙겼다. 무려 3시간동안 의령읍을 무인지경으로 휩쓴 리영희부대는 집결장소에 신호탄이 쏘아 올려 진 순간 모두 철수해 트럭으로 의령을 빠져 나와 좌골산골짜기까지 들어 갔다.

애초에 계획된 다음 목적지는 합천이였으나 다음날 전방의 대규모 괴뢰군부대가 《토벌》을 위해 투입됨에 따라 계획은 바로 지리산으로 복귀하는것으로 변경되였다. 의령전투에 놀란 놈들의 총 공세때문에 부대원들은 그후 한달간 지리산으로 들어 가기 위해 치렬한 전투를 벌려야 했다.

밥해 먹을 사이도 없이 들을 지나고 산을 넘었다. 눈앞의 작은 고지를 둘러 싸고 적아간에 누가 먼저 점령하는가 하는 목숨을 건 싸움이 벌어 졌다. 괴뢰군은 포사정거리보다는 가깝고 수류탄투척거리보다는 멀 때 쓰는 착류탄을 비 오듯 퍼부어 대원들이 고개를 들수 없을 지경이였다. 곤난할 때면 항상 그러했듯이 리영희부대장이 선두에 섰다. 엠1소총을 련발로 갈기며 착류탄속을 돌격해 뒤를 따르

는 대원들과 함께 모두가 생사가 달린 고지를 점령한것이다. 고지우로 올라 간 대원들은 총을 쏘다못해 손으로 돌을 굴리고 나중에는 발로도 돌을 굴리며 두시간을 싸웠다. 이같이 결사적인 저항에 결국 놈들이 물러 났다.

어둠이 내릴 때 부락으로 내려 간 척후조가 마침 도시락을 운반하던 괴뢰군 하나를 붙잡아 그날 밤 군호를 알아 냈다. 부대는 밤새 그 군호로 놈들의 포위망을 무사통과하여 드디여 금호강앞에 도착했다. 그 강만 건느면 지리산이였다. 대원들은 물이 얕아 지는 곳을 찾아 강을 따라 올라 갔다. 상류로 가니 강은 개울로 변했고 두 개울이 합수하는 곳에 징검다리가 있었다. 막 선두가 개울을 건느기 시작했는데 20～30m 전방에서 괴뢰군들이 1렬종대로 징검다리를 건너 오고 있는것이 아닌가.

급히 엄호조가 앉아서 엄호사격을 하고 다른 부대원들은 뒤로 돌아 강 왼쪽으로 뻗어 있는 산줄기를 타고 달려 올라 갔다. 올라 가서 보니 부대가 건너야 할 금호강 건너편에는 서로 손을 잡으면 잡힐듯한 간격으로 불이 쫙 켜져 있었다. 게다가 저녁내내 부대가 행군해 왔던 방향에서는 트럭들이 계속 전조등을 켜고 달려 와서는 척척 서며 전조등을 끄는데 대체 몇십대나 되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그대로 어울리는 정황이였다. 대원들은 그만 질려 버린듯 했다.

순간 리영희부대장이 《따르라!》는 웨침과 함께 앞서 나갔다. 부대는 조금전에 건너 온 벌판을 다시 건너가 산골짜기로 들어 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괴뢰군보초의 《누구냐?》하는 웨침과 마주 쳤다. 선두에 선 리영희부대장은 황급히 되돌아

부대를 빼라고 손짓하면서 전날의 군호를 댔다. 군호가 틀리자 보초는 당황한듯 다시한번 《누구냐?》하고 고함치더니 발사했다. 그 순간 리부대장이 쓰러졌다. 경남도당의 유능한 군사간부이자 위험한 전투에서는 항상 선두에 서서 지휘하는것으로 유명했던 리영희부대장은 유격대의 지휘관들이 그랬듯이 부대를 살리고 전사한것이다.

그사이에 뒤로 빠진 부대원들은 골짜기에 엎드려 하루를 보내며 퇴로를 의논했다. 전 부대원이 위험에 처한 정황에서 일부라도 살아서 지리산으로 들어 가기 위해 안소부대와 박소부대가 두 길로 나누어 행동하기로 했다. 안소부대는 리춘봉참모장이 지휘하여 의령전투의 성과를 지니고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박소부대는 근방을 돌며 괴뢰군을 유인하기로 했던것이다. 이후 박소부대는 한달동안이나 근방을 이동하며 놈들을 유인하고 다니다가 최종적으로 8명이 살아 남아 지리산으로 들어 갔는데 안소부대는 대밭에 잠복하여 탈출기회를 노리다가 또다시 괴뢰군《토벌대》와 충돌하여 마지막 한사람까지 영웅적인 최후를 마쳤다.

경남도당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살려 냈던 의사 양기출도 이곳에서 전사하였다…

지리산은 백두산과 더불어 오랜 옛날부터 이 나라에 기여 든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애국의 성전터였고 력대 반동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이 나라 백성들의 의기로 넘치던 싸움마당이였다. 1592년 임진왜란때도 그랬거니와 1907년 정미의병때도 그랬다. 여기서 고광순, 안계홍, 심남일의병장들이 싸웠고 일제강점시기에도 여기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 패관산 그 어디나 애국지사들이 흘린 피가 곳곳

에 스며 있다. 하거늘 대성골과 노고단, 세석평지와 피아골에 뿌려 진 통일성업의 선혈을 어찌 그저 눈물과 슬픔, 무모한 희생이였다고, 《력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어 간 사람들》이라고 모독할수 있단 말인가.

지난 88년~89년사이 청주보안감호소에서 나와 함께 출소한 동지들은 거의가 다 유격투쟁중 체포되여 30~40년간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중 누구에게서도 스스로가 《력사의 수레바퀴에 깔렸다.》고 하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 남에서 출옥후 유격대에 대한 몇권의 책을 읽으며 나는 34년간의 감옥살이에서 살아 난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였다. 진실을 한마디라도 말할수 있게 되였기때문이였다.

류례 없는 가렬한 싸움과 수만의 희생으로 엮어진 지리산유격대의 력사도 다름아닌 이 나라 인민들의 애국충정의 선혈로 씌여 진 력사이다.

나의 눈앞에는 지금도 지리산에서 싸우던 수많은 동지들의 모습이 산 사람들의 모습으로 떠오른다.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지금 동지들이 묻힌 그 성전의 터에 수많은 유흥지를 만들어 놓고 향연을 벌리고 있다. 허나 그 땅에 스며 있는 동지들의 피는 온 민족의 넋속에 살아 있어 그들이 쓰러지며 부르짖은 최후의 웨침으로 부활되고 있다.

《〈**김일성**장군 만세!〉, 〈통일독립된 내 조국 만세!〉》

이제 통일된 삼천리강토우에 그들의 웨침과 웨침이 자유롭게 터져오를 그날까지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될것이며 또 계속되여야 할것이다.

《나를 거제도로 보내라》

7년형을 선고 받다

52년 1월 대성골에서 괴뢰군의 들것에 담겨 포로가 된 나는 광주포로수용소에서 3개월을 지낸후 전라남도경찰국 류치장으로 옮겨 졌다. 부상 당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전에 나는 검사실에 끌려 가 취조를 받았다.

그때 내 심정을 말하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안이나 위구심보다 분노와 함께 그 어떤 이름할수 없는 슬픔 비슷한 착잡한 심경에 처해 있었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검사의 얼굴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며 20여년전 《적색독서회》사건으로 풍산경찰서에 끌려 가 취조를 받던 일을 생각하였다. 그때는 왜놈검사가 나를 심문했는데 지금은 동족인 조선인검사가 취조를 하는데 그자의 입에서 《빨갱이》란 호칭이 연방 튀여 나왔다.

《빨갱이.》

열여섯살 철부지때는 이 호칭을 귀맛 좋게 들으며 어느 정도 우쭐렁거리는 기분이였다면 이때는 참기 어려운 분노를 느꼈다. 왜놈이 쫓겨 간 내 나라땅에서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며 그것도 제 땅사람의 입에서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것은 나에게 마치 광복전으로 되돌아 간듯 한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마주 앉아 호통치는 검사의 얼굴이 왜놈검사의 얼굴로 보일 지경이였다.

취조를 받고 감방에 돌아 가서도 나는 심신을 회복할수 없었다. 산의 동지들과 떨어 져 포로가 되여 버렸다는 고독감과 함께 자기 운명과 얽혀 드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나를 몹시 비관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산유격대출신인 고진히동지가 붙잡혀 왔다. 당시 백운산에서는 광주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한 전투가 준비되고 있었는데 고동지는 이 전투를 위해 백운산에서 정찰임무를 띠고 광주로 들어 왔다가 체포되였던것이다.

고진히동지는 1948년 8월 제주도민들의 선출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표의 자격을 갖고 남편 강규찬과 함께 평양에 왔다가 전쟁이 터지자 자기 고향 제주도를 해방하려는 열망을 안고 또다시 연약한 녀성의 몸으로 남편을 따라 나선 훌륭한 동지였다.

동지는 덕유산전투에서 남편을 잃고도 비관함이 없이 유격대의 어려운 정찰임무를 자진해서 받아 산을 내렸던것이다.

고진히동지가 체포됨으로 해서 광주포로수용소습격계획은 류산되였지만 우리는 산에 있는 동지들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으며 구출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에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

며칠후 취조관들의 혹독한 고문에도 의연히 입을 열지 않고 고진히동지가 취조를 마치고 류치장에 돌아 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전해 졌다. 간수들의 눈이 감겨 지는 한밤중에 비밀을 지킬 각오로 자결했던것이다. 이웃감방에 있던 동지들이 들은것은 자결하면서 남긴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의 부르짖음이였다고 한다. 그 녀성을 잃고 우리는 슬피 울었다.

유격대의 비밀을 위하여 죽음을 택한 녀인, 우리는 그런 용기도 없이 이토록 시달리면서도 삶을 이어 가고 있는데…

그는 죽었지만 죽음으로써 승리하였다.

나는 그 녀성의 희생에서 큰 힘을 얻었다. 감옥에서도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불의와의 투쟁에서 일시적인 비관도 있을수 없다는 생각, 처지가 아무리 혹독해도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다해서 놈들과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였다.

광주포로수용소에 있는 3개월동안 나는 내가 정규인민군출신임을 밝히고 《거제도포로수용소로 보내라》고 요구하고 두번이나 당국과 싸웠다. 그러나 말이 싸우는거지 내가 감방에서 《거제도…》까지만 웨쳐도 간수들은 가차없이 끌어 내여 죽기직전까지 구타를 했다. 간수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마땅히 죽였어야 하는데 아직 안 죽인 놈들》에 불과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하고 거듭 그 요구를 당국에 들이댔다.

그무렵 계속 진행중이던 정전담판에서는 포로송환문제를 둘러 싸고 격론이 벌어 지고 있었다. 북측이 《제네바협정에 따른 무조건송환》을 주장한데

반해 미국측은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포로수용소에서 이른바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을 벌리고 있었다. 특히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는 《빨갱이포로》들을 《전향》시켜 《반공포로》로 만드는 심리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판에 《나는 정규인민군이니 포로송환때 북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부르짖은 내가 거제도로 갈수 없었던것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결국 나는 거제도로 못 가고 재판을 받았다. 독자들은 내가 정전협정이 일정에 오르고 판문점에서 포로송환문제로 갑론을박하고 있는 형편에서 그 궤도를 타고 빨리 처자가 있는 북으로 가기 위해서 그랬느냐고만 생각할지 모른다. 물론 그렇게 되였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사실 나는 나와 맞선 당국과 취급자들의 생리로 봐서 전혀 실현불가능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의와 싸워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처한 환경에서 싸우는 길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나를 부추겼기때문이다. 나는 유격대원으로 리적행위를 했으나 비전투원인 종군기자였다고 하여 당시로서는 드물게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사형》, 《사형》,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의 목소리가 너무나 귀 익게 들릴 정도로 중형선고가 많던 때라 7년형은 그야말로 행운이라 말할수 있겠다. 그러나 7년이나 사형이나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던게 그무렵 우리의 심정이였다. 자고 나면 시체가 실려 나가던 시절, 죽음은 도처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던것이다.

놈들은 사형수들을 무등산이나 광주천기슭 갈밭숲에 끌고 나가 형을 집행하였다. 때로는 수용소안의 담벽밑에 세워 놓고 수인들이 다 보는데서 할 때도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로 우리들의 의기를 꺾어 보려는 심산에서였다.

그러나 놈들의 의도와는 달리되군 하였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죽음앞에서 떳떳이 웨치고 간 동지들의 목소리는 우리들의 가슴속에 신념과 의지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 올렸다. 오히려 먼저 가는 동지들은 떳떳한 자세와 미소로써 그리고 피 타는 웨침으로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고무를 주었고 인생에서 삶과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신념이 중요하며 그 신념을 위해 삶도 죽음도 필요한것이라는것을 깨우쳐 주었다.

53년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되였다. 살인적인 탄압이 횡행하는 삼엄한 형무소안이였지만 우리들은 한쪼각의 소식이라도 필사적인 노력으로 동지들간에 서로 나누었기때문에 바깥소식을 어느 정도 계속 듣고 있었다.

정전협정이후 확고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개월이내에 정치회담을 열기 위한 예비회담이 10월 26일부터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우리들은 공통적으로 《정치회담이 매듭 지어 지면 정치범들은 모두 북으로 송환될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건 우리들만이 아니였다. 형무소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간수들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음에 틀림 없다. 대구형무소인 경우 이무렵 갑자기 정치범들을 끌어 내 하루에 5~6시간씩 일광욕을 시키군 하였다. 그간 규정을 어기고 하루에 70분씩밖에 운동을 안 시켜 동지들의 얼굴이 백지장 같았는데 송환이 될 때 그것때문에 말썽이 날가 하여

소동을 피웠던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참화가 멎은것으로 하여 바깥세상에서는 평온한 생활이 시작되고 있을 때 감옥안에서는 살인참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광주포로수용소측이 송환에 대비해 저지른 짓은 너무나 가혹했다. 사형을 선고 받은 200여명의 동지들을 한곳에 수용해 놓고 서둘러 집행해 버린것이다.

53년 10월이후 한달에 2～3차례, 한차례에 십여명씩 총살을 집행해 54년 4월 제네바정치회담 직전까지 200명중 단 6명이 살아 남았다고 한다. 《마땅히 죽여야 할 자들을 정치회담이니 뭐니하다가 자칫하면 살려서 내보내겠다.》는 조바심의 발로였다.

간수가 명패를 들고 감방문앞에 와 그날 사형집행될 대상을 호명할 때 갇혀 있는 동지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라.

이런 살인광란은 내가 보내달라고 했던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도 미친듯이 벌어 졌다고 한다. 최근 나는 《로동신문》에서 그때 미군이 거제도에서 세균무기실험까지 하여 수많은 포로들을 무참히 죽였다는 보도를 읽고 아연함을 금치 못했다. 그때 내 요구가 실현되여 거제도에 갔더라면 세균실험대상으로 될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때 광주포로수용소에서 살아 남은 6명의 동지들중 한 동지가 만기출소한후 다시 청주보안감호소로 잡혀 와 나와 함께 지내다가 89년에 석방되였다.

일본 관동군출신 간수들

7년형을 선고 받은 나는 광주형무소를 거쳐 대전형무소로 갔다가 대구의 륙군형무소로 옮겨 졌다.

대구륙군형무소는 대구동촌에 있었는데 일본인소유였던 과수원을 개조한것이였다. 과수원에 있던 큰 주택을 감방으로 고쳐 일반수들을 수용했다. 그중 사과를 저장하던 지하실은 《특호감방》이라 하여 정치범과 일반수들중 중범자들만 가두었다.

나도 이 특호감방에 던져 졌다. 들어 가보니 한 50여명이 갇혀 있는데 매질로 해가 뜨고 매질로 해가 지는 곳이였다. 당시 형무소의 간수들은 일제 관동군출신들이 대단히 많았다. 일제때 독립투사들을 때려 잡던 자들이 광복된 조국에서 또 우리 동지들을 가둬 놓고 지키고 있는 꼴이 바로 이남의 현실을 말해 주는것이였다.

리승만은 겉으로는 반일지사인척 하면서도 군부와 사법, 경찰의 기둥들을 거의 관동군출신 군인, 경찰들로 꾸리였다.

일제통치시기 총독부산하 경찰 2만명중 조선인이 8천이였는데 그중 5천이 제복만 바꿔 입고 그냥 리승만《정권》에 복무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놓고 보아도 남조선《정권》의 생태를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리승만의 측근자, 당시 륙군특무대 대장으로 활약하던 김창룡이라는 자도 일제때 북만에서 헌병대특무로 항일투사들과 애국자들을 검거 처형하는데 혈안이 되여 날뛰던 자이다. 하기에 간수들은 관동군노릇을 한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는커녕 일본군대에서 배운 잔인한 폭력성을 자랑스럽게 과시하였다. 이 바람에 특호감방의 규률은 병영보다 더 혹독하였다.

죄수들은 감히 간수를 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간수가 《000번》하고 부르면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 가던 사람도 마치 병정처럼 벌떡 일어 나 부동자

세로 있는 힘껏 《옛!》하고 웨쳐야 했다. 또한 일종의 대리통치자로 일반수 중범자가운데서 아주 포악한 자를 골라 감방장을 시켜 놓았다. 물론 그는 간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지만 성질이 워낙 포악하다보니 지시보다 한술 더 뜨는것이 다반사요, 간수들도 이것이 해롭지 않으므로 그냥 법치했다. 우선 감방장은 우리들 50여명을 몇줄로 앉힌후 각렬마다 《렬장》을 하나씩 배치했다. 물론 그도 일반수중 중범자였는데 그의 횡포 또한 대단했다. 가령 어디가 가려워도 그의 허락없이는 긁지도 못하는것이다. 긁으려면 《렬장님, 어디 가 가려우니 긁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한후 《긁어!》 소리를 듣고서 움직여야지 마음대로 움직였다가는 불려 나가서 죽도록 얻어 맞군 했다. 그러니 온 종일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야만 했고 벽에 기대앉는다는건 엄두도 낼수 없었다.

감방이 비좁아 자는것도 큰 문제였다. 서로 한사람씩 발과 머리를 엇갈리게 두고 모로 누워 자는데 옆사람의 발이 입에 닿는것쯤은 문제도 아니였다. 어찌나 비좁은지 왼쪽옆으로 누웠다가 옆구리가 결려 오른쪽옆으로 돌아 누우려면 혼자서는 도저히 몸을 빼낼수가 없고 전원이 일어나 일제히 돌아 누워야만 겨우 돌아 누울수 있을 정도였다.

사실 나도 체험해 본바이지만 일제때 감옥형편도 이 지경은 아니였다. 누군가 왜정때 형무소들의 특성을 《향토색》으로 야유하면서 《신의주감옥은 적수감옥이요, 경성감옥은 일감옥, 대전감옥은 몽둥이감옥, 대구감옥은 싸움감옥, 함흥감옥은 쌍간나새끼감옥, 청진감옥은 생선감옥, 해주감옥은 외양감옥 그리고 서대문감옥은 옴감옥》이라 불렀댄바 있지

만 남조선땅의 감옥은 무엇이라 해야 할지… 그 특징이 너무도 잔혹하고 많으며 급으로 따진다면 모두 특등급들이여서 그저 아연해서 비유에 능한 사람도 왔다가는 울고 갈것이다.

밥은 어린애들 주먹만하게 뭉친것을 한덩어리씩 주는데 받기 바쁘게 한입에 삼켜 버리면 그만이였다. 륙군형무소 의무과 의사조차 《그 밥만 계속 먹으면 영양실조로 3개월을 못 넘길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과연 3개월이 지나자 모두들 살은 다 빠지고 백골들이 되였다. 매일 자고 나면 한둘씩은 죽어 나가는 나날이 계속되였다.

이무렵 어떤 동지가 꾀를 하나 냈다. 어차피 얼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굶어 죽을게 뻔한데 배나 채워 보고 죽자는 얘기였다. 즉 7～8명이 한조가 되여 끼니때 어린애주먹만 한 밥을 받으면 눈 딱 감고 반을 덜어 한사람에게 몰아 주자고 하였다. 그러면 일곱끼니는 배가 고파도 한끼는 배를 채울수 있지 않겠느냐는것이였다. 그래서 렬장의 눈을 피해가며 이른바 《밥계》를 해보았는데 한끼 배 부르자고 사흘을 굶는 일도 할짓이 못되였다.

간혹 가족이 찾아 와 음식물을 차입해 주는 동지들도 있었다. 하지만 차입된 음식물이라는것도 층층치하의 간수들이 다 뜯어 먹고 감방장, 렬장몫까지 뺀후에야 쥐꼬리만큼 본인에게 돌아 오는데 다른 사람들과 절대 나누어 먹지 못하게 했다. 굶주린 동지들을 두고 도저히 혼자 먹을수가 없어 렬장의 눈을 피해 음식을 나누어 먹다 걸리기라도 하는 날엔 불려 나가 똥물이 올라 올 때까지 두들겨 맞는 판이였다.

굶주린 산 자들때문에 더욱 비참해 지는것은 죽은 동지들의 시신이였다. 감방장은 사람이 죽어도 그 몫의 밥을 더 받아 먹으려고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 그냥 아프다 하고는 시체를 2~3일씩 감방 한쪽구석에 놔두는게 보통이였다. 죽은 동지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 감에 따라 몸속에 있던 이들이 일제히 기여 나와 동지들의 얼굴에 와글와글대군 했다. 맘대로 제 몸도 긁지 못하는 우리가 부릅뜬채 숨을 거둔 그들의 눈을 감겨 줄수나 있었겠는가. 그러한 고통속에서 2년을 지냈다.

일괄해 말한다면 간수들도 관동군출신에 수인들을 다루는 방법이 악착하고 졸렬한데서 극치를 이루었거니와 감옥설비며 감방내 준칙들도 남조선이 가장 높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죽이다 못해 죽일 명분이 없어서 죽이지 못할 정치범들이 옥고를 치르는중 될수록이면 간수들의 악랄성을 최대한으로 발휘되게 했고 감옥설비며 준칙이며 침식조건이며를 비인간적인 마지막계선에 다닫으게 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데서 죽지 않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다. 7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나는 대구형무소로 넘겨 졌다가 54년 서울 마포형무소로 이감되였다.

삶아 진 쥐를 뜯어 먹다

마포형무소에 도착한후 처음 얼마동안은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였지만 나와 같은 처지의 동지들과 한방에 있게 되였다. 인쇄공장에 출역도 나갔는데 거기서 아는 동지를 만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포형무소라고 대구의 특호감방과 특별히 다를바 없었다. 방마다 간수가 첩자를 하나씩 심어 놓아 한방에 있는 동지들과 마음대로 이야기도 나눌수 없었고 공장에 출역을 나가 아는 동지를 만나도 눈인사조차 제대로 할수 없었다. 공장에 나가면 밥덩이는 조금 커진다고 하나 엄청난 량의 1일작업량이 할당되여 있었다.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죽도록 얻어 맞는데 나이 많고 막일을 해보지 않은 동지들은 책임량을 채우지 못해 살벌한 구타속에 병들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무소 계호과장이 나를 부른다고 하였다. 따라 가보니 그는 《빨갱이》는 절대 용납할수 없다는 요지로 이말저말을 늘어 놓았다. 아마도 내 반응을 통해 성향조사를 하려는것 같았다. 그럴 때 못 들은척 넘어 가야 징역살이가 좀 덜 고될텐데 입바른 소리 잘하는 나는 번번이 그런 순간을 그대로 넘기지 못하였다. 온갖 소리끝에 그가 《이북과 이남은 기름과 물 같아서 절대 합쳐 질수 없다.》는 말까지 하기에 도저히 참고 들을수가 없어서 나도 한마디 했다.

《만약 이 자리에 미국인이 나타나 과장이 보는 앞에서 나를 마구 두들겨 팬다면 과장은 차마 무어라 말은 못해도 마음이 언짢을것 아니요?》

《그건 그렇겠지.》

《바로 그 언짢은 마음도 같은 민족이기때문에 생기는것 아니겠소?》

《그렇지.》

《같은 민족이기에 생기는 언짢은 마음이 바로 남, 북은 하나라는 증거 아니요. 하나의 민족인 남과 북을 어찌 물과 기름이라 하시오?》

《어허, 이 사람 안되겠는데. 이봐, 이 사람 5사에 갖다 넣어.》

이리하여 나는 5사독방에 갇히게 되였다. 마포형무소에서는 5사가 정치범중에서도 《악질》들을 가두는 특별사였다. 독방으로 온후에는 며칠 내보내던 공장에도 내보내지 않았다. 덕분에 밥덩어리는 다시 아기주먹만하게 줄어 들었다.

좁디좁아 량팔을 들면 벽을 짚을수 있는 관만 한 독방에는 변소도 없고 변기통이 한쪽구석에 놓여 있을뿐이였다. 감방뒤쪽의 들창은 쇠창살을 치고 그우에 굵은 철사로 철망을 떠서 막아 놓았다. 그것도 부족했던지 그 바깥쪽을 널판자로 가리우고는 못질을 해놨는데 이때문에 대낮에도 해빛 한줄기 볼수가 없었다.

때는 겨울인데 북쪽출신인 나에게 내의를 넣어줄 가족이 있을턱이 없다. 물론 내의를 얻어 입을 감방동지가 있는것도 아니였다. 그런데 후에 들으니 여러사람이 혼거했던 동지들도 가족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수용했기때문에 가족 없는 동지들이 고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오히려 그들이 나보다 더 힘들었으리란 생각도 든다.

도리없이 광목에 시퍼런 물을 들인 죄수복 한꺼풀만 입고 마루바닥에 앉았는데 랭기가 온몸에 스며들어 얼어 죽을것만 같았다. 하도 등이 시려 《이불에 기대면 좀 낫겠는데》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으

나 이불은 감방 한쪽구석에 개여 놓게 하고 수인들은 감방 한복판에 똑바른 자세로만 앉아 있으라 하니 그럴수도 없었다.

하도 추워서 꾀를 하나 냈다. 식수를 먹지 않고 구석에 개여 놓은 이불우에다 조금씩 쏟아 부은것이다. 하루이틀 지나니 이불옆쪽에 얼음이 수북이 얼었다. 《이때다.》하고는 담당간수를 불렀다. 이불옆쪽에 얼어 붙은 얼음을 보여 주고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담당님, 구석에서 습기가 차올라 이불이 어는것 같은데 구석에다 이불 못 놓겠는데요.》

그가 들어 와 이리저리 보더니 이불을 가운데에다 옮겨 놓으라 한다. 감방 한가운데다 옮겨 놓은 이불에 등을 대니 그나마 살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다. 점심 배식시간에 밥과 국을 받았다. 국이라 하니 독자들이 어떻게 상상하실지 몰라 설명을 해볼가 한다.

가을무우수확기에 무우밭주변에는 잘라 버린 이파리들이 널려 있게마련이다. 형무소측은 소년수들을 동원해 이것들을 주어 모아서 취사장에 쌓아 놓는다. 그리고는 겨우내 이 이파리들을 씻지도 않고 거둬 넣어 국을 끓이는것이다. 그러다보니 국물은 쓰디쓰고 빛갈은 새까만것이 꼭 고려약 달여 놓은것 같다. 국그릇은 미제폭탄껍데기를 잘라 만든것인데 녹이 잔뜩 쓸어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흉한 그릇이였다. 조미료 같은것은 생각도 못하고 소금만 넣어 끓인 새까만 무우이파리국을 그런 그릇에다 담아 놓았는데도 워낙 배가 고프다보니 국에 건데기가 좀 있으면 그렇게 반가울수가 없었다.

그날 점심에 국을 받으니 웬일로 무우이파리가 수북이 들어 있었다. 저가락으로 덥석 건져 들었는데 묵직한것이 느껴진다. 입에 가져 가려는 순간 흘긋 보니 통채로 삶아 진 쥐였다.

나는 원래 쥐를 무서워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래서 얻은 별명이 《서공》이였다. 이 별명을 얻은것은 30년대 말 일본 도꾜에 갔을 때였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어디에 갔다 와서 내가 먼저 방에 들어 갔는데 방문을 여는 순간 선반우에 있던 쥐가 깜짝 놀랐던지 뚝 떨어 지는것이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놈의 쥐가 정통으로 내 머리우에 떨어 져 버렸다. 나는 어찌나 놀랐던지 《악!》하는 비명과 함께 방바닥에 나자빠져 정신이 멍해 있었던것 같다. 이통에 각 방에 있던 히다찌공장 녀사무원들이 몽땅 모여 들었다. 그후부터 그 녀자들은 나만 보면 《네즈미오소레(쥐를 무서워 하는 사람)》이라고 놀려대군 했다. 그래서 내 별명이 《서공》이 되였던것이다.

그런 버릇이 있는데 국그릇에 쥐가 통채로 들어 있었으니 내가 얼마나 놀랐을가를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놀램도 잠간이였고 나는 삶아 진 쥐를 뜯어 먹었다. 놈들이 나를 때려 죽이고 얼궈 죽이고 굶겨 죽이자고 하는데 기어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 그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항거와 증오의 의분이 엉켜 진 삶에 대한 욕망으로 해서였다.

하루는 역시 아침배식때 국을 받으면서 무심코 국그릇을 들여다 보았다. 그랬더니 신식구통(식사따위를 넣어 주는 네모난 구멍으로 감방문에 뚫려 있다.)으로 들어 오는 엷은 빛줄기로 인해 내 얼굴이 국물우에 비쳐 지는것이였다. 의학백과사전화보에

나오는 해골 같은 몰골, 그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였다. 내가 살아 있다는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때 북 받치는 감정을 못 이겨 시를 하나 지었다. 아직도 잊혀 지지 않기에 생각나는대로 여기에 적어 본다.

움푹하게 패인 두눈에선
그렇게도 아름답던
지난 날 젊은 빛을 찾을 길 없고
튀여 나온 광대뼈밑 기여 든 볼
거칠게 금이 간 주름살속에선
불 타오르던 청춘의 정열
찾을 길 없나니
이제 청춘은 갔다

그러나 그 청춘을 너는
헛되이 보내진 않았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싸움속에
그것을 바친것이다
그렇기에 조국은
앙상한 네 온몸을
그 넓은 품안에 끌어 안아 줄것이며
참다운 네 사랑은
주름 잡힌 네 얼굴에
뜨거운 입술을 보내여 줄것이다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않은
기쁨이여 영광이여
네 뼈마디에 마지막기름이 마르고
네 가죽이 백골보다 앙상한 뼈를 감쌀 때까지
네 심장이
마지막맥박을 칠 때까지
조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라

그리하여
너를 품어 주는
조국의 넓은 품을
더욱 넓게 하고
네게 보내지는
네 사랑의 입술을
더욱 뜨거웁게 하라

소금그릇에 비치는 앙상한 얼굴을 바로 보며 나를 이렇게 만든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했다.

그리고 동강난 조국에 대한 슬픔과 조국을 동강낸 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느꼈다. 이 얼굴을 동지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안해와 딸애가 알아 볼수 있을가 하는것도 생각하였다. 허나 내가 이 아침 감방안의 소금국에 비낀 앙상한 얼굴로가 아니라 남조선땅의 그 어느 구석에서 살이 오른 얼굴로 웃고 있다면 동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더는 자기들의 동지, 자기들의 아버지며 남편임을 인정하지 않을것임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심장이
마지막맥박을 칠 때까지
조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라
…

감옥은 당국의 얼굴

감옥이라면 의례히 높은 담장과 철창과 콩크리트로 바깥세상과 잘 격리된 곳으로 흔히들 생각한다. 이런 방법으로 귀와 눈을 막고 모든 감각기관을 마

비시켜 정치범들의 온갖 사색과 활동을 정지시키자는것이 당국의 목적이니까.

하지만 나는 체험을 통하여 감옥처럼 바깥정세의 변화에 민감한데는 없으며 특히 당국자들의 심리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가 없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감옥은 당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마포형무소에서 서울의 중앙청까지는 상당한 거리이지만 나는 때때로 감방안에 쪼그리고 앉아 《대통령실》에 앉아 있는 리승만의 늙어 빠진 얼굴의 변화를 상상해 볼 때가 있었다.

56년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그무렵 인쇄공장에 출역 나갔던 동지들이 돌아 와서 하는 말이 선거전 20여일에 걸쳐 마포형무소 인쇄공장에서는 밤을 새워 투표용지를 찍었다는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3선출마를 단념하겠다던 리승만이가 렴치불문하고 또다시 《대통령선거》에 나선것이다. 《대통령》을 계속해 달라고 경무대앞에서 무리 지어 떠들어댄 시위대의 뜻을 받아 들여 《국민을 위해》 또다시 출마하노라고 리승만이 제 입으로 떠벌였지만 그의 검은 속심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바이다.

반독재기운을 이런 식의 졸렬한 방법으로 짓뭉개며 출마에 나선 리승만이 어지간히 초조해난것이 분명했다. 나는 마포형무소 인쇄공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했던 동지와 얘기를 나누며 그것이 부정선거를 위해 몰래 인쇄해 간 투표용지임에 틀림 없다는것을 알았다.

그 동지의 말인즉 다음과 같다.

《처음에 물량이 많이 밀리기에 기밀을 요하는 인쇄라 형무소에서 찍나보다 했는데 간수들의 눈치가 영 그게 아니였어. 안절부절 못하면서 20여일간 기계를 밤낮으로 돌려 용지를 다 찍어 낸후에는 조판한것을 빨리 부셔라, 재판도 없애라, 투표용지인쇄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등 성화가 불 같았거든.》

어쨌든 이 《선거》에서 리승만은 엄청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고작 52%의 득표에 그쳤다.

《통일》소리만 해도 철퇴를 맞던 리승만경찰독재통치하에서 최초로 평화통일을 웨쳤던 죽산 조봉암도 진보당의 《대통령후보》로서 이 선거에 출마했었다. 그는 극히 불리한 조건에서도 리승만과 큰차이 없는 득표수를 얻어 리승만을 전률케 하였다.

리승만을 놀래운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의 립후보 신익희를 선거전에 암살해 치우고 한숨 돌렸다 생각했는데 죽은 사람을 놓고 전국적으로 추모투표가 진행됐다는 소식에 접해 리승만의 표정이 어떠했으리라는건 뻔하다.

1958년 1월 리승만은 서정학치안국장이 직접 지휘하여 진보당본부를 습격하고 죽산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의 중심인물들을 모두 체포하게 했다. 사회의 격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리승만은 간첩사건과 련루시켜 자기의 가장 큰 적으로 간주되던 조봉암선생을 학살하였다.

리승만은 혹 이런 방법으로 종신《대통령》의 주추돌을 무사히 놓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민중들의 가슴에 소리없이 쌓여 가던 분노는 마침내 그를 몰아 내고 말았으니 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 하는것이리라.

당국의 표정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 보자.

50년대 정치범감옥의 력사가운데서 대전형무소 리용기소장의 얘기를 빼놓을수 없다. 리용기소장이 사상범들을 전향시키기 위해 설칠 때 나는 마포에 있었으므로 대전형무소의 참상은 후에 여러 동지들의 증언을 듣고 알게 된것이다.

원래 사상전향제도는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제국주의로 치닫던 일제가 만들어 낸것이다. 식민지조선의 항일독립운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던 이 제도는 광복과 함께 잠시 사라졌다가 48년에 다시 살아나 좌익활동전력자들을 무데기로 학살하였던 《보도련맹사건》을 불러일으켰다. 전쟁후 전국 각 형무소에서 《국가관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사상전향절차가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제도화된것은 56년의 일이다.

그러나 파쑈소장 리용기가 설치기 시작한것은 이미 그 전해인 55년부터였다고 한다. 그의 전향정책의 신호탄은 바로 《최후통첩》방송이였다. 그는 동지들이 갇혀 있는 대전형무소 특별사(4사)에 대고 《전향하느냐, 뒤문으로 나가느냐(수형자가 죽으면 시신을 뒤문으로 내보낸다)의 선택권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는 최후통첩과 같은 방송을 했다. 그다음 그는 우선 간수들조차 《씨비리》라고 부르는 특별사(4사)에 갇힌 정치범들의 내의를 모두 빼앗았다. 가족들로부터의 차입도 모두 차단한후 그의 전향공작의 핵심인 《기아정책》을 실시했다. 밥은 단 네숟가락, 국은 도람통에서 국물만 살살 퍼서 항상 정량의 일부만이 배식되였다. 남은 밥과 국은 굶주린 동지들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로 버려 졌다.

이뿐아니였다. 특별사의 복도에선 하루종일 동지들을 끌어 내 구타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30분이상 채우지 못하게 되여 있는 대포수정(한팔을 어깨너머로 넘기고 다른 한팔은 등아래쪽에 비틀어 두손을 잡게 한후 량쪽손목에 수갑을 채워 고통을 주는 형벌)을 3시간이나 채워 그 추운《씨비리사동》에서 동지들은 마치 물속에 들어 갔다 나온것처럼 땀에 젖군 했다.

한마디로 굶주리다 쓰러져 죽어 나가겠는가, 전향해서 살아 나가겠는가를 선택하라는것이였다. 이 같은《기아정책》은 4.19가 일어 날 때까지 계속되였다.

이렇게 삶과 죽음의 계선에서 가장 잔인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응당 공포와 불안속에 잠겨 있으리라고만 생각하면 잘못이다.

감옥의 살벌한 분위기에서, 리용기와 같은 자들이 험상을 해가지고 설치는 몰골에서 우리는 식민지 남조선의 형편, 당국의 검은 얼굴을 보고 있었다. 붕괴직전에 처한 리승만《정권》의 마지막경련을 느끼고 있었다.

전향강박, 고문을 이기고 감방으로 돌아 오면 육체는 말할수없이 고통스럽지만 마음엔 어쩐지 배포유한 안정감이 깃드는듯 한 느낌을 이 시절에 자주 체험하였다.

남조선전역에 걸쳐 4.19가 터졌을 때 우리들은 응당 와야 할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리승만의 동상이 포석우에 나딩굴고 미국이 제공한 특별비행기로 그가 프란체스카와 단둘이 김포비행장에서 다시 미국으로 내빼야 했던 처지도 놀라울것 없었다.

리용기소장도 그간의 악행의 피값으로 서대문형무소 감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5.16이후 석방된 그는 그후 종로에서 큰 다과점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마포형무소 5사 독방에서 추위에 떨며 잠 못들던 어느 이른새벽, 저벅저벅 걸어 오는 간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감방문이 덜컹 열렸다. 벌떡 일어나 바라보니 담당간수가 서 있었다.

《부산으로 이사간다. 짐 싸들고 빨리 나와.》

퉁명스런 목소리가 귀전을 때렸다. 가족 없는 나에게 싸들고 나갈짐이 있을턱이 없다. 빈몸으로 나가니 같이 이감 가는 동지들이 꽤 있었다. 모두들 보따리 하나씩은 들고 나오는데 유독 나혼자 빈몸으로 나오는게 이상했던지 간수가 의아한 눈으로 쏘아 보는것이였다.

차례차례 포승줄로 꽁꽁 묶고 그우에 다시 수갑을 채우고 우리들은 차에 태워 져 서울역으로 갔다. 기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총을 멘 경찰 수십명이 우리를 빽빽이 둘러쌌다. 말은 물론이고 주변에 시선만 던져도 《쳐다보지 말라.》하고 고함을 친다. 여윌대로 여위여 뼈만 남은 산 송장들이 무엇을 할수 있기에 이토록 야단인지. 게다가 간수들은 경찰들앞이라 한번 뽐내보려는지 더욱 기승을 떨며 욕설들이다. 각 역을 지날 때마다 경찰이 40～50명씩 나와 우리를 둘러 싸는것은 여전했지만 그런 틈에도 기차유리창으로 바깥을 얼핏 내다보니 세상은 참말로 별천지 같았다.

밤이 되여 부산에 닿았다. 그리고는 트럭에 실려 부산형무소로 갔다. 우리들은 하나하나 감방에 집어 넣어 졌는데 모두가 3사 독방이였다. 나는 3사 10방에 가두어 졌다. 추위에 덜덜 떨면서 들어 가자마자 이불부터 쳐다봤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피고름이 덕지덕지 말라 붙은 구역질나도록 더러운 이불이였던것이다. 그러나 하도 추우니 더럽다는 생각을 할새도 없이 퀴퀴한 냄새가 나는 이불을 둘러쓰고 잠을 청했다. 후에 알고보니 그 사동은 문둥병환자 전용사동이였다. 그런데 형무소측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문둥병환자들을 다른 사동으로 옮겨 놓고 우리를 집어 넣은것이다.

광풍을 헤치며

《감옥문을 나서다》

이런 속에서 세월은 흘러서 1959년 1월 27일 징역을 다 살고 출옥하게 되였다. 감옥문을 나서는 나의 마음은 무거웠다. 삶을 투쟁의 목표로 삼고 드디여 그 지옥 같은 감옥을 나서는 길이지만 자신이 살아 있다는 현실감보다 죽어 간 동지들에 대한 생각으로 걸음이 무거웠다.

40여년 일제통치하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싸워 온 수많은 동지들, 원통하게도 조국이 동강나고 전쟁이 일어 나면서 남쪽에서 활동하던 많은 동지들이 북으로 갔지만 계속 남아서 활동하던 동지들은 대다수가 피살되거나 체포되였다.

정전후 포로수용소나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정치범들은 줄잡아 수만명이 되리라고 한다.

전후의 무법천지에서 학살 당하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가운데 나처럼 《단기형》을 받고 살아서

옥문을 나설수 있었던 사람이 그들중 과연 몇이나 되였을가.

정치범의 생존률이 200 대 1이나 300 대 1이니 하던 50년대 감옥에서 말이다.

동지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출소날이 되였다. 그러나 내게 입고 나갈 옷이 있을리 없었다. 홀랑 벗겨서 내보낼수는 없었던지 형무소측에서 시퍼런 죄수복에 까만 물을 들여 주기에 입고 나왔다. 죄수 비슷한 거지꼴을 하고 지리도 전혀 모르는 부산거리를 물어 물어 내 거처로 지정된 《사법보호회》를 찾아 갔다.

그곳은 강도, 절도, 사기군 등 징역 살고 출감한 사람들중 갈데 없는 자들을 수용하는 곳이였다.

경찰의 감시로 인한 고통이야 어차피 각오한것이지만 그렇게 품성이 좋지 못한 자들과 함께 살자니 참으로 힘들었다.

그자들은 《사법보호회》 직원들과 경찰에게 잘 보이는 길이라 생각했던지 걸핏하면 내 애기를 그들에게 고자질했다. 그것도 경찰이 구미가 당길만 하게 각색을 해서.

더욱 참기 힘들었던것은 자기들은 온갖 나쁜짓을 일 삼으면서도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 《그래도 너 같은 빨갱이보다는 내가 애국자다.》라며 공연히 시비를 걸어 오는 일이였다.

그자들이 걸어 오는 시비에 말려 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단속해야 했다.

나는 속으로 끝없이 되뇌이였다.

애국이란 무엇인가. 내가 내스스로를 애국자라 주장한적은 없다, 나는 애국하려고 노력했을뿐이다. 이 친구들아, 더 이상 조국을 욕되게 하지 말아다오.

《사법보호회》측도 나를 경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강도, 절도, 깡패들은 취직을 시켜 주고 그들이 돈이 생겨 술 먹고 란동을 부려도 그냥 두면서 나는 취직을 시켜 주려 하지 않았다.

출옥은 했지만 또 다른 《감옥》으로 옮겨 앉은 심정이였다.

그래도 감옥에서는 견실한 동지들이 곁에 있어서 마음의 의지가 되였는데 여기는 부랑배들판이니 마음의 의지가 없어서 고독하고 외롭기는 감옥보다 더했다.

마침 다른 자들은 일이 고되다고 나가라 해도 안나가는 구멍탄공장일이 생겼기에 사정사정해서 구멍탄공장에 들어 갔다. 어두운 새벽에 나가 밤 9시까지 일하고 받은 돈이 일당 400환이였다.

나는 술은 입에 대지도 않고 담배도 제일 값싼 《파랑새》를 아끼고 아껴 피우면서 번 돈을 부지런히 모았다.

가능한 한 《사법보호회》에서 살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보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던중 하루는 구멍탄공장에 출근하는 길에 낯익은 사람을 하나 만났다.

부산거리에서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날 일이 있겠는가 싶어 지나치는데 그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였다.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분명 고향 풍산의 한동네에서 살던 사람이였다.

그 역시 타향에서는 고향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 심정이였던지 무척이나 반가와 하였다.

내 근황을 묻기에 징역 살고 나와 《사법보호회》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 별로 경계하는 빛이 없었다. 구멍탄공장에 출근하는 길이라 대충 인사를 나누고 아쉽게 헤여 졌다. 생각지도 않게 고향사람을 만난때문인지 그후 며칠간 고향 풍산모습이 눈앞을 스쳐 가군 하여 공연히 울적하게 지냈다. 하늘을 나는 구름이나 계절조를 봐도 고향이 그리워 눈굽이 축축히 젖어 옴을 금할수 없었다.

어머님과 안해는 무고한지, 현옥이도 이제는 열살을 넘겨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겠지… 더욱 그리운것은 광복후 새 조국건설을 위해 어깨를 들먹거리며 함께 뛰여 다니던 동지들이였다.

그들은 지금 전쟁의 피해를 가시고 조국건설에 분주할텐데 나는 여기 남쪽땅의 막바지에서 얼굴이 새까매 가지고 구멍탄을 찍고 있다는 일종의 비관과 부러움이 엉킨 그리움이였다.

이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길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사법보호회》로 나를 찾아 왔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 만난 얘기를 했더니 다들 만나보고 싶다고 하여 자리를 만들었으니 가자

는것이였다. 얼떨결에 그를 따라 가보니 진짜 여러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갑고 고마왔지만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나는 지금도 감시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들이 내게 이렇게 하면 해를 입지 않겠소?》

《그런건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들은 큰소리였다.

얘기를 듣고보니 그들 대부분이 부산에서 웬만큼 경제적지반을 잡은듯 하였고 뻐스를 몇대씩 가지고 사업을 하는, 당시로서는 큰 부자라고 할만 한 사람도 있어 기관장들과는 통하는 등 자신이 있는것 같았다.

그들의 말이 내 처지를 동정해서 나를 돕는 회를 만들려고 한다는것이 아닌가.

이리하여 나는 부산에서 유지라고 할만 한 이들의 보증으로 부산영도극장에 취직해 선전일을 맡아보게 되였다. 영화선전물이나 포스터, 간판 등을 제작하는 업무였다.

취직해서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였지만 당시 극장은 돈벌이가 괜찮은 곳이였다. 전쟁후의 황량한 사회가 사람들을 극장으로 몰리게 만들었던것일가?

돈이 많이 굴러 다니는 곳이니 자연히 선전일에도 갖은 협잡이 끼여 들어 있었다. 직원들은 이런저런 수단으로 비용을 남겨 제 주머니에 챙겨 넣군 하였다. 나는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일했다. 사장도 내 전력을 알고 있는 판에 《빨갱이》취직시켜 주었더니 회사돈 잘라 먹더라는 소리가 나와서는 절대 안될 일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장이 이점을 깨

닫게 되였던 모양이다. 얼마후 그는 나를 부르더니 《선전책임자로 올려 줄테니 열심히 해달라》는것이였다. 책임자가 되니 돈도 더 많이 받게 되였다. 계속 극장에서 밥벌이만 하고 있을수는 없었으므로 받은 돈을 알뜰히 모았다.

그러던중 60년 봄 4.19감격을 맛 보았다.

두번째 투옥

부산은 마산과 함께 4.19봉기가 제일먼저 터져 오른 고장이다. 거리거리를 떨쳐 나선 학생들과 시위군중들은 최루탄을 쏴대는 경찰들과 맹렬한 투석전을 벌리였다. 시위군중들은 경찰서와 지서들, 괴뢰정권기관들을 들부시며 시청으로 몰려 갔다.

기동경찰들에 의해 김주렬청년이 살해되자 봉기는 더욱 격앙된 상태에 이르렀다. 《승공》과 《북진》의 잠꼬대속에 얼어 붙었던 통일운동도 힘차게 솟아 올랐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고 쓴 프랑카트를 들고 거리를 내닫는 학생들을 보며 나는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학생들은 우리 영화관에도 밀려 들어 프랑카트들과 포스터를 쓸 붓과 유채화구들을 요구하여 나는 그들과 함께 구호들을 쓰기도 했다.

4.19는 이미전에 터졌어야 할 봉기였다.

리승만《정권》은 곪고 썩을대로 썩은 허수아비정권에 불과했다.

낡디낡은 구식의 식민지독재체제에 경제도 봉건적인 소유관계를 벗어 나지 못하여 도시와 농촌은 황

페화될대로 되여 있었다. 남조선인민들은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었다.

자칭 《국부》라고 하던 리승만은 《북진》이요, 《부흥》이요 하는 낡은 외마디소리를 외우며 종신 《대통령》의 단꿈만 꾸고 앉아 있었다. 그의 생명은 오직 이런 《허수아비》를 필요로 했던 미국에 의해서만 겨우 연명되고 있었을뿐이였다.

그가 얼마나 황당한 꿈에 취해 있었으면 자기의 동상을 시위군중들이 끌어 내리자 《저들이 왜 저러는가.》고 놀라기까지 했겠는가.

한때 애국애족을 침이 마르도록 부르짖던 그가 하와이 외딴섬에서 림종을 고할 때 《나의 모든 재산을 절대로 영원히 나의 안해 프란체스카에게 넘겨준다.》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만 들어도 그의 타고 난 생리를 잘 알수 있다.

그의 생리가 곧 4.19이전의 남조선《정권》의 생리였다. 그리고 지금도 같다. 《정권》은 몇차례 바뀌였으나 그 생리는 변하지 않았다. 전민항쟁으로 리승만《정권》이 꺼꾸러진후 온 남녘땅에서 터져올랐던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하는 통일의 웨침, 그 함성은 4.19의 필연적 귀결점이였다.

그러나 61년 5월 16일 새벽, 독재자가 군대를 내몰아 한강다리를 건너 《정권》을 가로 타고 앉았다. 중앙청을 장악하고 방송국을 탈취한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첫 《혁명공약》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섯가지 조항으로 된 공약중에 첫째 조항이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강화한다.》였다.

나는 《국시의 제일》대상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며 《재정비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또다시 휘몰아쳐 온 파쑈의 광풍이였고 정치범들에 대한 재검거선풍이였다.

61년 6월 어느 날이였다.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하나가 갑자기 찾아 왔다. 사정을 이야기할수는 없지만 꼭 필요하니 200만환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무슨 영문인지 알수는 없으나 그 친구의 성품이 진실함을 익히 아는터이고 더우기 내게 돈이 있으면서 거절할수가 없는 일이라 더 묻지 않고 있는 돈을 모두 꾸어 주었다. 이무렵 나는 그동안 푼푼이 모아 둔 돈이 당시로선 제법 큰돈인 150만환정도 되였다.(62년 6월 10일 화페개혁으로 10환이 1원으로 바뀌였다.) 그 돈을 몽땅 꾸어 준것이였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한번 투옥되는 꼬투리가 될줄이야, 며칠후 나는 《사법보호회》에 영문도 모르고 잡혀 갔는데 가서 보니 벌써 조서상 《지하당조직자금제공자》가 되여 있었다.

나는 그때 검거리유가 전혀 무근거하다는것으로 당국과 몇번 맞서 싸워 보았는데 생각해 보니 전혀 필요 없는것이였다. 검거리유가 문제가 아니라 《국시의 제일》대상들을 결박하고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문제였기때문이다. 《지하당조직자금제공자》가 아니라면 또 다른 리유를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나를 가둬 넣었을것은 뻔한 리치였다.

4.19후 1년가량은 4.19의 여파때문인지 형무소의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 졌었다고 한다. 《간첩죄》가 붙지 않은 정치범들에 대해서는 비록 감형의 5분의 1이란 린색한 폭이기는 했지만 감형조치도 내려 졌다. 게다가 간수들은 180도 달라 진 태도로 정치범들에게 《당신들도 재심을 하면 다 나갈것이니 신청하라.》며 떠들고 다녔다는것이다. 실제로 공장에 출역하고 있던 동지들중 일부는 재심을 거쳐 석방되기도 했고 병보석으로 나온 경우도 몇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5.16과 함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였다. 형무소 역시 사회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기때문이다. 우선 간수들부터 바싹 긴장해서 동을 지나다니는 발걸음이 빨라 졌다. 형무소 요소요소마다 집총 한 경비병들이 지켜 서고 사동안에도 군인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5.16이전 재심이나 병보석으로 출옥했던 사람들은 물론 사안이 가벼워 과거에는 재판에 붙이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모두 붙들려 왔다.

나 역시 《지하당조직자금》제공혐의가 그대로 덮어 씌워 져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된끝에 징역 15년이 확정되였다. 과시 군복 입은 깡패들다운 처사였다. 지리산싸움터현장에서 체포되였을 때도 7년형을 받았는데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15년형을 받고보니 억울하다는 감정에 앞서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에 웃음부터 나왔다.

이제 내 나이 마흔여섯, 환갑때까지 감옥에 있으라는 얘기였다.

독재자가 《반공》을 국시의 제일책으로 삼고 서둘러 이런 폭거를 감행한것은 우선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였을것이다. 력대 사대주의자들이 하나같이 《반공》을 국책의 제일로 내세우고 미국의 환심을 샀었다. 국민앞에 내놓는 공약이라면 응당 구악을 일소하고 정사를 바로 펴서 민족경제를 부흥시켜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것을 명목상이나마 앞에 내세워야 한다. 하지만 《독재자》한테는 국민의 얼굴보다 미국상전의 표정이 더 중요했다.

그의 사대매국노의 본성은 공약의 두번째 조항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적협약을 충실히 리행할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뉴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역시 상전의 얼굴에 초점을 두고 잠시도 딴전을 팔수 없는 독재자의 가련한 몰골을 잘 시사해 준다. 이렇게 아부아첨에 환장이 된 자의 국민을 향한 눈길엔 무서운 독기가 어려 있었다.

독재자는 몇달사이에 수백가지 악법을 만들어 놓고 즉결군사재판으로 남조선전역에 걸쳐 애국력량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리승만《정권》때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던 감옥들이 터져나갈 지경으로 차고 넘쳤다.

5.16직후인 61년 8월 전국 형무소에 흩어 져 수감되여 있던 비전향좌익수 780여명이 모두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였다. 첫 구호로 《반공》을 웨쳤던 5.16주체들답게 비전향자들을 한곳에 모아 놓고 엄중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것이다. 나 또한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였다.

780여명 동지들이 대전형무소 특별사에 집결되고 보니 우리들을 독거시키려 해도 시킬 방이 없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방에 4～5명정도씩 갈

이 있게 되였다. 특별사의 마이크에서는 날마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하는 《혁명》방송이 울려 퍼졌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보안법》으로도 성이 안 차 새로이 《반공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럴 때일수록 한쪼각의 정보라도 얻기 위해 동지들이 기울이는 노력은 엄청났다. 어떤 수단으로든 정보가 입수되면 그것을 모두에게 전하기 위한 련락이 시작된다. 마치 물속인양 숨 막히게 고요한 대전교도소(62년 1월 1일부터 형무소라는 명칭이 교도소로 바뀌였다. 물론 이것 역시 이름만 달라 졌을뿐 리승만《정권》처럼 생리는 변한것이 없었다. 오히려 더 가혹해 졌다 해야겠다.) 특별사의 절벽 같은 벽안에 갇혀 있지만 《똑똑》하며 벽을 치는 소리가 들려 올 때면 우리를 가로 막은 벽은 무용지물이 된다. 신호를 받은이는 다시 두번 똑똑 쳐 듣고있음을 알린 뒤 귀를 쫑긋 세우고 옆방동지로부터 새 소식을 듣는것이다. 이때 《쿵》소리는 위험신호다. 소리의 주인공은 간수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동지다. 위험신호가 울리면 재빨리 시치미를 떼고 앉았다가 시찰구(감방안을 들여다 보기 위해 눈높이에 뚫은 작은 구멍)에서 감시의 눈길이 지나간후 안전신호가 오면 통방(감방에서 옆방에 있는 수인들이 간수의 눈을 피해 서로 얘기를 주고 받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것이다.

그렇게 고심하여 얻은 정보들은 하나같이 살벌한 것뿐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파쑈《정권》은 《반공》과 민족의 영구분렬을 위한 《정권》이라는것이였다. 광복직후 려, 순사건때부터 특무로 은밀히 《반공》에 멸사봉공하던 독재자가 이때부터는 공개

적인 《반공》에 나섰다고 할수 있었다. 그런만큼 교도소의 특별사에 훈풍이 불어 들리라고는 전혀 기대도 할수 없었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속에서도 당시 잡혀 들어 온 학생들이 매우 용감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교도소당국은 5.16이후 잡혀 온 수천명의 학생, 지식인들을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있는 대전교도소 특별사에는 절대 접근시키지 않았다. 《악질》들곁에 가면 붉은 물이 든다고 해서 그랬을가. 하지만 한 교도소안에 있다 보면 잠간이라도 마주치는 기회가 없을수 없다. 한번은 내가 무슨 문제인가때문에 교무과에 불려 나갔는데 옆방에서 학생인듯 한 젊은이가 고함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왔다.

《나는 이 나라를 부정하는게 아니고 너희들 군사〈정권〉을 반대하는것이다!》

군인들이 총을 메고 서 있고 륙군소장이 아침저녁으로 교도소를 순시하는 정황에서 그처럼 당당하게 제 의견을 웨치고 있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바로 저들이 4.19봉기를 일으키고 리승만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애국자들이 아닌가. 파쑈《정권》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피 흘려 마련한 터전우에서 돋아 난 독버섯이였다. 력사가 공정하자면 애국이 매국을 단죄하고 정의가 부정의를 판결해야 한다.

나는 젊은이들이 군사불한당들한테 고문을 받고 모욕적인 취조를 받는다는것이 자신이 당하는 일보다 더 가슴 아프게 여겨 졌다. 그러나 한편 저런 후배들이 자라고 있는한 이 나라의 앞날은 걱정할것이 없으며 이 암흑의 남쪽땅에도 광명한 날이 기어

이 찾아 오리라는 뿌듯한 긍지감이 가슴에 차고 넘쳤다.

《빨갱이안해는 어째 하나같이 렬녀냐?》

대전교도소 특별사에 비전향좌익수들을 몰아 넣은 군사《정권》은 온갖 광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교도소담장만으로 안심이 안되였던지 특별사를 둘러 싸는 담을 다시 쌓고 귀통이마다에 보루대를 세워 그우에 전투용기관포를 걸어 놓은것이 실로 《장관》이였다.

물론 포문은 우리들을 향하게 했다. 그밑에 우리들이 갇혀 있는 세개의 특별사동이 있는데 각각 4, 5, 6사다.

한 사동에는 30개정도의 감방이 복도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게 보통인데 4사의 경우 감방이 무려 76개나 되여 전국에서 제일 긴 사동이라고 했다. 또한 6사는 일제때 안창호선생이 갇혀 있었다고 하여 그 부인이 감방을 둘러 보러 온적도 있었다.

이처럼 특별사 세 사동은 일제가 애국자들을 가두기 위해 지은것이니 사실이 오죽하겠는가!

왜정때 《몽둥이감옥》으로 불리우던 대전감옥이 《유신》독재통치하에서 다시 은을 내기 시작한셈이다.

겨울이면 감방벽에 성에가 두껍게 얼어 붙어 겨울내내 우리들은 쓰레받기로 그것을 긁어 내 변기통에 담아 내다 버리느라 바빴다. 가뜩이나 추운 《씨

비리사동》(특별사의 별칭)에서 방안의 성에는 우리들의 체온을 빼앗기때문이였다.

감방이 모자라 4사와 6사사이 조금 남은 빈터에 7사를 새로 지었는데 이를 시찰하러 온 《법무부》 고급관리들과 그들을 안내하던 소장은 저희들끼리 《호텔 지었네.》 운운하며 떠들었다.

그러나 완공후 동지들이 지낸 첫 겨울에 7사에서는 동사자가 나오고 말았다.

대전특별사의 《호텔》은 바로 그런것이였다.

군사《정권》에 의해 반공체제가 굳어 가면서 간수들은 서로서로 누가 더 좌익수를 학대하는가 경쟁을 벌렸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출세방법인 모양이였다.

성에가 켜켜이 얼어 붙은 감방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서 내의를 빼앗는가 하면 이불까지 빼앗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선 다음날 아침이면 저희들끼리 《000호, 어제 밤에 안 얼어 죽었나.》 어쩌구 하며 자랑스럽게 떠들군 하였다.

이때문에 특별사의 아침은 우선 《사체방, 패통쳐라》하는 고함과 함께 시작되였다. 밤새 얼어 죽은 사람이 있는 방은 시체 치우게 신고하라는 말이다.

그러나 패통(재소자가 용무가 있을 때 담당교도관을 부르기 위해 마련한 장치)을 치는 방은 하나도 없다.

밤새 모두 안녕해서가 아니다. 죽은 사람 몫의 아침밥까지 받아 먹어야겠기에 신고는 잠시 보류되는 것이다.

밥덩어리는 50년대 감옥의 네순가락짜리보다 결코 크지 않았다.

감옥에서는 공장에 나가야 좀 큰 밥덩이를 받는데 우리들은 공장에 내보내지 않으니 여전히 배를 곯을수밖에 없었다.

뒤에 안 일이지만 출역하지 않더라도 행형법상의 규정대로 밥덩이를 찍으면(교도소에서는 주걱으로 푸는 대신 밥공기같이 생긴 틀에 찍은 밥덩이를 준다.) 밥덩이가 제법 크다.

그러나 전향공작을 하느라 혹은 간수들이 잘라 먹느라 우리들의 밥덩이는 정량을 채울 때가 드물었다. 이때문에 밥덩이크기는 소내투쟁의 주요대상이였다. 게다가 국은 고무신에다 받아 먹어야 했다. 식기라고 준 깡통은 벌겋게 녹이 쓸어 국을 받으면 녹부터 떠먹어야 했기때문이였다.

우리들처럼 볕도 안드는 랭방에 꼼작 못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운동이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수 있다.

당시 담장너머 일반사에서는 일반재소자들을 운동장에 모아 놓고 운동대신 제식훈련을 시키는 고함소리가 하루종일 요란하게 들려 오던 시절이였다.

마치 80년대의 삼청교육마냥 5.16군사《정권》은 교도소를 그들 특유의 군인정신으로 채워 가고 있던 중이였다. 이런 마당에 《빨갱이》들의 건강문제가 안중에나 있었겠는가.

추위와 굶주림, 운동부족 등은 대전특별사 780여명 동지들의 육신을 나날이 갉아 먹고 있었다.

그러나 독재《정권》이 동원한 가장 비인도적인 탄압수법은 뭐니뭐니해도 60년 비전향자들을 대전교도소에 집결시킨후부터 일체의 가족면회를 금지시켜 버린 일이라 하겠다.

그무렵 대전교도소 소장은 윤병희라는 작자였는데 일제때 부장간수를 지내면서 온갖 악덕을 쌓아 소장이 되였다.

교도소측은 그의 지시에 따라 팔십로모가 두메산골에서 천리길을 찾아 와도 면회를 시켜 주지 않았다. 오히려 《전향하면 금방 나갈텐데 제 고집만 부리고 전향을 안해 부모, 처, 자식 고생시키는 패륜아》라는 식으로 가족들을 부추겨 동지들과 가족들을 리간질하려 했다.

또한 동지들을 애 태우게 하려는 속심이였던지 면회시켜 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가족들의 말을 기록했다가 가족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본인에게 던져주거나 심지어 울부짖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록음하여 특별사 마이크에 대고 방송하기까지 하였다.

나야 어차피 찾아 올 가족이라군 없는 몸이니 심정 상할 일도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특별사방송에서 한 젊은 동지의 안해가 《태수씨이－》하고 남편을 부르며 울부짖던 목소리는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내 심정이 이럴 정도니 당사자의 괴로움은 어떠하였으랴. 놈들은 인간의 가장 고상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롱락질을 했다.

애국자들의 인간애의 정신을 전향목적실행의 가장 중요한 《약점》으로 여기고 이런짓을 저지르는 자들의 비렬성을 두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이처럼 부모자식간, 내외간까지 리간질하여 전향공작에 리용하려던 윤병희도 별 성과를 못 거두었던지 나중에는 《빨갱이안해는 어째 하나같이 렬녀냐?》고 탄식하더라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놈들이 밖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치범들의 부모나 처자들을 괴롭히고 있겠는가를 짐작하였다.

4사에 있던 한 동지가 급성맹장염에 걸려 외부병원으로 실려 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후 희미하게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고향의 로모가 와계시더라는것이였다.

그 동지는 속으로 《이 지독한 사람들도 병원에 입원할 지경이 되니 가족을 불러 주는구나.》하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했다.

교도소측은 가족들에게 맹장수술비를 받아 내기 위해 로모를 특별면회시켰던것이다.

그 동지는 수술 받아 핼쑥한 아들걱정, 없는 형편에 수술비 물 걱정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로모를 뒤에 두고 다시 특별사로 돌아 와야 했다.

군사《정권》은 비전향좌익수관리를 위해 색 다른 제도를 또 하나 만들었다.

그것이 《특재교도관(62년부터는 간수라는 명칭을 교도관으로 바꾸었다.)제도》라는것이다.

그무렵 간수들은 대부분 일제때부터 간수노릇하던 자들이거나 일제경찰이나 관동군출신으로서 광복후 전직(?)을 한 자들이였다.

간수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그리 인상이 좋지 않은데다 처우도 형편 없어 일제파쑈체제의 말단에서

길들여 진 저학력자들이 주로 형무소에 몸 담고 있었다.

감방바닥에 물을 찍어 미적분문제를 풀다

군사《정권》은 비전향좌익수들을 대전특별사에 몰아 넣고 온갖 육체적, 정신적고통을 주는 동시에 질 높은 간수들을 배치해 한편으로는 우리들을 회유해 보려는 계획을 세웠던것 같다.

그래서 특별사에 배치할 간수들을 특재했는데 취직난이 심각하던 60년대 남조선사회에서 제법 고급인력들이 이 특재에 몰려 들었다.

덕분에 대졸출신 간수, 륙군중령출신 간수까지 생겨 나게 되였다. 물론 《반공》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은것은 두말할나위도 없다.

우리들로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제간수출신들보다는 특재간수들이 상대하기가 나았다고 할수 있다.

그들과는 차라리 입씨름이라도 할수 있었기때문이다. 입씨름을 하다보니 미운 정, 고운 정이 든 몇몇 특재간수들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잠간씩이나마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그들 대부분은 대전특별사의 살벌한 환경에 경악하고 이런 곳에서 자신들이 대체 무엇을 할수 있을가에 대해 깊이 회의하였던것 같다.

《교도관이라 해서 대단한건줄 알고 들어 왔는데 와서 보니 딴게 아니라 바로 간수네.》라고 푸념하는 소리를 나는 여러번 들었다.

게다가 겨울에는 랭장고요, 여름에는 찜통인 특별사였지만 그속에서 생활하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고 특재간수들이 많이 놀랐던것 같다.

일반수들이 들어 있는 사동에 가보면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에다 간수들이 욕하는 소리까지 뒤엉켜 시장판도 그런 시장판이 없다.

그러니 특별사에 처음 발을 들여 놓는 순간 특재간수들은 당황할수밖에 없었을것이다. 780여명 비전향수들이 들어 있는 사동이 마치 아무도 없는듯 물속같이 조용하기때문이다.

대체 무얼하고 있나 해서 시찰구로 각방을 들여다 보면 《빨갱이》들이 저마다 책을 들고 앉아 누가 들여다 보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독서에 열중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뒤날 어느 특재간수로부터 들은적이 있다.

대전특별사에서 우리 동지들은 비록 갇혀 있는 몸이지만 수형생활을 보람 있게 보내자고 결의하여 저마다 독서계획표를 세워 가지고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다. 사회과학서적은 무조건 차입이 제한되였기때문에 우리들은 그외의 분야에서 전공(?)을 택해야 했다.

독서의 분야는 각자의 관심에 따라 대단히 다양했다.

한학이나 력사, 어학을 하는이는 물론 의학서적을 파고 드는이도 있었고 수학책을 펴놓고 수학문제를 푸는 동지도 있었다. 수학은 과학적사고의 기본인데다 근대경제학을 공부하려 해도 미적분을 모르면 공부할수가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러면 필기도구도 없는 감방에서 어떻게 수학문제를 풀었던것일가. 그 동지는 옷에서 실오래기를 하나 뽑아 저가락끌에 매고는 그것을 붓 삼아 물을 찍어 마루바닥에 수식을 전개해 나간것이다.

물이 마르기까지 잠간동안은 써놓은 수자를 식별하는게 가능하다.

한석봉의 시대도 아닌데 물을 찍어 마루바닥에다 미적분문제를 풀고 있는 이 동지를 보고 그만 한 학사간수는 완전히 질려 버렸던 모양이다.

한번은 그가 이런 말을 했다.

《나도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한 사람이지만 당신들처럼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집요하게 추구해 가는 사람들을 내가 무슨 수로 교도할수 있겠소.》

《내가 뭣하러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혼자소리처럼 내밷군 하던 그 간수는 얼마후 모습을 볼수 없었다.

전향시킬 과업을 받고 특재된 그가 이 정도 되였은즉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수도 있고 혹은 그자신이 《못할 일》이라 생각한 뒤 스스로 뛰쳐 나갔을수도 있다.

그만이 아니였다.

특재간수들중 들어 와서 1년을 넘기는 사람은 몇명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중 특별사 고방대(감시대)에서 한 특재간수가 비관자살을 한 사건이 일어 났다.

아마도 그 젊은이는 구직난때문에 있고 싶지 않은 자리에 억지로 있으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매

일 해야 하는 현실을 비관한것이 아닐가 짐작도 해봤지만 어찌 한 인생의 죽음의 결단이 그것뿐이랴. 교도소측이 워낙 쉬쉬하며 자세한 내막을 숨기려는 걸 봐서 심각한 사연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흰것을 검다 하고 검은것을 희다 하는 식의 《반공》교육과 선전을 근 반세기동안 일 삼아 온 당국의 처사로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 온 한 젊은이가 믿었던 그 모든것이 허위이며 위선이라는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용단을 내릴수 있지 않겠는가.

자책과 더불어 남조선당국과 현실에 대한 항거심이 그 비관자살의 리면에 깔려 있었을것이다.

나는 그 젊은이의 죽음을 놓고 남조선당국자들이 그처럼 악랄하게 벌리고 있는 허위적인 교육과 선전이 감옥이나 총칼 못지 않은 살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3.9함성투쟁》

우리들을 대전특별사에 몰아 넣고 전향을 강요하며 집요하게 육체적, 정신적고통을 가해 오는 당국에 대해 우리들의 분노는 쌓여만 갔다.

이것이 우연한 계기에 일시에 폭발해 64년 대전특별사에서 큰 싸움이 일어 났다.

그것이 바로 64년 《3.9함성투쟁》이다.

대전특별사에는 《먹방》이라 불리우는 징벌방이 있었다. 이런저런 구실로 우리들을 징벌할 때 사용되는 곳인데 원래도 작았던 감방 3개를 터쳐 앞쪽으로는 복도를 내고 뒤쪽으로 칸막이를 질러 5개의 감

방을 만들어 놓았으니 먹방의 비좁음이란 말로 할수가 없었다.

다리를 뻗칠수조차 없는 관을 상상하면 되겠는데 벽에 손바닥만 한 창이 하나 있으니 쇠살창과 널판자로 둘러 막아 해빛은 한줄기도 볼수 없기에 먹방이라 불렀던것이다.

사람이 다리를 뻗지 못하는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나는 그곳에서 처음 알았다. 먹방에 갇혀 다리도 못 뻗고 며칠, 몇달을 웅크리고 있노라면 곤욕도 그런 곤욕이 없다. 그무렵 곽병일이라는 동지가 간수의 눈에 거슬려 불려 나갔다가 저녁에 먹방에 들어 간 모양이였다. 취조과정에 심한 구타를 당해 정신을 잃은 사람을 먹방에 떠메다 넣었던지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아 우리는 곽동지가 먹방에 들어갔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3월 9일 아침 소지(사동 복도청소를 맡아 하는 잡범)의 비명소리가 사동의 싸늘한 아침공기를 갈랐다.

《사람이 죽었다!》

기상후 소지는 먹방앞복도를 청소하러 들어 갔다가 먹방을 살짝 들여다 본 모양이였다. 그러다 뜻밖에 곽동지가 죽어 있는것을 본 이 소지가 기겁을 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것이다. 만약 소지가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면 곽동지의 죽음은 교묘하게 은폐되였을게 틀림 없다. 전날 멀쩡히 걸어서 감방을 나간 사람이 그렇게 되고보니 취조 당하다 맞아 죽은걸로 판단할수밖에 없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모든 동지들이 한마음한뜻이였던것일가?

전 사동에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점검부장이 수행원 몇을 데리고 아침점검을 시작했다.

점검은 한 간수가 앞질러 감방문을 따놓으면 점검부장이 방안을 살펴 보면서 지나가고 그뒤를 따르는 다른 간수가 감방문을 잠그면서 진행한다. 이때 수인들은 감방문앞에 렬을 지어 똑바로 앉아 있어야 한다.

점검부장이 감방이 76개나 되는 4사의 길고긴 사동입구에서부터 몇개의 감방을 지나갔을 때 누군가가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다.

《사인을 밝혀라!》

다음순간 이 소리가 신호라도 되는듯이 76개의 감방에 들어 있는 모든 동지들이 일제히 일어 나 합성을 내질렀다.

《사인을 밝혀라!》

《조국통일 만세!》

함성의 물결은 곧 특별사의 다른 사동으로 퍼져나갔다.

깜짝 놀란 점검부장은 점검을 하다 말고 간수들과 함께 도망가버리고 급기야 소장이 쫓아 나와 경비대를 지휘하여 우리를 향해 공포를 쏘기 시작했다. 함성과 총소리가 뒤섞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정황이 얼마나 계속되였을가.

총소리에 놀란 린근군부대에서 폭동이 난줄 알고 교도소로 달려 와 《문 열라.》고 한바탕 란리가 났다고 한다.

교활한 소장은 이 소동이 외부에 알려 지면 책임추궁을 당할가 우려하여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였다.

《교도소폭동진압훈련중이다.》라고 둘러대 군부대를 돌려 보냈다고 들었다.

이 투쟁이후 교도소측은 우리들전원에게 수갑을 채우고 차례로 끌어 내 구타하면서 합성투쟁의 모의과정을 밝히라는둥 련락체계를 대라는둥 야단이였다.

바로 그들자신이 지난 몇년간 우리들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은 피 맺힌 과정에서 우리들의 가슴에 쌓이고 쌓인 분노가 축적되여 일시에 합성투쟁으로 분출되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진정 리해하지 못한것같았다. 사전모의없이 어떻게 한날한시에 같은 행동을 일제히 할수 있느냐는것이였다.

그들은 우리모두가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한길을 가는 동지들이라는것을 알수 없었다.

60년대는 팽팽한 긴장이 시종 계속되였던 시대로 기억된다. 65년에는 미군정찰기 《아르비 47》이 북쪽령공을 침임했다가 격추되였고 67년에는 괴뢰군의 경호함이 북쪽해역에 침입했다가 인민군의 해안포일격에 침몰되는것으로 떠들썩했으며 68년 1월에는 무장유격대가 《청와대》를 기습공격하는 사건이 일어 났다.

아울러 그 이틀후인 1월 23일에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북쪽령해에 들어 섰다가 인민군 해군함정에 나포되였으며 69년 4월에는 대형정찰기 《이씨－121》이 북쪽령공에서 인민군 공군기에 의하여 격추되였다.

그때마다 간수들은 당장 미국이 북조선을 《보복》한다고 경사라도 난듯 떠들어댔다. 그런 속에서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조국의 단호한 목소리를 알게 되였을 때의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물론 이러한 정세의 여파는 우리들에게도 미쳐 왔다. 대전특별사에 집결시켜 놓은 비전향좌익수들을 광주, 전주, 대구, 목포 등 전국의 주요교도소로 분산시키는 조치가 단행된것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을 한곳에 집결시켜 둘 경우 청와대를 기습한것과 같은 무장유격대의 구출작전의 목표로 될수 있기때문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1년후에 목포교도소에 가 있던 동지들이 다시 내륙의 교도소로 이감되였다. 좌익수들을 해안선부근에 두었다가는 해도로 무장구출대가 침투할지 모르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신심은 더욱 굳어 져 갔다.

우리에게는 **김일성**장군님이 계시여 미국도 어쩌지 못하는 조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는 긍지를 가졌다…

하여간 우리들은 파쑈《정권》으로부터 내내 《제1의 적》대우를 받았던셈이다. 말단 간수에서부터 교도소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비전향동지들을 일컫는 말은 동일했다. 바로 《마땅히 죽였어야 하는데 할수없이 살려 두고 있는 놈들》이란것이다.

52∼54년무렵처럼 구뎅이를 파게 하고 무차별 학살해 버려야 마땅한데 세계여론이 있고 《법치국가》의 체면이 있어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는

뜻이리라. 그들에게 있어 우리는 인간도 동족도 아니였다. 단지 《빨갱이》일뿐이였다.

나는 그들에게 그 같은 광적인 《신념》을 불어넣은 자가 과연 누구일가 생각해 본적이 있다. 그것은 의심할바없이 일본군국주의와 미제국주의였으며 그들의 괴뢰였던 리승만과 력대 통치배들, 이때는 5.16군사정변으로 차지한 최고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독재자, 바로 그자라고 생각되였다.

독재자는 성장과정에서 그가 항상 존경하며 따랐다는 형 박상희씨를 통해 또한 함께 관여했던(물론 특무로써였지만) 좌익활동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우리 동지들의 진면모를 똑똑히 볼 기회를 가졌던 인물이다.

따라서 신조를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동지들은 돈, 명예, 권력 어떤것으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것이라는 사실을 독재자자신이 가장 똑똑히 알고 있음에 틀림 없다.

결국 단 하나의 방법은 사회와의 철저한 격리뿐이다. 그래서 교도사담장안에 다시 담장을 둘러친 특별사안에 우리 동지들을 몰아 넣고 네 숟가락의 밥과 끝 없는 구타로 하루하루 우리들의 생명을 단축시켜 가고 있었던것이다.

68년도의 분산조치때 나는 광주교도소로 가게 되였다. 그때 내 나이 50이였다.

공자가 불혹이라고 하였던 40대를 묻은 대전특별사를 나서자니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였다.

불혹의 10년을 대전특별사에 묻다

조국통일에 몸 바치겠다고 지리산눈발을 달렸던 서른살시절 그리고 체포되여 굶주림과 폭력, 외로움에 시달리면서도 7년후면 자유의 몸이 될수 있으리라는 희망 하나로, 그러면 뭔가 다시 시작할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독방의 하루하루를 채워 가던 시절, 드디여 옥문을 나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숨 죽이며 살피던 때의 설레임, 그러나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 아니 분명히 파쑈《정권》의 의도된 탄압으로 다시 그들의 포로가 되여 대전형무소에 갇혔을 때의 절망감, 이제 조국통일을 위해 벽돌 한장 쌓아 올릴 기회도 없이 손발 묶인채 평생을 갇혀 있게 되였을 때의 그 깊고 깊은 절망을 어찌 다 표현할수 있으랴.

캄캄한 먹방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다리도 못 펴고 몇날며칠을 웅크리고 있노라면 나도 사람인데 그만 전향서에 손도장 하나 찍어 주고 말가 하는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는가. 그 손도장 하나로 우선 밥덩이의 크기가 달라 지고 해볕이 드는 넓은 감방으로 옮겨 갈수 있으며 감옥문을 나서는 날도 앞당길수 있을텐데.

그런데 당장의 육체적고통에서 벗어 나고 싶은 본능만큼이나 절실했던것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 가는데 따른 초조감이였다. 풍산에서, 흥남에서 **김일성**장군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들고 신바람나게 뛰여 다니던 시절이 못 견디게 그리웠다. 그토록 기다리던 광복인데 조국은 이렇게 두동강나고 다시 들어 온 외세를 몰아 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일

에 하루품도 보태지 못하고 여기 앉아 늙어 가고 있구나 생각하니 미칠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를 둘러 싸고 있는 감방의 두꺼운 벽들은 한치도 물러설줄을 몰랐다. 아마 당국자들은 정치범들의 심상에까지 족쇄를 채울수 있는 《발명품》이 없어 안달아했을것이다. 정치범들을 벽에 마주 앉히고 꼼짝 못하게 단속을 했지만 마주한 회색 담벽이나 철창사이로 스며 드는 엷은 불빛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앞에 무엇이 어리는지는 막을 길이 없다. 세상의 어떤 영화도 고문과 기아와 추위로 떨고 있는 수인들의 눈앞에 비추어 진 추억과 희망과 상상의 화폭들만큼은 풍부하지 못할것이다. 나 역시 감옥속에서 자주 과거에 대한 회상에 잠기군 하였다. 풍산, 흥남에서 활동하던 시절 잘못하였던 일, 미흡했던 점들이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왜 그 동지를 그만한 일로 그토록 호되게 몰아 세웠을가. 한번만이라도 다시 볼수 있다면 용서를 빌것인데…

끝 없는 반성들이 꼬리를 물었다. 오로지 떠오르는것은 죽기전에 단 한번만이라도 혼신의 힘을 바쳐 다시한번 일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 졌으면 하는 바람뿐이였다. 하지만 눈에 들어 오는것은 굳게 닫긴 옥문뿐, 어느 날 저녁에는 마침내 눈물을 떨구고야 말았다.

육체적고통에서 벗어 나고 싶은 본능적요구, 감옥문을 나가 남은 여생이나마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 이 강렬한 열망들을 안고서도 어찌하여 전향하지 않고 한창 일할 나이 40대를 대전특별사에 묻었는가, 누군가는 그런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다.

이 물음에 대답하려면 나의 생각은 아득한 어린시절에 대한 추억으로 거슬러 올라 가게 된다.

파발리에 울린 첫 총성을 듣고 가슴을 울렁거리며 달려가던 일, 《오빠시》를 쓴 두개의 탄피앞에서 작은 주먹을 부르쥐고 《적색독서회》를 뭇던 일로부터 시작해서 장군님품을 찾아 룡정이며 동북땅을 헤매이던 청년시절,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가슴에 품고 서울과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까지 넘나들며 조국광복의 날을 애 타게 갈구하던 자신의 인생길을 더듬어 본다.

우리모두의 인생에 참뜻을 안겨 주고 그처럼 억압과 천대속에 지지리 고통 받으며 가난에 쪼들리기만 하던 우리 인생에게 광복의 날,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남녀평등권의 날들을 마련해 주신분, 그이의 품속에서 처음으로 어엿한 나라의 주인이 되여 새 조국건설을 위해 뛰여 다니던 보람찬 나날들을 더듬어 보게 된다. 바로 그것이였다. 우리에게 주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안겨 준 장군님의 사랑과 은덕을 저버릴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장군님의 품속에 우리모두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 있기에 지리산의 높고 낮은 산발들과 골짜기들에 우리 동지들이 피 흘리며 쓰러지면서도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지 않았던가! 죽어도 변심할수 없고 살아서 배반할수 없는 그 품, 인간의 모든 존엄과 행복과 긍지의 모체인 우리의 장군님께 언제나 참된 전사로 남아 있으리라는 그 자각과 신념이 나를 지켜 주고 있었다.

나 하나뿐이 아니라 우리 동지들모두가 그러했다. 그 하나의 지향과 신념이 감옥의 동지들을 뜨거운 동지애의 뉴대로 이어 주었다.

대전특별사에 780여명 비전향동지들이 집결되여 있을 때 형무소측은 우리들을 독거시키려 해도 시킬 방이 없었다. 물론 징벌방인 먹방이나 나중에 지은 7사는 독거방이였지만 대체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4명이 한방에 같이 있게 되였다. 그런데 특별사에서는 《전방》이라 하여 수인들이 들어있는 감방을 수시로 서로 바꾸었다. 주변의 지형지물에 익숙해 지거나 옆방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을것이다. 다른것과 달리 대전특별사에서는 전방을 할 때 한방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다른 방으로 옮겨 놓군 하였다. 이때문에 대전특별사에서는 여러 동지들과 안면을 넓히고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간수들이 우리들을 아무리 서로 떼여 놓으려고 해도 운동이다 무엇이다 해서 들고나다보면 우연히 먼발치에서나마 동지들과 스쳐 지나가게 되는 기회는 생기기마련이다. 이때 《보지 말라!》하고 고함치는 간수의 호령속에서 잠간 서로 나누는 미소어린 눈인사의 정겨움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을 주는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할것이다.

마치 여름날 눈 부시게 우거지는 록음과 같은것이 남녀간의 사랑이라면 땅밑에서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서로 얼크러져 있는 나무 뿌리들이야말로 동지애의 표상이라 할수 있지 않을가 싶다. 목숨까지 바칠듯 열렬하던 이성을 향한 애정이 세월이 가면서 싸늘하게 식어 버린 경우가 드물지 않은 반면 동지애란 세월이 얼마나 흘렀든지, 그와 함께 있든 오래동안 보지 못하든, 심지어 그가 이 세상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영원히 지속되는것이기때문이다. 지리산에 뼈를 묻은 그 많은 동지들을 어찌 내가 죽는 날까지 잊을수가 있을것인가.

너무도 조용해 숨이 막힐것만 같은 대전특별사의 저녁 절벽 같은 벽에 막혀 외로움이 엄습할 때면 사각사각 벽을 긁고는 이어서 《똑 똑》 두드리는 호출신호가 나를 찾아 든다. 어느 동지가 교무과에 나갔다가 신문 한쪼각을 곁눈으로 훔쳐 보고 왔을수도 있고 아니면 간수들끼리 떠드는 소리를 재빨리 귀에 담았을수도 있다.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든 한쪼각의 새 소식이라도 얻으면 그것을 모든 동지들과 함께 나누고 힘을 얻기 위해 오늘도 옆방 동지는 간수의 눈을 피해 호출신호를 보내오고 있는것이다. 듣고 나면 나 역시 같은 방법으로 옆방동지에게 전한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서로를 가로 막는 벽을 뛰여 넘어 하나가 된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나포소식과 고공정찰기 《이씨-121》격추소식도 이런 통방을 걸쳐서 들었다. 놈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연설내용도 그렇게 들었다. 당국의 당황함이 그대로 감옥에 미쳐 와 폭력행위는 곱절로 많아 졌으나 우리는 매를 곱절로 맞아도 통쾌하기만 했다.

미국이 드디여 사죄문에 수표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 왔을 때 우리한테는 강철의 령장이신 장군님이 계시고 부강한 조국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이럴 때면 자신들이 고독하고 외롭다는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다. 놈들이 오히려 우리앞에 떨고 있으며 운명의 막바지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생각이였다.

이처럼 통방을 통해 들려 오는 조국의 소식은 우리들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는 활력과 용기를 북 돋아 주는 생명력과 같은것이였다. 적후에

서 그것도 감옥에 갇히여 조국의 소식에서 받은 그 감격과 흥분이 어떤것인가를 이런 체험을 당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짐작키 어려울것이다.

대전특별사는 우리들에게 삶의 현장이자 《투쟁의 마당》이였다.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아래서도 처음 세운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것, 《반공》사상으로 산하를 덮으려는 60년대의 어둠속에서 신념의 홰불을 더 높이 쳐드는것을 우리는 옥중투쟁의 목표로 삼았다.

안해에게 주고픈 마지막선물

대전특별사에 전향공작의 특기를 지녔다는 온갖 떨거지들이 찾아 오군 하는데 그들의 입에 한결같이 오르는 말이 《너희 빨갱이들은 안해도 모르고 자식들 정도 모르는 인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냐.》였다. 전향서에 손도장만 한번 누르면 사랑하는 안해도 부모님과 자식들도 만날수 있는데 그럴줄 모른다는것이다.

인간의 참된 리면을 인간성과 따로 떼놓고 보는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론리》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겠는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앞에 우리 동지들은 대체로 묵묵부답이였다. 자기 가슴속에 품고 있는 가장 깨끗하고 신성한 모습,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같지 않은 론의를 한다는 자체가 모욕으로 느껴 졌기때문이다.

나로 말하면 내 삶을 지탱해 준 하나의 지주, 그것은 북에 두고 온 안해였다.

안해의 편에서 본다면 나는 너무나 무심한 남편이였다. 신혼시절에도 일이 바쁘다며 집을 비우기 일

쑤였고 그러다보니 아이이름조차 내 손으로 지어 주지 못했다. 결혼 2년만에 스물세살의 안해를 두고 전선으로 떠나가 전쟁이 끝난 그날에도 돌아 오지 않은 남편, 안해는 남쪽에서 부대가 후퇴해 올 때마다, 정전후 포로송환이 마쳐 질 때까지 군복 입은 낯선이들사이에서 그 얼마나 나를 찾아 헤매였을것인가. 끝내 남편을 찾지 못한 안해가 깊은 밤에 홀로 흘렸을 눈물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한달음에 고향에 가고 싶었다.

52년 포로가 된후 계속된 7년 징역살이, 그사이에 군사분계선이 굳게 막히고 고향길은 더욱 아득해 졌는데 15년 징역살이를 다시 시작한후 나는 대전특별사의 깊고 깊은 감방에서 안해와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안해의 모습은 50년 7월 떠나올 때 문설주에 기대 울던 얼굴이였다.

나는 조용한 저녁감방에 혼자 앉아 집 떠날 때 안해에게 했던 부탁을 재삼재사 되풀이했다. 나는 이제 돌아 오지 않는 사람이니 어머니처럼 혼자 늙지 말고 훌륭한 동지 만나 행복하게 살아 달라고. 48년 결혼한후 흥남에서 신혼살림할적에 문화학원에서 음악과 무용을 가르치던 안해는 피아노를 몹시 가지고 싶어했다. 그러나 시당 선전부장이던 내 월급으로는 피아노를 사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이다음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사주마고 약속했으나 나는 끝내 피아노를 사주지 못한채 안해곁을 떠나왔다.

안해가 슬픔을 딛고 가정을 이루어 알뜰살뜰하게 저축해 사들인 피아노앞에 앉아 제자들에게 가르칠

노래를 만들어 불러 보며 활력 있게 교육사업을 해나가기를 바라던 내 마음에는 추호의 가식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열여덟에 청상이 되여 홀로 늙어 온 어머니의 한숨과 눈물을 곁에서 지켜 본 내가 아닌가.

안해에게 잘 살아 달라고 수없이 당부하면서 나 역시 스스로에게 다짐한것이 있다. 결혼해서 아무것도 해준것이 없는 남편으로서 마지막으로 안해에게 기념품을 하나 주어야겠다는 다짐이였다.

48년 고향 풍산에서 결혼식을 한후 나는 안해에게 맹세했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을 생각하면 나는 결코 조국앞에 욕되게 살수 없을거라고.

담안에 또 담으로 둘러싸인 곳에 갇혀 있는 나의 소식을 안해가 알리 없으니 안해에게 있어 나는 이미 조국통일투쟁에 한목숨을 바친 남편일것이였다. 수없이 죽어 가는 동지들속에서 용케 죽지 않고 살아 감옥에 들어 있지만 나는 죽는 날까지 조국앞에 욕되지 않게 살아 낸 내 삶을 안해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안해가 나의 소식을 끝내 알수 없다 할지라도 안해는 틀림없이 그렇게 믿고 있을것이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안해의 믿음을 지켜 주고 싶었다. 오로지 내가 그에게 해줄것은 그것뿐이라고 믿었었다. 한데 나는 지금 43년간 지켜 온 그 믿음의 값을 너무도 값 높게 받아 안았다. 안해 역시 43년간을 변치 않고 나를 기다려 준것이다. 그저 우리들의 정이 나를 취조하던 자들이 말하던 그런 세속적인 정이였다면 안해 역시 43년간을 끝내 기다려 주었겠는가. 우리의 참다운 리념속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리념이 우리모두의 정신적인 기둥

이였기에 43년간의 광풍속에서도 변치 않고 오늘을 맞을수 있은것이다.

죽어 상여로 떠나야 할 곳 청주보안감호소

영산강은 흐르는데

머리뿌리가 하얗게 되여 가는 나이 오십에 1952년 포로가 되여 갇혔던 광주교도소로 돌아 왔다. 남쪽땅의 감옥들을 순방하다 싶이하여 하도 감옥살이를 오래 하다나니 제자리로 돌아 온셈인가. 《앞줄 사형, 뒤줄 무기》식의 군법무관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오락가락하던 그 시절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분계선이 무너질 날, 고향으로 송환될 날을 기다리던 그 시절이 실로 언제이기에 벌써 내 나이 쉰이 되였는가.

나이 오십이면 살아 갈 날들이 살아 온 날보다 적게 남은 시절이다. 무엇을 새로 시작하기보다 그간 해온 일들을 마무리해 가야 할 때라고나 할가. 52년 그무렵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여전히 민족의 과제로 남아 있었고 현재 나의 바람 또한 그 시절과 변함이 없다.

조국통일, 그렇다. 민족지상의 과업이자 나의 필생의 념원이다. 감옥밖에서나 감옥안에서나 내 한 몸 바쳐 이룩하고저 하는 념원, 삼천리강토에 완전해방의 날을 이끌어 오는 그날이 없이는 자신의 해방도 있을수 없다는 생각, 오로지 걸어 온 이 한길을 굳세게, 끝까지 걸어 갈 결심을 다시한번 가슴깊이 되새기며 50년대 들어 섰던 감옥을 70년대에 새삼스러운 눈으로 둘러 보았다.

광주교도소는 옛 모습 그대로인데 좀 달라 졌다면 특별사동을 새로 지어 그 규모가 퍽 커진데다 그 경계가 그때에 비할바없이 째워 지고 강화된 점이였다. 나와 동지들은 담장안에 또 담장을 둘러친 특별사동에 갇혔다. 모두가 독방이였는데 감방이 꼭 관크기만 했다. 너비가 내 손으로 다섯뼘반, 길이가 열세뼘이였던것으로 기억된다. 또한 변소쪽 들창을 널판자로 막아 버려 캄캄한 좁은 독방에 꼼짝못하고 앉아 있자니 참말로 죽을 지경이였다. 관속에서도 세월이 흘러 73년경이였을가. 어느 날 운동하러 나가서 흘끗 보니 20대초반밖에 안되였을 웬 젊은이가 하나 들어 와 있었다. 나중에 들으니 7년형을 받은 재일교포학생인데 이름은 서준식이라 하였다. 70년대처럼 남조선땅에 ○○사건이요 뭐요 하는것으로 범람한적은 없을것이다. 《동베를린사건》으로 윤이상씨가 랍치되여 오고 《통일혁명당사건》으로 최영도, 김종태동지들이 체포사형 당하였다. 《정권》교체나 《선거》직전엔 반드시 그 무슨 《간첩단사건》이 생기군 하는데 그 조작수법과 위장이 비슷비슷한데 놀라지 않을수 없다. 같은 체질 《정권》의 어슷비슷한 진통의 반사인즉 달리는 될수 없는것으로 생각되면서도 그 《만능처방》에 의해 죄없이 체포되거나 처형되는 사람들의 처지로써는 그

사건의 조작자들에 대하여 이름할수 없는 증오와 반감을 가지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서승형제 역시 독재자의 지령에 의해 남산지하의 밀실에서 조작해 낸 《교포류학생간첩단사건》의 희생자들이였다. 서준식군은 내가 면회자가 전혀 없는 이북출신이란 말을 들었던지 그뒤부터 기회만 있으면 내게 다가와 도움을 주려 애 썼다.

수인들은 운동할 때 일주일에 한번씩 자기 담요를 가지고 나와 담벼락에 널어 말린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여 있다. 서준식군은 나와 함께 운동할 때 제 담요를 가지고 나와 나더러 가지고 들어 가라고 했고 담요밑에 먹을것을 감춰 가지고 나와 간수의 살벌한 눈총을 피해 가며 내게 찔러 주기도 했다. 그러고도 슬쩍 스치는 기회만 있어도 《뭘 사드릴가요?》하고 속삭이는것이였다. 먹고 싶은것을 말하면 구매물 구입할 때 사서 보내주겠다고 했다. 구매물수레를 끌고 다니는 잡범에게 심부름값을 주고 부탁하는것인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였다. 아무튼 그간 받은 도움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왔기에 차마 입이 떨어 지질 않았다. 어차피 난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데 어떻게 동지들에게 계속 도움만 받고 있단 말인가.

먹는둥만둥한 보리밥 한덩이를 삼킨후 허기진 창자를 끌어 안고 있을 때 달가닥달가닥 하는 구매물배통(배달)수레소리는 배 고픈 나를 항상 괴롭혔다. 과자니 빵이니 사탕이니가 방마다 배달되지만 돈 없는 나는 신청한것이 없고 자연히 구매물수레는 내 방앞은 항상 통과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느 날 오후 내 방 식구통이 열리더니 사탕봉지가 쑥 들어 왔다.

서준식군이 보낸것이다. 얼른 받아 든 나는 너무 배가 고파 우선 먹어 버리고 말았는데 먹고 나서 생각해 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내게 사탕 한봉지를 보내기 위해 서군은 소지에게 사탕 열봉지값을 주었을것이다. 감사도 표하기전에, 다른 배 고픈 동지가 있는지 살펴 보기도전에 먹어 버리고 말다니…

그후에도 동지들의 따뜻한 배려는 계속되였다. 역시 재일교포청년인 강종건동지, 《통일혁명당사건》으로 들어 온 권락기동지 등 서준식군과 같은 20대의 젊은 층들이 기민하게 움직여 나 같은 무연고자들을 도왔다. 운동 나가서 나에게 사탕 한봉지 건네 주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신경을 곤두 세우는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구매물은 구입할 때 평소보다 많이 사면 간수나 소지가 눈치 챌가봐 딱 1인분만 산다. 자연히 다음 구입할 때까지 자신은 먹지 못한다. 어렵사리 구한 간식거리를 이불속에 감춰 두었다가 운동 나올 때 담요에 감춰 가지고 나와 눈치껏 내게 접근해 건네 주는것이다.

때로는 간수의 눈을 피해 여러 동지들이 식구통으로 손을 쭉 빼서 빵봉지를 리레식으로 전해 주기도 한다. 가족 없고 차입도 없어 주린채 앉아 있는 한 동지를 먹이기 위해 여러명의 동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빵봉지를 전달하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지리산에서 건보리 한줌을 모아 나에게 주던 조영래동지가 생각났다. 여기 감옥에서도 남녘의 동지들과 벗들이 북녘의 동포인 나에게 기울이는 지성과 은정은 여전하였다. 한지맥으로 잇닿은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초월하여 공통된 념원과 지향점에서 맺어 지는 혁명동지의 의리심에서 오는 뜨거운 정이였

다. 그 고마움을 갚을 방법이 없었던 나는 받아 먹으면서도 민망할따름이였다.

한번은 강종건동지가 소지편에 사과를 스무개나 보내왔다. 그때의 사과맛은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다. 10년만에 처음 먹어 본 사과였던것이다.

관만 한 방에서 해빛을 보지 못하여 누렇게 뜬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기민하고 열정 많은 남녘동지들속에서 나는 때없이 행복감에 잠겨 있을 때도 있었다. 이럴 때면 한민족, 한동포의 애 타는 기원속에서도 아직 잠을 깨지 못한 남녘땅을 두고 스며 드는 애달픈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 애달픈 심정을 달래이며 특별사 독감방에 앉아 지은 노래가 하나 있다.

영산강은 흐르는데… 그렇다. 예나 지금이나 동포애의 정은 북남을 경계없이 애절하게 흐르는데 아직 광명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도 그처럼 은정 깊던 남녘동지들이 나에게 류다른 향취를 안겨 준 스무개의 사과맛을 생각하며 그 시를 여기에 다시 옮겨 보련다.

영산강의 노래

멋진 겨레 흥을 실은
륙자배기 본고장은
예쁘지라, 고운지라
사투리도 정다운데
고향 사랑하는 마음
고향노래 호남가를
지게목박 두드리며
장단 맞춰 부르는 곳
고경명, 김덕령

전봉준을 낳은 곳
애국의 땅 전라도를
장식하는 강 흐르니
그 강 하도 아름다와
그 강우에 얽힌 사연
서투른 목청이나
노래 한번 불러 보리

백제문화 찬란하게
피여 나던 옛 터전이
기름진 땅 호남뜰을
갈증들가 추겨 주며
목화 따는 아가씨들
고운 얼굴 비쳐 줄 때
보리짚 태운 재로
헌옷 삶아 건져 이고
맑은 물결 강가에 가
백옥같이 희게 빨아
헐헐 헹궈 널면서
미소 짓는 녀인들의
고운 얼굴 고운 모습
굽이굽이 새기면서
몇천년을 흘렀느냐
조국의 강 영산강아
네 가슴에 새기여 진
고운 얼굴 그려 본다

임진년에 짓밟아 온
왜적들의 총칼앞에
찢기고 피 흘리던
백성들의 설음 싣고
분노에 물결치며
출렁출렁 흘러 갈 때
무등산의 높은 기상

전라도라 애국기질
신들메를 졸라 매고
의병으로 선두설 때
백성들이 함께 나서
원쑤들을 물리치고
분노 풀던 애국기개
굽이굽이 새기면서
몇천년을 흘렀느냐
조국의 강 영산강아
네 가슴에 새기여 진
애국혼을 불러 본다

낮이면 들판에서
비지땀 흘리다가
밤이면 쉴틈없이
구장집에 불려 가서
공출 나온 가마니가
몇장이라 통보 받고
짚을 추겨 밤 새가며
짜놓은 가마니를
등짐지워 채찍질로
마구 긁어 모은 다음
백옥같이 흰쌀들을
퍼담아 싣고서는
푸른 물결 출렁출렁
영산강의 배길 타고
목포항에 세워 놓은
철선으로 옮겨 갈 때
서글픈 물결치며
한탄하던 영산강아

조국을 짓밟아 온
일제침략 발판은
높고높은 대감나리

리완용이 바로 그요
동강난 조국
분단의 기수는
고상하다 미국박사
리승만이 바로 근데
친일친미앞잡이들
반공으로 화해하여
민족혼을 말살하고
분렬을 조장하는
그 본질을 아시는가
영산강은 흐르는데

대탄압의 서곡

1972년 력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뒤늦게야 그 소식에 접한 우리들은 광복이후 처음으로 모아 진 민족의 한목소리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골자로 한 성명은 한자한자에 우리 민족의 피 타는 숙원과 체험과 교훈이 깃들어 있는 지상의 과업이며 서약이였다.

민족의 운명이 기약되여 있는 이 엄숙한 서약을 감히 어길 자가 있으랴 싶은 신심에 넘쳐 통일이 방금 눈앞에라도 이른것처럼 격앙된 흥분속에 보내던 나날… 그런 날이 그리도 빨리 대탄압의 광풍과 바뀌여 질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그것은 72년의 《10월유신》광풍이였다. 독재자는 《반공》교육을 강화하며 비전향자들을 전향시키라는 지시를 교도소들에 떨구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우리들이 7.4공동성명의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이미전부터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강제전향조직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73년 3월경 전향공작전담교회사가 공개채용되였으며 7월에는 그들이 각 교도소에 배치되여 왔다.

파쑈《정권》이 어째서 이 시기에 강제전향공작을 서둘렀던가. 72년경 전국 교도소에는 약 500여명의 비전향동지들이 있었다. 애초에 사형수였던 이들중 상당수가 4.19이후 민주당《정권》때 무기 내지 20년 형으로 감형되여 72년무렵 많은 동지들이 만기출소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독재자는 이 만기출소자들을 그대로 내보내고 싶지 않았다. 놈들은 강제전향공작을 통해 우리 동지들의 정신을 죽이든지, 그 최악의 전향강박과 고문과정에 육체를 죽이든지 생명을 꺼버릴것을 타산했던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1의 적》인 장기수들을 산 생명으로는 내보내지 않으려는 포악무도한 책략이였다.

독재자는 애당초 민족의 숙원이 깃든 7.4공동성명에 명기된 대업의 일익을 담당수행할 생각을 꿈에도 한적 없는 자였다. 독재자는 미국정탐기관의 오랜 주구인 륙종관의 사위이며 그자신이 려수, 순천사건 당시 수많은 애국자들을 밀고하여 학살케 한 매국노이며 살인자였다. 그 더러운 《공적》으로 륙군본부정보국 제1국장, 특무대장질을 하면서 더욱 상전의 신임을 얻어 미중앙정보국장 죤 알렌덜레스의 연출각본에 의해 거행된 《5.16쿠데타》의 주역을 담당하게까지 되였다.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고 권력의 자리에만 눈이 어두운 이자는 7.4공동성명을 화려한 간판으로 삼고 그뒤에서 《반공》보루를 꾸리는데만 급급하였다.

하루가 멀다하게 온갖 악법과 그 무슨 사건을 조작하여 남조선의 모든 민주력량과 통일지향적인 세력들을 숙청하기에 혈안이 되여 있었다.

장기수들에 대한 악랄한 전향공작도 이 독재자의 그 미친 《10월유신》광풍의 한줄기 설한풍이였다.

73년 11월 9일 아침. 광주교도소 관구부장이란 자가 복도에서 특별사동이 떠나갈듯이 고함을 치기 시작하였다.

《오늘부터 운동은 없고 의무와 진찰도 불허한다. 아울러 구매물도 팔지 않는다. 전향 안하는 빨갱이는 해빛을 못 보게 하는것이 우리의 방침이다.》

전향강요, 대탄압의 막이 오른것이다.

감옥에서 《운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것인지 독자의 리해를 돕기 위해 잠간 설명하고저 한다.

굳게 잠긴 감방에서 하루에 단 한번밖에 나갈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운동시간이다. 물론 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되여 있고 간수가 꼭 붙어 지키고 서서 동지들간에 서로 말도 못 나누게 감시한다. 그래도 감방에서 쇠 따고 나간다는 사실만으로 갇혀 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운동시간을 기다리는것이다. 해볕을 쪼일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점도 중요하다. 인간에게 해볕이 얼마나 중요한것인지는 오직 갇혀 있어 본 사람들만이 알수 있다.

구매물을 안 파는것이야 나처럼 돈이라고는 없는 빈털터리에게는 별관계가 없지만 밖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징역 사는 남편, 자식에게 빵 한봉지 넣어 주지 못하는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해 보라. 자연히 가족들은 온갖 방법으로 수인들

에게 전향하라고 애원하게 된다. 이 역시 대단한 압력임을 알수 있을것이다.

잠시후 간수들은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지품은 책, 세면도구, 내의 할것없이 몽땅 빼앗고 우리들을 일제히 전방(감방을 옮기는것)시켰다. 0.8평 남짓한 독거감방에다 9～10명씩 처넣어 앉을 자리는커녕 설 자리도 없을 지경이였다. 그리고는 강도, 절도범중에서도 유명한 악질들을 골라 복도에 배치했는데 놈들의 팔에는 《떡봉》이라는 완장이 감겨 있었다. 떡봉이란 사람을 떡치듯 치는 몽둥이라는 의미이다. 이 떡봉이를 선출할 때 교무과장 강철영이란 자가 심사를 하였는데 심사기준은 전과가 얼마나 많든 상관없고 사람을 잘 때리기만 하면 합격이였다.

이 떡봉이중에서도 특히 악질적이였던 자로서는 살인강도범으로 10년 징역형을 살다 교도소안에서 말썽을 부려 다시 1년이 추가되였다는 정무종이라는 자와 특수절도범 원삼실을 볼수 있다.

떡봉이들의 위세는 대단해서 그들은 감방열쇠까지 가지고 있는 형편이였다. 평상시 본무 간수만이 가질수 있고 다른 간수들에게도 절대로 주지 않던 그 열쇠를 깡패죄수 떡봉이들에게 넘겨 준것이다. 당연히 떡봉이들은 우리들을 감방에서 제멋대로 끌어 낼수가 있게 되였다.

이 같은 폭거에 항의하여 우리들은 단식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교회사들은 떡봉이들을 지휘해 우리들을 한사람씩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한방에 있던 동지들이 결사적으로 저항하여 하나씩 끌어내는데 실패하자 간수와 지도(잡범들중 사동

에서 간수들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들이 몰려 와 우리들을 강제로 끌어 냈다. 이때부터 떽봉이들의 구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였다. 간수들은 사동에 얼씬거리지도 않았고 떽봉이들은 감방열쇠외에도 수갑, 몽둥이, 포승 등을 가지고 마음 내키는대로 우리들을 끌어 내 복도에 꿇어 앉혀 놓고 곤봉으로 두들겨 팼다. 중간중간에 떽봉이들은 교무과로 올라 가 지시를 받고 내려 오는 눈치였다. 그들이 가한 가혹행위는 구타만이 아니였다.

감옥의 겨울은 춥고 길다. 여름 석달을 뺀 나머지는 모두 겨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는 11월로 교도소는 이미 한겨울로 접어 들었다. 떽봉이들은 얇은 관담요(교도소측에서 수인들에게 나누어 준 낡은 담요) 한장만을 남긴채 가족들이 넣어 준 담요는 모두 빼앗아 갔다.

게다가 이전에는 겨울이면 지급하던 이불도 12월 16일이 된 때까지 주지 않았으며 구매물도 팔지 않으니 솜옷도 사입을수가 없었다.

이것도 모자라 한 동지의 경우 잠뱅이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긴후 수갑을 채워 담요도 이불도 없는 방에 3～4일을 가두었다. 그래도 그 동지가 뜻을 굽히지 않자 끌어 내 코에 고추가루물을 부으며 구타하였다.

결국 그 동지는 병을 얻어 얼마후에 죽고 말았다. 그 동지가 반주검이 되여 들어 오자 그다음은 나의 차례였다. 원두성이라는 자는 살인강도범으로 힘이 세고 미욱하기 그지없는 놈이였고 원삼실이라는 자는 체소한 반면에 악착하기 이를데 없는 자였다.

두놈은 나를 홀랑 벗긴후 세면장으로 데리고 가 나의 몸에 얼음 같은 랭수를 퍼부었다. 그리고는 알몸뚱인채로 꽁꽁 묶은 다음 공중에 매달아 놓고는 몽둥이로 두들겨 댔다. 《전향할래.》하고 몽둥이세례마다 한마디씩 소리치는데 대답대신 몽둥이에 살점이 묻어 나고 피가 얼룩졌다.

이럴 때면 나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육체에 미치는것인지 정신에 미치는것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하도 얻어 맞고 찢기운 몸이여서 육체에 와닿는 고문이 그대로 내부에 와 부딪치는것만 같은 느낌이였다.

때로는 자기의 온 육신이 폭탄처럼 터져 놈들의 짐승 같은 상판과 온 감방에 피와 살점을 뿌려 버리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활활 타올라 온몸과 뇌수를 불덩이처럼 달구었다. 이런 지경에 이르면 내가 금시 미쳐 버리는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다잡고 놈들이 휘두르는 몽둥이를 정신 잃을 때까지 세이군 했다. 나는 될수록이면 정신을 잃지 않은채 고문을 이겨 내리라는 생각으로 두눈을 부릅뜨고 땀을 흘리며 날뛰는 놈들을 내려다 보았다. 필생의 목적이 바로 이 하나에 달려 있는듯이 생각되여 이러고 있느라면 눈앞에는 이상한 환영이 떠오르군 한다.

살인, 강간, 특수절도범들의 얼굴이 감옥소장이나 간수장의 얼굴로 보이기도 하고 그자들의 험상궂은 모습에 청와대에 앉아 있는 독재자의 까마귀상이 겹쳐 지기도 했다. 권력의 자리에 앉은 자들의 얼굴이 이 인간쓰레기들인 살인, 강간, 절도범들의 형상으로 련상된것은 기질과 성격과 본성의 공통성으로 그들스스로가 만들어 낸것이지 내가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이 감옥에서의 독재자와 《떡봉이》와의 묘한 《결합》을 생각하니 고문의 와중에 달아 오를대로 달아 올랐던 나의 온 육신에 그 어떤 싸늘한 기운이 흘러 퍼지는듯 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때 놈들이 《이놈이 웃어?!》하는걸 보니 내 얼굴에 이그러진 미소가 떠올랐던 모양이였다.

나는 화끈화끈 달아 오른 발이 차가운 마루바닥에 닿는 기분 좋은 순간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이러한 매질 말고도 교도소측은 비전향수들을 잠못 자게 하느라 밤에는 0.8평짜리 감방에 8～10명을 처넣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립시켜 전향시키려고 독거시킨 동지들도 있었다.

놈들의 전향공작이 얼마나 참혹한 양상을 띠였던지 수많은 동지들이 고문끝에 생명을 잃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지들도 생겨났다.

나 역시 삶과 죽음의 계선에 자신을 놓고 많이 생각해 보았다. 자신이 스스로 죽음의 문전에까지 다가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매 자살자들의 심정이 그 어떤 죽음에 대한 비관에 처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극히 일면적인 생각이다.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 삶에 대한 비관 더는 견딜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 나려는 념원의 실현이 그 죽음이란 문턱너머에 있어 때로는 그것이 안식처처럼, 평온한 다른 세상처럼 생각되여 그 문턱을 서슴없이 넘어 서게 되는것이다.

그 문턱에서 나를 저지시킨것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놈들이 바로 나로 하여금 그 문턱을 넘어서길 바란다는것이였다. 그러면 놈들은 후에 《자신의 생애에 대한 비관끝에 자살》이란 한마디 말로

나를 《제1의 적》의 명단에서 지워 버리면 되는것이다. 나로서는 그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전향》과 같은것으로 생각되였다.

살자. 삶이 투쟁이라는 생각이 이때처럼 나의 신념으로 굳어 진적은 없다. 민족앞에, 력사앞에 인간의 신념을 정당화할 그런 날을 기다려 굳세게 살자. 놈들의 대탄압에 항거하여 나의 가슴에 싹 터난 이 결의가 얼마나 힘겨운 행로를 거쳐야 한다는것을 나는 각오하고 있었다.

삶과 죽음의 계선에서 다른 《삶》을 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놈들의 폭거앞에 자기의 신념을 잃고 좌절 당한 인생의 또 다른 허무한 삶의 길, 《전향》의 길이였다.

눈물의 전향식

사실 전향하라며 가해 오는 고문을 참아 내는것도 힘든 일이였지만 매에 못 이겨 전향한 동지를 마주 보는것은 더 괴로운 일이였다. 간수들은 전향자가 생기면 꼭 그가 있던 방에 데려 가 이른바 《전향식》을 시켰다. 전향식이라 해서 대단한건 아니고 같이 있던 동지들앞에서 《내가 전향하였소.》하고 말하게 하는 절차였다. 그리고나면 간수들은 전향한 동지를 다른 사동으로 데려 가고 몸이 아픈 사람은 병사로도 보내주었다.

동지들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나 전향하였소.》하던 그 모습, 나와 함께 있던 친구중에 허효길이라는 스물댓살 먹은 젊은 청년이 있었다. 생기기도 잘 생기고 성품도 좋아 참 친했는데 어느 날

효길이가 전향식을 하러 왔다. 효길은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내내 울먹였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 봐야 했다. 속으로 《네가 그럴수 있느냐》 싶은 생각도 들긴 했지만 전향식을 마치고 간수에게 이끌려 울며 나가는걸 보니 너무나 애처로와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다.

《울지 말라…》

그나마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던것도 그때뿐이였다. 몇달후 운동 나갔다가 먼발치로 서로 보게 되였는데 그때도 효길은 눈물을 쏟았다. 그 모습을 보고 들어 오니 나 역시 심정이 상해 며칠씩 괴로왔다.

《이놈들, 저런 좋은 젊은이를 저렇게 꺾어 놓고 괴로움을 주는 너희들이 사람이냐.》

분노가 솟구쳤다.

인간이라는 신성한 존재를 이렇게 모독할수 있단말인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모든것, 신념과 생명과 육체에 갖은 모욕을 들씌우고 허울만 남겨 놓아 스스로 괴로와 하도록 만들어 놓고 승리자연한 기쁨을 맛 보는 자들…

남조선당국자들은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방법인 《전향공작법》까지 만들어 냄으로써 자기들의 지옥의 력사에 또 하나의 장을 기록했다. 인류력사는 땅을 빼앗을수 있고 재산을 빼앗을수 있고 목숨도 빼앗을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인간의 넋마저 빼앗아 사람들을 이처럼 괴롭힐수 있는 방법을 남조선당국자들처럼 완성시킨 악당들은 이 세상에 둘도 없을것이다.

이 시기처럼 고문의 형태들과 그 이름이 다양해진적은 없었다. 공중에 매달아 놓고 그밑에 불을 피워 그슬리는 방법의 칭기스한식 불고기고문, 독사들을 가득 넣은 독감방에 수인을 발가 벗겨 넣어 괴롭히는 뱀고문, 폭한들을 들이밀어 녀수인을 괴롭히는 성고문 등등… 수백수십가지의 악착한 고문방법들이 바로 이 시기 《중앙정보부》 남산지하실과 교도소들에서 창안된것들이였다. 이자들의 고문에 의해 그렇게 준수하게 생겼던 서승형제도 그 모습을 알아 볼수 없게 되였다. 더 기가 막히는것은 출소후 어느 잡지에서 본 권말자녀성에 대한 《성고문》의 집행자들이 신문기자의 렌즈앞에서 유들유들한 상판을 들고 싱글벙글 웃고 있는것이였다. 그것이야말로 남조선의 현실, 그 현실의 비인간성과 파렴치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허효길청년의 눈물을 보고 그에 대한 노여움보다 그를 그런 처지에까지 이끌어 간 자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로 하여 온밤 잠을 들수 없었다. 그러면서 다시한번 인간의 본성을 말살해 버리려는 놈들앞에 조금도 물러 서거나 양보할수 없다는 항거심이 마음에서 더욱 굳건해 짐을 어쩔수 없었다.

그후 효길청년은 어디로인지 끌려 가 더는 볼수 없었다.

그때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을 항복시키기 위해 11월 20일경부터 제2의 탄압이 시작되였다. 창고에다 고문대를 만들어 놓고 물고문을 시작한것이다. 물고문을 담당한건 교회사들이였다. 그들은 우리를 1메터 남짓한 긴 의자에 눕혀 사지를 꽁꽁 묶은후 얼굴을 뒤로 젖혀 놓고 그우에 젖은 광목수건을 덮었

다. 그리고 나서는 10리터들이 주전자로 코와 입에 물을 들이붓는것이였다.

나를 비롯한 장기수들은 이미 체포, 취조과정에서 물고문을 수없이 당해 본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를 고문했던 형사들은 《고문기술자》답게 사람이 죽어 넘어 가지는 않도록 고문의 강도를 조절할줄 알았다. 하지만 교회사들은 덮어 놓고 코와 입에다 물을 부어대는데 참말로 죽을 지경이였다. 물고문을 당한후 15명의 동지들이 전향을 했다. 이 과정에서 몸을 상해 하반신불수가 된 동지도 둘이나 되였다.

12월 5일 저녁 물고문에 시달리다 못해 서준식군이 유리쪼각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했다. 서준식군은 끊어 진 혈관에서 스며 나온 피로 상반신이 피범벅이 된채 새벽에 간수에게 발견되였다. 아마도 손목을 그은후 피가 흘러 나오면서 정신이 가물가물해 가는중에도 추위때문에 온몸을 옹크렸던 모양이였다. 추위에 떨며 손목을 가슴에 바싹 붙인 덕분에 얼마후 저절로 지혈이 되여 서군은 목숨을 건지게 되였던것이다. 전향고문이 시작되였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나는 투쟁경험이 많지 않은 서군이 버티여 낼수 있을가 속으로 걱정하기도 했었다. 훌륭한 동지의 한사람을 잃는것이 아닌가 초조했던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을 품었던 내가 부끄럽게도 서군은 목숨을 던져 전향공작에 저항하였다. 서군사건이 일어 난 뒤 살인적인 고문은 일단 중지되였다.

그러나 이때의 혹독한 전향공작으로 해서 73년 11월 이전까지 64명이던 광주교도소 비전향동지들이 74년 초에는 25명으로 줄었다. 전향하는 사람수에

따라 감형도 되고 석방도 될수 있는 떡봉이들의 처지와 승진과 출세가 전향공작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는 교도소관리들의 야욕이 빚은 결과였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버티여 낼수 있었는지 나자신도 리해할수가 없었다.

왜 전향을 안했느냐구요?

우리를 고문한 자들은 전향하지 않은 우리들을 두고 《악질, 독종, 빨갱이》라고 했다. 인간으로서 차마 버티여 내기 힘든 육체적고통아래서도 《그놈의 사상》을 버리지 않겠다니 《빨갱이》사상이 무섭긴 무섭다고도 했다. 겨울에 알몸에 랭수를 퍼붓고 몽둥이찜질을 하는가 하면 꽁꽁 묶어 놓고 코에 물을 들이붓는 야수적인 만행아래에서 인간은 우선 고통에 몸부림치게 된다. 그러나 고통만큼이나 강렬하게 치솟는것은 고문하는 자들 즉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에 대한 분노이다. 금품을 목적으로 사람을 잡아다 린치하는 깡패집단도 이럴수는 없을텐데 정치권력을 쥔 자들이 이 같은 야수적폭력을 주도하다니.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야수들에게는 결코 굴복할수 없다는 사무친 분노, 그것이야말로 우리 동지들이 극단적인 폭력아래서도 뜻을 꺾지 않았던 리유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차마 못 견딜 구타와 물고문아래서도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한 우리 동지들이 악질독종인가, 아니면 인간을 복날 개 잡듯 패면서 항복하지 않는다고 온갖 욕설을 퍼부어대는 정치권력의 하수인들이 야수들인가. 그들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모든것을 잃어 버린 《반공》광신자들의 노예들이 아닐가.

나에게는 결코 그들에게 항복할수 없었던 리유가 또 하나 있었다. 광목수건으로 눈을 가리운채 코로 물이 쏟아 져 들어 오는 순간 눈앞에 떠오르는 안해의 얼굴, 그것은 결혼식날 내 삶의 자세를 그에게 맹세할 때 미동도 않고 내 눈을 응시하던 안해의 진지한 얼굴 바로 그것이였다. 안해에게 아무것도 해준것이 없는 나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이를 악물었다.

《나는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당신에게 줄 선물은 이것밖에 없다.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남에서 수기를 쓸 때 밝혔던 전향하지 않은 리유들이다. 그외의것은 쓸수 없었다. 가장 어려운 밤들에는 광복후의 5년간 생활에 대하여 돌이켜 보았고 마음속으로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적기가》를 불렀다는것을 쓸수 없었다.

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참된 삶을 찾은 조선로동당원이였으며 공화국 국장이 찍혀 진 파견장을 받고 조국통일의 성전에 나선 조선인민군 종군기자였다. 다른 길이란 나에게 있을수 없었다.

75년 초 나는 다리병신이 되였다. 지리산에서 치렬한 전투중에 부상됐다면 오히려 기쁠텐데 징역 살다가 깡패들의 폭력으로 이렇게 되였으니 오직 억울할뿐이다.

내가 다리를 다치게 된 사건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였다. 75년 《사회안전법》이라는 괴물이 출현한다는데 대해 그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수 없었다.

하루는 3사 잡범들에게 새 소식을 방송하는 시간이였는데 《사회안전법》이 어떻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귀를 기울였으나 미처 알아 들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변소에 들어 가 옆방 동지에게 《방금 무슨 소리를 들었소?》하고 물었다. 마침 그때 소지(주로 폭력배로서 사동 청소, 수인 감시 등을 맡고 있는 자)가 내 방앞을 지나가던 모양이다. 그자는 감방문을 차고 달려 들어 와 나를 끌어 냈다. 부지중에 세면장으로 끌려 간 나는 소지들의 무자비한 구타에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감방안이였다. 찬물을 끼얹은듯 죄수복이 온통 젖어 있었다.

내가 정신이 든걸 보더니 소지가 다시 교무과로 끌고 갔다. 과장 책상우에 진술서가 놓여 있고 내가 옆방 동지에게 《전향하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씌여 있었다. 교무과장은 나더러 무조건 진술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했다. 당치 않은 구실로 또 몇달을 괴롭히려는 속심이 분명했다. 내가 그것을 거부했더니 옆에 있던 교무과 전향공작전담한 김흥렬을 비롯한 여러 간수들이 달려 들어 닥치는대로 구타하는것이였다. 심지어 《하느님의 교회》라는 교단의 목사라는 자까지 합세하여 때리는 형편이였다.

나는 또다시 실신했고 눈을 떠보니 감방안이였다. 꼼짝할수가 없어 손만 겨우 움직여 만져 보니 오른쪽 갈비뼈가 하나 부러진데다 다리까지 부서져 움직일수가 없었다. 한 6개월동안 의사가 와서 봐주는것도 아니고 그저 꼼짝 않고 지내는 동안 갈비뼈는 제대로 붙었으나 다리는 부러진채로 어긋나게 붙어 버려 절름발이가 되고 만것이다.

한편 《너희놈들같이 전향 안하는 빨갱이들은 영원히 해빛을 못 보게 하는 법이 만들어 지고 있

다.》던 교회사들의 호언장담처럼 과연 75년 7월 파쑈《정권》은 《사회안전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사회안전법》의 《위력》은 대단했다. 10～20년씩 징역을 살고 만기출소해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단란한 생활을 시작하려던 많은 동지들이 한밤중에 일제히 잡혀 와 재판도 없이 《보안감호》라는 기약 없는 감옥살이를 시작한것이다.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던 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도소에서 이무렵 다시 끔찍한 전향강제고문이 시작되였다. 이때는 한사람씩 교무과 사무실로 끌고 가 꽁꽁 묶은후 교회사와 간수들이 몰매를 가했는데 두번이상 까무라쳐야 비로소 풀려 날수 있었다. 풀어 줄 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동지들을 몽둥이로 때리거나 발로 차면서 온몸으로 감방까지 기여 가게 만들었다.

게다가 오랜 감옥생활로 고질병을 얻어 약 없이는 하루도 지내기 힘든 동지들에게서 가족들이 넣어 준 치료약을 빼앗아 가버리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광복후 평양에서 《로동신문》기자로 일했던 김동지는 위장병이 심해 징역살이 15년동안 가족이 넣어 준 약으로 간신히 연명해 왔다. 그런데 75년 전향담당공작반이 김동지에게서 약을 빼앗아 버렸다. 구타와 고문으로 쇠약해 질대로 쇠약해 진 몸이 약마저 없으니 김동지가 도대체 어떻게 생명을 이어갈수 있었겠는가. 전향하면 약을 주겠다는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하여 김동지는 몇차례나 단식롱성을 하였으나 전향담당공작반은 막무가내였다. 마침내 그는 76년 6월 담요를 뜯어 창틀에 목을 매 자결하

고 말았다. 전날 그가 《더는 못 살겠소. 병으로 죽느니 차라리 자결하겠소.》하고 말하기에 나는 극구 만류하면서도 《그런 심정이 될수는 있으나 설마 진짜 죽지는 않겠지.》하고 생각했었다.

김동지가 떠메여 나간 뒤 나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어제까지도 쇠약한 몸으로 야수 같은 놈들과 싸우던 동지가 이제 목숨까지 바쳐 이 세상사람이 아닌데 나는 여전히 살겠다고 보리밥 한덩이를 목에 넘기고 있구나 싶었다.

전향강요 대탄압과정에서 목을 매 자결한 사람은 김동지가 처음은 아니다. 75년 11월 심한 구타와 고문으로 가벼운 정신이상까지 일으킨 신동지가 역시 끈으로 목을 매 자결했다.

또한 일본에서 음악학교를 나온 피아니스트로서 늘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최동지에게도 전향담당공작반들은 약공급을 중단시켜 버렸다. 수차례 약을 요구했으나 허사였다. 결국 최동지는 76년 5월 어느날 저녁, 독방에서 30여분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괴로와 하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신음소리를 낱낱이 들으면서도 곁으로 달려 가지도 못하게 했던 광주특별사의 철벽, 그곳이 과연 사람 사는 곳이였던가.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사람이였던가.

전향공작과정에서 동지들이 당한 갖가지 고통들을 어떻게 모두 라렬하랴. 우리 동지들의 그 같은 피의 대가로 광주교도소는 전국 4대 교도소 전향실적평가에서 1등을 하였다.

《청주에 〈호텔〉을 짓고 있다》

광주교도소에서 끝내 전향하지 않고 만기를 맞아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동지들이 대전교도소 8사로 옮겨 졌다. 각 교도소와 사회에서 그곳으로 잡혀 온 《보안감호》대상자들의 수번은 1번에서 시작해 155번 정도까지 나갔던것 같다. 8사는 일제가 지은 감방으로 낡고 불결했다. 한감방을 둘로 나눠 원래 20개이던 감방을 40개로 만들었는데 이러다보니 방 하나가 0.75평도 못되는듯 하였다. 1～10방까지 저희들나름대로 전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동지들을 독거시켰고 11～40방까지는 3～4명씩 혼거시켰다.

그런데 감호자중 인천교도소에서 장기복역하고 출감한 고노 기시오라는 일본인이 하나 있었는데 76년경 독방에 있던 그가 공기통에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일어 났다. 생전에 접촉할 기회가 없어 그가 어떤 리유로 남조선땅에서 장기복역을 했는지, 죽음을 결심한 내막이 무엇인지(물론 《사회안전법》이라는 괴물앞에서 절망한때문일것은 짐작할수 있으나)를 자세히 알수 없어서 안타까왔다.

이 사건이 일어 난 뒤 독거제도가 없어 졌고 손바닥만 한 공기통마저도 막아 버렸다. 그무렵 일반사에서는 형무소가 아니라 교도소라 바꾼 이름에 걸맞게 감방에서 철망을 떼여 내는 등 전시효과를 노린 조치나마 시행되고 있었는데 8사 창문을 막은 철망은 오히려 두꺼워 져 가기만 했다. 바닥을 파서 통을 묻고 그우에 뚜껑을 덮어 놓은 변기통에서는 구데기가 허옇게 기여 나왔다. 식사, 운동, 책문제 등도 징역살이와 하등 다를게 없었다. 대부분 20여년

씩 온갖 고초속에 징역을 살아 만기를 채운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고도 옥문을 나서지 못하고 《보안감호》란 이름아래 징역살이와 다를바 없는 령어생활을 계속해야 하는게 기 막히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간수들은 《청주에 호텔을 짓고 있으니 잠시만 참으라.》고 했다.

《보호감호자》들을 대전교도소 8사에 수용한 때부터는 폭력적인 전향공작은 일단 중지되였다. 그대신 3개월마다 한번씩 검사가 내려 와 1 대 1로 전향을 설득하는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들중 그래도 법론리에 충실하고저 하는 일부 검사들은 《사회안전법》이 무리한 법률이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것도 우리가 전향했을 때만 가능하다는게 그들의 말이였다.

2년을 단위로 하는 《보안감호》처분의 1차 만기였던 77년 7명의 장기수들이 전향하고 교도소를 나갔다. 그들의 고민이 어떠했을지 리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모두들 야수 같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던 사람들이였다.

하지만 전향을 하지 않는 한 시체가 되여 뒤문으로 나갈수밖에 없는 《사회안전법》이라는 절벽은 너무도 험하고 높았다. 더구나 몇년전에 만기출소해 새로 가정을 꾸리고 늦게나마 자식이라도 본 사람들이나 한평생 자식놈 옥바라지끝에 병들어 죽어가는 로모를 막로동으로 돌보다가 갑자기 잡혀 들어 온 사람들의 경우 정치적신념과 가정적책임사이에서의 갈등이 그 얼마나 컸겠는가. 평생을 감호소에서 늙는한이 있더라도 전향하지 않고 《사회안전법》페지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게 우리 동지들의 신

념이였지만 투쟁을 포기하고 출소를 택한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다. 단지 나중에 들으니 그들중 어떤이들은 스스로 투쟁을 포기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급격히 몸이 무너지면서 병들어 죽고 말았다고 한다.

78년 11월 그들이 짓고 있다던 《호텔》, 청주감호소가 완공되여 그때까지 대전에 있던 감호소처분자 110명이 청주로 이감되였다.

이른바 청주《호텔》이 교도소감방과 다른 점이라면 감방에 수도가 들어 와 있다는 점이다. 또한 3사와 4사는 증기난방시설이 되여 있는데 1사와 2사는 난방시설이 없었다. 뒤날 소내투쟁이 벌어 지면서 그 리유를 알게 되였다. 평소 우리는 3, 4사에 수용되여 있었는데 싸움이 벌어 질 때마다 1, 2사로 쫓겨 가군 했던것이다.

식사는 부식문제가 특히 심각했다. 대개 교도소의 관리급 퇴직자들이 그 끈으로 감호소 부식공급을 맡아 하고 있었는데 전, 현직 관리들끼리 어떤 비률로 예산을 갈라 먹는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들어 오는 부식은 모조리 시장에서는 팔지 못해 내다 버릴것들만 주어 온듯했다.

게다가 운동장이라는것도 2층으로 된 사동밑 음지쪽에 담을 쳐서 서너너덧평이나 될듯 한 길죽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22개 감방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대전 8사 간수들의 말과는 달리 머리도 징역살이때처럼 잘라야 했다. 한마디로 《감호소 가면 모든게 달라 진다.》던 대전교도소측의 횐소리는 눈 가리고 아웅이였을뿐이다.

한편 감호소에서조차 사소한 꼬투리로 지하실에 설치되여 있는 고문실에 끌려 가 심한 폭행을 당한 동지도 드물지 않았다.

우리들의 쌓인 분노는 79년 전체 단식투쟁으로 폭발했다. 그런데 놈들의 대응은 가차없었다. 린근 청주교도소의 간수, 교도대까지 모두 동원해 전원에게 수정(수갑)을 채우고 폭행을 가했다. 이 수법 또한 달라 진게 없구나 싶었다.

이 투쟁후 감호소측은 처우개선은커녕 기존의 감방자물쇠밑에다 새로 자물쇠통을 하나 더 달았다. 뒤창문에 철망도 두껍게 붙였다.

결사의 단식투쟁

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 비밀료정에서 독재자가 김재규에 의해서 살해되였다. 독재자사살사건은 남조선《정권》의 부패와 모순이 낳은 응당하고 불가피한 귀결이였다. 5.16쿠데타로 권력의 자리에 오른 독재자는 초기 대통령의 명분을 세우느라고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을 내여 마치 정치와 경제, 통일국책에 전환을 가져 올 력사적인 위업을 위해 출현하는 인물처럼 미화분식하면서도 감히 영구집권의 야망은 표명하지 못했었다. 정책을 바로 세워 놓은 다음에는 스스로 《정권》에서 물러나 민간인에게 대통령자리를 내주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후 독재자는 《민정이양》을 자신이 군복을 벗는것으로 대치했고 이에 항거하는 인민에게 《10월유신》으로 대답했다. 리승만이처럼 권욕에 눈이 어두운 그는 또다시 3선을 조작하고 영구집권의 야망을 표면화했다. 독재자들의 영구집권야망의

쓰디쓴 맛을 너무도 잘 아는 남조선인민들은 또다시 들고 일어 났다.

미국상전들은 또 다른 각본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다름아닌 전두환에 의한 《5공정권》수립이였다.

《제5공화국》이 광주사태를 비롯한 어떤 피바다우에 세워 진 《정권》이라는것은 세상사람이 다 아는바이다.

10.26사건으로 독재자가 죽고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해서 사회에 민주화바람이 불어도 청주보안감호소는 폭력이 지배하는 《독립공화국》일뿐이였다.

80년 여름이였던가. 하루에 한번 있는 운동시간에 나갔다 왔더니 덥고 땀이 쏟아 져 내리기에 나는 감방뒤에 붙어 있는 변소에 들어 가 변소뒤창으로 들어 오는 한줄기 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때 감호과장 오기수라는 자가 지나가다가 내가 감방에 앉아 있지 않은것을 보았던 모양이다. 갑자기 간수들이 문을 따고 들어 와 불문곡직 지하실로 끌고 가더니 온몸을 포승줄로 꽁꽁 묶고는 마구 때리는것이였다. 허가도 안 받고 방에서 일어 났다는게 나의 죄과였다.

《이놈들, 너희들도 사람이냐.》

아픔보다 분노가 솟구쳤다. 혼신의 힘을 다해 울부짖었지만 구타는 계속되였다.

소지에게 떠메여 감방에 내팽개쳐진 뒤 정신이 가물가물한중에도 몸서리가 쳐졌다. 백보를 양보해서 《반공》을 국시로 하는 《정권》이 우리들을 사회와 격리시킬수도 있다고 치자. 사상의 전파와 조직화를 막기 위해 《사회안전법》을 만들어 우리들을

《합법적》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사회와 격리시켰으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가혹한 행위를 계속한단 말인가. 그자들이 원하는것은 대체 무엇인가… 전향서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목숨인가.

동지들의 쌓이고 쌓인 분노는 80년 7월 7일 다시 한번 폭발했다. 사회에서는 광주항쟁이 일어 나고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하여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여 있었던 시기였지만 철벽안의 우리들은 광주항쟁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단지 간수들이 비상복을 입고 여러가지 점에서 계속 우리들을 바싹 조여 왔기때문에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었을 따름이였다.

그중 하나가 책문제였다. 그동안 우리들의 줄기찬 요구로 열권까지 허용하던 책보유권수를 그즈음 감호소측은 다시 3권으로 줄여 버렸다. 7월 7일 아침 내가 있는데서 몇개 감방 건너에 들어 있는 서준식군이 최종대부장에게 책문제를 두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서적보유권수를 왜 갑자기 3권으로 줄인겁니까? 종전대로 환원해주시오.》

《세권이상 안돼.》

《대체 리유가 뭡니까?》

서군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그러자 최부장이 고함쳤다.

《저새끼 끌어 내!》

그러자 감방문에 붙어 있던 서군이 고함을 질렀다.

《못 살겠다!》

여기에 호응해 이방저방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간수 10여명이 몰려 와 그중 감방문을 찬 황동지를 수갑을 채워 지하실로 끌고 갔다.

우리들은 황동지를 돌려 보내라고 요구하여 전원 단식에 들어 갔다. 우리가 단식에 들어 가자 감호소측은 광주사태가 어떠니, 《계엄》이 어떠니 하면서 감호소밖에 땅크까지 와 있으니 단식을 풀라고 협박했다. 말을 듣고보니 긴장된 정황인것은 분명했지만 황동지가 돌아 오기전에는 투쟁을 멈출수 없었다.

우리의 단식투쟁이 광주봉기와 거의 같은 시각에 거행된것이 우연한 일치겠는가. 우리는 광주봉기에 대한 소식을 미처 알지 못했지만 더는 참을수 없는 형편에서 사생결단으로 이 투쟁을 단행했었다. 놈들의 탄압만행의 최극단, 분노와 투쟁의욕의 최극단이 감방밖이나 감방안이나 일치했다는 점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였다. 우리의 투쟁도 역시 력사의 필연적인 귀결점에서 발발했다는 의식이 장기수들의 투쟁기세를 높여 주었다.

《동지들, 밖에서도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다.》하고 누군가 힘차게 웨쳤다. 놈들도 더욱 혈안이 되여 우리의 투쟁기세를 꺾어 보려고 별의별짓을 다하였다.

이전까지는 한방에 세사람씩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단식에 들어 가자 7월 11일부터 모두 분산시켜 독방에 집어 넣었다. 단식 7일째인 7월 13일 감호소측은 동지들을 차례로 끌어 내 강제급식을 시행했다. 감호과사무실에 한번에 네사람씩 붙들어다 의자에 묶어 앉혀 놓고 고개를 젖히고 강제로 입을 벌려 목구멍에 호스를 밀어 넣었던것이다.

원래 강제급식이라고 하면 호스로 묽은 미음을 주입하는것인데 저들은 소금을 잔뜩 녹인 짠 소금물을 들이부었다.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으며 단식을 하고 있었기때문에 소금물을 주입하여 목이 타서 할수없이 물을 먹게 하려는 속심이였다. 서준식동지외 네사람이 감호과로 붙들려 갔을 때 우선 김동지와 최동지가 강제급식을 당하게 되였다고 한다. 최동지가 끌려 들어 가보니 먼저 들어 간 김동지는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 가고 있었다. 최동지는 《호스가 식도가 아닌 기도로 들어 간것 같았다.》고 증언하였다. 김동지가 이렇게 되자 그들도 강제급식을 더이상 계속할수는 없었다.

그런데 김동지보다 먼저 강제급식을 당한 변동지는 또한 의식불명상태로 업혀 나가 위급한 상태였다. 그들은 강제급식을 실시한후 변동지를 떠메다가 지하실에 내팽개쳤다. 이미 12～13명의 동지들이 지하실벽에 기대여 토하기도 하고 설사를 쏟아 지하실전체가 오물로 흥건했다. 변동지는 지하실에 오자마자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그 아파 하는 신음소리가 밖으로 새여 나온다고 간수부장이라는 자는 《방성구(딱딱한 뭉치를 입안에 쑤셔 넣어 소리를 막는 행형도구) 채워!》하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그래도 지하실을 지키던 간수가 일말의 량심은 있었던지 차마 방성구를 채우지는 못하였다.

지하실에 갇힌 동지들은 새벽녘이 되여서야 방으로 돌려 보내졌는데 그때까지 변동지에게는 아무런 응급처치도 취해 주지 않았다. 그뒤 변동지가 언제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 알수 없다. 우리가 들은것은 그저 죽었다는 소식뿐이였다.

감호소측은 강제급식으로 동지들을 살상하면서 한편으로 사기극까지 연출하였다. 강제급식이 실시되던 전날쯤이던가 나는 또 간수들에게 끌려 나갔는데 가보니 감호과장 오기수가 의무과장까지 데리고 앉아 협박을 하는것이였다.

《계엄사에서 감호소 단식문제를 례의 주시하고 있다는걸 알아? 오늘도 복식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우리도 어쩔수 없지. 계엄사령부로 넘기겠어.》

이번에는 옆에 있던 의무과장이 나서서 나를 진찰하더니 걱정해 주는척 했다.

《당신이 혈압이 130, 230인데 이런 상태에서 계엄사령부로 넘어 가면 어떻게 되겠소?》

밖에서는 시동을 걸어 놓은 뻐스가 부릉부릉 소리를 내고 있었고 소지들이 내 소비품을 뻐스로 옮겨가느라 소란을 떨었다. 게다가 누군가가 밖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계속 들려 왔다.

《빨리 내보내!》

그래도 내가 계속 버티자 오기수는 연신 재촉이였다.

《당신 어쩌려구 그래?》

《먼저 요구사항을 받아 들인다고 해주시오.》

결국 안되겠다 싶었던지 그는 아예 욕지거리를 퍼부어댔다. 나도 성이 나서 맞고함을 쳤다.

《보낼테면 보내라. 군인들도 너희들보다는 나을것이다.》

오기수가 잠간 나갔다 오더니 간수에게 소리쳤다.

《리××, 계엄사로 보내버려.》

잠시후 뻐스에 태워 져 내가 끌려 간 곳은 다름아닌 청주교도소 미결감이였다. 청주교도소는 감호소와 담장을 맞대고 있었다. 감호과장이라는 자의 얕은 꾀에 실소를 금할수 없었다. 들어 가보니 사동을 하나 온통 비워 놓았는데 그 끝방에 림동지가 먼저 끌려 와 있었다. 나는 1사 14방에 갇혔는데 잠시후 또 한동지가 끌려 왔다. 우리 세 사람은 한사동의 량쪽끝과 가운데감방에 갇혀 일주일정도 있었다.

생각해 보니 오기수는 보안감호소에 남아 있는 동지들에게 우리가 계엄사령부로 끌려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게 틀림 없었다. 하지만 보안감호자인 우리가 무한정 청주교도소에 있게 될리는 없고 어차피 보안감호소로 들어 가야 할텐데 그처럼 금방 탄로날 거짓말까지 해가며 단식을 중지시키려는 그들이 오히려 딱하기까지 하였다.

7월 7일부터 시작된 감호소의 단식투쟁은 17일간을 끌었다. 대부분 나이도 고령인데다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등 질병을 한둘씩 가지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17일간이나 단식한다는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투쟁일수밖에 없었다. 강제급식과정에서 두 동지가 숨진데 이어 투쟁을 마친후 또 두 동지가 후유증으로 죽었다. 특히 김동지는 끝까지 복식을 하지 않고 숨을 거두었다. 그들의 시신이 들려 나갈때의 슬픔, 내가 살아 남는다면 저 동지들의 죽음을 꼭 세상에 전하리라 다짐하였다.

단식투쟁을 마친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했던대로 감호소측의 태도가 표변했다. 자신들의 강제급식으로 두 동지가 사망하자 문제가 커질가 기겁한 그들은 담요도 좋은것을 가져다 깔아 주고 방충망도 새것으로 갈아 주는 등 《선심》을 쓰는척 하였다.

게다가 우리가 요구사항을 들어 달라고 하면 《당신들의 요구사항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였다.》, 《청와대에서까지 다 알고 있다. 곧 개선대책이 나올것이다.》 등등의 말을 늘어 놓았던것이다.

그러나 일단 단식이 끝나자 개선조치가 나오기는커녕 감호소측은 규률을 더 강화하였다. 겨울이 되면서 날씨는 점점 더 추워 지는데 우리들이 추울 때면 목도리처럼 목에 두르던 수건도 두르지 못하게 했고 담요도 깔고 앉지 못하게 하였다. 다 늙어 뼈만 남은 엉뎅이로 마루바닥에 돌부처처럼 앉아 하루종일 지낸다는게 보통일이 아니다. 우리들이 끝없이 항의했지만 간수들의 태도는 5.16직후만큼이나 경직되여 있었다. 하긴 청주교도소 재소자들을 보안감호소 큰 운동장에 끌어다가 군사훈련(뒤에 알고보니 삼청교육)을 시키는 고함소리가 하루종일 끊기지 않는 점도 그무렵과 마찬가지였다.

우리들의 단식투쟁을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다는 오기수과장의 말이 전혀 무근거한것은 아닌듯 하였다. 후에 들으니 우리의 단식투쟁직전에 전두환《보안사령관》이 감호소를 순시하고 갔다고 했다. 그가 직접 모종의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요즘 하는 말로 최고권력자의 순시에서 감호소관리들이 무슨 감을 잡았는지 알수 없었으나 그뒤부터 놈들은 우리들을 바짝 조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폭력적인 강제급식으로 두 동지를 죽음에로 몰아 넣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그 문제로 문책을 당하기는커녕 오기수과장은 얼마뒤에 어느 교도소부소장으로 영전되여 갔다고 들었다. 바야흐로 독재자화신이 재림한 세월이였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처우개선투쟁은 계속되였으나 87년 6월항쟁이전까지는 거의 개선된 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재자대신 권력의 자리에 올라 앉은 전두환 역시 남조선땅에 뿌리 내려 진 《반공》, 반민주주의독버섯에 불과했다.

진달래의 마음

80년 단식투쟁과정에서 모든 동지들이 독거수용된 후 우리들은 88～89년 보안감호소문을 닫을 때까지 독방에 있어야 했다.(내가 석방된후인 89년 석방을 기다리던 동지들을 몇달간 혼거시킨적은 있다고 한다.) 혹시나 여러사람이 비좁게 한방에 부적거리는 것보다 독방이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실분이 계실가 해서 《독방의 고통》에 대해 잠시 설명해 보겠다.

하루종일 다른 사람과 말 한마디 나누어 보지 못한채 10년, 20년을 지내다보면 독거수들은 인간과 인간사이의 따뜻한 감정교환이라는것이 어떤것이였는지조차 잊어 버릴 지경에 빠지게 된다.

자연히 심정은 메마르게 되고 마치 숨 쉬는 화석같은 존재가 되여버린다고나 할가. 사방이 무섭도록 조용한 저녁, 어제와 오늘이 잘 구분되지 않는 시간의 흐름속에서 언제나처럼 독방에 앉아 《윙》하는 형광등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뼈 저리게 스며 든다.

《이제 내가 미치는구나.》

그러나 인간의 따뜻한 눈길, 정다운 목소리를 그리워 하는것은 차라리 사치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정서에 오래 잠겨 있을 사이없이 무자비한 물리적폭력은 어김없이 다가왔으니까.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나를 유일하게 지켜 주는분이 있었거니 그이는 우리모두의 마음의 기둥인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밤이면 철창사이로 멀리 반짝이는 북녘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어린애가 어버이의 품을 그리듯이 그리며 흐르는 눈물, 이 눈물은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것 같았고 미쳐 버릴듯 한 심신의 고통도 서서히 씻어 주는듯 싶었다.

뒤이어 찾아 드는 어머니와 안해의 얼굴, 딸애의 손짓 그리고 마주 달려 오며 소리치는 동지들의 모습…

85년 또 두사람의 동지가 자결하였다. 여전히 실시되고 있던 전향담당공작반의 고문에 죽음으로 항거한것이다. 교도관들에게 맞아 온몸에 피멍이 든채 독방에 실신해 있던 리동지가 《이대로 맞아 죽느니 항거하여 놈들의 탄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동지들, 내 몫까지 싸워 주시오.》라는 유언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리동지는 충청도출신으로 중학교 영어교사를 지낸분인데 전향공작반에서 리선생을 괴롭히려고 한방에 넣은 정신병자가 오히려 리선생의 인격에 감복해 그의 수발을 들었다는 일화를 지녔던분이다. 그로부터 한주일쯤 뒤 역시 전향강제고문에 시달리던 황동지가 리동지의 뒤를 따랐다. 그는 《네놈들이 절대 우리를 다 죽이지 못한다. 동지들중 단 한명만 살아 나가도 진실은 낱낱이 밝혀 지고 민중과 력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였다.

허나 나는 죽음이 너무나 낯 익은것이 되여 버린 감방안에서 무엇인가 생명의 대견함을 지켜 보고 싶

었다. 죽음에 맞서 삶을, 변심없이 불 타는 삶의 향기를 맡아 보고 싶었다.

나는 운동을 나갔다가 소지들이 뽑아 버린 진달래 한뿌리를 몰래 품속에 품고 돌아 와 간수들의 눈에 띄지 않는 감방구석에 숨겨 심었다. 그리고는 물도 주고 추울 때는 담요도 덮어 주고 있는 정성을 다하며 기어이 피여 주기를 바랐더니 이듬해 봄에 과연 연분홍빛 진달래꽃이 활짝 피여 났다.

나는 기뻤다. 나의 생명의 갈망, 넋의 몸부림을 받아 안고 활짝 피여 난 진달래, 너는 사랑하는 조국과 친지들에게로 달리는 내 마음!

감방엔 붓도 종이도 없었지만 나는 한줄한줄 기억에 새기며 《진달래의 마음》이라는 시를 완성해 갔다. 그후 감방에서 한적하고 고독이 느껴 질 때마다 이 시를 읊어 보면 한결 마음은 든든해 지고 거뜬해 져 가장 힘겨운 몇해를 벗 삼아 읊어 온 그 시를 그대로 여기에 옮겨 본다.

진달래의 마음

가시 돋친 교활과
피빛 같은 요염이
장미의 붉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붉게 핀
정열의 진달래는
분렬된 조국이 섧고 서러워
울고 울다

지쳐서 목이 터진
견이의 쏟은 피로
꽃잎을 물들였기에
그렇게도 순결한가

활짝 피여 웃는 얼굴
진달래의 소박함은
잊지 못할 님을 위한
변함 없는 나의 사랑
그대 아시는가
내 마음의 진달래를

세상천하 꽃들중에
먼저 피여 뽐내려고
눈도 미처 녹기전에
성급하게 피여 나는
리기적인 매화처럼
번째론 안 피지만
훈훈한 봄바람에
때를 옳게 맞춰 가며
붉게붉게 활짝 피여
산에 들에 물들이니
생기 있는 새 조국의
새 앞날을 말하는듯
순박하게 피여 나는
진달래의 소박함은
잊지 못할 님을 위한
변함 없는 나의 사랑
그대 아시는가
내 마음의 진달래를

살을 에는 엄동설한
이역만리 눈보라속
비발치는 탄환들도
승리로써 넘어선 뒤
따사로운 봄이 되여
산에 들에 움 터올 때
천지연을 넘쳐 오른
압록강을 타고 넘어

조국흙을 밟고 서서
조국흙에 입 맞추며
향수감에 잠겨 보는
항일무장 전사들을
붉게붉게 활짝 피여
반겨 맞는 진달래는
잊지 못할 님을 위한
변함 없는 나의 사랑
그대 아시는가
내 마음의 진달래를

저기 북쪽 우뚝 솟은
백두산기슭에도
태백산줄기에도
지리산기슭에도
바다를 뛰여 넘어
저기 남쪽 제주도
한나산기슭에도
빠짐없이 피여 나니
춥고 더움 가림없이
남북산야 방방곡곡
조국의 흙에다
깊이깊이 뿌리 박고
바라는건 오직 통일
붉게 피는 진달래는
잊지 못할 님을 위한
변함 없는 나의 사랑
그대 아시는가
내 마음의 진달래를

최초의 면회자

1987년 6월항쟁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어도 높디높은 담장안의 우리들에게 이 소식은 금방 전해 지지 않았다. 그러나 뭔지 모를 변화의 조짐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었다.

하루는 나와 같은 함경도사람인 계호과장이 나를 불러 내더니 전에 없이 부드러운 태도로 이런저런 동정의 말을 하는것이였다. 저자가 갑자기 무슨 속심으로 저런 말을 늘어 놓는가 싶어 듣고만 있는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처럼 이북출신으로 면회자 하나없이 감옥생활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활동을 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이 있는데 며칠후 그들을 만나게 해주겠소.》

그러고보니 그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해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그들은 서울 어느 교회의 목사부인과 녀전도사인데 79년부터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자매결연사업을 해오고 있다고 하였다. 감호소측은 지난 6～7년동안 그들에게 전향한 사람들만 만나게 하였던 모양이다.

87년경 감호소측은 전향공작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했던지 그들을 비전향자중 한 동지와 만나게 했다. 그는 얼마후 전향을 하였고 감호소에서 나갔는데 아마도 감호소 최후의 전향자였던것 같다. 사실은 그가 끝 없는 보안감호소 생활속에서 고민하다가 출소의 길을 택하기로 마음을 굳혔을무렵 그 기색을 눈치 챈 감호소측이 전향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목사부인과 전도사를 만나게 했던것 같다. 그런데 그가 진짜로 전향을 하니 감호소측은 그 그리스

도교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착각한 나머지 다른 비전향동지들과도 자매결연을 하도록 주선을 한게 아닌가 싶다.

30여년 감옥생활기간 온갖 고문과 구타에도 굴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 모르는 누군가가 면회 와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전향을 결심하는 일이 있을수 있겠는가. 하지만 감호소측의 의도는 분명했기때문에 경계심을 갖지 않을수 없었다.

그후 감호소측이 그리스도교인들과 처음으로 만나게 한 비전향동지는 서준식군이였던 모양이다. 서군도 나와 같은 경계심을 가질수밖에 없었던지 처음에는 그들을 랭랭하게 대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다시 왔기에 만나보니 정성스럽고 량심적인 사람들인것 같아 그들에게 여러 다른 무의탁 무연고 동지들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속에 아마 내 얘기도 들어 있었을것이다.

계호과장과 만난 며칠뒤 간수가 나오라기에 따라 갔더니 사회사람들과 면회시킨다고 하였다. 순간 너무나 낯 선 느낌이 들었다. 징역살이 22년, 감호소생활 11년째였지만 그때까지 나에게 면회자라고는 없었다. 간수, 검사, 잡범 등등 담안의 사람이 아닌 사회사람을 만난 기회는 전혀 없었던것이다. 면회실로 가는 동안 내 마음속은 기대감과 경계감이 뒤엉켜 몹시 어지러웠다.

면회실에 들어 가 보니 서울 궁정교회 담임목사의 사모님이라는 부인 한사람과 20대 처녀로 보이는 전도사 한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홍자씨는 선량한 인상이였다. 내가 자리에 앉자 차분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예수의 가르치심대로 옥에 갇힌분들을 돕고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리유도 아니고 자기 신념때문에 험난한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진심으로 동정합니다.》

그들이 여느 그리스도교인들처럼 무턱대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했다면 나는 더 들을것없이 돌아서 나왔겠지만 나를 리해하려고 노력하는 진심이 느껴 져 나는 그날 두사람과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얘기, 감방에서 힘들때마다 노래를 지으며 이겨 나간다는 얘기, 내가 걸어 온 길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 등등, 리미순전도사는 사회분위기가 풀려 감호소에서 나오게 되면 사회에서 잘 지낼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테니 걱정 마시라고도 했다.

그들을 믿고 대화를 하면서도 나는 경계심을 늦출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그런 뜻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감호소측이 그들과 나를 만나게 한것은 내가 전향하기를 바라는 까닭에서 아닌가.

담화과정에 나는 어찌나 보자 하고 깔끔한 질문을 하나 던졌다.

《왜 전향설교를 않으십니까. 당국의 취지도 그건데…》

두 녀인은 나를 물끄러미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는 당국의 요구에 따라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라 찾아 왔습니다. 예수의 교리인즉 인간이 인간으로서 참뜻을 지키라는것인데 자기들의 신념을 지켜 수난을 겪는 당신들한테 전향설교가 무슨 필요겠어요.》

그들은 면회시간이 끝나 일어 서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다시 찾아 와도 만나러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리다.》

그들은 88년 10월 내가 출소할 때까지 서너번쯤 더 찾아 왔던것 같다. 언젠가 한번은 그들이 《이제는 이렇게 되다나니 오히려 우리가 물들었네요.》하여 나를 웃기였다. 그리스도교신자와 사회주의자인 내가 친숙해 진데는 인간의 참된 량심과 본성의 공통성이랄가… 새로운것을 깨닫게 하는것이 있었다. 이 깨달음은 차디찬 감방생활속에서 마음속으로 지켜 얻은 흐뭇하고 귀중한것이였다. 올 때마다 령치금은 물론 간식, 과일 같은것을 푸짐하게 넣어 주었다. 그들은 내가 34년간 배를 곯아 온것을 진심으로 안스러워 하였다. 그들과의 인연은 출옥한후에도 계속되였다. 나는 그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새롭게 배운 점도 많다. 두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다.

87년 하반기무렵에는 사회에서 민주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도 감지하게 되였다. 변화하는 정황에서 우리들은 더욱 단결하여 여러가지 처우개선조치를 따냈다. 우선 감호소방에 붙어 있던 두개의 자물쇠중 밑의것은 잠그지 않게 되였다. 어떤이는 자물쇠를 두개 잠그나 하나 잠그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두개의 자물쇠로 꽁꽁 잠긴 방안에 갇혀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감 말고도 그놈의 자물쇠는 실제생활에서 우리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쳐 왔다. 한사동안의 22개 감방은 모두다 열쇠가 다른데 한방에

자물쇠를 두개씩이나 채우면 간수는 44개의 열쇠를 관리해야 한다. 운동하러 나가고 들어 올 때 간수들이 그 많은 열쇠중 특정한 1방열쇠를 찾기 위해 꾸물거릴수밖에 없는데 단 1분의 해빛이 아쉬운 우리들로서는 너무나 그 시간이 아까왔던것이다.

88년이후에는 운동시간도 규정대로 지켜 졌고 책 보유권수도 5권으로 늘었다. 그런데 내가 출소한 88년 10월까지도 신문과 같이 새 소식이 실려 있는 인쇄물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새 소식을 차단하려는 감호소측의 노력은 대단하였다. 동지들중에 동아일보사에서 나오는 《음악동아》를 받아 보는이가 있었는데 이 잡지를 넘겨다보면 가끔 남는 공간에 자매지인 《신동아》의 광고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몇개 기사의 제목정도가 나와 있는게 고작이였지만 우리로서는 그것만 해도 소중한 정보가 아닐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동아》광고를 소중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챘던지 아니면 《음악동아》의 한페지한페지를 모두 검열했는지 알수 없으나 감호소측은 나중에는 그 광고까지 지워버리고서야 잡지를 우리에게 주었다. 오로지 우리들을 외부의 소식으로부터 차단해야만 질서를 유지할수 있다고 생각한것 같다.

이 같은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월항쟁이 일으킨 민주화의 물결은 보안감호소의 담벽에도 거세게 몰아 쳤다. 《전향 안하면 영원히 해빛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는 《사회안전법》아래서 서준식동지가 비전향 제1호로 감호소문을 나서게 되였던것이다. 《단 한사람이라도 살아 남으면 우리의 진실을 력사에 전하리라.》고 했던 동지들의 유언처럼 출소후 서동지는 《사회안전법》의 야만성과 청주보안감

호소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그로 인해 우리들의 존재는 비로소 세상에 알려 지게 되였다.

88년 10월에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정감사 반원들이 감호소로 찾아 왔다.

이전에는 《법무부》장관과 같은 고위관료들이 감호소를 순시한적이 있긴 했다. 감호소규칙에는 이 같은 순시가 예정되면 감호자들에게 미리 알려 주게 되여 있다. 순시는 감호자들의 요구사항을 얘기할수 있게 하는 절차이기도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규칙은 전혀 지켜 지지 않았고 갑자기 대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부산을 떨면 우리들이 《누가 오는구나.》하는 눈치를 채고 처우개선요구를 준비하군 하였다. 하지만 막상 순시하러 온 인사가 말 한마디없이 사동을 휙 지나가버리는데야 무슨 요구를 할수 있었겠는가.

국정감사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다. 여야가 섞여 있겠지만 관료들보다는 낫겠지 싶은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막상 만나고보니 별로 다를바가 없었다. 적어도 국정감사라면 우리들중 대표를 불러 내 면담하는 자리정도는 가졌어야 했을텐데 그들 《국회의원》들은 각자 흩어 져 사동안을 돌아 다니며 쇠창살의 우리를 들여다 보고 한마디씩 던지는 식으로 《감사》를 하였다. 이 방앞에서 몇마디 주고 받다가 그 방 동지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대로 저 방앞으로 가버리는 식이였다.

게다가 몇몇 《의원》들은 면담중에 보안감호처분이 우리들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해 왔는지 조사하기

보다는 《왜 전향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추궁에 가까운 질문으로 대치했다. 한 동지가 참다못해 《우리에겐 우리의 사상이 있다. 왜 사상을 따지는가. 당신들이 조사해야 할것은 우리들이 왜 이런 인권유린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다.》라고 항의했다. 보수적인 신문들이 이 말을 거두절미해 《메마르고 랭혹한 보호감호소 빨갱이들》은 구제불능의 고집인것처럼 외곡해서 써놓았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

이 같은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이해 한가위날에는 야당총재 김대중씨가 우리들모두에게 2만원씩의 떡값을 보내왔다. 이것 또한 처음 있은 일이였다.

이 같은 정황에서 많은 동지들이 《감호소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예상을 했다. 《정권》측의 체면때문에라도 《사회안전법》을 더이상 존속시키지 못하리라는 얘기였다.

하긴 3개월만에 한번씩 내려 오는 검사조차도 그 무렵 면담에서는 《아예 전향서라는 제목도 바꾸고 전향이라는 말도 빼버리고 〈국가법질서를 지키면서 가족과 단란하게 살아 가겠습니다.〉라고만 쓰면 내보내주겠다.》고 나왔다.

우리들이 그 오랜 세월 전향서를 쓰지 않은것이 《전향》이라는 단어 하나때문이였단 말인가. 검사의 그 같은 《수정제안》에 응한 동지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검사의 태도는 정세가 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것이였다.

이처럼 정세는 동지들의 예측이 설득력 있는것임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런 분석들이 가슴에 다가오지가 않았다. 수십년이

나 징역을 살고 2년만기의 보안감호처분이 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여섯번이나 연장되는 동안 《옥문이란 영원히 열리지 않는 문》이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골수에 박힌 모양이였다.

징역 1590년

이처럼 나가리라는 기대는 한오래기도 갖지 않은채 지내고 있던중 88년 10월 27일 들어 올 때만큼이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옥문이 열렸다.

석방이라는것이다.

서른여섯에 시작된 감옥살이가 일흔둘에 끝난것이다. 이때의 심정은 이미 앞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으므로 생략하고 형사들이 나를 구세군양로원으로 데려 가는 동안 차안에서 만감이 교차하기에 불러 보았던 노래 하나를 여기에 소개한다.

옥문을 나서며

쥐구멍도 해볕들 날
있다는 말 있듯이
참말로 쥐구멍에
해볕들고 말았는가

들어 오는 문만 있고
나가는 문 없던 이곳
나가는 문 열렸으니
이 어찌된 영문인가

분렬된 조국에서
반목하던 형제들이
인제 마음 돌렸는가
아니 세상 미쳤는가

순진한 고운 얼굴
소박하게 살짝 짓는
소녀의 미소 같은
그런 평화 왔는가

어둠속에 불시 해빛
눈 부시여 못 뜨는데
건드리지 말아다오
잠간 생각 잠겨 보게

얼마만에 밟았는가
사회 흙내 구수한데
여게 나를 쉬게 하라
조국이여 형제

내가 나온후 감호소에 남아 있던 동지들은 89년 5월까지 모두 출소하였고 수많은 동지들의 피와 땀을 묻었던 청주보안감호소는 마침내 문을 닫았다.

어떤 동지가 계산해 보니 끝까지 감호소에 있다가 출소한 51명 우리 동지들이 살아 온 징역의 해수는 도합 1590년, 1인당 평균 29년 이라는 기간이 되더라고 한다.

그 얘기를 듣노라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저절로 흘러 내렸다.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단두대와 사형장에서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통일 만세!》를 웨치며 갔던가. 또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고문실이나 감방안에서 악독한 고문과 굶주림과 추위속에 소문도 없이 숨지였으며 고진히동지처럼 자결로 지조를 지킨 동지들은 또 얼마이던가.

먼저 간 동지들이 숨지는 마지막순간에 《동지들, 내 몫까지 싸워 주시오. 동지들중 단 한명만 살

아 나가도 진실을 민중과 력사앞에 낱낱이 밝혀 주오.》하던 목소리가 귀전에 쟁쟁히 들리는듯 싶다.

죽어 간 동지들몫까지 합치면 어떻게 징역해수를 도합 1590년으로만 세일수 있으랴.

나 역시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의의 있는 시절, 거의 한생과 맞먹는 세월을 해빛 한점 없는 감옥안에서 보냈다.

해빛만 쬐여도 당장 실신할듯 싶은 만신창이 된 몸으로 낯 설은 바깥세상에 던져 진 몸, 허나 이 몸에 피가 흐르고 심장이 고동치고 기억이 남아 있는 한 출옥한 동지들보다 몇십 몇백배로 많은 죽어 간 동지들의 령혼을 불러 보고 싶었다.

나는 34년의 옥고를 치르고 끝내 자신의 신념과 생명을 지켜 냈다는 자부심과 행복감보다 내 가슴속에 새겨 진 동지들의 피 타는 목소리를 심장의 기력이 더 쇠잔해 지기전에 되새겨 웨쳐야겠다는 초조하고 무거운 심경에 처해 있었다.

징역의 해수로 계산된 1590년뿐아니라 빼앗겨 버린 수천수만의 생명의 총 년륜을 되찾아 살려 내야할 힘겨운 사명이 살아서 석방된 나의 늙은 어깨에 걸머지워 져 있음을 느꼈다.

34년 옥고에서 지켜 낸 생명의 의의도 여기에 있지 그 어떤 다른데에 있을수 없다는 생각이 출옥하는 나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져 있었다.

살아 남은 자

34년만에 열린 감옥문

출소하던 당시의 심정을 좀더 자세히 되살려 보기로 하자.

1988년 10월 27일,

이날 늦가을의 짧은 해가 아직 돋지 않아 몇시인지 짐작도 되지 않는 이른새벽 내가 수감되여 있던 청주보안감호소 3사 18방 감방문이 덜컹 열렸다.

《94번 나와, 검방.》

검방이란 감방과 재소자의 소지품을 검열한다는 감옥에서 쓰는 용어이다.

나는 곧바로 교무과장에게 불려 갔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꿈에도 믿지 못할 말이 떨어 졌다. 오늘 내가 이 청주보안감호소를 나가게 된다는것이였다. 과장은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조치가 《주거제한》으로 변경됐다고 하였다.

충격적이였다. 청주에서 기약 없는 감호살이만 12년째, 그 이전의 징역까지 합치면 34년간의 감옥살이였다. 물론 그해 5월 25일 서준식동지가 비전향상태로 이곳에서 석방되였을 때 어떤 동지들은 《우리들의 감옥살이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망하기도 했지만 나는 내심 믿지 않았었다. 그는 재일교포인데다 국제적으로 석방운동이 계속되여 오는 등 우리들과는 조건이 상당히 다른 사람이였기때문이다. 그런데 나가라니…

교무과장의 전에 없는 진지한 얼굴에서 나는 내앞에 놓인 현실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충격은 서서히 기쁨으로 변하여 가슴에 차올라 오고 있다. 순간 정신을 차렸다.

아무 하는 일 없이 저들에게 붙잡혀 갇혀 있던 나날이였지만 그래도 그것은 투쟁의 세월이기도 했다.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전향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버틴 나를 저들이 진실로 무슨 리유로 내보내려는지는 알수 없지만 마치 큰 은혜나 베푸는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감지덕지하면서 나갈수는 없다.

과장이 늘어 놓는 말을 귀전으로 흘리며 생각에 빠져 있다가 불쑥 나는 그의 말을 가로 막았다.

《여보시오. 과장, 감옥살이 34년에 청춘은 가버리고 머리가 허옇게 되여 죽을 날이 다되였소. 이제 내보내 사회시설에서 죽게 하는것이 인도적처사요? 나는 못 나가오. 죽어도 여기서 죽겠소.》

과장은 약간 인상이 굳어 지는듯 하더니 전에없이 친절한 말투로 《가둬 두라는 사람 내보낼수도 없지만 내보내라는 사람 가둬 둘수도 없는게 우리

립장임을 리해하라.》고 했다. 그의 말소리는 낮았지만 나를 내보낼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검열을 끝낸 소지품을 간수가 싸들고 왔고 군복 비슷한 작업복을 내주며 갈아 입으라고 했다.

오냐, 나가마. 저들은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나 같은 늙은 고목이 감옥에서 나간다 해도 무슨 기력이 있어 투쟁하랴 하고 마음 놓을수 있다. 등치고 배 만지는것 같은 수작을 모르는바 아니였으나 나로서의 결심은 이미 섰다. 신념을 고수하기 위한 나의 투쟁은 죽을 때까지 계속 될것이였다.

잠시후 나의 주거지로 지정된 양로원까지 나를 데려 갈 형사 두사람이 왔다. 따라 나가 그들이 가져온 차에 탔다. 시동을 건 자동차가 움직인다 했더니 어느새 감옥문을 빠져 나왔다.

담밖으로 나온것이 대체 얼마만이던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반가왔지만 한편으론 《정말 나왔는가》만 싶고 도무지 실감이 나질 않았다.

감방에서는 해빛을 보기가 어려웠던터라 차창으로 비치는 해살이 눈 부셔 눈을 뜨기가 힘들었다. 머리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간다.

다른 동지들은 언제쯤 나오게 되는가… 《주거제한》이라는 딱지아래서 저들은 나를 또 얼마나 감시할것인가… 혈육 한점 없는 땅에서 늙고 병든채 낯선이들에게 페를 끼치며 욕되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 버리는것이 낫지 않을가… 동지들은 언제쯤이나 만나볼수 있을가…

어느 사이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구세군양로원에 도착했다. 종교단체인 구세군이 운영하는 양로원이라는데 관악산 기슭밑에 숲으로 싸여 있어 그런지

공기도 좋고 흙냄새도 구수했다. 형사들은 나를 사무실로 데려 갔다. 20대 후반쯤 되여 보이는 성이 리씨라는 총무처녀가 웃음 띤 얼굴로 맞아 주었다.

총무처녀는 대장에다 내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적느라 형사와 문답하다가 순간 눈이 둥그래진다.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로인네가 온다는 사실은 미리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도 직접 대하고보니 놀랄수밖에 없었을것이다. 양로원에 오는 늙은이들이야 집도 친척도 없는게 보통이겠지만 나의 경우는 유독 호적도, 주민등록번호도 없었기때문이다.

약간의 절차를 밟은후 총무처녀는 나를 방으로 안내했다. 사무실에서 50m정도 떨어 진 제법 우거진 나무들속에 단층집이 몇채 들어서 있었다.

현관에 들어 서니 왼쪽에는 방들이 렬 지어 있고 오른쪽은 대청 겸 복도였다. 나는 그중 중간쯤에 있는 방에 들게 되였다.

식당, 변소 등을 자상하게 일러 준후 《식사때까지 편히 쉬세요.》하는 말을 남기고 총무처녀는 방을 나갔다. 갑자기 맥이 빠져 벽에 기대 먼산을 보는데 방문이 눈에 들어 왔다.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복도로 한걸음 나섰다.

《문이 열려 있다! 내 손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방문이 잠겨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던것도 아닌데 34년만에 막상 내 손으로 문을 열고 방밖으로 한걸음 나서보니 전신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감개가 북 받쳤다. 마침 아무도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았다면 새로 온 늙은이는 미친 령감이라고 소문이 났을것이다.

방에 다시 들어 온 나는 자신의 처지에 생각이 미쳤다. 나는 결코 자유로운 몸이 아니였다. 나는 여전히 《사회안전법》상의 《주거제한》처분을 받고 있는 처지였으니까. 보안감호소에 가둬 두라는 보안감호처분이 《주거제한》처분으로 변경되였을뿐이였다.

나는 주거지가 없는 행정구역을 허가없이 벗어 날수 없었다. 벗어 나자고 할 때는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아 떠나야 하고 내가 방문한 행정구역의 경찰서에 가서는 왔다고 신고를 해야 하며 돌아 와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3개월에 한번씩 그동안의 생활을 경찰서에 보고해야 한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돌아 다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는것이다. 내 마음대로 이사를 갈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모든 부자유는 내가 《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는 자》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결국 눈에 보이는 쇠사슬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바뀌였을뿐이였다.

다시 방안으로 돌아 와 눈을 감고 앉았다. 머리속은 텅 비여 버린것만 같은데 눈앞에 한 녀인의 얼굴이 떠오른다. 단정하게 입은 저고리에 쪽진 머리, 웃는지 우는지 모를 얼굴표정… 어머니… 그렇다! 어머니였다. 50년 7월 전선으로 떠나는 이 아들앞에서 눈물을 보일수도 없고 웃음을 띠기도 힘들어 어머니는 그런 표정으로 아들을 보내셨다.

이제는 어머니도 저세상사람이 되셨을것이다. 불효한 이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 지친 몸으로 눈을 감았을것이다.

(아! 어머님, 환갑도 림종도 못해 드린 이 아들이 머리가 허연 일흔둘이 돼서야 옥문을 나왔습니다. 어머님묘앞에서 땅을 치며 통곡할 그날은 언제나…)

생각을 잇다가 그만 목이 메였다. 조국통일의 그 날, 어머니묘소에 성묘할 그날이 곧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일흔을 넘긴 고혈압환자에겐 하루하루가 알수 없는 나날인것이다. 나뿐아니라 오랜 령어생활을 한 동지들중엔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동물성지방 과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고혈압은 장기간의 구속에 의한 정신적압박이 원인이 아닐가 싶기도 하다.

(만약 혈압이라도 터져 반신불구가 된다면…) 아침에 차속에서 하던 생각을 다시 이어 갔다. (구차하게 낯 선이들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어 버리는게 옳겠다. 그전에 나에게 남아 있는 과제는 어떤것이 있을가?)

무심코 시선이 가닿는 방구석에 원주필이 한자루 굴러 있었다. 누가 빼앗아 가기라도 할세라 나는 얼른 가서 주어 들었다.

감옥에서는 죄수들에게 필기도구를 주지 않는다. 기껏해야 편지를 쓰러 나가서 잠간 만져 볼수 있을뿐이다. 그러나 남쪽에 연고자라고는 없는 내가 편지를 쓸 곳이 있을리 만무했다. 이래저래 펜을 만져 본지도 징역해수만큼이나 되였던것이다.

펜이 있었다면 무엇을 했겠느냐고 물으실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일기니 자서전이니 하는것을 쓰지도 않았겠고 써봐야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하지만 종군기자로

서 내가 취재하고 목격한 수많은 동지들의 영웅적인 행적만은 반드시 기록해 두고 싶었다.

34년 감옥살이하는 동안 나는 그 기억들이 내 머리를 떠날세라 밤이나 낮이나 지리산에서 내가 보고 들은것을 되새기군 했었다. 보안감호소 초기에 잠간 한방에 세명씩 기거했을 때 나는 같은 방에 있게 된 기억력이 비상한 젊은 동지에게 내 머리속에 든 지리산유격대의 력사를 일러 주고 좀 외워 두라고 부탁한 일도 있었다. 자꾸만 나이 먹어 가는 내 머리나 육신을 믿지 못했기때문이였다. 하지만 본인의 절실한 체험이 아니였기때문이여서일가? 한주일쯤 지난 뒤 다시 물어 보니 이 동지가 지명이니 인명들을 모두 잊어 버린게 아닌가. 할수없이 젊은 동지에게 의지할 생각을 버리고 다시금 내 기억들을 다져 나갔는데 얼마후 그 동지는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젊은이가 늙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버렸으니 사람의 일이란 알수 없는것이다.

나는 손안에 있는 원주필을 만지작거리며 내 기억들을 되도록 빨리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산에서 《조국통일 만세!》를 웨치며 죽어 간 동지들의 청춘과 투쟁과 애국심을 기록해 후세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이 일이야말로 죽을 날이 다된 인민군종군기자의 최후의 임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굴리고 앉아 있는 사이에 어느덧 저녁이 되였다.

나와 함께 지내게 될 세사람의 로인이 하나씩 방으로 돌아 왔다. 한사람은 벙어리였고 또 한사람은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네 집도 가난하여 양로원에 왔다는 늙은이였다. 나머지 하나는 상당히 건달기

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였다. 그는 들어 오자마자 새로 온 나를 흘끗 보더니 인사 한마디없이 방바닥에 철썩 앉아 화투패부터 떼기 시작하였다. 모두들 나를 방식구로 하는게 그다지 달갑지 않은듯 하였다. 나 역시 마음이 편할리 없었다. 감옥밖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흘러 갔다.

처음 먹어 본 약밥

불안한 하루밤을 지내고나니 뜻밖에도 궁중교회의 박홍자사모님과 리미순전도사가 찾아 왔다. 너무나 반가왔다. 그들은 나에게 입힐 내의, 샤쯔, 바지, 잠바 등 옷가지 일체에다 허리띠, 시계까지 사가지고 왔다. 나는 비로소 감호소에서 입고 나온 군복 비슷한 작업복을 벗고 30여년만에 사회의 옷으로 갈아 입었다. 서툰 솜씨로 허리띠를 매고 시계를 차며 그들의 자상한 마음씀에 눈시울이 뜨거웠다. 박홍자사모님은 내가 있는 방도 살펴 보고 총무처녀에게 인사도 하고 하더니 나에게 나가자고 하였다. 자기 집에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는것이였다.

두사람과 함께 나와 보니 문앞에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교회차라고 하였다. 다리를 저는 나를 위해 마음을 쓴것이였다. 차를 달려 궁정교회의 목사사택으로 갔다.

사택에 들어 서니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현관에 들어 서니 기분이 좀 이상했다. 안방도 있고 건넌방이 있고 마루도 있고 부엌에서 맛 있는 음식냄새가 풍겨 나오는 그런 집에 들어 서본게 대체 얼마만인가…

50년 7월 흥남의 내 집에 어머님, 안해, 어린것을 두고 떠나온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었다. 나를 보내며 우는지 웃는지 모호하였던 어머니의 모습이 갑자기 스쳤다. 내가 좋아 하는 풋고추와 된장을 챙겨놓은 밥상을 들고 들어 오던 안해…

곧 사모님과 리전도사가 상을 들여 왔다. 30여년간 꽁보리밥 한덩어리로 허기를 채워 온 내가 한스러웠던지 사모님은 이것저것 맛난 음식을 많이도 만들었다. 음식들이 얼마나 맛 있었는지를 자꾸 주어섬기면 주책스러운 늙은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따뜻한 안방에 앉아 식사를 해본것이 40년전 내 집을 떠난후 처음이고 보면 이런 심정을 조금은 리해할수 있으리라.

많은 음식중 약밥이 특히 맛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때 약밥을 처음 먹어 보았던것이다. 그 말을 했더니 사모님은 《함경남도에서는 약밥 안해 먹는가봐요.》하였다. 그건 아니였고 일제때는 나를 키워 주신 외삼촌이 돈이 많은분이였지만 《이웃은 피죽도 못 먹는데 별미가 다 무엇이냐.》하면서 검소하게 사셨기때문에 구경을 못하였고 광복후에는 너무 바빠 그런 음식을 찾아 먹을새가 없었던것이다. 남쪽에 와서는 바로 전날 감옥에서 나온 나였으니 더더욱 먹을 기회가 없었을수밖에.

이 말을 들은 사모님이 《아이고, 세상에…》하더니 부엌에 가서 약밥을 도시락에 싸가지고 왔다. 갈 때 가져 가라는것이였다. 이후로도 나는 궁정교회에만 가면 약밥을 얻어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차대접까지 받고 있는데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태껏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교에 귀의하여 앞으로의 일을 하느님께 맡겨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목사인 그로서는 당연히 할만 한 얘기였지만 나로서는 대답하기가 난처하여 그저 웃고만 있었다. 34년간 감옥에서 전향하지 않았던것이 결국 그리스도교에 귀의하기 위해서였던가. 말도 안될 일이였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전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가. 나의 심정을 엿보았는지 옆에서 박사모님이 남편을 만류하는것이였다.

《그런 말씀 마세요.》

그 말에 목사님도 빙그레 웃었다.

《그러리다.》

그후로는 사모님은 물론 목사님도 두번 다시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립장에서가 아니라 나의 립장에 서서 도움을 주는 그들 부부와 리전도사가 정말 고마왔다.

조선인민군 종군기자의 최후의 임무

양로원생활은 상당히 힘들었다. 배가 고프거나 추위에 떠는것도 아니였는데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다지 사교적이지 못한 내 성격탓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양로원생활이 내가 30여년간 동지들과 함께 해온 공동체생활과 너무나 다르다는데 있었다.

기본적인 식의주는 해결되지만 결코 윤택하다고는 할수 없는 생활이다보니 로인들은 점점 더 재물에 탐욕스러워 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술 궂어

지는듯 하였다.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도 과자 한봉지를 가지고 싸움을 벌리기가 일쑤였다. 물론 과자 구경하기가 어려운데도 있지만 당시는 크리스마스다, 년말년시다 하여 위문품을 든 자선단체들이 하루에 두번씩 왔다 갈 때도 있을 정도여서 간식거리들이 흔한 편이였다. 그런데도 로인들은 하나라도 더 챙겨 자기 옷장속에 넣어 두려고 아귀다툼이였다.

보리밥 네숟가락에 배를 곯으면서도 삼엄한 감시를 피해 동지에게 빵 한봉지라도 건네주려고 한주일을 벼르던 우리 동지들의 삶의 자세와는 하늘과 땅차이였다. 서로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 한방에서 한이불을 덮고 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일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로인들간의 싸움이 심해 지면 총무처녀가 와서 타이르고 꾸짖기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서로 다른 방으로 떼여 놓았다. 그럴 때마다 내가 공연히 총무처녀 보기가 민망하여 나라도 말썽없이 지내야겠다 싶었다. 그래서 누가 뭐라 듣기 싫은 소리를 하여도 일체 대꾸하지 않았다. 내가 받은 위문품이나 박사모님이 들고 오는 간식거리들도 모두 한방 로인들에게 나눠 주었다.

얼마후 나는 내가 양로원들사이에 《새로 온 바보 늙은이》로 통하고 있음을 알게 되였다. 시비를 걸어도 반응이 없는데다 제 먹을것을 죄다 남 주어 버리니 바보로 보였던 모양이다. 총무처녀는 내 사는 모양을 짐작하고 있었던 모양이였다. 남몰래 은근한 친절을 베풀군 하였다. 간혹 나를 찾는 전화가 오면 사무실에서 내 방까지 100m는 될터인데 무선

전화기를 가지고 와 통화를 할수 있게 해주었다. 로인들이 모두 100여명이나 되기때문에 급한 용무가 아니면 전화가 와도 바꾸어 주지 않고 나중에 용건을 전해 주는게 보통이였는데 말이다. 후에 다른 양로원에 있던 동지들에게 들으니 거기서는 전화가 와도 바꿔 주기는커녕 전화 왔다는 사실조차 알려 주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하였다.

양로원로인들이 먹을것을 가지고 아귀다툼을 벌리는 광경을 보면 볼수록 동지들이 그리웠다. 이따금 서준식동지가 찾아 와 감호소에 남아 있는 동지들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 고령자로부터 한두사람씩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나처럼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은 전국의 양로원이나 갱생보호소 같은 곳에 한사람씩 뚝뚝 떼여 수용해 놓았다는것이였다. 서동지는 감호소시절이나 마찬가지로 자기 부모나이벌 되는 우리들을 자기 손으로 돌볼 여건을 만드느라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우리가 감옥살이를 시작할무렵 현해탄건너 일본땅에서 태여난 아기가 20대 청년이 되여 조국을 찾아 와 이 땅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갇혀 있던 우리들과 만나게 되고 마침내 뜻을 함께 하게 된것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다.

한방 로인들은 낮이면 방에 붙어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모두들 구경거리나 소일거리를 찾아 다니는것 같았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책들을 보는데는 안성맞춤의 환경이였다. 그런데 막상 책을 들고 앉아있노라면 활자사이로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르군 하였다. 《조국통일 만세!》를 웨치며 산에서, 형무소에서, 감호소에서 죽어 간 수많은 조국의 아들딸들, 34년 감옥생활로 청춘은 가버리고 이제 백발이 되였다 한들 내 어찌 그들을 잊을것인가.

나는 이미 양로원에 온 첫날에 그들에 대한 기록을 남길 결심을 했댔다. 여건이 허락치 않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을뿐이였다. 그런데 더는 그 일을 미룰수 없다고 깨닫게 한 날이 왔다. 지리산에서 함께 싸운 동지들을 모독한 책자와 텔레비죤극을 보았던것이다.

《남부군》이라는 책도 보고 리병주라는 작가가 쓴 《지리산》이라는 소설을 텔레비죤극으로 각색하여 꽤 오래동안 방영된 프로를 양로원 로인들속에 끼여 지켜 보면서 나는 비분에 몸을 떨었다.

지금쯤 지리산 어느 기슭에서 한줌의 흙으로 잠들고 있을 조국의 아들딸들, 그들이 적의 총탄에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웨쳤던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의 절규들… 지리산근처에도 안 가본 작자들, 지리산유격대의 변절자들이 그날의 함성을 롱락하고 있었다.

더이상 침묵할수는 없었다. 내 나이 일흔둘, 인생의 마지막황혼을 바라보며 지난 날 지리산의 력사를 기록해야 한다. 더불어 그들이 어떻게 교형리들의 악형속에서도 신념을 지켜 싸웠는가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것이 인민군종군기자의 마지막임무이기도 하다. 나는 이 하나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살아 남았던것이 아닌가.

이런 결심을 세우고 머리속에서 다시한번 기억을 더듬어 나가노라니 나의 곁에서 떠나간 동지들이 더욱더 못 견디게 그리워 졌다. 동지들이 죽어 간 보안감호소 사동옆에 피였던 개나리를 생각하며 나는 우선 그들에게 바치는 서툰 노래를 하나 지어 보았다.

개나리의 노래

날새조차 얼씬 않는
절벽 같은 담밑에는
누굴 보라 피였는가
앙상하게 늘어 서서
엄동설한 추운 겨울
찬바람이 까칠한데
껍질속에 간직한 꽃
얼가얼가 저어하며
노란 봄꿈 꾸노라니
잔둥만둥 겨울잠을
따사로운 봄해볕이
살짝 깨워 일으키니
선잠 미처 깨기전에
봄물 빨아 올리며
뾰족뾰족 솟아 올라
봉오리진 꽃봉오리
활짝 피여 노란빛을
곱게 뿜는 개나리여

고운 얼굴 새색시들
새노란 저고리의
노란색에 반하여
노랗게 피였는가
분렬된 조국에서
갈라 진 형제들이
보고 싶어 눈물 짓는
서러운 조국에서
통일 위한 불길속에
타올랐던 우리들
해빛 한점 볼수 없는
캄캄한 좁은 독방
습기와 어두움에

피기 말라 하얀데
희다희다 못하여
노랗게 떠버린
노란 얼굴 투지 닮아
노랗게 피였는가

아름다운 조국의
푸른 봄 산과 들
녹 쓸은 철조망이
들어 선 밑에도
노랗게 활짝 피여
개나리는 부른다
나비야 노랑나비
나를 닮은 나비야
총칼이 번득이는
장벽을 헤치고서
저기 북쪽 날아 가
우리 형제 입 맞추고
입술 묻은 그 꿀물
마르기전에 날아 와
저기 잠든 우리 형제
뫼등우에 입 맞추라

그때로부터 매일 나는 한방 로인들이 외출한 틈을 타서 기억들을 기록해 나갔다. 지리산에서의 유격투쟁외에도 내가 목격한 일제하의 항일투쟁, 50년대이후 좌익수들이 처한 가혹한 환경들도 기록에 포함시켰다. 막상 쓰다보니 기억이 불투명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우선 1차로 기억해 분명한 부분들부터 기록했다.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쓸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러나 전향을 거부한 《빨갱이》로 《주거제한》이라는 딱지아래 감시 당하고 있는 내 처지에서

는 집필조차도 남의 눈을 피해야 했다. 우리를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려는 자들이 의연 권력의 자리에 있는한 기록을 세상에 발표할 때까지는 원고집필을 숨길 필요가 있었다.

나는 그래서 같은 방 로인들이 외출했다 돌아 오는 저녁시간이후에는 눈을 감고 머리속으로 옛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그들이 나가고 없는 낮동안 그것을 원고지에 옮기군 하였다. 그러나 낮이라고 해도 다른 방 로인들이 불쑥 문을 열고 들어 오기도 하고 양로원직원들도 한번씩 들여다 보군 하였기때문에(양로원의 총무처녀나 간호사는 정말 친절하게 나를 돌봐 주었다. 고혈압에 나쁘니 담배 끊으라고 간호사에게 야단도 많이 맞았다. 그들이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으나 원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게 좋을것 같았다.) 집필은 아주 더디게 진행되였다. 써나가다보니 빠뜨리고 지나왔구나 싶은 부분이 뒤늦게 생각나군 하였지만 우선 초고를 완성해서 안전하게 보관해 놓고 다시 틈틈이 보충하는게 좋을것 같아 초고를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서둘렀다.

일흔두살이라는 나이와 여지없이 파괴된 육체가 언제 쓰러질지 나도 장담할수 없었고 《보안관찰법》이라는것이 언제 다시 나를 덮쳐 담장안에 집어 던질지 예견하기 어려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조선인민군 종군기자로서의 마지막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였다.

부칠수 없는 편지

세월은 빨라 어느덧 해가 바뀌였다. 양로원에서 설날에 떡국을 먹고 텔레비죤에서 제수를 진설하는 법이 어떻고 하는 방송을 보면서 고향생각이 아니 날수 있겠는가.

1900년생이시니 살아 계신다면 어머니는 아흔이시겠지. 하지만 아직껏 이 세상에 계시리라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홀어머니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중로동으로 청춘을 보내신분이 며느리, 손녀 얻어 잠간 삶의 재미를 맛 보시는듯 하다가 다시 유복자 아들을 잃으셨으니 그 마음의 심화가 오죽하셨을것인가.

이제 34년만에 옥문을 나왔으나 아직도 어머니제상앞에 절 한번 올리지 못한 나, 새해아침 어머니를 생각하다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썼다. 써도 부치지 못할 편지, 부친다 해도 받아 보실분이 안 계실 편지였다.

소용 없는짓인줄은 알고 있으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수가 없을것 같았다. 비록 부칠수도 없는 편지였지만 그것은 어머니께 드리는 나의 마음이였으므로 나는 그 편지를 간직해 두었다.

며칠후 새해라고 이것저것 잔뜩 꾸려 들고 찾아온 박홍자사모님과 리미순전도사가 내가 책상으로 쓰고 있던 작은 밥상우에서 이 편지를 보았던 모양이였다.

《이 편지를 고향에 전할 방법이 없을가요?》

《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허허 웃는데 그들은 기어이 그 편지를 달라더니 가지고 갔다. 얼마후 두사람에게서 련락

이 왔는데 《편지를 직접 고향에 보낼 방법은 없지만 신문이나 잡지에 실으면 어쩌면 고향에서 보실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또 설사 고향에서 내 편지를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는걸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뒤말에 대해서는 나도 그렇겠다고 생각은 했으나 별것도 아니면서 위험하기만 한 편지를 실어 줄 언론기관이 있겠는가 싶었다.

며칠후 다시 련락이 왔는데 그 편지가 《말》이라는 월간지에 실리게 되였다고 하였다. 《말》은 바른 글을 쓰다 신문사에서 쫓겨 난 기자들이 모여 만든 잡지인데 그야말로 정론지라고 했다. 그때까지 나는 《말》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감호소측은 보수적인 신문사에서 펴내는 시사지조차 일체 구독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재야언론인 《말》은 내가 그 존재조차 알수 없었던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쓴 글을 싣겠다는걸 보니 용기 있는 언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달쯤 지났을가. 89년 3월 초였던것 같은데 내게 편지가 한장 왔다. 워낙 오래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지라 온통 오랜만에 해보는 일들뿐이였지만 편지 받는 일 역시 마찬가지였다. 신기한 마음으로 겉봉을 보니 《말》지의 신준영이라는 기자가 보낸것이였다. 뜯어 보니 내가 쓴 편지가 《말》 89년 4월호에 게재될것인데 책이 나오면 책과 원고료를 가지고 찾아 오겠다는 내용이였다.

내 편지가 활자화된다는 사실보다는 이 나라의 참언론과 거기에서 일하는 기개 있는 젊은 기자에게 더욱 관심이 갔다. 기대속에서 《기다리고 있겠노라.》 답장을 보냈다.

젊은 녀기자 신준영

89년 3월 말쯤 《말》지 신기자가 찾아 왔다. 이름과 글씨로 보아 청년이리라 짐작했었는데 뜻밖에 녀학생 같은 녀기자였다. 그런데 체구도 조그마한 사람이 상당히 큼직한 짐꾸레미를 들고 왔기에 뭔가 했더니 창간호부터 그달까지 발간된 《말》지 34권을 모두 싸들고 온것이였다.

《오래동안 신문도 못 보셨을텐데 저희 책을 훑어 보시면 정세를 리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 가져 왔습니다.》

《그 무거운걸 어떻게 들고 왔소?》

《선생님께서 아직 〈말〉지를 모르실것 같아서 직접 읽어 보시고 판단하시는게 제일 빠르겠다 싶어 힘 좀 썼습니다.》

신기자는 내가 출소후 만나게 되였던 여러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있었다. 우리의 현대사, 《사회안전법》, 감옥생활 등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내가 《기자는 어떻게 우리들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가?》하였더니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덕분이라고 하였다. 80년대 들어 대학생들중에는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졌는데 이들중 많은 수가 시위를 주동해 교도소에 가고 거기서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나오기때문에 모두들 장기수에 대한 탄압에 분노하고 있다는것이였다.

그 말을 들으니 우리가 손발 묶여 담장안에 갇혀 있는 동안 이 땅의 나어린 후배들이 이토록 름름하게 자라났구나 싶어 가슴이 벅찼다.

신기자가 다시 한쪽 꾸레미를 풀어 내게 주는데 한 1,000장은 될듯 한 원고지와 원주필 수십자루였다.

《선생님께서는 원래 기자의 임무를 띠고 남쪽에 내려 오셨는데 감옥 사시느라 그 일을 다 못하셨다고 봐야겠지요. 이제는 못다 쓰신 기사를 완성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펜과 원고지를 가져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장 발표하시든 발표를 보류하시든간에 구멍 뚫린 력사의 페지를 복원하기 위해 그간 헤쳐 오신 격동의 력사를 지금부터 꼼꼼하게 기록해 나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신기자의 이 말은 나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다.

《반공》의 허위속에 파묻힌 지리산유격대전사들의 진실을 남몰래 기록해 나가고 있던 나에 대한 커다란 고무였다.

전쟁직후 수만명에 달했다는 좌익수들의 수를 생각하면 감호소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우리들 51명 동지들은 모두들 자신들의 활동령역에서 살아 남은 단 한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단 한사람만 살아 남아도 력사에 진실을 증언할것이라고 웨치며 죽어 간 동지들, 혹은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지리산에 뼈를 묻은 동지들, 그들을 위해 살아 남은 내가 할 일은 그들의 진실을 세상에 증언하는것이라고 나는 매 글줄마다에서 다짐하고 있었다. 그런데 80년대에 성장한 젊은 후배의 입에서 내 생각과 같은 얘기를 들으니 나는 《이것이 력사와 시대의 요청일것이다.》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시대의 요청을 재확인해 준 젊은 후배의 지적과 그가 가져 온 원고지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

《절차가 하나 남았습니다.》

신기자가 흰 봉투와 령수증용지를 꺼냈다. 내가 쓴 편지에 대한 원고료라고 했다. 사양하였으나 《안 받으시면 우편으로 부치겠다.》는 말에 받아 넣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며 령수증에 지장을 찍으라기에 찍었는데 내 이름과 주소를 적던 신기자는 갑자기 소리내여 웃었다.

《선생님, 주민등록번호 없으시지요?》

내게 원고료라는 수입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도 호적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세금을 물리겠는가, 신기자가 세금청산에 필요한 사항을 적다가 그 점을 나중에야 깨닫고 웃은것 같다.

가방을 둘러 메고 활발하게 걸어 가는 신기자의 뒤모습을 보니 그 옛날 흥남에서 일하는 재미에 밤낮없이 돌아 다니던 내 젊은 날이 떠올랐다. 내 청춘은 갔지만 조국땅에 자라나고 있는 새 세대를 생각하니 절로 가슴이 훈훈해 졌다.

이왕 말이 난김에 신기자에 대해 몇마디 더하고 싶다.

신기자는 1963년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생이다.

그는 처음의 수기 《전 인민군종군기자의 수기》가 월간지 《말》에 련재되는데 많은 역할을 했었고 그후 내가 보충한 원고와 나에게서 취재한 자료를 가지고 《리인모》란 한권의 책을 만들어 냈다.

그는 나의 처지를 진심으로 동정했고 가족과 떨어 져 40여년간을 십전구도하며 살아 온 《비전향장

기수 리인모》를 만들어 낸 조국의 분렬로 인한 비극을 뼈 아프게 가슴에 새긴 새 세대였다.

신기자와 교제하면서 나는 그에게서 친딸과 비슷한 정을 느꼈다. 따라서 헤여 질 때는 그 무엇이든 그의 손에 쥐여 주고 싶어 안달아 했다. 이에 대해 신기자도 《분노와 투쟁으로 평생을 일관해 온》 나에게서 《여느 시골로인 같은 소박한 인정을 발견할 때마다 무척 신기해 하였다.》고 쓴바 있다. 그러나 그에게 기울어 지는 나의 정을 어떻게 시골로인의 인정과 같은것이였다고만 말할수 있겠는가.

나는 그에게서 이 땅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의 다른 한 모습을 보는것만 같았다.

그를 대할 때마다 서울 명동성당 교육관 옥상에서 《모든 정치범의 즉시 석방, 올림픽남북공동주최, 미군철수》를 웨치며 투신자살한 조성만렬사와 같은 열혈의 청춘들의 모습을 련상하게 되는것이 무엇때문인지… 아마도 그것은 그런 렬사들의 가슴에 뛰고 있는 정의와 량심의 심장, 민족애의 열정이 신기자의 그것과 같다고 느꼈기때문일것이다.

신준영은 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분렬된 민족의 슬픔을 세상에 깨우쳐 주었을뿐아니라 자신이 국제적십자사에 북으로의 나의 송환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으로 나의 송환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어쨌든 출옥이후의 나의 생활은 신준영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여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것이다.

신준영과의 상봉이후 나는 《말》지를 열심히 들여다 보았다. 겉모양은 화려하지 않지만 내용이 알

차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대부분의 기사들이 글자를 아는 사람이면 읽고 리해할수 있을 정도로 쉽게 씌여 진것이 마음에 들었다. 언론은 대중의것이여야 하니까.

양로원에서 300m쯤 나가면 자동차가 다니는 큰 도로가 나오는데 그 길가에 책방이 하나 있다. 거기 나가 책구경을 하는것도 내 일과중의 하나였다. 물론 책은 거의 안 사는데 고맙게도 책방주인이 박대하지는 않았다.

《말》지를 알고 나서보니 그 책방에 《말》지도 있었다. 주인에게 잘 팔리냐고 했더니 잡지중에서는 많이 나가는편이라고 하였다.

그무렵부터 나는 《말》지의 애독자가 되였다. 고맙게도 신기자는 매달 꼬박꼬박 책을 거저 보내주었다.

《사회안전법》대신 《보안관찰법》

그해(89년) 5월 6일에는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 서준식동지가 배필을 맞은것이다. 신부는 서동지보다 열몇살 어렸는데 몸매는 가냘파 보이면서도 눈빛이 또렷한 녀성이였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과연 새 세대가 왕성하게 자라나고 있구나 하고 다시한번 실감할수 있었다. 두사람이 서로 가르치고 이끌며 훌륭하게 살아 갈것을 기원하였다.

또한 결혼식장에서 그렇게도 보고 싶던 동지들을 만나 너무나 기뻤다. 결혼식장에 오면서도 입고 올 양복이 없어 잠바들을 걸치고 온 머리가 허연 늙은 이들이 서로 부여안고 어린애들처럼 즐거워 하는 모

습을 상상해 보라. 다른 하객들의 눈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든 신경을 쓸 겨를도 없이 우리들은 그저 반가와 어쩔줄을 몰랐다. 그런데 듣자니 몇몇 동지들은 담당형사의 제지로 식장에 오지 못하였다 한다. 서동지의 결혼을 축하하고 오랜만에 동지들을 만난다는 기대에 잠을 설쳤을 그들이 집에서, 양로원에서 방안에 갇혀 분을 삭이고 있을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해 5월 《사회안전법》이 페지되였다고 하더니 곧 이어 6월 16일 《보안관찰법》이란 새법이 대신 생겨 났다. 《사회안전법》에서 보안감호조항 즉 감호소에 집어 넣는 처분은 없어 지고 보안관찰과 《주거제한》처분만이 남았다. 언뜻 보면 감시가 약화된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였다. 보안관찰이나 《주거제한》처분을 당하는 우리들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여러 항목에 걸쳐 자세하게 또 자주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어길 때는 교도소로 보낸다는 조항이 붙어 있었다. 즉 변화는 감호소대신 교도소라는것일뿐이다.

이 법에 의하면 나는 담당형사가 가지 말라거나 만나지 말라는 사람은 만나서는 안되며 그들이 부르면 반드시 달려 가야 하고 그들이 정해 주는 곳에서만 살아야 했다. 하여간 이 모든것중 어느것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교도소에 보내 2년이하의 징역을 살리겠다는게 새로 공포한 《보안관찰법》이였다.

그해 11월 나는 이 법의 《위력》을 몸소 체험했다. 그무렵 《민가협》에서 《사회안전법》출소자환영대회라는 행사를 마련했는데 행사날 새벽부터 형사가 양로원에 와서 못 간다는것이였다. 젊은 형사들이 완력으로 등을 떠미는데 내가 다른 도리가 있

겠는가. 하루종일 방안에 앉아 울분을 삭이는수밖에. 나중에 들으니 그날 탈출에 성공해 《무사히》 행사에 참석한 동지들은 6명밖에 되지 않았다는데 그나마 모두들 귀가길에 경찰에 잡혀 가 수모를 당했고 형사립건된 동지도 있다고 하였다. 나이도 많고(당시 78살) 지리학 교수출신으로서 학식과 인격으로 우리 동지들에게 존경 받아 온 최남규선생은 이때 경찰서지하실에서 알몸으로 취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리스도교인과 사회주의자의 친교

89년 10월 10일에 있은 일이다. 남에서 나는 10월 10일을 생일이라고 하였다. 왜 그렇게 되였는가는 앞에서 언급하였기에 더 쓰지 않겠다. 그날은 나에게 조선로동당원이라는 자각을 굳게 해주는 날로 되여 왔다. 이날도 나는 양로원의 정적속에서 풍산의 나날을 더듬어 보고 있는데 박사모님이 생일을 축하 드린다며 자기 집에서 생일상을 차렸다고 하여 비로소 《내 생일》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또 《몇십년만에 처음》하는 소리가 나올판인데 사실이 그랬다. 친척 한사람 없는 남쪽땅 서울에서 잘 차린 생일상을 받은 내 마음이 어떠했으랴. 리미순전도사 또한 나를 《할아버지》라 부르며 항상 살갑게 굴었다. 나 역시 그 모습이 친손녀같이 귀여웠고 아예 《미순아》하고 부를 정도로 친숙해 졌다. 미순이는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갈 때면 내가 넘어 지기라도 할세라 꼭 내 손을 잡고 걷는다. 내가 오히려 미안했다.

이 두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감호소에서 자매결연하였던 여러 가족 없는 동지들에게도 꾸준히 정성

을 쏟고 있다. 정기적으로 찾아 가 위안하고 명절이면 쓸쓸할세라 자기 집에 초대하고 가끔씩 음식점에 데려 가 별미음식을 맛 보게 하는 등 그들의 정성을 라렬하자면 끝이 없다. 한두번 생색내고 마는 것도 아니요, 몇년째 한결같이 정성을 쏟는게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그렇다고 두사람이 우리들을 먹고 입히는데만 열성이였던것은 아니다. 두사람은 《우리가 장기수로인들을 계속 만나다보니 많이 물들었다.》고 우스개소리를 자주 하는데 그들은 우리 장기수들의 인권보장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극성스러운 운동자이기도 하다.

89년 가을이던가 당시 평민당에서 량심수의 인권문제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는데 박사모님과 리전도사는 여기에도 달려 갔던 모양이였다. 당시에 보안감호소는 문을 닫은 뒤라 대전교도소에 갇혀 있던 정치범들의 석방문제가 중요관심사였다. 박사모님은 서승동지(서준식동지의 친형, 함께 구속되여 당시에도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었다.)의 자매결연자로서 이미 몇차례나 평민당인권위원회에 서동지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바 있었다. 그런데 서동지의 석방문제는 《한가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성탄절에 나올것이다.》 등등 소문만 떠돌뿐 계속 안개속이였다.

강연회는 성황을 이루었는데 김대중총재도 참석하였던 모양이였다. 강연회가 끝나고 김총재가 퇴장하기 위해 단상에서 내려 오는데 기회를 노리던 박사모님이 쏜살같이 달려 가 김총재를 가로 막았다.

《서승씨 나오는겁니까, 못 나오는겁니까?》

갑자기 웬 부인이 자기앞을 막아 서며 높은 목소리로 량심수문제를 따지고 들자 로련한 김총재도 약간 당황한것 갈더라고 하였다.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나는 무척 놀랐다. 박사모님은 우리들을 만나기전까지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이 조용히 신앙생활에 정진하는 사람이였다고 한다. 드세거나 넉살이 좋은 성품도 아닌 조용한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서 야당총재를 가로 막고 서서 서승동지의 문제를 따지고 들었다니 박사모님도 많이 변했구나 싶었다.

한번은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저희 동네에서 제가 미운 살이 박혔나봐요.》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동네가 《청와대》 바로 옆에 위치한 궁정동이라 이런저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청와대》부속기관에서 동네사람들을 초대한 《미소작전》이 있었는데 유독 박사모님은 빼놓고 부르더라는것이다. 보통사람 같으면 불안해 하거나 최소한 속상해 할만 한 일이겠지만 그는 전혀 괘념치 않는것 같았다.

박사모님과 리전도사는 내가 남쪽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로 가장 믿고 좋아 하는 사람들중의 하나다. 혹 어떤이는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그리스도교인과 사회주의자가 어떻게 그토록 각별한 정을 나눌수 있을가 하고 말이다. 물론 그들은 유일신을 믿는 독실한 그리스도교인들이다. 그런 그들이 나 같은 《빨갱이》를 돌봐 주는 까닭은 무엇일가.

그들은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오직 사상이 다르다는 리유로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학대 받는것을 깊이 동정하며

자신들이 할수 있는한 우리들을 보살펴 왔다. 그들은 우리 동지들과 같은 사람들도 박해 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때 그들이 굳게 믿고 있은것은 그리스도교의 박애정신보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로 되여야 한다는 통일념원이였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기때문에 두 그리스도교인들은 나를 돕고 나는 그들을 믿으며 오랜 세월 친교할수 있은것이 아니겠는가.

인간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감정, 이것을 지닐 때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서로 정이 통할수 있고 화합할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어쨌든 우리는 한민족이 아닌가. 바로 이 감정이 조국통일의 기초가 아닐가 싶다.

그날 박사모님과 리미순전도사를 보며 나는 당시 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문익환목사, 림수경학생, 문규현신부를 생각하였다. 1989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사이에 평양을 방문하여 남녘땅의 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기여를 한 《전민련》고문인 문익환목사의 가슴에 끓고 있은것도 이러한 애국애족의 념원이 아니겠는가.

그해 7월 《전대협》의 대표로 평양에서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했다가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귀환함으로써 《통일의 꽃》으로 불리운 림수경학생도, 림수경학생의 판문점을 통한 귀환을 도와 주기 위해 한몸을 내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문규현신부도 사상과 리념,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쪽의 동포들도 한민족, 한겨레임을 절감하고 통일성업에 뛰여 든것이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로운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감옥에 가두는 족속들이야말로 극악한 민족반역자, 민족의 원쑤가 아닌가. 이런 자들에게 묶여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니 박홍자 사모님과 리미순전도사가 성의껏 차린 생일음식이 목에 걸리는것만 같았다.

《전 인민군종군기자의 수기》를 탈고하다

양로원생활에서 제일 기쁜 때는 동지들이 찾아 오는 때였다. 그들 역시 《주거제한》이라는 딱지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기는 나와 같았으므로 간난신고를 거쳐야 찾아 올수 있었다. 그런만큼 상봉은 더욱 즐거웠다.

동지들과는 주로 지난 날의 투쟁에 대한 회억을 나누었는데 그런 과정에 나는 잊혀 져 가던 사실들을 기억에 떠올릴수 있었고 그것들을 기록으로 옮겼다.

어느 날인가는 서울에서 함북 무산태생의 김병주동지가 찾아 왔다. 그는 지리산유격대에서 나와 함께 싸웠는데 나보다는 퍽 후인 1954년에 체포되였고 10년형을 살았다. 그러니 우리의 재회는 근 40년만이였다. 그때의 반가움이란! 그는 다짜고짜로 양로원에서 나와 자기 집에 가서 살자고 강권했다. 무척 고마왔으나 나는 거절하였다. 그가 자식들을 다락에서 재우고 나에게 방 한칸을 내줄것이 뻔했기때문이였다. 그는 2남2녀를 두고 있었는데 집은 방이 두칸이였고 막로동과 로점상으로 겨우겨우 살아 가는 형편이였다. 하기야 《반공》이 살판치는 남조선사회가 유격대출신인 그에게 넉넉한 생로를 열어 줄리 만무했다. 그의 건강도 무척 좋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도 그는 나를 자기 집에 데려 가려고 찾아 온것이였다. 동지적인 의리라고 할가. 겉보리 한줌을 서로 나누던 지리산시절의 그 변함 없는 동지애가 눈물겨웠다. 이래서 투쟁의 길에서 맺어 진 혁명적 동지애는 영원하다고 하는것이리라.

나는 찾아 오는 모든 동지들에게서 그런 동지애를 보았다. 동지들의 그 뜨거운 사랑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가… 그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이란 동지들의 투쟁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것이였다.

혼자 있는 시간은 거의 모두 그 일에 바쳤다. 나에게서는 그 일이 투쟁이였다. 그 일에서 삶의 보람을 느꼈다. 글줄과 함께 나는 이미 희생된 동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울기도 했다. 그 기록으로 나는 동지들과 여전히 한대오속에 서 있는 자신을 느꼈다.

여름이 다 갈무렵에 나는 드디여 기록의 초고를 끝냈다. 써놓고 제대로 되였나 다시 읽어 볼 틈도 없었으므로 문장은 거칠고 구성도 치밀하지 못한 글이였지만 나로서는 너무나 소중한 글이였다. 그것은 내가 죽기전에 반드시 써놓아야 할 과제였으니까. 다 쓰고 나니 보관이 문제였다. 내가 가지고 있기보다 믿을만 한이에게 부탁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얼마후 박사모님과 리전도사가 찾아 왔기에 사정을 얘기하고 원고보관을 부탁하였다. 제법 두툼한 원고뭉치를 보고 두사람은 깜짝 놀란 표정이였다.

《언제 이런걸 다 쓰셨어요?》

《이런 글은 잡지에 발표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는게 좋지 않을가요?》

《그러면 혹시 할아버지가 또 무슨 피해를 입지 않을가?》

두사람이 다투어 이야기했다.

《앞으로 적당한 때가 오면 발표하도록 합시다.》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원고뭉치를 넘겨 주었다.

얼마후 박사모님에게서 원고를 《말》지의 신기자에게 보여 주었더니 《말》지에 싣겠다며 가져 갔다는 련락이 왔다. 《말》지라면 믿을수 있겠다는 생각에 나는 《잘하였소.》하였다.

그후 내가 쓴 글은 《전 인민군종군기자의 수기》라는 부제아래 《말》지 89년 10월호부터 90년 1월호까지 네번에 나뉘여 실렸다. 그 글이 《말》지에 발표된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수기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 왔고 과분할 정도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내게 건네는 정성은 나 하나가 아니라 내가 기록한 력사속에서 활동했던 모든 동지들을 향한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죽고 나는 살아 있으므로 사람들은 나를 통해 죽어 간 동지들을 보려 하는것이리라.

《수기》가 맺어 준 수많은 인연들

《말》지에 내 글이 련재되는 동안 《말》지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것을 실감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서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 왔는데 대학생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가장 많았던것 같다. 그들은 대개 대학과 소속단체에서 신문편집을 담당하는 젊은이들이였다. 그들과 인터뷰하다 보면 언어습관이 많이 달라 젊은이들이

내 말을 적당히 고치느라 애를 먹는듯 했다. 즉 내가 입에 밴대로 《인민들이…》하면 《민중들이…》로 고쳐 적고 《군중들이…》하면 《대중들이…》로 고쳤다. 또 《국방군》은 《국군》으로, 《동지들을 학살했다.》고 하면 《동지들을 처형했다.》로 바꾸는 식이였다. 젊은 기자들은 이렇게 바꾸면서 미안해했다.

《이북에서 쓰는 단어를 사용하면 공연히 트집 잡히기 십상이라 좀 고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의 고충을 내가 모를리가 있겠는가. 그럴 때마다 나는 선선히 말했다.

《기자선생, 다치지 않도록 알아서 고치시오.》

남쪽의 말, 북쪽의 말, 언어에도 분렬의 장벽은 높은것 같았다. 이런 현상은 제도권언론사의 경우 더 심각했다. 신문, 방송, 외신에서도 기자들이 많이 다녀 갔는데 아예 내 말을 잘 알아 듣지 못했던지 엄중하게 보도한것도 있었다.

나중에는 《남부군》을 쓴 리 아무개라는 사람에게서도 한번 만났으면 한다는 전갈이 왔는데 그때까지도 마음에 노여움이 풀리질 않아 거절하고 만나지 않았다. 또 민족문학을 위해 활동한다는 소설가, 문학평론가선생들도 더러 찾아 왔는데 내가 체험을 기록으로 남긴것에 대해 격려해 주었다.

이때 인연을 맺은후 신세를 많이 진분으로 《한겨레신문》 과천지국장이 있다. 이분은 양로원으로 날 찾아 와 내 손을 잡고 《가까운 곳에 장기수로인이 계신줄 몰랐다.》며 반가와 하더니 다음날부터 나에게 《한겨레신문》을 보내주었다. 얼마후에는 또 그의 부인이 찾아 와 여러가지를 알뜰하게 살펴

주고 갔다. 그뒤에도 지국장부부는 《한동네 사는데》하면서 양로원에 자주 찾아 와 벗해 주었다. 감호소에서 나올 땐 상상도 못했는데 이 사회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일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민주동문회》 회원들의 방문이였다. 법과대학 졸업생들이라 그런지 녀학생은 한사람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 겨울외투를 한벌 사가지고 왔다. 학교를 졸업한후 각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달에 한번정도 만나 친목도 도모하고 회비를 모아 보람 있는 일을 하고저 하는데 《말》지를 보고 이번에는 나를 찾아 왔다고 하였다. 하도 고맙고 기특하여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그들이 달려 들어 나에게 파카라는 그 외투를 입혔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물었다.

《남자들뿐인데 이 옷 사러 장에 다녀 왔소?》

《객지생활하는 총각들이 많아 장보기뿐만아니라 밥도 썩 잘합니다.》

한 친구의 말에 모두들 웃었다. 이런 건전한 젊은이들이 쑥쑥 자라나고 있는데 내 청춘이 간것을 한할 리유가 있으랴 싶었다. 그후에도 그들생각만 하면 절로 웃음이 떠올랐다. 그들은 내가 경남 진영의 김상원선생집으로 옮긴 뒤에도 장보기솜씨를 또 발휘하여 샤쯔와 바지를 사가지고 왔다.

내 조국은 장군님의 품

이래저래 소식이 끊어 졌던 옛 동지들이 《말》지를 보고 나 있는 곳을 알게 되였다며 찾아 오기도 하였다. 그중 김병주동지가 맏딸을 데리고 또다시

양로원으로 찾아 와 정말 반갑게 만났다. 지현이라는 이름의 딸아이는 이미 다 큰 처녀로 직장에 다닌다고 하였는데 어찌나 눈치 빠르고 싹싹한지 마치 친딸 현옥이를 보는것처럼 보면 볼수록 흐뭇하였다. 제 아버지가 일렀는지 지현이는 그후 나를 꼭 제 아버지 대하듯 하였다. 91년 여름에 내가 뇌출혈로 쓰러져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현이는 직장을 휴직하고 부산으로 내려 와 꼬박 한달반동안 내 병간호를 하였다. 나는 어찌다가 베풀지는 못하고 도움만 받고 사나 싶어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꼭 반가운 사람들만 찾아 왔던것은 아니다. 하루는 고향사람이라며 한사람이 찾아 왔다. 자세히 보니 낯이 익기는 익은데 이 사람이 왜 찾아 왔을가 의아하였다. 고향에서 그리 좋은 관계는 못 되였기때문이다. 그는 일제때부터 광신도라 할 정도로 열성적인 그리스도교인이였는데 우리 일군들을 마귀라고 욕을 퍼붓군 하였다. 광복후 남으로 갔다는 소문을 들은게 마지막이였던듯 하다.

그는 남쪽에 와서도 종교적으로 《일관성》을 굳게 지켜 온것 같았다. 남조선사회 개신교의 여러 교파중에서도 사회개혁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개인의 령혼구원에만 치중한다고 알고 있는 교파의 교회에서 그는 중책을 맡아 열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더러 교회의 신문에다 그동안 《빨갱이》짓한것을 회개하고 하느님의 종이 되겠다는 글을 쓰라고 하였다. 그러면 자기 교회에서 내가 여생을 편안히 보낼수 있도록 도움을 줄것이라고 하였다. 어이가 없었지만 내색은 하지 않고 물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런 글을 쓰라고 하오?》

《우리 교회는 소매치기, 강도, 깡패 등 누가 봐도 구제불능이라고 할만 한 사람들도 많이 회개시켜 목회자로 만들었는데 그런 기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내가 글을 쓰면 《평생 전향 안하던 빨갱이가 우리 교회에 나와 회개하였다.》고 널리 선전할셈이였을가? 딱한 사람이 아닐수 없었다. 결국 좋지 못한 낯으로 헤여 지고 말았는데 뒤맛이 몹시 씁쓸하였다. 남도 아닌 한고향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는커녕 리용대상으로 삼으려는 저들이 개인의 령혼인들 제대로 인도할수 있을가 싶기도 하였다.

이처럼 온갖 사람들이 오가다보니 양로원 원장의 잔소리도 들어야 했다. 그의 말인즉 《다른 로인들은 찾아 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당신만 손님이 자주 오면 다른 사람들이 속상해 한다.》는것이였다. 그러니 방문객들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 총무처녀와는 달리 그는 처음부터 나를 경계하는 눈치였는데 내가 잡지에 글을 쓰고 그때문에 여러사람들이 찾아 오는 등 바빠 지자 경계심이 더 높아 진듯하였다.

그런중에도 총무처녀는 내 호적을 만들어 준다고 스스로 나서서 여기저기 뛰여 다니며 절차를 밟아주었다. 덕분에 나는 구세군 양로원을 본적과 현 주소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들여다 보노라니 서글픈 감회를 금할수 없었다.

그와 함께 더욱 그리워 지는것이 풍산의 고향이였다.

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고 기쁨과 환희에 차서 뛰여 다니던 나날들이 떠올랐다. 그 기쁨과 환희속에 나는 순임이와 결혼식을 하였었지. 머리우에는 공화국기발이 휘날리고 곳곳에서 울려퍼지던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소리…

나는 앞에 놓여 있는 《주민등록증》을 다시 보았고 자기네 교회에 귀의하라던 《반갑지 않은 친지》를 생각해 보았다.

나는 영영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 땅에도 인정 있고 정의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니다. 나의 조국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40년나마 떨어 져 있었어도 변함없이 **김일성**장군님의 품, 나의 처자들과 친척, 친우들이 살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용서하시라, 조국이여, 당이여. 운명의 순간까지 그대품에 안기지 못할수 있어도 이 아들은 영원히 그대의 아들, 당의 아들이거니…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비전향장기수 정대철동지의 최후소식

그해(90년) 11월 25일 《한겨레신문》을 읽다가 뜻밖에도 정대철동지의 최후소식을 알고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11월 21일 아침 6시경에 경상남도 통영군 한산섬의 소나무숲에서 그의 시체와 함께 유서가 발견되였다는것이였다.

나어린 지리산의 유격대원으로서 35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속에서 란도질 당하다가 출옥후 1년만에 생을 마친 그의 죽음이 너무나 원통했다.

그는 나와 같은 지리산유격대출신이고 같은 비전향장기수였지만 나는 그와 한번도 말을 주고 받은적이 없다. 그럴만 한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것이 정확할것이다. 청주보안감호소에서 복역할 때 먼발치에서 그를 본적이 있었고 동지들을 통해 그가 누구인가를 들은것이 그에 대해 알고 있는것의 전부였다.

비록 말은 주고 받지 못하였지만 그는 신념으로 나와 얽혀 진 전우였고 동지였다.

1926년 평북도 룡천군에서 태여나 광복후 내무성 군관학교를 다니다가 전쟁의 발발과 함께 남조선해방지역 경비임무를 받고 전라남도일대에 파견되였던 정대철동지는 미군의 인천상륙으로 길이 막히게 되자 지리산에 입산했다. 그가 북으로 후퇴하느냐 지리산에서 싸우느냐 두 갈래의 길에서 스스로 유격대원이 되는 길을 선택한것은 어쩌면 나와 비슷한 전력이였다고 말할수 있겠다. 지리산에서 군사교련을 맡은 교관으로 된 그는 언제나 말이 없고 성실하였으며 전투에서 용맹하였다. 그는 1951년 12월 한 전투에서 심한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채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정대철동지는 놈들의 혹독한 감옥살이를 이겨 내고 1973년에 대전교도소에서 21년 6개월만에 석방되였다. 그때 그의 나이가 47살이였다.

그런데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남회담이 한창이던 시기 《유신》독재체제는 석방된 비전향유격대원들을 합법적으로 재수감하기 위해 《사회안전

법》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1975년 정대철동지를 재판도 없이 끌고 간 《사회안전법》은 그후 14년동안 그의 자유를 짓밟았다.

그는 모든 비전향장기수들과 마찬가지로 갖은 고문과 억압을 다 당했지만 조금도 굴함이 없었다. 한번은 그가 73년 출옥한후 2년간 거처한적이 있었던 경기도의 늙은 오씨로인이 면회 왔던적이 있었다. 선량하고 근면하여 깊이 정들었던 정대철동지가 참혹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로인은 억이 차하며 사람이 살고 봐야 할게 아닌가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입가에 미소를 그리며 대답하였다.

《지조를 지킬줄 아는게 사람이지요.》

그 지조란것이 무엇인가고, 눈에 보이길 하나 손에 잡히길 하나, 더 늙기전에 자식을 보아야 할게 아닌가고 로인은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전향문에 도장 한번 찍으면 아직 늦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보고 가정의 온기를 누릴수 있다는것을 그가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그는 로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는것이다.

《로인님, 만약 누가 로인님에게서 가장 소중한것을 앗아 내려 한다면 얼린다고 듣고 때린다고 내놓겠습니까. 신념이라는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것이지만 사람에게 그처럼 소중한것이랍니다.》

그 신념을 정대철동지는 어떻게 끝까지 지켰던가.

재수감되여 14년의 옥고를 치르고 환갑이 지나 출옥한 정대철동지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나날을 경상남도 통영군 한산섬의 밀감농장에서 보냈다. 오랜 감옥살이에서 상할대로 상한 그의 육체에 갑자기 장

티브스가 덮쳐 들었다. 육체는 더는 지탱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앓다가 병든 늙은이의 죽음으로 명이 끊길수도 있을것이였다. 그렇게 된다면 수십년세월 지조를 꺾지 못해 지랄하던 놈들이 얼마나 쾌재를 올릴것인가.

죽는 대가도 받아 내지 못하고 죽는것처럼 슬픈 일이 없다. 인간의 마지막기쁨, 자기가 죽으면서 원쑤를 죽인다는 그 기쁨마저 빼앗기고 죽을수는 없었다. 각일각 꺼져 가는 생명을 불 살라 그 죽음을 마지막투쟁의 무기로 하는 길밖에 더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한산섬의 소나무밑을 찾아 갔을것이다. 가슴속에 원쑤들이 전률할 신념의 유서를 품고서…

자기 한생을 총화 지은 정대철동지의 유서에는 이런 글이 씌여 있었다.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미력하나마 노력해 왔고 조국을 지상락원으로 잘 살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당에 입당도 했고 노력도 해왔으나 도저히 살 가망이 없어서 부득이 이 길을 택했습니다.

…모든것을 용서를 바랍니다. 현 위치에다 그냥 파고 묻어 주고 그우에다 잣나무나 심어 주셨으면… 마지막소원입니다. 살아서 아무 역할도 못한것이 죽어서나마 한그루 잣나무에 밑거름이 되고저 합니다.》

이 유서를 읽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가 통일된 조국에서 그리운 동지들과 벗들, 부모형제들의 곁에서 생을 마무리했다면 얼마나 마음 편히 눈을 감았을것인가.

나도 역시 죽음이 멀지 않은 늙은 몸, 이제 죽음이 닥쳐 온다면 정대철동지처럼 통일념원을 바라는 유서나 남기고 생을 마쳐야 하는가.

아, 통일은 언제나 오려나. 그때처럼 통일을 강렬하게 바랐던적이 언제 있었을가 싶다.

북쪽땅에 와서 나는 정대철동지에게 《조국통일상》이 수여되였다는것을 알았다.

룡강군에 살고 있는 정대철동지의 누이동생 정희철녀성은 오빠의 돐제사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빠는 죽어서도 조국통일의 억센 나무를 키워 내는 밑거름이 되고저 하였지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오빠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조국통일상〉을 수여해 주심으로써 오빠의 처절한 한생을 조국통일의 영원한 밑거름으로 조국청사에 새겨 주신거예요.

사랑하는 오빠, 우린 마음속에 잣나무를 심었어요. 나도 내 남편과 아이들도 그리고 큰오빠의 아들과 딸도… 그 잣나무는 우리 마음의 억척 같은 기둥으로 언제나 푸르싱싱할거예요.》

나는 정희철녀성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것이다.

조국의 남쪽끝 한산섬의 한 기슭에 외로이 누워있는 정대철동지의 봉분은 오늘도 래일도 남조선 력대 통치배들의 비인간적인 살인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할것이다.

1990년 12월 4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민가협》이 주최한 정대철동지의 추도식이 있었다.

그 추도식이 있은 이후 안해에 대한 나의 그리움은 더욱 커졌다. 그것은 아마 정대철동지의 죽음에서 나도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예감해서였을것이다.

기다림

안해의 소식을 듣다

나름대로 분주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해는 례년에 없이 민족의 통일열기가 뜨겁게 삼천리강토에 굽이친 해였다. 조국광복 45돐을 맞으며 판문점 북측지역에서는 북과 해외동포들의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열렸고(남조선통치배들의 방해책동으로 남측에서는 대표단을 파견하지 못하였다.) 9월달에는 제1차 북남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10월에는 북남축구선수단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북남통일축구경기를 벌렸고 범민족통일음악회가 평양에서 개막되였다. 제2차 북남고위급회담이 10월 평양에서, 제3차 북남고위급회담이 12월 서울에서 계속 진행되였다.

12월 제3차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서울에서는 《90송년 통일전통음악회》가 열렸는데 평양민족음악단이 서울의 《예술의 전당》과 《국립극장》

에서 2차에 걸쳐 남측전통음악단과 합동공연을 하였다.

통일이 당장 눈앞에 박두한것 같이 기쁨과 희망이 민족의 가슴을 가득 채워 주던 1990년, 나자신의 마음속에도 희망과 좌절이 거듭되던 그해 말에는 나를 놀래울 또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90년 12월 20일경이였던가. 《말》지의 신기자가 헐레벌떡 달려 왔다. 무슨 일인가 의아해 하는 나를 양로원근처의 한 조용한 다방으로 끌다싶이 데리고 가더니 그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하였다. 한 도이췰란드교포가 《말》지에 실린 나의 수기를 보고 편지를 보내왔는데 나의 가족소식이 들어 있다는것이였다.

충격적이였다. 신기자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는 걸 지켜 보는데 나도 모르게 손끝이 떨리기 시작한다. 편지를 꺼낸 신기자는 내 안색을 보더니 혈압이라도 터져 쓰러질가 걱정되는지 떨고 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너무 놀라시면 안됩니다. 부인과 자녀분이 평양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 손에 편지를 쥐여 주었다. 편지를 들여다 보는데 도대체 글자가 눈에 들어 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안경이 없어도 그 정도는 읽을수 있는데 보고 또 봐도 읽어 지지가 않았다. 그 눈치를 알았던지 신기자가 설명을 해주었다.

《편지를 보낸분은 신옥자라고 하는 도이췰란드교포아주머니입니다. 간호원으로 취업해 갔다가 그곳에 정착한분인듯 합니다. 이분이 도이췰란드에서 교포운동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모양인데 그곳에서

〈말〉지에 실린 선생님의 수기를 읽고 하도 가슴이 아파 눈물도 흘리고 했답니다. 선생님을 도울 방법이 없을가 생각하던중 마침 지난 8월 범민족대회때 평양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는데 거기서 발행되는 〈통일신보〉 기자에게 〈말〉지를 보여 주면서 선생님의 가족을 찾아 보아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그후 도이췰란드에 돌아 와 한 석달만에 〈통일신보〉 기자에게서 회답을 받았는데 사모님과 자녀분이 평양에 살고 있다고 적혀 있더랍니다.》

(어머님은 가셨구나.)

경황이 없는중에도 그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신기자가 말을 이었다.

《선생님께서 사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한통 쓰셨으면 합니다. 그 글을 저희 책에 실으면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사모님께서 읽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신기자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먼곳으로 날아 가고 있었다. 어머님, 안해, 어린 딸의 모습이 차례로 눈앞에 떠올랐다.

(내 짐작하였던대로 잘 살고 있었구려…)

《내 쓰리다.》

더 앉아 있기가 힘들어 이 말을 남기고 편지를 들고 일어 섰다. 신기자가 양로원입구까지 따라 왔기에 애써 떼여 보냈다. 나무가지를 잘라 만든 지팽이를 짚고 양로원을 향해 걸어 가는데 마치 꿈속을 가는듯 싶었다. 돌아 보니 신기자가 여전히 서서 보고 있었다. 어서 가라고 손짓하고 정문으로 들어 섰다.

방에 들어 가니 다행히도 벙어리로인이 혼자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벙어리인것이 흠일뿐 순한 사람이였다. 오히려 몸이 성해 남을 괴롭히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할가.

그가 깰가 조심하며 편지를 펴들었다.

《안녕하세요.》로 시작된 편지는 신기자가 전해준 내용 그대로였다.

《…리인모선생님의 부인과 자녀분이 평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돌아 가셨음에 틀림 없었다. 어머님이 돌아 가시지 않는 한 안해는 어머님을 모시지 않을 사람이 아니였다. 언제일가. 어디에 모셨을가, 예상했던 일이면서도 다시 눈물이 흘러 내렸다. 림종은 어떻게, 병마에 시달리지는 않으셨을가… 여보, 순임이, 살아 주어 고맙소, 그 피덩어리를 잘 키우구려. 《말》지의 기자선생이 당신에게 편지를 쓰랍니다. 내가 지금껏 당신에게 쓴 편지가 얼마나 되는 줄 아오? 종이도 연필도 우표도 없이 적지도 붙이지도 못하였지만 나는 매일 당신에게 편지를 썼다오… 그 피덩이가 벌써 마흔이라니, 당신이 키웠으니 훌륭한 일군으로 자라났을것이요. 사위는 보았겠지요. 손자, 손녀도 많이 보았소? 사위는 어떠할가, 아이들은 또? 여보 순임이, 살아 주어 고맙소. 살아 주어 고맙소.

그후 며칠간은 워낙 여러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맴돌아 편지를 쓰려 해도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할지 두서가 잡히질 않았다. 신기자가 언제까지 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편지를 쓰는데 몇달이 걸렸을지도 모르겠다. 마음속을 맴돌아

한가닥씩 불거져 나온 외마디소리 같은것만 적어서 신기자에게 주었다. 대체 무어라 썼던지 나는 지금도 그 편지를 생각하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얼굴도 모르는 교포아주머니덕분에 나는 91년 새해를 정말 기쁘게 맞이할수 있었다. 안해와 아이들이 한지붕안에서 오손도손 떡국을 들고 있는 광경을 상상만 해도 40년간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 하나가 풀리는듯 한 심정이였다.

김상원씨와의 상봉

이처럼 기쁘게 맞이한 새해에는 또 새로운 사람과의 뜻 깊은 상봉이 준비되여 있었다. 나를 친아버지처럼 돌보아 준 김상원씨를 만나게 된것이다.

생각해 보면 참 사람의 일이란 알수가 없구나 싶기도 하다. 저 함경도 개마고원에서 나서 자란 내가 같은 민족이라는것밖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경상도 김해땅에 사는 김상원선생에게 로년을 의탁하게 될줄이야. 이 모두가 한겨레, 한민족임에서 오는 동포애의 소산이 아니겠는가.

김선생은 1941년생으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청 사회과에서 공무원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다. 그런데 70년대 들어 《유신》독재가 온 사회를 암울하게 하던 시기 그는 공무원생활을 그만 두고 재야운동에 뛰여 들었다. 그후 《민주회복국민회의》에서 일하다가 정치에 뜻을 두었다. 야당 당직을 맡아 일하다가 고향인 김해지역구 《국회의원》 공천대상에 오르기도 했으나 복마전 같은 공천과정에 환멸을 느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고향인 김해군 진영읍 신룡리 용전부락으로 락향하여

선산을 지키고 물려 받은 전답을 일쿠며 소박하게 살아 가는 농부로 변신한것이다.

그러던중 88년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고 《말》지도 정기간행물등록이 되여 손 쉽게 구해 볼수 있게 되면서 김선생은 두 매체의 애독자가 되였다. 결국 김선생이 두 매체를 통해 장기수문제를 알게 되고 나를 찾아 오게 되였던것인데 그전에 한가지 밝혀 둘 일이 있다. 무엇인가 하면 김상원씨 내외는 결혼할 때 굳게 맺은 언약이 있었다고 한다.

결혼당시 김선생은 《유신》철폐운동에 골몰하다가 썩어 가는 온 나라를 감시, 감독할 곳은 《국회》다 라는 생각에서 정치에 발을 들여 놓고 있던 참이였다. 그런데 당시 재야인 야당에 몸 담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개인적이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지는 세살 먹은 아이도 알만 한 일이였다. 결혼을 앞두고 김선생의 뜻을 리해하면서도 일말의 불안을 가질수밖에 없었을 부인앞에서 김선생은 다음과 같이 맹세를 하였다.

《앞으로 10년간 정치활동에 전념해 보고 보람이 없으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소.》

아울러 두사람은 한가지 맹세를 더하였는데 그것은 《만일 사회를 개혁하는 큰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10년후에는 가난하고 병든 단 한사람이라도 우리 가정에 거두어 돌보기로 하자.》는것이였다.

87년 김해로 락향한 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김선생은 결혼당시의 언약을 실천할 때가 왔구나 했다고 한다.

그래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집에 데려다 거둘 불우한 이웃이라면 우선 고아나 로

인이 있겠는데 고아 같은 경우 자칫하면 성장한 뒤에 대가를 바라는것 같은 결과가 되기 쉬워 의지할데 없는 로인을 모시는게 낫겠다고 결정했다.

로인을 모셔 오자면 천상 양로원 같은데 찾아 가야 하는데 서울시청 사회과에서 공무원생활을 오래한 김선생이 바로 양로원에 찾아 가 모실 로인을 구할만큼 세상물정에 어둡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양로원운영자들이 희생, 봉사정신이 아니라 양로원로인들의 머리수만큼 나오는 국고보조를 바라고 양로원을 운영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거기 가서 〈로인 한분 내주시오.〉 했다가는 정신병자 취급 당하기 십상이지요.》

김선생의 설명이였다.

그래서 옛날 서울시청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을 통해 무의탁로인을 소개 받으려 하고 있던차에 88년 말부터 출감하기 시작한 비전향장기수들의 존재를 알게 되였다고 한다. 김선생은 《내가 모셔야할 사람은 바로 이분들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중 90년 12월 《민통련》 정책실 차장 등을 력임한 재야운동가 김병곤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병곤씨는 김선생의 일가조카벌이 되는데 평소부터 기대가 컸던 큰 인물을 졸지에 잃고 초상집에 가보니 그만 눈물도 안 나왔다. 지금도 김선생은 김병곤씨의 말이 나오면 《참말로 의기 높은 진짜 대장부였다.》고 입에 침이 마른다. 그처럼 자랑스러워 했던 김병곤씨의 죽음이 김선생에게 큰 충격이였을것임은 말할나위도 없다. 김선생은 초상을 치르고나니 무언가 빨리 일을 해야 할것처럼 마음이

급해 졌다. 그무렵 비전향장기수 정대철동지의 최후 소식보도에 접하게 되였다. 김선생은 《인간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수 있나.》하고 탄식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장기수가운데 비전향출소자 제1호로 널리 알려 져 있는 서준식동지를 무작정 찾아 갔다.

생면부지의 서동지를 찾아 간 김선생은 어리둥절해 하는 서동지를 붙잡고 자신의 결심을 얘기한 뒤 적당한 로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이 큰 부자가 아니기때문에 주거환경이 불편한것은 물론 반찬도 도시만 못하고 심심하기도 한 농촌생활에 잘 적응할수 있는분이여야 하므로 김선생은 서준식동지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적당한분을 추천만 해준다면 성의껏 모시겠다는 결심이였다.

한편 서동지로서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김선생 같은 사람이 갑자기 찾아 오는 바람에 적잖이 당황했던듯 하다. 과연 그를 믿고 동지를 보내도 될가 싶었던 모양이다. 몇차례 만나 김선생을 이리저리 《검토》하고난 뒤에야 그의 진심을 리해하게 된 서동지가 내 얘기를 먼저 했던 모양이였다.

서동지의 주선으로 나는 서울 인사동에서 김선생을 만났다.

《선생님성함을 듣는 순간 〈말〉지에 나온 그분이구나 싶어 반갑기도 하고 빨리 뵙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기수로인을 집에 모시고저 결심한 래력을 자세히 이야기하고는 나에게 이렇게 권했다.

《나들이한다는 기분으로 일단 한번 내려 오셔서 보름이나 한달쯤 계셔 보시고 마음을 정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야기를 듣고보니 참으로 놀라왔다. 사실 나는 출소한후 이태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도움을 받아 왔다. 그런데 나를 자기 가정에 한식구로 받아 들이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난것이다.

동료끼리 서로 반목하는 양로원을 벗어 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내심 걱정되는 점도 없지 않았다.

《나로 인해 혹 김선생이 피해를 입지 않겠소?》

《그런 문제는 모두 제게 맡기시지요.》

김선생은 잘라 말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의 진심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래서 나는 더이상 말 않고 《내 수일내로 가리다.》하였다.

김선생은 내게 김해군 진영읍까지의 려정을 알려주고 먼저 귀향하였다. 나는 며칠동안 여러 동지들에게 진영 가게 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김상원씨의 가정

91년 1월 말쯤이였던가. 마침내 김선생의 집을 향해 출발했다. 양로원에는 조용한 농촌에 가서 몸조리를 좀 하고 오겠다고 얘기해 주었다. 거주지 변경절차는 뒤에 미루고 우선 떠나고 본것이다. 다리를 저는 나 혼자 먼길 가는것이 못 미더웠던지 한 동지가 데려다 주겠다고 따라 와 진영까지 함께 갔다.

진영에서 택시로 한 5분쯤 농촌마을로 들어 갔을가. 김상원선생의 집은 용전부락의 끝에 있었다. 집뒤에는 산이 듬직하게 솟아 있었다. 대문으로 들어

서니 왼쪽에는 월파정이라는 현판이 붙은 정자가 한채, 오른쪽에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단층집이 뒤산의 품에 안긴듯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랜만에 마시는 농촌의 공기가 정말 상쾌했다.

김선생내외와 네 자녀가 모두 나와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넓은 창문이 있는 남향방이 나를 위해 치워 져 있었다. 방으로 들어 가 앉으니 김선생이 가족들을 인사시켰다.

김선생의 부인 리필주녀사는 선한 눈빛을 지닌 친절한분이였다. 진영 대창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다. 자녀는 2남2녀로 큰딸 여진(중3), 큰아들 정진(중2), 둘째아들 기진(중1), 둘째딸 영숙(국민학교 6학년)이였다. 하나같이 눈빛이 초롱초롱하여 령리해 보이는데 농촌아이들이여서 그러는지 순하고 수집음을 많이 탔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금방 밥상을 받았는데 리선생이 웃으며 말했다.

《워낙 음식솜씨가 없는데다 인공조미료는 전혀 쓰지 않으니 음식맛이 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희밭에서 거둔 무공해식료품들이니 많이 드십시오.》

아이, 어른이 옹기종기 둘러 앉아 식사를 하니 꼭 고향에 돌아 온것만 같았다. 평양의 안해는 매일 이렇게 정다운 식탁을 받고 있을가.

저녁을 맛 있게 들고 우리 두 늙은이는 김선생과 둘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9시정도에 잠간 나와 보니 막 잠자리에 들려던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할아버지》소리를 들으니 가슴에서 뜨거운것이 치미는것만 같았다. 가정적행복이란 바로 이런것일가. 김선생이 따라 나오더니 나를 위생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애들이 저녁에 좋지 않은 텔레비죤프로나 볼가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 나게 하고 있습니다.》

나도 곧 잠이 들었는데 새벽잠이 없는편이라 일찍 눈을 떴다. 조금 있으니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리선생이 벌써 아침준비하는가 싶어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살며시 일어 나 앉아 어둑컴컴한 창밖을 내다보는데 마루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창밖에 아이들 둘이 지나갔다. 이 집 아이들 같은데 추운 신새벽부터 어델 가는지 궁금하였다. 그런데 한시간쯤이나 있으려니 두 녀석이 신문 한장을 옆에 끼고 돌아 오는게 아닌가.

잠시후 김선생이 《한겨레신문》을 들고 들어 왔다.

《아이들이 첫새벽부터 어델 갔다 옵니까?》

《아이들 나가는것 보셨습니까? 마을에 〈한겨레신문〉을 돌리고 옵니다.》

린근에 《한겨레신문》 보는 집이 스물세집인데 신문 돌릴 아이가 없어 애를 먹는다는 말을 듣고 김선생이 아들형제를 보내주었다고 한다. 요즈음 농촌에서도 부모들이 아이들 공부에 방해된다고 배달료가 얼마이건간에 신문배달 같은것은 아예 시키려 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러니 아직 부수는 적고 지

역은 넓어 시간은 많이 들고 배달료는 적은 《한겨레신문》 같은데는 애를 먹을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망국병, 입시병이 농촌까지 퍼졌습니다.》

김선생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나는 내심 그가 아들교육을 잘 시키고 있구나 싶었다.

그때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둘째 아들 기진이가 조용히 들어 왔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하더니 내 방에 있던 요강을 들고 나가는것이였다. 순간 아이가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 《기진아, 놔두어라.》 했는데 김선생이 도리여 나를 말리였다.

《손자가 할아버지 요강을 비우는것은 우리 고래의 미풍량속입니다. 그속에서 아이들도 생로병사를 배우며 자랄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한 과정이니 말리지 마십시오.》

옆에 있던 동지가 감탄을 했다.

《도시아이들은 로인냄새 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곁에도 안 가려 한다는데…》

수를 마친 우리 두사람은 밖으로 나가 집구경을 했다. 어제 밤에는 미처 못 보았는데 뒤산 중턱쯤에 상당한 규모의 묘소가 높직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김선생에게 물으니 그의 선대중 조선조 성종때 대사헌, 전라도 관찰사 등을 지낸 김극검의 묘라고 했다.

《원래 저의 고향마을은 여기가 아니라 린근의 한림면 퇴래리입니다. 선대중 한림학사가 넷이 나와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데 특히 극자, 검자 선대께서는 대사헌까지 지냈지만 몹시 가난하여 말년엔 딸네

집 행랑채에 거처하다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이를 가상히 여긴 연산군이 현재의 선산에 묘자리를 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17대 종손이라 묘와 월파정을 돌보기 위해 여기 들어 와 살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있던 동지가 김선생의 선산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왕이 내려 준 묘자리라 그런지 퍼그나 좋은 자리 같습니다. 나야 풍수는 잘 모르지만 묘소 좌우로 흘러 내린 산자락을 보시오. 저게 바로 좌청룡, 우백호 하는 그런 형세 아니요?》

김선생이 웃으며 대답했다.

《전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조상묘자리덕분에 돈 벌고 출세하기를 바라는것은 결코 아니구요. 아침마다 저 묘를 바라보노라면 높은 벼슬했어도 가렴주구 하지 않고 청렴하게 살아 온 가문의 종손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하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그 말을 들으니 김선생이 돈 많은 사람도 아니면서 나 같은 로인을 돌보겠다고 나선 리유도 조금 리해할것도 같았다. 그의 삶의 뿌리는 청렴했던 조상들에 대한 그의 긍지와 맞닿아 있는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집옆에 있는 정자, 월파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대문을 들어 서니 본채는 높직한 대청마루 량쪽으로 방이 들어 있는 시원스런 구조였다. 방안에서는 청년들 서너명이 독서를 하고 있었다. 김선생이 소개를 시켰다.

《고시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여기가 조용하고 좋다고 와서 밥해 먹으며 공부하겠다기에 방을 내주었습니다.》

이를테면 《무료고시원》인셈이였다.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가 싶어 서둘러 정자를 나왔다. 약간 경사진 오솔길을 따라 선산쪽으로 조금 올라 가니 큰 련못이 있었다. 봄, 여름이면 련꽃잎이 제법 무성할듯 하였다. 오랜만에 보는 정감 있는 광경이 아무리 봐도 싫지 않아 넋을 놓고 있었다.

뒤날에도 나는 김선생과 이 련못가에 자주 와서 쉬였다. 날씨가 좀 따뜻해 진 어느 날 련못가에 서서 해바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련못에서 무엇이 퉁벙퉁벙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개구리치고는 너무 중량감 있는 소리라 옆에 있던 김선생에게 물었다.

《저게 무엇이요?》

《식용개구립니다. 큰놈은 2키로나 나갑니다.》

《김선생이 저런것도 기릅니까?》

김선생이 웃으며 그게 아니란다. 린근에 부업으로 식용개구리를 사육하는이가 있었는데 여름에 큰물이 나면서 그만 그 집 개구리못이 넘쳐 개구리들이 온 동네 못으로 떠내려 가서 퍼졌다는것이였다. 그 말을 들으며 다시한번 《퉁벙》할 때 눈여겨 보니 과연 거대한 개구리였다. 어린시절 개구리 뒤다리를 구워 먹던 생각이 났다.

요즘 사람들은 저런 서양개구리로 고급료리를 해먹어야 성이 찬다니 나로서는 리해할수 없는 일이였다. 하긴 미국과 일본, 서유럽나라들의 영향을 많

이 받는 남조선사회인데 어찌 음식물이라고 례외를 두겠는가.

《개미료리》라는것이 《신사숙녀》들의 멋진 고급료리로 류행되여 서울이나 부산에는 《개미료리》를 1등료리라고 파는 식당이 여러개 있다고 한다. 그뿐인가. 《뱀료리》와 산 원숭이의 골료리 같은것들도 돈 많은 사람들속에서 《특등료리》로 팔리고 있다는데…

저녁에 가만히 들으니 서양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꼭 무슨 귀신울음소리 같았다. 공연히 심술이 났다. 조선개구리는 울음소리도 예쁜데…

집구경을 잘하고 돌아 오니 리선생이 어느새 아침밥상을 차려 놓았다. 아이들은 제 방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밥상옆에 크고 작은 도시락이 네개나 보였다. 다시 어른,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했다. 리선생은 설겇이를 마친 뒤 나의 점심상까지 보아 놓고는 8시 조금 못되여 아이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출근했다.

잠시후 함께 내려 온 동지가 돌아 갈 차비를 하였다. 김선생이 배웅하려 함께 일어 섰다. 그 동지는 《이렇게 와서 보니 이 댁의 환경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며 내 손을 잡고 참 잘되였다고 기뻐하며 돌아 갔다.

다음날부터 기진이가 나와 한방을 썼다. 귀염성있게 생긴 이 아이는 말수는 적었지만 착하고 령리하였다. 제 어머니가 가르쳐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이면 신문배달 나가기도 바쁠텐데 꼭 요강을 비우고 이불을 개고 내 세수물까지 떠놓았다. 그뿐만이 아니였다. 내가 아침을 다 먹었다 싶으면 어

느 사이 치솔과 양치물을 준비해 놓았다. 저녁이면 제 형과 장난을 치다가도 어느새 달려 와 이부자리를 깔아 놓는다.

나는 어느 사이 아이들에게 정이 들었다. 기진이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줄 모르기 일쑤였다. 기진이가 차던진 이불을 덮어 주며 생각하였다. 평양의 안해도 이런 손자를 두었을가. 그 녀석도 기진이처럼 착하고 기특할가. 그러다보면 치솟는것은 그리움이였다.

고향 떠난 이후 이처럼 가정적인 행복을 맛 보며 지낸 때가 또 있었던가. 서울에 있는 동지들에게 이런 행복감을 구구절절히 전했는데도 내 사는 모양을 직접 보고 싶었던지 여러 동지들이 많이도 다니러 왔다. 반갑기로 하면 더 말할것도 없었지만 새벽 4시에 일어 나 아침준비하고 학교에 나갔다가 돌아 온 리선생이 저녁에도 손님때문에 계속 부엌에서 있는것이 민망하였다. 그런데 김선생에게 이 말을 하였더니 오히려 펄쩍 뛰는게 아닌가.

《절대 그런 생각 마십시오. 선생님 모시고 나서 제 건강이 좋아 져 집사람이 퍽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신문에서 세상 돌아 가는 꼴을 보고 부아가 나도 농촌에서 달리 이야기할 상대도 없고 해서 애꿎은 술만 퍼마시군 하였는데 선생님 오시고 나서는 속시원하게 대화를 하니 술도 줄고… 게다가 선생님 주변의 분들이 계속 제 집에 찾아 오시니 저는 손 하나 까딱 않고 앉아서 여러 선생님들 만나뵙고 큰 공부 거저 하고 있는셈 아닙니까?》

보기 드문 남편, 보기 드문 안해

이처럼 《칙사대접》을 받다보니 일찍 눈을 뜬 새벽이면 심심하기도 했다. 그래서 신문배달 나간 기진이를 좀 도와 줄가 하여 마당에 나가 비질을 시작하는데 부엌에서 리선생이 질색을 하고 쫓아 나왔다.

《아이들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마당 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이슬 밟으며 산책이라도 하시지요.》

리선생은 끝내 비자루를 뺏더니 대신 지팽이를 들려 주었다.

풀잎우를 걸으며 생각하였다. 김선생도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이지만 그 부인은 더 보기 드문 사람이구나.

《내가 살려면 너를 죽여야 한다.》는 말이 류행어처럼 나도는 속에 각종 범죄가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는것이 남조선현실이다. 20대 부부가 돈을 위해 5살 난 어린이의 목을 눌러 죽이고 저수지에 처넣은 살인사건도 바로 그 얼마전에 벌어 진 일이였다. 이들 범죄인 부부는 《상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경기도 수원시내에서 어린이를 유괴한 다음 그의 부모에게 5,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다가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모골이 송연해 지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 지고 부정부패행위가 사회 구석구석에 팽배해 있고 마약, 퇴폐, 유흥산업이 급속히 퍼지는 등 이루 말할수 없는 륜리도덕의 붕괴현상이 일어 나고 있는 그 사회에서 김상원부부는 거친 바람

만 일고 있는 황량한 벌판에 핀 보기 드문 꽃이라고나 할가.

내가 같이 살며 본대로 김선생은 물질적인 욕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였다. 농사일에 서툰 김선생은 《이왕 담당 못할것》하며 자기 전답중 일부를 남에게 짓게 했는데 절대 대가를 받지 않았다. 남편이야 그럴수 있다고 해도 살림하는 안해는 생각이 다르겠건만 리선생은 시종 남편의 뜻을 리해하고 존중했다. 내가 한번은 하도 신기하여 리선생에게 물었다.

《어찌 그리 안팎이 닮았소?》

《선조때부터 남에게 해입히지 않고 청렴하게 사는것을 긍지로 아는 가문이니까요. 제가 결혼후 교원생활 안했으면 아마 끼니를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는 활짝 웃었다. 선량하면서도 주관이 뚜렷한 녀성, 나는 리선생의 찡그린 얼굴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가끔 일요일이면 리선생은 내가 심심할세라 학교 이야기를 들려 주기도 하였다.

《요즘 읍소재지인 이곳에까지 바나나 같은 수입과일들이 쏟아 져 들어 와 제법 사먹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리선생은 아이들에게 농촌은 민족의 고향인데 고향을 살리려면 절대 수입과일을 먹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쳤다고 하였다. 리선생이 담임하는 학급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그달에 생일을 맞는 아이들을 위해 간소한 잔치를 베푸는데 학부형들이 간식거리를 조금씩 가져 와 상을 차린다고 한다. 그런데

그달의 생일잔치날 공교롭게도 한 학부형이 커다란 바나나송이를 들고 왔다는것이다. 이를 보고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일어 났다.

《수입바나나를 사먹으면 우리 농촌이 망하기때문에 우리는 수입바나나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나나를 들고 온 학부형의 낯빛이 홍당무가 되였다고 하였다.

내가 진영으로 내려 온 뒤 김선생은 과천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를 부지런히 오르내리며 나의 신변을 인수하는 절차를 밟았다. 《주거제한》이라는 딱지가 붙은 나의 거주지를 옮기는게 어디 간단한 일이겠는가. 5월에는 나도 김선생과 함께 수원지검 공안부에 출두하여 조서를 꾸몄다.

공무원신분이라도 인간의 심정은 마찬가지인것일가. 조서를 모두 꾸미고 일어 서는데 립회서기인듯한 젊은이가 김선생의 손을 두손으로 덥석 잡았다.

《선생님, 참 좋은 일 하십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로인님을 잘 모셔 주십시오.》

그 청년은 눈물까지 글썽이였다.

김선생이 시청공무원생활을 오래 하여 관청 드나드는 일에 훤한 덕분이였던지 91년 7월 10일경 나는 김선생의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오르게 되였다. 결과부터 말하고보니 간단해 져 버렸는데 나는 속으로 거주지변경이 안되면 어떻거나 고민도 하였다.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양로원으로 돌아 가는게 이 가정에 루를 끼치지 않는 길이 아닐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 마침내 내가 이 가정의 법적《동거인》이 된 뒤 리선생은 이런 말을 털어 놓았다.

《처음에 아이들 아버지가 장기수로인을 모시자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 놓고 제가 학교 사직하면 모시자고 했습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제가 학교에 나가다보니 매사를 제대로 챙겨 드리지 못할것 같아서…

양로원에 계시면 최소한 식사는 때 맞춰 드실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들 아버지가 두주일을 계속 얘기하는 바람에 그만 두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할아버지를 모시고보니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시고 애들도 너무 좋아 해서 요즘은 애들아빠생각이 옳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답니다. 저희도 7대 독자로 내려오는 외로운 집안이고 할아버지께서도 남쪽에 일가라고는 없으시니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리선생이 덧붙였다.

《기진이가 글쎄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적으라니까 〈내가 무엇이 되기보다 우선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하고 썼다지 않습니까?》

입시병에 걸린 극성 부모라면 펄펄 뛸 일이였겠는데 리선생은 할아버지덕분에 아이들 생각이 어른스러워 졌다며 무척 기뻐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내 덕분이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막을수 없는 남녘민심의 거세찬 흐름이 아닐가.

당국자들이 인민들의 통일기운을 억누르려 제아무리 발악해도 무럭무럭 자라는 이 민족애의 지향을 어떻게 짓밟을수 있겠는가.

《내가 무엇이 되기보다 우선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진의 이 말은 그것이 철저

한 《반공》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소년의 입에서 나왔다는데 통일문제의 심각성, 절박성이 있는것이다. 북조선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여서 얼굴도 새빨갛고 뿔이 돋았다는 식으로 되여 있어 지어 이남땅의 교육가들까지 얼굴을 붉히는것이 국민학교 교과서들이다. 그런데 그런 교과서로 세상을 깨우친 기진이가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것이다.

나는 그때 리선생에게서 이 말을 들으며 《자신의 청춘보다 조국의 통일이 더 소중하다.》고 한 림수경학생의 말을 상기하였다.

그때로부터 한달후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념원을 담아 조국통일촉진 백두—한나대행진이 백두산에서 시작되였는데 여기에 《전대협》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나는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였던 관계로 퍽 후에야 그 소식을 들었다.)

남조선통치배들의 갖은 방해책동과 《철통》 같은 봉쇄선을 뚫고 끝내 북에 들어 가 《전대협》의 기발을 날린 젊은이들, 비록 조국통일촉진 백두—한나대행진이 한나산까지 이어 지지 못하고 판문점에서 중단되였지만 벌어 지는 모든 사태는 통일의 넓은 대문을 향해 세찬 힘으로 밀려 가는 이 민심을 어떤 힘도 막을수 없다는 나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오리 몰고 이사 온 한창우동지

이무렵 반가운 일이 또 한가지 생겼다.

부산근처에서 오리사육을 하던 한창우동지가 축사를 김선생집 뒤산으로 옮겨 오게 된것이다.

한동지는 지리산에서 유격투쟁중 체포되여 20년을 복역한후 만기출소했다. 체포될 때 스물다섯살 청년이였던지라 20년을 살았어도 우리들중에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마흔다섯의 장년으로 출소할수 있었다. 원래 신체건강하고 손재주와 눈썰미가 뛰여난 한동지는 감옥에서 배운 목수일로 생활기반을 빨리 잡을수 있었다. 얼마뒤에는 결혼도 하여 세 자녀를 두었다. 이처럼 가정을 꾸려 확실한 주거지에 살고 있던 덕분인지 한동지는 실로 드물게도 《사회안전법》제정이후 감호소로 붙들려 가지 않고 《보안감찰》처분에 그칠수 있었다.

그런데 한동지는 몇해전부터 약재로 쓰이는 청둥오리에 관심을 갖고 생업으로 오리사육을 시작했는데 자기 땅이 없다보니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고생한 모양이였다.

한 2,000여마리나 되는 오리를 기를수 있는 축사를 지으려면 제법 넓은 땅이 필요했다. 그런가 하면 사료구입이나 판로를 위해서 축사는 도시린근에 있어야 했다. 그러다보니 적당한 곳은 땅세가 너무 비싸 엄두도 못내고 아쉬운대로 촌으로 들어 가야 했다. 그런데 농촌도 안전지대는 아니였다. 애 써 축사를 지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축분뇨때문에 강물이 오염된다 하여 쫓겨 난것도 몇차례나 되는 모양이였다.

한동지가 나를 보러 와 요즘 사는 형편을 얘기하는데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김선생이 입을 열었다.

《우리 산에 적당할것 같은 터가 있는데 소용이 되면 거기를 쓰시지요.》

한동지는 뒤산 중턱쯤에 있는 평지를 둘러 보고 《여러가지로 적당하다》며 무척 기뻐했다. 그후 한동지의 솜씨 좋은 목수질로 축사는 하나둘씩 완성되여 갔다. 마침내 한동지가 2,000여마리의 오리들을 데리고 옮겨 온 날 나도 지팽이를 짚고 오리막을 구경하러 산중턱으로 올라 갔다. 꽥꽥거리며 뛰여 다니는 오리들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던 한동지가 반갑게 부축해 주었다.

《선생님, 제가 이 식구를 끌고 이사 다닌게 여기까지 네번째입니다. 곤난할 때 김선생이 선선히 땅을 내주기에 들어 와서 축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짓다보니 저 우에 김선생선대묘가 있습디다. 선대묘밑에서 짐승 키우는것 좋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세를 받자는것도 아닌데말입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참 보기 드문 사람 만났습니다.》

이뒤부터 서울서 동지들이 내려 왔다 하면 한동지의 오리막에 올라 가서 오리불고기로 포식하군 하였다. 이처럼 공기 맑고 물 좋은 곳에서 단란한 가정의 일원이 되여 독서도 하고 산과 들을 산보하며 지내다보니 혈압도 내리고 불편한 다리에도 힘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오리막정도는 쉽게 오르내릴수 있게 되였다. 모두가 주위사람들의 과분한 도움덕분이였다.

또한 감사하지 않을수 없는 이런분들가운데 재도이췰란드교포 신옥자씨가 있다. 90년 말 《말》지를 통해 평양의 가족소식을 나에게 전해 주었던 그는 91년 2월호에 안해에게 보내는 나의 편지가 실리자 얼마후 내게 직접 편지를 보내왔다. 나와 안해가 40년간이나 헤여 져 있는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며 평양을 방문하러 가는 사람에게 부탁해 《말》

지가 꼭 안해에게 전달되도록 애 쓰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도이췰란드에는 교포들이 만든 《재도이췰란드장기수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자신은 장기수대책 프랑크푸르트 모임에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 모임에서 모았다며 편지와 함께 300마르크를 보내왔다.

얼굴조차 모르고 너무나 멀리 있어 찾아 볼수도 없는 신옥자씨 같은이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것일가. 나는 편지를 썼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고 썼다. 그리고 우표 한장이면 바로 배달될 편지가 아시아를 지나 유럽의 도이췰란드로 해서 로씨야를 거쳐 평양에 전달돼야 하는 민족분렬의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그 먼길을 돌아서라도 안해가 그 편지를 읽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었으니 나는 얼마나 욕심꾸러기였는가.

수술대에 눕다

91년 7월 10일, 이날 아침 신옥자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답장 잘 받았다는 말, 지금쯤은 안해가 《말》지를 받아 보았을것이라는 소식, 《재도이췰란드장기수대책위원회》가 주최가 되여 나와 안해를 도이췰란드로 초청하고저 한다는 이야기, 부디 몸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당부…

흥분이 온몸에 퍼져 심장이 높뛰기 시작했다.

나는 들뜬 기분으로 산에 올랐다. 건강치도 못한 몸인데다 그날은 날씨도 좋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그런데 관심할 경황이 없었다.

교포아주머니의 음성이 계속 귀전에 울리는것만 같았다.

《지금쯤 사모님께서 〈말〉지를 받아 보셨을겁니다.》

가슴이 벅찼던탓일가. 내려 오는 길에 나는 그만 비탈길에서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발을 헛디뎠던것이다. 김선생이 걱정할가봐 옷에 묻은 흙을 죄다 털고 집으로 내려 왔다.

그날 오후 왠지 식욕이 없고 몸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큰 이상이리라고는 나자신도 깨닫지 못했다. 일주일후였던가.

7월 16일 저녁 나는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김선생과 마침 그때 서울서 다니러 온 두 동지가 나를 마산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 콤퓨터단층촬영결과 뇌출혈로 밝혀졌다. 산에서 넘어 졌을 때 실피줄이 약간 터졌던것 같은데 그것이 점점 확대되여 의식불명상태까지 갔다는것이다.

마산의 병원에서는 가망 없다며 치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황급히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싣고 갔다고 하였다. 뇌에 파이프를 꽂아 고여 있는 피를 뽑아 내는 대수술이 진행되였다. 내 나이가 많다보니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수 없었던것 같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이였다. 마치 안개속에 있는듯 한 느낌이였다. 김선생의 얼굴이 눈에 들어 왔다. 그옆에서 웬 아주머니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전문간병인이라 했다. 뇌수술환자의 경우 일단 의식을 회복하면 생사의 고비는 넘긴셈이지만 정상인으로 돌아오기까지의 회복기

가 중요하기때문에 의사의 권유에 따라 김선생이 그를 부른것이다.

며칠후에 서울서 김병주동지의 딸 지현이가 아예 직장을 휴직하고 내려 왔다. 그때는 이미 김병주동지 내외가 모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고 지현이가 세 동생을 돌보며 어렵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내 소식을 듣고는 직장을 휴직하고 간병하러 내려 온것이였다. 아버지의 동지를 위하여 생계를 미루고 나선 동지의 딸, 동지애도 대를 이어 지는것이랄가. 눈치도 빠르고 손재주도 좋은 지현이는 간병인이 하는 모양을 유심히 보고 따라 배운 뒤 웬만 한건 제가 할수 있다고 나섰다. 이후부터는 간병인을 부르지 않아도 되였다.

간병인의 일당이 4만원이나 된다니 지현이 덕분에 큰 부담을 던셈이였다.

서울서 문병 온 동지들과 부산《민가협》일군들은 나를 돕겠다고 온갖 수고를 무릅썼다. 부산《민가협》에서 부탁을 하였던지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들이 나를 간병하러 왔다. 그들은 조를 나누어 3교대로 내 병실에 《출근》했다. 덕분에 지현이도 틈틈이 쉴수 있었다. 게다가 처녀에게 대소변 받아내는 일까지 맡기기가 미안하던터에 치대 남학생들이 와주어 정말 잘되였다고 김선생도 몹시 기뻐했다. 입원한지 20일만에 병원비는 이미 600만원대에 이르렀다. 동지들은 수술비걱정이 큰 산 같았다. 어느 동지가 알렸던지 《한겨레신문》에 이 같은 사정이 보도되기도 했다. 부산《민가협》과 부산대학교 학생회는 공동주최로 나의 치료비모금을 위한 일일 차집을 열었다. 그무렵 나는 수술경과가 좋아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겼다. 네사람이 병실을 같이

쎴는데 나는 그중 가장 번잡한 환자였다. 간호하는 젊은이들이 두셋이나 지키고 있는데다 병문안객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기때문이다.

보고 싶었던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안온한 기분으로 병원생활을 하고 있던 나는 저간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선생이 나에게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기때문이다. 하긴 얘기를 했어도 알아 듣지 못했을지 모른다. 내 수술경과가 좋다고는 하지만 뇌기능은 서서히 회복되는 모양으로 나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었던것 같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항상 얼굴이 붉어진다.

의사가 퇴원해도 좋다고 한 뒤에도 김선생은 퇴원을 미루었다. 이왕 병원에 온김에 소변 불편한것과 저는 다리 진찰까지 받아 보자고 하였다.

그래서 몇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후유증이였던지 나는 그만 페염에 걸리고 말았다. 가래만 뱉아내면 치료가 쉽다고 하는데 기운이 없어 그런지 목에서 끓을뿐 도대체 넘어 오지를 않았다.

병원측에서 하루이틀 더 기다려도 가래가 안 나오면 목을 째야 한다고 했다.

내 나이에 수술을 받고 이어 기관지절개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일이였다. 의사선생은 될수 있으면 수술을 안해야 한다며 가래가 잘 나오도록 내 코에다 산소호스를 끼워 놓았다.

코에 호스를 끼워 산소를 불어 넣자면 간지럽고 답답하기마련이다. 《철 없는》 나는 지현이가 잠시 내게서 눈을 돌리기만 하면 호스를 코에서 빼버리군 하였다. 다음날까지 가래가 안 나오면 어쩔수

없이 목을 째는 대수술을 해야 하는데 환자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 지현이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가. 이미 600만원을 넘어 선 병원비는 또 얼마로 늘어 날지 짐작도 못할 일이였다.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많은이들이 그 찌는 여름날 졸음을 쫓으며 내 병상을 지키는가 하면 뙤약볕속을 다니며 한푼두푼 내 병원비를 모으고 있는줄도 모르고 나는 편안히 입원실에 누워 어린아이 같은 투정으로 간병인을 괴롭히고 있었던것이다.

김선생은 치료비문제로 몇차례나 밤차로 서울을 오르내렸다.

그 여름 서울서 병문안 온 동지들은 나에게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들 했다. 바깥일은 김선생이 책임지고 해결하는데다 지현이와 학생들이 살뜰하게 간병해 주고 기진이, 영숙이까지 병상옆에 붙어 앉아 《할아버지》하며 재잘거리고 있었으니 그런 말이 나올법도 했을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아무도 돌봐 주지 않는 보안감호소 독방에서 고통으로 몸을 뒤치다 죽어 간 동지들이 생각나는게 인지사정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뇌에다 구멍을 뚫느라 머리를 박박 깎고 환자용 흰모자를 뒤집어 쓴 나는 그야말로 《바보늙은이》가 되여 지현이 애만 먹이고 있었던것이다. 대체 이 빚들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런데 그 지현이가 지금은 중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다는것이다. 내가 북쪽땅으로 온후 그는 륵골결핵으로 갈비뼈를 잘라 냈는데 지금은 척추부근에까지 염증이 번져 몸이 휘고 진통제없이는 참기어려운 형편이면서도 입원비와 수술비 그리고 세 동

생의 생활걱정때문에 병원에서 퇴원하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도 싹싹하고 알뜰하던 지현이…

《아버님은 할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시지 못하는 것을 늘 괴로와 하셨어요.》하면서 딸처럼 손녀처럼 나를 보살펴 주던 지현이, 그가 지금은 간호해 줄 부모님은커녕 찾아 주는 일가친척 하나없이 병상에 괴롭게 누워 있다. 내가 그를 도울수만 있었으면, 이곳에 와서 그가 치료를 받을수만 있었으면… 군사분계선만 아니면 우리 온 가족이 그에게로 달려 가련만. 아, 통일, 통일이 되였으면! 남녘땅도 치료비걱정, 생활걱정, 배울 걱정 없는 그런 땅으로 어서 되였으면…

지구를 한바퀴 돌아 온 안해의 회답

지현이와 학생들의 정성스런 간호로 페염은 수술없이 완치되였다. 입원한지 달포만인 8월 말경 퇴원해 진영으로 돌아 왔다. 병은 나았다지만 혼자 걷기는 힘든 상태였다. 와서 보니 리선생이 벌써 두달째나 나의 쾌차를 비는 백일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새벽이면 목욕재계하고 식사때는 채식만 하며 정성을 들여 온 그를 보니 정말 고맙고도 부끄러웠다.

수술로 쇠약해 진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김선생이 권해 비타민이니 영양제니 하는것을 많이도 먹었다. 김선생내외의 정성속에 목발을 짚고 한두발자국씩 걷는 련습을 하다보니 어느덧 한가위였다. 한가위 둥근달을 마음껏 보았다.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7천만겨레의 념원을 이루어 달라고.

9월 24일경이던가. 《말》지의 신기자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선생님, 사무실에 나와 보니 팩스로 〈통일신보〉가 들어 왔네요.》

《통일신보》는 신옥자씨가 나의 가족소식을 알아보았던 바로 그 신문이다. 거기에 내가 92년 2월호 《말》지상을 통해 안해에게 쓴 편지에 대한 안해의 답장이 실려 있다는것이다. 겉봉에 쓸 주소가 없어 우체통에 넣지도 못하고 잡지에 실려 지구를 한바퀴 돌아 도착한셈이다. 꼬박 반년만이였다.

다음날 《한겨레신문》을 보니 안해의 편지를 요약한 기사가 나왔다. 《말》지도 다음호에 안해의 편지를 전재한다고 하였다.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통해 어머님이 83년에 돌아 가셨음을 알수 있었다. 며느리의 무릎우에서 림종하셨다고 하였다. 안해는 중학교 교장으로 평생을 살아 온 모양이고 딸 현옥이도 교사라 하였다. 사위도 보았고 손자들도 둔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안해가 어머니처럼 결국 혼자 늙고 만것을 생각하니 가엾고 측은해 눈물이 흘렀다. 평생을 수절하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신건 아닐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머니 몰래, 딸자식 몰래 안해가 흘린 눈물이 그 얼마였을것인가. 그런중에도 딸 현옥을 훌륭하게 가르쳐 교사로 키우고 사위까지 보았다니 너무나 고맙고 대견했다.

얼마뒤 도이췰란드의 신옥자씨가 안해의 편지가 실린 《통일신보》를 부쳐 왔다. 나는 그때 사진으로나마 40년만에 안해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 마음속의 시름이야 사진에 나타날리 없겠지만 어쨌든 곱게 늙은 얼굴이라 가슴이 조금은 덜 아팠다. 그후

에 받은 9월 7일부《통일신보》에는 《말》지에 련재했던 나의 수기가 실려 있었고 9월 21일부에는 《말》 91년 8월호에 신기자가 쓴 김상원선생에 대한 소개글과 딸 현옥이가 김선생내외에게 보내는 감사의 글이 실려 있었다. 안해와 딸은 한결같이 우리가 다시 만날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건강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었다.

내 나이쯤 된 로인이 잠간 앓다 죽으면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할것이다. 살만큼 산데다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곱게 갔다는 치하이리라. 언제 다시 쓰러져 많은이들에게 폐를 끼칠지 모르면서도 내가 오래 살려고 발버둥쳐야 하는 리유가 생긴것일가. 안해와 아이들이 보고 싶은 심정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하지만 그들이 건강하고 다복하게 잘 살고 있음을 알게 된것만으로도 족했다. 산에서 죽어 간 송중명과 같은 동지들 그리고 아직도 가족소식 한쪼각 알지 못하고 있는 북쪽출신 동지들,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더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하지만 91년 가을부터 북측에서 나의 송환을 요구하는 대중적움직임이 일어 나고 이것이 남쪽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조용하던 진영의 김선생댁은 여러 종류의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우선 체육경기다, 녀성회담이다 해서 북측기자단이 서울에 왔다하면 진영의 김선생댁은 즉시 경찰차로 둘러 싸였다. 북측기자들이 기습적으로 취재하러 올지 모른다는것이였다.

이곳처럼 한갓진 농촌에 경찰차량 5~6대에 가득 타고 온 사복경찰들이 득실거리니 리선생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놀라지 않을가 너무나 걱정스러웠다.

또한 10월에 진행된 제4차 북남고위급회담 취재를 위해 남측기자들이 평양에 갔을 때 평양시민들을 인터뷰한 장면이 남조선텔레비죤에 방영되였다. 시민들은 《리인모로인 왜 안 보내는가.》라고 항의하고 있었다. 남조선의 언론은 《평양시민들의 〈광적〉인 송환요구》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실었다.

당국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한 추종인지는 모르겠으나 평양시민들의 송환요구를 광적이라고 모독하다니. 가슴이 아팠다. 그것이 내 조국 인민들의 동포애, 참다운 동지적의리의 발현임을 그들이 모른단 말인가. 그 송환요구에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려는 민족의 소망과 의지가 깃들어 있는것이 아닐가.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다는 몰랐었다. 북쪽의 신문들에 나의 수기가 게재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처지에 비탄의 눈물을 흘리고 나의 송환을 요구하는 운동이 얼마나 큰 하나의 사회적흐름으로 일고 있었는가를. 그때 북쪽의 각지에서 나의 송환을 요구하는 각종 군중집회들이 련이어 벌어 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나의 운명문제를 놓고 몹시 심려하시며 나를 꼭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 오게 해야 한다고 몇번이나 당부하시였다는것도 알수 없었다.

비데오로 본 평양의 가족들

이렇게 되자 주간지, 월간지기자들도 진영으로 찾아 들기 시작했다. 부부가 40여년 헤여 져 있다는 사연에 구미가 당겼던지 선정적인 《녀성》지에서조차 취재하러 왔다. 내심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매체들도 있었으나 서울서 하루길을 내려 온 사람들을 문

전박대하기도 어려웠다. 그저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저해하는 글만은 쓰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던중 10월쯤이던가. 워싱톤 아메리카주방송의 박용찬사장이 먼길을 찾아 왔다. 그는 평양서 취재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라 했다.

《평양에서 선생님얘기를 하도 많이 하기에 어떤 분인가 싶어 〈통일신보〉에 실린 수기를 보았습니다. 감동적이더군요. 사상을 떠나 제가 도울수 있는 길이 없을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에도 없이 안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아빠트를 불시에 찾아 갔다고 하였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몹시 경계하였으나 곧 박사장의 진심을 리해하고 협조하여 그들을 차례로 인터뷰하고 이를 비데오카메라로 록화했다고 하였다.

《선생님, 가족들이 한번 마음의 문을 열자 인터뷰중에 울고 불고 하여 제가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서울 가면 록화테프를 꼭 선생님께 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눈물이 더 나셨던 모양입니다.》

김선생집에는 비데오기가 없어 이웃에서 빌려 와 록화테프를 보았다. 화면은 깨끗했다. 평양의 고층아빠트숲들이 나오다가 장면이 안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내부로 바뀌였다. 안방으로 보이는 곳에 안해, 사위와 딸, 세 손자손녀가 모여 앉아 있었다.

박사장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는지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이 들렸다.

먼저 안해의 모습이 나왔다. 나의 소식을 들은 소감을 묻자 안해는 눈시울부터 붉어 졌다. 새삼스럽게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쳤다.

《스물세살때 남편과 헤여 진후 4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꼭 살아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사장이 현관문을 가리키며) 《지금 남편이 저 문을 열고 들어 온다면 첫마디를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말보다 눈물이 앞설것 같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던 안해는 이렇게 답하고 진짜 눈물을 흘리는것이였다.

《남편께서 이 비데오를 보실텐데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지요.》

《당신이 꼭 돌아온다며 그렇게 아들을 그리시던 어머님이 지난 83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안해는 다시 울었다. 끝내 내 소식을 알지 못한채 돌아 가신 시어머니생각이 났던것일가. 어머님이 돌아 가셔서 내게 송구했던것일가.

외동딸 현옥의 모습도 똑똑히 볼수 있었다. 피덩어리를 두고 왔는데 어느덧 마흔이 넘은 중년부인이 되여 있었다. 안해가 편지에 쓴대로 얼굴모습이 나를 많이 닮은것 같았다. 전국교수경연에서 1등을 했다는게 실감이 날만큼 딸은 카메라앞에서 스스럼없이 말을 참 잘하였다. 하지만 딸도 《언제 아버지가 제일 그리웠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목이 메였다.

《제가 김형직사범대학에 들어 갔을 때 할머니와 어머니가 와주셨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으로 허전하였습니다. 내가 대학생복 입은 모습을 아버지가 보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가 생각했습니다.》

현옥이는 현재 평양개선고등중학교에서 물리선생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옥과 74년에 결혼했다는 사위 오문재는 과묵하고 신중해 보였다. 안해가 좋은 사위를 골랐구나 싶었다.

이어서 꿈에도 보고 싶던 손녀 정혜, 보람, 손자 승철이가 나와 제 소개를 하고 할애비에게 빨리 집에 오라고 야단들이였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민망해 고개를 돌리는데 김선생도 눈물을 닦고 있었다.

내 나이 열세살때부터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고 선배들을 따라 다녔다. 그후 60년, 나이 칠십이 넘도록 무엇을 했기에 어린 손자녀석에게까지 분단의 아픔을 맛 보게 한단 말인가.

박사장이 돌아 간후 김선생은 나를 위해 록화기를 사들였다. 화면으로나마 안해와 딸, 사위와 손자들의 모습을 자주 대할수 있게 하려는 배려였다. 하지만 왠지 송구하고 화면을 대하면 오히려 가슴이 아파 나는 비데오 보는 일이 두려웠다. 가끔 동지들이 찾아 오면 보여 주군 할뿐이였다.

《리인모로인》송환 공방전

김선생은 나의 송환문제에 행여나 진척이 있는가하여 《통일원》 교류과에 부지런히 오르내렸다. 한번은 북에서 나의 가족, 친지, 의료진, 취재진 해서 50여명의 방문단을 보내겠다는 제의가 있었던 모양이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내가 《가족만 초청한다.》는 의사표명을 한다면 가족들이 내려 오는 것은 허용될것이라고 하였다. 가족외의 사람들이 오

겠다는것은 나의 송환문제를 정치적으로 리용하려는 의도로 보이기때문에 허용될수 없다는 얘기였다.

여러차례에 걸쳐 고위급회담이 열리고 다른 회담들도 림박한듯이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민족간의 불씨는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뼈 저리게 느껴졌다. 내 처지에서 단 며칠이라도 가족들을 만나볼수 있다는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지만 가족이 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남측에서 요구하는대로 《나는 가족만 내려 왔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나선다면 북측의 립장은 어찌될것인가.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데 대규모방문단을 내려 보내 나의 송환문제를 정치적으로 리용하려 한다는 혐의를 면치 못할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게는 할수 없었다. 나는 비전향장기수이기전에 그리고 정전담판시 포로로 송환되지 못한 인민군종군기자이기전에 조선로동당원이였다.

나는 가족, 친지, 의료진 등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 나를 위문하려는 조치를 취해 준 당의 사랑, 동지들의 사랑을 느끼고 그에 감사했다. 아무리 가족이 보고 싶기로서니 가족만 초청하라는 남측의 제의에 응해 나설수는 없었다. 그것은 일종의 배신이 아니겠는가. 나는 당과 동지들, 가족들의 사랑을 이 몸에 느끼는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가족만 초청한다는것은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였다. 그래서 나는 그 제안을 거부했고 방문단건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리인모로인》을 송환하라는 북측과 이를 거부하는 남측간에 공방전이 계속되였다. 이 와중에서 어떤 때는 고향길이 환히 열리는듯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절벽처럼 캄캄하였다.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어떤이는 나를 찾아 와 짐 싸놓고 기다리라

하였고 어떤이는 헛된 꿈 꾸지 말라고 나를 조롱하였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변화들을 내내 좇아 다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김선생과 동지들은 거듭되는 기대와 좌절로 내가 건강을 해치지나 않을가 몹시 걱정하였다.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 19년을 살고 나서 마지막 1년을 채우다 그만 조급증으로 병이 나 숨을 거두고 만 경우도 더러 있었기때문이다.

나는 《리인모로인》송환 공방전속에서 한개 바위돌처럼 묵묵히 있었다. 오직 한가지 버릴수 없는 념원을 가슴에 간직한채. 이가운데 91년 12월 서울에서 제5차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리고 7.4공동성명의 원칙을 구현한 력사적문건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였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한해가 저물고 1992년 새해가 밝았다.

고마운 사람들

1992년 2월에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이 평양에서 진행되여 제5차회담에서 채택한 북남합의서와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온 민족을 기쁨에 설레이게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간, 남조선당국자들은 북측과 화해하겠다고 하고서도 북을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통일사절인 북쪽땅에 다녀 온 인사들을 계속 감옥에 가두어둠으로써 민족을 실망케 했으며 북에 대한 《핵의혹》을 트집 잡아 합의서의 리행에 제동을 거는것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분단을 가슴 아파 하고

하루빨리 분렬의 슬픔을 가시여 내려는 온 민족의 분투는 그 어떤 물리적인 억압과 폭력으로써도 막을 수 없는것이였다. 그속에서 나의 운명문제는 통일론의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 부상되고 있었다.

그해 4월 중순경이던가. 나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한 처녀는 미국 《워싱톤 타임스》 기자의 심부름이라고 하면서 그 기자가 평양을 방문했던 길에 안해와 아이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내게 전하는 인사말을 록음해 왔다는것이다.

그 기자가 몹시 바빠 진영까지 내려 가기는 힘들고 내가 서울에 와서 록음테프를 받아 갔으면 한다는 내용이였다.

나는 김선생과 의논해 4월 29일 서울로 향했다.

지난해 겨울을 나면서 수술후유증인지 나이탓인지 체력이 많이 떨어 져 나는 부축없이 걷기 힘든 상태였다. 이런 사정을 알고 부산의 독지가 최상근선생이 봉고차를 한대 보내주었다.

최상근이라면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해 의로운 사람으로 남조선월간지 《말》지에 소개된바 있는분이다. 그에 의하면 최선생에게는 자신이 큰 수치로 여기는 전력이 있다 한다. 그는 부산대학교에 재학중일때 운동권학생들속에 뛰여 들어 집회에도 적지 않게 참가했으나 경찰의 무지막지한 폭압과 《시위에 참가하면 졸업후 회사에 취직하지 못한다.》는 학교당국의 위협에 글뒤주가 되여 버렸다. 그때 서울의 리화녀자대학교 학생들로부터 가위를 그려 넣은 편지를 받았는데 그 뜻인즉 남자로서의 체면을 잃어 버렸으니 수술을 하고 치마를 입으라는 편지였다. 그는 90년대 초에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해 알

게 되였는데 우리 동지들의 꺾을수 없는 지조앞에 자기의 지난 날을 깊이 뉘우치게 되였다 한다. 원래 그는 돈을 좀 벌자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며 사회의 부정부패행위를 폭로하는 신문이 정상적으로 발행되도록 하는데 돈을 대주기도 하고 환경오염에 무관심한 집권층과 매판업체들을 반대하는 《부산공해추방협회》에 돈을 밀어 넣기도 하였었다.

장기수들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물심량면으로 그들을 돕고 있는데 자식이 부모들을 위하는것 이상이였다. 이렇게 놓고 보면 최상근선생이 봉고차를 우리에게 보내준것은 별로 새삼스러운것이 없었다.

마침 한동지의 오리막에서도 시내식당에서 사료로 쓸 음식찌꺼기들을 걷어 오고 알을 내가고 하느라고 차가 몹시 필요한 형편이였다. 최선생은 평소에는 오리막에서 사용하고 혹 내가 먼길 갈 일이 있으면 리용하라고 자신의 봉고차를 내놓았던것이다.

한동지의 오리막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조영삼군이 봉고차를 운전하여 김선생, 나 세사람은 그날 저녁 서울에 도착했다. 그날 밤은 려관에서 묵고 이튿날인 4월 30일 오전 《워싱톤 타임스》 기자와 약속한대로 궁정교회로 갔다. 박사모님과 리전도사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잠시후 《말》지 신기자가 왔다. 나는 당시 신옥자씨의 권유로 국제적십자사에 호소문을 제출하려하고 있었다. 그동안 신옥자씨를 비롯한 《재도이칠란드장기수대책협의회》 회원들은 국제적십자사에 나의 고향송환을 도와 달라는 편지를 여러차례 보냈던 모양이다. 적십자사측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도움을 주고저 하는데 그전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

고 싶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내 의사를 밝힌 편지를 썼는데 영문번역도 필요하다고 하여 신기자가 이날 영문편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이다. 국제적십자사에 보내는 편지를 부치고 나니 박사모님과 미순이(리전도사)가 맛난 점심상을 차려 놓았다. 잘 먹고 나서 과일을 들고 있는데 눈은 파랗고 머리는 노란 기자가 통역과 함께 찾아 왔다.

그는 《한국》의 장기수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아직도 안해와 헤여 져 있는것이 가슴 아프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평양에 갔을 때 일부러 안해의 집을 물어 찾아 가서 인터뷰하여 우리 부부의 사연을 기사화했다는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위로가 될가 하여 안해와 딸, 손자 승철이의 인사말을 록음해 왔다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그는 록음기를 틀어 내 귀에 대주었다.

그리운 안해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현옥 아버지, 건강하셔야 합니다…》

현옥의 의젓한 목소리가 뒤따랐다.

《…아버지, 한평생 아버지를 기다려 온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어떠한 시련이라도 견뎌 내고 꼭 돌아 오셔야 합니다. 금년에는 꼭 아버지를 만날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리는건 귀여운 승철의 목소리.

《…할아버지를 제일 존경하는 승철입니다. 집에 있을 때면 할아버지사진을 보며 할아버지가 돌아 오실 날을 손 꼽아 기다립니다. 할아버지가 돌아 오셔서 대동강 푸른 물결도 함께 가보고 국수도 같이 먹고 저와 함께 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할아버

지가 꼭 오리라고 믿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오십시오.》

시종 록음기를 내 귀에 대준 그 기자의 손을 덥석 쥐고 나는 진심으로 감사한 내 마음을 전했다. 통역 없이도 그는 내 뜻을 리해한것 같았다. 내 손을 마주 잡고 무척 기뻐하였다. 그는 본국에 돌아가서도 내 문제를 여러 인권단체들에 호소하겠다고 하였다. 분렬된 민족의 비극은 이 서양사람의 가슴에까지 아픔으로 다가갔던것일가. 그는 잠시 주머니를 뒤지며 부스럭거리더니 10만원권 수표 한장을 내 손에 쥐여 주고 돌아 갔다.

1991년 7월 병원신세를 진이래 참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보내왔다. 국내는 물론 도이췰란드나 미국의 교포들이 한푼두푼 모은 돈을 받을 때마다 나는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보여 준 뜨거운 민족애에 가슴이 벅찼었다. 하지만 이날 국적도 인종도 다른이가 내민 따뜻한 손길을 대하고 나는 뭐라 할말을 잊었다. 인간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선함은 사상과 국적을 초월한다고나 할가.

다음날엔 감호소에서 출소한 동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기동의 민중탕제원에 가서 그립던 동지들을 만났다. 오후에는 김선생의 제안으로 요즘 탕제원에서 일하는 최남규동지와 함께 한강에 유람선을 타러 나갔다. 오랜만에 서울나들이, 하지만 유람선보다 더 좋은것은 말을 안해도 서로의 마음을 능히 짐작할수 있는 동지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였다.

《신라호텔》

5월 3일, 서울나들이를 마치고 귀향길에 올랐다. 문득 김선생이 《이왕 나온김에 강릉의 후배도 만나보고 가시지요.》하였다. 강릉에는 고생끝에 자수성가한 고향후배 리은하가 살고 있었다. 양로원에 있을 때 그가 잡지 《말》을 보고 찾아 와 반갑게 만나본후 오래 보지 못하였다. 내가 마다할 리유가 있겠는가.

차가 영동고속도로로 접어 들었다. 사실 나는 대관령을 넘어 보긴 처음이였다. 구절양장이라더니 태백산줄기의 산세가 웅장하였다. 강릉에 가니 은하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은하에게서 강릉별미를 대접 받고 명승지까지 두루 구경한후 귀로에 올랐다. 내가 《강원도쪽은 처음 와봅니다.》했더니 김선생이 그러면 길을 동해쪽으로 잡아 구경을 하면서 내려 가자고 하였다.

우선 명주군의 굴산사터에 들렀다. 김선생은 그곳을 잘 아는듯 하였다. 굴산사는 신라 말기의 고승 범일선사가 한창나이 42살때 당시 권력의 핵심이라할 국사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들어 와 39년간 면벽참선을 한 곳이라 하였다. 하지만 이름 높았던 신라의 고찰은 간곳이 없고 절터는 페허가 되여 있었다. 김선생이 말했다.

《그가 39년 면벽하며 찾아 헤맨것이 대체 무엇일가요?》

그는 뜻을 세워 39년을 참선한 그와 신념 하나로 34년을 감옥에서 버틴 나는 닮은 점이 있는듯 하다고도 하였다. 페허를 딛고 서서 1,000년전 한 고승

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것이 과연 무엇이였을가 하는 상념에 빠져 들었다.

그후 사흘동안 송강 정철이마냥 유람을 하였다. 삼척의 죽서루도 구경하고 안동의 도산서원에도 들렸다. 이제 집으로 가려는가 했는데 김선생이 불쑥 입을 열었다.

《선생님, 고위급회담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5월 5일부터인가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이 시작돼 북측대표단이 《신라호텔》에 와 있다는 보도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영에 있었으면 벌써 형사들이 들락거려 회담분위기(?)에 젖었을것이다. 며칠간 한가로운 유람속에 있었으나 한시도 잊은적은 없었다.

김선생은 내 마음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것이다. 두말없이 《가봅시다.》하였다. 여느 때였으면 나는 나때문에 김선생에게 탈이 생길 가봐 걱정을 앞세웠을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너무너무 큰 흥분에 그것조차 잊었다. 그저 내 생각을 내짚어 준 김선생이 끝없이 고마왔다. 차는 다시 서울로 향했다.

나는 《신라호텔》앞에 가서 서 있다가 먼발치에서나마 고향사람들에게 손이라도 흔들어 주고 싶었다. 설사 말은 못한다 해도 그리운 땅에서 온 그 사람들을 한번 내 눈으로 보기만이라도 한다면, 하다못해 그들이 들어 있는 호텔곁에 가서 그곳 공기를 마시기라도 한다면 묵은 체증이 내려 가듯 마음이 후련할것만 같았다. 이무렵 경찰들이 나를 그토록 혈안이 되여 찾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전에도 무슨 회담이다 하면 경찰들이 집에 와서 지키다가 시골이라 있을 곳도 마땅찮고 저희들도 심심

하니 나를 데리고 린근에 유람을 간 일도 있었다. 이번 회담기간중에 집에 있으면 이래저래 피곤하니 동해안을 따라 유람하고 오겠다고 김선생부인에게 전화로 알려 놓았던터라 경찰도 그러려니 할것이라 생각했던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였던가. 5월 7일 오전 10시경 우리 차가 《신라호텔》 일주문앞에 도착했을 때였다. 운전하던 조영삼군이 《정문에서 검문을 하네요.》하였다. 과연 일주문앞에는 검문을 받느라 차량이 몇대 늘어 서 있었다. 조군이 줄꽁무니에 봉고차를 갖다댔다. 순간 100명은 될듯한 전투경찰들이 우르르 달려 들어 차를 포위하더니 유리창을 부시고 들어 와 우리 세사람을 끌어 냈다. 나는 순식간에 전경들에게 번쩍 들려 린근 장충체육관으로 옮겨 졌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요행히 《한겨레신문》 기자 한사람이 따라 들어 와 취재를 하다 형사들에게 걸려 쫓겨 났다.

잠시후 우리 세사람은 경찰이 모는 차에 실려 고속도로로 들어 섰다. 어디 가느냐고 했더니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창원의 어떤 려관이였다. 이튿날 북측대표단이 돌아 갈 때까지 거기서 좀 쉬고 있으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북측대표단이 돌아 간 5월 8일 저녁 진영집으로 돌아 온것은 나 혼자뿐이였다. 김선생과 조군은 조사가 끝나지 않아 다음날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9일 저녁무렵 김선생 혼자 집으로 돌아 왔다. 김선생은 기관원들에게 조군이 먼저 집에 와 있는것으로 들었던 모양이였다. 집에 오자마자 《조군은 언제 나왔습니까?》하였다.

경찰의 포위속에서

뭔가 심상찮다 했는데 이튿날 아침 신문을 보니 조군이 구속되였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다. 조군이 경찰의 저지를 무시하고 차를 몰아 전경들을 다치게 했다는것이다. 너무도 엉터리였다.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파렴치하다는 말도 적당치 않았다. 내가 그곳에 간것이 그렇게 못 마땅하다면 문제의 근원인 나를 잡아 넣을 일이지 엉뚱한 사람에게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 씌워 구속시킨단 말인가. 그네들이 하는짓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두 졸렬하고 무지막지한짓이였다. 다 늙은 로인이 자기 조국의 대표를 보겠다는것조차 그렇게 두려울양이면 북과 화해하겠다는 합의서에 무슨 배심으로 도장을 찍었단 말인가.

조군의 일만으로도 마음이 편치 않은 판에 얼마뒤에는 오리막의 한동지에게까지 불똥이 튀였다. 수사관들은 우리가 《신라호텔》앞에 타고 갔던 봉고차의 출처를 조사했다. 차량조회를 하니 최상근씨의 이름이 나왔고 그가 장기수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였던것 같다. 그런데 그들은 최상근씨가 돕고 있는 장기수중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오리막의 한동지를 떼여 낼 작정을 한 모양이였다.

군청에서 갑자기 한동지의 오리막이 무허가건물이니 철거하라는 계고장이 날아 왔다. 이와 동시에 군청관계자는 한동지를 경찰에 고발해 버렸다. 김선생이 이를 보고 《철거하라고 통고를 해놓고 기한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고발하는거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나.》하고 흥분하더니 담판을 짓겠다며 군청에 나갔다. 한동지의 오리막이 대규모축사도 아니

고 그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들어 간것도 아니였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철거까지 당해야 할 리유가 도무지 없는데 군청의 철거방침은 요지부동이였다. 몇차례 옥신각신끝에 그나마 받아낸 철거기한이 6월 30일, 한동지는 2,000여마리의 오리들을 몰고 다섯번째 이사를 해야 할 처지가 된것이다. 한동지에게 죄스럽고 기관에서 하는짓들에 분노가 솟아 올랐다.

전화도청도 심해 졌다. 《신라호텔》앞에 갔다 온후 많은 기자들이 찾아 왔다. 그들은 반드시 전화로 취재요청을 하고 오게마련이므로 김선생댁 전화만 듣고 있으면 누가 왔다 갔는지 환히 알수 있음은 두말할것도 없다. 진영에 왔던 기자들이 본사에 올라 가 기사를 완성할 무렵이면 《안기부》의 보도중지요청이 회사의 경영진에게 전달되군 하였다고 한다. 어떤 기자는 사정이 그렇게 되여 기사가 빠졌다며 사죄의 전화를 해왔고 어떤이는 사장이 고민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련락해 왔다.

진영에 와서 취재를 하고 간 기자중 나를 비방하는 기사를 쓴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것 같다. 젊은 그들은 사상을 떠나 나를 동정하였다. 구태의연한 랭전론리로 나를 매도한이들은 주로 신문사의 론설위원이나 데스크들이였다. 그러니 《안기부》로서는 젊은 취재기자들이 쓴 기사들이 계속 쏟아 지는게 달갑지 않을수밖에.

사실상 집안에 연금되는 날도 훨씬 많아 졌다. 5월 하순경 나는 27일부터 서울 한양대에서 있었던 《전대협》이 조직한 행사에 초청 받았다. 이 전화를 받은 다음날 바로 경찰차 6대가 집을 에워 쌌

다. 그들은 그대로 한주일이나 진을 치다가 서울서 《전대협》출범의 행사가 끝난 뒤에야 돌아 갔다.

6월 15일경에는 초청강연회가 있어 서준식동지가 마산에 내려 오게 되였다. 내가 그 집회에 나가리라 생각했던지 경찰들이 또 몰려 왔다. 하도 자주 있는 일이라 요즘은 가장 조그만 영숙이까지도 경찰이 오건말건 태연자약하다.

방안에 앉아 가만 듣고 있으려니 경찰과 김선생이 주고 받는 말이 걸작이다.

《이번에 내려 오면 서준식이가 여기 오겠지요?》

《마산까지 왔는데 인사 드리러 안 오겠어요?》

《거 순 빨갱이간첩 아니요?》

《오거든 소개시켜 줄테니 직접 보시오. 빨간지, 파란지.》

다음날 예상대로 서동지가 다니러 왔다. 김선생은 《약속》대로 경찰들에게 서동지를 소개시켰던 모양이다. 서동지가 가고 나자 경찰들은 《그 사람 얌전하게 생긴게 간첩 안 같던데요.》하더라는것이였다.

철거반이 부셔 버린 젊은 웃음들

그무렵 일본 《NHK》방송에서 취재하러 오겠다고 전화가 두번이나 왔는데 웬일인지 오지 않았다. 약속 하나는 잘 지키는 보도부문 사람들이 왜 그랬을가 싶었다. 또 전화가 문제였을가? 그런데 뜻밖에도 재미언론인 문명자선생이 련락도 없이 불쑥 찾아 왔다. 평양을 취재하고 서울에 들렸다가 귀국하는 길이라고 했다. 서울서 들으니 나에게 미리 찾

아 가겠다고 전화를 하면 귀찮은 일이 생긴다고 하기에 아예 주소만 물어 찾아 내려 왔다고 하였다.

문선생은 올해 예순넷으로 국적은 미국이며 유에스 아시안뉴스 서비스의 대표로 있다. 이번 4월 말 평양방문에서는 **김일성**주석을 단독으로 만나뵙는 등 활약이 대단한 교포언론인이다.

그런데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사람이 소박하여 유명인사특유의 거리감이 느껴 지지 않았다. 그는 고향에 못 가고 있는 내 처지를 무척 동정하면서 자신이 보고 온 평양의 모습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고향얘기를 들으며 처음 만난 문선생앞에서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다. 그 역시 로인이라 왠지 마음이 놓여 그랬던 모양이다.

문선생은 언제 만들었는지 소고기장졸임까지 한보따리 가져 와서는 나더러 고향 가는 날까지 밥 많이 먹고 건강하라고 당부하고 떠났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경찰이 와서 문선생이 다녀간 일을 캐묻더니 6월 18일부터는 아예 기관원들이 날마다 김선생집에 출퇴근을 하며 드나드는 사람들을 검문하기 시작했다. 특정한 행사나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기자들의 출입을 막으려는 심산인 것 같다.

며칠후 《KBS》텔레비죤 취재팀들이 찾아 왔는데 요행히도 기관원들이 《퇴근》하고 난 뒤에 찾아 들어 와 무사통과되였다. 그날 저녁에 취재는 마쳤는데 밝을 때 촬영을 해야 한다기에 아침 일찍 오라고 일러 보냈다. 다음날 새벽 취재팀이 일찍 와서 촬영을 무사히 마쳤는데 그만 나가다가 《출근》하던 기관원들과 마주쳐 버렸다. 취재팀을 본 그들

이 달려 들어 필림을 빼앗으려 하는 바람에 한바탕 싸움이 벌어 졌는데 취재팀이 완강하게 맞서 필림을 빼앗기지 않고 무사히 돌아 간 모양이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다음날부터는 아예 24시간 상주체계로 바뀌였다. 기관원들도 고생길이였다. 뙤약볕에 달궈 진 승용차안에서 24시간 먹고 자야 했다. 보다못해 김선생이 월파정의 한 방을 내주었다. 대신 이쪽 집에는 얼씬도 못하게 주의를 주었다. 그들때문에 신경을 썼던지 며칠후 그곳에서 고시공부하던 학생들이 짐을 싸 떠나버렸다. 김선생이 집을 비울 때면 꼭 건너 와 내 점심을 챙겨 주군 하던 그들이 나때문에 공부방을 잃은것이다. 나스스로 생각해도 골치 아픈 령감이 아닐수 없었다.

오리막의 한동지는 뙤약볕에서 축사를 뜯어 옮기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마땅한 곳이 없어 한동안 계속 터를 구하러 다니다가 어렵사리 갈 곳을 정한것이다.

축사를 뜯어 옮길 곳에 새 축사를 짓는 한편 오리들을 한끼라도 굶길수는 없기때문에 쉴새 없이 손을 놀려야 했다. 마침내 철거기한인 6월 30일이 닥쳤다. 그간 축사는 다 옮기고 한동지와 조영삼군이 살던 방 두칸짜리 가건물만 남아 있었다. 점심 먹고 하자며 한동지가 밥상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철거반원들이 들이닥쳤다. 한동지가 《오늘안에 뜯으면 되지 않느냐, 웬일이냐.》고 항의했으나 철거반원들은 순식간에 가건물을 때려 부시고 가버렸다고 한다. 그간 뙤약볕아래서 구슬땀을 쏟으면서 자재 하나라도 쓸만 하게 건사하겠다고 조심조심 축사철거작업을 해온 한동지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한동지는 이곳으로 옮길 때 자신이 거처할 방을 솜씨를 발휘해 직접 지었다. 야무지게 지어 진 가건물이였으나 방에 도배 같은것은 하지 않았다. 그것까지 신경 쓸 틈이 없었던지 아니면 도배조차 사치스럽다고 생각했던지 모르겠다. 그런데 91년 여름 병원에서 나를 간호하던 지현이가 진영에 왔다가 신문지가 발린 한선생의 방을 보고는 부산대 남학생들과 함께 예쁜 벽지를 사들고 와서 방을 단장해 주었다. 나는 그 방에 올라 갈 때마다 젊은 그들이 도배지를 붙이며 터뜨리는 쾌활한 웃음소리를 듣군 하였다. 무자비한 철거반원들은 방을 때려 부시며 그 건강한 웃음소리까지 빼앗아 가 버렸다. 란장판우에 멍하니 서 있는 한동지를 볼낯이 없었다. 내 주변에서 나를 돕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떼여내는구나 싶었다. 이제 다음차례는 누구인가.

기다림의 나날

기관원들때문에 사람구경하기 힘든 날들이 계속되였다. 《한겨레신문》 기자도 대문앞에서 쫓겨 갔고 일본서 진영까지 온 《아사히신붕》의 가키기자는 그래도 멀리서 왔다고 나와 인사는 나누게 하고 내쫓았다.

기자들뿐만아니라 다른 방문객들도 마찬가지였다. 유일하게 방문이 허용된것은 《빨갱이는 김해를 떠나라.》고 웨치는 《자유총련맹》시위대들이였다.

7월 7일 인적이 끊겨 적막한 집안에 들어 앉아 《총리》가 발표한 대북서신의 내용을 방송으로 들었다. 인도주의니, 상호주의니 수식어는 많았지만 골자가 《북에서 그간 랍치해 간 수백명의 남〈한〉

사람들을 돌려 보내면 리인모도 보내고 다른 장기수들도 북으로 보낼 용의가 있다.》는 얘기였다.

다음날 신문을 보니 대북서신에 대한 여러가지 해설이 나와 있었다. 그동안 나의 송환문제를 놓고 《정부》내 강, 온파간에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결국 강경파인 《법무부》, 《안기부》의 주장이 관철되였다고 하였다. 즉 남측은 북측이 결코 들어 줄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나의 송환을 사실상 거부하였다는것이다.

그간 남측은 수백명의 어부, 항공승무원들이 북〈한〉에 의해 랍북되여 지금까지도 억류되여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에 대해 북측은 그들이 자진입북하였다는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 선적이 없다. 이런 정황인데 그들을 돌려 보내라니 남측이 실현가능성 없는 요구를 골라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나는 신문을 보며 가슴을 쳤다. 고향길이 멀어 진게 안타까와서만이 아니였다. 나는 《총리》의 대북서신에서 랭전의 망령이 되살아 나고 있음을 보았던것이다. 올해 초 력사적인 북남합의가 이루어 진후 멀리 사라진줄 알았던 랭전의 망령이 나의 송환문제를 놓고 《정부》안의 랭전론자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 역시 전해 들은바가 있었다.

《그런 빨갱이범법자를 도와 줄 필요가 뭐가 있나. 더구나 그를 송환하는것은 북〈한〉에 리로운 일이다.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 늙어 죽게 해야 한다.》

내가 남조선사회에서 《범법자》가 된것은 1952년의 일이다. 남에서는 종군기자가 신문사소속의 민간인신분이지만 북의 종군기자는 인민군 문화부소속의 정규인민군이다. 하지만 나는 52년 포로가 되였을 때 본대와 6개월이상 떨어 져 유격활동을 했다고 해서 전쟁포로대우를 못 받고 범법자로 규정돼 감옥에 갇혔다. 이는 분명히 제네바협정을 무시한 처사였다. 나뿐만아니라 유격활동을 했던 인민군출신들은 거의 포로송환에서 제외되고 국방경비법상 《리적행위》의 적용을 받았다.

91년부터 북측이 전쟁포로인 리인모를 제네바협정에 따라 송환하라고 요구해 나서자 남측은 《그는 전쟁포로가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남측이 내가 전쟁포로라는것을 인정하면 제네바협정에 따라 나를 송환해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점을 결코 인정할수 없었을것이다. 하지만 아니라고 할 때는 일정한 론리적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나는 그 근거가 대체 무엇일가 몹시 궁금하였다.

한번은 《말》지의 신문기자가 국제법전문가인 《한국》외국어대의 리장희교수에게 나의 신분문제에 대한 해석을 의뢰한 일이 있었다. 대답은 《리인모씨는 전쟁포로다.》라는것이였다.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왜 전쟁포로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들어 보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기관원들의 차단으로 외부인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일부 신문에는 52년 당시 나의 피의자심문조서가 발견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나는 인민군소위로 경남도당 군사지도원이였는데 후퇴시 지리산에 들어 가 유격활동을 하면서 량민을 학살하고 방화, 략탈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종군기자라는 직함은 내가 재판에서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해 꾸며댄것이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단 한가지만 되묻고 싶었다.

《앞줄 사형, 뒤줄 무기》식으로 중형이 무차별적으로 선고되는게 보통이던 전쟁중의 군사재판에서 피의자심문조서대로라면 나 같은 범법자가 어떻게 징역 7년이란 최하형량을 선고 받을수 있었단 말인가.

게다가 한 신문은 또 다른 설(?)을 실었다. 《리인모는 종군기자로 위장한 인민군 고위장교》라는것이다.

나는 광복후 새 조국건설과정에서 선전사업에 종사하였고 그 경험을 살려 전선에서는 종군기자일을 보게 되였다. 지리산에서도 신문을 만들었고 출옥후에도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 34년 감옥생활동안에도 언젠가는 기록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기억을 거듭거듭 되살려 왔다. 그러고 보면 평생을 통해 그런대로 한길을 걸어 온셈이다. 그런데 별 대단한 벼슬이랄것도 없는 나의 종군기자리력을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은것은 대체 무슨 리유인지? 비전투원인 종군기자가 아니라 전투원인 인민군소위출신 유격대원이라야 동정할만 한 가치가 없는 보다 확실한 범법자가 되기때문인가?

그런데 《리인모를 고향으로 보내는 일은 북〈한〉을 리롭게 하므로 안된다.》라는 식의 론리는 나를 더한층 슬프게 하였다. 전해 들은대로라면 다음과 같은 론리다.

《온갖 시련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회주의신념을 견지해 온 리인모가 북으로 송환되면 북〈한〉정권은 그를 영웅으로 만들것이고 이것은 북〈한〉주민의 사상적통합에 큰 역할을 할것이다. 이것은 북〈한〉에 리익이 되는 일이니 남〈한〉에는 손해다.》

물론 평생을 《반공》에 묻혀 살아 온 사람들로서는 나를 고향에 보내는 행위는 자신의 일생 견지해 온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지 않는한 결코 용납할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로 총을 들고 싸웠던 형제들이 반세기를 끌어 온 랭전적대립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갈것을 합의한 오늘이 아닌가. 7천만겨레모두에게 이 시대는 과연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내가 그 어두운 나날 안해와 아이들이 있는 평양에 가고 싶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것이다. 차라리 안해의 소식을 몰랐을 때보다 뻔히 알면서 가지 못하고 있는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나에겐 한시라도 빨리 고향으로 달려 갔으면 하는 바람보다 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민족의 진정한 화해였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이였다. 그 소원을 간직한채 나는 김선생댁의 남향방에 한개 바위돌처럼 앉아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손이 떨려 더 이상 글도 쓰지 못할것 같은 상태에 있었다. 91년에 받은 뇌수술의 여파인지 나의 머리는 명료한 사고능력을 잃어 가고 있었다. 기관원들이 지켜 서 있지 않더라도 위생실출입이나 겨우 하는 다리로 더 이상 어디를 다니겠는가. 한마디로 내가 소원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그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손도 발도 머리도 쓸모 없게 된 나이기에 나는 정성어린 기다림을 시작할수밖에 없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지 않던가. 늙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한 로인이 마지막기력을 쏟아 붓는 이 간절한 기다림이 분단의 장벽을 녹이는 한줌 온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나는 기다림의 나날을 계속하고 있었다.

마지막 여섯달

다섯번째 가을

1992년 가을은 교도소에서 나와 다섯번째로 맞는 가을이였다. 기다림속에서 맞은 가을이였다. 허나 이해 가을 역시 기다림에서는 결실이 없는 가을이였다.

가을에 접어 들면서 나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였다. 뇌수술의 후과인지 자주 의식이 흐려 졌고 때로는 반수반성의 상태에서 몇시간씩 주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도 했다. 게다가 때때로 느끼던 언어장애가 이때는 항시적인것으로 되여 한마디한마디를 모지름 써야 할수 있었고 운신도 벽이나 문설주를 짚고서야 겨우 한두걸음씩 옮기는 지경에 떨어 졌다.

김선생내외간은 이만저만 걱정하지 않으며 정성을 다해 주었지만 내리막길에 들어 선 건강은 멈춰세울수 없었다.

그런데도 김선생의 집주변에서는 기관원들이 떠나지 않았고 김해땅에서 당장 물러 가라는 《시위대》의 웨침소리도 계속되였다.

김선생이 참다못해 《여보세요, 움직이기도 어렵게 건강이 나빠 진 로인에게 이거야 너무하지 않아요?》하고 문밖에서 떠나지 않는 기관원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저희도 알아요. 그러나 당국의 지시인걸요.》하고 대답을 피하군 했다. 아마 나를 내쫓으라고 고함을 치는 《시위대원》들 역시 《너무하지 않은가.》하면 같은 말로 대답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남땅에서 대답하기 딱하거나 립장이 궁해지면 《당국의 지시니 어쩔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한두번만 듣지 않았다. 모름지기 교도소의 교도관들속에서도 조용한 자리에서 리치를 따지면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적지 않았을것이다.

이남민중들은 자신을 당국자와 동일시하지 않는것이 하나의 특징과도 같았다. 그러고 보면 당국자들에게 찬동하지 않으면서도 편안을 위해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관원이나 《시위대》일것이고 지시대로 움직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자들일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당국과 자기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놓고 있는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불가피한 귀결이다. 독재자는 그 경계선을 없애 보려고 집권 18년간 《국민총화》를 부르짖었지만 종당에는 배척을 받아 저세상으로 갔고 전두환 역시 《국민화합》을 부르짖으며 경계선을 넘어보려 했지만 백담사로 쫓겨 가야 했고 로태우는 한걸음 물러 나 《민주화선언》을 내지 않을수 없었다. 남쪽의 력대 위정자들은 그 어떤 《국민총화》나 《국민화합》이나 《민주화선언》으로써도 민중

과 더 멀어 지기만 했을뿐이다. 이 간격은 그들이 사대와 매국, 분렬주의적인 체질을 바꾸지 않는한은 없어 지지 않을것이다. 결국 남쪽땅에서의 《국민단합》이란 공중루각이라고 해야겠다.

이곳 북쪽땅에 와서 제일 가슴을 파고 들던 말은 《우리 수령님》, 《우리 지도자동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라는 말이였다. 물론 광복후 5년간에도 나와 나의 동지들은 《우리 장군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라고 말했고 자신을 당과 정부의 한 부분으로 알았다.

허나 나는 43년간을 그 생활과 떨어 져 있었다. 추억속에서도 희미해 져 가고 있었다. 북쪽땅에 들어 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의 심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만 요즘 내가 어데 가나 입버릇처럼 저도 모르게 나오는 《좋구나! 참 좋은 세상이구나!》하는 말로 대신해야 할것 같다.

《우리 수령님》, 《우리 지도자동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이 짧은 말속에 우리의 힘이 있지 않을가…

남쪽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리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북쪽땅에는 당국과 일반민중이 따로 없다는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일》이라는 말에 유혹되기도 한다. 그들이 만일 인민들은 《우리 수령님》, 《우리 지도자동지》라고 부르며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라고 부르시는 우리 사회의 혈연적인 일심단결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수 있다면! 허나 이남민중들은 강권에 의한 당국추종을 알고 있을뿐이다. 그것이 바로 김해군 진영읍 신룡리에 《연금》되여 있는 나의 앞에서 펼쳐 지고 있었다.

동지들이나 기자들은 나를 만나러 와도 들어 올수 없었고 내가 그들을 만나러 가는것은 념도 낼수 없었다. 당국자들은 김선생의 아담한 집을 《리인모의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것이였다.

나는 《두문령》을 받은셈이였다. 북쪽땅으로 돌아 갈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가질수 없었다. 나는 《신라호텔》앞에서의 봉변과 뒤이은 남해안 어느 섬으로의 추방에서 나를 돌려 보내지 않으려는 남쪽당국의 의지를 절감했다.

게다가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다. 방도를 찾지 못해 하는 김선생의 얼굴에도 그늘이 질어 갔다.

그러던 9월 말의 어느 날이였다. 김선생이 때없이 낯이 환해서 방에 들어 왔다.

《선생님, 기쁜 소식입니다. 고향으로 돌아 가게 됐습니다!》하고 그는 9월 중순에 있은 평양 제8차고위급회담때 북측단장이 리인모송환을 올해안으로 해결하자고 요구했고 남측단장은 판문점에 리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고 1차상봉때 리인모를 송환하자는 안을 제기했는데 북측에서는 동의를 표시했고 9월 25일 판문점대표접촉에서는 리산가족면회소설치문제와 리인모송환문제를 합의 보았다고 흥분하여 말했다.

《이번에는 틀림 없을것 같습니다!》

김선생의 온 가족이 기뻐 했고 기진이는 《그럼 난 할아버지와 헤여 져야 하나요?》하고 섭섭해 해서 모두 웃었다.

《어쩌나? 선생님이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을 만나 뵈셔야 할텐데.》하는 김선생부인의 말에 나는

《내 병은 가족을 만나면 당장 나을겁니다.》하고 대답했는데 대답해 놓은 다음에야 마치 그들의 정성이 가족들만큼 각근하지 못해서 앓는다는 말로 된듯 하여 미안함을 느꼈다. 그러나 김선생내외는 나의 말을 리해해 주었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그날 밤 내가 무슨 생각인들 하지 않았으랴.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어쩔수 없는 귀결이다 싶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한주일이 지난 10월 초 남측은 《리인모송환조건》으로 또다시 《랍북자송환》이라는 조건부를 내놓아 대표접촉을 파탄시켜 버렸다. 그날 김선생과 그의 가족들의 기색은 말이 아니였고 어떻게 나를 위로해야 할지 몰라 했다.

서울에서의 7차회담때도 로부모방문단교환문제를 날자까지 합의 보고 돌아 서기 바쁘게 《핵문제》가 해결됨이 없이는 남북사이의 그 어떤 합의사항도 그 리행을 보류한다고 하며 방문단이 오고 갈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포커스렌즈》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은 남측이 아니였던가.

력사적으로 놓고 보아도 7.4공동성명을 냈을 때에도 조인하기 바쁘게 《이 한장의 종이장에 우리의 운명을 점칠수 없다.》고 뒤집었고 북남합의서에 수표하고는 잉크가 마르기도전에 리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하나의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개새끼는 낳는족족 짖는다고 력대 당국자들이 신통히도 같았다.

어느 당국자에게서나 남쪽사람들이 평가한대로 모든것이 그때그때 집권연장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 쇼》였을뿐이였다. 예로부터 치자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고 했는데 자신들의 집권욕을 겨레와 민족의 운명우에 올려 놓고 있는것이 남쪽의 당국자들이였다.

나는 《리인모송환문제》를 단순히 내가 고향으로 돌아 가는가 못 가는가 하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리인모송환》은 북과 남의 화해와 화합을 이룩하는데서 하나의 상징적인 디딤돌로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측은 대표접촉을 파탄시켰다.

이것은 단순히 리인모송환문제의 파탄이 아니라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화합에 밀려 드는 검은 구름장을 의미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 생각을 김선생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언어기능의 장애는 차치하고라도 김선생과 그의 가족들을 《국가보안법》의 쇠고랑속에 몰아 넣을수 있는 대화를 피하고 싶었다. …

그때로부터 며칠후인 10월 5일에는 《남한조선로동당사건》이라는 《안기부》의 충격적인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나는 텔레비죤으로 그 발표를 들었다. 그 《사건》은 9월 초에 있었던 《김락종간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들추어 냈다는것인데 들을수록 어이가 없었다. 중부, 경인, 령남, 호남 등 4개 지역당으로 구성된 조선로동당의 남조선현지당으로 1995년까지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미군과 핵무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중지, 공안통치종식, 민주정부수립, 련방제통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것이다. 그 모든것은 남쪽

땅의 민주세력, 특히 청년학생들의 투쟁목표 그대로였다. 결국은 이남땅의 모든 민주세력은 《북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것으로 된다.

더욱 가관인것은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안기부》가 《과거 안기부가 국내정치상황이 불안해 질 때를 맞추어 간첩단사건들을 발표하여 국민의 불만을 사온것이 사실》이지만 《이번만은》(!) 어떠한 의혹도 없이 수사결과를 믿어 달라고 구구히 변명을 덧붙인것이다. 마치 마당 한구석에 돈을 감추어 둔 수전노가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내가 마당에 돈을 감춰 두었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는 옛말 같다.

이것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리는 반《정부》민주세력에 대한 일대 척결임은 불 보듯 명백했다. 《대통령선거》때는 민주당후보를 지지하라는 지령을 북에서 주었다고까지 했으니 너무 빤드름해 듣는 사람이 얼굴 붉어 질 지경이였다. 오죽하면 남쪽사람들이 《간첩사건이라는거야 당국에서 있었으면 하면 생기는거지요.》하고 말하랴.

나부터가 나도 알지 못하는 《지하당조직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죄를 쓰고 독재자의 투철한 《반공정신》을 론증하는데 제물로 되였던 사람이다.

입이 쓰거워서 텔레비죤을 끄고 말았었다. 그것 역시 북남사이의 화합에 던져 지는 또 하나의 검은 구름장이라는것이 명백했다. 아닐세라 정세는 나날이 험악해 져 갔다. 11월 초에 들어 서자 남측은 미군과 함께 《화랑》, 《92－독수리》라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았으며 정세를 대결의 극점으로 몰아 갔다. 그와 함께 모든 북남대화는 중단되여 버렸다.

남측의 적십자사는 나를 두고 전쟁때 자률적으로 남에 떨어 진 사람이고 그후에 반《정부》음모에 가담했으므로 전쟁포로가 아니며 인도주의문제가 아니라 당국급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발표했다.

나는 이미 희망을 가지지 않았다. 북남대화는 중단상태에 빠졌는데 정세발전으로 보아서는 언제 재개될지 예측할수 없었다. 나는 내가 남쪽당국의 그 어떤 정치적흥정거리로 되는것을 바라지 않았다.

희망을 안겨 주었던 다섯번째 가을은 이렇게 절망속에서 지나갔다. 그것은 나의 문제이자 곧 민족의 화합에 대한 희망이였으며 절망이였다.

그때 나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 날수 없었다. 거의 하루종일 누워 있었고 자주 혼미한 상태에 빠져들었으며 때로는 환각상태가 나를 휩쌌다. 때로는 형무소에서 고문 받는 환각에 몸부림쳤고 때로는 외진 섬에서 숨지는 자신을 보기도 했다. 이미 떠나간 동지들의 환각도 떠올랐다.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것은 죽음뿐임을 깨달았다.

43년동안 그려 보았던 땅도 친지들도 끝없이 멀어 지고 있었다.

전화종소리

그러던 어느 날엔가 받았던 전화가 기억난다. 그때 나는 자리에 누워 있었고 전화는 김선생부인이 받았었다. 원래는 내옆에 전화가 있었으나 병세가 악화되면서 김선생이 문밖으로 내갔었다. 전화종소리가 나를 자극한다는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종종 협박전화가 걸려 오기때문이였다.

협박전화란 《시위대》들이 웨치는것처럼 나더러 당장 김해에서 사라지라는 내용이였다. 여러차례 그런 전화를 받았으나 나는 김선생이나 부인에게는 일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번은 김선생이 직접 협박전화를 받는통에 알려 지고 말았다.

김선생은 당장 전화를 문밖으로 내여 가 버렸다. 그리고 나에게 전화가 와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 보고야 바꾸어 주도록 집안식구들에게 신칙했다.

이날도 김선생부인은 전화를 받으며 따져 묻고 있었다.

《누구세요? 잘 아신다구요? 선생님은 지금 건강이 매우 나쁘세요. 알고 계신다구요?》

나에게 온 전화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김선생부인은 문을 열고 나에게 전화를 받겠는가고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받겠다고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러자 김선생부인은 《잠간 기다리세요.》하고는 전화를 들고 들어 와 내 손에 쥐여 주었다.

《누군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을 잘 안다는데.》

나는 누운채로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상대방의 귀 설은 음성이 들렸다.

《여보세요, 리인모씨지요?》

어느 동지가 걸어 오는 전화로 생각했었는데 첫마디에서 벌써 쌀쌀하면서도 랭소하는듯 한 꾸며 낸 친절이 느껴 졌다.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언어장애가 오면서 귀는 너무 예민해 졌다 싶은 상태였던것이다.

내가 리인모라고 대답하자 상대방은 건강이 어떤가고 물었다. 나는 김선생부인이 이미 전화로 하는

말을 들었으므로 공연한 말을 묻는데 언짢아 져서 할말이나 하라고 했다. 그러자 전화에서는 뜻밖의 말이 울려 나왔다.

《리인모씨, 이제라도 고쳐 생각하는것이 좋지 않겠어요? 안해와 딸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리인모씬 신념을 지킨다지만 동유럽권의 공산정권들이 다 무너진걸 아시겠죠? 남은건 북〈한〉의 공산정권 하나예요. 쏘련도 없어 지고 크레믈리도 이제는 자유세계의 탑으로 됐어요. 북〈한〉공산정권이 며칠이나 갈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자유세계가 북〈한〉공산정권에 마지막압력을 가하고 있는걸 모르시지는 않겠는데요. 시간문제예요. 아마 리인모씨의 남은 생명보다 길지 못할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념이라는게 무슨 필요가 있죠? 안 그래요?》

간지럼 피우는듯 한 서울말씨였다. 나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혀가 움직여 주지 않았다.

그때 내 얼굴이 무척 험악했던지 방으로 들어 온 김선생부인이 깜짝 놀라며 내 손에서 전화를 빼앗았다. 그러나 전화는 이미 끝난 뒤였다. 김선생부인은 무슨 전화인가고 묻지 않았다.

《제가 불민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 보고 바꾸어드렸어야 하는건데.》하고 미안해 할뿐이였다. 전에 겪은적 있는 협박전화로나 짐작한 모양이였다. 나 또한 굳이 그 내용을 밝히고 싶지 않아 김선생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기는 새삼스러울것도 없는 이야기였다. 현실은 그 전화보다 더 소란스러웠고 엄혹했다.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좌절과 특히 쏘련의 붕괴를 두고 남쪽땅에서는 얼마나 떠들었던가. 신

문, 잡지들, 텔레비존은 온통 그 소식을 특집하여 쏘련의 붕괴에 대해서는 《지구상에서 공산주의의 종말》이라고 했고 《자유세계》의 영원성을 구가했다.

그 소식을 들을 때의 나의 심정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일제때 쏘일불가침조약의 소식을 듣고 느꼈던 놀라움과 허탈감도 이때보다는 크지 않았다. 더우기 70여년을 크레믈리에 걸려 있던 쏘련기발이 3만마르크에 경매되여 도이췰란드의 반사회주의전람관에 걸려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정…

나와 나의 동지들이 피를 흘리고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것이 바로 삼천리 이 땅에 통일된 사회주의조국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였던가.

남의 당국자들은 《승공통일》은 떨어 질 때가 된 무르익은 과실처럼, 도이췰란드식《흡수통일》은 시간문제처럼 떠들었다.

북쪽땅에 가해 지는 봉쇄와 압력에 대해서는 환성을 올리듯이 말하고 또 말했다.

남쪽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봉쇄와 압력에 북쪽이 어떻게 질식되지 않고 끗끗이 나가고 있는지 의문을 감추지 않는다.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도 그런 압력과 봉쇄하에서는 단 며칠도 견재해 있을수 없었을것이였다.

다섯번째 가을, 이때가 나에게는 한평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 주위의 모든것이 신념의 기둥을 허물어뜨리려고 끊임없이 타격을 가해 오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전화도 바로 그런 타격들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나는 나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절대로 흔들림 없으리라는것을 믿었다. 그것은 후방도 지원도 없이 100만 관동군과의 20성상 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한 장군님에 대한 믿음이였다. 6.25전쟁에서는 세계제국주의련합군을 물리쳤고 《푸에블로》호사건때에는 거만한 미국의 사죄를 받아 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패의 힘에 대한 믿음이였다. 장군님께서 계시는한, 남녘민중들에게 가장 투철한 반제반미립장의 상징으로 새겨 져 있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한 우리의 공화국은 사회주의를 지켜 내리라는 믿음이였다.

나는 그날 밤 일제때의 20여년간과 광복후 5년간의 생활을 돌이켜 보았다. 그런 피눈물나는 자리우에 세워 졌던 행복의 5년, 희열의 5년, 그것만으로도 나는 우리 공화국, 나의 신념의 조국의 영원성을 믿었다.

그 밤 내가 광복후 5년간을 돌이켜 보며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렀다면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적후에서 보낸 기간 홀로 지내본 사람이 아니고는 한 시대의 행복을 추억케 해주는 노래의 힘에 대하여 알수 없다.

내가 마음속으로 부른 노래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였다.

광복후 5년간 가장 많이 불렀고 인민군전사들과 남진의 길을 걸으면서도, 지리산의 눈 내리는 밤에도 불렀던 노래를 마음속으로 불렀다.

얼마전 내가 평양의 개선문을 돌아 보며 그 노래를 불렀을 때 박수를 쳐주던 간호원이나 의사도, 주위의 사람들도 그때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모를

것이다. 그 노래속에 담겨 있는 나와 나의 동지들의 한생에 대하여 생각했고 《다섯번째 가을》의 고통스럽던 밤을 생각했다…

그 밤 부인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근심에 싸여 들어 와 위로해 주던 김선생의 말이 기억난다.

《선생님, 너무 생각지 마십시오. 〈한겨레신문〉에서도 선생님에게 압력을 가하는것을 지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가 펼쳐 보이는 《한겨레신문》에는 《리인모》에 대한 압력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락인하며 그만두어야 한다고 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신문의 이름처럼 민족과 겨레의 화해화합에 대하여 모색하는것이 언제나 마음 훈훈케 해주는 《한겨레신문》이였다.

《그런 전화는 그저 잡소리로 들어 넘기세요, 기분 나쁠줄 알지만 곧 잊어 버려야 해요.》

김선생은 협박전화가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생각을 고쳐 주려고 하지 않았다.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전화가 특별히 기분 나쁠것도 없었다.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더 엄혹했다고 할수 있기때문이다.

로태우는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통일에로 가는 외적장애가 제거》되였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통일의 외적장애가 미국과 일본이라는 력사적사실을 외면한 《무지》는 차치하고 그 말이 《승공통일》에 대한 호언장담이라는것이 명백했다. 얼마나 많은 데스크들과 문사들이 로태우와 당국의 말을 곱씹으며 환성을 올렸던가.

공산주의는 이미 종말을 고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을뿐이다 하고 그들은 떠들었다. 이 소용돌이속에서 투쟁을 포기하고 《정부》와의 타협에 들어 간 반《정부》재야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나는 이때에 와서는 종종 나를 교도소에서 내놓은 것이 페인으로 된데도 있지만 당국자들이 자기들의 민주화체질을 가장하는것과 함께 남조선의 사회적분위기와 세계정세의 흐름이 전향을 달성케 하리라고 예견한것이 아닐가 하고 생각하게 되였다. 88서울올림픽을 거쳐 《공산권》의 마쟈르, 로씨야와의 국교관계, 뒤이은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체계의 몰락, 쏘련의 붕괴, 《유일초대국》으로 된 미국… 이런 사실로 하여 남쪽땅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현훈증에 걸려 있었다. 그들은 미국이 《유일초대국》으로 남게 되자 자기들도 유일초대국이 된듯이 떠들었다. 호가호위라고 해야겠다.

이제는 감옥에 있는 몇몇 《빨갱이》쯤은 내놓아도 아무 영향도 없으리라고 여겼던지도 모른다. 도리여 우리가 《비전향》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했던것이나 아닌지…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 좌절감을 느끼고 의기소침해 지기도 했던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앞에 기관원들이 늘어 서고 《자유련맹》의 《시위대》가 나타났을 때는 다시 힘을 느꼈다. 남조선식《자유민주주의》가 나로 하여 일정한 자극을 받았음은 의심할바 없었다. 《빨갱이》는 여전히 위험한 존재였던 모양이다. 이것이면 나에게는 충분했다. 사회주의자로 태여나 76살의 페인으로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랄게 있단 말인가.

적들이 나를 미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있으며 살아 있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날의 전화도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다시한번 안겨 주었다. 그런 전화를 생각해 내고 괘재를 불렀을 《자유련맹》의 분들에게 나는 때 늦게나마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싶다.

그후로는 협박전화나 그런 전화를 더 받은 기억이 없다. 그런 전화가 더 오지 않았는지 김선생네 가족들이 그런 전화는 차단해 버린것인지는 알수가 없다.

마지막겨울

이해 겨울이 나에게는 남쪽땅에서 맞는 마흔세번째 겨울이였으며 마지막겨울이였다. 나자신도 그 겨울이 마지막겨울로 되리라는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것은 남쪽땅에서의 마지막겨울이 아니라 나의 생에서의 마지막겨울이라는 느낌에서였다. 건강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여 때로는 혼미상태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손이 떨리고 부자연스러워서 글을 쓴다는것은 념을 낼수도 없었고 금방 생각했던것도 까맣게 잊어 버려 멍해 있기가 일쑤였다. 한번은 잠들었댔는지 혼미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눈을 감고 있다가 떠보니 김선생과 선생의 부인이 나를 지켜 보고 있었는데 부인은 황급히 머리를 돌리며 일어 났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선생의 부인은 아무래도 내가 가족들을 만날 때까지 살기 어려우리라는 가슴아픔으로 눈물 짓고 있었던것이다.

남해안의 겨울은 무척 온화하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해 겨울이 일생에서 가장 추위가 심했던 겨울처럼 느껴 진다.

나는 정신이 밝을 때면 이것저것 책을 읽었다. 김선생은 매일 내 손 가까이에 신문잡지들과 책들을 놓아 주었다.

서준식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도 면회 왔다 갈 때면 책을 한두권씩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날 나는 출판물에서 기가 막히는 소식을 읽었다. 1월 12일 서울의 《민사지방법원》에서 리완용의 증손자가 《토지소유권》이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일제시기 리완용이 소유했던 땅을 그에게 상속된것이므로 돌려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것이였다. 그 땅이란 리완용이 나라를 팔아 받은 돈으로 마련한것이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판이 처음이 아니라 몇차례이며 리완용의 증손자는 벌써 적지 않은 땅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되찾았고 호화판을 누리고 있다는것이였다.

그런가 하면 경상북도 대구에서 살고 있는 안중근렬사의 후손인 안민생은 일제와의 투쟁에서 한다리를 잃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파쑈독재자때에는 10년 징역까지 살았고 지금은 해외에서 살고 있는 친척들과의 만나는것마저 금지되여 있다는것이였다.

아무리 사대매국체질의 이남《정부》라고 하여도 이렇게까지 파렴치할수야 있는가. 도대체 당국자들은 이 민중을 어데로 끌고 가려는것인가.

그 글을 읽었을 때 나는 치를 떨었다. 분노에 앞서 허무감을 느꼈다. 당국의 한 인물은 민주화의 목소리가 높아 간다고 하여 《이 땅의 우익은 다 죽었

는가.》라고 웨치는 글까지 썼는데 나는 《이 땅의 민족성은 이렇게도 무력해 졌단 말인가.》하고 부르짖고 싶었다.

가슴이 터지는듯 답답하여 나는 더듬더듬 자리에서 일어 나 창문을 열어 놓았다. 찬바람이 마구 불어 들어 오며 가슴을 좀 진정시켜 주는것 같았다.

나는 창문을 닫고 자리에 와서 누웠다. 나의 건강때문에 그토록 마음 쓰는 김선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나는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찬바람을 갑자기 맞은때문인지 처음은 감기로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도록 열이 내리지 않았고 호흡곤난이 오기 시작했다.

심상치 않다고 여긴듯 김선생은 부산병원으로 가보자고 했다. 그때 나는 이미 제대로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날로 나는 부산대학병원으로 갔다.

대학병원에서 진찰결과를 들은 김선생의 얼굴은 사색이 되였다. 악성페염인데다 농흉까지 겹치였다는것이다.

나는 부산대학병원 932호실의 입원환자로 되고 말았다. 그것이 1993년 2월 12일의 일이였다.

한생을 총화 지어 보다

부산대학병원에서의 입원생활은 거의 한달을 끌었다. 김선생은 하루가 멀다 하게 내외분이 함께 찾아 왔고 박홍자사모님과 리미순전도사도 자주 찾아왔다. 서준식군을 비롯한 동지들도 찾아 와 성심으

로 문안을 했다. 그들은 올 때마다 미안할만큼 여러 가지 음식을 해가지고 왔다.

그러나 나는 이미 식사를 할수 없었다. 2월 말에 들어 서면서는 링게르점적을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나의 생명은 부지되여 갔다. 누가 찾아 와도 언어장애때문에 말할수 없었고 반혼수상태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침대에도 편안히 누울수 없었다. 몸을 펼수 없었고 다리도 펼수 없었다. 몸을 꼬부리고 모로 누워 있을수밖에 없었다. 의사나 간호원들이 다리를 들어 주려고 할 때면 뼈가 부서지는듯 한 아픔을 느끼며 저절로 신음소리가 흘러 나왔다. 나의 그 정상을 보고 면회 온 사람들은 물론 나의 간호를 맡은 경성대생 장선화도 눈물을 흘리군 했다.

나의 몸은 형무소와 교도소에서 34년간 꿇어 앉아 있던 그 자세로 굳어 져 버린것이였다. 끈질긴 열과 함께 동통과 호흡곤난, 묵은 상처의 아픔이 무섭게 괴롭혔다.

온몸의 모든 부분이 자기 기능을 잃어 버렸으나 귀만은 더욱더 밝아 진듯 했다. 나는 옆환자들이 주고 받는 말소리, 의사와 간호원들이 낮은 소리로 하는 말, 지어는 그들이 복도에서 주고 받는 말까지도 알아 들었다.

그런 속에서 나는 내가 회복될 가망이 없는 환자라는 말을 들었고 나를 지켜 보는 의사와 간호원의 얼굴에서 내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치부되였음을 깨달았다. 사실 나의 의식상태나 몸의 여러 부분이나 죽은 사람에 더 가까왔다.

문득 내 귀에 이런 말들이 들려 왔다.

《이북적십자사에서 악성페염으로 위급한 상태에 있는데 빨리 송환하라고 했다는군요. 남에서는 여전히 들은척 하지 않구요.》

《정말 이러다간 로인님이 가족들도 만나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시겠어요.》

《당국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 좀더 끌면 오히려 북에서 받지 않겠다고 할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을 보내는것과 같다고 말예요.》

그들은 북에서 강력히 중지를 요구했으나 그대로 강행되는 《팀 스피리트》훈련과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가 감행하려고 하는 북에 대한 《특별사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귀결점은 정세가 이 《리인모송환》과는 점점 더 멀어 지고 있다는것이였다.

그 이야기를 한것이 나를 면회 온 동지들이나 지기들이였는지 의사들이였는지 환자들이였는지 나는 알수 없었다. 그들은 내가 혼수상태인줄로 알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것이고 사실 나는 혼수상태에 가까왔다.

나는 꼬부린채 누워 창밖의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종시 그리운 북쪽하늘, 평양과 고향의 하늘밑에는 가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터지는듯 했다.

부지중 지나온 한생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마지막순간이 닥쳐 오면 인간은 자기의 한생을 총화지어 보게 된다는 말이 옳은것 같다.

파발리에서 울린 30년대의 총성에서 시작된 투쟁의 첫 걸음, 나를 그 길에 이끌어 주고 비명에 간 정운길, 조을룍동지들, 조선인민혁명군의 총소리를 따라 장백으로, 룡정으로, 얼뚜강으로 떠다니던 풍운의 나날들, 황수원언제공사장에 오셨던 젊으신 장군님, 그때 그분이 장군님이신줄 알았으면 나는 주저없이 따라 나섰을것이다. 영채 도는 눈빛과 정열적인 말로 장군님의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심장속에 조목조목 심어 주던 혁명군 녀공작원,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안고 서울로, 도꾜로 오르내리던 나날들… 그리고 광복의 감격, 열광적인 환호, 단 하루였던듯 흘러 간 광복후의 5년간, 풍산에서, 흥남에서 밤낮을 모르고 뛰여 다니던 일, 합당대회에서 연단에 선 장군님을 뵈왔을 때의 감격, 76년간의 생애에서 꺼질줄 모르는 행복의 추억으로 되여준 영원의 5년,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생각하면 저절로 조수처럼 밀려 들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그리운 5년… 그때로부터 43년간, 그 5년간을 부끄럼없이 돌아 보도록 살아던가. 눈 덮인 지리산에서의 투쟁, 《전향하겠는가?》하는 말에 《안한다!》는 대답때문에 34년으로 이어 진 형무소와 교도소생활… 교도소에서 나올 때의 좌절감, 수기로 하여 다시 찾은 투쟁의 기쁨…

나는 조선로동당원으로서 공화국 국장이 찍혀 진 파견장을 안고 나온 인민군종군기자로서 다르게는 살수 없었다. 후회없이 돌아 볼수 있는 한생을 보냈다면 이것이 혁명가로서의 행복이 아닐가. 나는 앞으로 언제든 통일될 조국의 하늘아래 떳떳할 한생을 보냈다고 자신에게 대답했다. 유감스럽다면 평양의 하늘, 풍산의 하늘을 멀리에 두고 눈을 감아야 한다는것이다. 《아, 보고 싶은 북쪽하늘이여!》 평

양으로 돌아 가 《장군님, 종군기자 리인모 43년만에 돌아 왔음을 아룁니다.》하고 보고 드리고 싶었고 그리운 집문을 열고 들어 서며 《여보, 내가 왔소.》하고 말하게 되는 때를 하루에도 몇번씩 마음속으로 그려 보았다.

허나 그 말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 오던 나의 동지들도 그대로 눈을 감지 않았던가. 마지막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정대철동지의 얼굴도 떠올랐다. 죽음도 무기였다. 나에게는 아직 마지막무기가 있었다. 나는 나의 한생을 돌이켜 보았고 부끄럼없이 살았다고 총화를 지었다. 다르게는 살수 없는 조선로동당원으로서의 한생을 살았다. 이제 남은것은 생명의 마지막순간 죽음으로 인생을 훌륭히 마무리 짓는것뿐이다. 한생을 장군님의 사상을 위하여, 통일조국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위하여 죽는것, 혁명가로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데 있으랴… 이렇게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 지는것 같았다.

병원침대우에서 나는 매일 동지들과 만났고 그들과 마음속으로 작별을 했다. 혹시 환각이였는지도 모른다. 한창 동지들과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둘러보면 장선화의 근심스런 얼굴만 앞에 있은적도 있었다.

어느것이 현실이고 어느것이 환각인지 나는 지금도 정확히 말할수 없다. 매일, 매 시각 동지들과 진심으로 돌봐 주던 사람들을 만났던것만 같았다. 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거의 전부가 환각이였을것 같다. 김선생네 집을 《지켜 주던》 기관원들이 병원에까지 따라 와서 《지켜 주었으니》 말이다. 그들은 나에게서 내가 각오했던것과는 다른 죽음을 바라고 있었던것이다.

2월~3월

나는 이미 내가 북쪽땅에 가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지 않았다. 부산대학병원의 침대가 나의 마지막 싸움터라고 각오했다.

2월이 끝나갈무렵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국제원자력기구가 북쪽땅의 두개 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결정했으며 평양에서는 단호히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이 나의 조국을 질식시키려는 또 한차례의—남조선당국자들의 기분을 보면 마지막이라고도 할수 있을지 모르는—압력이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었다. 그리고 원자력기구의 뒤에 미국이 서 있다는것 역시 명백했다.

치병제일이라는 병원이였으나 엄청난 사태발전이여서 구석구석에서 그 이야기들로 수군거렸다. 《대통령선거》때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마찬가지라는 태도로 알려고도 않고 투표에도 나가려 하지 않던 사람들답지 않게 모두 관심이 이만저만 아니였다.

북에서 거부했으니 《강제사찰》이 들어 갈것이라는둥, 만일 북이 한방이라도 쏘면 미국이 가만 있지 않을것이니 북으로서도 별수 없으리라는둥, 지어는 《강제사찰》을 수백대의 폭격기들의 엄호하에 특별사찰비행기가 들어 가기때문에 조금만 불손하게 나오면 초토화해 버릴터인즉 결과는 뻔하다는둥 별 이야기가 다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 《특별사찰》을 받아 들이지 않을수 없으리라는것이였다.

당국자들은 환영할만 한 사태발전이라고 떠들었다.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의 목을 조르려는 심보가 이때만큼 명백해 진적은 아마 없을것이다.

미국이 남쪽땅에 가져다 쌓아 놓은 핵무기나 일본이 비축해 놓은 핵무기용플루토늄은 전혀 외면하고 있지도 않은 동족의 《핵무기》는 위험하다고 비명을 질러대며 외세의 응원을 청하는것은 무슨 심보라고 할가. 문제는 핵무기가 아니라 북쪽땅의 사회주의제도에 있다는것이 너무도 명백했다. 하기는 그들에게는 어떤 핵무기보다도 사회주의제도가 더 무서울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꿈 꾸고 있을가. 까마귀 꿩 잡아 먹을 생각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혼미상태에 있는적이 더 많았으나 귀는 날카롭게 열려 있었다. 나의 조국의 운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후에 알게 된것이지만 그때는 온 세계가 숨을 죽이고 조선땅을 지켜 보고 있었다.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이 질식시키려고 하는 사회주의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떻게 될것인가.

3월에 들어 서면서 마침내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과 함께 《북의 핵무기개발》과 《북의 인권상황》을 구실로 최신핵장비들이 동원되는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에 들어 갔다.

3월 8일, 《부산기독교협의회》소속 목회자들이 병원으로 찾아 와 나의 완쾌와 완전귀환을 기원하는 특별례배를 했다. 눈물겨웠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의 화해와 화합을 기원하고 있는것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분렬과 대결의 목소리보다 더 높이 울릴

때가 과연 이 남쪽땅에서는 언제나 올것인가. 그때 나의 복잡했던 심정을 말로 하기는 어렵다. 나는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거듭했을뿐이다.

바로 그무렵인 3월 8일 미해병특수부대 5천여명의 시범상륙공격훈련이 있었고 미군대변인도 훈련을 위한 력량배비가 완료되고 《팀 스피리트》의 서막이 열렸다고 발표하였다.

그것이 《특별사찰》, 《강제사찰》앞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굴복하게 하려는 위협이라는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했다. 과연 나의 조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것인가.

이튿날 병원으로 찾아 온 부산대학교의 한 학생이 《선생님, 북에서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습니다!》하고 알려 주었다. 라지오방송으로 들었다는것이였다. 준전시상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발표되였는데 적들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다치는것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했다는것이였다.

《이번에는 그저 지나갈것 같지 않습니다.》하는 대학생의 말에 나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심정은 매우 복잡했다. 과연 이 땅에는 40여년만에 또다시 전쟁의 참화가 휩쓸어야 하는것인가. 정전협정이 체결된후 40년동안 대결과 불신만을 조장시키고 격화시키는 미일제국주의와 사대매국노들에 대한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이 땅에서 외세와 사대매국세력을 쓸어 버리지 않고는 평화란 있을수 없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좀더 고압적으로 나오면 북에서 굽어 들지 않을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

었다. 페르샤만전쟁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힘이 전능하다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3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제국주의련합세력에 가한 일대 강타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목숨으로 지키겠다는 선언이였다.

《선생님, 통쾌합니다! 북에서 미국의 거만한 코대에 된타격을 안겼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긍지가 생깁니다.》하고 대학생들은 말했다. 그럴만도 했다. 미국과 일본에 굴종밖에 모르고 구걸외교밖에 모르는 당국자들에 대한 불만은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바였던것이다. 대학생들은 나에게 소식을 계속 전해 주었다.

《외국통신들은 북조선의 정부성명으로 미국이 쇼크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방송은 3월 12일은 지구가 깨여 진 날이라고까지 했습니다.》하는 말도 했고 《북조선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책임은 미국과 일본, 남조선당국이 져야 한다며 잃을것은 분계선이고 얻을것은 조국의 통일이라는것입니다.》라는 말도 해주었다. 잃을것은 분계선이고 얻을것은 조국의 통일이라는것은 백천번 옳은 말이였다. 또한 이 전쟁은 외세와 사대매국세력에 의해 강요된 전쟁일것이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그런 극단한 사태발전에 당황한듯 유감스럽다느니, 미국에 지나친 압력을 삼가해달라느니 하고 중언부언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위급회담을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들은 미국의 위협과 압력이면 북반부의 인민들속에서 공포와 동요와 소요가 일어 나고 사회주의체제가 뒤흔들리리라고 예상했던것 같았다. 6.25전쟁을 준비하면서 리승만이 생각했던것과 다를게 없었다.

그러고 보면 **김일성**장군님을 수위로 하는 북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1950년대나 1990년대나 별로 발전을 보지 못한셈이였다.

조국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나는 침대에서 언어기능까지 잃고 누워 있었다. 이제는 내가 북쪽땅으로 갈수 있는가 없는가 문제가 아니였다. 나의 조국이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판가리계선에 서 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나는 믿을수 없는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믿을수 없는 소식

3월 10일, 부산대학병원으로 평양방문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6일에 석방된 문익환목사가 찾아 왔다. 문선생은 75살이였고 나는 76살이였다. 우리는 다같이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겪었고 분렬된 조국의 아픔을 느꼈고 통일을 위해 싸워 온 사람들이였다. 싸움전선은 서로 달랐으나 목적은 통일이였다는데서 다를바 없었다.

우리사이에는 할 이야기가 무척 많았으나 나는 말을 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어우를수 없었다.

문선생이 《리인모씨가 북으로 돌아 가 가족을 다시 만나는것은 나라가 통일되는 상징적의미를 지닙니다. 빨리 회복되여 송환되기를 바랍니다.》하고

말했을 때도 나는 고맙다는 말조차 할 기력이 없어 겨우 《예.》했을뿐이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통일원》에서 나왔다는 사람이 《당국에서는 리인모씨를 북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것이였다. 나는 믿지 않았다. 믿을수 없었다. 때문에 나는 《가야 가는가부다 하지!》하고 내쏘았을뿐이였다. 그는 정말이라고 하면서 《이북에 대표접촉을 제기했는데 북에서 받겠다고만 하면 보낸다.》라고 말했다.

그때 문선생도 있었던것이 틀림 없다. 그가 내 손을 잡고 《헤여 진 내외간이 서로 끌어 안고 재회할 날이 멀지 않은만큼 만나실 때 충격을 받지 않도록 편안한 심정을 가져야 해요.》하고 당부했을 때도 나는 《예.》하고 외마디로 대답했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였던것이다.

벌써 몇차례를 당장 보내줄것처럼 하다가는 뒤집어 놓군 했던가…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 되여 갑자기 나를 보내기로 했을가. 정세가 가장 긴장해 진 이때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는 남조선당국으로서의 그 어떤 타산이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껏 첨예화시켜 온 분렬과 대결의 영상을 리인모의 송환이라는 《인도주의》너울로 가리워 보려는것이 아니겠는가. 때문에 《통일원》에서 나온 사람도 《북에서 받겠다고 하면…》하고 말했을것이다. 또한 이제는 페인정도가 아니라 래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수 없는 나를 넘겨 보내는것이 비난을 인도주의너울로 바꿀수 있기때문일것이다. 그들은 나에게서 《죽음》이라는 무기를 빼앗으려고 하는것이다.

이러한 속심을 북쪽땅에서 모를수 있을가, 알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더우기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정황에서 시체에 가까운 나를 받는것이 옳은것일가… 나도 알수 없었다. 나는 다만 북쪽땅에서 이 리인모의 운명이 아니라 조국에 도움이 되는 길을 택하기만을 바랐다. 나는 이제는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는 한생이 끝난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3월 16일 저녁, 김선생이 흥분한 기색으로 달려 들어 와 판문점 대표접촉에서 나를 3월 19일에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 주었다. 북에서는 나의 안해의 요청이라고 하며 나를 돌봐 준 김상원선생부부와 나를 간호해 준 간병인 그리고 담당의사를 평양까지 동행하도록 해줄것을 제기했다고 한다.

간병인도 의사도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나는 여러사람들의 축하를 묵묵히 받았다.

그때 내 심정으로 말하면 왜 기쁘고 반갑지 않았으랴. 그러나 정작 가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비명에 간 동지들과 옥중에서 아직 풀려 나지 못하고 있는 동지들 그리고 북쪽의 고향과 처자들을 그리워 하고 있는 동지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파 왔다. 또한 엄혹한 위기에 처한 조국에 아무런 보탬도 줄수 없는 페인으로 돌아 가야 한다는것이 가슴을 무겁게 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나는 어떤 생각에 집념해 있을 여유가 없었다. 쉴새 없이 찾아 오는 사람들의 축하와 인사를 받아야 했다.

3월 17일에는 뜻밖에도 림수경이 나를 찾아 왔다. 림수경은 지난해 12월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다

음 제일먼저 나를 찾아 왔다고 하며 내가 귀환하게 된것을 기뻐 해 주었다. 나는 그의 방문이 진심으로 기뻤다. 동지들에 대한 생각으로 무겁던 마음도 어느 정도 가벼워 지는것 같았다.

림수경은 《통일이 되면 평양에 내가 제일먼저 찾아 갈래요.》하고는 몇번이나 돌아 보면서 병실을 나갔다.

나는 그에게 손을 저어 주었다.

그날 《민가협》 부산지구 성원들이 병실에 찾아와 환송연을 베풀었다. 그들은 나에게 북에 가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여생을 처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했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으로 불렀다.

나도 그 노래를 함께 불렀다. 입밖으로 내여서 부른것보다 마음속으로 부른 대목이 더 많았던것은 물론이다.

아 통일, 꿈에도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 이토록 바라는 통일을 누가 가로 막고 분렬과 대결에로만 몰아 가려고 하는것인가.

방문객들이 너무 많아 김선생과 장선화간병인이 많은 수고를 했다. 누구나 다같이 빨리 완치되여 가족과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라는것, 통일의 날 다시 만나자는 인사였다.

18일 정오에 찾아 왔던 최금남동지를 비롯하여 서울에서 내려 온 네명의 동지들이 잊혀 지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북쪽땅에 가족을 두고 있는 비전향장기수로 나와 옥중생활을 같이 한 동지들이였다.

그들은 나를 부둥켜 안고 볼을 비비며 《분단의 장벽이 무너진 뒤 평양에서 꼭 만나자.》고 하였다.

나는 머리를 끄덕이며 웃는 얼굴을 보였으나 가슴속으로 피눈물이 흘렀다. 그들 역시 얼마나 북쪽땅으로 가고 싶으랴. 그들의 심정 역시 한마디로 하면 《아, 보고 싶은 북쪽하늘이여!》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정대철동지를 비롯한 남녘의 산야에 묻힌 동지들, 내 이렇게 운신할수 없지만 않다면 그들의 유골이라도 찾아 안고 북으로 가련만…

3월 18일 밤, 남쪽에서의 마지막밤을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꼬박 밝혔다.

내 땅, 내 조국

3월 19일

이날은 내가 판문점을 넘어 43년만에 그리운 조국의 품에 안긴 날이다. 이날에 대해서는 아마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을것이다. 거의 모든 북쪽땅 사람들이 그 시각 텔레비죤앞에 모여 있었다니 말이다.

내가 판문점을 넘어 선것은 독자들도 알고 있겠지만 오전 11시경이였다. 그러니 남쪽의 부산대학병원에서 깨여 난 새벽 4시 30분으로부터 여섯시간 반만이였다. 그 여섯시간 반은 42년 7개월만에 떠나는 남쪽땅에서의 마지막시간이였는데 랭랭함과 적의가 극치를 이룬 시간이였다.

우선 《안기부》요원들은 남쪽의 민주인사들이 나의 안해에게 쓴 편지를 비롯한 여섯통의 편지를 가져 갈수 없는것이라고 회수해 버렸다.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여 준비를 갖추고 장선화간병인과 의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5시 45분경 병

실문을 나오니 복도에는 뜻밖에도 1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동지들이 지키고 앉아 있다가 일어 나는것이 아닌가. 복도와 승강기문가에서는 기관원들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그들은 내가 동지들과 인사말을 나눌 여유도 주지 않았다. 동지들은 다만 내뒤에서 손을 흔들며 《고향에 돌아 가면 우리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해 달라.》는 당부를 할수 있었을뿐이였다.

병원마당에서는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불을 피워놓고 내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그들의 노래소리도 들었었다. 그런데 승강기에서 내리자 나는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가게 되였고 후문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실리웠다. 새벽어둠만이 서린 도로로 달릴 때는 경찰차가 앞뒤에서 쫓아 왔다. 마치 랍치되여 가는듯 했다. 차창밖에서는 대학생들과 《민가협》성원들이 나를 바래우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소리가 울리고 있었으나 전후좌우에서는 경찰과 《안기부》의 눈길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말을 빌면 《호위》해 주는것이다.

물론 나는 당국자들이 언제 한번이라도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리라고 기대했던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순간에까지야… 이것 역시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였는지를 나는 북쪽땅에 들어 서서야 깨달았다.

판문점을 넘어 섰을 때 나는 말도 제대로 할수 없었고 손을 쳐들 기력도 없는 상태였다. 링게르점적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다.

북쪽땅에 들어 섰을 때는 모든것이 꿈 같았다. 꽃과 기발을 든 인파를 보았을 때는 놀랐다. 사람들의 웨침속에서 《리인모》라는 내 이름을 들을수 없었더라면 나를 맞이하는 사람들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판문점에서 평양에 이르기까지는 환영하는 인파의 련속이였다. 어데로 왔는지 어데까지 왔는지도 알수 없었다. 침상을 지켜 선 의사와 간호원들의 말을 통해서만 어데까지 왔음을 알수 있었을뿐이였다.

나는 후에 신문과 텔레비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3월 19일의 일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알게 되였다.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들어 섰을 때도 나에게는 내가 북쪽땅에 들어 섰다는것이 현실로 믿어 지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며 달려 와 손을 잡는 안해와 딸, 사위, 외손주들도 완전한 현실로 안겨 오지 않았다.

통일각에 이르러 벽에 모셔 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보고 당중앙에서 나온 간부동지(후에야 그가 계응태비서임을 알았다.)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리인모를 축하하며 평양까지 무사히 오기를 바란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잠긴 목소리로 전달할 때에야 내가 나의 조국땅에 들어 섰다는것이 현실적으로 안겨 왔다.

그곳에서 안해의 시중을 받으며 보름만에 처음으로 식사를 했다.

《어느걸 드시겠어요?》하고 안해가 앞에 놓인 음식접시들을 가리키며 물을 때 나는 《아무거나!》하

고 대답했다. 어느 사이 옛날 생활할 때의 사근사근하지 못하고 퉁명스럽던 말버릇이 살아 난것이다.

43년만에 안해를 처음 보았을 때 떠오른 생각은 《늙었구나.》하는것이였다. 이제껏 43년간 기억속에 살아 있은 안해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서였다. 그런데 43년만에 나타난것은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고 얼굴에 주름살 잡힌 늙은 녀인이였다. 딸 현옥이조차 기억속의 제 어머니보다 훨씬 나이든 중년이 되였다. 안해의 흰머리칼과 주름살을 보았을 때 나는 43년이란 세월의 기나김과 동시에 안해의 43년 역시 나의 43년 못지 않게 굳센 마음, 굳은 믿음을 요하는것이였음을 느꼈다. 떳떳하게 내앞에 앉아 있는 안해, 그는 43년전의 약속을 지켜 그때의 마음으로 내앞에 앉아 있었고 나 또한 늙고 병들어 페인이 되였어도 그때의 그 마음으로 마주 앉아 있었다. 내 안해, 내 딸이 살고 있는 내 땅, 내 조국에 왔으니 무엇을 더 바라랴. 나는 안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젠 죽어도 한이 없소.》

그러자 안해는 대뜸 내 말을 반박했다.

《죽긴 왜 죽어요? 오래오래 살아야지요!》

나 역시 오래오래 살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자기의 건강상태를 알고 있었고 생명이 시간을 다툰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내 만일 제 발로 걸어 저 분계선을 넘고 안해와 딸을 가슴에 얼싸안을수 있었더라면!

안해는 내 마음을 짐작한듯 짐짓 활기를 띠며 말했다.

《이제까지 일은 없었던것으로 치고 더 생각 말아요.》

나는 머리를 끄덕이며 《그럼!》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어찌 내가 그 어느 하나라도 잊을수 있겠는가. 지리산에서 숨진 동지들, 감옥에서 떠나간 동지들, 아직 감옥에서 신음하는 동지들, 감옥에서 나와서도 《보안관찰법》의 울타리속에서 북녘하늘을 멀리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동지들, 통일의 날 만나자고 기약한 동지들, 쇠덩이도 녹 쓸어 없어 졌을 34년간의 옥중고초, 그 어느 하나도 잊을수 없는것이였다. 어떤 기적이 나를 완전한 건강체로 만들고 젊음을 되돌려 준다고 해도 잊을수 없을것이다. 삼천리 내 조국땅이 분렬의 아픔을 겪고 있는한 내가 입은 상처를, 동지들이 흘린 피를 잊을수 없을것이다. 안해여, 당신도 청춘을 흘러 보낸 43년간을 잊을수 없을것이요. 우리는 비록 만났으나 민족분렬의 슬픔은 끝나지 않았기때문이요. …

구급차에 오르자 나는 환영의 인파에 묻혔다. 서로 차창으로 다가서려고 애 쓰는 얼굴들이 울며 웃으며 손을 저었다. 때로는 차앞이 완전히 막히기도 했다. 차창에 매달려 발을 동동 구르는 소녀들도 있었다. 그들은 《불사조 리인모!》, 《불사조 리인모!》하고 웨치고 있었다.

불사조, 그것은 전설속에 있는 불속에서도 물속에서도 죽지 않는 새이다. 34년간의 옥중생활은 참으로 불속이나 물속보다 쉬운것이 아니였다. 그속에서 살아 났기에 내가 정녕 불사조라면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북녘의 조국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나는 오늘까지 살아 있을수도 신념을 지킬수도 없었을것이다.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수백리 연도는 말 그대로 사람의 바다였다. 구급차가 무슨 일로인지 잠시 멎자 뒤따르던 차들에서 내린 사람들이 마구 달려 왔고 《왜 섰습니까?》, 《병세가 더합니까?》하는 물음들이 차창을 소나기처럼 두드렸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 오는 리인모동지를 열렬히 환영한다!》는 글발들이 가는 곳마다 새겨 져 있었다. 환영의 열파는 너무도 뜨거웠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기력이 없어 쳐들지 못하는 나의 손을 들어 환영군중에게 흔들어 주었다.

눈앞이 흐려 왔다. 남녘의 산야에 묻힌 동지들, 그들의 유골이라도 안고 올수 있었더라면! 이것은 내가 받을 환영이 아니였다. 나의 동지들이 받아야 할 환영이였다. 나는 북녘땅에서 나를 단순한 리인모가 아니라 통일성업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청춘과 생명을 바친 수많은 동지들의 상징으로 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열광적인 환영의 기저에 깔려 있는것이 무엇이였는지를 나는 얼마후에야 알게 되였다.

후에 나는 병원에서 내가 들어 오던 때의 광경을 텔레비죤으로 다시 보았다. 사리원에 이르렀을 때인데 한 늙은 녀인이 차창을 두드리며 《나 금단이예요. 모르겠어요? 금단이예요!》하고 울면서 부르짖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한 로인이 서 있었다. 그때야 나는 그 녀인이 일제때 장질부사에 걸린 나의 어머니를 내 대신 간병하다가 죽은 리시호의 녀동생이며 뒤에 서 있는것은 리창황이라는것을 깨달았다. 망각속에 묻혔던 일들이 기억에 되살아 났다.

리시호가 죽은후 풍산에 갔을 때 나는 리창황과 리시호의 녀동생 금단의 소개를 했었다. 시호를 따

르듯 나를 따르던 금단은 두말없이 리창황과의 결혼에 동의했다. 그렇게 이루어 진 부부가 로인이 되여 차창앞에 서 있는것을 보니 감회가 새로왔다.

그날은 물론 그들을 알아 볼수 없었다. 그들은 쉼없이 밀려 오는 거대한 인파의 물방울들이였던것이다.

《로인님, 이제 조금만 가면 평양입니다.》하는 의사의 말에 나는 침상을 좀 높여 달라고 부탁했다. 43년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평양의 변모된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평양의 입구인 통일거리 관문동에 들어 섰을 때 눈앞에 안겨 온것은 평양시가지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 진 산악들이였다. 수십층 고층건물들이 사람으로 덮여 창문이 보이지 않았다. 고층건물들은 창문과 벽체로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 져 있었다. 그리고 큰거리를 진감하는 환호와 물결치는 꽃바다… 이것은 이미 단순한 환영의식이 아니였다. 나의 조국,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나의 조국의 장엄한 힘의 시위였다!

미국과 일본, 남조선괴뢰들의 압력과 위협에 단호히 맞선 나의 조국,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단호한 선언으로 적들을 전률케 한 나의 조국, 긴장에로 치달아 오르던 정세속에서 수년간 남조선괴뢰들이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하던 리인모를 두말 못하고 돌려 보내겠다고 한것은 준전시상태선포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라는 대결의 극점에서 이루어 진 나의 조국의 승리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것은 송환이 아니라 탈환이라고!

적들은 이 리인모에게서 죽음을 바랐다. 그러나 나는 살아서 이 땅을 다시 밟았다.

평양에 들어 서면서 해일처럼 안겨 오던 무적의 힘, 그때 나의 눈앞에 떠오른것은 우거지상이 되여 나를 뒤문으로 빼돌려 급급히 구급차에 밀어 넣던 자들의 몰골이였다. 그자들은 《송환》이라는 《인도주의》보자기로 진실을 감싸려 했지만 그것은 자루속의 송곳이였다.

나를 맞이하던 환영과 환호, 그것은 남조선괴뢰들이 마련한 지옥행으로부터 리인모를 탈환하여 락원행으로 전변시킨 나의 조국, 수천만 인민의 승리의 함성이였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다.

3월 19일, 그날의 환영연도는 내가 이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직접 목격한 우리 조국의 힘의 시위였다.

내 땅, 내 조국

너무너무 변모되여 어데가 어덴지 짐작해 볼념조차 낼수 없는 평양시내를 돌아돌아 적십자병원 분원에 이르렀다. 병원은 넓은 정원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다양한 수종의 교목들과 관목들이 하도 무성하여 천연림을 방불케 했다. 이것은 물론 3월 19일 첫날에 알게 된것이 아니다.

병원에서는 나라적으로도 제일 유능하다는 의료진과 최신치료설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송환운동이 시작되던 그때부터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더우기 내가 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벌써 해당한 치료대책을 협의까지 해가며 만단의 태세를 기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알리 없는 나는 집으로 갈 생각을 했다. 이제 며칠을 더 살겠기에 병원신세를 지겠는가 하는 자격지심에서였다. 죽어도 병원침대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죽고 싶었다. 43년간을 오매불망 그려본 집이 아닌가.

그러나 안해는 《치료부터 받아야 해요. 다 나아서 집으로는 훨훨 걸어서 갑시다.》하면서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뜻이라고 하는것이였다.

하여 나는 43년만에 돌아 왔으나 나를 이 땅에 돌아 오게 해준 은인들에게 인사도 올리지 못한채 병원에 입원부터 하게 되였다.

병원에는 이미 입원실이 완전히 준비되여 있었고 대기하고 있던 의사와 간호원들은 나를 비누거품 다루듯 조심조심하며 구급소생차에서 침대로 옮겨 눕혔다.

후에야 알게 된것이지만 내가 판문점에서 평양으로 오는 길은 나의 몸상태에 따라 세가지 로정으로 계획되여 있었다는것이였다.

한 로정은 개성시병원에 입원시켜 급한 고비를 넘긴 다음 평양으로 오는것이였고(개성시병원에서는 나의 입원실을 따로 꾸려 놓았다고 한다.) 또 한 로정은 평양에 최단시간내에 닿도록 비행기로 직송하는것이였다.(비행기도 이미 준비되여 있었다.) 평양까지 륙로로 오는것은 나의 건강상태가 가장 《량호한》 경우를 기대한것이였다.

그날 세가지 로정중 어느 로정을 정하는가는 나를 진찰한 오윤환과장과 의사들에게 결정권이 있었다. 5백리 연도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

는 《대행사》의 결정권이 몇명의 의사들에게 있었다는것은 놀라운 일이랄수밖에 없겠다. 어느 국가수반을 맞는 행사도 이렇게 방대할수는 없었다.

내가 이 사실을 언급하는것은 나의 조국에서 이 리인모의 건강과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겨 주었는가를 다소나마 말하고 싶어서이다.

나의 3월 19일 로정은 이렇게 선택된것이였다. 그러면 그때 나의 몸상태가 비교적 《량호한》편이였던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독자들도 알고 있는바이지만 나는 링게르점적에 겨우 생명의 연장을 얻는 처지로서 손을 쳐들 기력도 없었고 말도 제대로 할수 없는 최악의 상태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인 상태》였다. 회복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고 생명은 경각을 다투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개성시병원이나 비행기가 아닌 륙로 5백리길을 선택했다. 그때 그들은 그 길이 나의 몸상태를 호전시키리라는것을 어떻게 확신할수 있었을가…

그날 나는 평양으로 오는 로상에서 점점 기운을 되찾았고 사리원에서부터는 내 힘으로 손도 흔들수 있게 되였다. 사람들은 후에도 그때의 내 병상태로 보아 그것은 기적이였다고 하면서 길이 계속될수록 나의 《안광이 점점 더 형형해 지고 발음도 똑똑해졌다.》고들 한결같이 말했다. 사실 그 길이 아니였더라면 나는 부산시병원에서부터 사로잡고 있던 무기력상태에서 오래동안 헤여 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옛날 명의였던 리제마선생은 병명보다 환자의 체질과 성격을 보고 처방을 내려 놀라운 치유성과를

올렸다더니 우리 의사들도 그에 못지 않은 명의라고 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병원에서 치료 받는 기간 무척 그들의 속을 태웠다. 입원했을 당시 나는 《건강》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데가 없을만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하나없이 부서지고 찢겨 진 몸이였다. 영양상태는 매우 나빠 의학술어로 하면 《악액질상태》였고 피의 산소분합수치가 형편없이 낮아 심장기능이 극도로 쇠약해 졌으며 농흉으로 하여 계속적인 미열상태에 있었다. 전신운동기능상태는 령에 가까왔고 심한 언어장애와 호흡장애에 음식을 넘기는 기능까지 거의 상실되여 있었다. 나는 이미 《죽은자》였다.

침대에 누우면 감방에서 수십년간 꼬부리고 있던 자세로 팔다리가 가드라들었다. 의사와 간호원들이 사지기능을 회복시키려고 다리를 펴줄 때면 온몸을 비트는듯 한 심한 고통을 느꼈고 나는 그들에게 물러 가라고 마구 소리치기도 했다. 더우기 그들의 손이 코부위에 올 때면 온몸이 전률하며 진저리를 쳤다. 물, 고추가루물, 《강제영양급식》에 너무너무 시달린 코는 나의 리성과는 관계없이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한 본능적인 적의를 나타냈다. 그럴 때면 의사와 간호원들은 성내거나 노여워 할 대신 《로인님》, 《할아버지》, 《선생님》 등 별별 호칭을 다 써서 나를 불러 가며 치료의도를 관철시키려고 애쓰군 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초조해 하거나 지치는적이 없었다. 그러느라니 그들이 얼마나 애를 태웠겠는가. 지금 생각해도 미안하기 짝이 없다.

어느 날 나는 미열로 하여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런 때면 묵은 상처의 아픔과 함께 지난 날

의 환각이 덮쳐 들군 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지, 물고문의 환각속에서 몸부림쳤던것 같기도 하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간호원과 의사들이 침대를 둘러 싸고 서 있는데 간호원은 흐느껴 울고 있었다. 내가 환각속에서 코에로 가까이 오는 그의 손을 피하려고 애 쓰며 마구 고함을 쳤다는것이다. 그러는 내 정상이 너무 가슴 아파 간호원은 울어 버린것이고 의사들도 눈물이 글썽해 서 있었다.

간호원은 눈물을 씻으며 나에게 말하는것이였다.

《할아버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회복되셔야 합니다. 이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뜻이고 온 나라 인민들이 바라는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묻는 편지가 하루에도 몇백통씩 병원에 오고 있어요. 온 나라가 지금 할아버지가 회복된 모습으로 텔레비죤앞에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날마다 면회 오는 안해와 딸, 사위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손자와 손녀들은 학교에 가면 《할아버지 건강이 어떤가?》하는 물음에 대답할래기 하루가 다 간다 했다. 한번은 《할아버지가 신문을 제 손으로 펴서 보더라.》는 말을 했더니 온 교실이 박수를 치며 환성을 올려 교직원들을 놀래웠다고 한다. 지어는 손자손녀의 말을 온 학교 학생, 교직원이 다 모인 아침모임때 교장선생이 전달하여 온통 박수와 환성이였던적도 있다는것이다. 사위가 놀러 갔던 한 집에서는 누군가 《텔레비에 리인모할아버지가 나온다.》하니까 어른들은 물론 떠들고 있던 아이들까지 모두 텔레비죤앞에 모여 앉더란다.

눈물 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들이였다. 정녕 이 리인모가 무엇이라고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토록 관심한단 말인가.

병원에서는 나한테 오는 방문객들을 완전히 차단시켰다. 건강이 회복되기전에는 그 어떤 방문객도 받을수 없다는것이 병원의 취지였고 지위나 용무에 관계없이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병원밖에서 벌어 지는 일들을 잘 알고 있었다. 간호원이 매일 《로동신문》을 읽어 주었고 나의 완쾌를 바라는 편지들을 읽어 주었던것이다.

오윤환과장은 전국시청자들의 요구에 의해 벌써 몇번이나 텔레비죤에 출연했다고 했다.

《선생님덕분에 나까지 유명해 지는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니였으면 내가 언제 텔레비죤에 출연해 볼 생각이나 할 일입니까?》하고 롱담처럼 말한적도 있었다.

그런데 나의 몸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아 진 날이면 의사와 간호원들이 명절처럼 기뻐 하며 하는 말이 나를 더욱 감동케 했다.

《이 소식을 보고 받으시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얼마나 기뻐 하시겠어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하는 나의 반문에 병원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매일 치료정형을 보고 받으시며 필요한것이 있으면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구하여 리인모를 꼭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으로 대답해 주었다.

나는 물론 나의 송환으로부터 시작하여 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보살핌속에 이루어 진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매일같이 보고를 받으시리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다. 한초한초가 보통사람의 1년, 10년 맞잡이로 귀중한것이 그이의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날 깊은 밤중에 눈을 뜨니 침대머리맡에는 간호원이 앉아 있었다. 내 눈에 빛이 들어 오지 않게 돌려 놓은 탁상등의 불빛이 탁상우에 모셔 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형초상을 비치고 있었다. 넓은 입원실과 창가에 놓인 꽃 핀 화분들, 문 저쪽방에는 의사가 앉아 대기하고 있다는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무엇을 더 해주지 못해 안타까와 하는 사람들…

이것이 정말 현실이란 말인가. 몸에 이상이 생겼나 하여 불안한 눈으로 내려다 보는 간호원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 꿈을 꾸는건 아니겠지? 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으며 다시 되뇌이기만 했다.

《이게 정말 꿈이 아니겠지?》

내 근 80평생을 살아 온 이 세상에 정녕 이런 사랑도 있었던가.

간호원이 손수건으로 나의 눈가를 훔쳐 줄 때야 내가 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 밤 지나간 43년간을 더듬어 보며 꿈처럼 닥쳐 온 오늘을 생각하며 조용히 《**김일성**장군의 노

래》를 불렀다. 남녘땅에서 부를 때는 신념의 노래였고 이때는 감격과 감사의 노래였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 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3월 19일부터 흘러 간 하루하루는 내가 죽음으로부터 멀어 지는 하루하루였으며 고엽으로부터 푸른 잎으로 재생되는 하루하루였다.

열, 스무날도 아닌 그 나날들에 나의 침상을 하루같이 지켜 준 의사와 간호원들에게 내 무슨 말로 인사해야 할것인가. 어느 깊은 밤중이나 새벽에 눈을 떠도 침상가에는 의사와 간호원들의 잠 모르는 사려 깊은 얼굴들이 있었다. 그들은 내가 회복되는 날까지 단 한시도 나의 침상을 떠나지 않고 지켜 주었다. 만일 옛말에 있는것처럼 죽은 사람에게는 저승의 사자가 접근할 기회도 틈도 없었다. 의사와 간호원들 그리고 온 나라 인민들은 내 삶을 지켜 준 파수병들이였다.

나는 내가 소생하고 회복된것이 그 어떤 약이나 내 몸에 남아 있는 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랑이,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내 몸에 소생의 힘을 주고 피로 되였다고 믿는다. 어릴적 나는 어느 책에선가 땅이 한없이 기름지고 해빛이 끝없이 따사로와 마른나무가지를 꽂아놓아도 곧 잎이 피여 나고 아름드리 록음으로 자란다는 신비한 나라에 대한 전설을 읽은적이 있다. 바로 이 땅이 그런

나라였다. 고목으로 되였던 나는 이 땅에서 푸르청청한 나무로 되살아 났다. 《죽은 자》에게 삶을 주고 《지옥행》을 《락원행》으로 되게 해주는 땅, 이것이 내 땅, 내 조국이였다…

《수령님… 아, 어버이수령님!》

4월, 병원의 뜰안에도 봄이 왔다. 내가 밀차에 앉아 넓은 정원을 산보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 졌다. 이제는 스스로 신문도 읽을수 있었고 내 인생의 새봄이 시작되고 있음을 나로서도 느낄수 있었다.

이 봄의 4월에 있은 일을 모두 말하기는 어렵다. 몇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4월 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살아서 펄펄 뛰는 산천어, 칠색송어, 누치 등 수십마리의 물고기를 건강회복에 좋을것이라며 이 리인모에게 보내주시였다. 백두산에서 흘러 내리는 물에서 자란 물고기를 보내시면서 수령님께서는 민물고기이기때문에 잔가시가 많으니 잘 뽑아서 대접하라고 친히 이르시였다는것이였다. 그때의 나의 심상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딸 현옥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되살아 올랐다. 1992년 9월 6일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평양국제토론회》에 참가했던 나의 딸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딸애의 손을 잡으시고 너의 아버지를 아직 데려 오지 못해서 안됐다고, 우리 꼭 아버지를 데려 오자고 말씀하셨다는것이였다. 이 땅에 돌아 와 다른 할말을 찾을수 없어 《수령님, 이 리인모가 뭐라고 이렇게까지…》라고

만 되뇌인것이 벌써 몇번이였던가. 거의 매일 그러했다.

4월 6일에는 전에 내가 남에 있을 때 이미 정령으로 발표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메달과 훈장, 증서를 수여 받았고 며칠후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모셔 진 《**김일성**훈장》을 수여 받았다. 내 과연 이런 사랑과 표창을 받을만 한 일을 한것이 있던가. 이 땅에 와서 아직 그분께 인사도 못 올리지 않았는가.

나의 이 심정이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옮겨 져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인 4월 15일에 수령님께 축기를 만들어 올리는것이 어떤가고 했다. 나는 축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수 놓으라고 하였다.

《위대하신 어버이 **김일성**장군님, 장군님의 탄신절을 해마다 이남의 철창속에서 맞으며 만년장수를 기원해 마지 않던 저는 43년만에 처음으로 당의 품에 안겨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척에 계시옵는 위대하신 장군님께 탄신 81돐에 즈음하여 친히 키워주신 전사의 혁명적량심과 의리로 충성과 효성을 맹약 드리며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올립니다.》

축기는 4월 13일에 올리였다.

4월 15일 아침, 나는 병원에 찾아 온 가족들과 함께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해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축기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셨을가. 이 시각 수령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가. 온 나라 인민들이 한결같이 올리는 만수축원의 소망이 이 아침 나의 소박한 축기와 함께 그분께 전해 지고 적으나마 기쁨을 드릴수 있었으면…

그런데 그때 부리나케 달려 들어 온 의사와 간호원이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를 찾아 병원에 나오셨다고 알려 주는것이였다. 믿기 어려웠다. 온 민족의 소원속에, 만민의 축복속에 편히 쉬셔야 할 수령님께서 일년에 하루밖에 없는 자신의 탄신일에 병원으로 나오시다니 이럴수가 있는가.

복도에서는 벌써 나의 안해에게 리인모동무도 수고했지만 부인도 수고 많았다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리고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기때문에 제가 40년을 남편을 기다릴수 있었습니다.》하고 말씀 올리는 안해의 목소리에 뒤이어 《수령이 있어도 제 할탓입니다.》하시는 소탈하신 웃음소리가 울렸다. 마음은 벌써 몸을 떠나 복도로 와락 달려 나가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사이 문안으로 들어 서시였다.

오전 9시 30분이였다.

나는 터질듯 한 가슴으로 허둥거렸다. 인사를 올려야 할 전사가 일어 설수 없어 그냥 앉아 있어야만 하니 자신의 몸이 얼마나 야속하던지…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나에게로 다가오시여 허리를 굽히시고 뜨겁게 포옹해 주시였다.

63년전 파발리에 울렸던 조선인민혁명군의 총소리와 함께 이 가슴에 희망의 별로 새겨 졌고 보천보의 총소리,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더불어 조국광복의 태양으로, 광복후 5년간을 거쳐 이 가슴에 신념과 의지의 기둥으로 되여 주신 **김일성**장군님!

눈 덮인 지리산과 차디찬 감방의 어느 하루도 이 가슴에서 떠난적 없는 장군님, 이 나라의 혁명가라

면 누구나 한번 뵈옵는것이 소원이고 그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위대한 장군님!

나는 바로 그 품에 안긴것이 아닌가.

이 나라의 혁명가로서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로서 가장 큰 행복에 접했으면서도 나의 입은 제대로 움직여 주지를 않았다. 이 리인모때문에 그토록 심려하신 그분께 《수령님, 조선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 43년만에 적후에서 돌아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하고 말씀 올렸더라면!… 사람이란 너무 가슴벅차고 감격이 크면 모든 언어를 잊어 버리는것 같다.

수령님께서는 나를 진정시켜 주시면서 리인모동무는 원쑤들의 온갖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혁명적지조와 절개를 지켜 용감히 싸워 이겼다고, 조선로동당원의 고결한 혁명정신과 숭고한 풍모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고향이 풍산이라는데 풍산사람들이 다 세고 똑똑하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시기 풍산사람들의 덕을 많이 봤다고 하시였다.

그러잖아도 송구하여 몸 둘바를 알수 없던 나는 수령님께서 이런 과분한 치하의 말씀까지 하시니 더 어쩔바를 몰랐다. 그때 뒤에서 의사들의 놀랜 속삭임이 들렸으나 나는 주의를 돌릴 겨를이 없었다. 후에 들으니 그때에 마비되여 가슴언저리까지도 못올라 가던 나의 손이 머리뒤에까지 올라 갔다는것이였다. 나는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으면 손을 뒤더수기에 올려 가는 버릇이 있었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의 과분한 치하를 받게 되자 어릴적의 그 버릇이 되살아 나면서 굳어 졌던 손이

《극한계선》이라고 의사들이 말하던 가슴을 넘어 뒤머리에까지 올라 간것이였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들 했지만 나는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 비하면 그 어떤 기적도 아니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 순간 벌떡 일어 섰다고 하여도 기적이 아니라 너무도 응당한것이였다고 말하고 싶다.

이어 수령님께서는 리인모동무는 광복직후에 입당한 로당원이라고 하시며 입당당시의 당원증번호로 되여 있고 자신께서 직접 수표하신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수여해 주시였다.

광복후 건당, 건국의 나날 처음으로 당원의 영예를 지니던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그러나 나는 단 한시도 입당년월일과 입당보증인, 당원증번호를 잊은적이 없었다.

공화국영웅메달을 수여 받던 4월 6일에 《전향하면 감옥살이도 면할수 있었지만 입당할 때 다진 맹세를 어길수 없어 전향하지 않았습니다.》하고 말했던것은 진실 그대로였다. 그날의 맹세는 곧 위대한 수령님께 다진 맹세였기때문이였다. 긴긴 세월 나에게 힘을 주고 신념을 준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생각이였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뵙고 있는것이였다.

입당한 때로부터 48년이 지난 오늘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직접 당원증을 수여 받는 기쁨과 행복, 나의 한생과 투쟁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였던가 싶었다.

수령님께서는 당원증을 받아 쥔 나의 손목에 이번에는 자신의 존함이 새겨 진 손목시계를 채워 주시였다. 나는 겨우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잊지 않

고 끝까지 충성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 올릴수 있었다. 그이께서는 자애에 넘친 시선으로 나를 보시며 일어 서시였다.

《이렇게 리인모동무와 만났으니 오늘은 기념사진을 한장 찍읍시다.》

병원일군들이 서둘러 걸상을 가져 오자 수령님께서는 손을 저으시며 자신께서는 나의 옆에 서서 찍겠다고 하시였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또 한차례의 《기적》이 일어 났다고 하였다. 그처럼 무겁던 나의 손이 옷깃을 바로잡고 머리칼을 쓰다듬는 등 빨리도 움직이더라는것이였다. 허나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세상에 과연 이런 경우가 있었을가. 전사는 앉아 있고 수령은 그옆에 서 있다는… 허나 수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이 리인모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부축을 받아서라도 일어 서려고 허둥대는 나를 어서 편안히 앉으라고, 미안해 할것은 없다고 하시며 어깨를 가벼이 짚어 주시였다.

사진을 찍으신후에도 수령님께서는 인차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며 원쑤와 싸워 이긴 불굴의 투지와 신념을 가지고 병치료를 잘하여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기념 열병식장에 꼭 나서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다. 다시 또다시 돌아 보시며 방을 나서시는 그분의 모습을 나는 뜨거운 눈물속에서 바래웠다. 천만마디 말을 합친다 한들 그때의 내 심정을 전달할수 있을가…

나는 그날부터 나의 완쾌와 래일을 확신하게 되였다. 그날이 나의 치료생활에서 분수령이였다고 의사들은 말했다.

지금도 나는 나의 앞에 모셔 져 있는 그날의 기념사진을 볼 때면 뜨거운 눈물속에 하염없이 되뇌여 본다.

《수령님… 아, 어버이수령님!》

나의 집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뵌후부터 나의 몸상태는 빠른 속도로 호전되여 갔다. 의사들은 기적이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나에겐 여전히 굼뜨게만 느껴 져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늙으면 아이가 된다더니 나를 두고 한 말인것 같다. 이런저런 생각도 많아 졌다. 모든것이 미흡하게만 생각되여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지 한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병원에 찾아온 안해에게 짜증부터 냈다.

《왜 이제야 왔소? 계속 찾았는데.》

안해는 다소간 놀라며 물었다.

《왜 찾았어요?》

《당비문제를 토론하려구 찾았소.》

《당비요?》

안해는 어리둥절한 빛이였으나 나는 리유를 설명할 대신 다짜고짜로 물었다.

《내 당비를 언제부터 물었소?》

《3월부터 생활비가 나와서 그때부터 물고 있지요.》

《뭐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마음 놓이지 않고 미흡했던것이 우연치 않았다.

《그게 아니요! 내가 남에 나가 있었어도 당적은 여기에 있었소. 때문에 내가 전쟁시기 군대에 나간때부터 다 당비를 물어야 하오. 어떻게 해서든지 그동안의 당비를 다 무오.》

나는 헤여 질 때 다시한번 말했다.

《꼭 그렇게 하오.》

며칠후에 그렇게 했다는 안해의 말을 듣고서야 나는 마음을 놓았다. 그제야 나는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소나마 지킨듯 하여 안해에게 집에 대해 물어볼 마음의 여유도 얻었다.

《우리 집은 어디에 있소? 가보고 싶구만!》

《이제 인차 가봅시다그려.》

5월 10일 드디여 나는 보통강구역 서장동에 있는 나의 집을 찾아 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배려하여 주시였다는 집에 대해 말은 꽤 들었지만 진작 와보니 나의 집이라고 쉬이 믿기 어려웠다. 꽃나무들이 우거진 정원에 솟아 있는 아담한 2층집이였다. 풍산에서 나서 자란 촌사람인 나에겐 너무너무 큰 집이였다.

《할아버지, 내가 집구경을 시켜 드려요.》

손자 승철이가 열심히 밀차를 밀고 쫓아 다니며 집안팎에 대해 설명했다.

《참,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하고 나는 거듭거듭 되뇌이기만 하였을뿐이다.

풍산의 추녀 낮은 동기와지붕아래서 태여나 자랐고 흥남의 자그마한 두칸짜리 집에서 먼길을 떠난 내가 43년만에 한 일도 없이 손잡이 떨어 진 낡은 트렁크 하나를 들고 불구의 몸으로 이 땅에 돌아올 때 이런 집이 기다릴줄 생각이나 했던가.

옛말에는 금의환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마의환향을 했다 해야 할것 같다. 비단옷은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 금의기향이라고 해야 할지.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방들은 정결하게 꾸려 졌고 어느 방이라 할것없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들과 전국각지와 해외에서 보내온 위문품들로 차 있었다. 정원에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을 비롯한 전국의 청소년학생들이 정성껏 옮겨 심은 꽃나무들이 가득했다.

《오늘은 당신이 좋아 하는 국수를 했어요.》하는 안해의 말에 뒤이어 손자녀석이 식탁을 훑어 보며 《할아버진 마늘을 좋아 하시는데…》하고 불만을 토하니 손녀는 얼른 《진밥은 아예 질색이죠?》하고 메아리처럼 외워대여 나도 웃고 안해도 웃고 딸도 사위도 웃었을 때 안해의 눈에는 불시에 눈물이 어리고 나도 목이 메여 왔다.

43년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위해 음식을 차린 안해, 43년만에 처음으로 안해가 차린 밥상에 마주 앉은 남편, 이 자리가 과연 어떻게 마련될수 있었던가. 43년만에 돌아 온 나의 집…

한편으로는 비감한 생각도 금할수 없었다. 아직 남녘의 하늘아래서 북녘의 가족들을 그리고 있을 동지들과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이 땅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 자리에 김상원선생의 가족들 그리고 부모없이 세 동생을 데리고 고생하고 있을 지현이도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내가 송환되기 1년전에 벌써 《남북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지면 직접 리인모선생을 모시고 갈 용의가 있는가.》라는 한 잡지사에서 온 문사의 물음에 《나도 이북구경을 하고 싶다. 당국이 허락한다면 우리 부부가 직접 모시고 갈 생각이다.》라고 대답을 명백히 했던 김선생이였다. 헤여 질 때는 《안기부》요원들의 방해로 작별의 말도 변변히 주고 받지 못했었다. 지현이는 또 자기 아버지의 고향땅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던가. 그리고 신앙이나 정견을 멀리 떠나 친혈육처럼 돌봐 주던 박홍자사모님과 리미순전도사는 나의 이날을 얼마나 축수해 주었던가. …

남쪽땅에 있을 때는 자나깨나 북에 있는 친지들생각이였는데 이 땅에 와 그들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남녘에 있는 동지들과 다정하던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 진다.

이것은 이 세상에 완전무결한 행복이란 없다는 현자의 말로 대치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나라와 민족이 둘로 갈라 진 비극때문인것이다.

그럴수록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은덕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가슴 사무쳐 왔다.

6월 어느 날엔가 집에 들려 식구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알아 냈는지 동평양피복공장 지배인이 불시에 들이닥쳤다. 어리둥절해서 알아 보니 용무인즉 내 몸에 맞는 옷을 지어 주겠다는것이다.

사실 그때 나는 이미 입던 옷들이 퍼그나 작아진 상태였다. 40키로그람밖에 되지 않던 몸이 60키로그람선을 넘어 섰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그 변화를 어떻게 짐작해 냈던지 지배인은 유능한 재단사까지 데리고 왔다.

얼마나 깐깐하게 치수를 재는지, 또 팔을 들어야 하거나 머리를 들어야 할 때면 제편에서 도리여 얼마나 미안해 하는지 그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것처럼 생각될 정도였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 주고 기쁘게 해주는것을 응당한 일로 여기는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하나의 속성으로 되여 있는것 같았다.

회복되면서 자주 나가보았던 시내의 곳곳에서도 나는 그것을 느꼈다.

6월부터 나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고급승용차를 타고 시내 여러곳을 돌아 보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생가가 있는 만경대를 찾았을 때 나는 감상록에 《꿈결에도 그립던 만경대, 만경대는 신념의 기둥》이라고 써넣었다.

남에서 싸울 때 동지들은 나에게 평양에 가본적이 있는가고 묻고는 있다고 하면 의례히 만경대에 대하여 물었다. 만경대에는 못 가보았다 하면 그들은 《아니? 평양에 가서도 만경대를 못 가보았단 말이요?》하고 자기 일처럼 탄식하군 하였다. 남녘동

지들은 백범 김구를 비롯한 남북련석회의참가자들의 회고담을 통하여 만경대에 대하여 적지 않게 알고 있었다. 그들의 탄식을 들을 때면 나도 얼마나 큰 아쉬움을 느꼈던지 모른다. 그런 만경대를 인생 말년에야 찾아 보게 된것이다.

시내의 여러곳을 찾아 볼 때마다 절감하게 되는것은 그 어떤 부문이나 무불통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이였다. 그 어느 하나에도 그분의 령도가 미치지 않은데가 없었다.

또한 인상적인것은 가는 곳마다에서 나를 맞아 주고 바래주던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나를 보기만 하면 담벽처럼 둘러 싸며 박수와 뜨거운 인사로 맞이해 주었는데 그럴 때에조차 너무 떠들썩하지 않도록, 나에게 무리가 없도록 주의하는것이였다. 어린애나 어른이나 한결 같았다.

《조용해, 할아버지가 보고 계시는데.》

《너무 나가지 말아, 할아버지가 힘들어 하신다.》하는 말을 나는 한두번만 아니게 들었다. 아이들은 모두 나의 손자손녀들 같았고 어른들은 모두 나의 딸, 사위, 동지들과 같았다.

개선문에 갔을 때 내가 부르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에 조용히 소리를 합쳐 불러 주었고 주체사상탑에 올라 갔을 때는 내가 다 돌아 보고 내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박수를 쳐주며 바래주었다.

모란봉 을밀대에 올라 갈 때는 여러명의 학생소년소녀들이 앞서 달려 올라 가며 길에서 무엇인지 줏고 있었다. 알고보니 밀차가 올라 갈 때 들출가봐 잔돌멩이들을 치웠다는것이다.

그외에도 천리마동상, 인민대학습당… 어데를 갔을 때도 같았다. 그때의 송구스러우면서도 목 메여오던 느낌이란!

한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리인모동지가 건강한 몸으로 이 땅을 오래오래 활보하시는것은 우리모두가 바라는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뜻입니다.》

43년만에 돌아 와 보니 나의 집은 보통강구역 서장동에 있는 2층집만이 아니였다. 이 땅 어데나 모두 나의 집이였고 온 나라가 하나의 집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가장으로 모신 하나의 집이였다. 하기에 조국보위를 위한 군사복무에서 불구가 된 영예군인들을 두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심려하시였을 때에는 수많은 청춘남녀들이 영예군인들과의 백년해로를 기약해 나섰고 자식 없는 로병들, 늙은이들의 말년을 두고 그이께서 우려하시였을 때에는 청춘남녀들이 서슴없이 그들의 아들딸로, 손자손녀로 되여 들어 갔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두고 가슴 아파 하시였을 때는 수많은 가정들에서 그 애들을 맡아 나섰고 아버지, 어머니로 되여 주었다.

일심단결이란 그 어떤 물리적인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단위로 사회정치적생명체라는 가를수 없는 유기체의 탄생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구심점으로 계시기에 이루어 질수 있는것임을 나는 날이 갈수록 절감할수 있었다. 이 땅, 나의 조국은 온 나라 어데나

나의 집이였다. 나는 남에 있을 때 《남과 북중 조국을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한 문사의 물음에 《남쪽은 내 조국이 아니다. 북쪽만이 나의 조국이다.》라고 대답했었다.

북쪽땅에 들어 와 날이 가고 많은것을 보면서 북도 남도 모두 나의 조국이라고 대답할 때는 언제일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것이 삼천리 온 나라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신 하나의 집으로 되는 때라는것은 두말할게 없다.

날이 갈수록, 이 땅의 곳곳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생각은 더욱 간절해 졌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바로 남녘의 민심이 그분께로 향하는것이 두려워 《대화창구일원화》를 부르짖으며 북남대화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손바닥으로 해빛을 가리우려는 것과 같은것이다.

남녘땅에 있을 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고 받았던가. 그분은 마음의 태양이시였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 태양의 빛발아래 온 나라가 하나의 가정으로 된 그이의 품속에서 살고 있는것이였다.

《할아버진 어느 꽃이 제일 곱나요?》

어느 날 손자 승철이가 정원의 꽃나무들속으로 밀차를 밀어 주며 물었을 때 나는 그때 주저없이 대답해 주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훌륭한 꽃은 **김정일**화다.》

《그분을 뵈웠습니다!》

7월 23일 나는 전승 40돐을 맞으며 평양에서 열리는 전국로병대회의 초청장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진행되는 전국로병대회에 내가 참가하게 될줄이야! 회의장에서 먼발치서라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뵈올수 있다고 생각하니 진정하기 어려웠다.

전국로병대회대표증을 앞에 놓고 앉아 있노라니 실로 만감이 교차하였다. 전승의 날까지 잘 싸우지도 못하고 적들의 감옥에 들어 가 있어야 했던 나를 전국로병대회의 대표라니… 이날을 못 보고 먼저 가버린 동지들에 대한 생각이며 전쟁의 나날에 대한 회상이 줄지어 떠올랐다.

로병대회날 아침 나는 안해와 온 집안식구들이 달라붙어 단장해 준 차림으로 대회장인 4.25문화회관으로 향했다.

나는 대기실로 안내되였다. 그때껏 나는 어떤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대회장 나의 좌석으로 데려다 주기만 기다리는데 대회개막시간을 얼마 앞두고 대기실로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들어서시는것이 아닌가.

이제까지 말로만 들어 오며 초상화로, 텔레비죤화면으로 뵈와 왔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대회에 참가하게 된 나를 축하해 주시면서 리인모동무가 재생하게 된것은 사회주

의조국의 품과 당의 사랑, 동지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환한 미소를 보내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보며 《어버이수령님, 저의 이 건강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신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가 아니였으면 저는 벌써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몸입니다.》하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죄송함과 가책을 금할수 없었다. 지난 5월 3일 병원에 찾아 온 당중앙위원회 한 책임일군에게 나는 《내가 원래 당성이 있는 당원이라면 지난 3월 19일 분계선을 넘었을 때 먼저 병원에 오는것이 아니라 당중앙위원회부터 먼저 찾아 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인사를 올리고 그다음에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부터 인사를 올리리라고 굳게 마음 먹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나를 찾으시게 한것이 아닌가.

내가 몸을 움직거리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나에게로 몸을 기울이시였다. 나는 겨우겨우 진정해 가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언제부터 큰절을 드리자고 생각했는데 저의 첫 인사를 받아 주십시오.》하고 말씀 올렸다.

허나 그이께서 환히 웃으시며 건강이 퍽 나아진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오히려 나의 앉은 자세를 편안히 해주시며 마음 쓰시자 나는 목이 메여 인사는커녕 아무 말씀도 더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

이 리인모가 살아 있다는것을 아시자 신념과 의지의 화신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며 적후에 있는 전사에게 공민의 최고영예인 공화국영웅칭호와 《**김일성**훈장》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였고 기어이 당의 품으로 돌아 오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그이이시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극점에 달했던 지난 2월 말에는 나의 딸이 올린 편지를 보시고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를 우리 당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친필회답서한을 보내주시였다. 그 서한의 글줄은 나를 항상 울게 한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지 않을것입니다.》가 아니라 《잊지 않고 있습니다.》이다.

그 서한에는 리인모를 반드시 돌아 오게 할것이라는 단호한 결심과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단호한 결심과 강철 같은 의지로 하여 나는 이 땅에 돌아 올수 있었다.

그이께서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한시간한시간을 다투는 대결의 극점에서도 매일같이 나의 병상태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였고 기어이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모든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병원에서 나의 하루는 기어이 회복되여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이의 말씀을 전달 받는것으로 시작되였다. 명실공히 그분은 나의 생명의 수호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40년은 더 살수 있다고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고 하셨을 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더 환하게 웃어주시였다. 그 웃음은 그대로 태양의 빛 그대로였다.

그때 나는 정말로 40년을 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삶에 대한 욕망에서보다 무엇인가 보답하기 위해서 오래오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대회개막시간이 되여 대회장에 들어 서서 나는 주석단 맨 앞줄의 가운데로 안내되여 갔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바로 옆자리였다. 너무너무 놀라와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앞으로 보니 《리인모》라는 내 이름이 똑똑히 씌여 있는것이 아닌가. 나를 그 자리로 안내해준 일군은 나의 귀에 대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잡아 주신 자리라고 알려 주었다.

그이께서는 마음 놓고 앉아 있으라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내주시였다.

대회가 시작되자 대회장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는 로병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우리는 1950년대에 바로 이 구호를 웨치며 미제와 리승만괴뢰역도를 무찌르는 싸움에 나섰다. 40여년이 지난 1990년대에 또다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들으니 실로 감회가 무상했다.

대회장의 주석단 나의 옆에는 바로 1990년대 우리 인민군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앉아 계셨다.

지구상의 곳곳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세계제국주의가 련합세력을 이루어 이 땅의 사회주의를 단숨에 질식시키려고 덤벼들 때 무비의 담력과 단호한 결심으로 적들의 광란을 일격에 짓부셔 버린분, 적들에게는 《판단의 정확성, 결심의 단호성, 타격의 무자비성》으로 《지구가 깨여 진》듯 한 공포를 안겨 주고 인민들에게는 충성의 귀감으로 가장 뜨거운 사랑과 의리를 심어 주신분, 이 나라 인민을 일

심단결된 무적의 천만대군단으로 되게 하신분이시였다.

그분의 준전시상태명령일성에 온 나라는 하나로 되여 일떠섰고 150만의 청년들이 군대에 탄원해 나섰다. 사로청원들은 500만의 총폭탄이 되겠다는 사로청 제8차대회 결의를 실천에 옮길것을 서약해 나섰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민족의 신념이였고 의지이시였다.

그날 회의장에서 돌아 오자 나는 일군들에게 기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이란 원래 성미에 맞지 않고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온 나였지만 이날만은 감격과 기쁨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다.

그날 찾아 온 기자들에게 한 말을 나는 그대로 옮기려 한다. 그것은 나에게서 또 하나의 신념으로 되였기때문이다.

《나는 오늘 위대한 태양을 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처음 만나 환히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찬란한 태양 같았다. 분명 나는 위대한 태양을 보았다. 태양이 빛나니까 우리 조국의 래일은 창창하고 무궁하구나 하는것을 절감했다.》

나는 로병대회참가자들과 만났을 때 말했다. 비록 43년만에 76살 고령의 페인이 되여 돌아 왔지만 나는 잃은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것은 진심이다.

철창안에서 34년, 철창밖에서 9년, 비록 청춘을 다 보내고 80이 불원한 늙은이로 불구의 몸이 되여 돌아 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잃은것이 없음을 절감했다. 공자가 불혹이라고 말한 40대를 두번 포갠 고개

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 땅에서 나는 청춘도 행복도 다시 찾았다. 인간으로서는 열번, 백번 다시 태여난대도 다 누려 볼수 없는 그런 행복, 그런 청춘, 그런 빛나는 인생의 높이에 서게 되였다.

나는 그날 밤깊도록 잠들지 못하고 멀리 헤여져 있는 동지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그들에게 열번, 스무번 《나는 오늘 그분을 뵈웠소.》하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였다.

인생의 절정에서

사람의 한생이 40을 넘어 서면 내리막에 접어 든다고들 말한다. 그무렵이 인생에서는 절정이라는 의미에서라고 할가.

그러나 나는 80이 불원한 오늘에 인생의 절정에 올랐음을 느끼며 지나온 한생을 돌이켜 보게 된다.

오늘의 이 영광으로 말하면 어느 별세계에나 와 있는듯 하여 때없이 이 영광이 어떻게 차례진것인가를 새삼스레 생각해 보기도 한다.

어떤이들은 그만큼 고생했으니 응당 락을 누려야 하고 영광을 받을만 하다고들 말한다. 때로는 나의 안해나 딸, 손자, 손녀들에게서도 그 비슷한 말들이 불그러져 나를 곤혹케 한다. 고진감래라는 격이겠다. 허나 이 리인모에게는 그 말이 백천번 지당치 않다.

과연 남쪽땅의 감방에서 긴긴 세월 옥고를 치르면서 내 언제 어느 한순간이라도 오늘 같은 영광이나 인생의 절정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었던가. 또 이런 영광이 차례지리라고 생각하고 놈들의 갖은 악행

과 고문을 이겨 내며 《비전향장기수》의 길을 걸었던가.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이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원이였기에, 내가 5년간 살아 본 우리 제도가 너무 좋았기에 신념을 버릴수 없었고 꺾이울수 없었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원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 응당한것이였다. 또한 더 단순화한다면 사상과 신념으로 구별되는 참인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감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음의 기둥으로 되여 주셨고 감옥을 나와 남조선사회의 탁류속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나의 신념과 의지를 지켜 주시였기때문이였다. 미일제국주의와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 각양각색 적들의 발광적인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면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지켜 냈기때문이였다. 나의 신념과 의지를 지켜 준것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으며 우리 인민이였다.

그러고 보면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그리고 우리 인민에게 천만번 큰절을 올려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영광과 사랑만을 받고 있다.

전국로병대회와 전승 40돐기념 열병식에 참가한지 얼마후인 8월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집에 록화기, 텔레비죤, 록음기를 비롯한 선물과 함께 안해의 젊은 시절 소원이였던 피아노까지 보내주시였을 때 안해는 감격에 겨워 울었고 나는 전국로병대회때 만나주시던 그이의 사진을 우러러 보며 부르짖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이렇게 사랑만 주시면 이 리인모는 어떻게… 어떻게 하랍니까?》

백두산과 정일봉,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끝 없는 경건속에 돌아 보고 집으로 돌아 오니 이번에는 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생일상이 나를 울게 했다. 안해도 딸도 울었다. 세상에 혼이라는것이 있다면 어머니도 지하에서 울으셨으리라. 내 어릴적에 생일날이면 30리길을 걸어 내가 있는 외가집에 찾아 왔다가 허전하게 돌아 가시던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가 지금도 있다면 나에게 말했을것이다. 유복자로 태여나 아버지없이 자랐고 거의 한평생을 어머니 지어 주는 밥을 모르며 80에 이르렀지만 너에게는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10월 12일 어느 해외교포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올린 이불을 보내주시였을 때 나는 그분의 사진을 눈물속에 우러르며 부르짖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정녕 이렇게 사랑만 주시면 저는 어떻게 하랍니까? 이 리인모가 뭐라고 이런 사랑까지 주십니까?》

사진속에서 변함없이 자애로이 환히 웃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며 대답을 주시는듯 했다.

《우리 인민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인민들이 바라는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고 싶습니다.

리인모동무는 우리 인민의 한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점차 내가 받아 안은 사랑이 이 땅에 사는 인민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베풀어 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랑이라는것을 깨달

아 가고 있다. 이렇게 나는 76살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품속에 사는 인민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쓰고 또 써도 다 쓸수 없는것이, 하고 또 해도 끝낼수 없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여기에서 두터운 책으로도 못다할 수많은 이야기를 대신하여 미흡하나 내가 지난해 가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올렸던 헌시를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린 헌시

1. 나의 운명을 두고

죽은 자는 산 자로 될수 없나이다
지옥행은 락원행으로 바뀔수 없나이다
하건만 나의 운명은
인생의 이 궤도를 부정하였나이다

저는 다 죽었던 사람
남쪽의 옥방에서 이름 석자도 없이
수인번호로 불리우던 몸
숨 쉬는 화석이였습니다
시들어 버린 고엽이였습니다

허나 내 오늘
지옥의 관문에서 벗어 나
세상이 다 아는 리인모로 되였습니다
인생의 청엽으로 생기가 넘칩니다

이런 행운을 두고
남쪽사람들은 말합니다

신화속의 《운명의 신》이
베풀어 준 은총이라고

아니옵니다
저에게 행운을 주신분은
위대한 인간이신
은혜로운 **김정일**, 당신이옵니다

정녕 넘지 못할 분단선을 뚫고
죽은 몸을 꽃수레에 태워 오신 당신이옵니다
수령님곁에 저를 세워 주시고
친히 슬하에도 불러 주신 당신이옵니다

하기에 내 오늘
운명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저의 운명은 자애로운 당신
민족과 인류의 운명도 위대한 당신

저는 심장으로 말합니다
거룩하신 **김정일**, 당신은
진정 운명의 《신》이십니다
둘도 없는 우리 운명의 구세주이십니다

2. 사랑에 대한 생각

남쪽의 차디찬 감방에서
홑옷을 걸치고 떨던 몸
지금은 따스한 이불을 덮고
편히 침대에 누워 자다가도
문득 깨여 나 생각하는것
내 이 사랑을 다 아는가

지팡이인생으로 시들던 이 몸
오늘 손자의 손목을 잡고
정다운 내 집 정원을 거닐다가도

문득 멈춰 서서 생각하는것
내 이 사랑을 다 아는것인가

사랑을 받기는 쉬워도
사랑을 알기는 어려운것
사랑을 모르고 살아 온 사람에게는
사랑이 클수록
더구나 다 알기란 쉽지 않은것

40여년세월
즙이 없는 삭막한 남쪽에서
사랑과 담을 쌓은 악의 세상에서
사랑이란 말조차 잊어 버린 저였습니다

그러나 분단선에서부터 목이 메였습니다
사랑과 사랑이 저를 품어 주었습니다
미처 알지 못한 그 사랑
어디서 오는것인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느꼈습니다
너무도 뜨거워 너무도 고마워
자애로운 **김정일**, 당신의 사랑인줄

내 숨 쉬는 공기에
내 몸에 비치는 해빛에
당신의 사랑이 꽉 차 있습니다
내 집 앞방에도 당신의 사랑
내 집 뒤방에도 당신의 사랑
웃층에도 아래층에도
당신의 사랑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끊임없이 아껴 주시고
내세워 주고 싶으신 그 마음속에
천하를 다 주고도 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자애속에…

제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큰 사랑도 있는가고
사랑밖에 밀려 났던 이 몸
70고개를 넘어 선 오늘에야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늦게나마 알고 웁니다

눈물이 말라 버린 이 늙은 몸도
고마워 울게 하는 사랑이옵니다
조국이 무엇이고 혁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사랑이옵니다
리기도 모르고 깨끗하게 살게 하는 사랑이옵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칼도 이기게 하는 사랑이옵니다

그래서 쉽게 외울수 없는 사랑
그래서 가볍게 받을수 없는 사랑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여
열렬한 사랑의 인간 당신은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시옵니다

3. 신념과 의지의 찬가

저를 신념의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제 어찌 신념의 화신이겠습니까
죽어도 못 버릴 나의 신념
그것은 **김정일**, 당신이 주신것입니다

저를 의지의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의지의 화신이겠습니까
숨져도 꺾이지 않을 나의 의지
그것은 **김정일**, 당신이 주신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념이라 함은
세상에서 가장 굳센 의지라 함은

그것은 위대한 강철의 인간
김정일, 당신의것이옵니다

당신이 계시기에
당신의 기질을 받은 저입니다
당신의 숨결을 받은
리인모입니다

유혹의 전향문이 괴롭힐 때마다
내 심장속에 계신분은 어버이수령님
불사의 힘으로 나를 지켜 주신분은
백두산의 아들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해가 바뀌여 머리가 희여 져도
언제나 당신은 나의 하늘이였습니다
그래서 30대 청춘기에도 그 신념
그래서 70대 황혼기에도 그 의지

당신은 강하십니다
강하여 언제나 이기십니다
만난을 웃음으로 이기시고
천지를 한손에 다스리시는 장군이옵니다

내 똑똑히 보았습니다
천하제일장군인 당신이 계시여 무적인
강한 신념과 의지의 우리 공화국을
언제나 이기는 기질의 인민을
언제나 이기는데 습관된 군민을

당신의 신념으로 력사가 흐르고
당신의 의지로 지구가 돌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이시여
참된 신념과 의지의 꽃다발을
이 로병은 영명한 당신께 드리옵니다

인생의 절정이란 온 행복의 절정을 의미하는것이다.

나는 이 땅에 사는 인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인민이 누리는 최대의 행복에 대하여 쓴 글을 우리 당기관지인 《로동신문》에 투고한바 있다. 《로동신문》편집부에서는 나의 변변치 못한 글을 성의 있게 편집해 주었다. 독자들도 이미 읽었을 글이고 앞의 수기와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글을 여기 그대로 옮기는것으로 수기의 마감을 대신하려 한다.

우리는 수령복이 있습니다

《로동신문》편집국 앞

저는 먼저 정신적자양을 주는 우리 《로동신문》편집국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사이 우리 당보를 통하여 많은것을 배웠고 세상을 보는 눈도 밝아 졌습니다.

저는 지난 날 종군기자였고 오늘도 여러 신문사들에 명예기자로 등록되여 있습니다.

종군기자의 마음으로 글을 쓰는것은 예나 지금이나 제가 우리 당으로부터 스스로 받은 당적분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분공을 잘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증번호 306호를 가진 로당원인 제가 당의 품으로 돌아 온지 만 1년만에야 당보에 겨우 한편의 원고를 투고하니 자책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저는 조국의 품에 안기자마자 종군기자답게 글을 써야 했으나 몸이 여의치 못해 이제야 당적분

공을 수행하게 되는 나약한 당성을 솔직히 반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뒤를 보며 후회 말고 앞을 보며 분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 늦은감은 있으나 저는 이제라도 심장이 뛰는한 당원의 본분을 다하고저 귀 편집국에 어설픈 이 글을 보냅니다.

1994년 3월 18일

리인모

....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인간에 대한 증오를 이긴 력사의 날로 말하면 아마도 제가 분계선을 넘어 사회주의조국의 품으로 돌아 온 3월 19일일것입니다.

그날로부터 1년세월이 흘렀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 가도 잊지 못할 나의 1년세월은 한생을 바쳐서도 얻을수 없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것을 얻고 깨달은 꿈 같은 365일이였습니다. 1년을 회고하면 감회가 뜨거워 자꾸 눈물이 납니다.

제가 남에서 보낸 43년이 삶을 빼앗기고 무덤에로 가는 죽음의 낮과 밤이였다면 북에서 보낸 1년은 새 생명을 받아 안고 최상의 행운을 누린 새삶의 분과 초였습니다.

지난 날 사람들이 수십년간 타향에 나가 살다가 귀향할 때면 금의환향이라고 출세를 하고 돌아 오는가 하면 재산을 모아 가지고 온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서울이나 일본 도꾜에 갔다가 사각모자를 쓰거나 코수염에 나비넥타이를 매고 돌아 온 사람도 보았고 《히로》담배를 피우

며 깨끗한 향촌의 정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쪽에서 인생의 고목이 되도록 40여년을 살다가 돌아 왔지만 가지고 온것이란 손잡이조차 떨어 진 빈 트렁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돌아 올 때 가지고 온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가지 우리 수령님과 우리 당, 우리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뿐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온 가장 소중한 정신적재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은 제가 남쪽에서 인생고초를 겪으며 굳혀 진것이였고 남쪽의 많은 지인들의 가슴속에도 그러한 뜻은 간직되여 있는것이라 보겠습니다.

저는 그사이 조국의 품에 안겨 살면서 많은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강하게 절감한것은 우리 인민이 수령복을 타고 났다는 그 점입니다.

제가 50년도에 남으로 떠날 때에는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만고의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만을 알고 갔는데 43년만에 다시 돌아 와 보니 또 한분의 장군이 계시여 정치를 하시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민이 숭상하는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시였습니다. 물론 저는 남쪽에 있을 때 《친지김동》으로 불리우시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조국에 와서 그분을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남들은 자기 민족사에 참된 령수를 한분도 모시지 못해 곡절을 겪고 있지만 우리 인민은 천하제일의 수령을 두분이나 모시고 있어 가슴을 내밀며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더우기 시국이 복잡한 이때 탁월한 무에 천재적인 문을 겸비하시고 수령님에 대한 각별한 충성심을 지니신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동지와 같으신 절세의 영걸을 모시고 있으니 지금 우리 인민이 얼마나 큰 덕을 입고 있습니까.

저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상과 인간상에 탄복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무릎을 치며 우리 인민이야말로 수령복이 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외우군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 하듯이 우리는 정말 수령복이 있습니다.

1. 장군중의 장군을 모시였습니다

시국이 좋을 때에는 장군을 잘 몰라도 어려운 때에 장군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형세에서 위인의 높이와 장군의 위용이 돋보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군은 고난속에 있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인상을 보았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말한다면 제가 조국에 돌아 와 생활한 지난 1년세월처럼 역경이 극한점에 이른 시기는 없었을것입니다.

미국과 서방자본주의련합세력이 동방에 있는 우리 조선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핵소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조국은 너무도 큰 어려움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쪽에 있을 때 우리 사회주의의 운명에 대해 당국자들이 늘어 놓는 험담도 들었고 언론매

체들이 떠드는 어지러운 랑설도 들었으며 지어 북을 동경하는 사람들의 걱정어린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북으로 송환된다는 말이 돌아 갈 때 하루는 서울에서 내려 왔다는 정체불명의 한 요원이 찾아 와 이북으로 돌아 가는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하면서 지금 모스크바도 넘어 지고 사회주의도 다 없어 지는데 이북으로 꼭 가야 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안기부》요원으로 보이는 그자에게 격한 심정으로 내 조국은 북이지 남이 아니다, 시국이 어떻든 내가 내 조국으로 가자고 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내 북행길을 막지 말라고 쏘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국에 돌아 온후 시국이 하도 험악해서 늘 남 다른 관심을 가지고 정세의 추향과 세계정치의 기상도를 지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하무적의 **김정일**동지를 모신 우리 조국은 끄떡 없었습니다.

미국이 남쪽으로부터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으로 우리를 위협하였을 때 명장의 지략과 담력으로 우리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다칠수 없다고 위엄 있는 명령으로 도발자들의 기를 꺾어 놓으신분이 영명하신 장군님이시고 국제적으로 《핵특별사찰》소동으로 우리 공화국의 최고국익을 침해하려고 하였을 때 령장의 결단과 의지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강도적론리나 강권행위가 통할수 없으며 그 어떤 위협과 봉쇄도 우리를 놀래울수 없다는 또 하나의 성명으로 조국의 운명을 지켜 주신분도 우리의 장군이시였습니다.

저는 세계가 불안과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던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누구도 내릴수 없는 위인의 용단과 장군의 위엄으로 조국을 구원해 주시였을 때 벌써 우리 조선이 장군을 잘 만난 덕을 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남쪽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다스리는 미국을 보아 왔는데 북에 와서는 그런 미국과 대등하게 마주 앉아 할말을 다하고 받을것을 다 받아 내는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경이적인 사변도 다 우리의 **김정일**장군을 모신 덕이라고 탄복하게 되였습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 남쪽의 설익은 호전분자들을 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겼을 때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할것이라는 철의 의지로 무모한 광기를 제압하신 분도 우리 장군이시였고 그들이 또다시 군사적인 압력의 방도를 선택하려 할 때 선택의 권리는 큰 나라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단호한 선언으로 형세를 뒤집어 놓으신분도 천하제일명장이신 우리의 **김정일**장군이시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장군이시야말로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는 강한분이시였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아도 그토록 강하신 **김정일**동지가 아니시였다면 어떻게 그 준엄한 준전시상태속에서 제가 그분의 품으로 돌아 올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저는 생명이 위급했던탓으로 말은 못했으나 마음으로는 북쪽사람들의 얼굴에 넘쳐 흐르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느끼였습니다.

북쪽사람들은 당의 품으로 돌아 오는 저를 환영하며 모두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끝 없는 인파와 꽃물결속에서 흘러 내린 그날의 눈물은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죽은 자를 산 자로 환생시켜 주시는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이슬이였다고 봅니다. 그때 벌써 우리 평양의 사회주의는 서울의 자본주의를 이겼습니다.

제가 조국에 돌아 와 본것은 모든것이 이기는것뿐이였고 강해 진것뿐이였습니다.

작년 7월 전승 40돐을 경축하는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 열병식과 무력시위를 기록영화에서 보고서도 감탄했지만 저는 우리의 자위력이 강해 진것을 보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마다 지난 전쟁때의 생각이 떠오르고 지리산빨찌산시절이 되살아 나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지난 전쟁때에 비하면 오늘의 우리 나라 무장력이 얼마나 강해 졌고 일심단결의 힘이 얼마나 세졌습니까.

이것이 다 수령을 잘 만난 덕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지도자동지를 모신 행운이 가슴에 부풀어 올라서 그날 저는 열병식장에서 돌아 오자마자 손자더러 우리 지도자동지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분이 너무도 좋아서 술을 한잔 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좋아 했으나 40년 가까이 옥방에서 살다보니 술을 마시지 못했고 요즘은 의사선생님들이 만류해서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동지의 덕에 국력이 세지고 천하에 두려울게 없다는 생각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 한잔 하였습니다. 술이란 이렇게 꼭 마셔야 할 때에 마셔야 제 맛도 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수령을 잘 만나면 작은 나라도 사상의 강국, 정치대국이 되고 군사강국이 된다는 말을 쉽게 들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도자동지이시야말로 사상으로 이기시고 지략으로 이기시며 담력으로 이기시는 위대한 영걸이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장군이라고 하면 용맹으로 싸우는 무인을 뜻하지만 우리 조국에서는 사상으로 세상철리를 밝히고 지략과 담력으로 대적을 무찌르는 문무를 겸비한 령수를 장군이라고 부른다고 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칭송하신것처럼 우리의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문무를 겸비하신 령장이십니다.

세계의 정치가들치고 사람들을 묶어 세우려고 하지 않는 정치가가 없지마는 그런 욕망을 실현한 정치가는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묶어 세우는것은 욕망이나 강요로는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위대한 사상의 힘, 정치의 힘, 사랑의 힘이 있을 때만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우리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정치와 사랑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보아도 그렇고 백두산으로 갈 때 량강도에서 보아 도 그렇고 인민군부대나 건설장에 가보아도 그렇고 온 나라 인민이 말을 해도 지도자동지의 뜻으로 똑 같은 말을 하고 걸음을 걸어도 지도자동지의 의지로 발걸음을 맞추는 일심단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에 온 외국의 공산당 총비서들을 여러사람 만났습니다. 어느 한 나라 공산당 총비서는 저의 손을 잡고 지금 조선의 사회주의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힘을 얻는다고 하면서 현 시대를 움직이는 지레대는 **김정일**동지의 손에 쥐여져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우리 지도자동지께서는 세상을 자신의 손바닥우에 올려놓고 움직이신다고 했더니 그도 나의 말에 동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겨야 장군이지 지면 장군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도자동지께서는 언제나 이기시는 장군중의 장군이십니다.

김정일동지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시인이 아니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가사를 써서 올렸습니다.

제가 남쪽에 있을 때 친분이 있던 한사람이 얼마전에 3국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여 왔는데 그는 리형이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가사를 썼다는 보도가 《부산일보》에 실렸다고 하

면서 그 가사와 악보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리형이 쓴 가사와 같은 세상이 반드시 올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정일동지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신념은 북쪽사람들의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쪽사람들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사대풍토에 제 정신을 못 가지고 큰 나라에 허리 아프도록 절을 하며 매워 사는 정상배들을 보아 오다가 자기 철학을 가지고 대국에 당당하게 맞서 배심 있게 민족의 대를 세워 나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정치상을 보고 남쪽의 뜻 있는 사람들은 저저마다 령도자를 잘 만나야 인간의 존엄도 빛나고 민족의 자주성도 선양되며 나라의 앞날도 밝다고 하면서 절세의 위인을 모신 민족의 행운을 두고 더없이 기뻐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단군이래 5천년의 우리 민족사에서 강성한 때도 있었지만 탁월한 수령과 장군을 잘 만난 덕으로 오늘처럼 우리 조국이 위대하고 우리 인민이 강대하며 우리 배달민족이 행성의 각광을 받는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2. 인간중의 인간을 모시였습니다

위인은 장군이기전에 위대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덕이 없는 장군은 검이 없는 무사와 같다고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역풍을 이겨 나가는 우리 조국의 승리는 어찌보면 위대한 인간의 승리이며 위대한 인덕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에 돌아 와 생활하는 나날에 위대한 인간이신 우리 지도자동지의 덕에 매혹되였습니다.

지도자동지의 덕과 인간상은 의리속에 돋보였습니다. 의리는 위인의 인격적향기이고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작년 7월 로병대회때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만나뵈왔습니다. 한없이 인자하시고 부드러우신 그분들을 만나뵙는 순간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제가 서툰 시에서 쓰기도 하였지만 인생의 고엽으로 말라 버린 저를 푸르싱싱한 청엽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영예를 주신 은인들이 아니십니까.

온 세상이 떠받드는 위대한 수령님을 또다시 뵈옵고보니 4월 탄신절날에 친히 병원에 있는 저를 찾으시여 어버이의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도 무엇인가 부족하신것만 같아 자신의 존함을 모신 금시계를 손목에 손수 끼워 주시고 40여년동안 그렇게도 품고 싶었던 조선로동당원증을, 그것도 몸소 수표하시여 직접 수여하여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 그 의리가 가슴에 사무쳐 올라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눈물로 얼굴을 적시였습니다.

저는 로병대회가 열린 이날 우리의 지도자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왔습니다. 그처럼 준수하신 모습으로 웃음을 지으시는 그분께서 저의 손을 따뜻이 잡아 주시며 정겹게 바라보실 때 저는 바로 이분이 저를 구원하여 주신 은인이시구나 하는 생각으로 목이 메였습니다.

남쪽의 쓸쓸한 양로원을 거쳐 남해가의 한 농가에 얹히여 살고 있던 이 로병을 모래불속에서 보석을 찾아 내듯이 알아 내시여 조국의 품에 데려오시려고 몇년동안이나 마음을 쓰시고 수백번의 가르치심을 주신 은인이라고 우러르니 저는 그 깊으신 의리와 사랑앞에서 눈물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남쪽대표단과 마주 앉아 회담을 할 때마다 저를 데려 오는 문제를 성사시키라고, 세계의 량심을 불러 일으키며 리인모송환투쟁을 벌리라고, 안해와 딸이 편지를 보내여 평양에 살아 있다는것을 알려 용기를 내게 하라고, 어느해 정초에는 올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리인모를 꼭 데려 와야 한다고, 리인모가 생명이 위급하다는데 그냥 남쪽에 있으면 죽을수도 있으니 빨리 조국에 데려다 살려야 한다고, 리인모를 데려 오지 못하면 자신께 보고도 하지 말라고, 리인모가 처자와 만나 한지붕밑에서 살면서 손자손녀를 앞세우고 모란봉에도 오르고 평양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보아야 마음을 놓겠다고 하신 인자하신분이 아니십니까.

제가 막상 돌아 올 때에는 리인모가 온다는데 우리 당의 간부들이 판문점에 나가 마중하며 온 개성시민들과 평양시민들이 모두 떨쳐 나서 환영하라고, 명의들로 치료대를 뭇고 명약도 아낌없이 다 쓰라고, 리인모가 살 집도 좋은 집으로 주고 료리사도 붙여 구미에 맞는 음식을 대접하라고, 리인모가 완쾌되면 로병대회주석단에도 수령님곁에 앉히고 전승기념열병식장에서도 주석단에 오르게 하자고, 백두산에도 가보고 고향에도 들

려 보라고, 고향의 소학교를 리인모소학교로 명명하라고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 우리 지도자동지이시였습니다.

더우기 제가 놀란것은 지난해 7월 피아노를 선물로 받던 때였습니다. 광복후 저의 안해가 학생들에게 음악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하루는 풍금을 사달라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돈을 마련하면 사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40여년동안이나 지키지 못하여 늘 마음이 괴로왔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동지께서는 저의 이 마음까지도 헤아리시고 친히 피아노를 선물로 보내주시여 제가 풀어 주지 못한 안해의 소원까지 풀어 주시였습니다.

저에게 이불을 일식으로 보내주신 지도자동지의 은정도 더없이 뜨겁습니다. 제가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느 한 나라에 있는 해외동포들이 지도자동지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성껏 지어 드린 귀한 이불을 받으시고는 저를 먼저 생각하시여 남쪽감방에서 언제 한번 이불이나 제대로 덮어 보았겠는가고, 자신보다 리인모가 덮어야 한다고 따뜻이 이르시며 자신께서 쓰셔야 할 그 이불을 친히 저에게 보내주신 자애로운 우리의 지도자동지이시였습니다.

며칠전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지도자동지께서는 제가 조국에 돌아 온지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고 합니다.

… 우리 당이 1년전에 왜 리인모를 데려 오자고 하였는가. 리인모로 말하면 34년동안이나 옥중에서 조국을 위해 싸운 전사이다. 아무리 정세가

긴장하고 준전시상태라고 하여도 리인모를 데려와야 우리가 혁명동지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것으로 된다. 우리를 믿고 30～40년을 싸워 온 동지인데 우리가 그를 구원하여 주지 않으면 누가 구원하여 주겠는가. 혁명가들에게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의리는 생명과도 같은것이다. 나는 그전에 외국의 한 책을 본 일이 있는데 나뽈레옹이 모스크바를 쳐들어 갈 때 많은 프랑스병사들이 죽거나 포로가 된 이야기가 씌여져 있었다. 그런데 나뽈레옹이 망하고 다른 왕조가 집정한후 프랑스포로들을 데려 가라고 하였으나 나뽈레옹때의 포로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고 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프랑스포로들의 운명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된것은 결국 령도자를 잘못 만났기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였다. 나는 리인모를 데려 올 때 그전에 보았던 이 책에 대한 생각을 다시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꼭 데려 와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렵기는 하였지만 투쟁을 벌려 리인모를 데려 왔다. 세계에는 옥중투쟁을 한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남조선에서와 같이 30～40년을 옥중에서 지조를 지켜 투쟁하면서 인생의 전부를 보낸 그런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투쟁한 동지들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 나는 이것이 우리 당이 전사들에게 베풀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혁명적의리가 깊으신 뜨거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자동지를 위함이라면 이 로병이 한줌의 흙으로 변해도 장군님을 받드는 고임돌로 굳어 지고 싶은 일편단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처럼 혁명적의리가 깊으시고 사랑과 인정이 두터우시였습니다.

저는 조국에 와서 《빛나는 삶의 품》이란 영화문헌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들을 보며 저는 **김정일**동지의 인간상에 매혹되여 저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지도자동지를 강하신분으로만 알았는데 그분께서는 정말 인정이 많으시고 눈물이 많으신 부드럽고 정다운분이시였습니다.

한 일군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지방에서 현지지도를 하시던 그분께서 전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억수로 퍼붓는 비를 맞으시며 사품쳐 흐르는 강물우에 놓인 철교의 침목을 하나하나 아슬아슬하게 더듬어 건느시며 그날 밤중으로 평양에 도착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께서 키우신 전사에 대한 정을 잊지 못하여 갑자기 불어 난 깊은 산 계곡의 강물우에 아아하게 놓여 있는 철길을 몸소 걸어 넘으시는 그분의 초상은 그대로 사랑의 조각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남달리 눈물이 많으시였습니다. 세속에 이르기를 참된 영웅에게는 눈물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도 눈물이 많지만 **김정일**동지는 눈물이 더 많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합니다.

한 전사가 병상에서 돌아 갔을 때였습니다. 지도자동지께서는 비보를 들으시고 황황히 오시여 싸늘한 전사의 얼굴에 자신의 볼을 부비시며 내가 왔는데 빨리 일어 나라고, 이렇게 눈을 감자고 나에게 그렇게도 정을 남겨 두었는가고, 앓으면서 그렇게도 나의 애를 태우더니 가서도 나를 울게 하는가고 하시며 우시고 또 우시였습니다.

저는 이런 영화장면을 보면서 용장일수록 눈물이 많다는 느낌이 들어 《장군님!》하고 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인정이 메마르고 덕이 없으면 울지 못하는 법입니다.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아 남달리 가슴 아파할줄 아는 위인만이 그렇게 울수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민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제일 귀중히 여기시는것은 우리 지도자동지의 애민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우리 지도자동지의 천하지대본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신은 우리 지도자동지의 정치적신앙이라고 봅니다.

사상도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이고 제도도 인민대중중심의 제도이며 정치도 인민대중중심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인것이 제가 안겨 사는 품입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말은 우리 지도자동지께서 처음 쓰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쪽에서 신세를 진 마음이 착한 김상원농민의 집에는 네 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에서 살고 있을 때 학비때문에 오고 가는 걱정어린 말을 늘 들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지금 우리 집에는 중학생인 손자애와 손녀애, 대학생인 손녀가 있는데 제가 1년세월이 되도록 그 애들이 집에 들어 와서 학비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것을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세상사람들이 다 놀라는 이 무료교육제도에도 우리 수령님과 우리 지도자동지의 《이민위천》의 사상,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꽃 피여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쪽에 있을 때 부산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였었는데 그때 엄청난 치료비때문에 저도 걱정이 컸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재야인사들의 걱정이 더 컸었습니다. 인정은 있어도 금전이 딸려 걱정하는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바늘방석에 누워 있는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조국에 와서도 몇달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때문에 몹시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안해에게 치료비때문에 집에 부담이 많겠다고 말했더니 안해가 하는 말이 무상치료제이기때문에 돈 한푼 내지 않으니 걱정 말고 치료나 잘 받으라는것이였습니다. 정말 우리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고마움은 사람을 울게 하는 혜택이였습니다.

저는 이런것을 두고 수령을 잘 만난 수령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지도자동지의 겸허하신 성품에 대하여서도 느낀바를 한마디 쓰려고 합니다.

지난해 전승 40돐경축 열병식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주석단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뵈옵게 되였습니다.

원래 저는 그날 원수복을 입으신 지도자동지의 모습을 뵈올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뵈온 지도자동지의 복장은 원수별이 새겨 진 장군복이 아니라 옛날 제가 풍산에서 살 때 입던 닫긴형의 수수한 옷차림이였습니다.

우리 지도자동지의 소박한 옷차림을 보는 순간 저는 또 한번 그 겸허하심에 경탄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소박과 겸손은 미덕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지도자동지이시야말로 《위대한 평민》이시였습니다.

그러니 인민들이 왜 우리 지도자동지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미덕의 힘은 강합니다. 위대한 사랑과 미덕을 지니시였으니 어찌 만사람들이 지도자동지품으로 구름처럼 모여 들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인간중의 인간이십니다. 우리 인민이야말로 인간중의 인간을 령도자로 모신 수령복이 있는 인민입니다.

3. 제스스로 가다듬는 마음

우리가 수령복을 타고 난 인민이라면 위대한 수령을 잘 모셔야 한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령을 모시는 내 마음속에 어지러운것이 있지 않는가고 스스로 눈을 밝히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원래 제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들어 모시는 전사의 구실을 잘하자면 지난해 판문점을 넘어 오자마자 당중앙에 먼저 찾아 가 그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부터 드려야 하였으나 그만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당원으로서 처신을 바로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비록 인생의 황혼기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고 몸으로는 수령을 철석같이 옹위할 성벽이 될 각오를 가지고저 합니다.

우리 수령님과 우리 지도자동지를 순간도 잊어서는 안되겠다고 저는 늘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들을 순간이나마 잊는다면 그분들의 권위에 그늘을 지으는 일도 무심히 스쳐 버릴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한 해외교포인사가 우리 집을 방문한적이 있었는데 54살이나 된다는 그가 조선말을 몰라서 통역을 가운데 앉혀 놓고 떠듬거리는것을 보니 불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다못해 한마디 하였습니다. 나는 40년나마 남쪽에서 살면서 경상도사람도 만나고 서울사람도 만났지만 남쪽말씨는 배우지 않고 계속 이북말을 썼다,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이 제 나라 말을 할줄 모르니 안됐다, 나는 지금 외국인을 만난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 사람이 잊을게 있고 잊지 말아야 할게 따로 있지 우리 수령님과 우리 지도자동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존함만은 꼭 조선말로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포인사는 저와 상봉의 기쁨을 나누려고 찾아 왔다가 부끄러움을 느끼며 앞으로 조선말을 인차 배워 가지고 다시 찾아 와 조선말로 인사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 사람처럼 수령을 모시는 자세가 깨끗하지 못할가 봐 걱정이 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을 또 채찍질하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목숨 바쳐 지킬 결심도 굳히고저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살아 보아야 사회주의가 좋은줄을 알게 되고 사회주의에서 살아 보아야 자본주의가 나쁜줄을 알게 되는것 같습니다.

저는 남에서도 살아 보고 북에 와서도 살아 보니 죽어도 못 버릴것은 사회주의요, 살래도 못 살 곳은 자본주의임을 통감하였습니다.

남조선은 소수의 가진 자들은 호화판에 사는 부익부의 세상이지만 못 가진 다수의 근로자들은 눈물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 가는 빈익빈의 세상입니다.

다수의 가난우에서 소수가 호화를 누리는 세상이 참세상일수 없고 그러한 삶이 참삶일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나 물건은 오늘 있다가도 래일은 없을수도 있고 래일 있다가도 다음날에는 또 없을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도 빈자도 없이 다같이 고르롭게 잘 살게 하는 사회주의만은 언제나 우리 인민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령을 모시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마음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받을줄만 알고 나라에 바칠줄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은 밝지 못하고 어지러운 법이라고 봅니다. 더우기 모든것을 공짜로 가지고 싶어 하는 리기심을 순간이나마 가지면 안되겠다고 저는 늘 자기에게 말합니다. 만일 자기만을 생각하는 리기심이 있으면 수령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식구들이 덕을 입기만 하는데 버릇되면 리기심이 생기고 정신이 병들가봐 걱정합니다.

받는데 습관될것이 아니라 바치는데 습관되여야 수령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수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는 당조직관념이 부족한 점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당에 당비를 바치는것도 당과 수령에게 자기의 순결한 충성의 마음을 바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당비를 바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버이수령님께서 저를 찾으시여 친히 당증을 수여하시자 저는 그 다음날로 남쪽에 가서 43년동안 물지 못했던 당비를 한꺼번에 바치였습니다. 늦기는 하였지만 밀린 당비를 바치는것이 당원의 도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당비를 물면서 당조직앞에 그동안 마음이 어지러웠던적은 없었던가고 스스로 자신을 총화하며 옥살이가 하도 고통스러워 순간이나마 자결할 생각도 하였고 전향문생각도 해보았던 점을 부끄럽게 돌이켜 보았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저 보고 그저 건강해서 텔레비존화면에 얼굴만 보여도 힘이 되고 기쁘겠다고 말하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앞에 큰 위훈도 세우지 못한 제가 나라의 큰 국록을 받고 있는데 일을 안하면 되겠습니까.

복속에서 복을 모르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남쪽에서 우리 수령님이 너무도 그리웠고 우리 당의 품이 너무도 그리워 언제이면 이 소원이 이루어 질가 애 태워 온 저로서는 모든것이 성취된 오늘 누리는 만복을 잊지 않으려고 애 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매 시각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렵니다.

- 아침에 깨여 나도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생각부터 하자.
- 일을 하여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수령님과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일하자.
- 밤에 잠들 때에도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안녕을 먼저 기원하자.
- 꿈을 꾸어도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에 대한 꿈을 꾸자.
- 수령복을 누리면 수령께 충성을 바칠줄 알자.

슬픔의 7월

나는 나의 이 수기를 이렇게 끝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나에게 삶을 돌려 주었고 40년은 더 살수 있다고 고무해 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시다니! 믿을수 없었다.

5월과 6월 신문과 텔레비죤에서 나는 거의 매일같이 건강하신 수령님의 모습을 뵈왔었다. 외국의 크고 작은 여러 대표단을 매일같이 만나시고 외국에서 온 많은 항일투쟁연고자들을 만나시고 또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고… 6월 말에는 북남최고위급회담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남조선당국자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오러 평양으로 들어 온다는것이였다. 그때의 격동되였던 심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드디여 통일이 왔구나 하는 가슴 벅찬 느낌이였다. 그러나 사실 말하면 그 충격은 김영삼이 평양으로 들어 온다는데서 비롯된것이 아니였다. 김영삼의 평양행은 이미 이 땅을 밟을 자격조차 잃은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 준 위대한 수령님의 관대한 처분의 결과일뿐이였다. 김영삼이 온다고 하여 감동되거나 기대를 가질 사람이 이 북쪽땅에는 없었다. 《개꼬리 3년에 황모될가. 기생오래비 같은것! 흰 기발을 들고 오는거라구. 그것밖에야 들고 올 기발이 있나? 원래 제 기발이란게 없는 놈인데!》하고들 말했다.

누구의 생각이나 평양에서의 최고위급회담에 이어 서울에서 열릴 최고위급회담에로 가 있었다. 나도 같았다.

이제 우리 수령님께서 서울에 나가신다면!

남녘의 산야에 어버이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육성이 울려 퍼진다면 이름 없는 봉분에 묻혔던 우리 동지들도 모두 뛰쳐 일어 나 만세를 부를것이다. 최후의 순간에 북녘하늘을 우러러 부르던 《**김일성**장군 만세!》,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남녘 땅의 산과 들에 《**김일성**장군 만세!》의 합성으로

메아리칠 때 그것은 곧 삼천리 이 땅이 하나로 된 통일일것이다!

일찌기 1920년대부터 긴긴 세월을 우리 민족의 태양으로, 전설적 영웅으로, 우리 겨레의 구세주로 우리 인민과 함께 살아 오신 위대한 수령님!

나는 남쪽땅에 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을 맞을 기쁨으로 들끓었다는 1945년 8월의 서울역두에 대해 여러번 들었었다.

전라도출신의 한 동지는 자기 부친이 그때 조국에 개선하시는 장군님을 뵈옵겠다고 보리밥을 꿍져들고 서울에 올라 가 역앞에서 보름나마 지새웠던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다. 그의 부친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장군님께서 꼭 서울로 나오실 때가 있을것이니 너희들이 나를 대신하여 장군님을 뵈옵고 인사를 올려라.》고 유언했다고 한다. 하면서 그 동지는 자기 집에서는 해마다 가을걷이를 끝내면 어떤 흉년에도 제일 좋은 찹쌀을 알알이 골라 고이 보관하는것이 가풍으로 되여 있다는것이였다.

그 심정은 남녘민중의 공통된 심정이라고 나는 확언할수 있다. 나는 그 땅에서 43년을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돌벽이나 무덤 같은 안전을 느끼는지 마음 놓고 이야기들을 했다. 그것은 곧 우리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온 민족이 통일의 환희에 휩싸일 7월과 8월에 대해 상상해 보았다. 아, 우리 수령님께서 긴긴 80평생을 바쳐 오신 위업이 오늘에 와서 열매를 맺게 되였구나. 조국의 통일에 대해 한시도 잊으신적 없는 어버이수령님, 인민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외국기자의 물음에

《통일된 조국》이라고 대답을 주신 우리 수령님, 수령님의 그 념원, 우리 민족의 념원이 실현되는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

7월 9일 12시, 믿을수 없었다. 나는 절대로 그럴수 없다고, 오보라고 소리높이 온 세상이 다 듣게 웨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단 한마디도 입밖에 낼수 없었다. 아니, 아무런 말도 생각나지 않았다.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것이 깡그리 허물어 져 버린것 같았다.

금수산의사당 조의식장에서 조용히 누워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뵈왔을 때는 눈앞이 캄캄해 지기만 했다.

《어버이수령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이 무너졌단 말입니까. 제가 한평생 지켜 온 마음의 기둥이 허물어 졌단 말입니까.

다 죽었던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수령님께서 생신날에도 쉬지 않으시고 저를 찾아 주시고 앞으로 40년은 더 살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먼저 가시면 저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조의록에 남긴 이 글줄이 과연 나의 마음을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담을수 있겠는가.

나는 담당의사와 간호원을 만났을 때는 말대신 그들의 옷깃을 잡아 흔들기만 했다. 어찌하여 다 죽었던 나 같은것을 이렇게 되살리고 건강하게 만든 당신들이 그토록 건강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생명을,

우리 민족의 심장을 지키지 못했소? 왜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지는 못하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여러가지 기적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전국각지의 위대한 수령님동상우에 백로가 날아 들고 큰비가 내렸고 잠자리의 떼군단이 하늘을 덮었고 백두산에서는 천지물이 끓어 번지고… 허나 이것은 모두 기적이 아니라고 나는 부르짖고만 싶다. 설사 바다가 말라 산으로 되고 산이 바다가 되였다고 해도 그것은 기적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오늘 이 세상에는 단 한가지만이 기적으로 될수 있으니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이 다시 고동치는것이다!

슬픔의 7월, 비애의 7월, 우리 민족에게서 7월은 영원한 비애와 슬픔의 달로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7천만 우리 민족의 태양이실뿐만 아니라 세계 피압박인민들의 구성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를 두고 세계는 말했다.

《세계혁명은 자기의 위대한 보루를 잃었다.》, 《세계는 현 시대의 가장 걸출한 위인을 잃었다.》, 《파란 많은 력사의 로정에서 거성이 떨어 졌다.》

내가 변변치 못한 필력으로나마 《우리는 수령복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쓴 때로부터 불과 열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력사에 다시 없을 두분의 위인을 수령으로 모신 우리 인민의 행복에 대하여 썼었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신것이다. 금수산의사당조의식장에 서계시던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려 온다. 너무도 수척해 지고 너무도 심려하신 모습이시였다. 자

나깨나 그분을 만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저희들을, 우리 인민들을 생각하시여 건강을 돌봐 주십시오. 우리에겐 이젠 위대한 **김정일**동지밖에 없습니다!》하고 말씀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였다.

혁명과 건설의 세계를 충만시키고도 남을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이어 나갈 수령으로 내세워 주신것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대한 비보를 받았을 때 캄캄해 지던 세상과 천길나락으로 떨어 지는듯 하던 이 마음, 이 몸을 붙들어 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생각한것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신다. 우리 당과 국가의 수위에,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그이께서 서계신다. 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슬픔과 비애는 절망의 슬픔이였을것이며 동서남북을 잃은 혼란의 비애였을것이다.

그 순간부터 나는 줄곧 생각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곧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어 모시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지켜 드리는 길이다.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이 흥할수 있는 길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어 모시고 일편단심 그이만을 따르는데 있다.

슬픔과 비애의 눈물이 만수대언덕을 적시던 그 어느 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발을 몸으로 막으며 화환을 들고 수령님동상으로 올라 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일군들에게 우리는 참으로 인민복이 있다고 하시며 이런 인민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세계 그 어느 위인이, 그 어느 수령이 인민복이라는 말을 한적이 있었던가. 그 말은 오직 한분밖에 없으신 우리 수령,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말이였다.

수령을 믿고 따르는 인민, 인민을 무한히 믿고 사랑하시는 수령,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이 땅의 오늘이다.

하기에 나는 내 땅, 내 조국의 필승불패를 믿는다. 백전백승을 믿는다.

자나깨나 오직 위대한 **김정일**동지만을 생각하자. 그이께서 인민들을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만분의 일만이라도!

위인을 알고 위인을 따를줄 아는 인민은 위대한 인민이다. 더듬어보면 그런 민족, 그런 인민은 력사의 갈피마다에 자기의 자취를 남겼다.

위대한 수령님의 시대에 우리 인민은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사회주의강국을 세웠으며 세계만방이 부러워 하는 주체의 조국으로 되였다. 이전 쏘련인민들은 레닌과 쓰딸린시대에 력사상 첫 사회주의국가를 세웠고 파시즘을 격멸했으며 중국인민들은 모택동의 령도하에 번영하는 새 중국을 세웠다.

인민대중의 혁명투쟁력사는 혁명의 수령의 투쟁력사이기도 했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을 오직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파란만장의 70여성상을 헤쳐 오신 수령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사에 있었던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처럼 혁명위인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지니고 인덕정치, 광폭정치로 수령, 당,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한 수령이 세계 어디에 있었던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영상을 뵈옵고 그이의 존함을 들을 때마다 나의 가슴속에서는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신념의 노래가 높이 울린다.

그렇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이긴다. 그이의 이름은 곧 승리의 상징이며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따라 갈 때 우리 인민의 앞에는 오직 승리만이 있을뿐이다. 이것은 력사를 통해 검증된 진리이다. 내 한평생을 바쳐 절감한 절대적진리이다.

나는 이 땅에 사는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는 이 진리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것으로 심어 져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나… 진리란 위력한것이지만 저절로 지켜 지는것이 아니다. 나는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언제 어떤 정황에서나 목숨 바쳐 수령을 보위할 줄 알라고!

위인을 모르고 위인을 지킬줄 모르는 인민은 불행과 치욕에로 가는 인민이다. 이는 인생말년에 이른 늙은이의 로파심이 아니다. 나는 거의 한평생을 적

후에서 살았다. 여러분들은 적의 교활성과 악랄성을 너무도 모른다.

이 땅에 조국통일의 민족성업이 앞에 있고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한 나의 마지막말은 언제나 변함 없을것이다.

수령을 보위할줄 알라!…